襄陽의 漢詩

襄陽文化院

襄陽의 漢詩

襄陽文化院

발간사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보내면서 토끼해인 신묘년 새해에는 지난해의 나쁜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양양군은 1963년 속초읍이 시로 승격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고성군 토성면과 죽왕면이 우리 군(郡)이었던 광활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설악산은 물론 관동팔경인 청간정과 낙산사가 위치하고 있어 옛날부터 산자수명하고 풍물이 뛰어난 고장입니다.

우리문화원에서는 1990년에 발간한 『양주지』를 20년 만에 내용을 보완하고 폭넓은 고증을 통하여 『양양군지』로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양양군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한시가 많이 발췌되었습니다만 이를 다 수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부임하셨던 수령과 부사들께서 고을을 살피면서 창작하신 한시와 우리 고장을 찾으셨던 존무사(存撫使)나 관찰사, 시인 묵객과 선현들이 명승고적과 풍광을 칭송하여 읊으신 명시들이 많이 전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소홀히 하여 무관심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강원도립대학 양언석 교수께서 각종 문집에서 발췌한 많은 명시들을 한데모아 『양양의 한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문을 살펴 볼 때 양양고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함은 물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지난날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모습을 담은 시구들을 접함으로서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짐

작하게 하며 유명한 인물의 묘사나 역사적인 사실의 고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예찬한 명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신라시대에 화랑들이 순유하였다는 설화를 간직한 곳으로서 절경과 경승지를 노래한 시가와 전설이 많이 전하여 오고 있음으로 『양양의 한시』를 통하여 재조명 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짧은 부임기간동안 이지만 이해조 부사님께서 우리지역의 명승고적을 두루 순방하면서 지은 "현산 삼십경"은 이미 소개한 바 있으나 이해조 부사의 스승인 김창흡 선생의 화답시가 있어 재차 소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시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발굴하고 수집하여 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양양의 한시』가 청소년을 비롯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운사(韻士)님들과 군민 모두에게 널리 읽혀져 양양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0. 12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머리말

미래 사회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양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양양의 자랑이었던 동헌과 태평루, 낙산의 이화정 등이 모두 사라져 버린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양양고을의 뿌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도록 노력해야한다.

양양은 신라시대부터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고, 불교의 성지로 왕과 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찾아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한 시는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이다.

매월당 김시습은 四美(좋은 계절, 아름다운 경치, 놀고 싶은 마음, 노는 일)를 즐기겠다고 말했다. 단종을 위해 평생을 방랑하면서도 양양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매월당이 의지하고 믿었던 양양부사 유자한이 예로서 벗을 맞아주자, 四美를 양양에서 즐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유년시절 양양의 한학자이신 祖父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祖父께서 지인들과 詩會를 즐기실 때 하루 종일 옆에서 먹을 갈아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글 읽는 것이 싫어 朋友와 벗하다가 목침 위에서 매를 맞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천부적으로 '學而時習'보다는 매월당의 四美를 더 즐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문의 길에서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양양에 관한 고려와 조선조 최고 문인들의 작품을 행복한 마음으로 수집하고 번역하였다. 아직도 많이 버려지고 산재해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의 수집이 아쉽다.

작품의 오자나 탈자, 그리고 번역과정에서의 오류는 정정하였다. 다만 아름답게 번역한 작품들을 가능하면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양양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강원도립대학 양 언 석

1

김부의(金富儀)

낙산사(洛山寺) -
양양부에서 북쪽으로 십오 리 오봉산 중에 있다
(襄陽府北十五里五峰山中)

한번은 해안 높은 언덕에 올라	一自登臨海岸高
머리 돌려 멀리 바라보니 세상 티끌 없네	回頭無復舊塵勞
대성(大聖-관음보살)의 깨달음 이치 알고 싶은데	欲知大聖圓通理
산근(山根)에 부딪치는 노한 파도 소리만 들리는구나	聽取山根激怒濤
한밤 중 동쪽 바다에 해가 솟아오르고	半夜銀輪湧海東
불어오는 바람결에 붉은 구름 날리네	長風吹散彩雲紅
맑은 빛 어룡굴을 바로 비치니	淸光直射魚龍窟
물가의 전각에 물결은 유리처럼 흩어지는구나	照破琉璃水殿中

『金剛山詩集』 下篇

김부의(문종 33년, 1079년~인종 14년, 1136년)는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초명은 부철(富轍), 자는 자유(子由)이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富軾)의 아우로 숙종 2년(1097년) 문과에 급제하고 직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예종 6년(1111년)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추밀원부사 김연(金緣)을 따라 송나라에 가서 문명을 떨치고 귀국하여 감찰어사가 되었다. 인종 2년(1124년)사은부사로 송나라에 다녀왔고, 대사성과 이부·호부·예부의 3부상서(三部尙書)를 거쳐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이 두 편의 시 중에 첫수는 高, 勞, 濤의 운자를 썼다. 낙산사의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세속에 대한 순화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곳에서 의상과 같은 고승들이 득도한 곳으로 그 이치를 터득하고 싶은 소망으로 찾았지만 자신에게는 깨우침의 공간이 아니라 다만 파돗소리 밖에 들을 수 없는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둘째 수는 東, 紅, 中의 운자를 썼다. 한 밤 중에도 흰 물결이 일고 일출 전에 붉은 구름이 바람에 흩어진다. 아침 해가 홍련암의 해안 석굴을 비추자 파도의 포말들이 영롱한 구슬이 흩어지는 느낌에서 관음의 진상을 대하는 것처럼 경이함을 느끼고 쓴 시이다.

2 동행기(東行記)

서하(西河) 임춘(林椿)

세상에서 산수를 논하면서 강동(江東)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조물주가 하늘이 물(物)을 창조할 때에 진실로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 어찌 한 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다.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보았다.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또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명주(溟州), 원주(原州)의 경계부터는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이 더욱 높고 물이 더욱 맑았다.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는데 모두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니, 딴 세상이 있는 듯 놀라워,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부족하여 감히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죽령(竹嶺)에서 서쪽으로 20여 리를 가면 당진(唐津)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않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凹凸)같아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을 내려 석벽(石壁)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하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가기를 잊었다. 어두운 저녁 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시(詩)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碧水溶溶色似藍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있듯	映波靑壁倒巉巖
만 리 길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	飄然萬里東征客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바람에 걸고 가네	獨掛秋風一幅帆

내가 동쪽 지방으로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 냥씩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두었다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명주(溟州)의 남쪽 재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자, 조그마한 성(城)이 있는데 동산(洞山)이라 하였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 빛이 어둑어둑하여지는데, 길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이런 풍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낸다.

밤에 객주집에서 잤다. 석벽에 기대어 무릎 꿇고 앉으니, 강물 소리 출렁거리며 그칠 줄을 모른다. 우레가 터지는 듯, 번개가 치는 듯, 사람의 머리끝을 쭈뼛하게 하였다. 부견(符堅)이 군사 백만을 거느리고 와서 강남(江南)을 공격할 때에 군사를 지휘하여 퇴각시키다가 엉겁결에 대오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어 장비와 물자를 다 내버리고 빨리 달아나던 모양과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웅장한 것인가. 마침내 시(詩)를 썼다.

바다에 나간 사람 반이나 되니 주민들은 적막하고	居民寂寞半溟濤
백 길이나 되는 산마루에 높은 건물이 솟아있구나	百丈峯頭揷麗譙
돛대 그림자 가볍게 날아오니 생선 파는 시장은 넓어가고	帆影輕飛魚市闊
물결이 다투어 주름지니 바다 어귀는 아득하여라	浪花爭蹙海門遙
싸늘한 황혼이 달빛을 띠고 말안장에 실려 왔는데	征鞍冷帶黃昏月
밤중 밀물 소리에 나그네의 베개머리는 시끄럽구나	客枕頻喧半夜潮
오강정 위에서 바라보는 운치만 못하지 않아	不減吳江亭上望
붉은 단풍 푸른 귤이 긴 다리에 비추는구나	丹楓綠橘映長橋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洛山) 서쪽을 지나는데, 길옆에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새싹이 뚜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 주위가 몇 십 보(步)나 되어 보이는데 특이하다.

소나무가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 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여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던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연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新羅)의 원효(元曉)와 의상(義相)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아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쳤고, 물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 수백 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이에 절구(絕句) 두 편을 지어 이를 그리워하였다.

일찍이 들었노라 거사인 늙은 불제자는	曾聞居士老維摩
지팡이를 휘날리며 허공을 건너서 만 리 길을 지나가네	飛錫凌空萬里過
벌써 문수보살을 보내어 문병하러 왔으니	已遣文殊來問疾
일 없이 비야리(중인도의 지명)로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不應無事出毘耶

이 작품은 원효를 가리킨 것이다.

지팡이를 휘날리며 좋은 곳을 찾아 외로운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飛錫尋眞海岸孤
묘한 양상 바라보니 허무에서 나왔네	親瞻妙相出虛無
대사로 인연하여 신령한 응답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不緣大士廻靈應
어떻게 신룡의 진주 한 덩이를 얻어 낼 수 있었으랴	爭得神龍一顆珠

이 작품은 의상(義相)을 가리킨 것이다.

한성(捍城)에서부터 북쪽은 가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전하는 총석(叢石), 명사(鳴沙)같은 곳은 모두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강동에서 구경한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만약 모두 구경하였다면 비록 수만 장의 종이를 다 쓰며 천 자루의 붓이 다 망가진들 어떻게 모두 적을 수 있었으랴. 옛날에 사마태사(司馬太史)는 일찍이 회계(會稽)에 가서 우혈(禹穴)을 구경하여 천하의 장관을 다 보았으므로, 더욱 대단하여 그 문장이 시원스럽고 웅장한 기운이 있었다.

무릇 대장부가 널리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구경을 다니어 천하를 휘젓는다면, 장차 그

가슴속의 수려한 기운을 넓히게 된다. 내가 만일 명예나 벼슬에 얽매어 있었다면 반드시 그 기이한 것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평소에 가졌던 뜻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이 나에게 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월일모(某)가 적는다.

世之論山水者。以江東爲秀地。余獨未信曰。造物 者。固無心於與奪。安肯私于一方邪。及遊南國。凡 以奇勝絕特自名者。咸所冥搜饜見。以爲天下之 奇觀。殆無出於此矣。又去而之東。自溟原一州之 境。風土特變。山增高水益淸。千峯萬壑。誇奇競秀。 民居其閒。皆側耕危穫。怳然若別造一世界。向之 所歷者。宜皆遜讓屈伏。無敢與抗矣。然後知混沌氏始判淸濁。混淪磅礴。獨凝結而爲是也。竹嶺之 西二十餘里。有水名唐津。下多細石。皆圓熟而靑 色。色徹而水碧。沉沉無聲。魚可數百尾。戲于石間。 左右皆巖巖積峙。壁立萬仞。如丹而碧之。崖谷之 勢。呀然窪然。若垤若穴。奇卉美箭。交生羅絡。影倒 水底。大略如此。而其奇麗不可狀。遂下馬斷岸口。 泛舟於石壁之址。舟中人語。山谷皆應。乃嘯詠自得。終日忘歸。蒼然晩色。自遠而至。其境過淸。不可 久留。吟一詩題之而去。碧水溶溶色似藍。映波靑 壁倒巉巖。飄然萬里東征客。獨掛秋風一幅帆。自余東邁。車轍馬迹之所及多矣。淸絕之地。莫有過 此者。如近置於京邑。則貴遊必日增千金而爭買 矣。以僻在荒壤。人罕能至。時時有獵夫漁老。過而 不顧。此必天將秘之。以待吾輩窮愁之人爾。至登 溟州南嶺。北出海畔。有小城曰洞山。人民聚落。蕭 然甚僻。登其城以望之。薄暮冥冥。道傍漁舍。燈火 隱顯。使人有懷鄕去國。凄然感極而悲者。夜宿傳 舍。倚壁危坐。江聲渭渭不已。雷輥電擊。竪人毛髮。 若苻堅以百萬之師。來伐江南。麾陣而却。驚潰不 止。弃器械輜重而疾走也。何其壯哉。遂題詩曰。居民寂寞半溟濤。百丈峯頭插麗譙。帆影輕飛魚市 闊。浪花爭蹙海門遙。征鞍冷帶黃昏月。客枕頻喧 半夜潮。不減吳江亭上望。丹楓綠橘映長橋。曉聞 村雞一號。行過洛山之西。路有孤松。節目磔砢。枝 幹屈盤。蔭地而周圍者數十步。異哉松之奇怪。世 復有如是者耶。洞天幽寂。雲水沉沉。殆非人閒之 境。仙靈之所居。高士之逸迹。宛然在焉。余感昔新 羅元曉, 義相二法師。親謁觀音於仙窟中。自歎其 骨凡氣俗。未遇而返。欲問遺事。則徒見其山長水 流。而數百年閒。故家遺俗盡矣。乃作二絕以懷之曰。曾聞居士老維摩。飛錫凌空萬里過。已遣文殊 來問疾。不應無事出毗耶。謂元曉也。飛錫尋眞海 岸孤。親瞻妙相出虛無。不緣大士迴靈應。爭得神 龍一顆珠。謂義相也。自捍城以北。未有所歷。若世 所傳叢石鳴沙。皆不目焉。則今之見於江東者。眞 大倉一稊稗耳。設使盡觀。雖窮萬穀之皮。禿千兎 之翰。安能盡紀耶。昔司馬太史。嘗遊會稽。窺禹穴 以窮天下之壯觀。故氣益奇偉。而其文頗踈蕩而 有豪壯之風。則大丈夫周遊遠覽。揮斥八極。將以 廣其胷中秀氣耳。余若桎梏於名檢之內。則必不能窮其奇採其異。以償其雅志也。有以見天之厚 余多矣。月日某記。

『東文選』卷之六十五, 記, 東行記

임춘의 출생과 사망날짜를 알 수 없다. 본관은 예천(醴泉)이고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

하(西河)이다. 고려 건국공신인 조부 중간(仲幹)은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충경(忠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부친 광비(光庇)와 백부 종비(宗庇)는 모두 한림원의 학사직을 지내 구귀족사회에서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이규보와 함께 고려의 중심 문인으로, 이인로, 오세재 등과 더불어 죽림고회(竹林高會)에 나가 술을 벗하며 문학을 논하여 고려 중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사람이다.

20세를 전후한 의종 24년(1170년)에 무신란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임춘의 일가가 화를 당하여 조상대대의 공음전(功蔭田)도 모두 빼앗겼다. 풀한 포기 심을 땅이 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개경에서 5년 정도 숨어 지내면서 출사(出仕)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가솔들을 이끌고 영남 상주의 개령으로 옮겨가 7년여의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실의와 고뇌에 찬 생활고를 하소연하는 것들이다. 김부식 이래로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당시 문풍(文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문집으로 『서하집』이 있으며, 한국 가전문학(假傳文學)의 작품인 「麴醇傳」과 「孔方傳」을 남겼다.

이 작품은 임춘이 우리나라의 산수는 江東 최고라는 말을 듣고 남쪽지방을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감회와 역사를 기술하였다. 낙산사를 찾아 옛날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두 법사를 그리워하며 두 편의 시로 감회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에 대장부가 먼 곳을 두루 여행해야만 가슴속 후련한 기운을 넓히게 된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명예나 벼슬에 얽매어 있었다면 기이하고 아름다운 승경을 탐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속세의 구속 없이 호방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관고(官誥)

동산수(東山叟) 최자(崔滋)

문하. 법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말로 인하여 세움으로 진승(眞乘)은 진언(眞言)을 총섭(總攝)하고, 덕은 일정한 스승이 없고 착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스승이 되므로, 큰 호(號)는 마땅히 크게 착한 이에게 가하여야 한다.

낙산사(洛山寺) 주지(住持) 선사(禪師) 조유(祖猷)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매(三昧)의 힘으로써 일체의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진양공(晉陽公)이 수십 일 동안 병을 앓고 있을 적에, 천리 밖의 낙가산(洛伽山)으로부터 갑자기 와서 용주(龍呪)를 외웠는데, 바리때 밑에 막 금강저(金剛杵)의 소리를 드날리자, 술잔 가운데에 비친 뱀이 곧 각궁(角弓)의 그림자인 것을 깨달았다. 이에 상쾌하고 화평한 기운이 빨리 돌아와 우뚝하게 태산이 다시 편안한 것 같았다. 나만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에 봉조(鳳詔)를 반포하여 특별히 큰 칭호를 준다.

아, 우리 여래(如來)를 제호(醍醐)라 이르나니 이것이 최상의 법장(法藏)이 되는 것인데, 어찌 선왕(先王)이 용상(龍象)에게 품계를 내릴 적에 선사(禪師)에게 큰 대(大)자를 더하지 않았던가. 작위는 반드시 사람을 기다리므로 등급을 초월하는 상을 내리노니, 마땅히 특별히 보살펴주는 뜻을 체득하여 더욱 국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官誥

門下° 法不自立因言而立° 眞乘摠攝於眞言° 德無 常師主善爲師° 大號宜加於大善° 洛山寺住持禪 師祖猷° 以頌持三昧力° 能攝伏一切魔° 當晉陽公 累旬而未寧° 自洛伽山千里而忽至° 呪龍鉢下° 才 揚金杵之音° 映蛇盃中° 旋覺角弓之影° 灑然和氣 之遄集° 屹若泰山之復安° 非朕獨嘉° 擧國咸喜° 玆 頒鳳詔° 特賜鴻稱° 於戲° 我如來謂之醍醐° 是爲最 勝之法藏° 何先王秩其龍象° 例不加大於禪師° 位 必待人° 賞以不次° 當體殊尤之眷注° 益勤福利於邦家云云°

『東文選』 卷之二十七, 制誥

최자(명종18년, 1108년~원종1년, 1108년)의 본관은 해주이고 초명은 종유(宗裕)·안(安), 자는 수덕(樹德), 호는 동산수(東山叟)이다. 문헌공 충(沖)의 후손이고, 부친은 우복야 민(敏)으로, 강종 1년(1212년) 과거에 급제하고 상주사록(尙州司錄)을 거쳐 국자감학유(國子監學諭)가 되었다. 10년간 중용되지 못하다가 일찍이 지어놓은 시 「虞美人草歌」와 「水

精盃」가 이규보(李奎報)의 눈에 띄어 최이(崔怡)에게 문한(文翰)을 담당할 사람으로 추천하였다. 추천받은 사람들 간의 시험에서 5번 장원을 하고, 5번 차석을 했으며, 고종 때 정언을 거쳐 상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전중소감(殿中少監)·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 충청도·전라도 안찰사, 국자감대사성·지어사대사·상서우복야·한림학사·추밀부사 등을 역임했다. 문신이면서도 무인정권기에 대표적 문벌로서 활동했다. 저서로 『崔文忠公家集』·『補閑集』이 있다. 『三韓詩龜鑑』에 시 1편이, 『東文選』에 부(賦) 2편, 시 10편 등이 수록되어 있고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유자량(庾資諒)

해안의 절벽 높은 곳	海岸高絕處
그 가운데 낙가봉(洛迦峯)이 있다	中有洛迦峰
큰 성인은 머물러도 머묾이 아니고	大聖住無住
넓은 문은 닫아도 닫음이 아니네	普門封不封
명주는 내가 탐하는 것 아니라	明珠非我欲
청조는 사람을 만났세	靑鳥是人逢
다만 원하노니 큰 물결 위에서	但願洪波上
만월 같은 관음의 모습 뵙고 싶네	親瞻滿月容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유자량(의종4년, 1150년~고종16년, 1229년)의 본관은 무송(茂松)이고 자는 담연(湛然)이다. 16세 때부터 유가(儒家)의 자제들과 교우하였으나 무인(武人)들과도 교제를 하여, 정

중부(鄭仲夫)의 난 때 화를 면하였고, 그와 사귀던 사람들도 모두 화를 면하였다. 대부소경(大府少卿)·병부시랑·형부시랑·대부경(大府卿)·지삼사사(知三司事)·판대부사재사(判大府司宰事)·태자첨사(太子詹事)·판각문사(判閣門事)·지다방사(知茶房事)를 역임하였고, 고종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가 되어 치사(致仕)하였다. 불교를 신봉하였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하였고, 헌안왕 2년(858년)에 범일(梵日)선사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스님인 익장(益莊)의 기문(記文)에 "양양 동북쪽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장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자 가량이 되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렁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굴 앞에서 50보쯤 되는 바다 복판에 바위가 있고, 바위 위는 자리 한 닢을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대사가 친히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하여 바위 위에서 자리를 깔고 배례를 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오히려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바위위로 붙들고 나왔다. 관음보살이 곧 바다 속에서 팔을 내밀며 수정염주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두 그루의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꼭지 위다. 거기에다 불전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安排)하라'하였다. 용도 또한 여의주와 옥(玉)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 봉안하였는바, 곧 이 절이다 하였다.

우리 태조(고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 가을에 사자를 보내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을 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에 적어서 항규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하여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1253년)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 방어 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의 노비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몽고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가져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례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다' 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1197년)에 유자량이 병마사가 되어 10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幞頭)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 한다 하였다.

낙산사의 금당(金堂)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圓通寶殿)이고 낙산사를 관음도량이라 한다. 또한 그 굴을 관음굴이라 하고 홍련암이라 부르는 암자가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크게 중수하고 주위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때 만든 성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강원도 고을 수에 맞추어 26개의 홍예석을 써서 조영

(造營)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낙산사 원통보전 주위의 담장은 기와를 이용하여 쌓은 것으로 불에 구워서 완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비바람에도 흙이 씻겨 내리지 않아 아주 튼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담장에는 동그란 돌로 심을 박아 보강을 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어 이곳이 곧 극락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봉산은 낙가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인도의 보타낙가산(普陀洛迦山)에서 연유된 것이다.

첫 수는 峯, 封 운 둘째 수는 逢, 容의 운자를 썼다. 고려 유자량이 병마사가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 위에 떨어뜨렸다. 유자량의 시에 명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조를 이 사람이 만난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이 관음의 진상을 뵙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5 상운역(祥雲驛)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변방에 별 일 없음이 여러 해　　塞上無塵況有年
꽃피고 새 지저기는 소리에 모두 즐거워하네　　花容鳥語尙欣然
천 수레 흰 눈 같은 실 뽑는 땅이요　　千車白雲繰絲地
만 이랑에 누런 구름 같은 보리를 베는 시절이네　　萬頃黃雲割麥天

어부의 낚시터엔 이끼가 뒤섞였고　　漁夫磯邊苔錯落
초동이 앉은 두렁 위엔 풀이 우거졌네　　樵童壟上草芊眠
오가며 훌륭한 경개 더욱 구경할 만한데　　往來勝槩尤堪賞
일찍이 시인을 시켜 몇 편이나 지었는가　　曾遣騷人得幾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김극기(1150년경~1204년경)의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호는 노봉(老峰)이다. 고려 명종

때의 문신으로 정확한 출생과 기록을 알 수 없다.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환로에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의주방어사를 거쳐 한림원에 들어갔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죽었다. 이인로는 김극기의 문집 『金居士集』의 서문에서 벼슬하지 않고 고고하게 지낸 것을 칭찬하며 김극기가 난새나 봉황 같은 인물이었다고 칭송하였다. 무리와 함께 산림에서 생활하며 벼슬에 미련이 없었다. 지금은 『김거사집』만이 전하며 『동문선』·『동국여지승람』 등에 여러 편의 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관동지에 의하면 상운역은 관문 남쪽 20 리에 있고, 대마 3필마, 복마 8필,역리 163명, 역노 69구, 역비 12구이다. 첫 수에서는 변방에 전쟁이 없는 태평연월이라 꽃 지고 새 지저기는 자연 속에 즐기며 풍요를 즐기면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였다.

둘째 수는 한가로운 어촌과 농촌의 한가로움을 완상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이 시작의 욕망을 불러일으킴을 노래하였다.

임춘의 동행기와 이곡의 동유기는 동해안을 순례하면서 낙산사에 이르러 쓴 글을 보면 낙산사는 신라 때부터 화랑의 순례지이고 고승들의 방문지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순례자나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6 강선역(降仙驛)- 부 북쪽 20리에 있다.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비는 비 머금은 버들을 스치고　　燕捎?舍兩柳
매미는 바람 띤 느티나무에 숨었네　　蟬翳帶風槐
사방을 바라보니 참으로 널찍하여　　四眺渾軒豁
나그네 회포가 절로 트였네　　客懷忽自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관동지에 의하면 강선역은 관문 북쪽 20 리에 있고, 대마 2필, 복마 4필, 역리 192명, 역노 18구, 역비 3구이다. 김극기는 벼슬에 미련 없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강선역에서 제비와 매미를 노래하며 나그네의 회포를 표현하였다.

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다행히 묘경(妙境)을 찾아 떠돌던 몸 머무르니 幸尋妙境住萍踐
생각이 맑아지고 보는 것이 그윽하여 온갖 잡념이 없어지네 澄盧冥觀萬想空
물결 밑의 달은 누가 하늘과 땅을 구분하리 浪底月誰分天下
봉우리 끝 구름은 저절로 서동(西東)을 차지하네 峰端雲自占西東
금당(金堂) 속 가짜 상을 잠깐 보았을 때 俄瞻假像金堂裏
석굴(石窟) 속 진신을 벌써 보았네 已見眞身石窟中
대사를 도와 7일 재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不待相師齋七日
그의 마음은 기원에 응해 먼저 통했구나

자연을 벗하며 낙산사에 머무르니 묘경으로 생각이 맑아지고 온갖 상념이 사라졌다. 석굴에서 관음의 진상을 친견하려고 기도하니 마음이 통했다고 노래하고 있다.

8 붕새의 길 아득하게 북쪽 바다에 이어져 (鵬路淼茫連北浸)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일찍이 말고삐를 멈추고 잠깐 머뭇거렸는데 曾停客轡暫逡巡
말을 달려서 다시 찾으니 경치가 더욱 새롭네 躍馬重尋景更新
붕새의 길은 아득하게 북쪽 바다에 이어졌고 鵬路淼茫連北浸
낙산은 멀리 동쪽 바닷가와 접해 있네 蝶墟迢遞接東濱
물결 사이의 그럴 듯한 것은 냉천을 엿보는 나그네요 波間髣髴窺泉客

물 밑의 희미한 것은 바다를 보는 사람이네　　水底依俙見海人
내 돛을 올려서 큰 구렁을 넘고자 하나　　我欲張帆超巨壑
괴물이 성내니 어떻게 하리　　天吳鼓怒若爲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냉천은 부 북쪽 15 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관음보살이 덕녀로 변해 벼를 베고 있는데 이곳에서 원효대사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여행을 멈추고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냉천을 노래하였다.

9 산성의 달은 단풍나무 위에 가리워 (山城却月楓枏上)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변방을 순례하니 수레가 몇 번이나 돌았던가　　閱塞輪蹄想幾巡
만 가지 풍경을 시로 남기니 새롭네　　風烟萬狀逐詩新
산성의 달은 단풍나무 위에 가리웠고　　山城朗月楓枏上
물가 정자는 구름이 부평초와 마름가에 드리웠네　　水榭垂雲萍荇濱
축대 밑에는 비록 무협선녀 없으나　　臺下縱無巫峽女
고을 안에는 응당 무릉(武陵) 사람이 있네　　洞中應有武陵人
길이 바빠서 선경(仙境)을 찾지 못하고　　貪程未得神仙境
걸음마다 머리 돌리며 마음 슬퍼하네　　步步回頭一慘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10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복장을 보수한 데 대한 문 병송. 최 상국을 대신해서 지음. 최상국은 지금의 진양후다(洛山觀音腹藏修補文 并頌代崔相國行, 今晉陽侯也)

운운. 넓게 생각하니 동해 변 낙산 가에 한 승지(勝地)가 있는데 청정하여 티끌 한 점 없으니, 수월(水月 물속에 비친 달)의 청수한 실상이 이곳에 의탁하였다. 아, 저 완악한 오랑캐는 무지막심하도다. 모름지기 그들이 횡행하며 노략질할 적에 심지어 절의 불상까지도 훼손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성(大聖)의 존구(尊軀)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두 수탈당하거나 흩어져서 텅 비었다.

지인(至人)의 경계는 본래 영허(盈虛)·소식(消息)의 이치가 없는데, 금강(金剛)의 진체(眞體)에 어찌 훼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부(凡夫)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어찌 상심이 되지 않으랴. 하물며 제자(弟子)로서는 경앙하는 마음이 전부터 간절하였었는데, 이제 복중의 진장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남보다 배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동시에 용감히 보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일의 소장된 것을 참작하여 삼가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금낭(錦囊)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예전 것과 손색이 없게 하였으니, 바라던 바에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운운.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두드리며 이어 단송(短頌)으로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마침내 헐어버리지 못할 것은	究竟不毁
금강의 진신이다	金剛眞身
그 밖의 상설이야	外之像設
이루고 허는 일은 사람	成毁由人
사람이 똑같지 않은데	人非一類
공경하거나 업신여기네	或敬或侮
저들은 업신여겨 손상하고	彼侮而殘
나는 공경하여 보수하네	我敬而補
저 이지러진 달과 같아	如月斯缺
얼마 안 가서 다시 둥글었네	未幾復全
모든 사녀(士女)들은	凡百士女

한 마음으로 가라 一心歸處

洛山觀音腹藏修補文 并頌代崔相國行,今晉陽侯也

云云° 洪惟東海之濱洛山之上° 有一勝境° 淸淨無塵° 水月睟相° 於是乎寄焉° 嗟乎° 憬彼頑戎° 無知莫甚° 方其橫行冠掠也° 至於佛宇梵相° 無不被其殘毁者° 我大聖尊軀亦爾° 雖形體僅存° 而腹中之珍藏° 盡爲搜露散頓° 枵然其空矣° 且至人境界° 本絕盈虛消息之理° 則金剛眞體° 寧且有毁滅耶° 然在凡夫所覩° 得不愴然傷心哉° 況如弟子者° 仰止之心° 自昔滋切° 乃今聞腹藏潰散之事° 能不倍痛於人° 而勇爲之補理耶° 是用挨舊所藏° 謹備心圓鏡二事及五香五藥色絲錦囊等衆緣° 以充其服° 完而復之° 與昔無損° 庸何傷乎° 所願者云云° 弟子頓首扣頴° 仍以短頌贊之云°

究竟不毁° 金剛眞身° 外之像設° 成毁由人° 人非一類° 或敬或侮° 彼侮而殘° 我敬而補° 如月斯缺° 未幾復全° 凡百士女° 一心歸虔°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二十五, 雜著

이규보(의종22년, 1168~고종28년, 1241년)의 본관은 황려(黃驪). 자는 춘경(春卿)이고 초명은 인저(仁低)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지헌(止軒)·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다. 시, 거문고, 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렀다.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서책을 섭렵하여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9세 때 이미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14세 때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에서 시를 지어 기재(奇才)라 불렀지만 사마시에서 계속 낙방하였다.

명종 20년(1191년)진사과에 급제하였으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천마산으로 들어가 호를 백운거사라 하고 장자사상에 심취하였다. 고종17년(1230년)잠시 위도에 귀양 갔다 다시 기용되어 집현전대학사, 정당문학, 태자소부, 참지정사를 역임하고 고종24년(1237년)문하시랑평장사로 관계에서 사퇴하였다.

69세 때 개성에 돌아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문란한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보고 동명왕편(東明王篇)을 지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전반기에는 불운하였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최충헌 정권에 노력하여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환로에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행적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신 권력에 아첨한 지조 없는 문인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은 역대 최고의 문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저서로는 『東國李相國集』, 『白雲小說』, 『麴先生傳』 등이 있다.

최고의 문인으로, 자신의 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을 좋아하며 자유분방하게 지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우리 문학사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文士이다. 이러한 이규보가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진신이 거란의 침략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관음상의 형

체만 보존되었으나 복중의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수탈당하여 텅 비어 있었다. 이에 최우는 명에 의하여 완전히 복구하고 이규보로 하여금 복장을 보수하고 보수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에 이규보가 칭송하며 찬한 이 작품은 양양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11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

봉명사신으로 관동(關東)에 가는 전 우군(全右軍)을 전송하는 서(送全右軍奉使關東序)

내가 들으니 산수가 기절하고 수려한 것은 관동(關東)이 제일이다. 이를테면 금란(金蘭)의 총석(叢石)과 단혈(丹穴),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 익령(翼嶺)의 낙산(洛山)이야말로 비록 봉래(蓬萊) 방장(方丈)을 보지 못했지만 능히 이보다 낫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들 하네. 나는 일찍이 만일 한 번 보게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세상 일로 헤매고 천리 길이 멀고멀어 속절없이 동쪽만 바라보며 서글퍼 할 따름이오.

지금 그대가 용절(龍節)에 의지해 황화(皇華)를 빛내며 경장(輕裝)을 떨치고 가며 잘 달리는 말위에 앉아서 마치 양쪽 겨드랑에 날개가 돋치어 천지의 밖으로 날아가는 것같이 가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지없이 부럽게만 하오. 높은 곳에 올라 옷소매를 잡고 손수 술잔을 들어 전송을 하지만, 이 이별이 오래가지 않을 텐데 어찌 반드시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려야만 하겠는가.

상상하건대 그대는 산 하나 물 하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만약 맑은 물과 붉고 푸른 봉우리를 편지에 봉함하여 부쳐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를 써서 수습하여 바람 편에 보내어 동해의 산수가 나의 눈앞에 삼삼하게 하면 그로써 만족 하겠네 어찌 반드시 직접 구경해야만 되는 것이겠는가. 여러 사람이 시를 지었으니, 나는 서를 써서 첫머리에 싣다.

予聞山水之奇秀° 關東爲最° 若金蘭之叢石丹穴° 高城之三日浦° 翼嶺之洛山° 則雖未覩蓬萊方丈° 想不能過此也° 僕嘗以爲苟得一見° 雖死無恨° 但 塵驂未鞭° 千里悠然° 空悒悒東望而已° 今足下杖 龍節耀皇華° 振輕裝而言邁° 跨逸駕之如飛° 軒軒° 若傅翰兩腋°

飛出六合之外° 而令人欿豔之不已 也° 登高挹袖° 手酌送行° 此別不久° 何必多淫涕耶° 想足下每遇一山一水° 不得不思我也° 如不能緘 淸漪封紫翠以寄之° 尙可詩以收拾° 因風有寄° 使 東海山水° 森列我眼界足矣° 何必親賞也° 群子賦 詩° 予以序冠之°

『東文選』 卷之八十三, 序, 送全右軍奉使關東序

12

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 치사 유공 묘지명 (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銘)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

예로부터 사대부들을 보면, 처음에는 일찍이 염치로 조심하여 가득 차지는 않을까 주의하지 않는 이가 없다. 부하고 귀한 데에 처하게 되면 대체로 세월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태연히 물러갈 줄을 모르는 자가 많았는데, 우리 복야부군(僕射府君)은 이와 아주 달랐다. 나이 64세에 이미 대신의 지위에 올랐으니, 거기서 3정승까지 가는 데에 몇 등급이 있는데 그 지위를 밟지 않았는가. 이보다 앞서 6년 전에 물러났으니, 은총이 넘치는 것을 피하여서였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전에 벌써 최고 지위에 이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역』에 이르기를 진퇴존망을 알아서 그 바른 것을 잃지 않았다.

유씨(庾氏)는 근원이 금성(錦城)의 무송(茂松)에서 나왔으며, 문벌에 있어서 갑족(甲族)이 되는데, 공은 그 출신이다. 공의 휘(諱)는 자량(資諒)이요, 자는 담연(湛然)이다. 증조부의 휘는 모씨인데 검교태자첨사(檢校太子詹事)였으며, 조부의 휘는 모씨인데 검교태자태사(檢校太子太師)였다. 아버지 모씨는 종묘에 배향한 공신으로, 문하시중수문전대학사판이부사증공숙공(門下侍中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贈恭肅公)이며, 어머니 장씨(張氏)는 상의 봉어(尙衣奉御) 휘는 찬(贊)의 딸로, 이것이 공의 세계(世系)이다. 공은 사람됨이 중화(中和)하고 순수하며 장중하고 말이 적은데, 어질고 미더운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것은 세상을 다스릴만하니, 이것이 공의 타고난 천품이다. 의묘(毅廟 의종) 때에 이르러 문신(山東 즉 동반의 의미)들이 점점 성하였는데, 공의 나이 16세에 귀한 가문의 자제들과 더불어 언약하여 친교간이 되었다.

공이 무관으로 견룡행수(牽龍行首)에 있는 오광척(吳光陟), 이광정(李光挺) 등을 끌어들여 참여시키려 하자, 여러 사람들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공이 특히 나서서 의논하기를, "비록 사사로이 노는 중에도 문·무가 구비하면 역시 잘 될 것이지,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후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하니, 얼마 안가서 경인년의 난리가 일어나고 문신들이 거의 탕진(湯盡)되었는데, 무릇 그들과 친교가 있는 사람은 모두 화를 면하니, 이것은 오(吳)·가(李) 두 장수가 구하느라고 많이 힘썼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이 젊어서부터 벌써 기미를 아는 도량이 있었다.

나이 들자 재상의 아들이라 하여 바로 수궁서 승(守宮署丞)에 보직되었으며, 마침내 대악서승(大樂署丞)에 전근되었다. 좀 있다가 나가 용강 현령(龍岡縣令)이 되었으며, 정사를 하는 데 있어, 사리와 대체를 잘 알아 적발하기를 귀신 같이 하니, 한 지방에서 이름이 났는데 이는 공이 처음 고을을 다스린 것이다. 여러 번 역임하여 어사 상의봉어 시어사 호부낭중 어사잡단(御史尙衣奉御侍御史戶部郎中御史雜端)이 되었으며, 사금자 대부소경(賜金紫大府少卿)으로 병 형부 시랑·대부경·지삼사사(知三司事)·판대부사재사(判大府司宰事)·태자첨사(太子詹事)·판합문(判閤門)·지다방사(知茶房事)에 이르렀는데, 이 때의 관직 등급은 모두 정의대부(正議大夫)였으며,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관직 등급이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이르니, 이것은 공의 역임한 관직 차례이다. 동남쪽 지역을 염문 안찰하고, 동북쪽 지역에서 군사를 지휘할 때에는 그 위풍이 미치는 곳마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어짐과 미더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니. 이 때문에 공이 사명을 받들어 나가서도 칭찬을 들었다.

대개 정 3품의 작위는, 들어가서 정승이 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공이 판사재(判司宰)로 있을 때에는 도리어 지방관이 되기를 간절히 청원하였으며, 호부상서로 나가 남경 유수(南京留守)가 되었으니, 이것은 공이 가득 차는 것을 사양하고 꺼려서이다. 공은 항상 선군사(選軍使)로 군정(軍政)을 시행하였는데, 청사 위의 기울어진 기둥이 저절로 일어서니, 당시 모두들 이상한 일이라고 떠들어 전하였는데, 이것이 공의 공평무사에서 얻어진 일이다.

관동 지방에 장수가 되어 갔을 때에는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러 관음보살에게 예하였는데, 좀 있다가 두 마리의 푸른 새가 꽃을 물어다 옷 위에 떨어뜨렸으며 또 바닷물 한 움큼 쯤 솟아올라서 그의 이마를 적셨다. 세상에서 전하여 오는 말이, "이 곳에 푸른 새가 있는데 부처에게 배알하는 자로서 그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공의 두터운 덕과 지극한 미더움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숭경(崇慶) 2년 계유(강종(康宗) 2년)에 연로함으로 하여 퇴직 청원하기를 매우 간곡히 하니, 임금이 부득이 허락하여 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로 사면하고 집에 있게 되었다.

당시 경상(卿相)들 중 퇴직하고 편안히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로회(耆老會)를 만들어

서 때로는 혹 술자리를 만들어 마음껏 즐기기도 하였는데 태평하게 놀며 성품을 수양한 지 17년이니, 이것이 공의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이 지내던 낙이었다. 기축년 8월 7일에, 기로회에 나가서 조용히 잔치하여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정오 때에는 문득 팔계문(八戒文 불교의 8개조 계문)을 열람하였으며, 밤에는 세수 목욕하고 편하게 취침하였다. 아침이 되자 집안사람을 불러 시간을 묻고서는 홀연히 저승으로 가니, 향년 80세인데, 이것이 공의 마지막이다. 이에 앞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죽어서 한 곳에 가니 궁전 누각이 매우 장엄한데, 지키는 자가 있다가 말하기를, '여기는 유복야(庾僕射)가 올 곳이다.' 하였다." 하였다. 그 말이 비록 황당하기는 하지만 생각하면 공의 행적이 이미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 세상을 떠남이 이러하였은즉, 그 말도 역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공이 선한 곳에서 살아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좌승선(左承宣) 김씨 휘 존중(存中)의 딸에 장가들었는데, 3남 2녀가 있었다.

장자 모(某)는 국학학유(國學學諭)가 되었다가 일찍 죽었으며, 차자 모는 지금 판대복사 지어사대사 보문각직학사 지제고(判大僕事知御史臺事寶文閣直學士知制誥)가 되었으며, 계자(季子) 모는 내시의 모 관이 되었는데, 역시 공보다 앞서 죽었다. 장녀는 모 관 모에게 시집갔다가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계녀는 모 관 모에게 시집갔다가 지금 과부로 있다. 장사를 지내려면 지대(知臺) 군이 공의 행적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문을 청탁하니, 내가 글을 받들고 울며 또 말하기를, "아, 옛날에 남긴 정직한 이여, 내가 다시 공과 같은 인인 군자(仁人君子)를 볼 수 없게 되었도다. 명문을 감히 사양할 것이랴." 하고, 드디어 명문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드러나게 진실한 대신이여	顯允端揆
이 나라의 기강이었네	惟邦之紀
백성들은 마음으로 공을 우러렀는데	民方注心
공은 문득 지위를 버렸네	遽釋其位
지위가 지극한데 이르지 않음은	位不至極
공 스스로 피하신 것이라네	公所自避
공은 스스로 피하였지만	公則自避
사람들은 부족하게 생각하였네	人歉其意
머릿털 누렇게 오래 사시는 일	黃髮壽考
공은 원하지 않았네	公所不蘄
공은 원하지 않았지만	公雖不蘄
하늘이 진실로 도우셨네	天固相之
정직한 마음 신을 감동시켜	正直感神

기울어진 기둥서고 새가 날아드니　柱立鳥馴
공에게는 보통이지만　於公爲常
사람들 보기에야 이상한 일 아닌가　怪者維人
아　嗚呼
옛 덕 있는 이 가고 마니　舊德云亡
세상의 모범 뉘게서 찾으리　模範疇倚
저 산은 높고 높은데　有山巖巖
물 흘러 그 아래로 감도니　水灌其趾
이곳이 공의 계신 곳　是公之宮
서기가 감도는구나　吉祥止止
돌에 새겨 광 속에 넣으니　鐫石納窀
만년토록 밝아 있으리라　眉目萬祀

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 銘

觀自古士大夫° 其始未嘗不以廉恥操心滿盈爲 戒° 而及富貴方酣° 率翫惜日月° 恬不知退者多矣° 我僕射府君大異於是° 年六十有四° 已登端揆° 則 其去台鉉能有幾級° 而未踐其地耶° 但先六載引 退° 求避溢寵耳° 不然久已升極秩° 而猶有餘矣° 此 易所謂知進退存亡° 不失其正者歟° 庾氏源于錦 城之茂松° 在版籍爲甲° 而公其出也° 公諱資諒字 湛然° 曾祖諱某° 皇檢校太子詹事° 祖諱某° 皇檢校太子太師° 考諱某° 皇配某廟功臣門下侍中修文 殿大學士判吏部事° 贈恭肅公° 母張氏尙衣奉御 諱贊之女° 此公之世系也° 公爲人中和毓粹° 莊重 寡言° 仁信足以感人° 淸儉足以律世° 此公之受之 天也° 方毅廟時° 山東寢盛° 公年十六° 與貴門子弟 約爲交契° 公欲引虎官御牽龍行首吳光陟, 李光 挺等與焉° 衆莫肯之° 公挺然議曰° 雖私遊中° 文虎 俱備亦得矣° 何有不可乎° 後必有悔矣° 衆咸以爲然° 於是使之參焉° 未幾庚寅亂° 文臣幾蕩盡° 凡人 交契者皆得免° 以吳, 李二將營救甚力故也° 此公之自少已有知幾之量也° 年若干° 以宰相子直補 守宮署丞° 尋遷大樂署丞° 俄出爲龍岡縣令° 其爲 政諳練理體° 摘發如神° 一方稱之° 此公之始莅郡 也° 累歷御史, 尙衣奉御, 侍御史, 戶部郎中, 御史雜 端° 賜金紫大府少卿, 兵刑部侍郎, 大府卿, 知三司 事, 判大府司宰事, 太子詹事, 判閣門, 知茶房事° 階 皆正議° 尙書右僕射° 階光祿° 此公之所歷官序也° 其或廉察東南° 秉鉞東北° 則威風所及° 無不股弁° 然濟以仁信° 故民便之° 此公之奉使延譽也° 夫三 品正秩° 入相可冀° 而公之判司宰也° 反乞郡痛切° 以戶部尙書出知南京留守° 此公之辭滿忌盈也° 公常以選軍使聽軍政° 其廳事上欹柱自立° 時譁 傳以爲異事° 此公之公平無私所感也° 其帥關東 也° 到洛山禮觀音° 俄有二靑鳥含花落衣上° 又海 水一掬許湧灌其頂° 世傳此地有靑鳥° 凡謁聖者 非其人則不見° 此公之惇德至信所致然也° 越崇 慶二年癸酉° 引年乞退甚篤° 上不得已允之° 以銀 靑光祿大夫尙書左

僕射° 得謝家居° 與當時卿相 之退逸者° 爲耆老會° 時或置酒盡歡° 凡優游養性 十有七年° 此公之懸車閑適之樂也° 歲己丑八月七日° 詣耆老會° 從容宴飮° 還于第° 明日方午° 忽覽 八戒文° 夜盥浴尙安然就寢° 及旦呼家人問時° 然 後翛然而化° 享年八十° 此公之終也° 先是人有死 復生者° 自言死至一處° 宮觀甚嚴° 守者曰此庾僕 射至處也° 其說雖荒唐° 考公之行已無愧° 及其終 如此° 則其言亦不可不信° 公之生善處也必矣° 娶 左承宣金諱存中女° 凡生子三女二° 長曰某爲國 學學諭早卒° 次曰某今爲判大僕事, 知御史臺事, 寶文閣直學士知制誥° 季曰某爲內侍某官° 亦先 公卒° 女長適某官某早寡° 李두001適某官某今寡° 方葬也° 知臺君具公之行錄° 託予以銘° 予奉書泣° 且曰° 嗚呼° 古之遺直也歟° 吾不復見仁人君子之若公 者矣° 銘其敢辭乎° 遂銘曰°

顯允端揆° 惟邦之紀° 民方注心° 遽釋其位° 位不至 極° 公所自避° 公則自避° 人歉其意° 黃髮壽考° 公所 不蘄° 公雖不蘄° 天固相之° 正直感神° 柱立鳥馴° 於 公爲常° 恆者維人° 嗚呼° 舊德云亡° 模範疇倚° 有山 巖巖° 水灌其趾° 是公之宮° 吉祥止止° 鑱石納窆° 眉目萬祀°

『東文選』 卷之一百二十二, 墓誌

13 조신(調信)

무극(無極) 일연(一然)

잠시 즐거운 마음은 이미 가버리고	快適須叟意已閑
근심 속에 남모르게 늙어버렸네	暗從愁裏老蒼顔
모름지기 황량(黃粱)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不須更待黃粱熟
노생은 인생이 한바탕 꿈인 것을 깨달았네	方悟勞生一夢間
몸을 다스림에 잘못됨은 먼저 정성인데	治身臧否先誠意
홀아비는 미인 꿈꾸고 도둑은 창고를 꿈꾸네	鰥夢蛾眉賊夢藏
어찌 가을날 청야몽만으로	何以秋來淸夜夢

때때로 눈을 감아 열반에 이르리오　　時時合眼到淸凉

『三國遺事』

일연(희종2년, 1206년~충렬왕15년, 1289년)의 속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견명(見明)이다. 자는 회연(晦然), 호는 무극(無極)·목암(睦庵)이다. 경주 장산군(章山郡 : 지금의 경산시) 출신으로, 아버지는 지방 향리 출신인 언필(彦弼)이다.

14세 때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출가하여 대웅장로(大雄長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선(禪)수행을 위해 여러 곳을 유력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로 구산문(九山門) 사선(四選)에의 으뜸이 되었고 22세에는 최고 고시인 선불장(選佛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고종 14년(1227년)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상상과(上上科)에 급제한 이후 포산(包山 : 경주 근처 현풍현 비슬산)의 보당암(寶幢庵)·무주암(無住庵)·묘문암(妙門庵) 등지에서 머물렀으며, 1237년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되고 1246년 선사(禪師)가 되었다.

1249년 최씨 무인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있던 정안(鄭晏)의 초청으로 남해(南海) 정림사(定林社)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최이에게 반발한 정안이 수선사(修禪社) 계통의 승려를 기피하여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일연을 초청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가지산문의 승려들이 최씨 정권과 연결되어 1251년에 완성된 대장경 조판 중 남해분사(南海分司)에서의 작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1259년 대선사(大禪師)가 되었고, 원종 2년(1261년) 원종의 명에 따라 강화도에 초청되어 선월사(禪月社)에 머물렀는데, 이때 지눌(知訥)의 법맥을 계승했다. 이는 그가 가지산문에서 사굴산문(闍堀山門)으로 법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종을 옹위한 정치세력이 불교계를 통솔하기 위해 일연을 이전의 수선사 계통의 승려를 대신한 계승자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연은 중앙정계와 관련을 맺은 이후, 이를 배경으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썼다. 1268년 왕명에 의해 운해사(雲海社)에서 대장낙성회(大藏落成會)를 주관하고, 1274년 비슬산 인홍사(仁弘社)를 중수한 후 왕의 사액에 따라 인흥사(仁興社)로 개명했으며, 같은 해 비슬산 용천사(湧泉寺)를 불일사(佛日社)로 개명했다.

충렬왕 3년(1277년)부터 충렬왕의 명에 따라 운문사(雲門寺)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三國遺事』의 집필에 착수했다. 1283년 3월 국존(國尊)으로 책봉되고, 원경충조(圓經沖照)라는 호를 받았으나 노모의 봉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1284년 인각사(麟角寺)에서 2회에 걸쳐 구산문도회(九山門徒會)를 열었는데, 이는 가지산문이 일연을 중심으로 고려 불교계의 전 교권을 장악한 것을 뜻한다. 1289년 7월 왕에게 올리는 글을 남기고 7월 인각사에서 입적하였다. 이해 10월 인각사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으니, 시호는 보각(普覺)이고 탑호는 정조(靜照)이다.

『삼국유사』 찬술을 위해 1278년에 이미 〈역대연표〉를 작성하고, 이후 그의 나이

73~76세에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찬술했다. 저서로는 『語錄』 2권, 『偈頌雜著』 3권, 『삼국유사』 5권, 『중편조동오위』 2권, 『祖派圖』 2권, 『祖庭事苑』 30권, 『禪門頌事苑』 30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등이 있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11년(1285년)에 일연스님이 지은 5권 2책의 역사책이다. 인종 23년(1145년)에 김부식을 비롯한 11명의 편사관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50권 10책의 기전체 사서(紀傳體 史書) 『삼국사기』이다. 이 두 책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 의미가 크다.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으로 항목을 나누어 고조선을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 지리, 문학, 종교, 미술, 민속 등 문화 전반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글은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수록되어 있다 . 조신전의 마지막에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어찌 조신사의 꿈만 그렇겠는가. 지금 모두가 세속의 즐거운 일만 기뻐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쓴 글이다.

낙산은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낙산이란 원래 관음보살이 있다는 서역의 보타낙가산(寶陀洛伽寺)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관음보살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낙산의 공간적 배경을 고통과 슬픔을 깨달음의 세계로 설정하였다.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함께 하는 자비의 도량으로, 이곳과 관계된 의상과 원효는 한국불교를 발전시킨 고승으로, 두 고승의 소중한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지만 신앙적 형태는 달랐다.

원효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부족해서이다. 법사들이 만난 여인은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원효 같은 고승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대목이다. 논에서 벼를 베던 여인에게 벼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농경사회에서 벼는 먹고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 이것을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스님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기에 정성이나 성의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겸손이 부족했던 불자였다.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원효가 물을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주자 법사가 엎질러 버리고 다시 깨끗한 냇물을 떠 마신다.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에서 법사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세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파랑새가 '스님 그만 두시오'한다. 그리고는 숨어버린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 밑에 신 한 짝 있었다. 그리고 법사는 절에 이르러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전에 만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게 되었다. 법사는 의상이 만났던 장소에서 관음보살의 진용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풍랑이 심해 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이 이야기에서 두 스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지극한 기도와 불심으로 속세의 욕망을 끊고 불도에 정진했던 의상과 반면에 속세욕망을 끊어야할 불자가 여인을 보고 희롱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조신전 같이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설화에서부터 시가, 수필,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왔다. 꿈을 소재로 한 작품은 민족의식과 관계있는 것으로 꿈의 서사양식은 인도의 불경 『잡조장경』의 「사라나비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서술로 불경 속에 수록되어 중국의 육조시대나 당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불경역경사업이 성행하여 당대 소설인 「침중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 「침중기」를 일연스님이 읽고 조신전 창작에 영향을 받았다.

꿈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문학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신으로, 이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그 배경을 낙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신라말기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의식반영으로 사회전반적인 모순과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14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채련(蔡璉)

맑은 가을에 수레 타고 성 동쪽으로 나가　　淸秋命駕出城東
예배 보려고 절에 이르렀네　　爲禮金山到梵宮
푸르른 그림자는 많은 산에 낀 안개에 스치고　　翠華影拂千山霧
맑은 벽제소리 만학 골짜기 바람으로 전하네　　淸蹕聲傳萬壑風

『東國輿地勝覽』

15 낙산 관음 경찬 소(洛山觀音慶讚疏)

김구(金坵)

무진(無盡)한 눈과 무진한 팔로 무량(無量), 미진(微塵)이 세계에 기틀을 나타내시며, 상(想)에도 머물지 않고 공(空)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온갖 물건, 온갖 생물에게 감응을 보이시는 관음보살의 그림을 그린 소상(塑像)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마음 진실로 간절할 뿐이며, 소리와 형상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감격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임금 되는 것이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몸가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만 백성들의 허다한 허물을 누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하며, 여러 관료들의 잘못이 있다면, 대개 이것은 짐(朕)이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 흐리고 볕 나고 춥고 더운 것은 하늘의 법칙이건만, 백성들은 이따금 나를 원망하고, 수해가 있고, 한재가 생기며,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은 해의 운수이건만, 세상은 모두 나를 나무랍니다. 하물며, 이제 제자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난리가 있은 뒤를 이어, 온 나라가 시들고 파리하게 된 나머

지를 맡아서 사막이라는 곳은 꿈에 잠깐 노닐어 본 일도 없었는데, 두 번이나 그곳을 발섭(跋涉)하는 노고를 겪었으며, 전쟁이란 것은 그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일인데, 몇 번이고 요란하게 침노를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비록 불쌍히 여기는 상국의 가호를 입고 있으나, 아직도 옛날에 받은 칙명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개는 것이 잠깐 사이에 간혹 변하기도 하는 것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이 아침에 어떨지, 저녁에 어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슬프다, 나의 사신(使臣)의 행차가 간 뒤로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나의 사사로운 염려됨은 거기에 사고가 있어서, 자못 억류 되는가 의심됩니다.

다만, 외환만이 이러할 뿐 아니라, 또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이 이러합니다. 정치와 용형(用刑)이 모두 문란하여져서 풍속은 퇴폐하고, 재화와 양곡이 함께 없어져서, 공사(公私)가 모두 곤궁합니다. 대개, 사람의 하는 일을 바로 닦지 못하여, 재앙의 징조가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달과 별이 차례를 잃으니, 그에 대한 상소는 왜 그리 많은지. 우레와 비가 제때를 맞추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어찌 상서로운 징조가 되겠습니까.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두렵다고 하니, 자나 깨나 근심하고 애쓰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분과(焚窠)를 추사(追思)하고 다시 장래의 여경(茹鯁)을 생각합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한 섭호(攝護)를 빌어 복조가 연장되고 넓어짐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생각하건대, 보타락산(補陁洛山 관음세보살이 계신다는 산 이름으로 여기서는 낙산사에 관세음보살이 있었는데, 그 온화한 모습이 일찍이 들불(野火)로 말미암아 불전(佛殿)과 함께 불타더니, 이제 새로운 건물이 다시 바위 벼랑에 솟아올랐습니다. 원장(垣墻)도 이미 갖추어졌으니, 문득 기교 있는 공장(工匠)을 구하여 높은 얼굴을 그릴 것을 꾀하였습니다.

마땅히, 훌륭한 공사가 끝난 것을 고유하고, 낙성(落成)을 말하는 향기로운 의식을 규위(規爲)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보배로운 굴(崛)에 돌아가매, 한 조각구름도 오고 감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림자 맑은 못에 가득하노니, 한 덩이의 달이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이에 궁궐 안의 높은 집을 청소하고, 특히 선종의 깨달은 무리를 맞아다가 혹은 대비보살(大悲菩薩)의 착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바로 불심종(佛心宗)을 지향(指向)하여 통창(通暢)하게 강연(講演)하기도 합니다.

북을 치니, 시방세계[十方世界]에 항상 막힘없는 진문(眞聞)이 원만하게 통하고, 한 곳에서 영(鈴)을 울리니, 빈손으로 범(犯)할 수 없는 묘희(妙戲 불가사의한 유희)를 연출합니다. 정순(精純)하게 재계하고 성의를 피력하니, 지혜로운 비춤(慧照)이 머리에 와 닿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하늘의 요사한 기운과 땅의 괴이한 변고는 흩어져 사라져서 조종(祖宗)의 왕업과 국가의 기초가 유구하게 되고, 이웃 나라의 우호는 더욱 굳어져서 다시는 변경의 용동(聳動)이 없게 되며, 나이를 쌓음은 더욱 장구(長久)하고, 또한 왕비의 안녕과 길함을 이루며,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장수와 재상들은 화합하고, 국내·국외의

간악한 무리들은 무너져 잔멸(殘滅)되며, 삼광(三光)은 운행을 순조롭게 하고 7난(七難)은 조짐(兆朕)을 꺾어 버리게 하소서.

그러한 뒤에 신기(神器 임금의 자리)가 가득하게 이루도록 잘 보우하시고, 항상 불법을 옹호하는 데 전일(專一)하게 하소서.

洛山觀音慶讚疏

無盡眼無盡臂° 塵塵刹刹之現機° 不住想不住空° 物物頭頭之垂應° 繪塑瞻依之苟切° 聲形感激之 難思° 伏念爲君何樂° 處己克艱° 萬姓多愆° 當使誰 而任責° 群僚有過° 盖是朕之無良° 陰陽寒暑° 天之 經也° 民或怨予° 水旱豐荒° 歲之數也° 俗皆謗我° 況今弟子° 乘累紀亂離之後° 掇三韓萎悴之餘° 沙漠 非入夢暫遊° 再勞跋涉° 干戈是聞名亦怖° 幾見擾侵° 今雖蒙上國之加憐° 尙未副前時之稟勑° 上天 之陰霽° 須臾或變° 世間之愛憎° 旦暮安知° 噫我使 軺去矣° 踰時而未返° 故於私慮° 疑其有故以頗淹° 非唯外患之如斯° 抑此內虞之迺爾° 政刑皆紊而風俗頹圮° 財穀並殫而公私困窮° 盖緣人事之不 修° 而致咎徵之斯集° 月星失次° 何其多上以封章° 雷雨非時° 此亦豈爲之瑞兆° 謂兵飢疾疫之可畏° 而寤寐憂勞之曷戢° 追思旣往之焚窠° 更念將來 之茹鯁° 但借慈悲之攝護° 獲臻祉祚之延洪° 惟補 陁洛山° 有觀世音聖跡儀° 嘗從於野火° 殿宇并燒° 新構復湧於嵓崖° 垣墻旣備° 輒求巧匠° 謀就尊容° 屬當告畢於勝功° 規說落成之熏範° 心歸寶崛° 孤 雲不尋於去來° 影滿淸潭° 一月何殊於今古° 爰掃 禁圍之高閣° 特邀禪社之悟流° 或大悲聖號之呼號° 或直指心宗之演暢° 十方擊鼓° 圓通常無尋之 眞聞° 一處弄鈴° 空手也不干之妙戲° 精熏瀝懇° 慧 照當頭° 伏願天妖地恠之散消° 祖業邦基之悠久° 隣歡愈固° 更無邊境之聳驚° 儲筭尤長° 亦致宮闈 之寧吉° 東西將相之和協° 內外姦究편001之潰殘° 三光 順躔° 七難摧朕° 然后克保盈成於神器° 恒專擁護 於法輪°

『東文選』 卷之一百十, 疏

김구(희종 7년, 1211년~충렬왕 4년, 1278년)본관은 부령. 초명은 백일(百鎰),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저원부사록, 제주판관 등을 지냈다. 원종 때 예부시랑이 되어 원나라에 관한 여러 문서를 맡아보았으며,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다녀와서 『북정록』을 남겼다. 그 후 우간의대부·추밀원부사·정당문학(政堂文學)·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등을 거쳐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 지첨의부사·참문학사(參文學士)·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 등을 지냈다. 옛 사람의 명문을 본떠서 말을 다듬는 것을 거부하고 거칠더라도 현실을 생생하게 읊었다.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된 다음에 사신으로 임명받아 가는 길에 지은 시는 대몽항쟁의 문학으로 손꼽힌다. 특히 평안북도 철주를 지나며 몽고군에 대항한 이원정의 충정을 읊은 〈과철주 過鐵州〉가 대표적이다. 이규보가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최자(崔滋)와 함께 추천했다. 저서로는 『지포집』이 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

낙산 시운을 따라서(次洛山詩韻)

근재(謹齋) 안축(安軸)

부처님은 두루 통하는 경지에 계셔	太聖圓通境
바닷가 봉우리에 계셨다고 하네	曾聞海上峰
은혜는 감로주와 같이 윤택하고	恩同甘露潤
향은 임금께서 내리신 조서 있네	香有紫泥封
사람에 따라 그 모습 늘 나타난다지만	隨類身常現
얽히고 혼란한 눈으로 만나지 못해	纏迷眼不逢
부처님 진신이다 아니다 말하지 말게	莫論眞與假
다만 자비로운 모습에 절하면 되네	但自禮慈容

『謹齋集』

안축(충렬왕 13년, 1287년~충목왕 4년, 1348년)의 휘(諱)는 축이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사록(全州司錄)·사헌규정(司憲糾正)을 지내고 충숙왕 11년(1324년) 원(元)의 제과(制科)에도 급제해 개주판관(蓋州判官)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고려에 돌아와 성균학정(成均學正)을 거쳐 충혜왕(忠惠王) 때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파견되었다. 이때 충군애민(忠軍愛民)의 뜻이 담긴 문집 『關東瓦注』를 남겼다. 시를 통해 그 시가 칭찬하는 것과 꾸짖는 것을 살펴서 권면과 경계를 삼고자 함이었다.

충숙왕 복위1년(1332년) 판전교(判典校)·지전법사(知典法事) 재직 시 파면 당했다가 전법판서(典法判書)로 복직되었으나 내시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충혜왕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판서·감찰대부(監察大夫)에 등용되었으며, 충목왕 즉위년(1344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지내고 판정치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量田) 행정에 참여했다. 민지(閔漬)가 지은 『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 등과 다시 편찬했고 충렬왕·충선왕·충숙왕의 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경기체가인 「關東別曲」·「竹溪別曲」을 지었고, 문집은 『근재집』이 있다.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고, 순흥의 소수서원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낙산사는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고승인 의상대사가 낙산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바닷가에 절을 건립하였고, 고려 공민왕과 신돈이 낙

산사를 찾아 풍년의 고마움을 감사로 예배드렸다.

많은 스님과 지식인들이 낙산을 찾아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싶었지만 속세의 번뇌와 욕망 때문에 친견하지 못했다. 관음보살을 친견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귀결하고 있다.

17 양양 신학기(襄陽新學記)

근재(謹齋) 안축(安軸)

관동(關東)은 산수가 기이하고 수려한데 양양(襄陽)이 그 속에 들어 있으니, 그 빼어난 정신과 맑은 기운이 반드시 헛되이 축적함이 없다. 백여 년 동안에 기이한 재주와 덕을 품은 선비가 이 고을에 나서 인륜(人倫)을 상서롭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은 산수의 기운에 징험이 없어서이지, 고을 사람의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이 고을이 옛날부터 변경과 이웃하고 있어서 변란이 여러 번 일어나 학교의 도(道)를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가 통일이 되어 백성들이 병란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성학(聖學)이 거듭 일어나 자제가 날마다 번성하니, 마땅히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육하여야 할 것인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가 오직 문서나 작성하는 것을 급무로 삼고, 여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수의 기운이 뭉쳐지고 쌓여서 흩어질 데가 없고, 자제의 성품이 속박을 받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늙은이들에게 들으니, 고을 북쪽에 마을이 있어서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고 전해지니, 이것은 필시 옛날의 학교터인데 폐해진 지가 오래된 것이리라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즉시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곳에 학교를 짓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뜻이다." 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도 잊었다. 이에 과거 동기생인 통주(通州) 수령 정랑 진군(陳君)에게 부서(符書)를 보내어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고을 수령 정랑 박군(朴君)이 부임해 왔는데, 박군은 또한 글하는 선비 상문(相文)의 아들이다. 실상은 그의 힘으로 내 뜻을 이

루었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땅 기운은 있어 쇠한 것이 오래되면 왕성하는 것도 빠르고, 축적된 것이 오래되면 발하는 것도 성하나니, 이제부터 집에는 재주와 학문이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을 터이다.

그러고 나면 산수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거칠고 소략하여 공사에 빠진 점이 있으니, 바라건대, 뒤에 오는 군자는 한 번 눈여겨볼 것이다.

襄陽新學記　　安軸

關之東山水奇秀° 而襄陽居其中° 其英靈之精° 淸 淑之氣° 必無虛畜° 而於百餘年間° 未聞有懷奇才德之士° 出是邑而瑞人倫者° 此非山水之氣無驗° 而邑人之性不善° 盖是邑自古隣於藩境° 變亂屢 興° 學校之道不修也° 今者區宇混一° 而民不知兵° 聖學重興° 子弟日盛° 宜置學校° 養育人材° 而莅是 邑者° 惟以簿書爲急° 而慮不及焉° 故山水之氣° 盤礴欝積而無所散° 子弟之性° 桎梏襟裾而無以脫° 此豈非邑人之不幸歟° 予到是邑° 聞之耆舊° 邑之 北有洞° 相傳云文宣王洞° 斯必古之學基而廢已 久矣° 予心竊嘆焉° 卽於其地° 命邑人營之° 邑人咸 喜曰° 予之志也° 悅以忘勞° 於是符下同年友° 通州守正郎陳君° 監督其役° 工役始興° 而邑守正郎朴 君來莅任° 朴君亦文儒相文之子也° 實用其力° 以 成吾志° 此豈非邑人之幸歟° 夫地之氣° 其衰也久° 則其旺也暴° 其畜也遠° 則其發也盛° 自今家有才 學之孫° 里有仁厚之俗° 然後有以雪山水之恥° 而 知余言之不失也° 然制定麤踈° 事功有闕° 望後來 君子一寓目焉°

『謹齋集』, 襄陽新學記

안축의 양양신학기(新學記)는 주목할 만하다. 강원도 존무사로 와서 양양을 위해 학교를 세운 것은 양양문화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양양은 산수가 아름답고 수려하지만 백여 년 동안 재주와 품위 있는 선비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양양고을 사람들이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방이라 변란이 자주 일어나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라가 통일되어 백성들이 전란을 몰라 산수의 정기가 서리고 맺혀서 말할 곳이 없고 자제들의 묻혀 드러낼 수 없으니 이것은 양양고을의 불행으로 양양을 위해 학교를 짓도록 명하였다.

이에 존무사는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쓰고자 했다. 고을 어른들에게 물으니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는 아마도 신라시대 학교터가 남아 있어 이곳에 학교를 짓게 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존무사 안축의 생각은 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면 집에는 재주와 학문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안축의 학교 창건과 도움으로 오늘날 양양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고을마다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다.

18

관동별곡(關東別曲)

근재(謹齋)　안축(安軸)

바다는 겹겹, 산은 첩첩, 관동의 뛰어난 경치　海千重 山萬壘 關東別境
푸른 휘장 붉은 장막에 둘러싸인 병마영주　碧油幢 紅蓮幕 兵馬營主
옥대 띠고 일산 기울이며 검은 창 붉은 깃발 늘어진 모래사장으로　帶傾盖 黑紅旗 鳴沙路
아. 순찰하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爲 巡察景 幾何如
이 지방 백성들이 의를 기리는 풍속 따르네　朔方民物 慕義趨風
아. 임금의 교화와 중흥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王化中興 景幾何如

학성 동쪽의 원수대와 천도섬 국도섬　鶴城東 元帥臺 穿島國島
삼산 돌고, 십주 지나, 금자라가 이고 있는 삼신산　轉三山 移十州 金鼇頂上
안개 거두고 붉은 노을 사라져 바람 고요하고 물결 잔잔하니　收紫霧卷紅嵐 風恬浪靜
아. 높이 올라 바라보는 창해의 모습 그 어떠합니까　爲 登望滄溟景 幾何如
계수나무 노로 아름다운 배 저으며 기녀들의 노랫소리　桂棹蘭舟 紅粉歌吹
아. 경승지 둘러 보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歷訪 景幾何如

총석정 금란굴의 기암괴석　叢石亭 金窟 奇岩怪石
전도암, 사선봉, 푸른 이끼 낀 옛 비석　顚倒巖 四仙峯 蒼苔古碣
내 발로 바위를 돌아보니 뛰어난 그 형상, 이상한 모양　我也足 石巖回 殊形異狀
아. 세상 천하에 없는 것이로다　爲 四海天下 無豆舍叱多
옥비녀 꽂고 구슬신발 신은 많은 나그네　玉簪珠履 三千徒客
아. 또 어느 날 다시 찾아올고　爲 又來悉 何奴日是古

삼일포, 사선정, 전설이 깃든 좋은 경치　三日浦 四仙亭 奇觀異迹
미륵당, 안상저, 서른여섯 봉우리　彌勒堂 安祥渚 三十六峯
밤 깊고, 물결 잔잔 소나무 끝 조각달　夜深深 波松梢 片月
아. 그 고운 화랑들의 모습이 나 여기 있소 하네　爲 古溫貌 我隱伊西爲乎伊多
술랑도들이 새겨 둔 붉은 여섯 글자　述郎徒矣 六字丹書
아. 오랜 세월 오히려 분명하구나　萬古千秋 尙分明

선유담, 영랑호, 신청동 안으로 仙遊潭 永郎湖 神淸洞裏
푸른 연잎 자라는 모래사장, 푸르게 빛나는 묏부리, 십 리에 서린 안개
綠荷洲 靑瑤 風烟十里
은은한 향기, 짙푸른 나무 숲, 거울같은 맑은 호수, 香翠森森 琉璃水面
아. 배 띄워 노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泛舟景 幾何如
순채국과 농어회, 은실처럼 가늘고 눈같이 희게 써네 蓴羹로膾 銀絲雪縷
아. 양젖이 맛있다 한들 이보다 더하리오 爲 羊酪 豈勿參爲里古

설악산의 동쪽, 낙산 서쪽의 양양 풍경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강선정, 상운정,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네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
자주 빛 봉황 타고 붉은 난새 타고 내려오는 우아한 신선들 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
아. 붉은 거문고, 다투어 타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爭弄朱絃景 幾何如
풍류로운 술꾼들 습욱의 지관같은 좋은 경치 속에서 高陽酒徒 習家池館
아. 사계절 놀아 보세 爲 四節 遊伊沙伊多

삼한의 예의, 오랜 풍류 간직한 옛 고을 강릉에는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
경포대, 한송정에 달 밝고 바람 맑은데 鏡浦臺 寒松亭 明月淸風
해당화 길, 연꽃 핀 못, 봄가을 좋은 시절 海棠路 池春秋佳節
아. 노닐며 구경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爲 遊賞景 何如爲尼伊古
등불 밝힌 누각에서 새벽 종소리 울린 후 燈明樓上 五更鍾後
아. 해 뜨는 광경 어떠합니까 爲 日出 景幾何如

오십천, 죽서루, 서촌팔경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
취운루, 월송정, 십리의 푸른 솔 翠雲樓 越松亭 十里靑松
옥저 불고 가야금 타며, 청아한 노래 부르고 우아한 춤추며 吹玉弄瑤琴 淸歌緩舞
아. 귀한 손님 맞이하고 보내는 광경 어떠합니까 爲 迎送佳賓景 何如
망사정에 위에서 창파만리 보노라면 望亭上 滄波萬里
아. 갈매기도 반갑기도 하여라 爲 鷗伊鳥 藩甲豆斜羅

강은 십리, 절벽은 천 층, 거울같이 맑은 물을 에워쌓네 江十里 壁千層 屛圍鏡澈
풍암 수혈 지나 비룡산에 올라 倚風巖 臨水穴 飛龍頂上
좋은 술 기울이고 용빙봉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여름바람 쐬며 傾綠蟻 聳氷峯 六月淸風
아. 피서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爲 避署景 幾何如

옛날 주씨 진씨가 더불어 무릉의 풍물 대대로 전하듯 朱陳家世 武陵風物
아. 자자손손 이어가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

『謹齋集』

충숙왕 17년(1330년) 작자인 안축(安軸)이 강릉도(江陵道) 존무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읊은 노래이다.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변,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정선의 고을, 즉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묘사한 경기체가(景幾體歌)로 정철(1536년~1593년)의 관동별곡보다 250년 앞서 지었다. 안축의 관동별곡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서두에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이야기 하며 시작한다.

관동팔경의 구체적인 중심 제재를 보면 제1장에서 서사(序詞)로서 순찰경(巡察景), 제2장은 학성(鶴城), 제3장은 총석정(叢石亭), 제4장은 삼일포(三日浦), 제5장은 영랑호(永郎湖), 제6장은 낙산사(洛山寺), 제7장은 임영(臨瀛), 제8장은 정선(旌善)의 절경이다. 이는 금강산(金剛山)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아한 풍치로 그 대상을 찬양하고 절승경개(絕勝景槪)를 이룬 자연 속에 노니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신선이 노닐었던 양양의 자연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자연과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배 띄우고 노니는 풍류는 이 작품을 읽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낙산과 강선정, 상운정의 풍경과 그 곳에서 거문고 타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19 양주 공관의 시운을 따라서 (次襄州公舘詩韻)

근재(謹齋) 안축(安軸)

벼슬길 오른 걸음 앞서가기 도모하지 않고 名途信步不圖前
이 누각에 오간지 벌써 두해 되었네 來往斯樓已二年
난간 덮은 대숲에는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고 覆檻竹叢分爽氣
문을 가린 용나무는 푸른 연기 흔드네 蔭門榕樹撼蒼烟
백성 일 두루 보며 내 나라 걱정하니 歷觀民業憂吾國

헛되이 임금 은혜 저버려 하늘에 부끄럽네　　虛負君恩愧彼天
졸렬한 계책 아직 이로운 길 일으키지 못했으니　　計拙未能興利路
어떻게 하여 계곡의 샘물같이 좋은 생각 나오리　　若爲溪壑湧金泉

『謹齋集』

강원도 존무사로 온지 2년이 지나 양양공관에 머물며 지은 작품이다. 벼슬길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 오르기를 도모하지 않고 공관의 누에 올라 삼회를 노래하고 있다. 누 앞의 대숲에 바람이 일어 시원하다. 목민관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의 성은을 보답하고자 양양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풍송을 아름답게 하려고 많은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졸렬하여 부족함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좋은 계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였다.

20

동산현 관란정 시운을 따라서
(次洞山縣觀瀾亭詩韻)

근재(謹齋)　안축(安軸)

민가의 온갖 물건 부잣집 대문으로 들어와도　　民間百物入侯門
산수는 긴긴 세월 한 마을에 달려 있네　　山水千年屬一村
외딴 섬 구름이 가로막아 옆은 아득하고　　別島隔雲橫漂砂
조그만 돛단배 달고 함께 황혼에 지네　　片帆和月落黃昏
기러기 하늘 높이 날아가니 화살이 어찌 생각이 나며　　鴻飛冥路弋何慕
고래가 창파를 마시고 배도 삼킬 만 하네　　鯨吸滄波舟可呑
비 내리는 새 정자를 오르기도 전에　　雨過新亭推未去
아전이 절하며 맞는 모습 진심 없는 겉치레 일세　　吏人迎拜是陽尊

『謹齋集』

관란정은 부 남쪽 50 리 동산현 동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 정자는 죽도 서쪽에 있는데 이곳에서의 풍광은 외로운 죽도에 구름이 막혀있어 아득히 보인다. 돛단배는 달

과 함께 황혼이 지고, 하늘 높이 바다 위를 나는 기러기를 보자 화살이 생각에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큰 고래의 요동은 장관이고 비 오는데 정자에 오르기도 전에 아전이 맞이하는 모습이 성의 없어 보여 서운함 마음을 절제 있게 표현하였다.

21

영랑호에 배 띄우고(永郎浦泛舟)

근재(謹齋) 안축(安軸)

잔잔한 호수 거울처럼 맑고	平湖鏡面澄
푸른 물결 엉겨 흐르지 않네	滄波凝不流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蘭舟縱所如
둥실둥실 떠 갈매기 따라가네	泛泛隨輕鷗
호연한 기상 맑은 흥취 일어	浩然發淸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泝洄入深幽
붉은 벼랑은 푸른 바위를 안았고	丹崖抱蒼石
아름다운 골에는 고운 모래톱이 펼쳐있네	玉洞藏瓊洲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니	徇山泊松下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가을이네	空翠涼生秋
연잎은 맑아서 씻은 듯 깨끗하고	荷葉淨如洗,
순채는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蓴絲滑且柔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向晩欲回棹
좋은 경치 천고의 근심일세	風煙千古愁
옛 영랑무리 될 수 있다면	古仙若可作
여기서 그를 따라 놀으리라	於此從之遊

『謹齋集』

영랑호에 관한 시 중에서 안축의 시가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거울처럼 맑고 잔잔한 영랑호는 흐르지 않고 고요하게 보인다. 신라시대부터 화랑과 선비들이 호수에 배 띄

우고 풍류를 즐겼다. 호수와 바다가 이어져 있고 하늘에는 갈매기가 노닐고 멀리 설악산은 가까이 보이는 풍경에서 흥이 절로 난다. 산과 골 깊은 곳에 바위가 있고 고운 모래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그 산 아래 배를 대고 하늘을 보자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이 반긴다. 놀이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자 좋은 경치가 도리어 근심이다. 영랑의 무리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심회를 노래하였다.

22

근재(謹齋) 안축(安軸)

8월 4일
북으로 가다 영랑호에서 배를 띄우고
(北行泛永郎湖)

저문 구름 반쯤 걷혀 산은 한 폭의 그림	暮雲半卷山如畵
가을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 절로 일렁이네	秋雨新晴水自波
이곳에 다시 오기 약속하기 어려워	此地重來難可必
배 띄워 다시 듣는 한 곡조 노랫소리	更聞虹上一聲歌

『謹齋集』

23 양양에 도착하여 통천태수에게 부치며 (到襄陽寄通州太守)

근재(謹齋) 안축(安軸)

조정으로 가는 길에 오래 머물러 朝天路上肯遲留
이년동안 관동을 싫도록 유람했네 二載關東己倦遊
원수대 앞 호수에 달 가득하면 元帥臺前湖月滿
그대와 차가운 밤 꽃배 띄우리라 與君寒夜泛蘭舟

『謹齋集』

24 양주를 지나면서(過襄州)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

천리 머나먼 관동을 오마로 가면서 千里關東五馬行
아름다운 곳 만날 때 마다 머물렀네 每逢佳處便留情
양주 객사를 갑자기 지나쳤던 것은 襄州客舍曾然過
바빠서였지 명예를 좋아한 것 아니었소 只爲忽忙非好名

『雙梅堂先生集』

이첨(충목왕 1년, 1345~태종 5년, 1405년)의 본관은 신평(新平)이고,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이다. 10여세에 율재(栗齋)로부터 글과 학문을 배웠고, 21세 때에 國子監試에 2등 진사로 합격하였다. 24세(공민왕 17년, 1368년)때 4월에 고려 말 정치적 중심인 목은 이색에 의해 禮部試 에 장원으로 발탁되었다. 이색(李穡)의 문인이며, 공민왕 14년(1365년) 감시(監試)에 합격한 뒤 1368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검열이 되었다. 공민왕 20년, 1371년) 신돈의 미움을 사 강원도 통천군수인 지통주사로 좌천되었다, 우왕 1년

(1375년) 이인임·지윤을 탄핵한 죄로 10년 동안 귀양살이했다.

조선이 건국된 뒤인 태조 7년(1398) 이조전서에 기용되어 정종 2년(1400년) 첨서삼군부사(簽書三軍府事)로 전위사(傳位事)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2년 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올라 하륜과 함께 등극사(登極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태종 3년(1403년)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 〈楮生傳〉 이 있고, 저서로 『쌍매당집』이 있다.

이첨은 문장이 뛰어났고, 강개하고 곧은 성격으로 유배생활을 많이 하였다. 이 시는 남쪽 지방으로 유배를 오가면 쓴 시로 보인다. 머나먼 관동지방을 오가며 아름다운 양양을 지날 때마다 머물렀다. 어느 날 양양의 객사를 그냥 지나친 것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로 바빠서였다고 양양에 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25 상운정에 걸린 가정의 시운에 차운하며 (次祥雲亭稼亭詩韻)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

바닷가에 신선과 회합하는 일 어려우니　　海上神仙會合難
고달픈 이 인생 말위를 뜨지 못하네　　勞生祗自不離鞍
이제서야 비로소 강릉을 향해 가면서　　如今試向江陵去
절경 많은 누대들을 차례로 보노라　　多少樓臺次第看

『雙梅堂先生集』

상운정은 부 남쪽 3 리에 있었다. 바다 곁에 긴 소나무가 1 리에 잇닿아 푸르게 그늘져 쳐다보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다. 소나무 사이에 잡풀이 없고 오직 산철쭉이 있어서 봄에는 꽃이 피면 비단을 이룬 것처럼 빛난다(강원도지).

이 시는 상운정에 걸려있는 가정 이곡의 시를 보고 차운한 것이다. 옛날에는 정각도 잇고 시판(詩板)도 많았지만 지금은 없다. 동해안의 절경에는 많은 누대가 있다. 그 누대들을 차례로 오르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바닷가에서는 신선을 만나기 어렵다. 풍류를 즐기기보다는 공무로 바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풍류를 찾으려는 심회를 노래하였다.

26

쌍매당(雙梅堂) 이첨(李詹)

양주에서 유지별감
(죄인을 특사하는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별감)
김균에게 시를 지어 줌(襄州贈宥旨別監金稛)

임금의 특사령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紫泥初降重霄日
성상의 덕은 동해 물처럼 헤아리기 어렵네	聖德難量東海波
천리 길 수레 타고 돌아가 복명하고	千里乘軺還復命
잠시 머물러 태평가를 들어보기 바라오	且留須聽太平謌

『雙梅堂先生集』

27

가정(稼亭) 이곡(李穀)

태평루제영(太平樓題詠)

파면시켰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전에 없던 일로	李君起廢事超前
부서진 기와에 천경년(天慶年)이 적혀 있네	敗瓦書存天慶年
동우(棟宇)는 벌써 전성할 때와 같고	棟宇已同全盛日
민가에는 다시 태평한 연월(煙月)이 있네	閭闊還有太平煙
처마에 가득한 가을 기운은 산이 좌석을 둘렀고	滿簷秋氣山圍坐
언덕을 격한 물결 소리는 파도가 하늘에 닿은 듯하네	隔岸濤聲浪接天
새로 온 어진 태수에게 말하노니	奇語新除賢太守
은지(隱之)야, 탐천(貪泉)을 마신들 무엇이 해로우리	隱之何害酌貪泉
이 다락 풍경이 눈앞에 넉넉한데	此樓風景僅瞻前

오가며 등림한 지도 또 일 년이네　　來往登臨又一年
주렴에는 차갑게 은하 이슬이 젖고　　簾額冷霑銀漢露
거문고 복판엔 따뜻하게 옥전(玉田) 연기가 나네　　琴心暖起玉田煙
한가하니 병 속 세월을 즐길 만하고　　淸閑可喜壺中日
막힘은 독 속 천지가 싫다　　阨塞還嫌瓮裏天
여러분의 빙설(氷雪) 같은 시구에 화답 하고파도　　欲和諸公氷雪句
짧은 두레박 줄로 깊은 샘물 길으니 부끄럽네　　羞將短綆汲深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이곡(충렬왕 24년, 1298년~충정왕 3년, 1351년)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중부(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다. 아들이 색(穡)이고, 백이정(白頤正)·정몽주·우탁(禹倬)과 함께 경학(經學)의 대가로 꼽힌다. 1317년 거자과(擧子科)에 합격,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332년 원나라에서 정동성 향시(鄕試)에 수석,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했고,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원나라 문사들과 사귀었다. 1334년 귀국하여 가선대부 시전의부령직보문각(嘉善大夫試典儀副令直寶文閣)을 제수받았다. 이듬해 다시 원나라에 가서 정동행중서성좌우사원외랑(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郎) 등의 벼슬을 거쳤고, 고려에서의 처녀 징발을 중지하도록 건의했다. 문장이 뛰어나 원나라에서도 존경받았다. 가전체 작품 〈죽부인전 竹夫人傳〉과 100여 편의 시가 『東文選』에 전하며 저서로 『가정집』 4책 20권이 전한다.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의 단산서원(丹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태평루는 객관 남쪽에 있었다. 16간으로 원나라 인종연우 2년(1315)에 창건 되었고, 경인년에 중창되었다. 다시 은총을 입어 나랏일을 하며 양양에 들려 태평루에서 이 시를 지었다. 동우는 전성시처럼 강건하다. 백성들은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다. 晋나라 吳隱之가 貪泉이란 시가 있다

옛 사람이 이 샘물을 말하기를　　古人云此水
한번 마시면 천금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네　　一歃懷千金
백이와 숙제에게 이 샘물을 마시게 한다 해도　　試使夷齊飮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리라　　終當不易心

이 샘물을 마시면 욕심쟁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진 태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심회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 시는 태평루의 풍경이 넉넉하여 오가며 찾은 지가 2년이나 되었다. 이곳에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며 눈같이 맑고 시원한 시로 화답하고 싶지만 자신의 문장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심회를 읊고 있다.

28

영랑포(永郎浦)

가정(稼亭) 이곡(李穀)

안축(안씨 성을 가진 재상 즉, 안축)은 황학의 달을 보고 맑은 회포 풀었는데 安相淸懷黃鶴月
나는 흰 물새 떠 있는 물결보고 가던 길 멈추었다오 李生行止白鷗波
이곳 다시 오기 참으로 어려워 重來此地誠難必
허전한 마음 품고 관동의 노래 한 고조 듣는다오 空聽關東一曲歌
『江原道誌』

29

동행했던 유 소경이 말이 병으로 뒤에 처졌는데, 양양에 도착해서 머무르며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누대 위의 시를 차운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며(同遊柳少卿以馬病落後到襄留待不至用樓上詩韻趣之)

가정(稼亭) 이곡(李穀)

늙은 나는 재주 없어도 뜻밖에 앞에 있고 老我才疎偶在前
날랜 기백 꽃다운 나이인 선생은 뒤에 있네 先生氣銳更芳年
바다처럼 깊은 국은은 아직 못 갚았어도 國恩未報深如海
연무처럼 묽은 세상맛은 미리 알았네 世味先知淡似煙
꿈속에 보던 한송정과 총석정의 길이 夢裏寒松叢石路
시 속에 나오는 가랑비와 국화의 경치였네 詩中細雨菊花天
몇 번이나 승경 만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幾廻遇勝苦相待
내일은 서로 헤어져서 주천으로 가야겠네 明日分程向酒泉
『稼亭先生文集』 卷之十九, 律詩

30

가정(稼亭) 이곡(李穀)

관란정(觀瀾亭)－
동산현 동쪽 2리에 있다.

금포화극(金鋪畫戟)의 관란정에 게으르게 오르니	懶踵金鋪畫戟門
푸른 대 흰모래 숲을 한가롭게 찾네	閑尋翠竹白沙林
동해에 물결 고요하니 하늘이 더욱 푸르고	東溟浪靜天逾碧
서새산이 높아서 날이 빨리 어둡네	西塞山高日易昏
우연히 좋은 유람을 하면 매우 기쁘니	偶作勝遊殊可喜
시사(時事)를 말하려다가 도로 삼켜버렸네	欲談時事却成吞
예부터 바다를 보면 물 얘기하기 어려운데	古來觀海難爲水
우물 밑 어느 사람이 망령되게 스스로 높은 체하네	井底何人妄自尊

정자 너머 산봉우리는 현의 문을 옹위했고,	亭外峰巒擁縣門
헌함 앞 물가와 모래톱은 어촌을 감네	檻前洲諸抱漁村
푸른 물결은 흰 수염이라도 물들일 만하고	碧波可染衰鬚白
맑은 풍경은 병든 눈을 능히 낫게 하네	淸景能醫病眼昏
거문고 소리는 아득히 하늘 멀리 떠돌고	三島茫茫天共遠
수많은 강이 호탕하나 바다가 아울러 삼키네	百川浩浩海幷呑
이렇게 마주하여 나를 잊고 앉아	若爲對此忘機坐
세상 일 잊고 멀리서 소중하게 생각하네	不校人間有遠尊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화려하고 아름다운 관란정에 여유 있게 오르자 푸른 대나무와 흰모래와 숲이 한가롭다. 바다가 고요하니 하늘은 더욱 푸르게 느껴지고 서새산이 높아 빨리 어두워진다. 우연히 좋은 유람으로 이 정자에 오르니 기쁘다. 세상사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 있게 표현하였다. 바다를 보면서 물을 이야기하기 어려워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심회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 수에서는 정자 너머 산봉우리가 동사현의 문을 옹호하고 있고, 난간 앞 물가의 모래사장이 마을 감싸 안고 있어 고요하다. 흰 수염을 물들인 정도로 푸른 물결이 아름답고 선명하다. 맑고 맑아 풍경이 눈병을 낫게 할 정도이다. 거문고 소리 아득히 멀리 떠돌고 바다는 모든 삼킬 위용에 세상일 잊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는 심회를 표현하였다.

31 관란정(觀瀾亭)

통정(通亭) 강회백(姜淮伯)

정자 앞 모옥에 가시문을 달았는데	亭前茅屋掩柴門
나무마다 매화 피니 눈 속의 마을이구나	樹樹梅花雪裏村
사면의 푸른 소나무 연기가 어둡고	四面蒼松煙暗淡
노젓는 소리 그치고 달이 어스름하네	艣聲柔櫓月黃昏
호수 빛은 거울처럼 원래 더러움 없고	湖光鏡淨元無累
바다물결 구름까지 날리어 도리어 삼킬 듯하네	海浪雲奔却欲呑
오직 청산이 우뚝하게 보이며	唯有靑山瞻突兀
예나 이제나 푸르게 홀로 높다네	古今蒼翠獨能尊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강회백(공민왕 6년, 1357년~태종 2년, 1402년)의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백부(伯父), 호는 통정(通亭)이다. 우왕 2년(13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제주(成均祭酒)가 되었으며, 밀직사의 제학·부사·첨서사사(簽書司事)를 역임하였다. 1385년 밀직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388년 창왕이 즉위하자 밀직사로 부사 이방우(李芳雨)와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겸 이조판서에 있을 때, 상소하여 불교의 폐해를 논하고 한양 천도를 중지하게 하였으며, 이어 교주강릉도도관찰출척사(交州江陵道都觀察黜陟使)로 나갔다가 돌아와 정당문학 겸 사헌부대사헌(政堂文學 兼 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 문집으로 『통정집(通亭集)』이 있다.

관란정에 머물며 풍경을 노래하였다. 정자 앞의 집들은 가지나무로 닫혀 있고, 많은 나무에 매화기 피어 마냥 눈 속의 마을처럼 보인다. 푸른 소나무가 정자를 감싸고 노 젓는 소리 그치고 달빛은 어스름하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 빛은 깨끗하고 바다의 세상을 삼킬 듯한 위세다. 그래도 청산은 우뚝 서서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것을 느끼면서 노래하였다.

32

태평루(太平樓-객관 남쪽에 있다)

원재(圓齋) 정추(鄭樞)

더위를 식히는 누각은 연우년(延祐年-원 인종연호) 전에 완성하여	消署樓成延祐前
누 이름 지은 사람은 갑진년에 왔네	命名人到甲辰年
처마에 벌려선 늙은 나무 외로운 달이 걸렸고	排簷老樹孤輪月
언덕을 이웃한 수양버들 반쯤 연기에 늘어졌네	傍岸垂楊半縷煙
홀(笏)을 잡고 높게 읊조려 서늘한 기운을 맞이하고	柱笏高吟迎爽氣
술잔을 들고 흘겨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네	擧觴白眼望靑天
거문고 줄을 섬섬옥수로 칠 것 없고	朱絃不用纖纖弄
비온 뒤 숲 속의 시냇물 소리가 목 메인 듯 들려오네	過雨林間咽澗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정추(1333~1382년)의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공권(公權), 호는 원재(圓齋)이다. 공민왕 2년(1353년)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을 지공거(知貢擧)로 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예문검열(藝文檢閱) 및 여러 관직을 거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에 올랐다. 공민왕 15년(1366년)에 인척인 이존오(李存吾)와 함께 신돈(辛旽)의 죄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큰 고초를 당하였다. 신돈은 반대파 숙청을 위한 무고의 기회로 삼으려 거짓 자백을 강요했으나 정추는 폭압적 문초에도 굴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색(李穡)의 구원으로 죽음을 면하고 동래현령(東萊縣令)으로 좌천되었다가 공민왕 20년(1371년) 신돈이 제거된 후 다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발탁되었다. 이어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임명되었다가 고려 멸망 10년 전인 1382년에 병사하였다.

태평루에서 머물며 누각의 창건연대와 누각에서 바라본 풍경을 표현하였다. 오래 된 나무들 사이로 외로운 달이 보이고, 한수의 수양버들은 연기와 함께 늘어져있다. 시원한 날씨에 큰 소리로 시를 읊으며 술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이 때 비온 뒤 숲 속의 시냇물 소리가 목메어 들려온다는 표현이 특이하다.

33 냉천(冷泉)

원재(圓齋) 정추(鄭樞)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왔는데　海岸山從赫世前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을 보았네　幾看興廢迄今年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秋涵一野亞紅稻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르네　日照五峰生紫烟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德女故居莎覆砌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曉公遺跡樹連天
누에 올라 상사(相思) 꿈을 맺고자 한다면　登樓擬結相思夢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네　夢裏還應酌冷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냉천은 부 동쪽 15 리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관음보살이 여자로 변하여 벼를 베는데 원효대사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관음보살과 더불어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낙산사의 담론 중에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은 의미 있으면서도 흥미롭다. 냉천은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의 장소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오봉산의 예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관음보살이 화신이 벼를 베던 곳은 가을 들녘에 벼가 많고, 해가 오봉산을 비추자 붉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관음보살의 화신인 덕녀의 자리에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가 남긴 관음송은 하늘에 닿아 있다. 누에 올라 사모의 꿈을 이루고 싶거든 꿈속에서라도 당연히 냉천에서 술이나 마시자는 심회를 노래하였다.

34 산에 의지한 누관은 병속의 세상일세 (倚山樓觀壺中)

원재(圓齋) 정추(鄭樞)

산에 의지한 누관은 병 속의 세상이요, 倚山樓觀壺中地
물을 이웃한 여염은 그림 속 연기로다. 俯水閭閻畵裏煙

35 강선역(降仙驛)

원재(圓齋) 정추(鄭樞)

말머리 깃발에 아름다운 경치 스치는데 馬頭旋旆拂煙霞
물가의 집과 산마을 붉은 꽃 흰 꽃 水店山村紅白花
우정(郵亭)의 아름다운 풍경만 사랑하니 偏愛郵亭好風景
천 그루 소나무 아래에 물결이 모래 씻기우네 千株松下浪陶沙
『江原道誌』

강선역은 부 북쪽 20 리에 있다. 대마 2필, 소마 4필, 역리와 역노 209명, 역비 8명 이다.

36 태평루(太平樓)

우재(吁齋) 조준(趙浚)

옛 고을이 경영된 것은 나라 있기 전이어서 古國經營自國前
태평루의 아름다운 자연은 반천 년이었네 太平風月半千年
섬을 돌아보니 가로수에 해가 높이 솟았고 島還官樹三竿日
인어는 어촌에 낀 한 줄기 연기 속에서 말하네 人魚漁村一縷烟
남대천이 달려 흐르니 세상일이 마음 아프고 江漢奔流傷世道
산하에 장한 공적은 하늘에 맹서하네 山河壯績誓皇天
근래의 가혹한 부세에 백성이 고달파 하니 邇來瀆賦民燋悴
동해의 물 기울여 재물을 만들고 싶네 欲倒東溟作布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조준(충숙왕 2년, 1456년~태종 5년, 1405년)의 본관은 평양(平壤)이고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송당(松堂)이다. 고려 말 개혁파 사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조선왕조의 개창과 문물제도의 정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우왕 즉위(137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사헌장령 등을 거쳐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에게 중용되어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에 올랐다. 세자책봉·요동정벌 등을 둘러싸고 정도전과 대립하게 되어 자연히 이방원(李芳遠)과 정치적 입장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정종 2년(1400년) 판문하부사로 있으면서 한때 투옥되었으나 이방원에 의해 석방되었으며, 그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 좌정승·영의정부사가 되고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이 되었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강릉도 안렴사로 와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하조대의 유래도 조준과 관련 있다. 조준은 개혁사상으로 조선왕조의 기반을 만들었던 중심인물로 목민관으로서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다. 한 고을의 경영과 고려 말 가혹한 세금부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보고 관리로서 무한한 바다를 보고 물을 기울여 재물로 만들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37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낙산 행 소재 법석 소
(洛山寺行消災法席疏)

거룩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는 자비(慈悲)가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소자가 재앙을 만나 두려워서 어찌 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에 간절히 귀의(歸依)하와 큰 이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옵건대 이 조그마한 몸이 외람되게 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비록 윗자리에 있어 능히 밝지는 못하오나 그래도 임금의 업무가 쉽지 않은 줄은 압니다. 사냥이나 놀이를 줄이고 음악이나 여색의 즐김을 조심하며, 두려운 것은 백성이니 썩은 줄로 말을 다루 듯하고, 임금의 자리를 편안히 여김이 없이 깊은 연못에 임한 듯합니다. 그래도 혹 정치의 잘못됨이 있었을 것이며, 형벌의 지나침이 없었겠습니까.

이를 상제(上帝)께서 검열하시매 마땅히 하늘의 꾸지람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 산이 무너져서 호구(戶口)의 손실을 가져 왔고, 폭풍이 불어 나무를 뽑아서 곡식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불상(佛像)에 땀 흐르는 비상한 일이 있었으며 금성(金星)이 낮에 나타났습니다. 괴변이 거듭 이르니, 근심이 이에 청정한 곳을 가려서 재앙 없애는 기도의 자리를 베푸나이다. 자비하신 법신(法身)은 30가지의 묘한 상(相)을 갖추셨고, 길상(吉祥)의 신비한 주문(呪)은 8만 가지의 재앙을 녹인다 합니다. 환란이 나기 전에 막자면, 오직 가피(加被)에 의지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주시(周詩)의 순수한 복을 받아서, 더욱 수하며 어질어지고 기범(箕範)의 나쁜 징조는 없어져 길이 편안하여서, 백성이 안락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병란이 끝나고 시절이 태평합니다.

洛山寺行消災法席疏

偉覺皇護國之慈° 曷有其極° 余小子遇災而懼° 罔知所爲° 玆切依歸° 叅蒙饒益° 念惟眇質° 叨據丕基° 雖未能居上克明° 亦少知爲君不易° 庶省遊畋之 樂° 思戒聲色之娛° 可畏非民° 凜如御以朽索° 無安 厥位° 恒若臨於深淵° 然有敷政之失宜° 豈無播刑 之或濫° 斯乃帝心之簡° 寔宜天譴之多° 積雨山崩° 以致戶口之損° 暴風木拔° 而多禾稼之傷° 且佛汗 之非常° 又金星之現晝° 變異荐至° 虞憂實深° 故當 食而忘飧° 或已卧而復起° 爰擇淸淨之地° 式陳禳 禳之筵° 慈悲法身° 實爲三十妙相° 吉祥神呪° 能消 八萬種災° 庶防患於未然° 惟仰憑於加彼° 伏願茂擁周詩之純嘏° 俾壽而臧° 悉蠲箕範之咎徵° 其寧 惟永° 民安物阜° 兵戢時康°

『東文選』 卷之一百十三, 疏

변계량(공민왕 18년, 1369~세종 12년, 1430년)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이다. 이색(李穡)·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네 살에 고시의 대구를 외우고 여섯 살에 글을 지었다. 우왕 8년(1382년)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듬해 생원시에도 급제하였으며, 세종 2년(1420년) 집현전이 설치된 뒤 대제학이 되었고, 1426년에 우군도총제부판사(右軍都摠制府判事)가 되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거의 20년간 대제학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제학으로서 귀신과 부처를 섬겨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여 주위로부터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 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창의 병암서원(屛巖書院)에 제향 되었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저서로는 『춘정집』 이 있다.

38 수몽에게 부치며(寄守夢)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한밤중 외로운 촛불 아래 앉았다가	孤燭坐宵分
갑자기 양양의 서신을 보네	忽見襄陽信
서신 가운데 무얼 말했는고 하니	書中說何事
죽은 이를 애도하는 정 매우 극진하네	悼亡情苦盡
나의 지기가 죽은 지 이미 오래라	吾絃久已絕
그대의 시가 참으로 슬프구려	子詩良可悲
얼굴 아는 이야 어찌 많지 않으랴만	識面豈不多
마음을 알아줌이 가장 귀중하다오	所貴在心知
추포 노인은 진작 황천객이 됐거니와	浦老旣黃壤
백사 노인도 이미 장사가 끝났는지라	沙翁又掩隧
그대를 생각해도 만나지 못하니	思君未得見

내 마음을 장차 어디에 부치리오　　方寸將安寄
덧없는 인생은 일개 작은 티끌이라　　浮生一微塵
사리를 잘 알면서도 다시 한숨짓노라　　達視還復喟

『三峯集』 卷之六, 五言古詩

정도전(충혜왕 3년, 1342년~태조 7년, 1398년)의 본관은 봉화(奉化)이고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이다.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으로서 고려 말기의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각종 제도의 개혁과 정비를 통해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이곡(李穀)의 아들 색(穡)의 문하에서 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이존오(李存吾)·김구용(金九容)·김제안(金齊顔)·박의중(朴宜中)·윤소종(尹紹宗) 등과 함께 유학을 배웠다. 공민왕 9년(1360년) 성균시(成均試), 136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1370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되고 이색이 대사성이 되자, 성균관 박사가 되었다.

1383년 함주(咸州) 막사로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李成桂)를 찾아가 세상사를 논하고 그와 인연을 맺었다.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방원(李芳遠)에게 살해되고 반대세력이 제거되자, 7월 조준·남은(南誾) 등과 함께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했다.

39 낙산사(洛山寺)

고려 스님 익장(益莊)의 기문에 양주 동북쪽 강선역 남쪽 동리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당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자 가량이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렁이 되었는데 세상에는 관음대사(觀音大士)가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굴 앞에서 오십

보쯤 되는 바다 복판에 돌이 있고, 돌 위에는 자리 하나를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성(佛聖)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돌 위에서 전좌배례(展坐拜禮)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그래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돌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大聖)이 곧바로 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水情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서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 위다. 거기에다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하라'하였으며 용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는바 곧 이 절이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가을에 사자(使者)를 보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甲令-항상 하는 일)에 적어서 항규(恒規)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에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의 종이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가져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오기로는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려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다.'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에 유자량(庾資諒)이 병마사가 되어 시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배례 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구원의 손길을 뻗는 보살이라 하여 관세음(觀世音) 또는 관음(觀音)보살이라 한다. 낙산의 원명은 보타락가산으로, 약해서 낙산이 됐다. 곧 낙산사가 들어선 현장은 관세음보살의 8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인 성지다. 고려 스님 익장(益莊)이 써 남긴 낙산사의 유래는 이렇다. 지금 의상대 맞은편 바다를 향한 암굴 속에 관세음보살이 사는데 신라의 의상(義湘) 대사가 그 굴 오십 보 앞 바닷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암반에 두 이레를 앉아 관음의 모습을 보고자 기도를 했다. 끝내 드러내지 않자 부덕을 자책,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보살이 용으로 하여금 앞발을 뻗게 해 구하고서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주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있는 곳이 내 정수리이니 그곳에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셔라" 했다. 그렇게 지은 절이 낙산사요 수정 염주와 여의주는 사보(寺寶)로 간직해 내려오는 동안 외난과 화재로부터 안전했다. 몽골 침략 때 절의 종이 이 두 보물을 땅에 묻어 보존했다는 것을 끝으로 행방을 알 수 없다.

40 9월에 왕이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니.

9월에 왕이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니 낙산사는 신돈의 원찰(願刹)이다. 측근의 신하가 다투어 왕에게 아뢰기를, "금년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하니, 왕이 부처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제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으나 수재·한재가 많았는데, 금년의 풍작은 실로 첨의(僉議)가 음양을 고르게 다스린 데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신돈을 공경하여 첨의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신돈은 낙산사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영이하다 하므로 오일악(吳一鶚)을 시켜 비밀리에 저의 축원문(祝願文)을 쓰게 했는데, 그 원장에, "제자(弟子 신돈 자신을 말함)의 분신 모니노(牟尼奴)가 복이 많고 장수하여 나라에 머물러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였다. 모니노는 신돈의 비첩 반야(般若) 소생이니 우(禑)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처음에 신돈이 사비(私婢) 반야를 맞아 들여 임신시켜서, 반승(伴僧) 능우(能祐)에게 부탁하여 능우의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를 낳게 했다. 7일 만에 반야는 돌아오고 능우의 어미가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 능우의 어미는 신돈에게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와서 다른 곳에 두고, 신돈에게 청하기를, '아이가 병이 있으므로 성 밖으로 옮겨서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신돈이 이를 허락하였다.

1년이 되어 신돈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으나, 반야도 제 아이가 아닌 줄은 알지 못하였다. 왕이 항상 대 이을 아들을 구하여 양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미행하여 신돈의 집에 가니,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양자를 삼아 뒤를 잇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왕이 곁으로 보고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내심 이를 허락하였다." 한다.

九月, 幸洛山寺, 辛旽願刹也, 左右爭言於王曰, 今歲大稔, 王, 跪于佛曰, 自不穀莅國, 十有五年, 水旱爲灾, 今歲之稔, 實由僉議之燮理也, 王敬旽, 稱僉議而不名, 旽, 以洛山觀音靈異, 令吳一鶚, 密書願狀曰, 願令弟子分身牟尼奴, 福壽住國, 牟尼奴, 旽, 婢妾般若所生, 是爲禑, 或云, 初, 旽, 納私婢般若, 有娠, 屬伴僧能祐, 使就產於其母家, 七日而般若還, 能祐母, 收而養之, 未期年, 其兒死, 能祐, 恐被旽讓, 竊取他人兒, 置諸他所, 請於旽曰, 兒有疾, 移養城外, 何如, 旽許之, 比及一年, 旽取養于家, 般若, 亦未知非其兒也, 王, 常求嗣, 謀所以立後, 一日, 微行至旽第, 旽, 指其兒曰, 願殿下, 爲養子以立後, 王睨而笑之不答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八, 恭愍王三, 丙午十五年 元 至正二十六年

41 헌종 공상대왕(獻宗恭殤大王)

송나라 상인 황충(黃冲) 등 31명이 자은종(慈恩宗) 중 혜진(惠珍)과 함께 왔으므로, 근신에게 맞이하여 보제사(普濟寺 개성(開城))에 머물도록 명하였다. 혜진이 항상 말하기를, "보타락산(普陁落山) 성굴(聖窟) (강원도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의 관음굴)을 보고자 하여 왔다." 하며, 가서 보기를 청하는 것이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宋商, 黃冲等三十一人, 與慈恩宗僧惠珍, 來, 命近臣, 迎置于普濟寺, 珍, 常曰, 爲欲見普陁落山聖窟而來, 請往觀之, 不許°

『高麗史節要』 卷之六, 獻宗恭殤大王

42 헌종 공상대왕(獻宗恭殤大王)

청파(靑坡) 이륙(李陸)

명사십리에 주문(朱門)이 버려졌는데
버들 그늘지고 꽃이 밝아 한 마을이 되었네
달이 동해에 돋으니 물결 망망하고
바람이 서새(西塞)에 부니 비가 침침하네
봉래, 영주(蓬瀛)는 반드시 멀지 않고
운몽(雲夢)을 오히려 8, 9개나 삼킬 듯하네
머리를 돌리니 장안(長安)이 어디멘고.
응당 단정하게 팔짱 끼고, 엄연히 높은 자리에 계시네

明沙十里敝朱門
柳暗花月白一村
月上東溟波浩浩
風吹西塞雨昏昏
蓬瀛未必三十隔
雲夢猶能八九呑
回首日邊何處是
只應端拱儼居尊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이륙(세종 20년, 1438년～연산군 4년, 1498년)의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방옹(放翁), 호는 청파(靑坡)이다. 좌의정 원(原)의 손자로, 문종 2년(1452년)사마시에 합격한 뒤 지리산에 들어가 학문을 닦기에 힘썼다. 세조 10년(1464년)춘방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겸예문에 선발되고, 성균관직강이 되었다. 1488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서반으로 옮겼다가 그 해에 형조참판이 되었다. 이듬해에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490년 예조참판이 되어 정조사(正朝使)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병조참판·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연산군 1년(1495년)에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대사헌에 등용되어 여러 가지 시폐의 시정을 진언하였다. 그 뒤 한성부의 좌윤·우윤, 호조참판·병조참판을 지냈다. 저서로는 『청파집』·『靑坡劇談』이 있다.

43 동헌(東軒)

목계(木溪) 강혼(姜渾)

양양에 와 고인(故人)의 현명함을 추억하는데	襄陽來憶故人賢
청봉에 잔설이 처마 비추네	殘雪晴峰映畵軒
맹호연(孟浩然)은 공연히 나귀 등에서 시구를 읊조렸고	孟浩空吟驢背句
산공(山公)은 오히려 습지(習池)의 자리를 비웠네	山公猶欠習池筵
마침 밝은 달을 만나 누대가 고요하니	正逢明月樓臺靜
젊은 여자의 고운 태도가 필요 없네	不用靑娥意態妍
이번 걸음에 정과 흥이 박했다고 이르지 말라	莫道此行情興薄
마땅히 훗날에 다시 신선을 찾을 것이오	會須他日更尋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강혼(세조 10년, 1464년～중종 14년, 1519)의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사호(士浩), 호는 목계(木溪)이다. 증조부는 영의정 맹경(孟卿)으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성종 17년(1486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 얼마 뒤 풀려나서 뛰어난 문

장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도승지가 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 3등으로 진천군(晉川君)에 봉해졌다. 그 뒤 대제학·공조판서·우찬성·판충추부사를 거쳤다. 시문에 뛰어나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저서에 『목계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동헌은 지방관아에서 감사, 병사, 수사 또는 그 밖의 수령들이 공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강혼과 김종직은 문인으로 시문에 뛰어났다. 공무로 양양에 와서 동헌에 머물며 쓴 작품으로 보인다. 양양에서 고인의 현명함을 생각하는데 청봉보의 남은 눈이 처마를 비친다. 맹호연처럼 양양에서 나귀 등에서 시구를 읊조리고, 연회에서 취하도록 즐기지 않지만 누대에서 밝은 달을 만나니 고요하고 자신을 찾을 수 있어 맹호연처럼 연회의 기생도 필요 없다. 이번 여정에 정과 흥을 즐기지 않았지만 다시 이곳을 찾아 신선의 세계를 찾아 즐기고 싶다는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44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용재(慵齋) 성현(成俔)

오봉 숲 기슭 모두 울창하여	五峰林麓鬱泰差
구름에 걸린 나무 침침하고 바다는 어둡네	雲樹沉沈暗海湄
감우(낙산사)에 홀연히 청정세계 열리고	純宇忽開淸淨界
부처님 미간에 나는 빛 대자비로 감쌌네	白毫光繞大慈悲
고기잡이 금하니 백성들 살길 없고	禁漁民戶無生理
길가는 역졸은 먼 길 달리기 고달프다	移路鄭大苦遠馳
애오라지 산나물과 다과(茶菓) 있으면	惟有山蔬與茶果
향기롭게 달게 여겨 배고픔 잊으리라	芳日亦可慰窮飢

『江原道誌』

성현(세종 21년, 1439년~연산군 10년, 1504년)의 본관은 창녕이고 자는 경숙(磬叔), 호는 허백당(虛白堂), 용재(慵齋), 부휴자(浮休子), 국오(菊塢)이다. 세조 8년(1462년) 식년문과

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가 된 뒤 홍문관정자를 거쳐 사록(司錄)이 되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성·대사간·동부승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488년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동지중추부사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헌을 거쳐 1493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한성부판윤을 거쳐 공조판서가 된 뒤 대제학을 겸했다. 62세 때는 홍문관과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에 올라 이 시기의 문풍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의 시론의 특징은 이규보와 서거정의 기론(氣論)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미의식의 구현을 주장한 점이다. 또한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각도에서 정치적 득실에 대한 풍간(諷諫)의 작용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의 애민시(愛民詩) 계열 작품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慵齋叢話』를 저술했으며, 장악원의 의궤(儀軌)와 악보를 정리한 『樂學軌範』을 유자광 등과 함께 편찬했다. 문집으로 『虛白堂集』이 전한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 당했으나, 뒤에 신원(伸寃)되었고 청백리로 뽑혔다. 시호는 문재(文載)이다.

성현은 강원도관찰사와 대제학을 지냈고, 조선조 文風을 주도 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로 낙산사를 찾아 오봉산은 숲으로 우거져 울창하지만 구름에 걸린 나무는 침침하고 바다는 어둡다는 표현에서 작품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다. 낙산사는 청정의 세계가 열려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고기잡이를 금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역졸들도 멀길 달리기에 고달픔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자신도 오로지 산나물과 다과만 있어도 즐겁게 먹고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처참한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45

용재(慵齋) 성현(成俔)

낙산사의 스님 해초(海超)가

우리 문중에 출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루는 부처에게 공양할 것을 요구하니 유본(有本)이 방에 있
다가 말하기를
洛山寺僧海超 出入吾門已久 一日來求供佛之具 有本在房曰

높은 집에 단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흙을 칠하여 부처 만들었네

高架棟宇塗以丹
塑泥木爲像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공궤하여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만

하니 스님이 즉석에서 대답하기를

높은 집에 단청을 칠하고
밤나무를 깎아 신주를 만들고
사철 중월(仲月)에 정성을 다하여
공궤한들 무슨 이익이 있는고
하여 유본은 대답하지 못 하였다.
『慵齋叢話』 卷之六

晝夜虔誠而飼之
有何利益

僧卽應聲答曰

高架棟宇塗以丹
斲栗木爲主
四仲之月虔誠以飼之
有何利益
有本不能對

46

용재(慵齋) 성현(成俔)

양양에서 남쪽으로 수 리 떨어진 길가에

돌이 서 있는데 항간에서 전하기를
옛날에 한 암행어사(安廉)가 주지(州妓)를 몹시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자 시를 지어 돌에 제하기를 襄陽南數里 有潟立路旁 諺傳 昔一按廉酷愛州妓 臨遞別妓 作詩題于石曰

너 돌은 어느 때 돌이뇨
나는 금세의 사람이로다
이별의 괴로움도 모르고 홀로 서서
몇 번이나 봄을 지내었던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함부림(咸傅霖)이 지은 것이라고도 말한다
『慵齋叢話』 卷之七

汝石何時石
吾人今世人
不知難別苦
獨立幾經春
或云咸傅霖所作

47 낙산사 향로봉에서(洛山寺香鑪峯)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무성했던 만물이 근본으로 돌아가니　　芸芸物歸根
지는 해는 맑은 경치 펼쳤네　　落日展淸眺
바람이 불어 맑은 거문고 울리고　　風進淨琴張
높은 산 뾰쪽한데 맑고 흰 달이 작구나　　山尖白月小

『秋江先生文集』 卷之三, 詩

남효온(1454~1492년)의 본관은 의령이고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 벽사(碧沙)이다. 생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신(曺伸), 이윤종(李允宗), 주계정(朱溪正), 안응세(安應世) 등과 사귀었다. 소릉 복위 주장은 세조 즉위와 정난공신(靖難功臣)의 명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었으므로 훈구파(勳舊派)의 미움을 받았다. 이에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니는 유랑생활로 생을 마쳤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자처하면서 세상일을 가볍게 여겼다. 사육신(死六臣)의 절의를 추모하고, 그들의 충절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음을 염려하여 『六臣傳』을 저술하였다.

「弔義帝文」이 문제가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을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지목되었다. 1504년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로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소릉 복위를 상소했던 일이 다시 논죄되었다. 고양에 있던 그의 묘가 파헤쳐지고 시체는 양화도(楊花渡) 나룻가에 버려졌으며, 아들 충서(忠恕)도 사형 당했다. 숙종대에 이르러 함안 백이산(伯夷山) 밑에 서산서원(西山書院)을 세워 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김시습·조여(趙旅)·성담수(成聃壽) 등과 함께 배향되었는데, 이들을 생육신이라 일컫는다. 정조 6년(1782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추강집』·『秋江冷話』·『師友明行錄』·『귀신론』·『육신전』 등이 있다. 고양 문봉서원(文峰書院)·장흥 예양서원(汭陽書院)·영월 창절사(彰節祠)·의령 향사(鄕祠) 등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48 양양 바닷가에서(襄陽海邊)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어촌의 집들 나무껍질로 지붕 덮고	漁家木皮蓋
소금 굽는 장막에는 흰 연기 오르네	鹽幕白煙斜
푸르디푸른 빛은 동해의 바닷물이요	重碧東溟水
연분홍 고운 빛은 서안에 핀 꽃이네	輕紅西岸花
둘러선 바위에는 해달이 울고	廻巖鳴海獺
저무는 길에 명사십리는 메아리 치네	暮路響鳴沙
산봉우리들 푸름이 다하지 않는데	峰巒靑不盡
만 겹의 산이 눈 앞에 지나가네	萬疊眼中過

『秋江先生文集』卷之二, 詩

양양은 옛부터 바닷가의 풍경이 절경이다. 어촌의 촌가는 나무껍질로 지붕을 덮었고 소금 굽는 장막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표현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바다는 푸르고 푸른빛으로 빛나고 해안가의 고운 연분홍 꽃이 피어 봄의 흥취를 돋운다. 바위 위에서 해달이 소리 내고 저무는 길에 명사십리는 메아리친다. 푸르름을 드러내는 많은 산들이 눈에 들어오는 관동지방을 유람하며 추강의 심회를 노래하였다.

49 혜초 스님께 드림(贈海超)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푸른 산에 에워싸인 낙산사	靑纏洛山寺
어제 저녁 홀연히 투숙했네	昨暮忽暝投
주지인 지둔스님의 승려들이	主人支遁徒
손님 맞아 갖가지 음식 마련했네	邀客具庶羞
내뱉는 말씀 내 게으름 일깨우니	出言起我懶
맑은 서리 가을 하늘에 걸린 듯	淸霜橫素秋
새벽 종소리 깊이 반성하게 하더니	晨鍾發深省
새벽빛이 벌써 누각에 밝았구나	曙色已明樓

『秋江先生文集』卷之二, 詩, 贈海超

추강과 김종직은 문인이고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강개한 선비이다. 푸른 산에 둘러 쌓인 낙산사에서 하루 유숙하면서 지둔스님의 제자인 혜초스님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다 맑고 곧아 자신의 게으름을 일깨워 준다. 새벽까지 스님과의 담론에서 새벽 종소리에 깊이 깨닫고, 아침 해가 누각을 비추는 풍경 속에서 가신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50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낙산사에서 성휴 스님께 드림
(洛山寺 贈性休)

나는 강호로 떠도는 나그네	我是江湖客
그대는 불제자의 스승이라오	君爲釋者師
푸른 등불 한밤중에 밝히고	靑燈明半夜
약속대로 불교교리를 말씀하시네	法語果幽期
창밖은 기암절벽이고	囱外奇巖老
뜰 앞에는 잣나무 제격이라	庭前柏樹宜
탕휴가 내 시심 일으켜	湯休起我病
미소 지으며 시 지으라 하네	微笑索題詩

『秋江先生文集』卷之二, 詩, 洛山寺° 贈性休

추강은 생육신으로 강호를 떠돌다 낙산사를 찾았다. 성휴스님과 한 밤중까지 불을 밝히고 약속대로 법언을 하였다. 창밖은 기암절벽으로 법당 앞의 잣나무는 제격이다. 이런 풍경 속에서 탕휴스님이 자신의 시심을 불러일으킨다. 탕휴는 당나라 시승(詩僧) 湯惠休를 말한다. 불가에서 시를 잘하는 스님으로 탕휴가 그 시초로 미소 지으며 시를 지으라고 하기에 시를 지어 성휴스님께 주었다.

51 오색역에 묵으며(宿五色驛)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산길 가다 만난 한 줄기 개울물　山行一流水
굽이돌아 여러 번 산하를 건넜네　曲折跋涉屢
시냇물 맑아 어지러운 돌 희고　川明亂石白
날씨가 흐려서 하늘높이 부는 바람 노하네　日陰天風怒
황혼에 차가운 달 높이 뜨고　黃昏寒月高
온갖 나무에 가을비 머물렀네　萬樹逗秋雨
머리카락 묶은 듯이 서니　毛髮竪如束
하물며 범 울음소리 들리는구나　況聞嘯於菟

『秋江先生文集』 卷之二, 詩, 宿五色驛

남효온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방랑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쳤다. 이 시는 낙산사와 오색역에 묵으며 쓴 시이다.

52 익현 유사군에게 받들어 화답하며 (奉和翼峴柳使君)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관동지방에서 아름다운 곳은 양주를 말하니　關東佳麗說襄州
더구나 백성 순박하고 풍년까지 들었음에랴　況復民淳歲有秋
영각의 금서를 보니 참으로 어진 태수요　鈴閣琴書賢太守
바닷가의 부절은 바로 옛날의 제후라네　海圻符竹古諸侯
남 따라 굳이 안렴사를 높일 것도 없거니와　雷同未必尊廉使

허리는 굽혀서 어찌 관리에게 향하리오　　磬折何曾向督郵
조만간 정히 성상의 부름을 받으면　　早晩定膺宣室召
옛날의 장조와 누가 더 우월할런고　　往圖張趙孰爲優

과거에 장원하고 십육 년이 되기 전에　　桂籍魁仙未破瓜
창해군 동쪽 가로 장관이 되어 갔네　　爲官滄海郡東涯
풍속 교화한 예악의 정사를 모두 흠모하는데　　共欽化俗絃歌政
조세 독촉으로 결박당한 흉터를 누가 탄식하랴　　誰嘆催科木索痂
관리 차림에 대궐 출입 막힌 게 싫을 터인데　　冠佩應嫌阻靑瑣
운하 속에서 어찌 신선술을 배우리오　　雲霞寧學養丹砂
주옥같은 장편시가 풍편으로 인해 당도하여　　驪珠百十因風墮
한번 읽으니 백발을 물리칠 만하구려　　一讀猶堪却鬢華

『佔畢齋集』卷之二十二, 奉和翼峴柳使君

김종직(1431~1492년)의 자는 계온(季昷).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다. 길재의 문하에서 문장을 배웠다. 6살 때부터 부친에게서 童蒙須知 小學, 四書三經, 諸子百家書 등 폭넓은 문장을 배웠다. 세조 5년(145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종 초에 함양군수, 선산부사를 거쳐 도승지, 이조참판, 형조판서, 지중추부사 등에 이르렀다.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의 문하로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영남학파의 종조(宗祖)로 많은 제자를 교육하였다. 27세에 쓴 弔義帝文를 지어 무오사화로 인해 剖棺斬屍되었다. 연산군 4년(1498년) 제자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사초(史草)에 수록한 「弔義帝文」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당하고 생전에 지은 많은 저술도 불살라졌다. 항우가 초(楚)나라 회왕(懷王 : 義帝)을 죽인 것을 빗대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것을 비난하였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황은 김종직을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 우리나라 학문의 연원이 깊도록 하였으며 문장이 高古하여 시대의 領袖이며 후생을 일깨운 태산북두가 되어 유학의 도가 끊이지 않게 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숙종 15년(1689년) 영의정에 증직되고, 숙종 34년(1708년) 문충(文忠)의 시호가 내려졌다. 밀양의 예림서원, 선산의 금오서원, 함양의 백연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저저는 『佔畢齋集』, 『流頭流錄』, 『靑丘風雅』, 『堂後日記』 등이 있다.

이 시는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에게 답한 것으로, 유부사는 1486년 양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실록에 의하면 의창(義倉)의 문제에 따른 폐단을 상소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연산군 10년(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사망했다.

관동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양양으로, 백성들이 순박하고 문물이 풍부한 고을에서 선정을 베풀어 좋은 태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진나라 도잠의 고사와 명망이 높았

던 장조(장참, 조광한)의 고사를 인용하여 유사군에게 어진 태수의 모습을 강조 하고 있다. 유부사는 어진 부사로 왕의 부름을 받으면 충성된 신하로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고, 양양의 부사로 부임하여 풍속교화와 예약에 힘써 모든 백성들이 흠모하기를 부탁하며 이 시를 지어 주었다. 그리고 부사의 아름다운 시는 한번 읽으면 백발을 물리칠 만큼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다.

53 윤선생(尹先生) 상(祥) 시집 서(詩集序)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경술(經術)하는 선비는 문장에는 졸렬하며, 문장을 하는 선비는 학문에는 어둡다고 세상 사람은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 문장이란 것이 경술에서 나오는 것이니 경술은 곧 문장의 기초다.

이를 풀이나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가 없이 가지가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는가. 『詩經』、『書經』과 『六藝』는 모두 경술이요, 시경、시경과 육예의 글은 곧 그 문장이다. 만일 능히 그 문장을 통하여 그 이치를 연구하여 정밀하게 이를 살피며 흐뭇하게 그 속에서 젖어서 이치와 문장이 나의 가슴 가운데에 융합되며 모여들면, 곧 그것이 나타나서 언어와 사부(詞賦)를 하는 데에 잘 만들려고 애쓰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다.

예로부터 문장으로 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후세에 전하는 사람은 모두 이러하였을 뿐이다. 사람은 다만 오늘날 이른바 경술이란 것은 글의 구절을 떼며 어구를 해석하는 공부에 불과하며, 지금의 소위 문장이란 것이 어구를 수식하며 짜임새를 묘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글의 구절을 떼며 어구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 문화와 정치를 장식하는 문장과 관계가 있으며, 어구를 수식하며 짜임새를 묘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성리(性理)와 도덕의 학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리하여 경술과 문장을 두 가지로 보고 그것은 서로 이용이 되지 못한다고 의심하게 되었으니, 아, 그의 관점은 또한 천근하도다. 오늘 세상에 있어서 능히 분발 노력하여 유

행하는 세속에 초월하여, 위로 공자와 맹자의 깊은 진리를 탐색하며 여켈색하게 창작하는 사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 없다 할 수 있으랴.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이 또한 일대의 어진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아무 관적에 있던 양양(襄陽) 윤(尹)선생은 곧 내가 말하려는 그 사람이다.

선생은 천품이 순수하고 독실하며 학문이 갖추어 통하였다. 그는 의리의 정미함에서 스스로 얻은 바가 많았다. 그러므로 능히 시골에서 일어나서 조정에 등용되어 태학에 있기를 전후 20여 년에 이르렀으며, 지도와 교육을 늙기까지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의 높은 관리와 유명한 사람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으니, 스승으로서의 존엄함이 양촌(陽村) 이후의 한 사람뿐이었다. 문장을 짓는 것은 비록 그의 본업이 아니었지만 평이하며 간결하고 타당하며 얼핏 보면, 속된 듯 하면서도 자세히 이를 감상하면 여유 있게 깊은 맛이 있으니, 모두 육경(六經) 가운데로부터 우러나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때에 스승의 자리[皐比]를 차지하고 있는 추부(樞府) 김말(金末)과 사성(司成) 김반(金泮)과 문장(文長) 김구(金鉤)와 같은 분들은 경술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문장에는 같이 겨룰 수 없었으니, 선생은 이른바 일반 사람의 갑절인 덕과 재주를 가졌다 할 수 있다. 그의 평생 동안 지은 것이 적지 않았으나 짓고는 바로 버리곤 하여 한 장도 남지 아니하였다.

선생의 아들인 과거 군위 현감(軍威縣監)을 지낸 계은(季殷)은 나와 같은 해에 진사(進士)에 합격한 사람이다. 흩어져 있는 속에서 가까스로 주어모아서 몇 권을 얻어서 편집하여 한 질(帙)을 만들고 나에게 그 첫머리에 글을 쓰기를 청하였다. 나는 이르기를,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는 오래되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선생을 태산북두처럼 우러러 생각하며, 그가 제자에게 입으로 전수하신 경전의 정밀하고 순수한 말씀은 관료 선비로부터 일반 학도까지도 모두 이를 붓으로 기록하여 인재를 많이 양성시킨 것을 서로 칭송하며, 역사가는 또 이를 역사에 올리기를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여 사업의 찬란함이 족히 후세에까지 빛날 것이니, 이제 남은 글 토막 문장이야 전하지 아니한들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부모께서 남기신 물건이면 비록 갓과 신발, 휴대하시던 물품까지도 아들 된 사람은 오히려 정성으로 간직하여 보존하려는데, 하물며 시와 문장은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며 부모의 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마땅히 군이 애써서 수집하여 자손에게 영원토록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나도 간접적으로 선생께 배운 사람이다. 감히 기꺼이 이를 쓰지 않을 수 있는가.

『續東文選』 卷之十六

54 산중의 답답함을 유공회에게 보여주며 (山中悶甚示柳公薈)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객관에서 무료하여 술에 취해보니　　客館無聊酒半醺
예쁜 꽃 한 송이가 좋은 향길 풍기누나　　好花日朶吐奇芬
사내들 곳곳마다 풍류 벌어지니　　男兒到處風流在
날마다 고당(이름난 기생)과 채색 구름 꿈꾸네　　日日高唐夢綵雲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갈 길은 멀다마는　　長安西望道途遙
양양 고을 기생들이 특별히 아름답네　　花語襄陽特地嬌
내일도 점점 복잡해도 마음 아니 조이는데　　明日漸多心不迫
버들가지 이제부터 긴 가지에 얽히었어라　　柳枝從此綰長條

양양은 예부터 풍류가 심하였는데　　襄陽自古甚風流
지금까지 숙부님의 정사가 가장 우수하네　　叔父于今政最優
행장차려 서쪽으로 웃고 가지 말고　　且莫俶裝西笑去
맑은 술로 국화 필 때 한 잔 하세　　淸樽相對菊花秋

『梅月堂集』 卷之三

김시습(세종 17년, 1435년~성종 24년, 1493년)의 본관은 강릉이고, 자는 열경(悅卿)이고, 호는 매월당(梅月堂), 동봉(東峰), 벽산청은(碧山淸隱), 췌세옹(贅世翁)이고,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선조는 신라 무열왕의 6대손인 김주원(金周元)의 후손이다. 김시습은 5세에 학문과 문장으로 신동으로 알려져 당시 정승 허조와 세종대왕에게 문장능력을 인정받고 미래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단종 폐위 사실을 듣고 책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고 방랑을 시작하였다.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최초의 한문소설인 『金鰲新話』를 지었다. 조선조 최고의 문인이지만 불우한 현실에서 기인이고, 미치광이로 대접받으면서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가문과 철학, 불교관, 인생관 등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하였던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서신으로 예의를 갖추었고, 서신의 내용이 김시습과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유자한(柳自漢.?-?)의 본관은 진주이다. 세조 5년(1459년) 평양별시문과(平壤別試文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1464년 경기도경차관(京畿道敬差官)이 되었다. 이듬해 중시문과(重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1466년 지평을 지냈다. 성종 6년(1475년) 홍문관부교리가 되고, 1478년 예문관응교·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지낸 뒤 1482년 행사간(行司諫)을 지냈다.

성종 16년(1486년) 양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의창(義倉)의 환자 〔還上〕 에 따른 폐단을 상소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연산군 10년(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양양부사로 있으면서 양양의 백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유부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유배지에서 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방랑생활을 하였던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과 서로 위로하며 가까이 지냈다.

김시습에 관한 가문과 어린 시절, 그리고 많은 일화들이 양양부사 유자한의 서신에 나타나 있다. 유부사는 양양의 여인을 김시습에게 소개하여 편안한 가정을 꾸밀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김시습은 평생 전국을 방랑하였지만 유부사 때문인지 몰라도 문집 속에 양양에 관한 기록과 설화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오세암의 전설을 보면, 매월당 김시습이 이 절에서 주로 은거하여 오세암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이 시는 부사 유자한의 접대로 양양 객관에서 머물며 술이 취해 예쁜 꽃송이를 보고 지었다. 양양의 전통적인 풍류와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55 낙산 노장(老丈)의 방 좌하(座下)에서 (洛山丈室座下) 5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바다 위 푸른 봉우리 바다 속을 비추니 海上靑峰映海心
고승이 편히 앉아 자단(紫檀),침향(沉香)을 피우네 高僧宴坐爇檀沈
열반(涅槃)을 강의하는 곳엔 모진 돌도 신통해 지고 涅槃講處神頑石
찰리(왕족)가 교차될 때 도관(道觀)도 회복되네 刹利交時復道林
나 인연 있어 법석(法席)에 참예한 것 기뻐하고 喜我有緣參法席

대사 추하게 아니 보아 불설(佛說) 들려주셔 감사하네　感師不鄙唯圓音
멀리서 사알룡(娑謁龍) 와서 들으니 알겠고　遙知娑謁龍來聽
제일 화엄경 말끝마다 금이 나온다네　第一華嚴口口金

선사는 숭고하고 기략과 말을 잘하여　禪師高峻有機鋒
일찍이 제사(提娑)의 육상종(六相宗)을 논파했네　曾破提娑六相宗
명월과 청풍은 함께 하기 어렵고　明月淸風難共友
높은 산 흐르는 물에는 만나는 사람 적구나　高山流水少人逢
창에 반쯤 가린 푸른 대에 우수수 빗소리요　半窓翠竹蕭蕭雨
뜰에 가득 누런 꽃 아래 귀뚜라미 소리　滿切黃花晰晰蛩
만일 서쪽에서 온 뜻 분명히 묻는다면　若問西來端的意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뜻을 물음
두루 끄집어내 사람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함도 무방하리　不妨拈出豁人胸

현각스님 고귀한 가문 세상에선 둘도 없는데　永嘉右族世無雙
그 다 버리고 여러 해 동안 말 복잡한 것 배웠네　拋累年來學語哤
보타산 그 앞에는 사나운 호랑이 엎드렸고　寶陀山前獰虎伏
사바 바다 그 가에는 독룡이 항복했네　薩娑海畔毒龍降
미투리에 대 지팡인 선사의 사는 방도요　芒鞋竹杖禪生計
불경과 향로 이 둘은 계율의 표당(깃발)일세　經卷香爐戒幖幢
장로님의 마음 근본을 사람들은 아는가　長老心源人會否
바퀴 같은 달이 소나무 창에 비추네　一輪明月照松窓

고향의 형님, 아우는 유림에 발탁되었는데　舍兄及弟擢儒林
등 같은 불법 전해 받아 아우는 불심에 합했네　阿弟傳燈契佛心
부처님과 소왕(素王)이 모두 다 한 궤도를 걸어가니　覺帝素王同一軌
대나무 생황 오동나무 슬(瑟) 같은 음을 갖추었네　竹笙桐瑟備諸音
십년 세월 형설 끝에 불경 열어 다 통했네　十年螢雪窮經達
만겁 단(檀) 같이 닦아 도 깨닫기 깊었다네　萬劫檀修悟道深
만일에 그 공부가 같고 다름을 묻는다면　若問功夫同與別
장차 같을 게 없다는 밖에 다시 무엇을 찾으랴　將無同外更何尋

난수정(難水亭) 그 앞에선 뜬 갈매기와 친했고　難水亭前押泛鷗

의상대 난간에 서서 조각배를 바라보고 있네　義湘臺畔看扁舟
참선 마음 맑고 고요하긴 망망한 창해 바다요　禪心淡泞如蒼海
법상(法相) 평화롭고 조용함은 흰 소와 같다네　法相雍容似白牛
늙어가니 이마에도 응당 눈이 있을 게요　老去頂額應有眼
한가해도 구름 달밖엔 다시 짝할 이 없네　閑來雲月更無儔
파도소리 산 빛은 썩 작은 티끌의 게(偈-부처의 공덕이나 교리를 찬미하는 노래글귀)요　波聲山色微塵偈
지각없는 사람 앞에선 꿈 이야기 그만 두었네　無智人前說夢休

『梅月堂集』 卷之三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유가의 집안에서 유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단종폐위 이후 불자임을 자처하며 불자의 길을 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찰과 고승들과의 교류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낙산사를 자주 찾았다. 이 시는 낙산사의 법연에서 화엄경을 들려주는 스님에 대한 고마움을 읊고 있다. 화엄경은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우고 돌아와 낙산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창시하였다. 화엄종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첫 제자에게 최초로 설법한 것이 화엄종으로 설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56 낙산사에서 선 대사에게 주며 (洛山寺贈禪上人) 3首.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한번 보니 깨끗한 그 태도는 옛 친구 같은데　一見淸標似舊知
모습을 사모한 지 벌써 오래 되었네　羨墻面目已多時
절조(節操) 크기는 높은 소나무와 대나무 모양　節操落落松筠態
몸가짐 밝고 높아 난새, 학의 의표 이네　容止昂昂鸞鶴儀
고요한 참선 의자에서 창해의 달을 보는데　禪榻靜看滄海月
다천(茶泉)에는 한가로이 푸른 못의 교룡(蛟龍) 흔드네　茶泉閑擾碧潭螭

대사 따라 도(道)를 물으러 어느 땐가 가게 되면　從師問道他時去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 긁어내는 금칼 되리라　積瞽玄眸肯刮鋸

방장(方丈)은 봉래(蓬萊)가 가까이 있는데　方丈蓬萊指顧中
흰 구름 누런 학은 긴 구름 타고 가네　白雲黃鶴馭長風
신기루 그림자 교인(鮫人-인어)의 집을 눌렀고　蜃樓影壓鮫人室
금 불전의 광채 해약(海若-바다 신)궁에 뚫고 드네　金刹光穿海若宮
담소하며 용은 밑 없는 바리때에 항복하고　談笑降龍無底鉢
경행(經行)으로 뱀 범 갈고리 있는 지팡이에 굴복하네　經行伏虎有鉤?
바위 속에 편안히 앉았으니 하늘 꽃이 비 오듯 내리는데　嵓中宴坐天花雨
풍진 세상의 뜨고 잠김이 별안간 공(空)이 되네　塵世浮沈轉眼空

흐리고 무지한 인간이라 만 가지 일 다 글렀는데　貿貿人間萬事非
장자와 열자 따라 삼기(三機)를 배웠네　欲從莊列學三機
뜬 인생 한 되는 건 바람 앞에 등불인 양 변화하는 것　浮生有限風燈變
부질없이 죽는 게 새끼 새 나는 데 무슨 도움되리　浪死何稗鷇鳥飛
선녀가 차(茶를) 받드니 향주(香廚-절의 부엌)가 깨끗하고　天女供茶鄕廚淨
산(山) 잔나비 바리때 받드니 도(道) 기름지고 살찌네　山猿擎鉢道腴肥
그 무슨 인연 얻어 생(生) 없다는 말씀 늘 들으며　何緣恒聽無生話
돌집 소나무 다락에서 그대와 함께 의지하리　石室松龕共爾依

『梅月堂集』 卷之三

김시습은 유가이면서도 불가에 심취하여 설점이라는 법호를 사용하며 불가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자신의 고향이고 근본인 강릉과 관동지방을 자주 왕래하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는 김시습에 관한 일화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첫 수에서 선대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대사를 사모하여 만나보니 옛 친구처럼 느껴졌고, 그 스님의 모습은 정결하고 절개는 송죽처럼 굳고 몸가짐 또한 밝고 높아 난새와 학의 모습인 선대사의 태도와 모습을 칭송하며 심회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세 째 수에서는 자신의 삶이 현실에서 어긋나 불행하지만 항상 책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현산(峴山)의 꽃떨기를 노래함(詠峴山花叢). 二十首

57 其一

금비녀 옥 같은 얼굴이 비단장막 비추니
분과 땀이 향에 엉켜 살짝 옷이 퇴색했네
일부러 짓는 애교와 질투 찡그리는 태도
옆사람 잘못 알고 웃는 양귀비라 말하네

金釵玉面照羅幃
粉汗凝香細褪衣
故作妬嬌顰蹙態
傍人錯道笑楊妃

58 其二

엷은 화장 짙게 꾸미기 애써 금하기 어려운데
거문고 다루며 몇 번이나 마음 조심하였네
거문고 다루면 얻을 거라 이르지 말라
복사꽃처럼 방긋 웃는데 천금 가치 있네

淡粧濃冶苦難禁
挑得焦桐幾調心
莫謂焦桐得挑得
如桃嫣爾笑千金

59 其三

일찍이 들으니 월나라 미녀 그 고운 용모로
약야계(若耶溪)의 연꽃 배는 한때를 빛나게 했네
서시가 천하일색이라 말하지만 마시게
서시보다 나은 미인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曾聞越女美容姿
蓮舸耶溪耀一時
莫道西施天下色
須知亦有勝西施

60 其四

계수나무 향기 산들산들 꽃이 반짝 나 있는데
우곡과 예상(당 악곡명)을 특별히 자랑하네
광한궁의 맑고 시원한 기운 가까이 얻었으니
그 이름 월중아(月中娥)인 줄 알았네

桂香冉冉貢生華
羽曲霓裳特地姱
逼得廣寒清爽氣
知渠名是月中娥

61

其五

맑은 향기 물신 가시 달린 가지에 붙었는데　　淸香馥馥着荊枝
군자의 의란조(猗蘭操-공자가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며 읊었다는 곡조)로 초사를 노래했네　　君子猗蘭詠楚詞
생각지 못하여 뒷방 애교 있게 질투하는 천성으로　　不料閨房嬌妬質
유한한 것 또한 난초보다 나은 이가 있을 줄을　　幽閑亦有勝蘭兒

62

其六

담장 꽃 길가의 버들 역정(驛亭)에 핀 꽃 매화는　　墻花路柳驛亭梅
송이채로 꺾고 가지 휘어잡기 몇 번이나 하였던가　　折朶攀條幾度回
사람 복 네가 곧잘 말할 수 있어 가상하여　　嘉爾對人能有語
아담한 화장에 새 상투하고 그대를 위해 여기 왔네　　靚粧新髻爲君來

63 其七

바람에 많은 점 날려 정녕 사람 근심하게 하고 風飄萬點政愁人
병이 많다고 술 마심을 싫어하지 마라 莫厭傷多酒入唇
소능(少陵)의 좋은 말 없는 걸 내가 꾸짖어서 我罵少陵無好語
한번도 곡강(曲江-당나라 장안에 있는 못)의 봄에 상대하질 않았네 不曾相對曲江春

64 其八

거울 집어 들고 바늘로 두 눈썹 다듬는데 針拈鏡釰整雙眉
반은 질투와 애교요, 반은 어리석음 일세 半是嬌猜半是癡
우연히 한번 찡그린 걸(서시가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만지며 偶爾一顰多欲效
찌푸렸더니 더 예뻐 보였다는 고사) 모두들 그걸 본받으려 하니
하물며 베개에 기대어 웃는 서시를 봄이라 況看凭枕笑西施

65 其九

연지와 분 안 발라도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데
애교 많아 웃으면서 나무라는 소리 견디어 듣겠는가
가장 사랑스러움은 자다 깨어 시녀(侍女)가 시축할 때라
이제야 아름다운 모습은 하늘이 낸 것을 알겠네.

不施脂粉媚人情
堪聽嬌多笑罵聲
最愛睡覺扶侍女
方知美態自天生

66 其十

깁 적삼 바람이 헤쳐 향긋한 살결 드러내고
창 앞에 수놓을 때가 정말 사랑 할 만하네
수놓다가 피곤해 바늘 멈추고 하품 한 뒤
양양 노래하는 이 바로 현산아(峴山兒)일세

羅衫風擺露香肌
堪愛窓前刺繡時
繡倦針停伸欠後
襄陽歌者峴山兒

67 其十一

맑은 넋 묘한 뼈대로 새로운 화장 싫어함은　　淸魂妙骨厭新粧
하늘이 준 정신이 혜명(慧命)하고 씩씩하여서라　　天與精神慧且莊
사람들은 봄바람의 복사꽃 오얏꽃 곱다하지만　　人道春風桃李艶
하얀 눈 속의 옥매(玉梅)는 향기가 보기 어려워서 일세　　難看冒雪玉梅香

68 其十二

아침구름과 저녁 비는 모두 다 상사(相思)의 정　　朝雲暮雨摠相思
몇 번이나 양왕(襄王)이 꿈 속을 의심했던가　　幾度襄王夢裏疑
우선 기쁨은 아주 궁색한 이가 이제는 인색하지 않아　　且喜大慳今不恪
인간에게도 우연히 현산아(峴山兒)를 보는 걸세　　人間偶見峴山兒

69 其十三

사람 보고 말없이 금비녀만 다듬는데
애교가 시름에 찡그리듯 질투하며 흐느끼네
말한다. 아가씨야 한 번의 웃음 아끼지 마라
봄빛도 머지않아 티끌과 진흙에 더럽혀지리라

對人無語整金笄
嬌似愁皺妬似啼
報道娘無惜一笑
韶華不久涴塵泥

70 其十四

강릉에서 일찍 떠나 양양에 도착하니
천고의 풍류가 차례로 정이 생기네
꽃 밭 속에 우연히 들어가 한 송이 꽃을 보니
방긋 웃으려 하는데 갖은 아양 생겨나네

江陵朝發到襄陽
千古風流取次情
偶入花叢看一朶
嫣然欲笑百媚生

71 其十五

무산의 두견새가 마음을 다해 우는데 巫山蜀魄盡情啼
밤에 난간에 기대어 대제사(大堤詞-樂府 淸商曲의이름)를 부르네 夜倚闌干唱大堤
마루에 비추는 것은 오직 배꽃에 달이 있네 映軒唯有梨花月
나같이 노는 이 번민토록 혼란스럽네 惱我遊人特地迷

72 其十六

인간의 어떤 물건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할까 人間底物當人心
광주리에 가득한 황금 다투며 사랑도 깊네 滿籯黃金競愛深
어찌 담장 안 요염한 꽃송이 엿보는 것만 하겠는가 爭似窺墻夭艷朶
말없이 서로 대하니 천금보다 좋구나 不言相對勝千金

73 其十七

일찍이 신선에 들어 미인 등급을 매기는데 曾入仙曹課美人
선녀들 저마다 속된 티끌 모양 넘었네 仙姝箇箇透凡塵
세상 사람들아 선녀 좋다 말하지 마라 世間莫道仙姝好
이제 허망한 세상의 배꽃이 옥진(玉眞)보다 좋구나 今見浮黎勝玉眞

74 其十八

황학루 높은 누각 벌써 아득한데 黃鶴高樓已渺然
읊은 흥취 백운과 돌아감을 견디지 못하겠네 不堪吟興白雲旋
개인 시내 꽃다운 풀 생각이 어이 그리 먼가 晴川芳草思何遠
학 타고 가는 그 신선 이제 만나니 도리어 기쁘네 却喜今逢駕鶴仙

75 其十九

봄바람에 홍색 자색 자랑할 만한데　　春風紅紫可堪誇
다투는 고운 자태 경쟁하며 난간에 기댔네　　競鬪爭妍倚檻斜
저기 말할 줄 아는 아도물(阿堵物-이 물건이라말함)에 이르라　　報渠解語阿堵物
사람 홀리게 하는 풍채 꽃보다도 좋구나　　媚人風彩勝於花

76 其二十

풍류가 낙락(落落-성글고 적적한 모양) 정히 금하기 어려운데　　風流落落政難禁
취하여 꽃밭으로 아주 깊게 들어갔네　　醉入花叢深復深
홀연히 평상에 걸터앉아 서로 보고 웃으니　　忽爾據床相對笑
본래 대장부는 천금을 가벼이 여김이네　　丈夫本自輕千金

『梅月堂集』

현산은 양양의 상징으로, 특히 봄의 풍경이 아름답고 고요하여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한 시 들이 전해오고 있다. 이 시는 김시습의 시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시는 장편으로 현산의 봄꽃 풍경을 양귀비와 천하일색인 서시보다 아름답다고 읊고 있다. 현산의 복사꽃이 천금보다 가치 있다는 표현은 시인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이다. 계수나무 향기와 꽃은 월중 항아로 착각될 정도 이다.

봄바람에 다양하고 꽃들이 고운자태를 뽐내고, 이에 취한 시인 김시습은 풍류를 돈보다 중시한 마음을 읊고 있다.

77 송이버섯(松菌)

하룻밤 새 솔 언덕에 비바람이 풍족하니
찬 가지에 송화 진액 어지럽게 떨어지네
훈풍도 날도 찌니 흙 무더기 더부룩하고
솔잎 떨어지는 곳에 꽃이 희구려
잎을 이고 꽃을 뚫고 두각이 일어나니
우리 님이 그 때 나를 생각하였는지
『梅月堂集』 卷之三

一夜松岡風雨足
寒枝亂滴松花汁
風薰日炎土鬆鬆
松釵落處蕈花白
戴葉穿花頭角起
君侯當日憶儂不

78 영동에 안찰사로 가는 황숙공을 보내며 4수 (送黃叔貢按察嶺東 四首)

용재(容齋) 이행(李荇)

고삐를 잡고 영동으로 나가며
구름을 보고 북당을 생각하리
융숭한 성은 근친을 허락하니
색동옷에 은장이 어려 비치도다
왕사에 어찌 쉴 겨를 있으랴만
차마 어버이 상심케 할 수 없어라
징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명하여 다시금 술잔 올리누나

攬轡出東道
望雲懷北堂
殊恩許榮覲
彩服映銀章
王事寧遑息
親慈未忍傷
徵黃無幾日
拜命更稱觴

평생에 흠모하는 벗 황숙도는　平生黃叔度
문장이 한나라 작가에 필적하지　文字漢西京
이제 또 동문의 이별을 하니　又作東門別
북수의 정을 장차 어이 견딜꼬　那堪北樹情
밭의 외는 하마 딸 때가 되고　園瓜期且摘
강의 잉어는 때로 삶을 만하리　江鯉可時烹
이 늙은이 시를 적어둔 곳으로　老子題詩處
월정을 평소에 늘 기억하노라　尋常記月精

월정(月精)은 절 이름이다.(月精 寺名)

지난날 장맛비를 만났을 적　往時遭雨潦
한 가닥 길에서 각자 엇갈렸지　一路各差池
세상일이란 참으로 우스운 것　世事眞堪笑
덧없는 인생 만날 기약 없어라　浮生未有期
서로 만났다가 다시 이별하고　相逢還作別
술잔 잡고 한편 시를 논하누나　把酒且論詩
낙산사에 의춘의 시축이 있으니　洛寺宜春軸
한가한 틈에 설미를 찾아보시라　乘閑問雪眉

낙산사(洛山寺)의 중 설미(雪眉)가眉)정 상공(止亭相公)의 시를 얻어 시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眉말하였다.(洛山寺僧雪眉 得止亭相公詩爲軸 故云)

경치 좋기로 동해가 이름났나니　勝絕傳東海
노쇠한 몸 젊어 놀던 때 추억노라　衰遲憶壯遊
대평에서는 술 깨어 말을 달렸고　臺坪醒走馬
경포에서는 술 취해 누대에 올랐지　鏡浦醉登樓
개골산 못 가본 게 한으로 남건만　遺恨乖皆骨
이내 생애 이미 늙어 백발이로세　餘生已白頭
이 푸른 봄날 그대를 보내노니　靑春謝吾子
마음대로 신선의 산을 찾아보오　隨意訪丹丘

『容齋先生集』 卷之二, 五言律

이행(1478(성종 9)~1534(중종 29)의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

(容齋)·창택어수(滄澤漁叟)·청학도인(靑鶴道人)이다. 박은과 함께 해동의 강서파(江西派)라고 불렸다. 연산군 1년(1495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권지승문원부정자를 거쳐 검열·전적을 역임했고, 『성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1504년 응교로 있을 때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었고,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교리에 등용, 대사간·대사성을 거쳐 대사헌·대제학·공조판서·이조판서·우의정 등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펴내는 데 참여했고, 1531년 김안로를 논박하여 좌천된 뒤 이듬해 함종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당시(唐詩)의 전통에서 벗어나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표현을 강조하는 기교적인 시를 써서 새로운 시풍을 일으켰다. 저서로는 『용재집』이 있고, 1537년 신원(伸寃)되었고, 중종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79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낙산사에서 저절로 흥이 나서 성사에게 지어주며 (洛山漫興贈成師)

밝은 해가 새벽 바다 위에 솟아오르니	白日曉生海
붉은 아침 노을은 산을 비추네	丹霞朝映山
창문 열어 해를 맞이하니	開窓迓羲馭
홀연히 구름이 높이 떠 있네	忽在重雲端
햇살이 구름 틈으로 들어오니	外物幸投隙
밝은 햇살 낙산사를 비추네	光明猶一圓
옛 벗을 정중히 맞아주니	寅賓古蘭若
바다는 푸르름으로 넘쳐 흐르네	海色靑漫漫
성사(成師)께서 이 해를 보시고	師乎觀此日
영원히 내 마음을 보게 해 주시네	永作吾心看

『漁村集』

심언광(성종 18년, 1487년~중종 35년, 1540년)의 본관은 삼척(三陟)이고 자는 사형(士亨), 호는 어촌(漁村)이다. 예조좌랑 준(濬)의 아들이며, 찬성 언경(彦慶)의 동생이다. 중

종 2년(150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51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보임되었다.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면서 문명을 날려, 지평·정언·장령·홍문관 교리·집의 등을 지냈다. 언관을 역임하면서 국방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심정(沈貞)을 비롯한 권간들의 횡포를 탄핵하였다. 1530년 대사간이 되어서는 형 언경과 함께 김안로 (金安老)의 등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안로가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붕당을 조직하고 대옥(大獄)을 일으켜 사림들을 모해하자,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 특히 김안로가 그의 외손녀를 동궁비로 삼으려 하여 이를 질책하자, 관계가 악화되었다. 1536년 이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김안로의 비행을 비판하자 김안로의 미움을 받아 이듬해 함경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곧 김안로와 그 일당이 축출되자, 우참찬에 올랐다. 시(詩)·서(書)·화(畵)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공(文恭)이고 문집으로는 어촌집이 있다. 이 작품들은 『동관록』(東關錄)에 수록되어 있다. 동관록은 1530년 강원도 관찰사 재임기간의 작품들이다.

심언광이 강원도관찰사로서 공무로 낙산사에 도착하여 절로 흥이나 성사에게 지어준 시로 보인다. 일출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새벽녘 아침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자 붉은 노을이 산을 비춘다. 이에 창을 열고 해를 맞이하니 홀연히 구름이 높이 떠 있어 구름 틈으로 밝은 햇살이 비춘다. 아침 해가 옛벗을 반갑고 정중하게 맞아주는데 바다는 푸르름으로 넘쳐흐르며 반겨준다. 성사께서 이 해를 보시고 영원히 내 마음을 보게 주어 고맙다는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80 섬대사에게 주며(贈蟾上人)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내 스승을 뵈지 못하니 我不見師面
오히려 스스로 스승의 마음 알겠구나 猶自知師心
푸르른 오봉의 길 蒼蒼五峰路
송라 그늘에서 수행하시네 住錫松蘿陰

내려봐도 쳐다봐도 길은 있는데　　俯仰道有在
산과 바다는 높고 또 깊네　　山海高且深
인연 따라 내 시를 지으니　　隨緣索我詩
먼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 있네　　方外猶知音
세상 생각 끝나지 않아　　塵機若未息
꿈 깨어 산중에서 찾네　　夢寤山中尋
『漁村集』

81 차운하여 오대사에게 주며 (次韻贈悟上人)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분명히 책 속에 풍류와 운치 논하며　　分明風韻卷中論
온 세상 유명인사들이 모두 한 말씀 올렸네　　一世名公盡贈言
백발노인 멀리서 반가이 맞아주시니　　白首天涯靑眼日
스승은 가셨어도 내 마음에 남아 있네　　眉師雖去悟師存
낙산사에서 즐거운 꿈속에서 즐거움을 헤아리니　　洛山奇遊夢裏論
흔한 잠꼬대는 공허한 말 뿐이네　　尋常唫囈但空言
차가운 늦가을 산길에 임금의 사절 머무니　　窮秋駐節山前路
한나절 천천히 돌아도 마음만 남아있네　　半日遲回意有存
『漁村集』

82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양양 객사를 차운하며(次襄陽客舍韻)

벼슬길에서 물러나 쉬면서 나가지 않으니 却步名途倦不前
굳센 마음 어찌 늙음을 막겠는가 壯懷那得撥衰年
객관 가는 길 강가에서 큰 비를 만나니 關河客路衡蠻雨
초목에 뒤덮인 외로운 성은 무더운 습기 머금었네 草樹孤城帶瘴煙
우주 자연에 옛 문물 남아 있으니 宇宙山光餘舊物
영웅의 발자국이 먼 하늘에 찍혀 있네 英雄鳥跡印遙天
어지러운 세상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니 醉來濩落生遐想
설악산 지게미 언덕에서 바닷 술 솟아오르네 雪嶽糟絲海酒泉

『漁村集』

83

태평루 차운하며(次太平樓韻)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난간에 층층이 그늘이 지고	危樓落層陰
내려다보면 뭇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俯挹群峰翠
하늘의 신선은 머리 위에 있으니	天仙在上頭
태양 아래 흠뻑 취하고자 하였네	日下謀饒醉
늙은 잣나무가 누각을 그늘지게 하니	古柏蔭重樓
푸른 구름 위 아래가 아득하네	蒼雲迷上下
신선이 오던 때 돌이켜 생각하니	緬懷羽人來
생소는 좋은 밤과 짝이 되네	笙簫伴良夜
쌍정이 봄비에 젖고	雙亭濕春雨
만리타향에서 귀거래사 읊네	萬里賦言歸
삼월에 평안도 가는 길	三月關西路
산꽃은 수놓은 옷을 비추네	山花映繡衣
커다란 종이에 강산을 그리니	巨扁描江山
태평루 벽에 남았구나	芳名在樓壁
어느 곳에서 저녁 퉁소 불었는가	何處暮吹簫
하늘 가 홀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네	天涯獨歸客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데	江山一今古
하늘과 땅은 동서로 나뉘었네	天地隔東西
바쁜 일정에 쫓겨 역관을 지나면서	嚴程過候館
사람 깨워 새벽 닭소리 들었네	相踈聞晨鷄
봄날 새는 꽃 사이에서 울고	春鳥花邊啼
저녁 학은 가지 끝에 깃드네	暮鶴枝頭宿
어떤 일로 노닐러 나온 사람이	何事遠遊人
좋은 밤 촛불 잡지 않았던가	不秉良霄燭

『漁村集』

84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차운하여 은대사에게 주며
(次韻贈訔上人)

낙산의 명산에 말씀 올린 때　洛迦名山贈言時
시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네　意在無忘不在詩
높은 산은 성과 같고 소나무는 덮개 같고　靑嶂似城松似蓋
하늘은 물과 같고 달은 눈썹 같네　碧天如水月如眉
속세의 땅에 살아가기 쉽지 않으니　塵中壤地艱棲息
속세 밖에서 강산 지키며 몸을 부지하세　物外江山足護持
선비 된 몸 잘못을 스스로 비웃으니　自笑爲儒身常誤
차라리 옛 회포를 훌훌 털어버려야지　寧能抖擻灸襟期

『漁村集』

85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앞서 읊은 태평루를 차운하며
(太平樓次前韻).

이 시는 관찰사 때 지은 것으로 부사 이영식이 무진년에 누각에 다시 걸었다(此詩觀察使時作府使李榮埴戊辰重揭樓上)

태평루 남은 비석에서 옛 현인 찾으니　峴首殘碑問古賢
외로운 성에 지는 해가 난간을 비치네　孤城殘日獨憑軒
강산에 금절(金節) 머물 곳 있어도　江山有地留金節
비단 돗자리에 술 따르는 벗 없네　樽酒無人伴綺筵
백발을 근심할 때 눈처럼 희어지고　髮爲憂時添雪白
얼굴에 병으로 고운 얼굴 사라졌네　顔因觸瘴減春妍
해당화가 곳곳에서 서로 곱다 자랑하니　棠陰處處爭相說
예부터 붉은 연꽃은 장막 아래 신선이구나　舊是紅蓮幕下仙

『漁村集』

86

낙산사 스님에게 주며(贈洛山僧)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구름이 깃든 곳에 마음 끌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
내 근심이 어느 스님 영혼을 훼손할까
이 몸속에는 어릴 적 습관 남아 있어
덧없는 인생 한 해에 다섯 번 운다오
『漁村集』

雲棲無物了關情
憂惱何僧損性靈
有底此身嬰俗累
一年長哭五浮生

87

관란정에서 김세필의 시에 차운하며 (觀瀾亭次金公碩世弼韻)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해질 무렵 정자를 떠나려니 다시 주저하고
함께 고생한지 10년이 되었네
바다가 이리도 넓은 지 누가 알까
큰 파도 없는 곳에 가난한 선비 정착했다네
『漁村集』

離亭日暮更逡巡
同是艱危十載身
誰信滄溟如許大
洪波無處着窮鱗

88

와유헌(臥遊軒)-양양의 관아

송재(松齋) 이우(李堣)

영공(嶺空) 서쪽서 당기고 바다는 앞에서 당기는데	嶺空於西海控前
누대에서 노래 부르고 피리 불며 노년을 보내네	樓臺歌吹度長年
섣달 거센 바람 오봉의 눈 탐하는데	臘深風嗇五峯雪
밥 짓는 새벽 온 마을 연기 가득하네	炊曉村橫百里烟
높은 파도 북쪽에서 밀려와 지축을 흔들고	鯨浪北來坤動軸
장기(나쁜 기운) 품은 구름 동쪽에서 걷혀 달 하늘에 떴네	瘴雲東捲月生處
낙산의 절은 임금이 다녀가신 곳	洛山紺宇宸遊處
온 골짜기 솔바람소리 샘물소리 낸다네	萬壑松濤殷石泉

『江原道誌』

이우(예종 1년(1469년)~중종 12년(1517년)의 본관은 진보(眞寶)이고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이다. 조카가 이황(李滉)이다. 연산군 4년(149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로 기용된 뒤 검열·대교·봉교를 지냈다. 1506년 동부승지로 있을 때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으로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 그 뒤 우부승지·진주목사·동지중추부사·호조참판·오위도총부부총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14년에 중종반정 당시 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 등과 함께 입직승지(入直承旨)로서 공을 세운 것처럼 가장했다는 김은(金銀)의 상소로 녹권(祿券)을 빼앗기고 삭직되었다. 이듬해 안동부사로 기용되었다. 시문에 뛰어나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때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關東行錄』에 전한다. 예안 청계서원(淸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송재집』이 있다.

89 차낙산사판상운(次洛山寺板上韻)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큰 파도는 봄에 절을 뒤흔들고	海濤春動寺
소나무 위의 달이 승려들을 엿보네	松月夜窺僧
읊조리는 글소리에 바람이 일어	嘯引長風發
지금 세상인은 기운을 더하네	今人氣益增
고요한 밤 달빛은 배나무에 비꼈고	夜寂梨橫月
빈 창에는 나그네 승려와 마주 앉네	窓虛客對僧
뉘라서 장부의 큰 뜻을 알리요	誰知丈夫量
비는 바닷물을 더하지 못하는구나	滄海雨無增

『金剛山詩集』 下篇

임억령(1496~1568년)의 자는 대수이고, 호는 석천이다. 중종 11년(1516년)년에 진사가 되었고, 152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년)년 금산 군수 때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동생 임백령이 소윤으로 대윤의 선배들을 내몰자 자책을 느껴 벼슬을 내놓고 해남에 은거하였다. 1552년에 동부승지에 등용되어 병조 참지를 지내고,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1557년에 담양 부사가 되었다. 문집으로는 『석천집』이 있다.

이 시는 임억령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찾아 쓴 시로 누구의 작품보다 뛰어 나다. 관찰사로 부임하여 당쟁의 와중에서 낙산의 장엄함과 바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장부의 숨은 큰 뜻을 표현하였다. 봄이 되어 세상을 뒤 흔드는 파돗소리 있는 밤에 소나무에 걸린 달이 스님을 엿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읊조리는 노랫소리는 정신을 더 맑게 한다.

낙산사는 전통적으로 배가 유명하다. 달빛 속의 배꽃은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이러한 밤에 스님과 마주앉아 있는 자신의 큰 뜻을 알 수 없음을 표현하였고, 비가 와도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꿈을 펴보고 싶다는 강한 표현이다.

90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천휴당(天休堂) 이몽규(李夢奎)

맑은 호수 평활하여 거울 같고 平湖淨色明如鏡
설악의 맑은 봉은 병풍처럼 둘렀네 雪岳晴峰擁作屛
신선이 간지 천년이지만 소식이 없고 笙鶴千年消息斷
허공의 조각달만 푸른 파도비치네 空留片日照滄濤

『강원의 詩文』

이몽규(李夢奎, 1519~1563년)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昌瑞이고 호는 天休堂이고, 조선조의 은사로 영랑호를 찾아 거울처럼 맑고 평화하며 호수를 설악이 병풍처럼 들러져 있는 풍경을 노래하였다.

91 낙산사(洛山寺)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

오래된 절을 찾으니 등불 이백이 달려 있고 古寺來懸二百燈
잠시나마 한가한 맛 산승에 즐기네 暫時閑味適山僧
창밖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軒窓勝絕眞堪愛
벽에 걸린 시문들은 한결 돋보이네 滿壁留詩價倍增

『金剛山詩集』 下篇

심수경(중종 11년, 1516년~선조 32년, 1599년)의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다. 명종 1년(1546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하였다. 1552

년 검상(檢詳)을 거쳐 직제학을 지냈다. 선조 23년(1590년) 우의정에 오르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제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듬해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598년 물러났다. 청백리오 문장과 서예에도 능했고, 저서로는 『청천당시집』·『청천당유한록』 등이 있다.

이 시는 오래된 낙산사에 등불이 이백 개 걸려 있다면 아마도 큰 법회가 있었던 것 같다. 이백 개의 등불이 달려 있는 오랜 된 사찰인데 오히려 승방은 한가롭고 고요하다. 이런 사찰에서 세상시름 잊고 잠시 동안이지만 스님처럼 한가롭다. 창밖의 낙산 절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다. 절에 걸려 있는 문인들의 시문이 더욱 풍치를 느끼게 한다.

92 동암구(洞巖臼)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

바위 사이 돌절구 기이한 자취 찾는데　　岩間石臼尋奇跡
신선들 어느 해 이곳에서 노닐까　　仙子何年此地遊

『江原道誌』

강원도지에 의하면 동암구는 죽도 동쪽의 둥근 돌은 흔들면 구르는데 돌 가운데가 갈려서 절구처럼 움푹 파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마모가 다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

93 낙산사(洛山寺)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푸르른 안개의 누각은 끝이 없는데　　靑靑霧閣三千丈
흰 구름 낀 창가에 아득한 하늘　　白白雲窓萬里天
뗏목 타고 오는 사람 보이지 않고　　望望乘槎人不見
누선은 어디 떳는지 알 수가 없네　　不知何處泛樓船

『金剛山詩集』 下篇

양사언(중종 12년, 1517년~선조 17년, 1584년)의 자는 응빙(應聘)이고 호는 봉래(蓬萊)이다. 명종 1년(154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1556년을 전후로 대동현감을 지냈으며 그 이후 삼등·함흥·평창·회양 등지를 다니며 역임했다. 회양에 나간 것은 금강산을 따라 스스로 택한 것으로 이때 금강산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다.

안평 대군, 김구(金絿), 한호 등과 함께 조선 전기의 사대 서예가다. 만폭동 입구에 "봉래풍악 원화동천"(逢萊楓岳元化洞天)이라는 8자를 새기기도 했다. 1564년에 고성군의 구선봉 밑 감호(鑑湖)가에 정자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풍류를 즐기며 은거하였다. 선조 15년(1582년) 다시 안변군수로 나갔으나 다음해 번호(蕃胡) 변란을 당해 수사(守士)의 책임을 지고 해서에 귀양 갔다. 1584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글씨와 문장으로 그 명성을 날리면서 당대 최고인 문인인 허균, 이달 등과 교유했다. 서예에 뛰어나 초서와 해서에 능했다. 가사로 〈미인별곡〉 이 있으며 문집으로 『봉래집』 이 전한다.

이 시는 낙산의 아름다운 승경을 보고, 그 옛날 고승과 학자들이 순례하였던 생각을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푸른 안개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며 흰 구름 아득한 하늘을 노래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안개와 흰 구름뿐인 신선의 세계를 그리면 찾고 있다. 넓은 바다에 뗏목 타고 다니는 신선은 보이지 않고 누선도 안개에 가려 볼 수 없다고 노래하였다.

94 제동낙산동헌(題東洛山東軒)

청허당(淸虛堂) 석 휴정(釋 休靜)

세산 티끌에 휩쓸려 분주히 달리니	塵漲蹄輪忙裏走
주색에 미친 마음 밤낮이 없네	心狂酒色夜中行
어찌 타락한 모습으로 누우리오	豈如破衲蒙頭臥
동창에는 바다의 새해가 뜨는구나	直至東窓海日生

『金剛山詩集』 下篇

휴정(중종 15년, 1520년~선조 37년, 1604년)은 속명은 최여신(崔汝信)이고 본관은 완산(完山), 자는 현응(玄應), 호는 청허(淸虛)이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묘향산인(妙香山人) 또는 서산대사(西山大師)로 불린다. 휴정은 법명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읭고 격문을 보내겴 의승군(義僧軍)의 궐기를 호소했다. 안i의 安心寺)와 금강산 유점의 楡岾寺)고 탑이 세워졌으며, 해남 표충의 表忠祠)와 밀)와표충의 및 묘향산의 수충사(酬忠祠)에 제향 되었다.

9세 때 어머니가 죽고 이듬해 봄에 아버지마저 죽자 안주목사 이사증(李思曾)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로 옮겼다. 중종 35년(1540년)에 일선(一禪)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명종 4년(1549년) 승과에 합격했으며, 대선(大選)을 거쳐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에 올랐다. 1556년 선교양종판사직이 승려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를 버리고 금강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선수행과 후학지도에 전념했다.

선조 22년(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가 선조의 직접 신문에 의해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때 선조와 휴정이 주고받은 시가 그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義僧軍)의 궐기를 호소했다. 자신은 순안 법흥사(法興寺)에서 문도 1,500명으로 승군을 조직했으며,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선조가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에 임명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자인 유정(惟政)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승군을 이끌고 나가 호위한 후 승군장의 직에서 물러나 다시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앉은 채로 입적했다. 저서로는 문집인 『淸虛堂集』이 있다.

이 시는 휴정이 낙산에서 묵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감회를 표현하였다. 휴정은 임진왜란과 모반의 혐의, 그리고 불교와 관계없는 속세의 일들에 중심을 잃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불교의 중심에서 속세의 일에 분주히 많은 일들을 하며 때로는 속세와의 인연으로 청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속세의 욕망과 허무함을 표현하였다. 낙산사는 불교의 성지로 이곳을 찾아 선대 고승들을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였고, 새롭게 뜨는 해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잡고 자신을 찾으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95 증낙산사승(贈洛山寺僧)

사암(思庵) 박순(朴淳)

낙산의 기이한 절경은 맑은 새벽에　　洛山奇勝在淸晨
지금 산승이 말을 들으니 마음을 움직이네　　今聽山僧語動人
만 리의 붉은 물결 푸른 물에 지고　　萬里赤波浸碧落
온갖 신령들이 새롭게 뜨는 해를 돕는구나　　百靈扶出火輪新

『金剛山詩集』 下篇

박순(중종 18, 1523년~선조 22년, 1589년)의 본관은 충주이고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이다. 명종 8년(1553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전적·수찬·사인 등을 지냈다. 1555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뒤 한산 군수·직제학·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거쳤다. 1565년 대사간으로 있을 때 대사헌 이탁(李鐸)과 함께 척신 윤원형을 탄핵하여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대제학·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선조 5년(1572년)부터 약 15년간 영의정을 지냈다. 동서당쟁이 심할 때 이이·성혼 등을 편들어 상소하다가 도리어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았다. 그 후에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했다. 서경덕의 문인으로 글씨는 송설체(松雪體)에 능했으며, 시는 당시풍(唐詩風)을 따랐다. 저서로 『사암집』이 있다. 개성 화곡서원(花谷書院),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 나주 월정서원(月井書院), 영평옥병서원(玉屛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 시는 영의정을 지낸 박순이 낙산사를 찾아 낙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스님에게 주었다. 낙산은 불교의 성지로 알려 있지만 낙산의 승경은 참모습이 맑은 새벽 일출의 관경이라는 산승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낙산의 일출이 장관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96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구사맹(具思孟)

백경(경은 넓이의 단위)의 맑은 호수 거울같이 고요해　百頃淸湖鏡平面
조각배에 흥취 싣고 달밤에 뱃놀이 하네　扁舟載興泛空明
당시 놀던 자취 사라졌건만　當時只擬遊踪秘
어찌 구구하게 영랑호라 이름하였는가　饒舌何人强揭名

『水城誌』

구사맹(중종 26년, 1531년~선조 37년, 1604년)의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순(淳)이며, 딸이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유희춘(柳希春),이황(李滉)의 문인이다. 명종 13년(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사간·정언 등을 거쳤다. 1563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갔다왔다. 이조좌랑·이조정랑을 거쳐 선조 2년(1569년) 황해도관찰사가 되고, 이어 동부승지로 있을 때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76년 다시 기용되어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좌부승지로 있다가 다시 대간의 탄핵으로 남양부사로 나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자를 호종하여 의주로 갔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왕자와 후궁을 따라 성천에 피난했다. 좌참찬·이조판서 등을 거쳐 좌찬성이 되었으나, 1602년 아들 굉(宏)이 유배되자 사직했다. 청렴결백하여 권세가들과의 접촉을 피하였고, 시문(詩文)에 뛰어났다. 다섯째 딸은 인헌왕후(仁獻王后)가 되었고, 그는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에 추봉 되었다. 문집에 『八谷集』이 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97 낙산사보벽간운(洛山寺步壁間韻)

상유(桑楡) 유사규(柳思規)

법당에 높이 걸린 등불은 밝고　　蓮榻高懸照佛燈
방석에 한가롭게 참선하는 스님이 앉았네　　蒲團閑坐入禪僧
하룻저녁 속되지 않는 이야기 도리어 무료하고　　一宵淸話還無賴
천리 밖 어버이 생각만 더 하네　　千里思親恨轉增

비단 같은 물결에 등불 같은 달빛 속에　　波光如練月如燈
선방에 고요히 노승과 마주 앉았네　　靜坐禪房對老僧
탑에 달린 풍경소리 맑게 들리고　　靈塔曉傳淸鐸響
꿈속의 나그네 생각 깨달음 적네　　夢中覇思覺未增

『金剛山詩集』 下篇

유사규(중종 29년, 1534년~선조 40년, 1607년)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字) 여헌(汝憲) 호(號) 상유자(桑楡子)이다. 명종 17년(156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홍문관정자가 된 뒤 정언·지평·평양서윤·해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26년(1593년)에 남양부사가 되었다. 때마침 혹심한 기근으로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자 죽(粥)을 끓여 기민(饑民) 진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듬해 병조참지, 이어 첨지중추부사, 판결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서 봉상시정(奉常寺正)·병조참지 등을 거쳐 1604년에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곧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올랐다.

이 시는 낙산사 법당에 등불 밝은데 스님은 한가로이 참선하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무료 해 보이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을 생각에 잠긴다.

비단처럼 맑고 부드러워 보이는 물결과 등불 같이 밝은 달빛 속에서 스님과 마주 앉았다. 이러한 산사에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경치 때문에 꿈 속 같은 느낌에 나그네 자신은 깨달음이 적다고 표현하여 고요하고 여유 있는 산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98

낙산사팔월십칠일(洛山寺八月十七日)

간이(簡易) 최립(崔岦)

아득한 하늘가 달이 질 무렵에　　玉宇迢迢落月東
만경창파 갑자기 붉은빛 번쩍이네　　滄波萬頃忽飜紅
꿈틀거리는 온갖 괴물들 불을 머금고　　蜿蜿百怪皆銜火
밝은 달을 황도 가운데 전송하누나　　送出金輪黃道中

『金剛山詩集』 下篇

최립(중종 34년, 1539년~광해군 4년, 1612년)은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동고(東皐)이다. 아버지는 진사 자양(自陽)이다. 이이(李珥)에게 수학했다.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는 여러 번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다. 명종 10년(1555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61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전쟁 후에는 판결사(判決事)·강릉부사·형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정권이 등장하자 정계에서 은퇴하여 평양에 은거했다. 문집으로 『간이집』이 있다.

이 시는 강릉부사로 와서 쓴 것으로 보인다. 강릉부사 시 낙산의 일출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 년을 기다려 중추에 달을 보려고 왔는데, 이 때 모진 비가 내려 보지 못한 것을 하늘이 자신을 영동에 시를 쓰라고 잡아둔 것이라며 아쉬운 심회를 표현하였다.

99

간이(簡易) 최립(崔岦)

낙산에 거주하는 승려 창운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에 그의 시권 속의 시에 차운하며 (洛山住僧昌雲來謁爲次卷中韻)

아침 비 잠깐 개었다가 저녁에 다시 부슬부슬　朝雨纔晴晩雨霏
들쭉날쭉 송죽의 서늘함 아예 압도해 버리누나　竹涼松翠鎭參差
시원한 마루에 산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니　軒淸又得山人話
삼복더위 무서운 줄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　正是三庚也不知
『金剛山詩集』 下篇

100

간이(簡易) 최립(崔岦)

또 차운하다. 창운은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종백(宗伯) 박응소(朴應邵)의 글을 얻어 가지고 와서(又雲不曾相識 今得朴宗伯應邵書來)

시권에 새 시 얻는 일이 세상에 어디 쉽겠냐만　袖卷求詩不世情
올려놓은 의자 내려 평생의 벗처럼 대하노라　懸床爲下似平生
무슨 수로 이렇게 춘조의 청탁을 얻어 냈노　何從得此春曹託
한번의 식형이 만호후(萬戶侯)보다 나을지니　萬戶堪輕一識荊
『簡易文集』 卷之八, 東郡錄, 洛山住僧昌雲來謁° 爲次卷中韻

101

간이(簡易) 최립(崔岦)

낙산사(洛山寺)에서 즉흥으로 읊으며 (洛山寺卽事)

누각의 바다 해 기막히단 말은 전에 들었다만　　樓觀海日昔聞奇
중추의 둥근달 보려면 일 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네　　月得中秋一歲期
바로 이때 이곳에서 모진 비를 만나다니　　此地此時逢苦雨
나의 영동 시를 천공이 방해를 하네　　天公停我嶺東詩

『簡易文集』卷之八, 東郡錄

이 시는 강릉부사로 와서 쓴 것으로 보인다. 낙산의 일출이 절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 년을 기다려 중추에 달을 보려고 왔는데 이 때 모진 비가 내려 보지 못한 것을 하늘이 자신을 영동에서 시를 쓰라고 잡아둔 것이라며 아쉬운 심회를 표현하였다.

102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기행(紀行)

쫓겨난 이 신하 대죄하던 곳　　孤臣昔竢罪
대동강 동쪽 외진 마을이었지　　浿水東村僻
당시 풍파가 창졸간에 일어나　　風波起倉卒
화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禍機將不測
죽음 못 면하리라 다들 말했지만　　人言死難免
성상께서 통촉하시리 나는 믿었네　　我恃天鑑燭
하해 같은 은혜로 목숨 보전하여　　鴻恩荷曲全

외진 이곳 영해로 귀양 왔었지 嶺表賜譴謫
찢어진 옷 어깨와 팔꿈치 드러나고 破衣露肩肘
행낭 자루엔 남은 곡식이 없었네 行囊無餘粟
금오랑이 길 떠나라 재촉해대니 金吾催登途
잠시인들 지체할 수 없었다오 頃刻留不得
사위인 이랑이 나를 좇아와서 李郎追我來
갈림길에서 비통한 이별할 제 慘慘臨岐別
어디로 갈거나 말은 못 하고서 訒之自何方
서로 부여잡고 길 위에서 울었지 相扶路上泣
저물녘에 상원촌에 들어서니 暮投祥原村
나무 그늘에 숨은 오두막이었네 樹底藏蝸屋
수안 길에선 진흙탕에 빠지고 衝泥遂安路
신계협에선 더위에 시달렸지 觸熱新溪峽
주인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여 主人遇我厚
술을 내고 쟁반에 어육을 담아와서 杯盤盛魚肉
유락하는 신세 은근히 위로해 주니 慇勤慰流落
반기는 눈빛 참으로 막역지우였네 青眼眞莫逆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협촌 窈窕安峽村
가는 길은 강 따라 굽이굽이 꺾였지 緣江路百折
둘째 딸아이가 장인을 따라 仲女隨舅翁
난리 피하여 숲 속에 숨어 있다가 避亂依林樾
나를 보고 울며 잠시만 머물라 애원했네 啼呼願少留
그러나 메조밥이 채 익기도 전에 糲飯炊未熟
옷깃 떨치고 떠나 돌아보지 않으니 拂衣去不顧
부녀간의 은정 칼로 자르듯 아팠네 恩情如斷割
이천에서는 늙은 종을 만났는데 伊川逢老僕
우리 열 식구 깊은 골짝에 숨어 있었지 十口竄深谷
늙은 아내는 작별이나 할 양으로 老妻欲相訣
나를 기다리며 길가에 서 있었건만 待我立路側
뿌리치고 말을 채찍하여 지나가니 麾之策馬過
어느 새 운산을 넘어 아득히 멀어졌네 已覺雲山隔
밤중에 평강현을 지날 적에는 夜過平康縣
달도 없는 어둠 속 부엉이가 울었지 月黑鵂鶹哭

금화촌에서는 비에 막혀 머물렀는데 滯雨金化村
시냇물이 깊어 말의 배까지 차올랐네 溪深過馬腸
사위 유랑은 어린 딸을 데리고서 柳郎偕弱女
양식을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와 嬴粮勤跋涉
낡은 이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携來一幣衾
눈물과 함께 길 떠나는 내게 주었지 和淚贈行役
가고 또 가서 낭천을 지나노라니 行行過狼川
산이 깊어 범 발자국이 많았네 山深多虎跡
양구와 인제 두 고을의 태수는 楊麟兩太守
옛적부터 교분이 있어온 터라 分義自疇昔
말술을 나에게 마시라 권하매 斗酒勸我飮
그 깊은 정 뱃속에서 우러나왔지 深情出肝膈
동쪽으로 한계산을 바라보니 東望寒溪山
빽빽이 세운 창칼처럼 높은 봉우리들 嵯峨森劒戟
저물녘에 산 아래 역참에 묵노라니 暮宿山下驛
구름과 산 기운에 잠자리가 눅눅했지 雲嵐濕枕席
새벽녘에 미파령 잿마루를 오르니 曉登彌坡嶺
동해 바다가 몸 굽히면 잡힐 듯 東溟俯可挹
층암절벽에 말발굽이 미끄러져 層崖馬蹄滑
열 걸음에 예사로 아홉 번 넘어졌지 十步恒九蹶
미파령을 내려와 원암에 당도하니 下嶺到元巖
세 가닥 장대 높이로 해가 기울기에 三竿日已夕
황혼에 낙산사로 가서 투숙하는데 黃昏投洛山
절간 밥상이라 죽순과 나물이 섞였지 僧盤雜筍蕨
늙은 중이 나를 불러 깨우더니만 老衲呼我起
새벽 창으로 일출 광경 보라 하네 曉窓看日出
평소에 꿈에서나 그리던 곳인데 平生夢想地
하룻밤 묵으니 참으로 절승이었지 一宿眞勝絕
해가 뜰 무렵 멀리 현산을 바라보니 平明望峴山
안개 낀 수림이 빽빽이 둘러 있었지 煙樹圍簇簇
짧은 노를 저어 강어귀를 내려오니 短棹下江口
외로운 성에서 뿔피리 소리 들리었네 孤城聽吹角
쓸쓸한 고을이라 동산현에는 蕭條洞山縣

낙봉의 시가 벽에 걸려 있었지 駱峯詩掛壁
명사십리 백사장엔 해당화 향기롭고 鳴沙海棠香
경포대 호숫가에는 찬 솔이 푸르렀네 鏡浦寒松綠
임영은 예로부터 이름난 지역이라 臨瀛古名區
산수도 좋거니와 좋은 유적 많아라 山水多勝躅
말 위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던가 馬上幾回首
노정을 다잡아 번갯불처럼 치달렸네 嚴程若電掣
갖은 고생을 겪고 율령재를 넘으니 間關踰栗嶺
화현 고개가 또 우뚝이 서 있었지 火峴又突兀
험한 길을 빠져나와 평원을 지나 脫險度平曠
진주성 밖에 다달아 유숙하였더니 眞珠城外宿
수령이 추위에 떠는 날 불쌍히 여겨 使君憐我寒
솜을 넣은 도포를 입으라 주고는 綿袍縫密密
조각배로 나를 전송해 준 그 온정 扁舟送我情
담수는 깊고 깊어 천 척이었네 潭水深千尺
높고 높은 소공대에서는 崔嵬召公臺
멀리 울릉도가 역력히 보였고 蔚陵看歷歷
울진이라 독송정에서는 仙槎獨松亭
여윈 말 매어놓고 여물을 먹였지 瘦馬留一秣
망양정에서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니 望洋臨縹緲
하늘과 물 푸른빛이 서로 엉겼어라 天水相涵碧
이에 흉금 어느 새 후련히 트이어 胸襟覺浩浩
시름도 즐거움도 죄다 던져버렸지 憂樂盡拋擲
월송정 객점에서 안장을 풀고 쉬는데 卸鞍越松店
머리를 쳐드니 머리가 천정에 부딪쳤네 擧頭頭打屋
의연히 내 고향 집에 돌아온 듯하니 依然返桑梓
분수를 헤아림에 만족할 줄 알겠더라 揆分庶知足
야밤에 치달려 온 화급한 통문을 보니 羽書半夜馳
승냥이 같은 도적떼가 가득 몰려온다네 豺狼急充斥
이름 없이 헛되이 죽는 게 부끄러웠지 一死愧無名
이내 목숨이 아까운 건 아니었다오 軀命非所惜
창황히 서둘러 뒤 고개를 넘어가면서 蒼黃踰後嶺
한 달이라 삼십 일 동안 기갈을 참았네 三旬忍飢渴

적이 지나간 뒤에 처소로 돌아와보니　賊過還僑舍
소슬한 가을바람이 이미 불더라　秋風已蕭瑟
나의 두 자식과 그 어미인 아내가　兩兒與母妻
지친 모습으로 이곳 해변을 찾아왔지　纍纍尋海曲
만 번 죽을 위험 끝에 홀연히 상봉하니　萬死忽相逢
꿈인가 생시인가 알기 어려웠네　眞夢未易識
황보촌에서 귀양 사는 삼 년 동안에　三年黃保里
골육 친지 반나마 영락했으니　骨肉半零落
슬퍼해도 소용없음이야 익히 알지만　自知無益悲
쇠잔한 머리 날로 흰 터럭이 늘었지　衰鬢日添白
광음은 절로 하염없이 흘러가고　光陰自荏苒
한서는 수레바퀴통처럼 빨리 바뀌니　寒署如轉轂
눈길 닿는 곳마다 마음이 언짢아서　觸目懷作惡
때때로 흥건히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　時時淚盈掬
어찌 객지살이 괴로움 때문이랴　豈緣羈旅苦
대궐을 연모하느라 창자가 찢어졌네　戀闕腸欲裂
의주의 물굽이는 오열하며 흐르고　嗚咽龍灣水
대동강에 뜬 달도 빛이 처량하리　凄凉大同月
아득한 행궁은 어디에 있는가　行宮杳何處
소식을 전할 길은 전혀 없구나　魚鴈亦難達
어저께 저녁 고을 사람이 전갈하길　昨暮邑人傳
임금 수레가 도성으로 돌아왔다기에　車駕旋故國
근심 중 이렇게 반가운 소식 들으니　憂中聞吉語
황홀한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워라　惝怳難容說
천심도 재앙 내린 것을 후회하는가봐　天心應悔禍
적의 형세가 절로 무너져 움츠리네　賊勢自崩蹙
난세와 치세는 본래 서로 이어지니　否泰本相仍
삼한 땅이 앞으론 평안해지리라　三韓將妥帖
이제부턴 모쪼록 밥이나 많이 먹어　從今但加餐
해골이 산야에 버려짐이나 면해야지　骸骨免塡壑
군자는 이치대로 살아감을 중시하나니　君子貴理遣
곤궁함 속에서도 오히려 자득한다네　窮阨猶自得
범인들은 그저 이해득실만 중시하여　衆人重得喪

심화를 태우며 자신을 들볶아대지　　膏火相煎爍
내 이제 고인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我今師古人
어찌하여 길이 소인마냥 근심하는가　　胡爲長戚戚
돈이 생기면 곧바로 술을 사먹고　　有錢卽沽酒
미친 노래 불러 울적한 회포나 풀리라　　狂歌暢幽鬱

『鵝溪遺稾』 卷之二, 箕城錄, 詩, 紀行

이산해(중종 34년, 1539년~광해군 1년, 1609년)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이다. 이색(李穡)의 7대손으로, '산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산해관(山海關)에서 그의 잉태를 꿈꾸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어려서부터 작은아버지인 지함(之菡)에게 학문을 배웠다. 글씨는 6세 때부터 썼는데 장안의 명인들이 그의 글씨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하며 명종에게 불려가 그 앞에서 글씨를 쓰기도 했다. 1545년 을사사화 때 친지들이 화를 입자 보령으로 이주했다. 명종 16년(1561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이조정랑·직제학·동부승지·대사성·도승지 등을 지냈다. 선조 11년(1578년) 대사간으로 서인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이어 대사헌·형조판서·이조판서·우찬성 등을 지냈다. 1588년 우의정이 되었는데, 이무렵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했다. 1589년 좌의정을 거쳐 이듬해 영의정이 되었다. 1591년 아들 경전(慶全)을 시켜 정철(鄭澈)을 탄핵하게 하여 강계로 유배시키고, 동인의 집권을 확고히 했다. 대북파의 영수로서 1599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 문장에 능하여 선조 대 문장8대가의 한씨를 으로 불렸다. 김시습(金時習)의 문집 서문을 썼으며, 평해 유배시절에는 수많은 시문을 지었다. 저서로 『아계집』 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03 낙산사(洛山寺)

어쩌다 꿈같이 낙산사에서 신선처럼 노니　　一夢仙遊豈化城
하늘 끝에 은은히 저녁 종소리 들리네　　雲端隱隱暮鐘聲
늦가을 여기 온 것은 나는 한하네　　我行恨値秋風晩
달빛아래 배꽃을 볼 수 없기에　　不見梨花夜月明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 아래　　一聲淸磬一龕燈
고요히 참선하는 스님　　坐對跏趺人定僧
세상에 괴로움 어느 날 그칠 것인가　　自笑勞生何日已
파돗소리 여음은 근심만 더하네　　海濤聲裏旅愁增
시름 걱정 아직 끊이지 않고　　多病相如味解消
갈 길은 멀어서 힘에 겹구나　　不堪鞍馬去經遙
동창을 활 짝 열고 두 눈을 들어 보니　　東窓拓盡擡隻眼
보일 듯한 삼신산 아득히 바라보네　　隱約三山八望過

『金剛山詩』集下篇

이정암(중종 36년, 1541년~선조 33년, 1600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중훈(仲薰), 호는 사류재(四留齋),퇴우당(退憂堂),월당(月塘)이다. 동생은 이조참판 정형(廷馨)이다. 명종 16년(156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로 기용된 후 승정원주서·공조좌랑·예조좌랑·전라도도사·경기도도사 등을 역임했다. 1578년 양주목사로 나갔다. 1587년 동래부사가 되었으며, 이어 대사간·승지·이조참의를 역임했다. 1593년 병조참판·전주부윤·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했고, 황해도관찰사 겸 도순찰사가 되었다. 난이 끝난 후 은퇴하여 풍덕(豊德)에 거처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喪禮抄』·『 讀易攷』·『倭變錄』·『西征日錄』·『사류재집』 등이 있다.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으로 추봉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연안 현충사(顯忠祠)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낙산사는 예부터 배꽃이 아름답다. 특히, 달빛 아래 배꽃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꿈에 그리던 낙산사를 찾아 신선처럼 즐기는데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하늘가에서 들려오지만 달빛 아래 배꽃을 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아래 고요히 참선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

며 세상의 괴로움을 언제 다 할지 근심하는데 파돗소리는 더 근심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수는 깨달음을 위해 절을 찾았지만 시름과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데 갈 길이 멀어 더 힘겹다. 이에 동창을 열자 삼신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104 차낙산현판(次洛山懸板)

부휴당(浮休堂) 석 선수(釋 善修)

梨亭獨坐月爲燈　달빛을 등불삼아 이화정에 앉아서
寂寞春懷語老僧　적적한 봄의 회포 노승과 함께 풀었네
碧海蒼龍時打水　바다의 창룡(四神중의 하나)은 때로 물을 뿌리고
驚波雷吼夜來僧　우레 같은 파도소리 밤에 스님이 찾아왔네

滄溟近在寺門前　절의 문 앞은 푸른 바다이고
萬里鯨波杳接天　아득한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數點漁舟孤島外　외로운 섬 밖에 고깃배 뜨고
一聲啼鳥夕陽邊　석양의 하늘가에 새 한 마리 울며 나는구나

『金剛山詩』集下篇

선수(중종 38년, 1543년~광해군 7년, 1615년)는 조선 중기의 고승으로, 성은 김이고 호는 부휴당(浮休堂)이다. 20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신명(神明)의 제자가 되었고 부용(芙蓉)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수행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나섰다.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이 찾아와 법문을 듣고 가기도 했으며, 광해군은 스님을 초빙해 설법을 듣고 가사, 푸른 비단장삼, 푸른 비단바지, 금강석 염주와 진완(珍玩)을 주었고, 봉인사(奉印寺)에 재(齋)를 두고 그를 증명으로 삼았다. 1614년 조계산에서 방장산 칠불암으로 옮겼으며 다음해 제자 각성(覺性)에게 교단의 책임을 맡긴 뒤 그해 11월 1일

임종게(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했다. 제자들이 해인사·송광사·칠불암·백장사 등에 부도(浮屠)를 세웠으며, 광해군은 부휴당부종수교변지무애추가홍각대사선수등계존자(浮休堂扶宗樹敎辯智無礙追加弘覺大師善修登階尊者)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부휴당대사집』이 있다.

첫 수의 燈, 僧, 增의 운자를 썼다. 시는 선수스님이 낙산사를 찾아 깊은 밤에 찾아, 이 화정에 앉아 달빛을 벗 삼아 노승과 함께 봄의 적적한 회포를 풀며 밤늦게까지 담화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前, 天, 邊의 운자를 썼다. 석양 무렵에 절 앞의 바다를 보며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어 아름다워 분별할 수 없고, 넓은 바다의 외로운 섬 그 곳에 고깃배가 있고, 석양에 새 한 마리 나는 모습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표현하였다.

105 증낙산사승(贈洛山寺僧)

송운(松雲) 석 유정(釋 惟政)

한양 남도에 남은 꽃마저 지니	漢陽南道落殘花
홀연히 가는 가절 어찌하리오	佳節忽忽不奈何
내일이면 봄도 가고 그대도 가고	明日春歸君又去
헤어지는 서운함 견딜 수 없으리오	不堪相送過天涯

『金剛山詩集』 下篇

유정(중종 39년, 1544년~광해군 2년, 1610년)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속명은 임응규(任應奎),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송운(松雲), 별호는 종봉(鍾峰)이다.

7세 무렵부터 할아버지에게 『史略』을 배웠으며, 13세에 황여헌(黃汝獻)에게 『맹자』를 배웠다. 선조 8년(1575년)에 선종 승려의 여론에 의해 선종의 본거지인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로 휴정(休靜)을 찾아가서 수행에 정진했다. 1578년에 휴정에게 하직하고 보덕사(普德寺)로 가서 3년간 머문 후 1581년부터 팔공산·금강산·청량산·태백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선을 닦았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스승인 휴정과 함께 투옥 당했다가, 강릉지방 유생들의 탄원으로 풀려났다.

1592년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기응변으로 인근 9개 촌락의 백성을 구출했으며, 휴정의 격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했다.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으로 1593년 1월의 평양성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며, 그해 3월 서울 부근 삼각산 노원평과 우관동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1594년 4월부터 1597년 3월 사이에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와의 4차례 협상회담에 참여했다. 1604년 휴정이 입적하여 묘향산으로 가던 중에 왕명을 받고 일본과 강화를 맺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605년 4월에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 3,0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했는데, 이때 왜군에 강탈당했던 통도사(通度寺)의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되찾아 와서 건봉사(乾鳳寺)에 안치했다고 한다. 묘향산으로 가서 휴정의 영정을 참배한 다음 원주 치악산에 머물렀다. 그 후 병이 들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던 중 1610년 8월에 입적했다.

불교승려로서의 독창적이며 체계화된 사상은 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병장(僧兵將)이나 외교가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불교억압책으로 인하여 몰락한 승려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민과 같이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진왜란 중에 이미 가토와 4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는 그는 난이 끝난 직후에는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만나 성공적인 강화를 맺고 귀국했으며, 입적하기 직전에는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종의지(宗義智)에게 우호를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문에 능하여 저술이 많았으나 임진왜란 때 거의 불타버렸고, 『四溟大師集』 7권과 『奮忠紓難錄』 1권, 기타 상소문·발문(跋文)·서장(書狀) 등이 전한다. 문도들이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 탑과 비를 세웠다. 밀양 표충사(表忠祠), 묘향산 수충사(酬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이다.

이 시는 낙산사 찾아갔다 승려에게 준 글이다. 고승이지만 아름다운 계절에 꽃이 지고 세월이 흘러감을 아쉬워하며 무상함을 느낀다. 또한 이 밤을 자고 나면 지인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인생무상을 표현하고 있다.

106 낙산사차판상운(洛山寺次板上韻)

지퇴당(知退堂) 이정형(李廷馨)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 밑에 一聲淸磬一籠燈
고요히 참선하는 승려 있구나 坐待伽趺入定僧
인생의 괴로움 어느 날 그칠 것인가 自笑勞生何日記
파돗소리 여운은 여수만 더하는구나 海濤聲裏旅愁增

시름걱정 아직도 끊이지 않고 多病相如未解消
갈 길 멀어서 힘에 겹구나 不堪鞍馬去程遙
동창을 활짝 열어 두 눈을 들어 東窓拓盡擡雙眼
보일듯한 삼신산을 아득히 바라본다오 隱約三山八望迢

『金剛山詩集』 下篇

이정형(명종 4년, 1549년~선조 40년, 1607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덕훈(德薰), 호는 지퇴당(知退堂)·동각(東閣)이다. 선조 1년(156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을 호종(扈從), 개성부유수로 특진되었다. 이때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개성이 함락되자 형 정암(廷馣)과 함께 의병을 모아 왜적을 격파했다. 1594년 고급사(告急使)로 요동(遼東)에 다녀왔다. 이후 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비변사당상·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602년 예조참판이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6년 삼척부사로 부임, 이듬해 병으로 죽었다. 평소 이황(李滉)을 흠모하여 호를 지퇴당(知退堂)이라 지을 정도였던 그는 남인인 이원익·이수광(李睟光) 등과 가까이 지내며 학문을 연마했다. 저서로는 『東閣雜記』·『黃兎記事』·『壽春雜記』·『지퇴당집』 등이 있다. 춘천 문암서원(文巖書院)에 제향 되었다.

이 작품은 1606년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낙산을 찾아 쓴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의 맑은 풍경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고요히 등불아래 참선하며 깨달음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속세의 인간으로 파돗소리의 시름만 더 한다. 갈 길은 멀어 시름은 더하는데 동창을 열고 멀리 삼신산을 바라보면 속세의 인연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고 싶은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107 낙산사망해(洛山寺望海)

대암(大庵) 박성(朴惺)

화각은 바닷가에 높이 솟았고　　畵閣高臨大海頭
넘실거리는 물결은 하늘에 닿았네　　鯨波萬里接天浮
평생 심안이 적었음을 꺼리고　　平生心眼嘗嫌小
이제부터 흐름에 따라 유유히 살리라　　從此悠然上下流

『金剛山詩集』 下篇

박성(명종 4년, 1549년~선조 39년, 1606년)의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덕응(德凝), 호는 대암(大菴)이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초토사(招討使) 김성일(金誠一)의 참모로 종사하였고, 정유재란 때 조목(趙穆) 과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 들어갔다 주왕산성(周王山城)의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세자사부(世子師傅)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공조좌랑 을 지내고, 안음현감(安陰縣監) 이 되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자 벼슬을 사퇴하고, 청송(靑松)의 주왕산 아래 은거하였다. 저서는 『대암집』 이 있다.

박성은 임란 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관직에 큰 미련 없어 은거하였다.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라는 이 시는 자신의 바다와 관련하여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낙산사,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광활하고 넘실거리는 바다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의 경관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러한 풍경을 보고 대범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사에 얽매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스러웠는데 이곳에서 깨닫고, 이제는 넓은 바다처럼 여유를 갖고 살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108 양양도중(襄陽途中)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

유희경은 제복장(祭服匠)으로 호는 촌은(村隱)이다. 일찍이 이이첨(李爾瞻)과 사귀었는데, 뒤에 이이첨이 모후(母后)를 폐하자는 의론을 주장하자 이내 절교하였다. 그는 양양도중(襄陽途中)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산은 비 기운 머금고 물은 연기를 머금었는데　　山含雨氣水含煙
청초호 백로 졸고 있네　　青草湖邊白鷺眼
해당화 길을 따라 내려가니　　路入海棠花下去
꽃잎이 채찍에 걸려 떨어지네　　滿地香雪落揮鞭

『靑莊館全書』 卷之三十五 淸脾錄 卷之四

유희경(1545~1636년)의 본관은 강화이고, 자는 응길, 호는 촌은이다. 촌은의 부친은 품계로 종칠품인 동계공랑이었다는 것만 전할 뿐, 그의 자세한 가계는 알 수 없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었던 남언경(南彦經)에게 문공가례를 배우게 되었다. 국상 때나 혹은 사대부가에서 상을 당하면 촌은을 부르곤 했으므로 당시 "양예수(楊禮壽)가 뒷문으로 나가면, 유희경(劉希慶)이 앞문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촌은은 이처럼 상례에 밝아 치상에 불려 다닌 외에도 곧은 절개로 칭송이 있었고, 임란 때는 의병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시문학에 능해 당시에 쟁쟁한 사대부들과 교류하였다. 촌은은 신분이 미천하여 벼슬에 나가지는 못했는데, 생전에 가의를 제수 받았다. 이것은 대질(80세 노인)로써 얻은 품계인데, 그전에 통정에 해당하는 품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광해군 때에 폐모를 상소하라는 이이첨의 청을 물리치고 은거하였다. 저서로 『촌은집』, 『상례초(喪禮抄)』가 있다. 이 시는 양양을 찾아 청초호와 해당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낀 감회를 표현하였다.

109

상촌(象村) 신흠(申欽)

양양으로 부임하는 정시회를 보내면서 (送鄭時晦赴襄陽) 3수

기일(其一)

숙자의 풍류로도 남은 것은 이름뿐이고　風流叔子名空在
거꾸로 실렸던 산공도 그 자취 간 곳 없네　倒載山公跡已淪
밤중만 봉래산에 일출 광경을 볼 수 있다면　半夜蓬萊看日出
내 몸에 필요한 물건 이 세상에 뭐가 있으리　世間何物是關身

기이(其二)

이화 산우 그 시는 석천의 시 아니던가　梨花山雨石川詩
사람 놀라게 절묘한 시 뼈까지도 날 듯하지　妙詩驚人骨欲飛
호해의 백년 세월 내가 이미 늙었는지　湖海百年吾已老
하늘 위의 생학이 꿈결 속에 아롱거리네　上淸笙鶴夢依依

기삼(其三)

은미한 말 안 하여도 마음속으론 묵계가 되고　微言雖絕心還契
간책은 있어 보았자 힘이 이미 부친다네　簡策空存力已闌
해 저문 소양강에 마음껏 즐기는 자연　歲暮昭陽天放在
배 가득히 연월이요 강물 줄기 차가워라　滿篷煙月一江寒

『象村集』 卷二十 詩

정시회(鄭時晦)의 행장은 상촌(象村) 신흠(申欽) 썼는데 다음과 같다.

공의 성은 정(鄭), 휘는 엽(曄), 자는 시회(時晦), 호는 설촌(雪村), 또 다른 호는 수몽(守夢)인데 초계인(草溪人)이다. 6대조 발(發)은 벼슬이 지중추부사이다. 증조 희년(熙年)은 사근도 찰방(沙斤道察訪)으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조 선(璇)은 감찰(監察)에 추증되었으며, 고 유성(惟誠)은 진사로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3대에 은전을 추급한 것은 모두 공의 귀(貴)로 인한 것이다. 모(母)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정경부인에 추봉되었는데, 찬성에 추증된 언태(彦台)의 딸이다. 윤씨 부인이, 어떤 이인(異人)이 채작(綵鵲)을 주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가정(嘉靖) 계해년(1563년, 명종 18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막 나서부터 풍채와 재기가 뛰어나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3세 때에는 글자를

능히 읽었다. 이때 모부인에게 혈질(血疾)이 있었는데, 의원이 황구(黃狗)로 소주(燒酒)를 내려 쓰면 좋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때 공이 곁에서 이 말을 듣고 뒤에 유모를 따라 길에 나갔다가 황구를 보고는 유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저 개의 주인이 누군지 물어 보지 않겠느냐." 하자, 유모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공이 말하기를 "그 개를 사서 어머니 병에 약으로 쓰려고 한다." 하므로, 듣는 이들이 공을 기특하게 여겼다.

4세 때에는 남의 집 문희연(聞喜宴)에 가 구경을 하는데,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공을 눈여겨보고 누구의 아이냐고 물어 보고는 공을 불러 "네가 글을 배웠느냐?"고 물으면서 글을 외어 보게 하자, 공이 묻는 대로 착오 없이 척척 외니, 온 좌중이 몹시 감탄하였다. 참판 최옹(崔顒)은 공의 이웃에 살았는데, 그 역시 이르기를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재상이 될 것이다." 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학문에 더욱 힘썼고, 판서 이산보(李山甫)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판서의 숙부 지함(之菡)은 세상에서 토정 선생(土亭先生)이라 일컬어진 분으로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고 지인지감이 있었는바, 공의 뛰어난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이르기를 "후일에 반드시 큰 명예를 독점할 것이다." 하였다.

16세 때에는 향해(鄕解)에 선발되어 화려한 명예가 마침내 드러났다. 이어 율곡(栗谷)·우계(牛溪) 두 선생의 문하에 가서 학업을 받았고, 또 귀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종유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리하여 위기(爲己)의 학문에 뜻을 두어 호강한 기습을 제거하고, 단정하고 엄숙함으로 몸을 단속하였다. 함께 사귀는 사람은 모두 한 시대의 명사들이었는데, 도의로써 서로 절차탁마하여 기거(起居)와 어묵(語默)에 모두 법도가 있었다.

만력(萬曆) 계미년에 처음 벼슬하여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에 보임되었다가 홍문록(弘文錄)에 뽑히니, 명망이 매우 성대하였다. 이해 겨울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예에 지나치도록 집상(執喪)을 하였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최복(衰服)을 벗지 않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제전(祭奠)을 드릴 때는 손수 칼과 도마를 잡아 제수를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여름을 지나다 보니, 등살이 다 문드러지고 두 눈은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 인해 가리는 것이 생기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모부인께 걱정을 끼치게 될까 염려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고(告)하지 않았는데, 달포 뒤에 공의 선인(先人)이 모부인의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우리 아이가 곧 실명(失明)을 하게 되었는데, 왜 방치해 두고 구원하지 않는가." 하므로, 그제야 모부인이 깜짝 놀라 비로소 약을 써서 그것을 완치시켰다. 복(服)을 마치고는 순서에 따라 정자(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에 승진하였다. 정해년에는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을 역임하였다.

무자년에는 모친 봉양을 위하여 김포 현감(金浦縣監)으로 나가서 청렴하고 간솔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때 부평(富平)에 사는 한 백성이 원가(怨家)가 있었는바, 그 원가 사람을 사죄(死罪)로 몰아넣기 위해, 물에 빠져 죽은 시체 한 구를 남몰래 입수해 가지고

이를 원가의 자식이 제 종을 죽인 것인양 속여서 관에 고발하였다. 그러자 관찰사가 공에게 그 옥사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뭇사람들이 모두 이 자식이 사람을 죽였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공만은 이 옥사에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역적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 말로 연좌된 미결수 하나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기를 "나는 모역을 한 것이 아니요, 주인집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거짓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멀리 도망가 있다가 이번 일로 잡혀온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선조가 명하여 그의 주인집을 조사해본 결과, 그가 바로 원가를 무고한 그 부평 백성의 종이었다. 이로 인해 그 부평 백성의 옥사가 제대로 처리되었다. 그 후 어버이 병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었는데, 역적 정여립의 변으로 높은 벼슬아치들이 마구 연좌 처벌되자, 공은 문을 굳게 닫아 내빈을 거절하고서 항상 옥사 다스리는 것이 정도에 지나침을 걱정하였다. 이어 형조·공조의 낭관에 옮겨졌다.

신묘년에는 조모의 상을 당하여 승중복(承重服)을 입었다. 임진년에는 왜란을 만나 대부인을 모시고 호서에 우거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더욱 독실히 학문을 연구하였다. 갑오년에 상제(喪制)가 끝나자 홍문관 수찬으로 부름을 받고 조정에 들어왔다.

이때 묘당(廟堂)에 왜적과 강화(講和)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李廷馣)도 소장을 올려 강화하기를 청하므로, 공이 차자를 올려 불가함을 굳게 쟁론하였다. 또 황조(皇朝)의 총독(總督) 고양겸(顧養謙)이 참장(參將) 호택(湖澤)을 보내어 우리 나라를 왜적과 강화하라고 협박하자,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상의 앞에 나아가 의견을 아뢰기를 "다만 천조(天朝) 장관(將官)의 말을 빙자하여 천조에 주문(奏聞)할 것이요, 강화를 청한다고 드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강화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의당 그 이해를 분명하게 가려서 솔직하게 청해야지, 군신(君臣)의 사이에 어찌 두 가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유성룡의 말은 명백하지 못합니다." 하고, 인하여 화의를 준절히 배척하니, 선조가 이르기를 "이러한 유자(儒者)의 논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당시 남쪽 변경에서 올라온 치보(馳報)에 봉함(封緘)을 뜯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어떤 농간이 있는가 의심하여 공을 경차관(敬差官)으로 임명해서 일로(一路)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이 그곳에 가 보았으나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으므로, 농간을 부린 자는 찾아 내지도 못하고 백성들만 소요시킬까 두려워하여, 상께 아뢰어 이 일을 작파하였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충직함 때문에 시속 사람들에게 해독을 받아왔는데, 그가 이미 죽은 뒤에도 당로자(當路者)에게 씹혔는바, 당로자가 그의 관작을 추탈하려고 하나 공이 옥당(玉堂)에 있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공을 무함하기를 "정모(鄭某)가 장차 상의 앞에서 정철의 관작 추탈하자는 논의를 막을 것이다." 하고는, 먼저 공을 공격하여 제거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다가 곧

해면되었다.

을미년에는 서천 군수(舒川郡守)로 나갔다가 방백에게 거슬리어 파면되자, 군민들이 성문을 닫고 못 가게 가로막았으며, 송덕비를 세워 공을 기렸다. 병신년에는 예조 정랑으로 고급사(告急使)에 임명되어 명 나라 밀운(密雲)의 군문(軍門)에 가서 원병(援兵)을 청하고 돌아와 성균관 사성을 거쳐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수원은 서울 근교의 산읍(山邑)인데다 또 삼도(三道)의 큰 길에 위치하였고 막 병화를 겪은 상태라서 공사(公私)의 창고가 모두 텅 비었는데, 명 나라의 대군이 연달음으로써 원근의 백성들이 모두 소요하였으나, 공이 방도가 있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이를 힘입어 안도하였다. 황조의 장사(將士)가 왔을 적에 다른 군현들은 저들에게 욕을 많이 받았으나, 저들이 공을 보면 공경하므로, 이졸(吏卒)들이 서로 축하하며 이르기를 "우리 부백(府伯)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상국 사람들도 예로 대우하는데, 더구나 우리 백성들 무리임에랴." 하고, 일로써 속이지 말자고 서로 경계하였다. 이곳에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체직되었다.

무술년에는 성균관 직강, 홍문관 응교, 겸 시강원 필선,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고 통정(通政)에 올라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때 김공 수(金公睟)가 호조 판서로 있었는데,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군량을 대지 못한다 하여 김수를 체직시키고 한응인(韓應寅)을 대신 호조 판서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좌승지 허성(許筬)이 양호의 의견을 따르자고 청하자, 공이 반대 의사를 견지하여 이르기를 "관작을 주거나 뺏는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므로, 그 권한을 남에게 빌려 줄 수 없다." 하였는데, 선조의 하교가 공의 의논과 똑같았다. 그러자 허성이 공의 견해에 감복하여 자신이 따를 수 없다고 여겼다.

이어 우부승지를 거쳐 형조 참의에 체배(遞拜)되어 동지사(冬至使)로 북경에 갔는데, 함께 간 사신이 비루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공이 그곳을 왕복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의 모함을 받았다.

기해년에는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는데, 병사(兵使) 이광악(李光岳)이 나주의 13도(島)를 빼앗아 병영(兵營)으로 이속시키자, 공이 이 사실을 방백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광악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다른 일로 공을 능멸하여 책망하므로, 공이 벼슬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러자 이광악이 공의 죄를 얽어 확대시켜서 조정에 보고하니, 선조가 하교하기를 "정엽은 벼슬살이를 잘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방백에게 명하여 철저히 조사하게 한 결과 과연 끝내 그런 사실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잉임하도록 하였으나, 공은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그 후에 이광악이 군졸을 징집하면서 살아 있는 군졸을 죽은 군졸로 처리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선조가 대단히 진노하고 양사(兩司)는 서로 소장을 올려 이광악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공은 이때 간원에 있으면서 이광악의 죄는 고의가 아닌 과오에서 빚어진 것임을 알고서 힘써 그를 구

원하니, 사람들이 그제야 공의 마음씀이 공평함을 알았다.

경자년에는 병조 참의를 거쳐 사간원 대사간이 되어 강직하게 일을 논의하니, 조야가 모두공의 인품을 사모하며 기대하였다. 이어 다시 병조 참의가 되어 영위사(迎慰使)로 관서(關西)에 가서 조사(詔使) 도사(都司)를 맞이하고 들어와 예조 참의가 되었다. 이때 기자헌(奇自獻)이 척리(戚里)로 일어나 권세를 은밀히 도모하면서 겉으로는 사류를 사모한 체하였으므로, 당시 의논이 그를 이조 참판에 의망하려 하였으나, 공은 그를 불가하게 여겼다. 그리고 기자헌이 혹 공에게 들른 적이 있더라도 공은 그에게 보답하여 사례하지 않았으므로, 기자헌이 원한을 품고 은밀히 공을 중상하였다.

임인년에는 기자헌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축출하면서 공을 물리쳐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그러나 공은 그 직임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서, 폐해진 일들을 일으키고 병폐된 것들을 제거하여 성지(城池)와 기계를 시원스럽게 일신시키고,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들을 장려하여 초하루와 보름이면 향교를 참배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일과를 주어 시서와 예법을 가르침으로써, 종성 사람들이 책을 끼고 글공부를 하게 된 일이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은 날마다 공무를 처리하는 여가에 경전에 크게 힘을 써서 사단 칠정(四端七情)에 관한 글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유고(遺稿)에 실려 있다. 또 종성부에 황폐한 전답이 있었는데, 호조에서는 오히려 종성부에 명령을 발부해서 그 세금을 다른 물품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해마다 초피(貂皮)를 수백 장씩 징수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심지어는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상환하였으므로, 공이 건의하여 이 일을 혁파시켰다.

계묘년 가을에는 노추(奴酋)가 홀온(忽溫)을 공격하면서 육진(六鎭) 길을 거쳐 수만의 기병이 갑자기 성 밖에 이르자, 모두 노(虜)가 우리 국경을 침범한 것이라 하여 백성과 병졸들이 물 끓듯이 소란해졌다. 그러자 공이 이르기를 "아군과 적군의 수가 현격한 차이가 나니, 기묘한 계책을 쓰지 않으면 저들을 방어하기 어렵다." 하고는, 마침내 성문을 활짝 열고 기치를 많이 늘어세운 다음, 남녀 노약자까지 모조리 징발하여 군복을 입혀서 성을 순회하게 하되, 밤이면 횃불 하나에 두서너 가지를 만들어 함께 불을 붙이도록 하니, 그 불꽃이 하늘까지 비추었다. 이에 앞서 공이 경내 호구(戶口)를 계산하여 성첩(城堞)을 분담하여 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와서 그 성첩을 지키도록 약속을 하였는데, 노가 이르자 과연 감히 뒤처지는 자가 없이 모두 모여 지킴으로써 노가 마침내 군졸을 이끌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노가 7주야 동안 성을 포위하였으나 그들에게 패배당한 것은 없었고 부노(府奴) 한 사람만이 사로잡혀 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조정에 이 보고가 전해지자, 이때 기자헌이 막 정권을 잡은 터라, 공이 적을 물리친 공로는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이 사로잡혀 간 것으로 공의 죄를 만들어 치죄(治罪)하게 한 뒤 동래(東萊)로 좌천시키니, 종성의 선비들 가운데 소장을 올려 공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있었다. 공은 배소

에 있으면서 오직 서적을 보며 스스로 즐기었다.

갑진년에는 사유를 받아 광릉(廣陵)의 전장(田莊)으로 돌아와 있다가, 연해서 성주(星州)와 홍주(洪州)의 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안 가서 모두 파면되었다. 그러자 공은 세상에 용납되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여강(驪江)의 옛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무신년에는 예조 참의에 제수되었고, 기유년에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태학생들을 인솔하고 날마다 『심경』·『군사록』을 강의하면서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한 자는 회초리로 때려서 경계시켰다. 그리고 수시로 사학(四學)에도 나가서 강독하기를 마치 태학에서와 같이 하니, 선비들이 모두 성대히 공의 풍도를 추향하였다.

경술년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선량한 자를 발탁시키고 간악한 자를 적발하여, 호령을 엄숙하고 명백하게 하였다. 신해년에는 예조 참의, 승지를 거쳐 판결사가 되었는데, 관청에 오래도록 체류된 송사가 없었다. 이어 대사간에 제수되었는데, 공이 이 직에 있은 지 이미 10년이 되었기에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 모두 신진 소년이었고, 또 시사가 날로 그릇되어 감을 알고는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임자년에는 도승지가 되었는데, 광해군이 경연에 나오지 않으므로, 공이 간언(諫言)을 올리고, 또 임금이 사특한 자들의 인연하는 길을 터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여 넌지시 경계하였다. 이윽고 병으로 해면되었다가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고, 이어 가선(嘉善)에 올라 참판이 되었다.

계축년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이해 여름에 박응서(朴應犀)란 놈이 이이첨(李爾瞻) 등의 은근한 뜻을 받들어 허위 고변을 함으로써 마침내 큰 옥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위로는 자전(慈殿)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무함하였으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은 8세의 동자(童子)로 해도(海島)에 유배하였고, 명경(名卿)·거실(巨室)을 체포 수감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겼으나, 공은 자전께 효도를 극진히 하라는 뜻으로 진계하려 하였는데, 대부인의 저지를 받아 진계를 올리지 못하고는, 스스로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지고 벼슬을 그만두었다.

갑인년에는 공조 참판으로 동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을묘년에는 저주 사건으로 교서를 반포하려 할 적에 이이첨이 금부(禁府)와 회의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공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인하여 동지의금부사의 직임을 사퇴하였다. 이해 가을, 가의(嘉義)에 올랐고, 병진년에 자헌(資憲)이 되었다. 공이 계축년 이후로는 벼슬할 뜻이 없었는데, 오직 대부인 봉양 때문에 한산한 직임에나마 억지로 종사하기는 했으나 절반 이상을 시골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통신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공이, 반드시 황조(皇朝)에 아뢰어 처리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헌의하였다.

정사년에는 양양 부사(襄陽府使)가 되었다. 무오년에는 모후(母后)를 폐하자는 논의가 결정되자, 항론하는 자는 법망에 걸리고 아부하는 자는 부귀를 도모하여, 온 세상이 수

치스럽기 그지없었는데, 공은 하찮은 지방관으로 영외(嶺巍)에 은거하여 산해(山海)의 절경을 두루 다 수탐하면서 세속 밖에 유유자적하였다. 이때 궐내에서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찰을 크게 짓고자 하여, 궁노(宮奴)가 후궁의 편지를 가지고 왔으나, 공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을에는 파면되어 여주의 전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는 다시 경성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강상(綱常)이 단절되었는데 어찌 다시 벼슬아치의 반열에 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곳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동안 더욱 스스로 노력하여 성현들의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을 탐색한 결과 혼자만이 터득한 즐거움이 있었다.

기미년에는 광주(廣州)로 옮겨가 살면서 세상과는 날로 멀어졌으나, 시속을 걱정하는 마음은 가슴속에서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항상 자제에게 이르기를 "간악한 신하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현혹시킴으로써 국사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말 한 마디라도 올려 임금의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몸을 감추고 한가이 물러나서 마치 세상을 잊어버린 자와 같이 하고 있으니, 이는 성은을 크게 저버린 것이다." 하였다. 기미년에 일찍이 광해군이 엄한 교지를 내려, 재신(宰臣)으로 교외에서 쉬고 있다는 것으로 공을 책망하자, 공이 대궐에 나아가 대죄하였는데, 임술년에 또 명을 내려 공을 독촉하였으나, 공은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계해년에 금상(今上)이 대의를 일으켜 반정(反正)하고 광해군을 강화(江華)에 안치시키게 되자, 공이 말하기를 "폐주(廢主)가 비록 스스로 천명을 끊었지만, 신하들로서는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섬겼던 분이니, 의당 곡하여 보내야 한다." 하니, 좌우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기색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이 처음 조정에 들어갔을 적에 사람들이 모두, 먼저 조정으로 들어가면 공을 배제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공이 참소를 피하여 병을 칭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한 시대의 명사들이 공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모두 벼슬을 사퇴하려 하였다. 그러자 공을 저해하던 자가 크게 뉘우쳐 다시 공과 기꺼이 화합하였는데, 공은 앞서의 일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이때 상이 사습(士習)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사표가 될 만한 조신을 가려 대사성으로 삼으려 하자, 뭇 사람의 뜻이 공에게로 모아졌다. 그리하여 대사성으로 동지경연 원자사부를 겸하게 되었다. 그러자 공이 학제(學制)를 정하여 일과를 권면하기를 마치 옛날에 시행하던 것과 같이 하되, 과조(科條)를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횡당(黌堂)과 재사(齋舍)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함께 거처하면서 학문을 강토하게 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이 날마다 책을 들고 사석(師席)에 나아가 공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다투어 공을 사모하여 본받으니, 법도가 볼 만한 것이 있었다. 지평 박지계(朴知誡)는 한빈한 선비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사묘(私廟)를 추숭(追崇)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공이 그를 대면하여 "그대는 징사(徵士)로서 맨 먼저 상의 뜻에 영합하는 논

의를 내놓는 것은 무슨 뜻인가."고 힐책하였다.

이해에 폐조 때의 관계(官階)를 사헌부의 논의로 인하여 모조리 고치게 되자, 공 또한 자헌(資憲) 품계를 반납하였다. 이때 이조 참판 자리가 비어 공이 수선(首選)을 받았는데, 상이 공이 아니면 선비를 양성할 수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조금 뒤에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옛날에도 실직으로 대사성을 겸임한 자가 있었는가?" 하니, 대신이 정인지(鄭麟趾)와 서거정(徐居正) 등이 겸임했다고 대답하였다. 이윽고 대사간에 제수되어 대사성을 겸임했는데, 그 후 여러 관직에 누차 전임되면서도 대사성을 그대로 계속 겸임하였다. 공이 간원에서도 매우 엄정하여 아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강(侍講)을 할 적에는 장구(章句)의 훈고(訓誥)만을 위주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지적하는 데 있어 경도(經道)를 의거하여 넌지시 타이르곤 하니, 그때마다 상이 반드시 안색을 나타내어 들어주었다. 공은 또 진계하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부지런히 경연에 임어하시는데도 성학(聖學)은 더 진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타고난 자질로 만일 학문에 공을 들인다면 요순이 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들이 재주와 슬기가 비록 높았더라도 진실로 학문의 힘이 없으면 그 정치는 끝내 반드시 구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간절히 묻고 가까이 몸에 견주어 생각하며, 힘써 행하고 지키기를 간략하게 하시어, 정치를 도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삼대(三代)를 표준으로 삼으소서. 또 야기(夜氣)가 청명한 때에 자주 유신들과 토론하여 끊임없는 공부를 하소서." 하니, 상이 가상하게 여겼다.

그 다음날에 야대(夜對)를 명하였는데, 연신(筵臣)이 일을 아뢰었으나 상은 자못 말이 없었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천위(天威) 아래서는 신하들이 회포를 진술하려 해도 항상 두려워서 머뭇거리어 백에 한두 가지도 진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전하께서 말이 없이 대하심에리까. 전하께서 애써 나라를 다스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치적에는 그만한 보람을 얻지 못했는데, 신이 삼가 그 연유를 헤아려 보니, 상하가 모두 하나의 사(私) 자를 타파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상께서 하신 아무 일은 사(私)이고, 아무 일도 사입니다." 하며 10여 가지 일을 죽 열거하니, 상이 안색을 엄숙하게 고치었다. 또 말하기를 "경연을 여는 날에는 대간의 계사를 의당 바로 들어와 아뢰어서, 위에 간언 들어주기를 급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유배지에 있는 광해군이 일찍이 병이 났는데, 공이 중종 때에 연산군을 대접하던 규례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광해군이 비록 종사의 죄인이기는 하나 신이 일찍이 그를 섬겼었으니, 그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옛정이 없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상이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에게 수용되는 물품을 후히 보내도록 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폐조대의 궁인 중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이거나 유찬시키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 나머지는 꼭 심하게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조 때의 궁녀들은 모두 악행을 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다시 액정(掖庭)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상소하여 시무에 관해 수천 언을 진술하였는데, 그 귀추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갑자년 봄에 이괄(李适)이 모반하자, 이원익(李元翼)이 도체찰사가 되어 공을 불러 부체찰사로 삼았는데, 적병이 도성 가까이 깊이 들어옴으로써 도성의 인심이 몹시 소란해졌다. 그러자 공이 상께 아뢰어, 왕자와 삼사의 여러 관원들로 하여금 금중(禁中)에 들어가 숙위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역적 제(瑅)가 이 사변 초기에 흉독을 제멋대로 부리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이때 적이 경기 지방에 육박하였는데도 조정에서는 피란 계획을 결정짓지 못한 채, 서로 앞을 다투어 집안의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가 피하므로, 공이 그것을 논박하였다. 그런데 적에 대한 경보가 점점 급하여지자, 공이 곧바로 서울을 떠날 계책을 결정하였다. 하루는 공이 상의 앞에서, 좌우에서 좋은 계책을 헌의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분하게 여겨 성난 목소리로 진언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순간에 달려 있는데, 이 어찌 대신이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까." 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강화(江華)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따라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 한강을 건널 적에 배 안의 물이 무릎까지 찼는데도 공이 조용하게 절하고 꿇어앉자,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황급한 때에 어찌 예를 차리는가." 하니, 공이 사례하기를 "아무리 급한 때인들 어찌 감히 예를 어기겠습니까." 하였다.

적이 패하여 적의 목이 바쳐지자, 상이 백관에게 은전을 내리고 특히 공에게는 자헌 품계를 도로 주었다. 도성에 돌아와서는 정헌(正憲) 품계에 승진, 대사헌에 제수되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일체 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이때 경상도 관찰사 민성휘(閔聖徽)가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유배 중에 있던 재신 권진(權縉)을 제멋대로 죽였으므로, 공이 말하기를 "그런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하고, 그의 죄과를 상주하여 탄핵하였다.

그리고 새로 지은 본궁(本宮)의 종이 궁가(宮家)의 인지(印紙)를 가지고 민간에 횡행하자, 공이 헌부에서 그 횡행한 자를 형신하였다. 그러자 상이 자전께 그 일이 관계된다 하여 헌부의 관원을 체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대신의 말에 의해 그 명이 환수(還收)되기는 했으나, 공은 사양하고 나가지 않다가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을축년 봄에 세자의 관례(冠禮)를 행하고는, 공이 원자 사부로서 1품인 숭정(崇政)에 승진되어 세자좌부빈객이 겸해졌는데, 공이 이를 사퇴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경이 원자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지성스러우므로, 내가 가상히 여겨 감탄한 지 오래이다." 하였다. 이때 이조에서 공의 자급이 이미 숭품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사성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원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잉임시켰다가, 대신에게 물어 본 결과, 대신이 체직시켜야 한다고 대답하자, 상이 그제야 체직을 윤허

하였다.

이때 공이 갑자기 풍질(風疾)을 얻어 드러눕자, 상이 내의를 보내 위문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공이 유차(遺箚)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과 사정(私正)을 분별할 것을 요점으로 삼았다. 그해 여름에 별세하니 향년이 63세였다. 공은 병이 막 들었을 적부터 부녀자를 물리치고 조용히 거처하였는데, 별세할 때 역시 부인이 뵙기를 청하였으나 공이 손을 휘저어 거절하고는 베개를 옮겨 동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운명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슬퍼하고 조회를 폐했으며, 우의정을 증직하라고 명하고 의식대로 부의(賻儀)와 조제(弔祭)를 내렸다. 동궁도 요속을 보내어 조제하였다.

공의 손자 원(援)이 공의 유차를 올리니, 상이 답하기를 "선경(先卿)의 유차를 보니, 죽음에 임박해서도 임금을 잊지 않아서, 충직하고 절실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다. 유차를 재삼 펼쳐 보고 내가 매우 슬퍼하며 탄식하였다.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고 몽매할지라도 감히 그 말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지하에 있는 선경의 소망에 부응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태학생들은 성균관을 비우고 모두 와서 제전을 드렸다. 이해 6월에 양주(楊州)의 소재지 서쪽 묘좌(卯坐)의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여기는 선영이다.

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는 이조 판서 산보(山甫)의 딸인데, 인자하고 유순하고 온화하여 남편을 짝함에 있어 덕에 어긋남이 없었다. 1남 4녀를 두었다. 1남 원석(元奭)은 문과에 급제하고 현감이 되었는데, 심종민(沈宗敏)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으니, 그가 바로 원(援)이다. 장녀는 이정철(李廷哲)에게 시집갔는데, 이정철은 감역(監役)이고, 다음은 나만갑(羅萬甲)에게 시집갔는데 나만갑은 교리이다. 그 다음은 유철증(俞哲曾)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이상질(李尙質)에게 시집갔다. 이정철은 2남 3녀를 두었고, 나만갑은 2남 1녀를 두었으며, 유철증은 1남 1녀를 두었다.

공은 자품이 뛰어나고 기국이 엄정하며, 풍채가 청수하고 기거동작이 묵중하며, 식견이 고원하고 언론이 정대하였다. 옛을 좋아하되 현시대에 어긋나지 않고, 시속을 따르되 세상과 혼동되지 않았다. 일찍부터 사우(師友)를 종유하여 학문에 연원(淵源)이 있었고, 고서를 깊이 연구하느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그 중에도 『주역』·『근사록』·『심경』 등의 글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집에 있을 적에는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먼저 가묘(家廟)를 배알하고 대부인께 문안을 드렸다. 좋은 때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대부인을 모시고 잔치를 하며 즐겼고, 이를 동기간과 친척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어 한결같이 성신(誠信)으로써 서로 화합하였다. 그리고 제사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몸소 살펴 마련하되, 모든 것을 미리 갖추어 저장해 두곤 하여 조금도 신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자신을 위하는 데는 절약하고 검소하여, 한 끼니에 두 가지 고기를 먹지 않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나라에서 받은 봉록은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대부인에게 드리어 대부인이

하는 대로만 따랐다.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는 권세를 피하기를 마치 자신을 더럽힐 것처럼 하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사적인 일로 간청하지 못하였다. 공의 모당(母黨)과 처당(妻黨)들이 폐조의 후궁으로 들어가 총애를 받으면서, 공을 배경으로 임금의 원조를 받기를 바랐으나, 공이 일체 물리치고 통하지 않았다. 이이첨(李爾瞻)、박승종(朴承宗)과는 평소의 교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권을 쥐고 나서는 공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으니, 소인을 대하는 데 있어 미워하지 않으면서 엄격하기는 이와 같았다. 여가로 글을 더러 지었는바, 그 글은 풍부하고 활달하며 사리가 통창하였는데, 공이 저술한 『易學釋疑』、『近思釋疑』와 유고(遺稿)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있다.

공이 벼슬을 한 지 40여 년에 걸쳐, 조정에 들어가서는 경악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말을 했다 하면 극진히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바, 임금을 올바른 도리로 인도하고 세상의 교화를 만회시키려고 힘썼다. 또 밖으로 나가 주군들을 다스릴 적에는 은혜와 위엄을 병행함으로써,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은혜에 감복하여, 이르는 곳마다 훌륭한 장관이라 일컬어졌고, 공이 떠나고 나면 더욱 사모하곤 하였다.

천지의 강상이 무너지던 때를 당해서는 그 탁류 속에서 용감하게 물러나 천 길 밖으로 훌쩍 떠나 있음으로써, 혼탁한 시속에 물들지 않아 이름과 행실이 다 온전하게 되었으니, 어찌 책임은 중하고 갈 길은 멀기에 대절(大節)을 당해서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었겠는가. 만년에야 성명한 임금을 만나서는 자주 국가의 이해를 논의하여 명망과 실제가 아울러 융성해짐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공을 재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불행하게 역량대로 다 쓰이지 못하고 작고하였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나는 일찍부터 공과 막역한 교분이 있었고 진퇴와 출처도 대략 서로 같았는데, 공은 다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공의 아들 원석(元奭)씨가 공의 행적을 기록하여 나에게 보여 주고 또 나에게 행장 지어주기를 부탁하였는데, 그 기록을 보니, 공의 돈후한 덕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 위에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그 번다한 것만 산삭하여 돌려보내노니, 비석에 새겨서 후세에 전하는 일은 당세에 덕행 있고 문장에 능한 분이 하게 될 것이다. 동양(東陽) 신흠은 행장을 쓴다.

「鄭知事行狀」 餘稿

公姓鄭° 諱曄字時晦° 號雪村° 又號守夢° 草溪人° 六代祖發° 官知中樞府事° 曾祖曰熙年° 沙斤察訪° 贈左承旨° 祖曰璇° 贈監察° 考曰惟誠° 進士° 贈議政府領議政° 三世推恩° 皆用公貴° 母曰坡平尹氏° 封貞敬夫人° 贈贊成彦台女° 夢異人授綵鵲有身° 嘉靖癸亥擧公° 符彩英發° 與凡兒殊° 三歲能讀字° 母夫人有血疾° 醫言黃狗肉酒良° 公在傍聞之°

後隨乳媪出路° 見黃狗謂媪曰° 爾盍問彼狗主° 媪曰奚° 公曰欲買爲母病藥° 聞者異之° 四歲° 詣人聞喜宴觀光° 鄭林塘惟吉，李栗谷珥在席° 目屬公曰° 誰氏兒° 招而曰° 汝學書否° 令誦之° 公應口誦不錯° 一座驚嘆° 崔參判顯在比隣° 亦曰° 玆兒當作宰相云° 稍長° 學益力° 受室於李判書山甫° 判書之叔父曰之菡° 世稱土亭先生° 嘉遯不仕° 有藻鑑° 奇公俊逸曰° 他日必擅大名° 十六° 選鄉解° 華問遂闡° 遊於栗谷，牛溪兩先生之門問業° 且從宋龜峯翼弼資益焉° 有志爲己之學° 刮磨豪習° 端嚴自持° 所與交盡一時名勝° 以道義相切磋° 起居語默° 靡不有度° 萬曆癸未° 釋褐補承文權知° 選弘文錄° 聲望藹鬱° 冬° 丁外艱° 持制有過於禮者° 病不脫衰° 寢不解衣° 晨夕祭供° 躬操刀俎° 經夏° 背肉皆爛° 兩目因淚生翳° 公恐母夫人貽慮° 諱不告° 月餘° 公之先人見母夫人夢曰° 吾兒將失明° 何置不救° 母夫人驚° 始用藥已之° 服闋° 序陞正字，著作，博士° 丁亥° 司憲府監察，刑曹佐郎° 戊子° 爲養出宰金浦° 莅以廉簡° 富平民有怨家° 欲窴之辟° 潛得溺者尸° 誣怨家子殺其奴° 告于官° 觀察使使公治° 衆共言此子殺人無疑° 公獨曰° 獄有疑端° 越明年° 鄭賊汝立獄起° 有囚辭連° 自陳我非謀逆° 因主家報仇° 詐託死遠去被引° 宣廟命按其主家° 乃富平民誣告怨家者奴也° 其獄得定° 以親癘去官° 鄭賊之變° 株累薦紳° 公杜門却掃° 恒憂治獄過當° 遷刑，工郎° 辛卯° 遭祖母憂° 持承重服° 壬辰° 値倭亂° 奉大夫人寓湖西° 流離遷徙° 講學彌篤° 甲午° 制除° 徵以弘文館修撰° 廟堂有和議° 全羅觀察使李廷馣亦上章請之° 公進箚固爭° 皇朝總督顧養謙差參將胡澤° 脅我國與倭和° 柳相成龍至上前論奏曰° 但憑天朝將官言爲奏聞° 不須顯言請和° 公曰° 和與不和° 宜辨其利害直請之° 君臣之間° 豈宜爲兩端說° 成龍之言不明白° 因峻斥和議° 宣廟曰° 此儒者之論° 不可無也° 南邊馳報有拆封痕° 疑有奸° 除公敬差官° 驗問一路° 公往無迹可尋° 懼奸不能鉤而徒擾民° 白罷之° 鄭松江澈以忠直見螫於時° 旣歿猶爲當路者所噬° 欲追奪其爵° 而憚公居玉堂不敢發° 誣捏公曰° 鄭某將於前席闕其論° 先擊公去之° 未幾復授司憲府掌令° 卽免° 乙未° 出爲舒川郡守° 忤方伯罷° 郡民閉城門遮留° 立頌德碑° 丙申° 以禮曹正郎° 差告急使° 赴密雲軍門請兵° 還拜成均館司成，水原府使° 水原爲畿輔岩邑° 而又當三南孔道° 新刱於兵° 公私赤立° 而大軍絡屬° 遠近騷屑° 公處之有方° 民賴按堵° 皇朝將士之來° 郡縣多被詬辱° 而見公輒敬° 吏卒相慶曰° 吾府伯之賢° 上國人猶禮之° 況吾氓屬乎° 戒毋瞞以事° 居九月病遞° 戊戌° 拜成均館直講，弘文館應敎兼侍講院弼善，司憲府執義° 躋通政° 承政院同副承旨° 金公睟判戶曹° 楊經理鎬以餉餉不繼° 欲遞睟代以韓應寅° 左承旨許筬請從鎬° 公持之曰° 官爵人主大柄° 不可以假人° 宣廟下敎如公議° 筬服公之見爲不可及° 由右副遞拜刑曹參議° 以冬至使如京° 同行使臣有鄙行° 公往返° 未嘗與之語° 竣事還° 爲其所陷° 己亥° 出爲羅州牧使° 兵使李光岳奪州十三島° 移屬兵營° 公報方伯° 光岳銜之° 以他事轢責公° 公棄官° 光岳文致公罪上之° 宣廟敎曰° 鄭曄善居官° 寧有是事° 命方伯究覈° 終無事實° 特命仍任° 公終不赴° 其後光岳簽軍° 以生爲死事覺° 宣廟盛怒° 兩司交章請罪° 公在諫

院。知光岳之罪由於言。力排之。人乃知公處心公平。庚子。拜兵曹參議，司諫院大司諫。論事侃侃。朝野想望風采。復爲兵曹參議。以迎慰使迎詔使都司于關西。入爲禮曹參議。奇自獻以戚里起。陰圖權勢。而陽浮慕士流。時議將擬亞銓。公以爲不可。自獻或過公。公不報謝。自獻懷憾陰中之。壬寅。盡逐異己。斥公爲鍾城府使。公不鄙夷之。興廢祛弊。城池器械。曄然一新。崇學礪士。朔望拜鄉校。課諸生。教之詩書禮法。鍾人挾筴修文事。自公始。公簿領之暇。大肆力於經傳。著四端七情書。在遺稿中。府有田荒廢。而度支猶符府折其稅。歲徵貂數百皮。民至壞產而償之。公乃建請革之。癸卯秋。奴酋之擊忽溫也。路由六鎭。數萬騎猝至城外。咸以謂虜犯我境。民卒鼎沸。公曰。衆寡懸殊。非用奇計難禦。遂開門多張旗幟。悉發老弱男女。并着戎衣巡城。夜則以一矩作數三枝。光焰燭天。先是公計境內戶口。分堞授之。約以有急則來守其堞。及虜至。皆集無敢後。虜竟引去。圍城七晝夜。無所衂。而一府奴被擄。報聞。自獻方秉柄。不擧却敵功。以一人被擄。成公罪下理。貶東萊。鍾之士子有陳疏訟冤者。在謫唯以圖籍自娛。甲辰宥還廣陵莊。連拜星州，洪州。未幾皆罷。公自知不容於世。返驪江舊居。戊申。拜禮曹參議。己酉。拜成均館大司成。率大學生日講說心經，近思錄。其不能修業者榎楚以警之。時往四學。講讀猶大學。士皆蔚然嚮風。庚戌。拜忠淸道觀察使。擢摘良姦。號令嚴明。辛亥。拜禮曹參議承旨判決事。庭無淹訟。拜大司諫。公居是職已十年。同列皆新進少年。且知時事日非。辭遞。壬子。拜都承旨。光海不御經筵。公進諫。又言人主不可啓邪佞夤緣之路。以諷切之。尋以病免。拜戶曹參議。陞嘉善。爲參判。癸丑。都承旨。夏。朴豎應犀承李爾瞻等風旨上變。大獄遂起。殺國舅金悌男。上誣慈殿。永昌大君以八歲童子。窟海島。名卿巨室。相繼逮囚。人人自危。公欲以盡孝慈殿陳啓。爲大夫人所止不果上。引入遞免。甲寅。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乙卯。以咀呪事將頒敎。李爾瞻要與禁府會議。公獨不往。仍辭同知義禁。秋。陞嘉義。丙辰。資憲。癸丑以後。無仕宦意。唯以大夫人故。黽勉散秩。而太半在江湖。日本請通信使。公獻議必奏皇朝處之。不可擅許。丁巳。襄陽府使。戊午。廢母后之議決。抗論者罹文罔。附麗者圖富貴。擧一世汹汹。而公吏隱嶺外。窮搜山海之勝。自適於物外。自闕中遣人。大造寺刹。宮奴持後宮書至。公拒而不納。秋。罷歸驪莊。不復入京城曰。綱常絕矣。何可更齒衣冠之列。居閑益自刻苦。探索聖賢微言奧旨。有獨得之樂。己未。徙居廣州。與世日疏。而傷時悶俗。不弛於中。常語子弟曰。奸臣蔽惑。國事罔極。而不得發一言悟天心。斂身閑退。有若忘世者然。辜負聖恩大矣。己未。光海下嚴旨。責公以宰臣偃息郊圻。公詣闕待罪。壬戌。又下令督公。公以親老不起。癸亥。今上擧大義反正。置光海于江華。公言廢主雖自絕于天。群臣曾所北面。當哭送。左右失色不答。公初入朝。人咸謂先入岩廊。有排擠公者。公避讒謝病歸故里。一時名流聞公去。皆欲引退。沮公者大悔。復與公驩。公不以介意。上欲新士習。擇朝臣可爲師表者爲大司成。衆意屬公。於是兼同知經筵元子師傅。公定學制。勸課如昔年所施措。而科條益嚴。大修黌堂齋舍。使群居講討。日操卷

就皐比。承公指誨。爭自慕效。有法度可觀。朴持平知誠以韋布徵。上追崇私廟疏。公面折曰。君以徵士。首發迎合之論何歟。是年。廢朝時官階。因臺議盡改之。公亦納資憲階。亞銓缺。公膺首選。上以爲非公無以造士。不許。久之。上問大臣曰。古有以實職兼大司成者乎。大臣對以鄭麟趾，徐居正等兼之。尋除大司諫兼大司成。後累遷而兼帶如故。公在諫院。棘棘不阿。其侍講。不專章句訓詁。指事據經。因以諷喻。上必賜顏色聽納。進戒曰。殿下日孜孜臨筵。而聖學不加進。以殿下天資之粹美。若下功於學問。則爲堯舜不難。自古帝王。才智雖高。苟無學力。其治終必苟矣。願殿下切問近思。力行守約。圖治必以三代爲準。且夜氣淸明之際。頻與儒臣討論。加不息之功。上嘉之。翌日。命夜對。筵臣奏事。上頗淵默。公曰。天威之下。群臣有懷欲陳。而常恐懼囁嚅。百不達一二。況淵默以臨之乎。殿下憂勤已踰年矣。治未食效。臣竊究其由。上下俱不得打破私字。因言上某事私也。某事亦私也。歷擧十餘事。上爲之改容。且言開筵日臺諫啓辭。當令直入奏之。以示上急於聽諫之義。上從之。光海嘗病。公引中廟朝待燕山之規曰。光海雖宗社罪人。臣嘗事之矣。聞其疾。豈無情哉。仍泣下。上令該司優送需用之物。又曰。廢朝宮人有罪者合誅竄。其餘不必深治。廢朝時宮女。皆嘗爲惡之人。不宜復入掖庭。上從之。疏陳時務數千言。而其歸格君。甲子春。李适叛。李元翼爲都體察使。辟公副之。賊兵深入。都下洶洶。公白令王子三司諸官。入禁中宿衛。逆瑍之不能逞兇於變初。以此也。賊迫畿輔。朝廷定算未決。爭先發家藏出避。公論之。而賊報漸急。公卽旋策去邠計。一日在上前。憤左右無獻言者。厲聲進曰。國家存亡。在呼吸。此豈大臣不言之時耶。上初欲之江華。用群議南幸。渡漢津舟中。水沒膝。公從容拜跪。上曰。蒼黃間。安事禮爲。公謝曰。造次何敢違禮。賊敗獻馘。上加恩百官。特還公資憲階。還都。陞正憲。拜大司憲。事無巨細。一遵三尺。慶尙觀察使閔聖徵乘亂擅殺謫宰權縉。公曰。漸不可長。奏劾之。新本宮奴持印紙橫行閭閻。公自憲府刑訊其橫行者。上以事涉慈殿。命遞憲府官。以大臣言還收其命。而辭不出。拜議政府右參贊。乙丑春。世子行冠禮。公以元子師傅。進一品崇政兼世子左副賓客。辭謝。上敎曰。卿敎誨元子。出於至誠。予嘉嘆久矣。天官以公資級已崇。請遞大司成。上以敎胄非公不可。仍之而問于大臣。大臣對以宜遞。上始許遞。公猝患風疾。上遣內醫存問。病。進遺箚。以格君心辨邪正爲要。夏卒。享年六十三。方病。屛婦人靜處。其卒也夫人請見。公以手麾之。移枕東首而逝。訃聞。上震悼輟朝。命贈右議政。賻弔祭如儀。東宮亦遣僚屬致弔祭。公孫援以遺箚上之。上答曰。觀先卿遺箚。臨死不忘君。忠直切實。有踰尋常。披閱再三。予甚悲嘆。予雖寡昧。敢不服膺。以副先卿泉下之望。太學生捲堂來奠。是年六月。葬于楊州治西卯坐之原。先兆也。夫人韓山李氏。吏曹判書山甫之女。仁順慈和。配君子無違德。男一人女四人。曰元奭。文科縣監。娶沈宗敏女。生一男。援是也。女長曰李廷哲監役。次羅萬甲校理。次俞哲曾。次李尙質。李廷哲有二男三女。羅萬甲有二男二女。俞哲曾有一男一女。公資稟超邁。器局峻整。儀觀粹朗。容止簡重。見識高遠。言論正大。好古而不背於今。應

俗而不混於世° 早從師友° 學有淵源° 研覃墳素° 手不釋卷° 尤用力於周易, 近思錄, 心經等書° 居家也夙興盥櫛° 先謁家廟° 起居大夫人° 佳辰令節° 置備物之享° 奉以讌娛° 施及同胞族姻° 一以誠信相孚° 凡祀事皆躬莅視辦° 豫具僾藏° 罔或不恪° 自奉節儉° 食不重肉° 衣無完采° 所俸廩祿° 不自專° 獻大夫人° 唯所以也° 立朝也避權勢如浼° 一介不取於人° 人莫敢干以私° 母黨妻黨入廢朝後庭承寵° 要藉公爲奧援° 公一切斥不通° 李爾瞻, 朴承宗與之有素° 其秉柄也致殷勤° 公亦不應° 其待宵人° 不惡而嚴如此° 餘事爲文° 贍暢而理達° 所著易學釋疑, 近思釋疑, 遺稿若干卷藏于家° 公筮仕四十餘年° 入而昵侍經幄° 知無不言° 言無不盡° 務欲引君當道° 挽回世敎° 出而歷典州郡° 恩威竝行° 吏畏民懷° 所至稱爲循良° 去而愈思° 當天地閉塞之日° 勇退於濁流之中° 翩翩在千仞之表° 涅而不緇° 名行俱全° 豈任重道遠° 臨大節而不可奪者非耶° 晩際聖明° 數論國家利害° 望實竝隆° 莫不以公輔期公° 而不幸未究其用而卒° 詎非天哉° 欽早與公爲莫逆交° 進退出處° 略相同符° 而公遽先我而逝矣° 公之胤元奭氏° 述公行示余° 且屬余爲狀° 見其述° 惇史也° 何加焉° 刪其繁而歸之° 若夫著之顯刻° 以詔來者° 常世之有德行能文章者存° 東陽申欽狀°

『象村稿』 卷之二十八, 行狀 四首

신흠(명종 21년, 1566년~인조 6년, 1628년)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현헌(玄軒)·방옹(放翁)이다. 이정구(李廷龜)·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월상계택'(月象谿澤)이라 통칭되는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이다. 7세 때 부모를 잃고 장서가로 유명했던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경서와 제자백가를 두루 공부했으며 음양학·잡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개방적인 학문태도와 다원적 가치관을 지녀, 당시 지식인들이 주자학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단으로 공격받던 양명학의 실천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1585년 진사시·생원시에 합격하고, 158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589년 춘추관원에 뽑히면서 사헌부감찰·병조좌랑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정철의 종사관으로 있었으며, 그 공로로 지평(持平)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조에게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아 대명(對明) 외교문서의 작성,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했다. 1599년 큰아들 익성(翊聖)이 선조의 딸인 정숙옹주의 부마가 되었고, 1601년 『춘추제씨전』을 엮은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예조판서가 되었다. 1616년 인목대비의 폐비사건으로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1621년 사면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로 피난했으며, 같은 해 9월 영의정에 올랐다가 죽었다. 1651년 인조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의 도포서원(道浦書院)에 제향 되었다. 문집으로 『상촌집』을 남겼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10 관음굴(觀音窟)

제호(霽湖) 양경우(梁慶遇)

부처님 전 향로에 자단 향 사르니 紫檀燒罷佛前爐
소나무에 이슬 떨어질 때 외로운 학이 우네 松露翻時獨鶴呼
새벽달 가을 산은 고요한데 門掩秋山五更月
고승은 문 닫고 수정 구슬 한 없이 돌린다오 老僧輪盡水晶珠

『江原道誌』

양경우(선조 1년, 1568년~?)의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자는 자점(子漸), 호는 제호(霽湖)·점역재(點易齋)·요정(寥汀)·태암(泰巖)이다. 아버지는 충장공 양대박(梁大樸)이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양대박이 창의하자, 아우 양형우(梁亨遇)와 함께 아버지를 보필하였다. 양경우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고경명(高敬命)에게 갔는데, 고경명은 양경우에게 기무를 맡겼다.

선조 28년(1595년)에는 격문을 돌려 군량 7천 석을 모으는 공을 세우니 조정에서 참봉에 제수하였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에는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공을 세웠다. 그 해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죽산현감·연산현감을 거쳐 판관이 되었다.

광해군 8년(1616년)에는 중시(重試: 조선시대에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로 승진하였고 이어 봉상시첨정에 이르렀다. 그 뒤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배웠다. 문집 『제호집(霽湖集)』은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와 함께 묶어 간행되었다. 조정에서 이조참의를 추증하였다. 정조 때에는 정려(旌閭)를 내렸는데 거기에는 '부자충의지문(父子忠義之門)'이라 하였다.

111

강선정(降仙亭)

현곡(玄谷) 조위한(趙緯漢)

정자는 넓고 아득하여 신선은 亭臺漂渺仙
자취 숨어 있고 하늘과 바다는 푸르구나 蹤秘天水蒼
만물을 드릴 곳 없고 茫物失雷落
지는 해는 푸른 풀 언덕 반은 잠겼네 日半啣青草
산들바람 잠깐잠깐 일어 嶢微風乍起
흰 모래톱에서 일렁이누나 白瀨洲令廖

『峴山誌』

조위한(명종 22년, 1567년~인조 27년, 1649년)의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이다. 1601년 사마시를 거쳐 광해군 1년(1609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주부·감찰 등을 지냈고, 1613년 계축옥사 때 파직 당했다.

인조 1년(1623년)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1624년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토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병자호란·정묘호란 때도 항전했다. 벼슬은 공조참판·자헌대부·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 『현곡집』·『紀行錄』·『崔陟傳』이 있다.

강선정은 부 북쪽 20 리에 소나무 사이 좁고 좁은 길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짙은 녹색으로 가히 좋아할 만하다고 현산지에 기록되어 있다.

112

교산(蛟山) 허균(許筠)

낙산사에 묵으며(宿洛山寺)

오봉사를 다시 찾아오니	重尋五峯寺
풍경은 지난해와 다름 없네	風景似前年
대숲 길은 오가는 가을 발길	竹逕通秋屐
화대엔 저녁연기 일어나네	花臺起夕煙
스님들이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歡迎羅衆衲
멋진 놀이 제천을 밟아가네	勝踐躡諸天
이미 무생인을 깨달았으니	已悟無生忍
숙연히 속된 인연 씻어 버렸다오	蕭然淨俗緣

『惺所覆瓿稿』 卷之一 詩部一,楓嶽紀行,宿洛山寺

허균(선조 2년, 1569년~광해군 10년, 1618년)의 본관이 陽川이고, 자는 端甫, 호는 蛟山, 惺叟, 惺惺翁, 白月居士이다.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 허엽은 문장가로서 文名이 높았으며 大司諫·承旨·副提學·大司成·大司憲·吏曺參議·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강한 성격과 그리고 명나라 進賀使가 되어 皇太子의 册封을 祝賀하는 외교가로서 그리고 당쟁시대 중심인물이었다.

草堂의 前妻는 韓叔昌의 女로 큰 누이는 朴舜元에게, 次女는 禹性傳(문과급제,대사성에 이르렀고,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움)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伯兄 筴 이 있고, 후처인 金光轍(예조참판)의 女는 강릉김씨로 仲兄 筍과 작은누이 蘭雪軒 그리고 筠은 후처소생이다. 이처럼 균은 후처소생으로 가정 내에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정신적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그가 가정 내의 정실과 서얼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설로 형상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草堂의 前妻는 韓叔昌의 女로 큰 누이는 朴舜元에게, 次女는 禹性傳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伯兄 筴 이 있고, 후처인 金光轍(예조참판)의 女는 강릉김씨로 仲兄 筍과 작은누이 蘭雪軒 그리고 筠은 후처소생이다.

9세(1577년)에 부친을 따라 건천동에서 庠谷(明禮坊)으로 이사 하였다. 『於干野譚』에 의하면 총명하고 영특하여 9세(선조 11년, 1578년)에 능히 作詩하였다.

교산 허균은 황해도 도사, 성균관 전적, 수안군수, 공주목사, 삼척부사, 형조참의 추천사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 했으나 1618년 기준격이 상소를

올려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홍길동전과 문집 성소부부고 등이 있다.

25세(1593년, 선조26) 낙산사에서 두보의 시를 공부하였다. 허균은 낙산사에서 임진왜란 중에 아내와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학문정진에 힘써 26세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낙산사는 푸른 동해를 접하고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글을 읽으며 당쟁과 불합리한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는 자신의 이상을 정립한 곳이다. 청정하고 원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상적 근원과 철학을 정립한 곳으로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허균은 벼슬길에서 잦은 파직과 유배를 당하면 고향 강릉으로 돌아왔다. 조선조에 허균만큼 영옥의 삶을 산 사람도 없다. 이러한 삶속에서 교산은 불가의 세계를 좋아하여 불서와 불교사상을 심취해 있었다. 낙산사를 찾아 당대의 고승들과 교류하며 자신세계를 넓혀 왔다. 이 시는 낙산사를 찾아 묵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무상함을 깨닫고 속된 인연이 멀어짐을 아쉬워하며 노래하였다.

113 석주에게 주는 글(與石洲書)

교산(蛟山) 허균(許筠)

서울에 있을 적에 형이 강도(江都)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나의 벼슬 잃음을 위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수레를 단속하여 도성문을 나오는 참이었는데, 찾아온 사환이 편지를 놓고 떠나겠다고 하기에 총망중이라 답장을 쓰지 못했으니, 우물쭈물 결례한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집을 떠난 이틀 만에 김 정경(金正卿)의 영평(永平) 별장에 닿으니 천학(泉壑)과 계산(溪山)의 아름다움은 지난해에 못지않았으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대관)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방안에 들어가니 단술이 항아리에 가득하여 향의(香蟻 술독에 뜬 쌀을 벌레에 비유한 것)가 한창 굼실거리니 형을 초치해다가 큰 술잔으로 권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형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도 성벽에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의 호)、하곡(荷谷 허봉(許篈)의 호)의 시가 남아 있어 청초하여 읊을 만했고 또 자민(子敏 큰 안눌-李安訥-의

자)의 시가 있었으나 바빠서 화운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만나 통구(通溝)에서 자고 단발령(斷髮嶺)을 넘어 멀리 1만 2천봉을 바라보니 빙 둘러 있는 봉우리들이 서로 읍을 하며 마치 나의 나들이 걸음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람하는 흥취가 날듯이 홀가분함을 스스로 금치 못하며 말을 재촉하여 장안사(長安寺)로 드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었습니다. 중 도관(道觀)이 호남에서 왔는데 그가 글을 약간 알기에 함께 이야기해 보니 매우 밝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왕백천동(十王百川洞)에 드니 깎은 듯한 바위는 땅 위로 솟아 삐죽이 서 있고, 물은 솟구쳐서 내리고, 단풍은 우거져 하늘 가득 빽빽하였습니다. 15리쯤 가서 영원(靈源)에 당도하여 거기서 묵고, 새벽에 망고대(望高臺)를 향해 가는데, 골짜기는 좁고 벼랑은 깎아지른 듯하여, 쇠줄을 잡고 겨우 올랐습니다. 송라(松蘿) 아래 잠시 쉬고 드디어 만폭동(萬瀑洞)에 들어가 양봉래(楊蓬萊 봉래는 양사언-楊士彦-의 호)의 팔대자(八大字)를 완상하니 필세(筆勢)가 나는 듯 하여 이 산과 더불어 웅(雄)을 다툴 만하였습니다. 돌아오면서 명연(鳴淵)에 닿아 저녁에 표훈사(表訓寺)에서 쉬니, 주승(主僧) 담유(曇裕)가 자리와 상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진헐대(眞歇臺)에 올라 거기서 남여(藍輿)를 버리고 걸어서 개심사(開心寺)에 오르니 1만 봉우리가 눈앞에 죽 늘어 있어 그 모습을 이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높이 솟아 치켜든 것은 마치 그대가 우뚝하게 빼어나 홀로 선 모습 같고, 그 헌걸차고 기우뚱한 것은 마치 그대가 취해서 옥산(玉山)이 넘어지는 모습과 같았으니, 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족히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일 밤에는 정양루(正陽樓) 동쪽에서 달을 구경하였습니다.

원통(圓通)에서 조반을 들고 난 다음, 지름길로 사자봉(獅子峯)으로 질러가 보덕굴(普德窟)에서 묵고는 화룡담(火龍潭)을 거쳐 마하연(摩訶衍)에 닿았습니다. 바람과 물, 삼나무、회나무가 밤새도록 부벼대고 너울거려 음향을 내니, 마치 생황과 학이 서늘하게 구름 밖에서 우는 듯 하였습니다.

바로 운흥(雲興)을 거쳐 구정봉(九井峯)에 오르다가 비가 오므로 비로봉(毗盧峯)에는 오르지 못하고 적멸(寂滅)에 당도하여 성문동(星門洞)을 내려다보니, 뭇 골짜기가 층층이 겹쳐 있어 마치 긴 바람이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두 중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박달곶(朴達串)으로 가면 은신대(隱身臺)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신발을 준비하고 새벽 기운을 헤치면서 백전(白田)으로부터 꼬부랑길을 내려가 5리쯤 가니, 울퉁불퉁한 돌이 한데 모인 곳에 사나운 물줄기가 그 사이로 뿜어대는데, 돌들은 모두 괴수처럼 생겨 그 모습이 마치 서로 치고 있는 듯 하였소. 그래서 나는 맨발로 건너왔습니다.

정오에 자월암(紫月庵)에서 쉬니 암자가 내산、외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승경(勝景)을 다 모두어 놓았는데, 대체로 구경꾼들이 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쪽 비탈을 구불구불 내려와 불정대(佛頂臺)에 닿았는데, 잠시 후에 바람과 천둥이 골짝 안에 일고 큰 구름이 평평하게 깔리며 발 아래로 번갯불이 번쩍이고 쿵쾅거리매 놀라서 내려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둥이 개고 나니, 1천 폭포가 푸른 절벽에 시원하게 내 려, 마치 옥빛 무지개가 다투어 뽐내는 듯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유점(楡店)에 닿으니 정생 두원(鄭生斗源)이 뒤 미쳐 와서 현담(玄談)을 나누다가 오경(五更)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쉬고 산을 내려오면서, 백천교(百泉橋)를 거쳐 가섭동(迦葉洞) 쪽으로 길을 잡고 명파(明波)에서 묵었습니다. 대개 삼일포(三日浦)는 옛날에 익히 지나던 터이라 이 때문에 임영(臨瀛)으로 바로 향했으니, 두 번씩 구경하지는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수성(遂城)에서 최동고(崔東皐 동고는 최립-崔岦-의 호)를 만났더니, 무척이나 기뻐하며 3일을 붙잡아 두더군요. 또 석주(石洲)는 요사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고, 자기가 지은 시문을 모두 꺼내 보여 주었는데 시마다 주옥(珠玉) 같았습니다.

인하여 옛 부임지인 낙산(洛山) 땅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덥혀 주었고, 태수(太守)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더해 주니 호연히 안석(安石)의 동산(東山)에서 노닐던 흥이 있었습니다.

말이 절뚝거려 닷새를 머물렀다가 강릉 외가(外家)로 돌아오니, 내가 고향집을 떠난 지 벌써 8년이라 풍상을 겪는 서글픈 마음이 배나 더하였습니다. 읍 동쪽에 작은 서당이 있어 학생 5~6명이 문을 닫고 책을 읽고 있으니, 잔생(殘生)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으나, 하늘이 사람의 욕심을 허락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산(海山)을 크게 구경한 것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 형과 함께 다녔더라면 그동안에 지은 주옥같은 시가 의당 많았을 것이니, 형이 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유쾌하게 여기며 또한 크게 한스러워할 것입니다.

벼슬할 뜻은 식은 재(灰)처럼 싸늘해지고, 세상맛은 씀바귀처럼 쓰며, 조용히 사는 즐거움이 벼슬살이보다 나으니, 어찌 내 몸 편함을 버리고 남을 위해 수고하겠소. 오직 벗에 대한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맺히지만 거리가 멀어 만나기 어려우니 회포를 다 풀 수 없습니다. 가을 기운이 점점 짙어가니 부디 양친(兩親)을 잘 모시고 양지(養志)를 다하기 바랍니다. 편지로는 말을 다 못하고 뜻도 다 적지 못합니다. 다 갖추지 않습니다.

與石洲書

在洛下得兄江都書° 唁僕失官° 此時僕已戒轄出都門° 來价置而告去° 忙不草復脩謝° 逋慢之罪° 安所逃乎° 僕辭家二日° 抵正卿永平潭墅° 泉壑溪山之勝° 不減昔年° 而所恨者° 臺館不起廢耳° 入室° 醇酒滿甕° 香蟻浮浮° 恨不拉吾兄以大白侑之° 聞之° 必流饞涎也° 至

今城壁有孤竹, 荷谷詩° 淸楚可詠° 又有子敏詩° 悤悤不得和矣° 冒雨宿通溝° 踰斷髮嶺° 遙見萬二千峯環峭拱揖° 如迓吾行° 游興翩翩不自禁° 促馬入長安寺° 日已曛矣° 釋道觀自湖南耒° 稍解文與° 語甚適° 明早携入十王百川洞° 巖峭拔地骨立° 水激瀉° 楓栝參天° 行十五里抵靈源宿° 曉向望高臺° 峽束崖斷° 攀鐵絙僅陟° 小憩於松蘿° 遂入萬瀑洞° 翫揚蓬萊八大字° 筆勢飛躍° 可與此山爭雄° 回至鳴淵° 夕休於表訓寺° 主僧曇裕設蒲供以待° 明登眞歇臺° 去藍° 步躋開心臺° 萬峯森在眼底° 不可名狀° 其峻拔而仰然° 若君之標秀特立° 其隗俄而頹然者° 若君之醉倒玉山° 對此足以慰吾懷也° 是十七夜° 待月於正陽樓東° 朝飯圓通° 取經於獅子峯° 宿普德窟° 歷火龍潭° 抵摩訶衍° 風泉杉檜° 徹曉磨站作響° 如笙鶴冷冷於雲表° 卽由雲興登九井峯° 以雨不克上毗盧° 到寂滅下視星門洞° 衆壑嶙峋° 如長立扇° 海, 濤二僧言° 自此下抵朴達串° 可達於隱身臺° 余治蠟屐° 拂曙從白田而下° 繚曲行五里許° 始石叢立° 悍湍濆其中° 石皆作怪獸狀° 如欲相搏° 赤足躍流而濟° 午息于紫月庵° 庵正據內外山之間° 悉摠其勝° 蓋游人未嘗到也° 迤從南崖° 到佛頂臺° 少選風雷起於中壑° 大雲平鋪° 脚底電光° 閃閃轔° 愽不可頻眺° 俄歇則千瀑快垂於靑壁° 若玉虹爭矯然° 昏抵踰岾° 則鄭生斗源踵至° 玄談五更而睡° 留一日下山° 從百泉橋取途於迦葉洞° 宿于明波° 蓋三日浦° 舊所慣歷° 爲直向臨瀛計° 不復游也° 翌日° 見崔東皐於迂城懽甚° 挽二日留° 且問石洲今作何狀° 盡出其詩文以示° 觸目琳琅珠玉也° 因訪洛山舊踐° 則鄕耆宿俱持壺耒煖脚° 太守又以妓樂侈之° 浩然有安石東山之興焉° 以馬蹇留五日° 歸江陵外家枌楡° 僕不修謁已八年° 霜露之愴倍切矣° 邑東有小塾° 與學子五六人閉戶讀書° 欲了殘年° 未知天從人欲否° 海山壯游° 大略如斯° 當時若同吾兄° 則奚囊所收珠璧當富° 兄聞之° 必大愉快° 亦大恨嘅也° 宦情灰冷° 世味茶苦° 靜處之樂° 甚於軒裳° 豈肯捨我所便而爲人役役耶° 唯是停雲之念° 結於中情° 地遠難聚° 懷不能遺° 秋候漸沍° 幸好侍二萱親° 以畢養志° 書不盡言° 言不盡意° 不備°

『惺所覆瓿稿』卷之九 文部六, 書

석주에게 준 서찰에 의하면 옛 부임지인 낙산(洛山) 땅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덥혀 주었고, 태수(太守)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더해 주니 호연히 안석(安石)의 동산(東山)에서 노닐던 흥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파직되어 산수를 유람하던 허균에게 양양인의 변하지 않는 의리와 여유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허균과 양양, 그리고 낙산사는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낙산기유로 암 노석에게 주며 (洛山記遊贈品老釋)

교산(蛟山) 허균(許筠)

설악산 높은 창공에 꽂혔으니 雪嶽之山高揷空
많은 옥이 다투어 푸른 노을 중에 솟았네 萬玉爭聳靑霞中
한줄기 꿈틀거려 오봉을 지어내니 蜿蜒一脈作五峯
바닷가에 금빛 연꽃 봉우리 우뚝이 빼어났네 海上秀出金芙蓉
영도(주역의 팔괘) 암암리에 낙산사와 어울려라 靈圖暗與寶陁合
그윽한 동굴은 예부터 원통이 장엄하네 幽窟自古莊圓通
용천팔부 시종들이 베풀며 법을 따르니 龍天八部設法從
백호(白毫)는 빛을 내어 동쪽 바다 비추네 白毫光照滄溟東
금산의 늙은 스님은 부처님의 후신이라 金山丈老佛後身
석장 짚고 여기 와서 이궁을 얻었다네 一錫來瞰得異宮
관음보살의 진상으로 나타나서 白衣大士現眞相
여의주 내려주어 지난 업보 없앴다네 投下摩尼除宿障
부처님께 바쳐 대가 땅에 솟아나니 施檀貢玉竹湧地
짧은 시간에 절을 구름 밖에 세워졌네 頃刻花宮雲外創
채색 노을 창에 비쳐 벽에 어린 붉은 색깔 彩霞射牖丹寫壁
나는 듯 솟은 누각 빽빽이 마주보네 飛樓聳閣森相向

일곱 겹의 구슬발이 주전을 가리우고 七重珠網鎖珠殿
세 발 달린 금오가 금방으로 날아들어 三足金烏翥金牓
향화에 정근한 지 자그마치 일천 년이라 精勤香火一千年
장엄한 그 공덕 진실로 끝이 없네 功德莊嚴信無量
어느 해에 임금께서 자해를 순행했나 何年淸蹕慈海巡
암자마다 연이어 채장을 옮기었네 品竇聯翩移彩仗
임금께서 만월의 용모를 알아보니 重瞳親識滿月容
법뢰는 소리 흘려 공악이 울렸어라 法雷流音空樂響

새는 꽃비 머금어 천의에 떨어지고 鳥銜花雨墮天衣

용은 향운을 뱉어 어장을 감쌌다오　龍吐香雲籠御帳
그 향운 그 꽃비가 공중으로 사라지니　香雲花雨入空去
임금 행차 아득아득 물을 곳 없네그려　縹緲宸遊問無處
산문의 성사가 이보다 더할쏜가　山門盛事此最雄
노승들 이야기 지금도 들려주네　只今猶聞老僧語
내가 온 때 바야흐로 팔월달 맑은 가을　我來正値淸秋節
죽장에 짚신 신고 숲 속을 걸어가네　竹杖芒鞋步林樾

바다에 부는 천풍 산악을 뒤흔들어　天風吹海動雲根
바라보니 놀란 파도 불골에 침노하네　笑看驚濤侵佛骨
이화정 가에서 달 뜨기를 기다리니　梨花亭畔待初月
옥바퀴 돌아돌아 하늘로 떠오르네　玉輪輾出琉璃滑
계수나무 그림자 금계를 뒤덮으니　桂影婆娑遍金界
일천 바위 변하여 구슬 굴이 되는구만　千巖變作瓊瑤窟
선들선들 마치도 바람탄 열자인 듯　冷然似馭列子風
황학의 등에 올라 부구를 붙들고자　欲挹浮丘跨黃鶴

함께 간 풍류승이 티끌 생각 벗어나니　同遊韻釋出塵想
총채를 휘두르며 선 이야기 싫지 않아　揮麈談禪也不惡
법라의 혀끝으로 인천을 다 흔드니　人天掉盡法螺舌
부생이란 주착이 없다는 걸 깨달았네　頓覺浮生無住著
사리가 재촉하여 오경종을 두들기니　闍梨催打五更鍾
새벽녘 동쪽 방에 비단발을 걷는구나　曉上東房褰綉箔
둘러싼 향기 구름 양곡을 가렸는데　繚繞香雲掩暘谷
고래가 화주 끌고 푸른 하늘 날아가네　鯨引火珠騰碧落

문을 닫고 향 피우니 일 만 생각 맑아져서　焚香閉閣萬慮淸
부처님 설법하신 미타경을 다 읽었네　讀盡佛說彌陀經
미진을 건너갈 보벌도 빌렸어라　迷津已借寶筏渡
각로에서 다시 또 금승을 찾아가네　覺路更覓金繩行
이 몸은 황홀하게 극락 땅에 와 있는데　恍然身在極樂土
묘오에 어찌 꼭 명성을 봐야 하나　妙悟何必看明星
내 한평생 발걸음 모두 길을 잃었는데　平生投足摠失路

무슨 일로 하늘이 이 구경 막지 않지　　何事玆遊天不阻

원컨대 이 몸을 유마에 기탁하여　　願將身世寄維摩
우리 스님 짝을 삼아 부처님께 참여하리　　長伴吾師參佛祖
언젠간 벼슬 놓고 행각을 머물리니　　投簪他日住行脚
청련의 한 탑 자릴 나에게 허해주네　　一榻容我靑蓮宇
『惺所覆瓿稿』 卷之二, 附錄 蛟山憶記詩

115 양양의 이명부를 배알하러 가는 양비로를 보내면서 이어 뜻을 붙임 (送楊毗盧謁襄陽李明府因以寄意)

교산(蛟山) 허균(許筠)

사군님 일이 없어 중관을 닫았으니　　使君無事掩重關
빈 뜰에 형구(形具)가 한가함을 짐작하리　　見空庭木索閑
천리라 옛 친구는 아직도 적막한데　　千里故人猶寂寞
일 년의 봄 흥치는 하마야 늦었구려　　一年春興已闌珊
형용은 쇠약해라 시름 가운데 늙고　　形容潦倒愁中老
향국은 분명히도 꿈속에 돌아가네　　鄕國分明夢裏還
나그네 신세로 더구나 손 보내니　　爲客不堪兼送客
배꽃이 활짝 핀 낙가산을 배신했네　　梨花辜負洛迦山

황당이라 고요한 낮 옥사가 울리는데　　黃堂晝靜玉絲鳴
웃음으로 평번하여 정무는 이뤄졌네　　博笑平反政已成
바다의 장기(瘴氣)는 지난 꿈을 깨고　　瓊海瘴煙醒昨夢
육혼의 산수는 그윽한 정 알맞구만　　陸渾山水愜幽情
마을 연한 도리에는 동풍이 따사롭고　　連村桃李條風暖

성곽 두른 상마에는 곡우가 개었구려
그 누가 생각하리 옛날 말탄 나그네가
이 한 봄 허송하여 습지에도 못 가는 걸

繞郭桑麻穀雨晴
誰念舊時騎馬客
一春虛擲習池行

등불이 나부끼어 병초가 어둑해라
바람 장막 향기 어리고 밤은 적막하구나
봄빛은 성에 가득 꽃이 만발하였건만
객의 시름 바다 같아 술로도 풀지 못해
도원의 송죽은 삼경이 묵었는데
반현의 현가는 구소가 격했구려
현산의 반마하던 그곳을 추억하니
붉은 난간 다리 밖에 천 가지 능수버들

釭飄蘭燼暗屛蕉
風幔凝香夜寂寥
春色滿城花正發
客愁如海酒難消
陶園松竹荒三逕
潘縣絃歌隔九霄
仍憶峴山盤馬地
赤欄橋外柳千條

적막한 빈 집에 병 앓고 누워
남당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릴 듣네
비 맞은 해당화는 붉은 비단 찬란하고
바람맞은 강버들은 푸른 실이 비꼈구나
비환은 꿈에 들어 애가 끊기려 하고
이별은 마음 놀라라 귀밑머리 희어지네
생각건대 대제엔 봄빛이 무르익어
새로 불은 벽계에 복사꽃이 떴으리라

空齋寂寞抱沈痾
臥聽南塘一部蛙
經雨海棠紅錦爛
受風江柳翠絲斜
悲歡入夢腸堪斷
離別驚心鬢易華
遙想大堤春色老
碧溪新漲泛桃花

『惺所覆瓿稿』 卷之二, 附錄 교산억기시

116

교산(蛟山) 허균(許筠)

회원당시(懷遠堂詩)－
峴山 李 僉知의 집 마루에 題하다

양양성 서쪽이 큰 언덕 북쪽에는　襄陽城西大堤北
이 가운데 임천이라는 동네가 있네　中有林泉藏洞府
산은 끊기고 물은 감도는데　斷崖開麓水縈廻
단청은 신선의 집을 그려내었네　丹靑畵出神仙宇
풍경은 습가지를 방불하니　風煙彷彿習家池
정자와 누대에는 아름다운 나무 울창하네　亭榭蔥籠種芳樹
주인은 신선의 장수 누렸는데　主人眉壽享喬松
대로 만든 수레 몰며 댓길을 울려오네　咿軋尹輿鳴竹路

오십 년 동안 구름과 노을 을 마시며　雲霞呑納五十年
시내와 산을 차지해 한가한 정취 만끽했네　占斷溪山飽閑趣
이수가에는 일로당이 처음 이뤄졌고　伊水初成佚老堂
망천에 연꽃 핀 언덕 쌓아 놓았네　輞川旋築辛夷塢
나는 봉황 같은 용마루는 추녀를 눌러 있고　翥翔鳳翼壓璇題
무지개 허리 같은 굽은 들보는 기둥을 받치고 있네　梁屈虹腰承綉柱
열두 개의 그림 난간 꽃가지가 들어오고　畫欄十二花枝入
바람이 주렴 움직이니 붉은 비가 내리는가 의심하네　風動絪簾灑紅雨

용은 금방을 감았는데 자획이 힘차니　蛟纏金牓字鬱律
공손랑(公孫娘)의 칼춤을 보는 듯하네　若見公孫龍劍舞
회원당이란 이름 무슨 의미인가　堂名懷遠亦何義

풍수의 남은 슬픔 토할 수 없네　風樹餘哀茹未吐
다시는 색동옷 입고 뜰 앞에서 장난할 수 없는데　綵衣無復戲庭前
서쪽으로 부모산소 바라보니 안개만 자욱하였네　西望松楸隔烟霧
책상머리에는 부질없이 육아시가 덮어있고　牀頭空掩蓼莪詩

봄 이슬, 가을 서리 밟으며 슬퍼하네　　含愴春秋履霜露
부모 그리워하는 정성 화타 편작에 붙이니　　念親誠孝寓華扁
화석의 이름난 정자 나는 ?(탈자) 못하네　　花石名亭吾不○
고령에 즐거움은 선의 보답 받음이라　　高年佚樂餉厚報
비로소 하늘의 부여 공평함을 알겠네　　始識天公公賦與
수성인 남극성은 광채를 더하니　　壽星南極動光彩
지초 영춘은 사시사철 봄이라네　　芝草靈椿春不暮
『惺所覆瓿稿』 附錄

117 절구(絕句)

교산(蛟山)　허균(許筠)

이설당 가운데 비단 장막 나지막하고　　梨雪堂中錦幕低
석양이 막 화란의 서쪽으로 내려가네　　夕陽初下畵欄西
오는 이 없이 문 닫아 적적도 한데　　閑門寂寂無人到
다만 산새만이 마음껏 울어대노라　　只有山禽盡意啼

경함이 십년 만에 선관을 작별하고　　經函十齋別禪關
삼월 명주에서 귀밑머리 희끗희끗 하구나　　三月溟洲鬢已斑
해당화 다 떨어져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고　　落盡海棠行不得
밤만 되면 꿈에 오봉산을 찾는다오　　夜來歸夢五峰山

홍농의 제자들은 사화가 풍부해　　弘農才子富詞華
개인 날 남전에 고운 노을 일었네　　晴日藍田壁絢霞
서창 향해 좋게 취한 꿈 되새기니　　好向西窓拚醉夢
이백의 큰 붓은 단정하게 꽃 피우리　　謫仙椽筆定生花

단양의 시객이 동파를 배웠고　丹陽詩客學東坡
은황을 내리쏟아 세상이 자랑하네　屈注銀湟世共誇
반산의 두보처럼 바짝 여위려 말고　莫似飯山成杜瘦
규합 좇아 명하나 지어보소　好從閨閣賦明河

일찍이 개원 시격을 공부하여　早向開元着力多
사구 지으면 음갱 하손보다 절묘했지　發爲詞句妙陰何
그 누가 알리오 강서사로 타락하여　誰知晩墮江西社
큰 바다 고래를 못 끌어 올릴 줄이야　未掣鯨魚碧海波

점필재 김종직 두 소릉에 가깝지만　佔畢金公逼杜陵
백년 구학에 등굴만 얽혔구나　百年丘壑蔓寒藤
유편의 남은 향기 지금도 싱그러워　遺篇媵馥今追丐
구옥같은 그 문장 그 누가 계승하리　玉佩瓊琚嗣未能

손곡이 시를 읊어 머리가 희었고　蓀谷吟詩到白頭
백 편의 시 화려함이 수주에 가깝구나　百篇穠麗近隨州
지금 사람 육안으로 아무리 비웃지만　今人肉眼雖嗤點
만고에 흐르는 강하를 어찌 폐하리오　豈廢江河萬古流

비로가 북으로 가 양양을 배알하니　毘盧北去謁襄陽
말달림 도리어 술취한 갈강 같네　馳馬還同醉葛彊
응당 이화정 달을 구경하면서　應踏梨花亭畔月
벽해의 옹달샘처럼 바라보며 잔 들리라　盃看碧海倒瓊腸

『惺所覆瓿稿』 附錄

118

교산(蛟山)　허균(許筠)

중수 동해용왕묘비
(重修東海龍王廟碑)

만력 갑신년(선조 34년, 1604년) 7월 양양부 동산(洞山)에 사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一晝夜)를 달려 동쪽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국으로 데리고 갔다. 왕궁에 나아가니 정원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 천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하여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므로 너의 힘을 빌어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 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되어 동해가에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게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부사 홍여성(洪汝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 보니 가정(嘉靖-명 세종 연호) 병신년(중종31년)에 사당이 강릉부 정동촌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 그러나 감히 귀신의 말을 인용하지 못하고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옛 문서를 돌려주기를 방백(方伯)에게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을사년(선조 39년, 1536년) 7월 관동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안변, 통천에서부터 남쪽으로 안동까지 수십 군이 혹독한 수해를 입어 백성과 가축 죽은 수효는 수만에 이르렀는데 강릉이 특히 심하였다. 부사 홍공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방 관리와 백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귀신이 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해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한지 1년 만에 수해가 이 지경이니 이는 과연 그 징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으나 그 사당을 보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다. 어찌 우리가 서로 이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고 정성으로 받든다면 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녹봉을 떼 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에게 이를 감독하게 하여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고 담장을 둘러쌓고 신문(神門)을 만들고 마당 고르는 일을 두어 달 만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이 몸소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이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글을 청하기에 나는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웠고, 지리의 중앙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가운데가 상개(爽塏-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제사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중종) 때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급제한 심언경(沈彦慶), 심언광(沈彦光)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고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께 글을 올리고 까닭 없이 옮겨버렸다. 근래 편찬한 여지서(輿地書)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는 예에 들어맞는 처사이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바다는 천지간에	海於天地
가장 큰 것이다	爲物甚鉅
그 누가 왕이 되어	孰王其中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以風以雨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矯矯龍神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天用莫如
복 내리고 화 내림에	降福降沴
신령스러운 응보 매우 진실하네	靈應孔孚
그 누가 그 곳 낮은 데에	疇就其庳
내 집 옮기게 하였는가	俾徙我宇
적은 비용 아끼니	惜其小費
신의 노여움 마땅하네	宜神之怒
귀신이 계신 곳은	神之所都
조개집 구슬 궁궐이네	貝闕珠宮
세상의 오두막집	俗之陬居
뭐라 연연하여 섭섭해 하겠는가	奚戀以恫
아니로다 정성은	不然誠敬
신의 흠향하시리라	神所享者

불경한 자가 방자하고 不敬者慢
불선하면 게으른 법 不誠則隋
땅을 쓸고 물 떠 놓아도 掃地酌水
정성껏 공경하면 강림하리 誠敬則臨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려 놓아도 玉寢瓊饗
방자하면 흠향하지 않는다네 慢則不欽
옮겨 놓고 더럽힘은 移以汚之
게으르고 방자한 일 卽隋則慢
어찌 제수의 많고 적음에 豈以豊殺
기뻐하고 탄식할까 而爲忻歡
알려줘도 안 따르니 告以不從
홍수피해 마땅하네 宜水之洪
온화한 원님이 溫溫邦侯
공경으로 신 받드리 事新以恭
새로 사당 단장하고 乃新其構
제수차려 제 올리오 乃腆其饗
신이 돌아보고 기뻐하여 神顧以喜
바람같이 와 흠향하네 風來悽愴
공경을 다 하여 정성껏 받든다면 克敬克誠
어찌하여 강릉, 양양 가리겠는가 奚擇江襄
원컨대 이곳이 길이 진정하시어 願此永鎭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시오 資歲穰穰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民無札傷
전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오 五兵不入
길이길이 만년토록 於萬斯年
우리 고을 도와주소서 祐我弊邑

『惺所覆瓿稿』 附錄

119

교산(蛟山) 허균(許筠)

가는 길에 낙산을 바라보며 (道中望洛山)

향로봉에 흩어져서 족운반이 지어지니　香爐散作族雲盤
푸른 빛 쌓인 사이 채색 우리 노상 밝네　彩暈長明積翠間
낙산사를 물어 하룻밤 자자 하니　欲問洛迦禪寺宿
길 가는 사람 멀리 오봉산을 가리키네　行人遙指五峰山

『惺所覆瓿稿卷』 卷之一, 詩部

120

교산(蛟山) 허균(許筠)

무산 장옥랑과 작별하녀 주어주며 (留贈巫山張玉娘)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꽃다운데　天吼山前草正芳
영랑호 호숫가 지는 꽃이 향기롭네　永郎湖畔落花香
놀잇배에 봄을 가득 싣고 돌아가니　畵舡載得春歸去
옥퉁소 드높아 하늘나라로 향하는 구나　吹徹鸞簫向帝鄉

『惺所覆瓿藁』

121

교산(蛟山)　허균(許筠)

척성호(雨隻成湖-청초호)

바다와 함께 있어 호수는 넓고　並海平湖闊
흘러가는 놀잇배 가볍구나　沿遊客棹輕
연기 서리고 저무는 산 붉게 물들고　烟凝暮山紫
서리 내리자 저녁물결 맑네　霜落夕派淸
뗏목길 은하수로 통하니　槎路通銀漢
신선의 삶은 옥경과 같구나　仙居近玉京
피리 불어 서왕모 신선이 내려오니　吹笙降王母
동쌍성(서왕모의 시녀로 득도하여 옥소를 불며 학을 타고 승천하여 신선이 됨)은 어디쯤 있는가　何許董雙成

『惺所覆瓿稿』 卷之一, 詩部

122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권운경(權雲卿)이 양양(襄陽)에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며 5수. 이름은 권진(權縉)이다.

이름난 절 낙산사가 지어진 건 전 왕조　洛山名刹創前朝
형승 보면 우뚝하게 특별하게 드높다네　形勝岩巒特地高
말 듣기로 오경에는 일출 볼 수 있다 하니　聞說五更看日出
흰 구름 쌓인 단상에서 붉은 물결 굽어보네　白雲壇上俯紅濤

신선의 땅 한 해 내내 시끄러운 일 없는데　仙區終歲絕喧煩

맑은 기운에 외로운 정자는 유월에도 추우리라　納灝孤亭六月寒
찬 자리서 졸다 깨자 오궤안은 고요한데　氷簟睡醒烏几靜
바닷바람 불어와서 죽피관을 떨구네　海風吹落竹皮冠

습가지(진나라 산간이라는 사람이 양양에 살았는데 매일
습가지 연못에서 술을 마셔서 크게 취해 있었다고 함)의
누관에는 먼지 오래 쌓였는데　習家池館久生塵
현산의 비문 몇 번 보아야 돌아오려나　峴首殘碑閱幾春
강한풍류 놀이 모두 헛일 되었으니　江漢風流秖虛事
녹문에서 모름지기 성씨나 찾아보리　鹿門須覓姓龐人

철에 따라 나는 진미 고을에다 올리나니　時羞簇案進官廚
입 큰 농어 꼬리 붉은 방어 팔대어도 있네　巨口赬魴八帶魚
좋은 시절 수연 열기 어느 곳이 젤 좋은가　佳節壽筵何處好
긴 제방의 꽃과 버들 반여 끌고 가 보시게　大堤花柳引潘輿

어린 시절 노닐 적엔 모두 머리 검었는데　童丱相隨各髮蒼
순식간에 흐른 세월 몇몇 해가 지나갔나　轉頭時序幾炎凉
근년 들어 만사 모두 맘 식은 지 오래건만　年來萬事休心久
이별 정만 남아 있어 늙어서도 맘 상하네　只有離情老更傷

『淸陰先生集』 卷之二, 送權雲卿赴襄陽 五首名權縉

김상헌(선조 3년, 1570년~효종 3년, 1652년)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 : 중년 이후 楊州 石室에 退歸해 있으면서 사용)·서간노인(西磵老人:만년에 安東에 은거하면서 사용)이다. 선조 23년(1590년) 진사가 되고 1596년 전쟁 중에 실시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교리·응교(應敎)·직제학을 거쳐, 광해군 4년(1611년) 동부승지가 되었다.

인조 4년(1626년) 성절 겸 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육조의 판서 및 예문관·성균관의 제학 등을 지냈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에 들어갔다.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野人談錄』·『豐岳問答』가 있고, 『청구영언』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123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양양 부사 이효숙의 아내에 대한 만사 (李襄陽孝叔妻挽詞)

문헌 타고 길에 올라 끄는 말이 엄했으니　文軒戒路儼驂騑
지난날에 일이 홀연 잘못될 줄 뉘 알았나　宿昔那知事忽非
맺은 약속 맘에 걸려 괜히 절로 생각나나　成說關心空自憶
다른 생은 꿈과 같아 기약하기 어렵다네　他生如夢杳難期
상자 속의 옛 수건엔 좀과 거미 모여들고　篋中故帨蟲絲集
문밖의 슬픈 노래 속에 해로 마르누나　門外哀歌薤露晞
머리 허연 낭군 보니 살고 싶은 뜻 없나니　白首郎君生意盡
세간에서 누가 죽음 슬퍼할 만하다 하나　世間誰道死堪悲

『淸陰先生集』 卷之六, 七言律詩

124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승지(承旨) 이경용(李景容)이 외직으로 나가 양양(襄陽)에 보임되어 가는 것을 전송하다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구한 것이다.

협로에서 당음 직에 한 해 넘게 있었는데　陜路棠陰閱歲廻
성은 내려 은대에서 입시함을 허락했네　聖恩重許入銀臺
서쪽 해가 엄자산에 가까워짐 겁이 나서　怕看西日崦嵫迫
바닷가의 양양 고을 수령 자리 간청했네　乞得東州嶺海隈
현수산에 올라서는 숙자 자취 좇아가고　峴首登臨追叔子
반여 타고 즐기는 일 남쪽 둑서 이어 하리　潘輿娛樂繼南陔

풍수 슬픔 미칠 수가 없는 내가 불쌍커니　　自怜風樹嗟無及
흰머리의 이 늙은이 만 생각이 다 식었네　　頭白人間萬念灰
『淸陰先生集』 卷之六, 送李承旨景容出補襄陽 爲養乞外

125 서낙산주지축(書洛山住持軸)

구원(九畹) 이춘원(李春元)

억 만 가지 번뇌는 다 사라지고　　萬慮今方盡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을 것만 같네　　三山直可求
서풍이 싸늘하게 불어오는데　　西風吹古劒
나 홀로 누대에 기대었구나　　獨倚寶陀樓
『金剛山詩集』 下篇

이춘원(선조 4년, 1572년~인조 12년, 1634년)의 본관은 함평이고 자는 立之, 元吉(改字), 호는 구원(九畹)이다. 1571년 漢城 薰陶坊에서 태어나 이미 6세에 글을 지었고, 洪至誠에게 배우다가 朴淳이 영의정을 그만두고 永平에 은거할 때 찾아가 배웠다. 1591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선조 29년(1596년) 文科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8년 明나라 茅遊擊(茅國器)의 접반관으로 안동에 갔으며, 1602년 陳請官으로 중국을 다녀왔으며, 1603년 문학을 거쳐 병조정랑으로 옮겼으며 이어 御史를 제수 받고 湖西에 내려갔다. 1604년 성균관사예, 1605년 長興府使로 나아가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1609년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얼마 후 우승지를 제수 받았다. 1620년 천자의 탄신을 축하하는 사행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이듬해인 1621년 詔使를 맞으러 安州로 나갔다가 안주의 百祥樓에서 중풍을 맞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1634년 7월 26일 사망하였다.

이 시는 깨달음을 준다는 낙산사를 찾아오니 수많은 번뇌가 다 사라지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속세의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이곳에서 모두 사라진다. 몸과 마음 모두 맑아져 신선의 세계 같다. 바람 부는데 홀로 누대에 올라 느낌 감회를 표현하였다.

126

택당(澤堂) 이식(李植)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양 부사(襄陽府使)인 이여복(李汝復) 경용(景容)종장(宗丈)을 만나서. 이날 눈이 크게 내렸다. 3수

누가 용왕 불러내어 옥가루 뿌리게 하였는가　誰喚龍公撒玉塵
머리 돌려 바라보니 절의 광경 새롭네　琳宮光景轉頭新
은백색 포말(泡沫) 거꾸로 쓴 푸른 바다요　滄溟倒接銀濤沫
봄철인 양 담복(薝蔔)으로 하얗게 단장한 기수로세　祇樹粧成白菖春
세모에 올라와 굽어보니 그대로 마냥 절승(絕勝)　歲暮登臨仍勝地
하늘 끝 타향 만나 뵌 분 바로 우리 집안 어른　天涯會合是宗人
귀로에 도롱이 젖은들 무슨 걱정 있으리까　不愁歸路簑衣濕
구속 떨쳐 내버리고 술이나 한껏 드세　且鬪樽前漫浪身

지인도 창주의 취향이 있었던지　至人亦有滄洲趣
신령스런 그 자취 동해안에 남겼네　靈迹曾留海岸東
자비로운 천수 관음(千手觀音) 동방에 한 손길 뻗쳐 줌에　一手慈悲奔鰈域
웅장한 절 천추토록 홍몽을 제압하였네　千秋臺殿壓鴻濛
경어 우는 소리에 스님들 발우(鉢盂) 공양했고　鯨魚自吼僧催鉢
보배 기운 감돌면서 벽에서 무지개 뿜었네　寶氣常騰壁吐虹
백화 왕자가 지은 찬 한번 본떠 보려 해도　欲效白華王子讚
솜씨 겨룰 기막힌 시어(詩語) 없는 것이 부끄럽네　愧無奇語與爭工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도 바로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안(安)이 이에 대해서 찬(讚)을 지었는데, 무척이나 기이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안견의 수묵화에 석천의 시편　安堅水墨石川詩
천 년토록 가람의 기막힌 기예로 꼽혔네　千載伽藍兩絕奇
이제는 겁화로 승려들마저 모두 떠나　劫火併將僧寶去
이 명승지 마치도 골짜기 배가 옮겨진 듯　名區便覺壑舟移
분향 구름 감로 법문 다시는 볼 수 없이　香雲法雨虛無裏

옛 추억 더듬어도 무너진 담에 기왓장뿐　　解瓦頹垣指點疑
그래도 다행히 선묘(宣廟)의 글 한 편 남아　　賴得宣陵宸翰在
신령스런 빛으로 여전히 산사(山寺)를 감싸 주네　　神光依舊擁山祇

『澤堂先生集』 卷之五, 洛山寺。會襄府李汝復 景容 宗丈。是日大雪。三首

이식(선조 17년, 1584년~인조 25년, 1647년)은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남궁외사(南宮外史), 택구거사(澤癯居士)이다. 좌의정 행(荇)의 손자로,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로 문풍을 주도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문장능력이 뛰어나 절제된 문장으로, 시는 우아한 흥취가 표현되어 있다.

이정구, 신흠, 장유와 더불어 한문4대가(漢文四大家)로, 광해군 2년(1610년) 문과에 급제하여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모론이 일어나자 경기도 양동면 쌍학리로 낙향하여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호를 택당이라고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조좌랑이 되었다. 대사간으로 있을 때 실정(失政)을 논박하다가 여러 번 좌천되었다. 인조 20년(1642년) 김상헌 등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청나라 군사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잡혔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그 뒤 대사헌, 형조·이조·예조 판서를 지냈다.

이식의 문장은 한문이 함축성과 살리면서 간결하고도 품격이 높았고, 5언율시를 잘 썼다. 한문4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풍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소설의 폐단을 강경하게 지적하고 소설배격론을 주장하며 허균을 공격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 시는 이식이 간성부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지나면서 쓴 시이다. 첫 수는 낙산에서 바다를 바라보자 눈 내리는 모습을 용왕이 옥가루를 뿌려 은백색의 포말이 선궁 같고, 은백색의 포말을 뒤집어 쓴 푸른 바다, 너무나 아름다움에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시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음을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낙산은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자비로움을 이야기하며 의상대사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셨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세 째 수 에서는 안견의 수목화와 임억령의 시가 천년토록 아름다우며 전란으로 스님들이 모두 떠나 큰 변화로 폐허가 되었다며 심회를 표현하였다.

127

택당(澤堂) 이식(李植)

하조대(河趙臺)

하조대란 이 이름 시작된 게 언제인고　　臺名河趙自何年
멋진 경치와 더불어서 성씨까지도 전해 오네　　形勝兼將姓氏傳
엄청난 물결과 맞싸우며 천 길 우뚝 솟은 누대　　贔贔千尋爭巨浪
한 굽이 돌 때마다 깊은 연못 물 고였네　　灣洄一曲貯深淵
격류 속의 지주런가 처음에 눈을 의심타가　　初疑砥柱當橫潰
문득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월의 변천을 깨달았네　　更覺桑田閱變遷
상구씨(爽鳩氏)가 이 즐거움 물려준 뒤로부터　　從古爽鳩遺此樂
속인의 발길 그 얼마나 이 풍광을 좇았을가　　幾人陳迹逐風煙

『澤堂先生集』 卷之五, 詩

128

택당(澤堂) 이식(李植)

현산(峴山)의 구아(謳兒)가 감영(監營)에서

산중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바로 동양(東陽)의 시를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옛날에 노닐던 일을 떠올리며 앞의 시에 첩운(疊韻)하여 증정하였다. 2수

휘영청 달 밝았던 누각의 밤　　明月秦樓夜
복사꽃 흐드러진 완동의 그해 봄날　　桃花阮洞春
다른 이들 꿈속의 선경(仙境)을 얘기해도　　從他話仙夢
부러운 마음 조금도 일어나지 않네　　不是惹情塵

불현듯 생각나는 양양의 그 환락이여　　忽憶襄陽樂
지난해 어느 봄날 연무 속의 꽃들네　　煙花去歲春

길을 막고 불러 대는 동제 노래 들으면서　　銅鞮攔道處
함께 수레 타고 향진 위를 굴렀네　　繡轂輾香塵

『澤堂先生續集』 卷之四, 峴山謳兒。自監營來訪山中。卽東陽所贈詩者。仍憶舊遊。疊前韻以贈。二首

129

택당(澤堂) 이식(李植)

이사군(李使君)과 수친계(壽親契)를 결성하여

나는 양양(襄陽)의 이사군(李使君)에 대해서 같은 일가의 조카가 되는데, 나의 모친과 양양의 대부인(大夫人)이 똑같은 을묘생(乙卯生)이기 때문에, 내가 사군과 형제처럼 서울에서 지내면서 수친계(壽親契)를 함께 결성했었다. 그런데 지금 어버이 봉양을 목적으로 외직(外職)을 간청하여 똑같이 영외(嶺外)의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서로들 접경(接境)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으니, 실로 희한(稀罕)한 인연이라고도 하겠다.

올해 임신년은 모친의 연세가 칠십팔 세가 되는 해인데, 2월 초사흘이 바로 탄신일이기에 조촐하게 술과 음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사군이 마침 기휘(忌諱)하는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는 8일이 되었을 적에 대부인을 모시고 이곳에 이르렀으므로, 마침내 초아흐렛날로 날을 정하여 관사의 동헌(東軒)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 날에는 사군이 관사의 서헌(西軒)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며, 다음 날 또다시 청하여 동헌에서 자그마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내가 청간정(淸澗亭)까지 모시고 갔다가 영동(嶺東)으로 돌아왔는데, 겨울과 봄 사이에 하루도 풍설(風雪)이 없었던 적이 없건마는, 이 당시 일주일 동안은 잇따라 날이 개고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었다. 내가 통음(痛飮)을 해 오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흠뻑 빠져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때에는 현판(懸板)에 시를 지어 제(題)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지금의 이 일만은 전해 두지 않을 수 없기에, 율시 두 수를 지어 기록하고 아울러 사군의 좌하(座下)에 써서 올렸다.

금강산 남쪽 기슭 신선 노니는 동굴이요　金剛南麓遊仙窟
푸른 바다 동쪽 머리 해님 뜨는 나루로세　碧海東頭浴日津
모두가 동갑이신 고령(高齡)의 두 분 모친　大耋兩堂偕甲子
종친끼리 생신 잔치 성대한 모임 열었네　同宗高會屬初辰
화려한 수레 검은 일산 가까이서 상봉하여　華軿皂蓋逢迎近
신선의 술과 과일 올려 새로이 송축하는 오늘　玉醴瓊桃頌祝新
일천 년 전 영랑의 일 말할 것이 뭐가 있소　莫說永郎千載事
인간 세상 이 즐거움 만고 장춘(萬古長春) 족하네　人間此樂足長春

맑게 갠 날 흰 모래밭 판여 모시고 가뿐가뿐　鳴沙晴路板輿輕
현수의 풍광이 수성까지 잇따랐네　峴首風煙接水城
달은 상현 지나서 어느 사이에 재생백(哉生魄)　月過上弦初展魄
한식 절기 맞아서 꽃들도 다투어 피네　花臨寒食政催榮
노위의 경계 맞대고서 생신 잔치 함께 열고　封隣魯衛叨聯席
교송의 축수 바치면서 교대로 올린 술잔　壽祝喬松遞進觥
친족끼리 멋진 모임 극진히 하면 그뿐　但得情親窮勝事
해변이든 서울이든 굳이 따질 게 뭐 있으리　滄濱何異在秦京

植於襄陽李使君爲同宗姪。而慈氏與襄陽大夫人同乙卯生。植與使君兄弟在京。同修壽親稧。今爲養乞外。同爲嶺外官。接壤往來。實稀罕之遘也。今年壬申。慈壽七十八。二月初三日。乃誕辰。粗設酒樂。而使君適有忌不果來。越八日。使君奉大夫人至。逾卜初九日。開筵館之東軒。明日。使君開筵于衙舍西軒。又明日。復請小設於東軒。植陪至淸澗亭而歸嶺東。冬春來無日不風雪。是時連七日晴和。余久不劇飮。至是不覺酩酊。尋常不喜作題板詩。顧念此事不可無傳。仍以二律記之。兼錄奉使君座下。

『澤堂先生集』卷之五, 詩

130

택당(澤堂) 이식(李植)

옛날 노닐던 추억을 떠올리며

양양의 최 상사 기철·기백 형제에게 부치며.
갑술년(憶舊遊 寄襄陽崔上舍基鐵 基鉑兄弟 甲戌)

밤 연회 끝날 무렵 취한 원님	宵筵欲闌使君醉
태평루 위의 아침 해 붉기도 하였는데	太平樓上晨曦赤
울리는 모래 꽃다운 풀 대제의 길 걷노라니	鳴沙芳草大堤路
서울 가는 나그네 숙취(宿醉)에 머리가 지끈지끈	宿酲偏惱西歸客
눈은 졸려 거슴츠레 입은 말라 바짝바짝	睡睫朦朧喉吻乾
갈증을 풀려 하니 동해의 물도 적겠구나	塵肺欲吸東溟窄
일찍 이름 알려진 양양의 우리 재사(才士)	隆中材俊早知名
그야말로 쌍벽(雙璧)인 박릉의 백중께서	博陵伯仲眞連璧
술과 안주 마련하고 길가에 배웅 나왔나니	斗酒雙魚候道左
길가엔 백 척이나 드리운 솔 그늘	道左松陰垂百尺
흔연히 말을 내려 언치 위에 걸터앉아	忻然下馬坐馬韉
유하의 술 큰 잔 가득 벌컥벌컥 마셨어라	滿酌流霞催大白
얼마나 화려하였던가 무르익은 풍광(風光)들	是時融景正妍華
바다와 호수의 빛 멀리서 서로 반사하고	湖光海色遙相射
해당화 섬 곳곳마다 붉은 비단결	棠洲處處錦染紅
버들 언덕 흐늘흐늘 푸른 실오라기	柳岸依依絲觶碧
아명의 사당 휘감은 상서로운 구름이요	祥雲繚繞阿明祠
용궁 위에 명멸하는 채색 신기루였어라	彩蜃倏閃龍王宅
황금 안장으로 예쁜 아가씨와 바꾸는가	不用金鞍換翠娥
길 막으며 백동제(白銅鞮) 부르게 할 게 뭐 있으리	不用銅鞮攔綺陌
술잔 나누는 담소 속에 의기(意氣)도 자못 호방해져	一觴一談意頗麤
하늘 보고 땅을 보며 장탄식(長歎息)을 하였어라	俯仰乾坤三太息
안기를 만나서 화조를 맛보는듯	似逢安期啖火棗
귤수를 따라서 영액을 마시는 듯	疑從橘叟斟靈液
바다에 떠 있는 삼신산(三神山)에서	蓬壺指點虛無裏
불어오는 바람결 겨드랑이에 선들선들	習習神颸生兩腋
이 환락(歡樂) 동쪽 유람 최고의 풍류였나니	東遊此歡最風流

지금도 마치 어제처럼 꿈속에서 헤매노라　　夢想至今如宿昔
난대의 주묵필(朱墨筆)로 눈 내린 듯 흰 머리칼　　蘭臺朱墨鬢成雪
한 번 취해 볼라치면 대관의 꾸지람 받기 일쑤　　一醉也遭臺官嘖
어떡하면 숨 막히는 이 좁은 방을 벗어나서　　安能鬱鬱老蝸殼
버선 발로 짚신 신고 멀리 유람 떠나　　布襪粽鞋將遠適
그대들과 선경(仙境)의 일 함께 얘기하며　　期君共話三山事
다시 한번 청문의 금적을 만져 보고 싶구나　　更向靑門撫金狄
『澤堂先生集』 卷之六, 詩

131 차제낙산사(次題洛山寺)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

티끌 속의 정기 날리며 서쪽으로 와　　西來旌旗暗飛塵
낙산사에 이틀 머물며 한만 새롭네　　信宿琳宮恨轉新
바다의 안개는 돋는 해 가리고　　海霧苦遮暘谷日
산의 꽃은 반이 지고 봄 동산 그윽하네　　山花半謝祇園春
『金剛山詩集』 下篇

이이명(효종 9년, 1658년~경종 2년, 1722년)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지인(智仁)·양숙(養叔), 호는 소재(疎齋)이다. 조부는 영의정 경여(敬輿)이며, 아버지는 대사헌 민적(敏迪)이다. 숙종 6년(1680년) 별시문과에 급제, 홍문관정자에 기용된 후 박사·수찬·응교·헌납·이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168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승정원의 승지가 되었다. 대사간까지 승진했다. 1701년에 예조판서로 특임되었으며, 이후 한성부판윤·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706년 우의정에 올랐으며, 1708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소론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관작을 삭탈당하고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죽음을 당했다. 저서는 『소재집』·『東國疆域圖說』·『田算撮要』·『江都三忠傳』 등이 있다. 과천 사충서원(四忠書院)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강원도 관찰사로 양양을 순례하며 낙산에 묵으며 쓴 것으로 보인다. 띠끌 속에 관찰사의 정기를 앞세우고 공무로 와 낙산사에 머무니 고요하고 한가로운 산사는 몸과 마음 모두 맑아지고 깨끗하게 느껴지고 새롭기만 하다. 낙산의 장관인 일출은 안개가 가려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산꽃들이 반은 졌지만 봄 동산이 그윽하기만 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132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거북이 등 위에 용의 기운 서린 산 鰲頂山回龍勢蟠
절 문의 단청은 웅장함이 새롭게 보이네 寺門丹碧壯新觀
오랫동안 신기루는 금방(金榜-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름을 게지하는 방)에 불고
長時蜃氣吹金榜
이 밤 둥근 달 빛은 배웅하네 此夜蟾光送玉盤
특별히 풍악은 머무는 나그네를 취하게 하고 特地笙歌留客醉
하늘의 별은 사람을 움직여 추운데 오르게 하네 天星斗動人寒登
높이서 떨어진 모자 정리는 바로 쓸데없는 일이고 高落帽渾閒事直
찬바람 빌려와 천자가 타는 수레에 걸터 앉으리라 借冷風跨紫鸞

『峴山誌』

이민구(선조 22년, 1589년~현종 11년, 1670년)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관해(觀海)이다. 아버지는 실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수광(睟光)이다. 광해군 4년(1612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수찬·병조좌랑·지평·응교 등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따라 남하했다가 돌아와 승지·임천군수 등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로 피난시키기 위해 배 편을 준비했으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아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난이 끝난 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여 아산으로 유배되었고, 1643년 영변으로 이배(移配)되었다. 1649년에 풀려나온 뒤 대사성·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이 뛰어나고 사부(詞賦)에 능했다. 저서에 『동주집』·『讀史隨筆』·『諫言龜鑑』·『唐律廣選』 등이 있다.

133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사찰을 살펴보니 관동의 절승이니 寺壇關東勝
쓸데없는 나라 근심만 깊었네 吾深杞國憂
일찍이 그림 쫓아 그 안을 보았는데 曾從畵裡見
지금이 바로 꿈속에서 노는 것 같네 今似夢中遊
창해에서는 먼저 뜨는 해 보고 滄海先觀日
건곤은 홀로 다락에 의지하였네 乾坤獨依樓
한 밤중에 나는 한 줄기 피릿소리 三更一聲笛
만 리에 떠 있는 조각구름 걷는 구나 萬里片雲收

『峴山誌』

이경석(선조 28년, 1595년~현종 12년, 1671년)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쌍계(雙磎)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광해군 9년(1617년) 증광별시에 합격했으나, 다음해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상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삭적(削籍)되었다. 인조 1년(1623년) 인조반정 뒤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검열·봉교·춘추관사관(春秋館史官) 등을 지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승문원주서로서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했다. 같은 해 문과중시에 장원했고, 정언·교리 등을 거쳐 1626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체찰사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강원도 지방의 군사모집과 군량미조달에 힘썼다. 양주목사·승지를 거쳐 1632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부제학으로 〈삼전도비문 三田渡碑文〉을 찬진(撰進)했다. 1638년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1641년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이사(貳師)로 심양(瀋陽)에 갔으나 1년간 봉황성(鳳凰城)에 구금되었다. 귀국한 뒤 대사헌·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효종 즉위년(1649년) 영의정이 되었다. 1653년에 풀려나 영중추부사를 지냈으며, 현종 9년(1668년)에는 궤장(几杖)을 받았다. 남인이라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으로부란이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총애를 받아 유임되었다. 저서로 『백헌집』이 있으며, 조경(趙絅)·조익(趙翼) 등과 함께 『長陵誌狀』을 편찬했다. 남원 방산서원(方山書院)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4 태평루(太平樓)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이 날 이 고을에 누구 올지 알았으리 此日誰知到此郡
원님은 정사 때문에 밤잠 못 이루네 使君爲政夜眠尨
고당(초나라 운몽택에 있는 누대, 양왕이 神女를 만나 운우의 高唐有賦名傳玉
정을 나눈 곳, 송옥의 高唐賦라는 작품)에 부 있어 이름 전해지는 송옥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성은 방씨(방덕공은 후한 때 양양인) 耆舊何人姓是龐

조각돌 이끼 끼고 구름 고요한데 片石莓苔雲寂寂
큰 제방 노래와 춤 달빛 아래 쌍쌍이오 大堤歌舞月雙雙
늙은이 오히려 산옹처럼 취하고 싶어 衰翁却似山翁醉
금동이 술 다 기울이니 달빛 창에 가득하구나 傾盡金罍月滿窓
『江原道誌』

135 낙산사(洛山寺)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바닷가 정자에 나무마다 배꽃이 만발하고 萬樹梨花海上亭
낙산의 바다는 아득하다 洛山邊海海冥冥
관청은 일이 없어 종일 한가하구나 訟庭竟日閑无事
모름지기 낙산에서 대제경 읽으리라 須讀扶桑大帝經
『金剛山詩集』 下篇

정두경(선조 30년, 1597년~현종 14년, 1673년)의 본관은 온양(溫陽)이고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이다.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으로 1629년 별시문과에 장원, 부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이때 북방의 호족(胡族)인 청나라가 강성하여지자 〈완급론 緩急論〉을 지어 무비(武備)의 급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법편 法篇〉·〈징편 懲篇〉 등 2편의 풍시(諷詩)를 지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임금이 하여야 할 절실한 도리를 27편의 풍시로 지어 올려 효종으로부터 호피(虎皮)를 하사받았다. 현종 10년(1669년) 홍문관제학을 거쳐 예조참판·공조참판 겸 승문원제조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노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조판서·대제학을 추증하였다. 저서로는 『동명집』 26권이 있다.

정두경은 이항복의 문인으로, 특히 문장에 뛰어났다. 양양에 공무로 왔다 봄에 배꽃이 만발한 풍경을 보고 이화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낙산의 절경은 일출이지만 배꽃과 광활한 망망한 바다이다. 그 바다를 통해 선비들은 큰 포부와 자신을 회고할 수 있고, 깨달음의 공간으로 낙산과 바다, 배꽃을 소재로 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공무로 왔지만 태평하고 한가하여 황제나 영웅들의 도리를 읽으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136 낙산사(洛山寺)

설정(雪汀)　조문수(曹文秀)

옥같은 명사십리에 백구가 날고　鳴沙戛玉白鷗邊
지는 해는 선계를 황금으로 물들었네　落日浮金翠鰲上
이화정 기슭에 폭풍으로 수레는 멈추었고　梨花亭畔駐颸輪
구름 없는 바다에 달빛만 밝구나　銀海无雲月正朗

『金剛山詩集』 下篇

조문수(선조 23년, 1590년~인조 25년, 1647년)의 본관(本貫)은 창녕(昌寧)이고 자(字)는 자실(子實), 호(號) 설정(雪汀)이다. 광해군 1년(1609년) 진사(進士)가 되고 인조 2년(1624년) 현감(縣監)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지평(持平)·수찬(修撰)·필선(弼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어 특진관(特進官)을 겸했다. 1645년 좌승지(左承旨)에 이어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승진, 하흥군(夏興君)에 봉해졌으며, 1647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가 인조 정해년(1647년) 12월 25일 양양 임지(任地)에서 숨졌다. 시(詩)와 해서(楷書)에 능했다.

양양부사였던 주문수의 작품으로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죽었다. 낙산 해변은 예부터 옥 같은 백사장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항상 갈매기처럼 느껴진다. 이화정에서 폭풍으로 머무는데 달빛이 구름 한 점 없는 망망대해를 비추는 정경을 표현하였다.

13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설정(雪汀) 조문수(曹文秀)

봉래산은 아득하고 바다 빛은 희미한데 蓬萊滄茫海色微
밤 깊은 절에 달빛은 차갑네 夜深臺殿月凄凉
가련하다. 옥 같은 사람 어디 갔는가 可憐如玉人何處
홀로 절의 열두 계단 오르네 獨上瓊樓十二涕

『江原道誌』

138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취미(翠微) 수초(釋 守初)

절벽에 서 있는 천 년 고목　　倚壁千年樹
하늘 높이 치솟은 백 척 의상대　　凌虛百尺臺
신승이 가버려 자취 없고　　神僧去無跡
구름 밖 멀리 선학이 나는구나　　雲外鶴徘徊

『江原道誌』

수초(1590~1668년)의 조선시대의 승려로 속성 성(成)으로 본관 창녕이고 자(字)는 태혼(太昏), 호는 취미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후예로서 성균관 북쪽의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출가의 뜻을 품었으나 형이 허락하지 않자 몰래 설악산으로 가서 경헌(敬軒)의 제자가 되었다. 1606년 두류산(頭流山)의 선수(善脩)를 찾아가 그의 천거로 각성(覺性)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후로 여러 곳의 명승(名僧)들을 찾아 편력하고 서울로 돌아와 이름난 유학자(儒學者)들과도 사귀면서, 각성의 법을 이어받았다.

유학에도 통달하여 김육(金堉) ·이식(李植) 등 당시의 유학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중주(仲州)의 오봉사(五峯寺), 학성(鶴城)의 설봉사(雪峯寺), 승평(昇平)의 조계사(曹溪寺) 등 세 곳에 탑이 있다. 문집에 『翠微詩集』이 있다.

스님으로 대학자였던 수초스님이 아마도 설악산에서 불제자로 생활하면서 의상대의 풍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상대 앞의 노송은 오랜 낙산의 역사를 안은 채 지켜왔다. 아득히 높은 곳에 위치한 대는 허공으로 솟아 있다. 지금 의상대사 같은 신승은 없지만 구름 밖 멀리 학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신선의 세계처럼 느끼면서 표현하였다.

139

계곡(谿谷) 장유(張維)

휴 상인이 낙산으로 떠나려 하면서
시권을 가지고 와 보여 주기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주면서
[休上人將向洛山 携詩卷來示 次韻以贈]

남능북수를 논하지 마오　　休論北秀與南能
사람마다 마음속에 등불 하나씩 있는 것을　　箇箇人心有一燈
병중에 만난 스님 서로들 말이 없이　　病裡逢僧兩無語
밝은 모습 근심 대하는 듯하네　　炯然如對玉壺冰

맑은 가을 관동으로 석장(錫杖)을 날리나니　　淸秋飛錫向關東
그 옷자락 만 골짜기 바람을 불러일으키네　　一衲行披萬壑風
듣자니 낙가산(洛伽山)에 다시 건립하였다고　　聞說洛伽重建立
포금 속에 절이 있음을 알겠네　　祇園知在布金中

『谿谷先生集』 卷之三十三, 七言絕句

장유(선조 20년, 1587년~인조 16년, 1638년)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사위이며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이고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선조 38년(1605년) 사마시를 거쳐 광해군 1년(1609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고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후 대사간·대사헌·대사성을 지내고 인조 2년(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다음해 신풍군(新豊君)에 봉해졌다. 그 후 대제학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임했다. 1631년 딸을 봉림대군(鳳林大君:효종)에게 출가시켰고,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공조판서로서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론을 주장했다. 이듬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母親喪)으로 끝내 사직했으며 장례 후 과로로 죽었다. 이정구(李廷龜)·신흠(申欽)·이식(李植) 등과 더불어 조선문학의 4대가로 불린다. 저서로 『谿谷漫筆』·『계곡집』·『陰符經注解』가 전한다.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40 수몽 정 선생의 양양 부사 부임을 전송하며 (送守夢鄭先生之任襄陽)

계곡(谿谷) 장유(張維)

몇 분 남지 않은 유림의 어른 중에	儒林丈人誰復有
아직 백발 안 되신 우리 수몽선생	守夢先生未白首
뱃속에 하나 가득 경술을 담고	先生滿腹貯經術
선유(先儒)의 뒤를 이을 학문의 경지 이룩하였네	絕學擬紹諸儒後
그동안 얼마나 조정의 촉망 받았던가	淸朝屬望向來重
팔좌는 물론이요 태두에도 가까웠네	八座自是鄰台斗
그런데 공을 앉힐 자리가 하나 없어	豈無一片著公地
고개 넘어 수령으로 보낸단 말인가	却遣嶺外紆墨綬
다른 이들 탄식해도 공은 홀로 웃나니	餘人咄嗟公獨笑
외직(外職)이 오히려 더 좋을지 모름일레	外內未可論薄厚
더구나 공은 또 노모가 계시잖나	況公堂上有壽母
맛있는 음식 올리기도 마땅찮은 집안 살림	家食不易充旨滫
전성 봉양 예로부터 중하게 여겼나니	專城榮養古所重
오정식(五鼎食) 올리며 장수 누리게 하오시라	五鼎之饋百金壽
순박하기로 으뜸 가는 영동(嶺東)의 풍속	嶠東謠俗最淳古
누워서 다스려도 벌 줄 필요 없으리니	臥治定不煩鞭扭
습가지(習家池)의 풍류도 즐겨 보시고	習池風流仍可踐
와현(瓦峴)의 치적(治績)도 이루어 보시구려	峴首嘉名良不偶
한가롭게 육순(六旬)의 나이 즐겁게 보내면 그만인 걸	優游六考樂有餘
출퇴근 쫓기는 조정 관원 부러워할 게 못되지요	不羨簪紳趨卯酉
넓고 넓은 천지 간에 한 몸 두기 어려우니	乾坤納納難容身
말도 많은 세상 일 입 꼭 닫고 있어야 하리	世事悠悠休挂口
선배들 봐도 절반은 바람에 날려 떨어진 채	坐看前輩半飄零
강변 둑 아니면 밭 고랑 신세	不是江潭卽畎畝
현옹도 초췌하고 사로도 몸져 누웠나니	玄翁蕉萃沙老病
양구의 재액(災厄) 면한 이 다시 찾기 어려워	更有何人免陽九
공처럼 복받은 분 그 누가 있으리요	如公福德誰得比

칭찬도 비난도 없는 생활 그냥 즐겨 보시구려　任是無譽却無咎
이번 걸음 신선놀이와 무엇이 다르리요　此行何異便登仙
하늘의 기막힌 은총 공께서도 아시나요　天寶寵公公知否
생각하면 선친께서도 이 땅을 사랑하사　先人遺愛在此土
이십 년 전 수령으로 나가셨는데　二十年前曾出守
공을 전송하노라니 불현듯 솟는 눈물　送公不覺淚潸然
시 한 편 올리면서 다시 고두(叩頭)하옵니다　獻詩一篇頭再叩
『谿谷先生集』 卷之二十六, 七言古詩

141 이생 덕망을 곡하면서(李生德望哭)

미수(眉叟) 허목(許穆)

난리를 피해 가다 양양 길에서　逃亂襄陽道
서로 만나 고생을 이야기 했네　相逢說艱難
은근히 연상으로 찾아와　慇懃漣上訪
나의 어려움 슬퍼했네　哀我遘凶艱
이 깊은 정에 감동되어　感此情意深
만날 때 마다 기쁜 얼굴이었네　逢場開好顔
궁한 처지에도 자주 찾아 주기에　窮途頻見過
늙어서도 기쁘게 지냈나 했더니　垂老得交懽
뉘 알아서 생사의 나눔이　誰知死生別
겨우 한 달 사이에 있을 줄을　遽在旬月間
아득히 죽음에 돌아갔으니　昧然歸化盡
모든 일이 한 번의 탄식뿐이네　萬事一嗟嘆
평생 품은 뜻 회상해 보니　顧想平生意
가엾고 딱한 마음 아프기만 하구려　惻惻已含酸

한 백년 목메어 우는 곳은　　百年嗚咽處
백양나무 쓸쓸한 무덤가로세　　墟墓白楊寒

『眉叟記言』 別集

허목(선조 28년, 1595년~숙종 8년, 1682년)의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이다. 모친은 임제(林悌)의 딸이다. 광해군 7년(1615년) 정언옹(鄭彦)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逑)의 문인이 되었다.

현종 1년(1660년)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 년 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142

미수(眉叟) 허목(許穆)

강릉 도중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며 감회를 쓰며 (江陵途中望雪嶽感懷作)

설악산 높이가 만 길이나 되어　　雪嶽之山高萬丈
봉래산과 강릉까지 그 기운 이어졌네　　懸空積氣連蓬瀛
대천봉의 눈빛은 뜨는 해를 맑게 비추니　　千峰映雪海日晴
저 멀리 옥경에 상제들 모여드는 구나　　縹渺群帝集玉京
매월당 거기에 머물며　　東峯老人住其間
거룩한 기상 하늘까지 이어졌구나　　高標歷落干靑冥

비바람도 꾸짖고 귀신을 희롱하며　　嘯風叱雨弄神怪
불교에 의탁하여 그 이름 숨겼네　　逃空托幻藏其名
도성에서 걸식하며 재상을 멸시하며　　乞食都門傲卿相
해학을 일삼아 저자거리 아이들을 놀라게 했네　　縱謔翻爲市童驚
미쳐 날뛰기 고결에만 국한 될까　　猖狂不獨事高潔
그 마음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나리　　此心長與日月明

『眉叟記言』 續集

허목이 복상문제로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가다 강릉길에서 설악산을 보고 지은 시로 보인다. 설악산의 웅장함과 그 기운이 금강산과 강릉까지 이어졌고, 대청봉의 눈빛이 뜨는 해를 비추자 하늘나라 상제들이 모여들 정도로 승경이다. 이곳에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방랑하였던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며 자신의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시습의 절개가 하늘까지 이어졌다. 방랑 생활을 하며 뜻 없는 비바람을 꾸짖고 귀신의 세계를 희롱하면서 속세에 살아가기 힘들어 불가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도성에서는 벗이었던 영의정 정창손과 재상들을 욕하고 희롱하며 일탈된 모습으로 저자거리의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거짓 미친 체 하며 절의를 지켰던 김시습의 고결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143 서(書) 별지(別紙)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북쪽에서 배소로 옮길 때 영동(嶺東) 촌가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 써 붙인 시구에

세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전하니 사람들이 다 믿었고　　三傳市虎人皆信
한번 치마속의 벌을 잡으니 아비도 또한 의심하네　　一掇裙蜂父亦疑

세상의 공명을 위해서 나무와 매를 보아야 하고　　世上功名看木鷹
좌중의 담소에 뽕나무와 거북을 삼가라　　座中談笑愼桑龜

하였으니 그 사실이 자못 이상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큰 비를 만나 양양 물치촌(勿緇村)의 양민 정입(鄭立)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 집 기둥에 과연 그대가 물어본 바와 같은 시구가 붙어 있었네. 그런데 윗 구절은 바로 쓰고 아래 구절은 거꾸로 써져 있었네. 주인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주인의 말이 "지난해 5월 상놈도 같고 양반도 같은 어느 과객이 써 주고 갔다" 하였다. 그 글씨는 소박하면서도 몹시 익숙했네. 뽕나무와 거북이의 출처는 보았는가.
외서(外書) "동해의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신령한 거북을 얻었는데 그 거북이 하는 말이 '천하의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삶아 죽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이를 들은 도인이 하는 말이 '아무 곳에 있는 마른 뽕나무로 삶아도 죽지 않느냐'고 하였다. 거북이 이 말을 듣고 곧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그러니 오늘날 좌중에 한가하게 감소하는데 있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야 이미 솥에 든 고기가 되었으니 털을 태워도 곧 익어 문들어지게 되어 되었네. 어찌 뽕나무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날은 바로 윤 5월 27일이었네. 정입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 글을 써 주고 가면서 명년 이 날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였네. 이 일은 몹시 이상하나 또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는 말게.

『宋子大全』

송시열(선조 40년, 1607년~숙종 15년, 1689년)의 본관은 은진이고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우재(尤齋)·화양동주(華陽洞主)이다.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 부자에게서 배웠다. 인조 11년(1633년)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최명길(崔鳴吉)의 천거로 경릉참봉이 되면서 관직생활에 시작하였다. 1635년 봉림대군(鳳林大君 : 뒤의 효종)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효종 9년(1658년)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찬선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라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을 추진했다.
17세기 중엽 이후 붕당정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인노론의 영수이자 사상적 지주로서 활동했다. 이듬해 효종이 급서한 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를 둘러싸고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은 기년복(朞年服 : 만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주장하면서 3년복(만 2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주장했던 남인의 윤휴(尹鑴)와 대립

했다. 예송은 『大明律』·『경국대전』의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라 결국 1년복으로 결정되었지만 이 일은 예론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정권을 둘러싼 당쟁으로 파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효종의 장지(葬地)를 잘못 옮겼다는 탄핵이 있자 벼슬을 버리고 회덕으로 돌아갔다. 그뒤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리에 묻혀 지냈으나, 사림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막후에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종 9년(1668년) 우의정에 올랐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곧 사직했다가 1671년 다시 우의정이 되었고 이어 허적의 후임으로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 숙의장씨가 낳은 아들(뒤의 경종)의 세자책봉이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 모든 관작을 삭탈당하고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해 6월 국문(鞫問)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던 길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송시열은 젊은 시절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수학했는데 그의 학문은 바로 이러한 기호학파의 학맥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주자의 학설을 전적으로 신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업을 삼았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二程書分類』·『論孟問義通攷』·『經禮疑義』·『心經釋義』·『纂定小學諺解』·『朱文抄選』·『戒女書』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는 숙종 43년(1717년) 교서관에서 간행된 『우암집〉 167권과 정조 11년(1787년) 평양감영에서 출간한 『宋子大全』 215권이 있다. 그뒤 9대손 병선(秉璿)·병기(秉夔) 등이 『宋書拾遺』 9권, 『續拾遺』 1권을 간행했다.

144 낙산사관일출(洛山寺觀日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

부상에서 새벽별이 창으로 비쳐오자　　扶桑曙色射窓明
나그네 꿈결에 놀라 깨었네　　宿客蒲團夢自驚
동대에 급히 올라 멀리 바라보니　　急上東臺開遠望
오색구름 트인 곳에 둥근 해 뜨네　　五雲綻處一輪生

『金剛山詩集』 下篇

조석윤(선조 38년, 1605년~효종 5년, 1654년)의 본관은 백천(白川)이고 자는 윤지(胤之), 호는 낙정재(樂靜齋)이다. 아버지는 대사간 정호(廷虎)이고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1628년 다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638년 진부목사로 부임하여 치적을 올렸다. 이후 사간·승지·이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646년 대사성이 되었다. 1649년 대사간을 거쳐 효종 1년(1650년) 양관대제학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호당(護黨)의 혐의로 영암에 유배되었으며, 강계로 이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654년 동지중추부사로 전임되어 돌아왔으나 곧 죽었다. 대사간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때로는 유배를 가면서도 직언을 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청백리에 녹선 되었다. 금천 도산서원(道山書院), 안변 옥동서원(玉洞書院), 종성 종산서원(鐘山書院)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 『낙정집』이 있고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낙정재는 청백리로, 그리고 대사간, 대사헌으로서 직언을 자주 하였던 강개한 선비로, 낙산 최고의 절경인 일출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첫 수는 낙산의 일출을 보고 싶었는데 동창으로 새벽별이 비치자 꿈결에 놀라 깨어 의상대로 올라 보니 해가 급히 올라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바라보니 오색구름 사이로 둥근 해가 떠오른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일출광경을 노래하였다. 두 번째 수는 낙산사 사찰의 유래가 아주 오래됨을 말하면서 새로 지은 절이 簀鯉닷가에 있고, 문을 열어 일출을 바라보자 신선을 만날 듯 한 풍경 簀鯉草선방에서 하룻草묵고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다.

145 낙산사(洛山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

낙산에 절 지은 지 몇 천 년인가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섰네
문 열면 부상에서 해 뜨는 것이 보이고
선경과 이웃하여 신선도 만날듯 하네

洛山有寺幾千年
棟年重新倚海天
開門扶桑先見日
地隣蓬島可枯仙

풍경소리 바람결에 갈매기 꿈을 깨고　　風傳鐘聲驚鷗夢
성난 파도 법연까지 흘러들겠네　　鯨蹴波濤濺法筵
선방에서 하루 묵고 갈 길 다시 물으니　　一宿禪窓問歸路
세속의 인연은 아직도 남았네　　此生猶未了塵緣

『金剛山詩集』 下篇

낙산사의 유래가 아주 오래됨을 말하면서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문을 열어 일출을 바라보니 선경으로 신선을 만날 것 같은 승경이다. 법당의 고요한 풍경 소리와 성난 파도의 소리 들으며 선방에서 하루 묵고 다시 속세로 가야만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14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월봉(月篷)　유영길(柳永吉)

바다 향해 난 서쪽 창에 햇빛이 붉은데　　西海房櫳日射紅
절문 동쪽에는 배꽃이 막 피었네　　梨花初發寺門東
미인과 술자리 하면서 산 찾을 약속하니　　靑蛾酒席尋山約
아마 사월 중에 금강산 찾겠네　　要邇金剛四月中

『江原道誌』

류영길(중종 33년, 1583년~선조 34년, 1601년)의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월봉이다. 22세 때 문과에 장원으로 발탁되어 공조좌랑에 제수, 명종19년 명종 21년(1566년)에는 선천군수로 나가고 그 뒤 공조를 거쳐 종부시 첨정과 사도내 첨정을 지낸 후 선조 4년(1571년)에는 이천군수로 부임했다가 이어서 장단부사로 옮기었다.

선조 9년(1576년)에는 진주목사에 임용되었으며, 부친의 상을 당하여 탈상 후 성주목사에 제수 되었다. 선조 21년(1588년)에는 장례원 판결사가 되었고 겨울에 양주목사로 가서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선조 24년(1591년)에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선조 34년(1601년)에 원해서 성천부사로 나아가 그 해 12월 11일에 작고하니

향년 64세이다.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 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다.

147 낙산사(洛山寺)에서 판상 시에 차운하며 (洛山寺次板上韻)

명제(明齋) 윤증(尹拯)

도가 소멸과 성장 관여치 않으니	不關道消長
어찌 인간의 즐거움과 근심 알겠는가	何知人樂憂
또한 장차 나무로 활과 화살 만드는 뜻은	且將弧矢志
바다와 산에 의지하여 놀 것을 즐기려 하네	聊付海山遊
초여름 맑아 절기가 화합할 때	首夏淸和節
배꽃이 낙산루에 피었구나	梨花洛山樓
창해는 만 리나 되는데	滄溟正萬里
날 저물어 채운이 걷히는구나	日夜彩雲收

『峴山誌』

윤증(인조 7년, 1629년~숙종 40년, 1714년)의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酉峰)이다. 장인인 권시(權諰)와 김집(金集)에게 배웠다. 29세 때에는 김집의 권유로 당시 회천에 살고 있던 송시열(宋時烈)에게 『朱子大全』을 배웠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특히 예론(禮論)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났다. 현종 4년(1663년) 천거되어 내시교관·공조랑·지평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숙종 대에도 호조참의·대사헌·우참찬·좌찬성·우의정·판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숙종실록』은 윤증의 생애를 배신으로 기술했지만 사실상 그는 한 번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남인·노론(老論)과 함께 3대 정당 중의 하나인 소론(少論)을 이끌었던 저명한 정치가였다.

스승인 송시열과 대립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갈명(墓碣名)을 송시열에게 부탁했는데 이 문제로 이로 인하여 윤증과 송시열은 사제 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윤증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적 감정과 함께 남인에 대한 처벌문제로 서인이 강·온 양파로 분리될 때 그를 지지하는 사류(士類)들에 의해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명재유고』·『明齋疑禮問答』·『명재유서』 등이 있다. 홍주 용계서원(龍溪書院), 노성 노강서원(魯岡書院), 영광 용암서원(龍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148 상운정(祥雲亭)

율곡(栗谷) 이이(李珥)

가을바람에 풍악산과 이별하고	秋風別楓嶽
해질 무렵 상운정에 도착했네	斜日到祥雲
모래 위에 수많은 바위가 열을 지어있고	沙上千岩列
소나무 사이 길 하니 분명하네	松間一路分
요란한 우렛소리 바다 물결 일으켜	殷雷波捲海
선 근 수레와 같이 기러기가 무리 지었네	疎篆雁成群
여물 먹는 말 재촉하여 길 떠나니	示未馬催程發
앞산에는 저녁노을이 지네	前山晩靄曛

『峴山誌』

이이(1536~1584년)의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이다. 아명은 현룡(見龍),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강평공(康平公) 1536년 강원도 강릉 죽헌동에 있는 외가인 오죽헌에서,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이 때의 이름은'현룡(見龍)'이라 지었다가 뒤에 이(珥)로 바꾸었다. 이이는 3세 때에 이미 글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글과 그림을 흉내 낼 정도로 놀라운 천재였다. 1548년, 이이는 13세 때 진사 초시에 장원 급제하여 시험관은 물론 부모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이는 불교 서적을 읽고 유교와 색다른 학문에 흥미를 느껴 3년 상이 끝난 명종 9년(1554년)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유교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1년 만에 금강산에서 내려왔다.

20세에 금강산에서 내려와 다시 성리학에 탐독하며 유교의 진리를 통해 현실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다짐을 설파하며 『自警文』을 집필하였다

명종 13년(1558년) 23살의 이이는 당시 대학자인 58세의 퇴계 이황을 찾아가서 만났다. 이이는 그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이황과 학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상을 논하고 시를 짓고 토론하였고, 이황은 그의 재능에 크게 감탄하였다. 13세 이후로 29세까지 생원시와 식년문과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과거에 총 9번 장원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거리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까지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 지나간다고 하였다.

명종 19년(1564년) 이이는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곧 호조좌랑이 되었다가 예조좌랑으로 전임하여 국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1년(1568년) 천추사가 명나라로 갈 때 서장관으로 동행한 뒤, 1569년 홍문관교리를 지냈으며, 그해 음력 9월에는 송강 정철과 함께 『東湖問答』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선조에게 올렸다.

1571년 조정의 부름을 받고 청주목사로 임명되어 내려간 그는 서후향약을 정하고 백성들의 자치 생활을 권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해 그는 학문 연구를 위하여 신변을 핑계로 사직하고 파주의 율곡촌으로 돌아와 학문에 힘썼다.

선조 7년(1574년)에는 또 조정의 요구로 황해도 감사로 약 반년 재직하였다. 그 후에도 자주 조정과 고향을 왕복하면서 대사간·대사헌·호조판서·대제학·이조판서·우찬성·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82년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여진족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대제학을 역임하고 우찬성에 올랐다.

선조 16년(1583년)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당색으로는 서인에 속했는데, 이 때문에 동인의 집중 탄핵을 받아 이이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경장(更張)하고 싶어하던 구국의 뜻을 풀지 못한 채 병을 얻어 49세를 일기로 새벽에 사망하였다. 이이가 1년간의 입산 경력이 있음을 놓고, 불교와 관계했다 하여 뒷날의 동인 당쟁파들은 온갖 트집을 잡아 비방을 하였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그의 저작인 『東湖問答』, 『聖學輯要』, 『人心道心說』, 『時務六條疏』 등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시무를 논한 명저로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유학자의 이상인 요순시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일반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西原鄕約』, 『海州鄕藥』, 『社倉契約束』, 『同居戒辭』, 『學敎模範』, 『海州隱屛精舍學規』, 『約束』, 『文獻書院學規』 등의 규례를 많이 만들었다. 그의 제자로는 사계 김장생, 중봉 조헌, 수몽 정엽, 묵재 이귀 등의 학자들이 율곡의 문하였다.

149 낙산사(洛山寺)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거울같이 맑은 물결이 기상은 한가롭고　　鏡水長波氣像閑
하조대는 저 멀리 아득하네　　河臺極目渺茫間
조용하고 드넓음 다 갖추어　　從容闊遠兼斯二
우주의 훌륭한 경치 낙산이 으뜸이구나　　宇宙奇觀最洛山

『金剛山詩集』 下篇

남용익(인조 6년, 1628년~숙종 18년, 1692년)의 본관은 의령이고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이다. 인조 24년(1646년)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설서·병조좌랑·홍문관부수찬 등을 지냈다. 효종 6년(1655년)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1656년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좌참찬·예문관제학 등을 지냈다. 숙종 9년(1683년) 예조판서, 1687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낸 뒤 이조판서가 되었다.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하자, 서인이 이를 반대하다가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기사환국으로 명천에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 이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호곡이 낙산을 찾아 거울 같이 맑고 잔잔한 물결을 보고 한가로움을 느끼면서 이 글을 썼다. 높은 곳에 올라 물결 위로 아득 먼 곳에 하조대가 보인다. 바다는 드넓으면서도 잔잔한 낙산의 모습은 종용과 활원을 모두 갖추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낙산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150 낙산주석(洛山酒席)

간재(艮齋) 조종저(趙宗著)

넘실거리는 흰 물결에 산바람 흔들리고　　白浪飜天風撼山
등불 밝은 곳에 스님은 한가롭네　　佛燈明處寺僧閑
문 앞은 푸른 바다 뜰에는 밝은 달　　門前滄海庭前月
천하의 기경 혼자서 보네　　獨占奇觀天地間

『金剛山詩集』 下篇

조종저(인조 9년, 1631년~숙종 16년, 1690년)의 본관은 한양이고, 자는 취숙(聚叔), 호는 간재(艮齋)이다. 숙종 6년(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西人)이 등장할 때 종부시정이 되었다. 숙종 1년(1675년) 7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학문에 뛰어나고 특히 역사에 밝았으며, 산수 · 천문 · 의약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양양부사로 낙산사에서 술자리를 하고 느낌 감회를 표현하였다. 넘실거리는 물결이 산바람에 흔들리는데 산사의 스님은 등불 밝히고 참선하는데 한가롭기만 하다. 수천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낙산의 풍경인 문 앞은 바다요, 뜰에는 달, 천하의 기경을 혼자 보는 것을 아쉬워하며 표현하였다.

151 낙산관일출(洛山觀日出)

간재(艮齋) 조종저(趙宗著)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宿醉昏昏睡正濃
새벽에도 깨지 못하네　　晨光侵戶尙曈朧
스님이 다가와 아침 해 보라기에　　居僧蹴我看朝日
은해는 창망한데 붉은 빛 물들었네　　銀海蒼茫萬里紅

『金剛山詩集』下篇

양양부사 시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깨지 못하자 스님이 다가와 일출을 보라고 하기에 일어나 일출을 보고 지은 시이다. 망망한 은빛 바다에 일출로 붉게 물드는 광경을 보고 표현하였다.

152 제회원당(題懷遠堂)

간재(艮齋) 종저(趙宗著)

만발한 요황(모란)에 자하기운 가득하고	百朶姚黃爛紫霞
현산 서쪽 밭두둑에 비로소 해가 기우네	峴山西畔日初斜
그대 습지 떠나가지 마시게	使君不向池習去
임천 호사가에 와서 취해 보세	來醉林泉豪士家

『峴山誌』

양양은 예부터 모란이 많았다. 모란이 불게 물들어 화려하게 피었는데, 황혼 무렵 해가 기울자 벗들과 즐거운 연회를 하며 보내고 싶은 심회를 표현하였다.

153 낙산사(洛山寺)

수허재(守虛齋) 홍계적(洪啓迪)

의상대 앞은 가을 물결이 희고	義湘臺前秋潳白
이화정 가에 새벽안개는 붉다	梨花亭上曉霞紅

수평성 물결 위에 아침 해 뜨니　　俄頃日破層濤上
갈매기 노래하며 하늘을 난다오　　鷗鳥驚呼天海空

『金剛山詩集』 下篇

홍계적(숙종 6년, 1680년~경종 2년, 1722년)의 자는 혜백(惠伯), 호는 수허재(守虛齋)이다. 1708년 문과에 급제, 도승지 · 부제학 등을 지냈고 21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세제(世弟)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과 대립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유발하였다. 흑산도로 귀양 갔다가 역모가담 죄로 서울에 압송되어 옥사하였다. 영조(英祖)가 즉위한 후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저서에 『守虛齋遺稿』가 있다.

낙산사의 가을 어느 날 아침 일출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의상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의 포말과 적벽에 부딪혀 흰 포말의 물결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화정가 새벽안개가 일출로 인해 안개가 붉게 물들고,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면 신선의 세계처럼 느껴지고 그 위로 갈매기들도 즐거워 날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54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

이화정 가 바다에 뜬 구름 동쪽에 있어　　梨花亭畔海雲東
스스로 관세음보살의 오색 가운데 있네　　自在觀音五色中
떠오르는 달은 빛을 비추고　　浮出玉輪光照耀
광한부(廣寒府-달의 궁전,월궁전) 신선의 풍악은 하늘 높이 부는 성난 바람일세
　　廣寒仙樂落天風

『峴山誌』

임숙영(선조 9년, 1576년~인조 1년, 1623년)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초명은 상(湘). 자는 무숙(茂淑), 호는 소암(疎庵)이다. 선조 34년(1601년) 진사가 되고, 광해군 3년(1611년) 별시문과의 대책(對策)에서 주어진 이외의 제목으로 척족의 횡포와 이이첨(李爾瞻)이 왕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존호를 올리려는 것을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를 시관 심희수(沈喜壽)가 적극 취하여 병과로 급제시켰는데 광해군이 대책문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몇 달간의 삼사의 간쟁과 이항복(李恒福) 등의 주장으로 무마, 다시 급제되었다. 그 후 승문원정자·박사를 거쳐 주서가 되었다. 인조반정초에 복직되어 예문관검열과 홍문관정자·박사·부수찬 등을 거쳐 지평에 이르렀다. 저서로 『소암집』이 있다.

155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최상익(崔商翼)

내가 와서 우거진 부상의 가지를 잡고　　我來年翳扶桑枝
날아서 푸른 바다 지나니 세상이 어찌 알겠는가　　飛過滄溟世莫知
밝은 밤 학은 화표(왕의 치적을 기록하는 나무)로 돌아가고
　　萃表鶴歸明月夜
저녁이면 스님은 종 칠 때 정하네　　梵宮僧定暮鍾時
오봉산이 가을이 깊어 피릿소리 자주 나고　　五峰秋老三聲笛
대해는 많은 시를 짓게 하네　　大海波驅百首詩
오래된 현산에서 일없이 술만 마시니　　千古峴山無事酒
숨어 사는 신선은 다시 누구인가　　謫仙風彩更呵誰

『峴山誌』

최상익(인조 9년, 1631년~숙종 25년, 1699년)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성백(成伯)이다. 효종 8년(1657년) 사마시를 거쳐 현종 1년(166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현종 1년(1660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1671년 사간원헌납·배천군수로 나갔으나 정유악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숙종 8년(1682년) 9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숙종 10년(1684년)에 安邊 縣監(안변현감)으로 보직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1699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이 해에 작고하였다.

15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귀와(歸窩)　유득일(俞得一)

행렬이 날듯이 큰 언덕 지나가니　征袂翩然過大堤
종소리 이미 낙산사 서쪽에서 울리네　鍾聲已動洛伽西
소나무 숲에 쌓인 돌길은 멀고　松園石逕竹邊遠
바람에 실린 파도는 수평선 너머 나지막하다　天入風濤盡處低
이름난 경치 지팡이 잡고 다니며 절경에 빠져보고　地勝移笻綠絕壑
처마에 해떨어져 층계에 오르네　簷虛納日上層梯
백사장 갈매기 또한 나그네 심정을 아는지　沙鷗亦鮮遊人意
푸른 연기 가르며 구구 운다오　飛割蒼烟故故啼

『峴山誌』

유득일(효종 1년, 1650년~숙종 38년, 1712년)의 본관(本貫) 창원(昌原)이고 자(字) 영숙(寧叔), 호(號)는 귀와(歸窩)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으로, 숙종 1년(1675년) 생원(生員)이 되고, 1677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1682년 지평(持平)이 되었다. 1686년에 부수찬(副修撰)으로 기용되고 정언(正言)·교리(校理)·검상(檢詳)·승지(承旨)를 역임하였고 1695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역임한 뒤에 대사성(大司成)·대사헌·이조 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숙종 30년(1704년) 형조 판서에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1706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형조 판서가 되었다.

15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여필용(呂必容)

금강산 일만 봉 다 둘러보고　領略金剛一萬峰

동쪽 큰 바다에는 저녁구름 짙었네　　東臨大海暮雲濃
받들어야 할 문장과 글씨를 보니 감격스럽고　　雙擎翰墨堪垂涕
어찌 사신(詞臣)을 이 곳에서 만날 줄이야　　何況詞臣此地逢

『峴山誌』

여필용(1655 ~ ?) 자(字)는 휴경(休卿)이다. 숙종 9년(178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가 되었고, 병조 좌랑(兵曹佐郎)·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집의(執義)를 거쳐,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병조참의(兵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호조참의(戶曹參議)·예조참판(禮曹參判)·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도감사를 지냈다. 후에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右尹(우윤), 예조(禮曹)·호조 참판(戶曹參判)·돈령부지사(敦寧府知事) 등을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외직으로는 부안 현감(扶安縣監)·서산 군수(瑞山郡守)·홍주 목사(洪州牧使)·완주 목사(完州牧使)를 지냈다.

158 태평루제영(太平樓題詠)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삼순 동안 다섯 가지 계율 지키기를 홀연히 잊고서　　三旬特戒忽焉忘
상쾌한 봄바람에 술잔은 차네　　快倒春風蒲蒲觴
고요하고 맑아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으니　　不侵小光齊拍手
뒷사람 누가 양양을 지나간 것을 알리오　　後人誰識過襄陽

『峴山誌』

오도일(인조 23년, 1645년~숙종 29년, 1703년)의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이다. 영의정 윤겸(允謙)의 손자이다. 현종 14년(1673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숙종 6년(1680년) 지평·부수찬, 1683년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1687년 승지가 되었다. 1694년 개성부유수를 거쳐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간·부제학·강원도관찰사에 이어 다시 부제학을 거쳐 1696년 도승지·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다음해 예문관제학·사직·이조참판, 1698년 이조참판·공조참판을 지내고 양양부사로 좌천,

삭출(削黜)되었다가 1700년 대제학·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세칭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라 하였으며, 술을 좋아하여 숙종으로부터 과음의 경계를 받았다. 죽은 뒤 복관되고 울산의 고산서원(孤山書院)에 제향 되었으며, 저서로 『서파집』이 있다.

159 현산 삼십경을 읊으며 (峴山三十詠)

명암(鳴巖) 이해조(李海朝)

산과 물이 어울리는 경치를 겸비하기는 어렵다. 仁者와 智者인 재주로도 능통함을 갖출 수 없다. 비록 하나의 언덕과 골짜기, 물, 돌을 보고 듣기 오히려 어렵다. 하물며 강과 산이 크며 큰 바다와 명산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영동 팔경인 오직 뛰어난 양양의 두 경지는 설악산이 바다와 접해 있어, 양양의 설악산은 소금강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조화롭게 신이 창조하여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크고 넓다. 또한 고성의 해산정과 그 우열을 다툰다. 이는 참으로 산과 바다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그리고 고을의 이름이 중국의 지세가 훌륭한 현산과 한수가 부합하여 모방하여 이름을 정하였다.
산옹(山翁) 숙자(진나라 장수 羊祜의 자)의 풍류와 운치가 있어 이름을 돌아보며 감회를 상상하니 잊을 수가 없다. 호수가 보이는 산 아래 집을 꾸미고 만물을 잘 꾸미니 가치가 백배는 더하다
고을에 옛 기록이 없어 누각(樓閣)과 관대(觀臺), 사찰에서 책을 적막하게 읊으니 단지 한 때, 한 곳의 경치만을 기록하여 일찍이 없었던 것을 찾아내고 한 고을의 경치를 관상하며 기록하여 나타내어 밝히니 나는 심히 아까워 이에 상고하여 여지승람에 싣는다.

또 고을을 방문하여 노인 가운데 현산 삼십경의 글을 짓기 위해 각부에 승경을 짧고 간략하게 요구하니 삼연(三淵) 김자익(金子益)이 화답하였다.
아. 오래된 고을과 산천에 특히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이 몹시 결렬하였다. 누런 순채와 참대나무 사이 평범하게 물소리 험하고 목메어 주는 자를 후하게 평가하였다. 명산과 대호가 어우러져 가지런히 아름답게 전해진다. 지금까지 그 기록을 읽으니 신이 유상함

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바다와 큰 산이 선경이요, 살펴보니 신기함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산과 물이 역시 만나거나 못 만나든 어찌 불신하리오. 내가 돌아보니 글이 없다. 산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나는 산수를 만나니 곧 다행이다. 잠시 읊기도 하고 글로 화답도하다가 병풍에 모두 게재하니 장차 이것에 의해 밝혀 펴질 것이다.

山水之難於兼備猶人才之不能通該雖一丘一壑一水一石尙難兼有而并觀而況於江山之大而況巨海名嶽之相値而具美者乎我邦嶺東八景惟高, 襄二境背嶽臨海襄之雪岳世稱小金剛而洛伽之天造神創望海宏豁又可與高城之海山亭爭其甲乙此眞山海之具美者而且其邑號適符於中華勝區峴山漢水雖倣古立名山翁叔子之風流餘韻顧名興懷想像而不可忘其粧點湖山賁飾物態者可謂增價百倍矣邑舊無誌樓館寺刹間有寂寥篇詠而只記一時一區之景而已曾無搜剔一州之勝觀著錄而表章者余甚惜焉迺攷勝覽所載且訪邑中耆舊編爲峴山三十景各附短章略記其勝仍要百淵金子益和之噫永州溪山特是窮荒絕徼黃茆苦竹間尋常一淙崢而自經子厚題品得與名山大湖并傳而齊美至今讀其記者不覺窅然神遊而今此溟岳仙區瓌覽異蹟無人發揮山水之亦有遇不遇者豈不信哉顧余無文不可謂山水遇其人而余之遇山水則幸矣姑以拙詠及和章揭諸屛間以俟後來者之因此闡發焉。

160 설악산의 맑은 경치(雪岳晴光)

설악산이 오랫동안 눈에 쌓여 있어	雪山長戴雪
하물며 눈이 내린 지금	況是雪下時
비 개인 후 눈빛이 번쩍번쩍 빛이나	晶晶霽後色
나와 같이 흰 두건을 쓴 것 같네	同我白接羅
얼음과 달빛이 맑게 빛나	氷魄少淸輝
동해와 못을 서로 비추네	交暎扶桑池
매화를 찾는 손님을 불러	欲喚訪梅客
산을 바라보며 함께 글을 읊고 싶구나	同賦看山詩

161 남대천의 봄 물결(漢水春波)

읍 앞에 흐르는 남대천을 또 한 한수라고도 칭하는데 수원은 오대산이다. 邑前南大川亦稱漢水源出五臺山

남대천은 우통수(한강의 발원지)에서 나뉘어져	漢水分于筒
봄의 푸른 물결이 바람에 시원하구나	春波碧瀏瀏
청명한 백사장에 오리가 일색이고	一色晴沙鴨
큰 제방의 버들 빛이 서로 어울리네	交暎大堤柳
산옹은 취하여 돌아감을 잊고	山翁醉忘歸
벼슬아치임을 분별하지 못하네	不辨靑縗綬
비단 도포 입은 신선이 없어 한스러워	恨無錦袍仙
하늘에 포도주가 가득 넘쳤으면	虛漲蒲萄酒

162 낙산사의 해맞이(洛伽觀日)

낙산사를 또한 낙가사라고 칭한다. 해변 어디에서나 가히 해맞이를 할 수 있고, 해가 돋는 동쪽을 바로 대하고 있다. 이화정은 아주 높고 시원한 곳에 있어 가장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맞이는 반드시 낙산사라고 말한다. 洛山寺亦稱洛伽寺海傍無非可觀日而洛山正對暘谷梨花亭極高敞望海最遠故觀日必稱洛山云

푸른 하늘 끝 푸른 바다는	靑空際滄海
푸른 유리 같은데 넓고 넓구나	浩浩碧琉璃
붉은 구름이 금륜(金輪)을 안아	紅雲擁金輪

온갖 채색이 많아 화려하구나　　衆彩紛陸離
이화정에 가지 않고　　不到梨花亭
떠오르는 해를 맞이 했네　　焉對扶桑枝
매일 아침 이 광경을　　朝朝此光景
다만 스님만 알고 보내는 구나　　但遣山僧知

163 울산바위 뜬 소문(天吼聞風)

천후산은 읍에서 북으로 육십 오리에 있다. 석봉은 깎은 듯이 가파르고 기이하고 장관이다. 세속에서 소금강이라고 칭하는데 즉, 설악산의 한 갈래로서 산허리에 바람구멍이 둘 있다. 큰 바람이 불려고 하면 산이 스스로 먼저 운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 天吼山在府北六十五里石峯峭削奇壯俗稱小金剛卽雪岳一支山腰有兩風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

산이 높고 험하여 소금강이라　　嵯峨小金剛
두 구멍에 바람이 성난 듯하구나　　吼怒雙竅風
어룡이 굴에서 뒤흔드니　　震蕩魚龍窟
소나무 계수나무 모아 거문고 두드리네　　戛瑟松桂叢
바람이 더 이상 거세게 부지마오　　莫助扶搖勢
천지는 본래 동쪽에 있네　　天池本在東
외적을 막은 신선만이　　惟有禦寇仙
그대를 빌어 승천하고자 하오　　借爾欲乘空

164 의상의 기적(義相異蹟)

고려의 승 익장의 기문에 낙산사 동쪽 수리쯤 해변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머물던 곳이라고 세상에 전한다. 굴 앞에 한자리 깔만한 돌이 있어 신라 의상법사가 이에 돌 위에서 전좌배례하며 관세음보살 진상을 진견하려고 14일을 기다려도 볼 수 없어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용이 붙들고 돌 위로 나왔다.

관세음보살이 굴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를 부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를 따라가면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이르면 그곳이 내 이마머리다. 여기에 불전을 짓고 상설안배 하라" 하였다. 용이 바치는 여의주와 보옥을 의상께서 받아가지고 오니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았다. 이에 그 땅에 절을 짓고 용이 바친 옥으로 불상을 마련하여 봉안하니 곧 관음사요 수정염주를 소장한 보물의 절이 되었다.

고려 유자량이 병마사가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 위에 떨어뜨렸다. 유자량의 시에 명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조를 이 사람이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굴 왼편 한 기슭에 바다에 우뚝 솟아 예부터 의상이 머물던 곳을 이름하여 의상대라 하였다. 대 앞에 구불구불 서린 여러 그루의 고송이 볼만하다.

高麗僧益壯記。洛山寺東數里許海邊。有窟可容舟。世傳。觀音大士所住處。窟前。有石可鋪一席。新羅義相法師。乃於石上展拜。求見觀音眞像。二七日未獲覩。便投身海中。有神龍扶出石上。觀音 卽於窟中。伸臂授水晶念珠曰。我身不可覩。但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殿。安排像設也。神龍獻如意珠及寶玉。義師受珠玉而來。有雙竹自抽。乃於其地創殿。以龍所獻玉。造像安之。卽觀音寺。藏珠於是。寺傳寶之。高麗庾資諒爲兵馬使。到窟前拜稽。有靑鳥啣花飛鳴。花墜幞頭上。庾資諒詩。明珠非我欲。靑鳥是人逢云云。窟左 一麓陡起入海。舊稱義相所憩處。名以義相臺。臺前數株古松蟠屈可玩。

165 의상대사의 황홀한 일(義師事怳惚)

바다에 투신하여 진상을 구했네　投海求眞像
용이 의상을 감싸 안으니　神龍護袈裟
석상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네　宛在舊石上
스님이 머물던 곳 아득하여　蒼茫住錫處
옛날 누대는 천길 벼랑에 서있구나　古臺立千丈
대 앞의 소나무는 가지는　臺前松樹枝
언제나 동쪽으로 향하리　幾時復東向

166 관세음보살의 신상(觀音神像)

쌍죽이 솟아 바다는 깨끗하고　雙竹湧海淸
법당의 불정은 한없이 높구나　孤棟架佛頂
관음상을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고　神像巧鑱玉
깊은 동굴 배 모습과 흡사하네　深窟恰容艇
청조가 천화를 물어다 떨구고　鳥銜天花墜
용이 토한 여의주가 빛나네　龍吐驪珠炯
옛 자취를 어루만지고 싶어　舊迹欲摩挲
오래 앉아 있으니 바람만 차구나　坐久風凄冷

167 계조암의 오랜 굴(繼祖舊窟)

천후산 아래 있다. 굴 밑 벼랑의 작은 암자에 스님은 모든 번뇌가 비었고, 계조선사가 입정한 곳으로 전한다. 굴 앞에 거대한 흔들바위가 있고, 동으로 큰 바다요, 앞은 달마봉과 여러 봉우리를 대하고 있다. 在天吼山下° 窟底架崖構小菴空無僧世傳繼祖禪師入定處窟前巨石錯立東臨大海前對達摩諸峯

유명한 조사들이 설교하던 곳으로	祖師講道處
오래 된 굴속에 푸른 이끼 무늬졌네	古窟蒼苔紋
구부러진 바위는 웅크린 범 같고	穹巖若蹲虎
둥근 봉우리는 진을 친 군사 같구나	環峯如列軍
두 구멍에서 갑자기 바람 마시니	倏吸雙穴風
어두운 구름이 겹겹이 둘러싸는 구나	繚繞重溟雲
빈 암자는 고요한데 스님은 없고	空菴寂無僧
지나가는 신도들만 향을 피우네	鑪檀徒自焚

168 비선대의 층층이 깊은 소(飛仙層潭)

울산바위 남쪽에 신흥사가 있고 절 앞 오리쯤 깊숙한 곳은 산봉우리 첩첩하고 숲이 우거졌는데 흰 돌이 평평하게 깔리어 맑은 물이 흐르는 못이 곧 와선대이다. 와선대를 지나 물길 따라 수리 오르면 첨예한 산봉우리 밑에 바위샘이 흘러 와선대보다 기이한 장관이며 맑고 시원한 비선대이다. 이곳이 양양 제일의 동천이다. 天吼山南有神興寺寺前五里餘洞府深邃疊嶂森羅白石平鋪溪流成潭卽臥仙臺自臥仙沿溪上數里峯巒泉石比臥仙益奇壯

清爽乃飛仙臺此是峴山第一洞天也

신선이 놀면서 누워 쉬다가 날아간 곳　遊仙或飛卧
층층이 깊은 소 아래 위로 나누어져 있네　層潭分下上
큰 반석이 땅을 덮고　鋪地盤石大
골짜기를 씻는 듯 폭포는 장관이구나　漱壑飛泉壯
봉래 섬에 갈 필요도 없이　不必蓬萊島
녹색 옥으로 만든 지팡이 집고 멀리 왔네　遠携綠玉杖
흰 두건 쓰고 또 감탄하면서　且欹白接羅
하루 종일 높고 푸른 산봉우리만 바라보네　終日看青嶂°

169 권금성의 남은 성가퀴(權金殘堞)

설악산 머리에 있다. 석축 둘레는 천여 척으로 부서진 성가퀴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옛날 권씨와 김씨 두 가문이 난을 피해 쌓았다고 하여 이 이름 하였다. 토왕성과도 서로 연결되고 성 동편에는 수백 척이나 되는 폭포수가 걸려 있는데 토왕성 역시 어느 대에 성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옛날 토씨 성의 왕이 조성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在雪岳頂石築周千餘尺廢堞尙在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與土王城相連城東有瀑布掛流數百尺土城亦不知何代設築而或傳古有土姓王造此云

옛날 권씨와 김씨가 난을 피해　權金昔逃難
옛날에 쌓은 성가퀴가 남아 있네　殘堞餘古壘
토왕성과도 대치하며　對峙土王城
폭포수도 멀리 보이는구나　遙望瀑布水
어느 대 전쟁이 없었는지　何代無兵戈
몸을 감출 땅을 찾기 어렵네　難得藏身地

상산(中國 陝西省 商縣 동쪽에 있는 산. 四皓가 秦나라 亂離를 避하여 숨은 곳)
과 더불어 설악산도 商山與雪岳
사호의 두 집안 자식 같구나 四皓後二子

170 공허한 하조대(河趙空臺)

읍 남쪽 삼십 리에 있다. 낮은 산기슭이 바다 가운데로 비스듬히 빠져나간 가파른 절벽 위에 정자가 있다. 대 앞에 규룡같이 구부러진 여러 그루의 고송이 꾸민 일산처럼 가리어져 있으며 기이하게 깊은 골과 바위는 파도에 부딪치는 그 자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건국 초 하륜과 조준 두 사람이 여기 머물러 쉬면서 놀았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고 한다. 在府南三十里小麓迤入海中陡絕爲臺臺前數株古松蚪屈掩翳左右巖壑奇邃海濤衝激凜不可久留世傳國初河崙趙浚兩人遊憩于此故得名云

영민하고 준수한 인물 여기에서 즐겨 英俊亦樂此
하조대의 이름 영원하리라 古臺名不朽
창해군 찾아오니 應尋滄海君
마침내 위천(강태공이 문왕을 만나기 전에 낚시하던 곳)
의 늙은이 용맹을 떨쳤네 終奮渭川叟
이끼 짙은 물가는 전에도 한적 했는데 苔深舊磯空
바람이 세차니 울부짖는 겨울 소나무 風急寒松吼
해신제 위해 잔 올리려 하니 欲酌清波奠
한 없는 북두칠성만 기우는 구나 恨不傾北斗

171 현산의 달맞이(峴首待月)

읍 앞 낮은 산을 현산이라 한다 邑前小麓俗稱峴山

허리띠 늦춰 맨 경험이 없었는데	不經緩帶翁
이 산의 작은 계단을 밟았네	玆山等蟻垤
모름지기 지는 해 아쉬워	何須惜落日
우리는 초승달을 기다리네	我方待新月
타루비 한 조각 밝혀 보니	一片墮淚石
이미 가신 님 어찌 도우리	何補已朽骨
이 삼영을 비추던 달그림자가 이르러	及此成三影
다만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네	但進盃中物

172 의춘암의 화전놀이(春巖賞花)

부 서쪽 오 리에 있고, 예문이라 칭한다. 마을 가운데 맑은 물과 반석은 가히 놀만 한 곳인데 개울가의 반석에는 10여명이 앉을 수 있어 봄철 두견화 만개하면 태수가 화전놀이 하였다고 이른다. 지금은 의춘암이라 고쳐 부른다. 府西五里餘俗稱禮門洞中泉石可玩溪邊小巖可坐十餘人春時杜鵑爛開太守輒賞花於此云今改以宜春巖

어느 곳이 화전놀이 하기 좋은가	何處賞春宜
작은 바위가 봄이 되면 어여쁘구나	小巖春可憐
잔을 권하니 오리가 녹파를 일으키고	盃添鴨綠波

꽃은 학림의 신선을 대하는구나　花對鶴林仙
꽃을 꺾어 흰 머리에 꽂고서　折來揷白髮
술 취해 추는 춤은 어떤 춤인가　醉舞何躚躚
아이들 한바탕 웃음을 더하고　街兒添一笑
산옹은 지금도 소년이구나　山翁今少年

173 무산의 구름과 비(巫山雲雨)

읍 앞 남대천에 늘어선 산봉우리를 무산이라고 한다.邑前南大川邊列嶂羅立俗稱巫山

아침부터 홀을 잡고 바라보는 곳　朝來拄笏處
상쾌한 기분은 서산만 못하네　爽氣非西山
단구의 병풍모양 특이하고　恠底丹丘屛
누런 발 사이 내 뜻을 펼치네　張我黃簾間
은 산 언덕에 겹쳐진 속에　銀山堆疊裏
열두 봉우리 얽혀있네　綰結十二鬟
어찌하여 구름 비오기를 기다리나　何待作雲雨
오랫동안 꿈속에서 얼굴이나 대하리　長對夢中顔

174 나무 숲 사이에 아른 거리는 녹문(鹿門烟樹)

부의 성 서쪽을 지나 작은 농가들로 한 마을을 이루는데 무성한 뽕나무로 가리운 앞에는 남대천이 흐른다. 임천이라 부르는데 녹문이라고도 한다. 府城西過一小墅村落周布桑柘掩翳前臨大川俗號林泉亦稱鹿門

서쪽 숲에 몇 집이나 되는가　　西林人幾家
마을에 황혼이 지는구나　　墟里曖黃昏
나무 그늘 짙은 먼 들에　　樹陰團遠野
외진 마을에 연기도 맑네　　烟色淡孤村
소와 염소 함께 돌아가는데　　不分牛羊歸
다만 닭과 개소리만 시끄럽네　　但聞鷄犬喧
솔밭 길 따라 오가는 사람　　松逕去來人
누가 녹문에 은거 하는지　　誰是隱鹿門

175 자지산의 영초(芝山靈草)

자지산은 부의 남쪽 칠십 리에 있다. 산중에는 자지가 많이 나므로 이름 하였다.紫芝山在府南七十里山中多生紫芝故名

꽃 사이에 두건 쓴 늙은이 나타나　　花間接鬟翁
소나무 그늘 아래서 노인이 반기네　　松下笑綺皓
다만 녹색 포도주 맛보니　　但傾綠蒲萄

영묘한 지치로 빚었다네　　焉用紫芝草
지치로 일 또한 많아지고　　三秀亦多事
한번 취하니 늙어감도 잊는구나　　一醉不知老
주림을 고치는 약이 없으니 어찌하오　　那無療飢物
남대천의 봄날 물결이 좋구나　　漢水春波好°

176 부드러운 줄기의 순지(蓴池嫩莖)

부의 동쪽 팔 리 구봉산 아래 있다. 두 호수가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있어 이름을 쌍호라 하고 또한 순지라고도 한다.在府東八里九峯山下兩湖夾其左右故名以雙湖亦稱蓴池

이슬 젖은 아욱 캐어 국을 끓이니　　露葵采作羹
젖빛 같이 기름지고 부드럽네　　軟滑流膏乳
생성요리 아름다운 맛 잃고　　鮭菜失佳味
깨닫지 못하고 솥바닥만 긁는 구나　　不覺頻轑釜
어찌 미리된장을 넣지 않고　　豈曾下鹽豉
채고 같이 참 좋구나　　政好如釵股
가을바람에 어린 매가 나래를 펴고　　秋風張季鷹
너를 잊지 못해 관직을 그만두리라　　戀爾宜解組

177 태평루의 풍류(太平歌管)

태평루는 곧 객사이다. 문루는 매우 넓고 시원하다. 태수는 늘 이곳에서 풍류를 베풀었다.太平樓卽客舍門樓極宏敞太守每張樂於此云

높디높은 누각은 설악산으로 인하여	飛欄倚雪嶽
좌부선인의 신비로운 음악이 빛나는 구나	仙樂喧紫府
남대천의 물결은 목이 메어 흐르지 않고	漢波咽不流
무산의 구름이 오가며 흐르네	巫雲行復住
바다와 하늘이 여음이 울려 퍼지고	海天散餘響
어용이 뒤섞여 춤을 추네	魚龍紛起舞
오랜 된 동제는 쓰지 않고	不用舊銅鞮
월궁의 악보를 새로 탐내는구나	新偷月宮譜

178 동해묘의 제사(海廟香火)

동해신묘는 부의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으며 봄가을에 제를 올린다.東海神廟在府東海邊松林間春秋設祭

울창한 송림 속은 시원하고 고요한데	松林閴森爽
신을 모신 신궁은 엄숙하고 밝다	神宅儼明宮
향을 피우니 하늘하늘 구름이 되고	爐香裊汀雲
깃발 날리어 바닷바람 일으키네	旗脚颺海風

모든 백성 늘어서서 제를 올리니　　蜿蜿享百靈
여러 해 풍년 들 효험 있구나　　穰穰驗屢豊
부끄러운 관리들 명심하고　　愧乏吏部銘
바다를 맡은 신에게 치성을 드리네　　致崇如祝融

179 죽도의 신선절구(竹島仙臼)

죽도는 부의 남쪽 사십 리 관란정 앞에 있다. 섬은 푸른 대가 가득하고 섬 아래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갈리고 갈려서 기교하게 파인 속에 둥근 돌이 하나 들어 있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그 속에 둥근 돌이 흔들리고 회전하여 철구가 되었는데 다 갈려 없어지면 세상이 개혁된다고 한다. 심수경의 시에 "바위사이 돌절구 기이한 자취 찾는데, 신선들 어느 해 이곳에서 노닐까"하였고, 이우의 시에 "절구로 방아 찧기 시작하였는데 한 밤 중에 훔쳐 어깨에 지고 비석을 물속에 빠트렸구나"라고 하였다. 島在府南四十里觀瀾亭前滿島皆蒼竹島下海澨有石凹如槽磨礱巧刻中有一圓石諺傳圓石搖轉其中磨而成臼磨盡則世改矣沈守慶詩巖間石臼尋奇迹仙子何年此地遊李堣詩舂磨凹石猶初刮偷負沈碑半夜天

깊고 깊어 푸르른 죽도에　　深深蒼竹島
아름다운 옥절구 소리　　英英玉杵臼
어찌 그리 빨리 돌려 갈아는가　　磨轉何太速
많이 갈아서 짧은 시간　　千刮彈指久
효험이 좋은 약을 다시 찧지 않으니　　玄霜不再擣
운영을 볼 수 있을지　　雲英能見否
나는 바위에 술통을 만들어　　我欲作窪樽
오랫동안 포도주나 담아두려오　　長盛蒲萄酒°

雲英 : 중국에 배항이라는 인물이 남교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 한 老嫗의 집에 들어가서

물을 청하자 노구가 처녀 운영을 시켜 물을 가져다주었다. 배항이 물을 마시고는 운영에게 장가들기를 청하자, 노구가 옥저구(玉杵臼)를 얻어오면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배항이 옥저구를 얻어와 마침내 운영에게 장가들어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

180 청초호 용갈이(草湖龍耕)

쌍성호 일명 청초호라고 한다. 부의 남쪽 사십 리에 간성과 경계에 있다. 둘레가 수십 리고, 매년 겨울 얼은 후에 얼음이 갑자기 물결을 일었다. 북쪽 기슭에 남쪽 기슭까지 마치 쟁기질로 물결을 갈라 엎은 것 같은 형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용갈이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것으로 한해의 점을 쳤다고 한다. 雙成湖一名靑草湖在府北四十里杵城界周數十里每冬月合凍後氷忽鱗起自北岸至南岸有若犁破狀村人謂之龍耕以此占年云

눈 속의 아름다운 풀은　雪裏種瑤草
용과 신선의 부름임을 아네　知有呼龍仙
긴 호수가 밭이 되어　長湖爲十畝
얼음 갈이가 연기 갈이 같구나　耕氷如耕烟
서릿발이 갑자기 햇살에 번쩍이고　霜鱗乍閃暎
하늘의 쟁기는 어찌 빙빙 도는가　雲耜何蹁躚
스스로 갈이 하고 또 비가 오는데　自耕又自雨
어찌 풍년이 아니라고 근심하는가　何憂不豊年

181 상운정의 송림(祥雲松林)

상운정은 부의 남쪽 20여 리에 있다. 바닷가의 장송이 울창하여 뜨는 해가 보이지 않는다. 祥雲亭在府南二十餘里傍海長松森欝仰不見日

해돋는 바다가 막혀서 遮障扶桑池
작은 풀언덕이 환상으로 변하였구나 移幻小茅嶺
용왕의 분노를 변화하고자 하니 龍鱗欲變化
서리 맞은 나무 고고하고 굳센 것을 근심하네 霜榦愈孤勁
술 취해 백접리를 벗고 醉脫白接羅
바람 쏘일 때 머리 드러내네 灑風時露頂
지금부터 팽택령 벼슬 그만두고 從今彭澤令
다시는 삼경을 그리워하지 않네 不復戀三徑

삼경:정원(庭園) 안의 세 갈래의 좁은 길. 뜻이 변(變)하여 은자(隱者)의 문안의 뜰 또는 그 주거(住居)

182 큰 제방의 수양버들(大堤楊柳)

현산 서쪽에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대제라고 부른다. 峴山西傍有通衢俗稱大堤

버들 빛은 아름다운 큰 제방에 大堤嫩柳色
푸른 비단 옷 입고 계집아이 노니네 遊女翠羅襦
현산의 배꽃이 날리니 梨花峴山雨

한가로이 제방을 그리며 희롱하네　　閒弄蕘堤圖
산옹은 길거리에서 취하여　　山翁街頭醉
늘어진 수양버들 좋구나　　好掛靑絲壺
하늘하늘한 버들가지 꺾으려하니　　欲借裊裊枝
영랑호 물결이 출렁이네　　搖蕩永郎湖

183 봉정암의 고고한 탑(鳳頂孤塔)

봉정암은 설악산 정상에 있어 굽어보면 만개의 봉우리와 동쪽으로는 넓은 동해를 접해 있다. 시원하게 뚫린 골은 견줄 데 없고 암자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가히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곳이다. 유의하여 세운 탑이 고고하게 높이 솟아 있는데 언제 창건했는지 알 수 없다. 곁에 두 개의 술 단지 구멍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오래 전 배를 매던 곳이라고 전한다. 봉정암 아래 이십 리 쯤에 십이폭포가 있고, 폭포 서쪽에 김시습이 살던 옛 터가 있다.鳳頂菴在雪嶽絕頂俯視萬峯東臨大海爽豁無比菴西有大巖廣可坐數千人當心造塔突兀孤起不知創自何世而傍有石罇二孔傳是浩刦繫舟處云鳳頂下二十里許有十二瀑瀑西有淸寒子舊基

공경스럽고 고고한 봉정암은　　翼翼孤鳳頂
봉래산과 서로 마주 대하며 버티네　　對峙蓬萊嶽
바다를 굽어보니 바위의 형세가 장엄하고　　俯海石勢壯
하늘 높이 탑 그림자 우뚝 솟아있네　　摩空塔影矗
넓고도 넓어 궁리하기 어렵고　　洪荒莽難窮
누가 옛날에 배를 매었는가　　誰是維舟客
김시습의 집터 또한 갈려서 없어졌는데　　淸寒亦磨滅
어느 곳에서 구름 폭포 찾고 있을까　　何處尋雲瀑

184 선림원지의 부서진 비석(沙林斷碑)

사림사는 부의 서쪽 칠십 리 산협에 있는데 다만 절은 없고 절터만 남아 있다. 절 앞의 석비에 곧 매월당이 왕휘지의 글자체로 집자하여 홍각선사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필획이 완연하여 실물과 흡사하여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완상하였다. 근자에 나무꾼들이 두들겨 부셔 조각난 비로만 남아있다.沙林寺在府西七十里山峽間寺廢但有舊址寺前石碑卽梅月堂集王右軍字記弘覺師行迹者也筆畫宛然逼眞人多寶玩近爲樵牧撞碎斷碑猶存

깨어진 비석을 누가 보물인지 알았겠는가 斷碣孰知寶
내가 그 비석 아래서 잠자려고 한다오 我欲宿其下
김시습의 문장은 고고하고 梅堂文高古
난정의 필체가 변화했네 蘭亭筆變化
작게 깨어진 비석 용의 기세 솟구치니 微分跳龍勢
글자를 얻어 베껴서 전하리라 能傳換鵝寫
양양(중국) 부사가 한 조각 돌비석에 羊公一片石
남의 손을 빌리는 못함이 한스럽다 恨未此手借

185 오색령에서 고사리 캐기(西嶺采蕨)

오색령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고비와 고사리가 많이 생산된다. 五色嶺在府西多生薇蕨

끝 매봉 남쪽에 산물이 季鷹南山物
이제부터 오색령에서 생산되네 今從西嶺生

어린 아이 주먹 쥔 듯 하고　已作小兒拳
나물국은 천리에 으뜸이다　不下千里羹
다만 놓아버리면 없어질까 두려워　但恐放節空
광주리를 기울이니 가득하여 좋네　猶喜傾筐盈
지금부터 고기 낚지 않고　從今不釣魚
비 그쳐 화창하니 새순 고사리 따리라　和雨摘新莖

186 북진의 고기구경(北津觀漁)

북진은 낙산사 서쪽 수 리 쯤에 있다. 태수는 낙산사에 들렸다가 매양 북진에서 고기구경을 하였다. 北津在洛山西數里許太守每自洛寺觀漁於此津云

고기잡이 배가 후진에 모이니　漁艦簇北津
검은 그물이 운연같네　緇網如雲烟
작은 고기는 거두지 않고 버리니　盈尺棄不收
방어와 연어 뛰어오르는 물소리　瀺灂騰魴鰱
용백국의 거인을 따라　欲從龍伯國
여섯 마리의 자라를 잡으려오　一釣六鰲連
뱃머리에서 사공이 웃으면서　堪笑槎頭客
다만 방어의 못을 묶는구나　但解縮項鯿

187 냉천의 옛집(冷泉故居)

냉천은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관세음보살이 벼 베는 여인으로 변화하였는데, 고승 원효대사가 지나가다 냉천에서 물을 마시며 부인과 희롱하였다고 한다. 冷泉在九峯山下世傳觀音化爲女刈稻高僧元曉因取飮冷泉與之戱謔

정추의 시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되기 전해왔는데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을 보았네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르네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누에 올라 상사(相思)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네

鄭樞詩

海岸山從赫世傳
幾看興廢迄今年
秋涵一野亞紅稻
日照五峰生紫烟
德女故居莎覆砌
曉公遺迹樹連天
登樓擬結相思夢
夢裏還應酌冷泉

관세음보살이 아난으로 변화하여
들에서 예쁘게 변화하여 수척해 보이네
일찍이 눈이 내리기 전에
논에서 벼를 베는구나
고승 원효도 여자를 희롱하다가
바로 넘어져 실패하였네
아름답게 꾸민 여인의 욕정을 깨달아야 하고
냉천에 풀만 무성하구나

觀音化阿難
夭冶幻枯槁
曾不散天花
而來刈田稻
高僧亦解佩
泥絮乍顚倒
尙學羅裙色
萋萋冷泉草

188 검달동의 황폐한 터(黔洞荒墟)

검달동은 부의 남쪽 팔십 리 아주 험한 산골에 있다. 첩첩한 산중에 봉우리가 둥글게 굴러 쌓여 있어, 인적이 드물다. 즉, 김시습이 은거하던 곳으로 옛 자취가 남아 아직 있다. 속세에 전하기를 오세 동자(김시습)가 살던 터라고 말한다. 黔達洞在府南八十里山谷間絕險處疊嶂環擁人迹罕到卽梅月堂舊隱處遺址尙存俗傳五歲童子基云

그대는 본래 청한함을 알고 있지만	知君本淸寒
살기 좋은 곳으로 어찌 검달동을 선택했는지	卜地焉取黔
김시습의 이야기 전하는데	猶傳五歲童
오랜 세월 뜻이 변치 않네	不死千年心
쓸쓸히 고사리 캐던 노래를	悽悽采薇歌
후세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을까	後世誰知音
텅 빈 김시습의 집터만 남아	空餘小梅月
오류(五柳)의 시간이 보일 듯 말듯하구나	掩暎五柳陰

189 납호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며(灝堂望海)

납호당은 부의 태평루에서 동편으로 수십보 정도에 있다. 한 면을 굽어 바다를 보면서 예전에 유상하던 곳이다. 당은 훼손되어 복구되지 않았다. 納灝堂在太平樓東數十步許俯海一面舊爲遊賞之所堂毁未復

남대천과 더불어 흥겨운 주연에	習池與漢水

잡된 것에 물들지 않네　　不足一染指
내 황죽 발을 말아 올리니　　卷我黃竹簾
납호당에서 보는 푸른 바다 최고구나　　盡納滄溟水
영웅들이 연회를 즐기고　　鯨鵬戲樽俎
소인들은 침상에서 여자와 노니네　　蟾鴟掠枕几
때로는 신선의 뗏목을 만나　　時時遇槎仙
물길이 얼마나 되는지 묻노라　　窮河問道里

190 영혈사에 스님을 찾아감(靈穴尋僧)

영혈사는 설악산에 있다. 신라 승려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옛날에는 고승이 많았다고 한다. 靈穴寺在雪嶽新羅僧元曉所創建舊多高僧云

능엄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니　　楞嚴不自讀
모든 번뇌 누구와 이야기 할까　　誰與講空有
잠시 떠나 벗과 흥겨운 주연을 즐기는데　　暫謝習池伴
불문(佛門)의 벗이 찾아오네　　來訪空門友
벼슬 생활이 그 얼마인가　　已許玉帶鎭
부부의 정을 애석해 하지 마라　　莫惜鴛鴦綉
백련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欲入白蓮社
이 포도주는 어찌 하나　　奈此蒲萄酒

『鳴巖集』

이해조(현종 1년, 1660년)~숙종 37년, 1711년)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이다. 우의정 정구(廷龜)의 증손이고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숙종 15년(1689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왕후가 복위된 후 빙고별검(氷庫別檢)이 되고, 1702년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알성문과(謁聖文

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속종 35년(1709년) 2월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집의(執義)·대제학을 역임하고 전라도 관찰사를 엮임 하였다. 조부 때부터 3대가 모두 대제학(大提學)을 지냈고, 시문에 능하여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으며 저서 『鳴巖集』이 있다.

다음 시는 양양부사 이해조(1660~1711년)가 조선조 최고인 문인으로,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산수를 즐겼던 당대의 스승인 김창흡(1653~1722년)선생께 드리자 이에 같은 제목으로 화답하였다.

현산 삼십경을 읊으며(峴山三十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91 설악산의 맑은 경치(雪嶽晴光)

높고 높이 솟아 태초부터 빛나　　峩峩太始白
추위와 더위 어느 때 쉴 날이오　　寒暑豈歇時
바다위의　해는 사그라지지 마오　　海日莫銷鑠
붉은 구름 신기하게 피어오르네　　紅雲發神奇
신선의 벼슬을　군성 서쪽에서 하며　　偃尉郡城西
매양 두 손 턱 괴고 읊조리며 바라보네　　吟望每支頤
요대의 수천점　　瑤臺數千點
거센바람 백접리에 뿌리는구나　　飄洒白接羅

요대(瑤臺)-신선이 사는 곳
백접리(白接羅)-두건의 일종

192 한수의 봄 물결(漢水春波)

오대산은 한수의 발원 五臺我嶓冢
푸른 물결 해구에 출렁이네 滄浪漾海口
맑은 강물은 사조의 화려한 시가 되고 澄爲謝朓練
푸른 물결은 이백의 술이오 綠是李白酒
난주는 푸른 물결에 떠내려가고 蘭舟橫碧落
시에 능해 한수 동쪽을 지키네 能詩漢東守
굽지 않는 파리옥의 빛 不枉玻瓈色
비로소 술 열 말에 취할 수 있구나 方許醉十斗

해구(海口)-바다가 육지쪽으로 후미져 들어간 곳
사조(謝朓)-육조시대시인. 글이 맑고 화려함
난주(蘭舟)-목련으로 만든 아름다운 배

193 낙산사의 해맞이(洛伽觀日)

이화대는 아득히 멀고 迢遙梨花臺
가까이 산호가지 있구나 咫尺珊瑚枝
붉은 해가 금기둥과 함께 솟구쳐 올라 紅盆與金柱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네 指點每於斯
빈왕은 취령 뒤에 賓王鷲嶺後
누가 바다를 둘러보고 시를 썼나 誰爲觀海詩
만약 물으면 하늘 밖의 일 若問天外事

부처 또한 알지 못하네 瞿曇亦不知

이화대(梨花臺)-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 할 때 앉아서 좌선했던 곳
빈왕(賓王)-당나라 초기 유명한 시인
취령(鷲嶺)-석가모니가 설법한 인도의 영취산
구담(瞿曇)-부처

194 울산바위의 소문(天吼聞風)

무릇 어찌하여 불평이 있는가 夫何有不平
굉효는 맑게 갠 하늘에 많네 訇哮殷晴空
요조숙녀는 스스로 알고 窈窕知所自
큰 파도 바람에 급히 보네 倏見洪濤風
5월에 어찌 기다려 점치나 箕月豈待占
산천은 본래 서로 통하는구나 山澤本相通
어느새 사물과 나를 깨닫고 於焉了物我
돌아보니 공허하여 이치를 궁구하겠는가 回泬理何窮

굉효(訇哮)-바람이 대단히 부는 소리

195 의상대사의 기적(義相異蹟)

나를 버려 그렇게 환영으로 변화 된 몸　捨爾幻化身
부처의 모든 묘상을 구하였네　求佛勝妙像
신령스런 수정염주 구슬 마음속에 떨어져　靈珠落念頭
자죽은 정상에 솟아났네　慈竹生頂上
부도는 일마다 변화하고　浮屠事多幻
배는 구렁에 이미 간 자취 있네　舟壑迹已往
청조는 가버려 그림자도 없고　青鳥去無影
먼 곳을 보니 구름 사이에 물결 광대하구나　極目雲濤廣

정상(頂上)-관음보살의 이마
자죽(慈竹)-가을에 채취하는 대. 일명 관음죽
부도(浮屠)-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묘탑

196 관음보살의 신상(觀音神像)

원통전에는 눈이 천개이신 관음보살　圓通千眼佛
사는 곳은 향해(香海)의 구불구불한 곳　住處香海廻
버들가지에 감수 뿌리고　楊枝洒甘露
중생은 관정을 우러러 보네　衆生仰灌頂
관음보살상 옥을 다듬어 만드는데　神像玉琢成
보배로운 달빛 머금었구나　中含寶月炯
고된 일 맡아 꽃 드리는 중생　辛勤獻花徒

관음보살의 신령스러운 자취 함께 아우르네 靈迹與之並

향해(香海)-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향수로 된 바다
관정(灌頂)-受戒하여 불문에 들어갈 때 향수를 정수리에 끼얹는 의식

197 계조암의 미묘한 동굴(繼祖幽窟)

계조암 굴은 거대한 낭떨어지기에 굴 嵌空巨崖广
주위에 제단 나누어져 있다 周遭壇宇分
고승은 감실에 편안하고 高僧安一龕
부좌하고 이끼무늬 옷 입었네 趺坐著苔紋
문 앞에 달마존자 계시는데 門前達摩尊
향을 사르며 받드는구나 奉以名香焚
화로연기 부드럽게 아래로 흘러가고 爐煙冉冉去
설악산 고개의 구름 날아 쫓아가네 飛逐雪嶺雲

198 비선대 층층이 깊은 소(飛僊層潭)

경대의 맑은 물 굽어보니 瓊臺俯金潭
부채같은 청봉이 펼쳐졌네 石扇排靑嶂

비선대 생길 때 묘리를 갖추었나　融峙備衆妙
어찌 그 세가 이리도 기이하고 장엄한가　豈惟勢奇壯
명산을 나막신으로 두루 돌아　名山蠟屐遍
처음부터 맘에 들어 신선 사는 곳 상상하네　始愜丹丘想
떨어질 듯한 금강암　欲落金剛巖
놀라 탄식하고 다시 지팡이 잡으오　驚吁更拄杖

199 권금성에 남은 성가퀴(權金殘堞)

산에는 수십 마리 꿩이 있고　雲根數十雉
띠에 얽힌 오래된 터가 남아 있네　帶縈尙餘址
물정이 어두워 속세의 사소한 일로 싸우고　茫昧蠻觸世
권씨와 김씨가 있는지 없는지　有無權金氏
생기고 무너져 쓸쓸히 나무와 돌만 남아있고　成壞空木石
증거는 마침내 산 속 짐승들이오　憑據竟鹿豕
편안함과 위태함 바르게 헤아리기 어려워　安危莽難平
길게 읊조리며 남은 보루 어루만지며 한숨 쉬네　長嘯撫殘壘

200 쓸쓸한 하조대(河趙空臺)

영웅의 기상 세상 선비에게 바라는데 風雲希世士
견식 넓은 이 모두 동쪽으로 가네 觀海亦東走
함께 이 하조대에 임하여 同臨此臺上
어찌 계책을 꾀하지 않는가 有何講畫否
바위 벌인 곳에 도깨비 서 있고 巖排鬼魅立
파도 일어 떨어지자 고래상어 울부짖네 浪輸鯨蛟吼
하늘과 땅 이곳에는 분별이 없고 乾坤此無倪
오래도록 이름 남긴 짝은 길이 생생하구나 寄名偶不朽

동주(東走)-두보 시에 의하며 선비들이 관의 먼지를 털고 출세할 수 있게 된 의미로 사용 하였다.

201 현산에서 달맞이(峴首待月)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작은 산 千年自小山
아주 멀리서 달이 좋아 찾아왔네 萬里來好月
밤에 찾아와 밤에 가지 않으니 來夜非去夜
어찌 존망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寧不感存沒
깊이 생각하니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長懷緩帶風
고개 돌려 타루비를 돌아보네 却顧墮淚碣
신선들에게 물을 수 없어 羣僊不可問
잔 잡고 흰머리 보며 웃음 짓네 把杯哂霜髮

타루비-부사 이상일(인조 22년, 1644년에 7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의 선정비

202 춘암의 화전놀이(春巖賞花)

복사꽃 자두꽃 고을에 만발하지만 爛漫桃李縣
어찌 무릉천 같으랴 何似武陵川
숲을 뚫고 명주 양산 쓰고 화전놀이 가서 穿林皁蓋往
다시 가련함 있음을 들었노라 更聞有可憐
바위의 꽃은 봄의 일종으로 巖葩一種春
물을 바라보며 아름다움 즐기네 臨水弄嬋娟
못 밑의 붉음을 바라보는데 貪看潭底紅
자신도 모르게 바위 위에서 잠을 자는 구나 不覺石上眠

203 무산의 구름과 비(巫山雲雨)

신령한 설악산의 한 자락에서 생겨 靈嶽所抽枝
조각조각 모든 산이 험준하네 片片皆孱顔
멀리 초나라 푸른 하늘 나누어 遙割楚天碧
작은 무산이 되었네 結爲小巫山
나는 구름에 정이 있다면 雲飛若有情
비로 어두워 미인의 머리 잘못 되었네 雨暗失翠鬟
아마도 새벽에 원숭이 울음소리인 듯 猶疑曉猿聲
단풍나무 숲 사이에 분명하지 않네 隱約楓林間

무산(巫山)- 중국 사천성과 호북성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巫山之夢'의 고사인 옛날 초나라 襄王이 꿈에 무산의 여신과 밀회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녀의 밀회를 뜻하는 말.

204 연기가 나무를 가린 녹문(鹿門煙樹)

군 서쪽 가운데 푸릇푸릇한 아름다운 경치 郡西半莽蒼
바라보니 뽕나무와 산뽕나무 무성하네 望中桑柘繁
아득히 먼 곳에 연기 절로 생겨 漠漠自生煙
어둑어둑 저물 새 가까이에서 마을을 바라보네 曖曖相望村
논밭 갈고 곡식 심음에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知有耕耘樂
처자는 탈 없이 잘있네 妻子以安存
가히 유형주를 알겠노라 可知劉荊州
길게 탄식하며 녹문에 감사하오 長嘆謝鹿門

유형주(劉荊州)-유표(劉表)가 형주자사로 있었기 때문에 유표를 유형주라고 부른다

205 지산의 세 가지 뛰어남(芝山三秀)

흰 구름 가장 깊은 곳에 白雲最深處
곳곳에 영초가 돋아났네 遍地生靈草
부드러운 자경을 채취해 오니 採來紫莖柔
이름도 아름답고 맛 또한 좋구나 名佳味亦好
구가부터 세 가지 뛰어남으로 三秀自九歌
먼 옛날 상산에 네 노인 있네 千古有四皓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여운의 이치 浩歌理餘韻
기꺼움과 감개가 외로운 가슴에 가득하네 欣慨滿孤抱

자경(紫莖)-삼대가 자주색인 삼
사호(四皓)-한나라 고조 때 商山에 은거해 살던 네 노인

206 순지의 백경(蓴池百頃)

풀 우거진 못에서 순채를 캘 수 있는데 芳池可採蓴
바닷가에 물결이 조용히 이네 瀲灩海之澨
줄기를 거두니 수많은 가닥이 은빛으로 抽莖萬縷銀
삼위가 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구나 入喉三危露
고상하고 멋있는 부규를 좋아하고 風雅鳧葵興
우연히 맛있는 농어 맛 보네 氣味鱸魚偶
누가 능히 이 맛을 알리오 誰能知此味
한번 맛보니 세속의 구속에서 벗어나네 一嘗解塵組

백경(百頃)-밭백이랑(百亩)의 지적
삼위(三危)-仙藥의 한가지
부규(鳧葵)-순채의 하나

207 태평루의 풍악(太平歌管)

조용한 태평루에서 홀로 거문고 그치고 淸軒捨孤琴
뜰에 양부의 악기를 들여 연주하니 庭納兩部鼓
뜻이 넓어 백리에서도 들려 思廣百里聽
수부에까지 진동하네 震蕩及水府
높은 누각에서 팔풍 불어 樓高八風會
넓은 하늘 많은 신선들 춤을 추오 天闊羣僊舞
큰 물결 시끄러움을 더하며 鯨波助轟鬧

바다 위에 뜬 달 또한 삼키고 토해내네 海月亦呑吐

팔풍(八風)-팔방에서 부는 바람

208 동해신묘에서 제사(海廟香火)

아명의 신궁은 푸른 소나무 숲에 있어 阿明碧松宅
엄숙한 신궁을 숭상하네 儼然棟宇崇
살랑살랑 신령스러운 비 내리고 颯颯神靈雨
푸른 깃발 동쪽에 나타난다 多自翠旗東
떼 지어 나는 구데기 부화하는 폐단이 생기니 牲幣孚肶響
관리의 게으른 몸 용납하랴 寧容吏惰躬
어선은 바다 가운데 섞여 있으니 漁舶交海中
제발 바람 사납게 부지마오 毋使起盲風

아명(阿明)-동해신명(名)

209 죽도의 신선 절구(竹島僊臼)

천지는 두개의 돌을 갈려고 天地兩片磨
하느님은 손을 쉬지 않았구나 化翁不輟手

둥근 돌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圓機無大小
바닷가에 또한 오목한 절구 있네　　海澨亦凹臼
갈기를 다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고　　磨窮海爲陸
형체가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네　　有形孰不朽
마고신선에게 물으니　　借問麻姑僊
또한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오　　亦解此理否

210 청초호의 용갈이(草湖龍耕)

잠용은 변화에 익숙하여　　潛龍變化熟
연못에 밭이 있는 것 같네　　在淵若在田
몸을 보존할 여력이 있어　　存身有餘力
밭갈이 마치니 얼음이 단단히 얼었다　　耕罷氷腹堅
쟁기질 흔적은 강하게 나타나　　犁痕隨闊狹
호수기슭에서 점을 친다　　湖岸占來年
몹시 더운 날 또 비를 내리니　　炎天又行雨
용은 어느 때 쉬는가　　龍兮幾時眠
잠룡(潛龍)-승천할 때를 기다리며 물속에 잠겨 있는 용

211

상운정의 송림(祥雲松林)

상운역은 길이 편안하고	祥雲驛路平
좁은 길에 많은 소나무 가지런하네	夾路萬松整
응당 왕래부터 있어야 하고	種應自徂徠
아름다운 경치가 모령과 통하네	韻若通茅嶺
뜨거운 기운에 몇 사람이나 더위 먹었나	炎塵幾人暍
음기가 많으면 도리어 겨울이 춥네	密陰反冬冷
다시 생각하니 생학이 저녁에 내려오려나	更思笙鶴夕
달과 함께 걸어서 잡념 없이 조용히 가네	携月步虛靜

생학(笙鶴)-주무왕의 태자 晉이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피리 불며 하강하였다는 고사

212

큰 제방의 수양버들(大堤楊柳)

어느 곳에 일찍 봄이 찾아오는가	何處入春早
대제는 질탕하게 노는 길	大堤冶遊途
제방 가에 황금 수양버들 무성하니	堤上鬱金枝
아름다움이 맑게 개인 호수를 더하네	婀娜拂晴湖
산공은 홀로 취하지 않으니	山公不獨醉
악기를 남녀들이 갖추었네	歌管士女俱
습가지에 좇아다니고	歸從習家池
수양버들 언덕에 푸른 말이 매어 있구나	柳岸繫靑駒

산공(山公)-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산도(山濤)

습가지(習家池)-진(晉)나라 산간(山簡)이 양양(襄陽)을 다스렸는데 항상 그곳을 찾아 만취했다는 고사

213 봉정암의 외로운 탑(鳳頂孤塔)

봉정암은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 鳳頂迥出世
비대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돌이네 飛臺萬人石
동으로 부상의 붉은 해를 가리키고 東指扶桑赤
북으로는 봉래산의 흰 봉우리가 인사하네 北挹蓬萊白
크고 넓은 굴껍데기 붙어있고 洪荒蠔著崖
배 메었던 자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繫舟猶有迹
구름 사이 외로운 탑 솟아있어 雲間起孤塔
부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구나 不知何佛力

214 사림사의 깨진 비석(沙林斷碑)

불제자라 일컫는 홍각선사를 頭陀曰弘覺
어찌 도인들 알지 못하겠는가 不知何道者
매월당 또한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梅月亦好奇
돌에 옮겨 베껴 장식했네 石面賁傳寫
예학의 글 솜씨보다 힘차고 瘞鶴筆意活
청해서 글씨를 얻으니 운치가 아름답다 換鵝風流假
위협하여 저버리지 않게 함이 어떠한가 如何刦未灰
조각내 넘어뜨려 거칠 수풀 아래 있네 斷仆荒林下

김시습이 홍각선사의 비를 세웠다. 왕희지의 글자체를 모아 새겼다고 말한다. 東峯爲弘覺立碑。集右軍筆蹟而刻之云。

두타(頭陀)-산이나 들, 그리고 세상을 편력하며 온갖 고행을 인내하는 운산행각의 수행을 말한다.
홍각선사(弘覺禪師)-신라때의 스님.

215 오색령에서 고사리 캐기(西嶺採蕨)

서산에 일찍 불이 나	西山早燒餘
한차례 비에 푸른 고비가 돋아났네	一雨綠薇生
바구니 들고 나물 캐러 가니	持筐于以採
나는 그 이름을 사랑했네	紛吾愛其名
누가 맛이 쓰다고 했는가	誰云此味苦
가히 장부는 충절에 힘쓰시오	可勵丈夫貞
돌아보니 마음이 비리고 썩었으니	願廻腥腐腸
다소 바위와 산봉우리에 정이 있게 하오	稍存巖岫情

216 후진의 고기구경(北津觀魚)

후진에 물고기 종류가 많아	北津鱗介湊
그물과 통발이 많은 배를 따른다	罾罩比千船
고래 새우는 모두 물결과 같이 움직이고	鯨蝦擧波蕩

도마 올려 방어와 연어를 요리하네 登俎用魴鰱
갈대는 사람들이 깃이 갈색이라고 생각하고 蘆人惟羽褐
관주는 오직 좋은 곳을 택하였네 官廚但擇鮮
춘추로 아가위를 훼손하니 싫어하고 春秋譏矢棠
다시는 유연을 즐기지 말라하네 勿復樂流連
관주(官廚)-수령의 음식을 만드는 곳
당(棠)-아가위(산사자-山査子- 산사나무의 열매)
유연(流連)-노는데 팔려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음

217 냉천의 옛집(冷泉故居)

서광이 구봉 아래 있어 祥光九峰下
가을 경치는 노인초이네 秋色老忍草
어떤 인연으로 냉천에서 잔질 하였나 何緣酌冷泉
미인이 있어 분홍 벼를 베고 有美刈紅稻
모름지기 색시공을 아는가 須知色是空
깨끗함과 더러움 두개의 도가 아니네 淨染不二道
관세음보살 어찌 쉽게 얻으랴 觀音豈摩登
나습은 늙어서 깨닫고 돌아갔네 羅什還曉老
옛날에 전하기를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벼를 베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서로 희롱하였는데 관음보살이 여자로 현신하였다고 말한다. 古傳元曉遇一女刈稻于此地。與之相戲。蓋觀音現女身云。
나습(羅什)-인도스님 구마나습

218 검달동의 황폐한 터(黔洞荒墟)

동봉이 뜬구름처럼 돌아다니며 자취를 남겨　東峰雲遊迹
무릇 깊은 숲에서 다하였다　大抵盡窮林
홀로 쳐다보니 이곳이 설악산　孤瞻雪嶽邇
두루 찾아보니 검달동의 깊은 계곡이구나　遍搜黔谷深
고기잡고 나무 하는데 오세라 부르고　漁樵五歲喚
고결한 학덕 만고의 마음이라　氷月萬古心
고비 캐는 무리가 있어야　要之採薇徒
석담을 또한 알아주는 벗이라네　石潭亦知音

219 납호당에서 바다를 바라봄(灄堂望海)

물건이 커야 꽤 볼 수 있고　物大有可觀
해외는 다시 물이 없다　海外無復水
당고를 굉량이라 칭하는데　堂高稱宏量
납호당의 기운은 만리에서 들어오네　灄氣納萬里
천지는 나무뿌리가 드러나　乾坤露根柢
세월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네　日月見端始
돌아보니 큰 자라의 등뼈 아닌가　還疑巨鰲脊
바로 이 집의 난간이네　卽此軒檻是
당고(堂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높이 돋운 부분

220 스님이 찾는 영혈사(靈穴尋僧)

신령한 스님이 이 절에 오래 머물었는데　　神僧所卓錫
인품 모두 신비함이 있네　　風氣團妙有
돌아가는 봉우리에 따라 학이 머물고　　峰廻隨鶴止
샘이 솟고 길에서 호랑이 표호하네　　泉涌經虎吼
동재에서 불경 한 권 들고 읽는데　　東齋貝葉書
태수가 찾아 왔네　　扣玄來太守
팽택에서 높은 자리 능히 할 수 있는데　　能爲彭澤高
원공은 술로 병들지 않는 다오　　遠公不病酒

팽택(彭澤)-진(晋)의 도연명(陶淵明)은 팽택(彭澤)의 수령이 되었으나 관리생활에 염증을 느끼자 80여일 만에 사직한 내용이다.
원공(遠公)-진나라 고승인 慧遠
『三淵集』

김창흡(효종 4년, 1653년~경종 2년, 1722년)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다.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셋째아들이다. 형은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다. 15세에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친명(親命)으로 응시하여, 현종 14년(1673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장에 발을 끊었다.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숙종 7년(1681년)에 김석주(金錫胄)의 천거로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史記』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하여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1696년에 서연관(書筵官)에 초선(抄選)되고, 경종 1년(1721년)집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사화로 절도에 유배된 형 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황(李滉)의 주리설(主理說)과 이이(李珥)의 주기설(主氣說)을 절충하는 형 창협과 같은 경향을 띠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源書院), 덕원의 충곡사(忠谷祠), 울진의 신계사(新溪祠), 양구의 서암사(書巖祠), 강릉의 호해정영

당(湖海亭影堂), 포천의 요산영당(堯山影堂), 한성의 독충당(篤忠堂)에 제향 되었다. 저서 『삼연집』, 『瀋陽日記』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221 관음굴(觀音窟)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맑은 바람에 소리에 우는 소나무 가지 — 蓼蓼松頂振天風
이 세계는 분명 자궁과 통하는 구나 — 此界知應通紫宮
고요한 곳 새소리 골짜기 밑에서 들려오니 — 幽鳥一聲生壑底
온갖 꽃 흩어져 오히려 아득하다 — 杳然猶隔百花叢
서쪽 기슭에 깨끗한 흰 모래 고요히 좋아하여 — 靜愛西崖潔白沙
소나무 뿌리 베개 삼아 노을 속에 누웠다네 — 松根爲枕臥靑霞
벌은 인간 세상에 나를 따르니 — 蜂從下界隨巾履
간간이 내 몸 곁 철쭉꽃을 쪼네 — 間啄身邊躑躅花

『江原道誌』

222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험한 봉이 에워싸도 바다 길은 열렸고 — 屛張萬岫海開門
모래언덕 대에는 묘한 이치가 있네 — 沙阜成臺衆妙存

한장이 돌아갈 때 사흘을 울었다고
지금도 전하는 기록이 남아있네
『강원의 詩文』

漢將廻時三日哭
至今猶記契玄言

223 갈역잡영(葛驛雜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설악산에서 내려온 저 달
초라한 내 사립문 안 비춘다
빛을 받아들임에 어찌 넓고 좁을 가릴까
내 마음엔 이미 아무 찌꺼기도 없는 것을
『三淵集』

月自雪山來
照吾蓬戶裏
容光何闊狹
靈府已無滓

224 갈역잡영(葛驛雜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푸른 개울물 양양히 흘러
물결 따라 마음도 흐뭇하다
소양정 아래에 이르러
곧 곡운천과 합쳐지리라
『三淵集』

碧澗洋洋去
隨波意森然
昭陽亭下到
方合谷雲川

225 비선대제영(飛仙臺題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경대같이 깊은 물을 굽어보니 瓊臺俯金潭
부채같은 청봉이 그곳에 펼쳐졌네 右扇排靑峰
이곳이 생길 때에 묘리를 갖추었던가 融時備衆妙
그 기세가 어찌 그리 기장한가 豈惟勢奇壯

『강원의 시문』

비선대는 설악의 절경으로 이야기를 갖고 있는 풍경이 정겹게 느껴진다. 높은 대에서 굽어보면 맑고 깊은 못에 비친 산봉우리는 부채를 펼쳐 놓은 듯 아름답다. 그 모습은 처음부터 자연의 묘리를 준비한 것 같이 보인다. 못과 산봉우리는 모두 그 기세가 장엄함을 보고 노래하고 있다.

22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숙종어제시(肅宗御製詩)

상쾌하게 올라 남쪽 낙가봉 바라보니 快登南望洛迦峰
바람은 구름 걷어 달빛만 짙구나 風捲纖雲月色濃
관음보살의 원통한 이치 깨닫고 싶은데 欲識圓通大聖理
때로는 파랑새 꽃 물고 사람 맞이하러 오는구나 有時靑鳥含花逢

『江原道誌』

숙종(현종 2년, 1661년~숙종 46년, 1720년)의 이름은 순(焞). 자는 명보(明普)이고 조선의 제19대 왕(1674~1720년 재위)이다. 현종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의 딸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처음 비(妃)는 영돈녕부사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 두 번째 비(妃)는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仁顯王后),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 김주신(金柱臣)의 딸인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667년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74년 8월 즉위했다. 숙종 초기 집권층이었던 남인은 병권의 장악과 서인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어, 허적(許積)을 중심으로 한 탁남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숙종은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외척을 기용하는 한편 서인을 재등용하고자 했다. 숙종 6년(1680년) 복선군(福善君)과 탁남의 영수인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역모했다는 고변이 있자 이를 계기로 남인들을 축출하고 서인들을 등용시켰다. 그러나 서인계열은 남인의 숙청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고, 1689년 희빈 장씨(禧嬪張氏) 소생 왕자(뒤의 경종)의 세자책봉에 반대하다가 다시 남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남인은 이후 정국을 이끌면서 1694년에는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를 도모하려 했다는 고변을 하고 옥사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서인(庶人)으로 폐비한 것을 후회한다는 전지(傳旨)를 내려 소론정권을 성립하게 하고 남인의 다수를 명의죄인(名儀罪人)이라 하여 중앙정계에서 몰아냈다. 정국은 서인 내의 노론·소론 사이에 정권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지면서 노론 일당전제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론·소론 당쟁의 핵심은 희빈 장씨의 처벌문제 및 장씨 소생의 세자와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문제였다. 숙종은 노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한편, 1717년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 이밖에 사육신을 복관시키고, 노산군(魯山君)을 복위시켜 단종(端宗)으로 묘호를 올렸으며, 폐서인(廢庶人)이 되었던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를 복위시켜 민회빈(愍懷嬪)으로 하는 등 왕실의 충역관계(忠逆關係)를 재정립했다. 그리고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명의 은공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존명의리와 북벌론의 기치 아래 사회기강을 단속하는 작업이 행해지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원록璿源錄』·『大明集禮』 등이 간행되고, 『大典續錄』·『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편찬되었다. 능은 명릉(明陵)으로 경기도 고양군 서오릉(西五陵)에 있다. 시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이다.

22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

푸른 바다 한쪽에 층진 봉우리 꽂혔는데	滄溟一面插層峰
소나무, 계수나무, 우거져 자줏빛 녹색 이네	松桂陰陰紫翠濃
난간을 바라보니 규벽 움직이는데	試看欄頭奎璧動
누전의 상방에서 또 만나 뵈네	上房樓殿亦遭逢

『江原道誌』

채팽윤(현종 10년, 1669년~영조 7년, 1731년)의 본관은 평강(平康)이고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은와(恩窩)이다. 숙종 13년(1687년)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뒤 그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호당(湖堂)에 선임된 자들과 승정원에 나아가 시부를 지어 포상을 받았다. 그가 궐내에 노닐 때면 언제나 숙종이 보낸 내시가 뒤따라 다니며 그가 읊은 시를 몰래 베껴 바로 숙종에게 올리게 하리만큼 시명(詩名)을 날렸다. 1691년 세자시강원의 벼슬을 거쳐 1694년 정언(正言)에 있으면서 홍문록에 올랐으나,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주장한 이현령(李玄齡)의 상소에 참여했다 하여 삭제되었다.

경종 2년(1722년) 2월 양양부사로 도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있다. 그 후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지내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로 승지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도승지·대사간을 거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영조 6년(1730년) 병조참판·동지의금부사·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 『희암집』이 있다.

228 위천(渭川)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

진사가 세상을 피해 위천 가에 숨어사는데	上舍幽居住渭濱

대나무 스치는 바람 연꽃 향기 티끌 씻어낸다　　竹風荷氣淨纖塵
습가지보다 다만 숲 동산 좋다 말하니　　習池但道園林好
어찌하면 시선이 되어 주인 노릇할까　　何得詩仙是主人

『江原道誌』

강원도지에 의하면 위천(渭川)은 산골짜기 소(沼)로 맑고 차며 정원처럼 고요하고 적적하다. 윤판서 순(淳)이 일찍이 동쪽에 놀러 왔다가 이곳을 거쳐 돌아가서 재상 조현명에게 말하기를 "설악산 동쪽에 위천의 농가가 있는데 시냇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나무와 측백나무가 우거져 연못이 있는 정원을 보는 듯한 운치가 있다"고 했다.

229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간산(盃山)　　홍봉조(洪鳳祚)

청정한 정토 낙가봉에　　金沙淨界洛伽峰
영왕(寧王-당 현종의 형)의 보배로운 글씨의 먹이 짙구나　　尙有寧王寶墨濃
오색구름 가운데 상서로운 해가 떠오르니　　五色雲中昇瑞日
황하가 하청(河淸-황하의 물이 맑다는 뜻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물)할 즈음에 하물며 다시 만나리　　河淸勝際況重峰

『峴山誌』

홍봉조(숙종 6년, 1680년~영조 36년, 1760년)의 본관(本貫)은 남양(南陽)이고 자(字) 우서(虞瑞), 호(號)는 간산(盃山)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노론(老論)으로 경종 2년(1722년)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온성(穩城)에 유배되었고,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와 이듬해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738년 헌납, 이듬해 부응교, 1740년 집의를 거쳐 1747년 강원도관찰사를 지냈다. 3사(司)의 벼슬을 역임하고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글씨에도 능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230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퇴어자(退漁子) 김진상(金鎭商)

하얗게 센 머리로 해상봉에서 서로 만나니 白首相逢海上峰
꾀꼬리 울고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에 녹음이 짙구나 鶯啼鷰語綠陰濃
어찌 옛 절의 사롱(紗籠-현판에 먼지가 앉지 못 하도록
덮어씌우는 천)있는 것을 알고 誰識古寺紗籠裏
다시 선조의 옛 동료와 더불어 만나리 更與先祖舊侶逢

『峴山誌』

김진상(숙종 10년, 1684년~영조 31년, 1755년)의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이다. 숙종 25년(1699년) 진사가 되고 171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설서·지평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720년 홍문록에 올라 수찬을 지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이조정랑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수찬·필선·부교리 등을 역임하던 중 영조 5년(1729년) 기유처분으로 실시된 탕평책에 반발하여 퇴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환로에 진출하여 1735년 부제학, 1738년 대사성, 1740년 대사헌을 거쳐 1753년 좌참찬에까지 이르렀다. 글씨에 능하여 많은 비문을 썼다. 문집으로 『퇴어당유고』가 전한다.

231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응재(凝齋) 박태관(朴泰觀)

높은 대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첫 눈에 놀랐는데 高臺東望眼初驚
푸른 바닷물 아득히 퍼져 잔잔하구나 積水滄茫萬里平
어느 곳이 하늘이고 어느 곳이 땅인지 不識乾坤何處卷
해와 달은 늘 이곳에서 뜨고 지는구나 常看日月此中生

고요한 고깃배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데　　漁船靜似浮孤島
눈처럼 흩어지는 파도는 큰 고래싸움임을 알겠네　　雪浪應知鬪巨鯨
천년토록 어찌 저 바닷물 더하고 덜어졌으리　　千古那曾有增損
한없이 넓고 넓어 이름 짓기 어렵구나　　洋洋浩浩儘難名

『江原道誌』

박태관(1678~1719년)의 본관은 반남이고 자는 士賓, 호는 응재(凝齋)이다. 부친의 상을 치른 후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연과 벗하였다. 만년에는 김창흡과 지기가 되어 설악산을 찾기도 하였다. 김창흡이 편집해 준 『응재고(凝齋稿)』가 있다.

232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정식(鄭拭)

석벽 오르면서 나귀 발굽 벗겨졌는데　　登登石壁脫驢蹄
수많은 산봉우리와 시내도 건넜네　　踰盡千岑或越溪
날리는 꽃잎 봄바람이 한 바탕 지나고 나니　　花雨東風曾一過
돌아가려해도 낙엽에 길 묻혀 갈길 몰라 한다오　　却因黃葉路依迷

서풍이 비 뿌려 앞산을 지나가니　　西風吹雨過前山
골짜기 나무 가을 빛 들어 비단 잎 아롱지네　　洞樹秋光錦葉斑
깃든 새 숲에 들어 바윗길 어둑하니　　宿鳥投林岩路暝
지팡이 짚고 스님 흰구름 밟고 돌아온다오　　一笻僧踏白雲還

걸어서 성 동쪽 취원대 오르니　　步上城東聚遠臺
들복숭아 산살구 온성에 활짝 폈네　　野桃山杏滿城開
세상 어지러워 일 많은 때　　世間擾擾方多事
봄빛 보고 묻노라 오기는 오는지를　　爲問春光有底來

『江原道誌』

정식(숙종 9년, 1683년~영조 22년, 1746년)의 자(字)는 경보(敬甫), 호(號)는 명암(明菴)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형(大亨)의 손자이다. 『진양속지』 권2 「인물조」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고, 젊어서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지조가 맑고 고상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 풍류를 즐겼다.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었다.

233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양와(養窩) 이세귀(李世龜)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면	行盡長松沙岸東
깨끗하고 맑은 곳에 바람도 없네	澄淸瀟泗竟無風
호수는 맑아서 한 폭의 그림 같고	明湖一曲眞如畵
설악의 천봉이 거울 속에 잠겼네	雪嶽千峰倒鏡中
금강산의 만이천봉을 두루 돌아서	歷遍金剛萬二岫
명사 천리 해당화 길 밝고서 왔네	海棠千里踏鳴沙
영랑 호반에 서니 시계가 열려	永郎湖畔初開眼
술동이 장단 치며 호호가를 부른다	手拍瓊壺浩浩歌

『太白의 詩文』

이세귀(인조 24년, 1646년~숙종 26년, 1700년)의 자는 수옹(壽翁)이고, 호는 양와(養窩)이다. 이항복의 증손자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숙종 11년(1685년) 음보로 경양도 찰방을 지냈고, 1695년 추천으로 예산 현감, 충주 목사 엮임 후에 사직하였다. 아들 光佐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홍주의 예학성원에 제향 되었다.

234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창해(楊滄海)가 절구 한 수를 지음.

푸르고 푸른 안개 누각은 삼천 길이나 되고　　青青霧閣三千丈
희고 흰 구름 창은 일만 리 하늘과 같구나　　白白雲窓萬里天
바라보다 뗏목을 잡으나 사람 보이지 않으니　　望望乘槎人不見
알지 못할 곳에서 누선(樓船)이 뜨네　　不知何處泛樓船
『五山說林草藁』, 車天輅撰

235 소림암(小林庵)

이수관(李壽觀)

절은 붉은 깁의 운이 다하는 해에 지어져　　寺刱紅羅運訖年
홀로 중화(中華)의 대명의 하늘을 받들었네　　獨擎中華大明天
만약 전겸익(전겸익-명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절에
대해서 듣게 되면　　若敎錢牧聞玆寺
어찌 소식의 적벽선를 부러워했겠는가,　　何羨蘇仙赤壁船
『峴山誌』

이수관(숙종 26년, 1700년~미상)의 본관은 여주이고 자는 광보(光甫)이다. 영조 22년(1746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언 재직 시절 전지(銓地)의 폐단에 대해 경계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영조 26년(1750년)에 장령이 되어서는 장릉참봉(章陵參奉) 홍천보(洪天普)·충청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 원필규(元弼揆)를 파면시켰으며, 헌관(獻官)으로 수향례(受香禮)에 참석하지 않은 훈련원정(訓鍊院正) 이재형(李再馨)을 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 후 집의·헌납·사간을 역임하였다.

23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손재(損齋) 조재호(趙載浩)

송제마을은 바다 위에 뜬 구름 옆에 쑥 나오고	松提突風海雲傍
굽어보니 창해는 매우 묘묘하네	俯視滄溟極渺茫
산줄기 하나는 설악을 따르고	山出一支從雪嶽
하늘 열고 땅을 갈라 금강에 견주었네	天開別地較金剛
문 앞에 가까운 어룡굴	門前近接魚龍窟
다락 밖에는 일월광을 태평스럽게 대하네	樓外平臨日月光
발밑 찬 기운은 만리에 통하고	脚下冷氣通萬里
배는 가벼워 붕새와 더불어 날고자 한다	舟輕歎與大鵬翔

『峴山誌』

조재호(숙종 28년, 1702년~영조 38년, 1762년)의 본관은 풍양(豊壤)이고 자는 경대(景大), 호는 손재(損齋)이다. 동생이 진종(眞宗: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의 비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영조 15년(1739년)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추천으로 세자시강원에 등용되어 서연(書筵)에 참여했다. 1744년 홍산현감(鴻山縣監)으로 재직 중 춘당대문과에 급제했고, 승지로 특진한 뒤 지돈녕부사·경상도관찰사·이조판서·우빈객을 역임했다. 1754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음해 세자책봉 문제를 정리한 〈천의소감 闡義昭鑑〉 편찬의 도제조(都提調)를 겸했다. 1762년 장헌세자의 폐위문제가 대두되자, 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역모 혐의가 씌워져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1775년 신원되었다. 저서로 『손재집』이 있다

23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도계(陶溪) 김상성(金尙星)

달이 불을 밝혀 수정궁에서 나오고	金盆擎出水晶宮

만리 물결 백 길이나 우뚝 섰네　萬里洪濤百丈碓
우주는 은하수 밖으로 통하고　宇宙氣通銀漢外
산하의 그림자는 고운빛깔 무지개 가운데서 반사되네　山河影射彩覽中
봉래산, 영주산에 겨룰 산이 없고　蓬瀛底處無邊
오나라, 초나라 사이에 바람 잘날 없네　吳楚之間不盡風
하늘이 맑으니 햇살 밝고　要識大明今快覩
음험한 기운 쓸어내어 천공을 넓게 하리라　氣陰掃廓荷天公

『峴山誌』

김상성(숙종 29년, 1703년~영조 31년, 1755년)의 본관은 강릉이고 자는 사정(士精), 호는 도계(陶溪)·손곡(損谷)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으며, 13세 때 영평(永平)의 〈금수정기 金水亭記〉를 지어 신동이라는 평을 들었다. 경종 3년(1723년)에 진사가 되었고, 그 해 정시문과에 장원한 뒤 사서가 되었으며, 이어서 영조 3년(1727년)에 병조좌랑이 된 뒤 정언·부수찬·부교리·헌납·응교를 거쳐, 1734년 부평부사(富平府使)가 되었다. 1736년에는 대사간이 되었고, 이어서 승지·대사성을 거쳐 1744년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형조참판·대사헌과 병조·이조·공조의 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752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예조판서·좌빈객·판의금부사를 거쳐 1755년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238

해사(海槎) 조엄(趙曮)

준하주 청견사에서 호곡 남용익의 시를 차운함 (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

해 돋는 동쪽이라 청견사란 절이 있어　日東淸見寺
문을 열면 만 리의 파도를 대하게 되네　門對萬里波
스님이 입정(入定)하자 흰 구름 떠오르고　僧定白雲出
누각(樓閣)이 높으니 나는 새를 내려보누나　樓高飛鳥過
낙산사(洛山寺)도 이처럼 그리면 좋겠구만　洛山同畫可
한국(韓國)의 사신은 시를 많이 부쳤다오　韓使寄詩多
풍광의 바깥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欲說風光外

언어가 다른지라 어찌하리오 殊音奈爾何

남호곡이 일찍이 이 절을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다 비했으므로 스님들이 이 말에 인하여 낙산사의 그림을 그려 보내달라고 하기에 경련(頸聯)에서 언급하였다.南壺谷曾以此寺比之襄陽洛山僧仍是語乞畫洛山故頸聯及之)

『海槎日記』

조엄(숙종 45년, 1719년~정조 1년, 1777년)의 본관은 풍양(豊壤)이고 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이다. 이조판서 상경(商絅)의 아들이다. 영조 14년(1738년)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음보로 내시교관(內侍敎官)·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衛司侍直)을 지내고, 1752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정언이 되었다. 1758년에 이례적인 승진으로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대사헌·부제학·승지·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763년 통신정사(通信正使)로서 일본에 다녀온 뒤 대사간·한성부우윤, 예조·공조의 참판 및 공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유배 중에 아들 진관(鎭寬)의 호소에 의하여 죽음을 면하고 김해로 귀양이 옮겨졌으나 실의와 불만 끝에 이듬해 병사하였다.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의 종자를 가져오고 그 보장법(保藏法)과 재배법을 아울러 보급하였다. 정조 18년(1794년)좌의정 김이소(金履素)·평안도안핵어사(平安道按覈御史) 이상황(李相璜)의 노력으로 신원되고, 순조 14년(1814년)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통신사로서 일본을 내왕하며 견문한 바를 적은 『해사일기』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239 낙산사(洛山寺)

삼산재(三山齋) 김이안(金履安)

노래하며 십 일 만에 큰 해변에 와보니 十日行吟大海邊
낙산사 밖은 하늘마저 끝났네 洛山寺外更无天
이 땅 좁은 줄 여기서 알겠고 年來漸覺區中隘
바람 타고 신선이나 찾아가 보리 便欲乘風訪列仙

『金剛山詩集』 下篇

김이안(경종 2년, 1722년~정조 15년, 1791년)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이다.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노론(老論)을 대표하는 김창협(金昌協)의 증손자이자 김원행(金元行)의 아들로 정조대 산림으로 우대되었던 인물이다. 영조 38년(1762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경연관(經筵官)에 기용되었다. 충주목사·지평·보덕·찬선·좨주(祭酒)를 지냈다. 저서에 『儀禮經傳記疑』, 『啓蒙記疑』, 『삼산재집』 12권이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열흘 동안 즐거이 노래하며 여행하여 낙산의 큰 해변에 와보니 낙산의 바다가 하늘과 닿아 보며 세상이 좁게 느껴진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바다가 한 없이 넓고 망망대해로 알았는데 바다와 하늘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 이 땅이 좁게 느껴지며 이글을 썼다. 예부터 낙산은 신선이 산다는 세계가 있다는 유래를 듣고 그곳으로 신선을 찾아가고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240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이기상(李箕翔)

뜰에 국화는 서리 내린 뒤 피어나지만　庭前猶開霜後枝
세상의 존몰을 알기 참으로 어렸네　世間存沒誰何如
세월 보낸 지 삼 년이 넘어가고　光陰美去餘三記
사람 일 생각하면 옛날과 다르구나　人事懷來異昔時
선계인 이곳을 앞서 지나간 사람들 그리워　仙界自憐前度客
단청 기둥에 옛 시들 많이도 걸렸구나　畵樑重陽舊題詩
바다풍월에 어찌 뜻이 없을까 만은　海上風月無何裡
옥같은 시들을 어느 누가 다시 보여줄까　瓊韻他年和更誰

『峴山誌』

241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이조(李肇)

낙산사에 정모(旌旄-관가의 깃발) 잠시 세워두고　旌麾暫住梵王宮
끝 없는 바다 저 웅장함이 눈에 들어오네　眼界滄茫時仕雄
절은 거북이 등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듯　寺在浮沉鰲岫山
유객은 풍류 속에 노니는 듯 가물가물하구나　人遊縹渺蜃樓中
부상에 떠오르는 해 하늘 높이 솟았고　扶桑瑞色三竿回
푸른 바다 파돗소리는 만개 구멍에서 뿜어내는 바람이네　滄海波聲萬竅風
현산은 예전에도 이와 같았을까　峴山昔時何似此
아이들이 취산공(위나라 죽림칠현의 한사람)에게 손뼉친다오　兒童拍手醉山公

『峴山誌』

242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

바닷가 푸르게 떠있는 다섯 봉우리　海上蒼然三兩峰
쓸모없는 자신은 황혼에 나무 그늘 어둡구나　蹇驢暮踏樹陰濃
배나무에 달빛 가득 머무는 꽃 그림자 흔드니　月滿梨亭花影亂
아마도 신선들 밤에 만나는 모양이구나　依俙仙侶夜相逢

『江原道誌』

남한조(영조 20년, 1744년~순조 9년, 1809년)의 본관 의령(宜寧)이고, 자 종백(宗伯), 호 손재(損齋)이다. 9세에 고아가 되어 외삼촌인 김진동(金鎭東)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한번 들으면 모두 외웠다고 한다. 초야에 은둔하여 문경의 선유동(仙遊洞)에 옥하정(玉霞亭)을 지어놓고 후진교육에 힘썼다. 여러 번 도백(道伯)과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 『손재문집』이 있다.

243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취봉문 절강의 물결 마주하고	鷲峰門對浙江潮
비껴 흘러 돌다리 띄우려 하네	直欲橫流泛石橋
밤은 고요하고 달 밝은데 수님 들어와 자리 정하고	夜靜月明僧入定
하늘로 솟은 측백나무 그림자만 하늘거리는 구나	諸天柏樹影陰陰

『江原道誌』

정조(영조 28년, 1752년~정조 24년, 1800년)의 이름은 산(祘)이고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이다. 영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장헌세자(莊獻世子 : 思悼世子)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영조 35년(1759년) 세손(世孫)에 책봉되고, 1762년 세자인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뒤 동궁으로 불렸으며, 1764년 2월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을 경원과 여산으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賜死)했다. 홍국영이 세도를 부리며 권력을 남용하자 조신들의 탄핵에 따라 1779년 9월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전리(田里)로 돌려보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어제봉안(御製奉安)의 장소로 마련했던 규장각(奎章閣)을 9월에 준공, 역대 왕의 문적들을 수집해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서적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거두어 수장하게 했다. 규장각에 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 등을 각신(閣臣)으로 선발해 후한 녹봉을 주고 연구에 몰두하도록 했으며, 정조 자신도 이들과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고 시정(時政)의 득실과 학문을 논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실시했다. 1800년 6월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은 뒤, 유언에 따라 현륭원 동쪽 언덕에 묻고 건릉(健陵)이라 했다. 1821년 효의왕후가 죽자 현륭원 서쪽 언덕으로 옮겨 합장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244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도계(陶溪) 윤홍규(尹弘圭)

물결 출렁이는 관음굴 蕩漾觀音窟
아득히 높은 의상대 岩嶢義相臺
기이한 소문과 괴이한 일 많아 異聞多弔詭
이야기한들 몇 사람이나 믿을까 說與幾人乖

『江原道誌』

윤홍규(영조 36년, 1760년~순조 26년, 1826년)의 본관은 반남이고 초명은 두기(斗基), 자는 의보(毅甫), 호는 도계(陶溪)이다. 정조 16년(1792년) 생원(生員)이 되고, 학행으로 천거되어 의선공감가감역(擬繕工監假監役)을 지내다가 1800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이어 익찬(翊贊)이 되었다. 순조 14년(1814년) 창녕현감을 거쳐 1818년 고성군수(高城郡守)에 이르렀다. 평소 학문에 전심하여 주자서(朱子書)를 비롯, 성리학과 역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예학(禮學)에도 밝아 사람들이 그를 '관서부자(關西夫子)'라 하였다. 또한, 시문에도 뛰어나 고성군수(高城郡守)로 있을 때 지은 『楓嶽紀行詩』는 유려한 문체를 구사한 작품이다. 저서에 『喪禮笏記』, 『陶溪遺稿』가 있다.

245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전승지(前承旨) 이휘진(李彙晉)

차진 하늘의 큰 물결은 오산 봉우리 정상에 있고 黏天鯨浪頂鰲峰
천상의 기운은 길게 어조(御藻)에 모이네 元氣長合御藻濃
거룩한 덕은 천년을 견디며 눈물 흘려 사모하고 聖德千年堪涕慕
외로운 신하가 이 날 친히 임금 뵈었네 孤臣當日況親逢
푸른 하늘 동해의 울연한 봉 諸天藍蔚海東峰

옛날과 다름없는 사롱중인(紗籠中人)은 상서로운 빛이 짙었네　依舊紗籠瑞彩濃
꿈결에 난화(欄花)는 대저 어느 곳에서 피고　夢裏欄花何處是
서룡(西龍)과 청작(靑雀)은 날 어두워 만나기 어렵구나　西飛靑雀香難逢
『峴山誌』
이휘진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태래(泰來)이다. 숙종 34년(1708년) 식년시(式年試) 乙科3 합격하였다.

24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이조좌랑　임순(任珣)

양양 동쪽에는 창해가 있고　峴峀之東滄海渨
청산은 단지 나무 사이에 둘러 쌓았네　靑山繚繞祇樹間
사또 행차 깃발 푸른 소나무에 나부끼고　繡旗影落蒼松轉
뿔피리 소리는 푸른 물결 가운데서 도네　畵閣聲殷碧浪回
섬돌의 대나무와 뜰의 배나무는 옛날과 다름없이 좋고　砌竹庭梨依舊好
그윽한 전각의 기문들은 남아 전하네　幽欄曲檻記曾來
속세의 형역(마음이 육체생활의 노예가 되어 사역당하는 일)에
진실로 웃음 나고　風塵形役眞堪笑
끝내 양쪽 귀밑머리에 서리 내렸네　嬴得繁霜兩鬢皚
『峴山誌』
임순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경진(景珍)이다. 영조(英祖) 18년(1742년) 임술(壬戌) 정시(庭試)합격하였고, 관직은 현감(縣監),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24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수소재(守素齋) 강헌규(姜獻奎)

공들여 쌓은 탑 만장의 봉우리 만들어 功塔層成萬丈峰
지금까지 은혜 드러나 바다가 하늘에 짙구나 至今恩露海天濃
보잘 것 없는 신하 남몰래 만수무강 축원하니 微臣暗祝無疆籙
천년동안 태평하여 요순시절 만나시리 熙洽千年堯舜逢

『江原道誌』

강헌규(정조 21년, 1797년~철종 11년, 1860년)의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경인(景仁)·경수(景受), 호는 수소재(守素齋)·농려(農廬)·주일당(酒一堂)이다. 강필효(姜必孝)의 3남 중 1남으로 태어났으며, 1797년에 대사간 강필로(姜必魯)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26세 때 순조 22년(1822년)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32위로 합격하였다. 저서는 『농려만록(農廬謾錄』 이 있는데, 서간문(書簡文), 제문(祭文), 행장(行狀) 등이 실려 있고, 필사본 3책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48 낙산사루(洛山寺樓)

호고와(好古窩) 유휘문(柳徽文)

첩첩 산길을 넘고 넘어 行行路遇萬重山
바닷가 구름 속의 높은 누에 올랐네 第一高樓雲海間
웃으며 장공을 활보하듯 一笑長空飛步闊
사람이 사는 곳을 알 수가 없네 不知何處是人寰

『金剛山詩集』 下篇

류휘문(영조 49년, 1773년~순조 32년, 1832년)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공회(公晦), 호는 호고와(好古窩)이다. 류장원(柳長源)에게 도학을 배웠고 영남의 학자들과 교유(交遊)

하면서 일생을 학문을 닦고 고산서당(高山書堂)과 여강(廬江)·구계(龜溪)·황산(黃山)·고운(孤雲) 등 여러 서당에서 후진만을 양성하였고 벼슬에 뜻이 없었다. 1817년에는 중국을 여행하였고 기행문으로 서유록『西遊錄』을 썼다. 저서로는 『周易經典通編』, 『律呂新書』, 『滄浪問答』등이 있다.

관찰사와 암행어사가 벼슬을 천거하였지만 끝내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진양성에만 힘썼다. 중국을 여행할 정도로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영남에서 관동의 낙산사까지 여행하면서 깊고 깊은 산과 길을 넘고 또 넘어 낙산사에 도착하여 바닷가 구름 위에 높이 솟은 루에 올라 보니 말로만 듣던 신선세계 같다. 그곳에서 너털웃음을 치며 장공을 거닐듯 걸어보니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신선의 세계로 느끼면서 이 시를 썼다.

249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량(幢梁) 최계옹(崔啓翁)

부상에서 처음 해가 절을 비추니	扶桑初日射梵宮
붉은 비단 하늘에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가득 찼네	紅錦漲天氣勢雄
십도삼산의 안개 밖	十島三山烟霧外
신선과 천제가 사는 궁궐에는 없는 가운데 있네	銀垓金窟有無中
경예(숫고래와 암고래)가 거세게 물결쳐 천 층의 파도 일으키고	鯨鯢噴薄千層浪
갈매기 백로를 만리풍으로 흔들어 날려 보내네	鷗鷺搖揚萬里風
동해의 기이한 광경 이처럼 승경이 되고	東海奇觀此爲勝
고황(高皇)의 고하우열의 판정은 대개 공이라 말하네	高皇題品盖云公

『峴山誌』

최계옹의 본관은 삭녕(朔寧)이고 자는 내심(乃心), 호는 동량(幢梁)이다. 한성부 우윤 최행(崔荇)이 손자로, 숙종 7년(168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설서(設書)를 지냈다. 1695년 지평으로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그 후 정언을 지냈다. 1704년 장령으로서 앞서 단종이 폐위될 때 이를 지지한 대신들의 관작 추탈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1706년 보덕으로 기용되고 집의·사간을 역임하였으며, 홍문관에 등용되

었다가 1710년 과격한 상소를 하여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숙종 40년(1714년) 6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250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부사 안경운(安慶運)

세월이 헛되이 지나 공직 가운데 있었고	光陰虛度簿書中
이 승경에 있게 되니 다행 아니겠는가	何幸名區此會同
관음굴에 빠르게 임하려니 몸에 깃이 나려하고	仙窟快臨身欲羽
불대(佛坮)에 높이 오르니 겨드랑이에 바람이 이네	佛坮高陟腋生風
초운(楚雲)은 골짜기를 막아 신의 발자취 남았고	楚雲鎖峽留神躅
복희씨 기뻐해서 진성(辰星)을 침범한 하늘에 오르네	羲馭侵最上太空
경관 감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돌아갈 마음에	淸賞未闌歸意動
인간은 가히 머리가 센 노인을 비웃을 만하네	人間可笑白頭翁

『峴山誌』

안경운의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선여(善餘)이다. 영조 1년(1725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영조 14년(1738년) 1월 전라북도 고부군수에 부임하였지만 1738년 10월에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하여 감금되었다. 영조 16년(1740년) 9월 조동점(趙東漸)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였으며, 영조 19년(1743년) 3월에 사직(司直)에 임명되어 제주를 떠났다. 1743년 연희각(延曦閣) 동쪽 과수원 안에 있는 귤림당(橘林堂)을 중수하였다. 또 조정에 진휼곡 5천 석을 요청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공급하였고, 1743년에 운주당(運籌堂)을 중수하였다. 영조 21년(1745년) 정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251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유숭(俞崇)

명사십리 둔덕을 모두 밟아보니 踏盡明沙十里堤
지는 해는 이미 현산 서쪽에 걸렸네 斜陽已掛峴山西
어두우니 소나무 숲 멀리서 종소리 들리고 鍾聲暝出松林迴
설악의 가을 경치 바닷물 아래까지 이어졌네 嶽色秋連海水低
손에 이끌린 고승은 깊고 험한 골짜기를 찾으며 手拏高僧尋絕壑
지팡이에 의지한 게으른 나그네 위태롭게 사다리 밟네 笻扶倦客躡危梯
난간에 의지하여 홀연히 꿈에 드니 물가 섬에 다다르니 憑欄忽夢臨皐島
학이 날아와 내 울음 앗아 가네 縞衣翩然f掠我啼

『峴山誌』

유숭의 본관은 창원이고, 자는 원지(元之)이다. 숙종 35년(1699년) 중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정언, 지평 등을 역임했다.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승지가 되었으나, 신임사화로 강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도승지가 되었다. 경기도관찰사 때 정미환국이 일어나 소론이 등용되자 이를 반대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충청도 소모사로 기용되고, 뒤에 공조 참판에 이르렀다. 시조 1수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252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이중협(李重協)

부용(芙蓉) 한 가지가 거울 속에 드려져 있고 芙蓉一朶鏡中垂
이곳에 와서 조화의 기이함 보네 到此方看造化奇
청조(靑鳥)는 날아 진불(관세음보살)을 보고 靑鳥飛來眞佛見
천자(물총새의 깃털로 장식한 天子의 기)의 소식 노승은 아네 翠華消息老僧知
삼나무 소나무는 촘촘하여 보주(寶珠)를 간직한 탑 지키고 杉松密護藏珠塔

함지(咸池)에서 목욕한 해 난간에 임하였네　　欄檻平臨浴日池
이화대로 향해 올라서니　　爲向梨花坮上立
부상(扶桑)의 그림자가 동쪽 끝 가지에 있네　　扶桑影接最東枝
『峴山誌』

이중협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화중(和仲)이다.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과 공조참판을 하였다.

253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부사　　강일규(姜一珪)

팔경 중에 제일 이름 난 곳　　八景中間第一名
이화정의 나무는 빛나고 빈 정자만 있네　　梨花樹光有虛亭
난간에 기대어 홀연히 산하가 다했음을 깨닫고　　憑檻忽覺山河盡
베개 베고 누워 평안히 해와 달이 뜨는 것 보면 노래하네　　歌枕平看日月生
물에 빠져 흐릿해져서 청조는 끊어지고　　弱水微茫靑鳥斷
빈산에 취화 가벼움 상상하네　　空山想像翠華經
도의 기운이 가까이 있는 것을 스님은 알지 못하고　　眉間道氣僧知否
영음한 새로운 시는 밤에 들어서야 이루어지네　　靈陰新詩八夜成
『峴山誌』

강일규의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백옥(伯玉)이다. 증광시에 합격하여 참의를 지냈다.

254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송파(松坡) 이해창(李海昌)

휘감아 도는 산마다 산 빛 밝은데 宛轉羣山氣色新
구름사이로 솟는 달은 바퀴보다 크구나 雲間湧月大於輪
하늘 높고 물 쌓여 서로 이어진 곳 天高水積相連處
유리처럼 파랗고 은처럼 희네 碧似琉璃白似銀

『江原道誌』

이해창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계하(季夏), 호는 송파(松坡)이다. 소과 1624년(갑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30년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와 사인(舍人)을 역임하였다.

255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봉안사 마애(磨厓) 권예(權裔)

천길 위태로운 산등성이에 한 길이 나 있고 千仞危崗一道橫
성궁은 멀고멀어 삼청(도교, 옥청, 태청, 상청을 삼천이라함)을 눌렀네
仙宮縹渺壓三淸
바람과 안개 가득하여 두루미 깊고 먼 선굴에서 헤매고 風煙鴻洞迷仙窟
소나무 그늘은 창망하여 화성(좋게 고침)을 가리네 松陰滄茫閱化成
물밑 어룡은 마땅히 글자를 아는지 水底魚龍應識字
물결 위 암석은 제명(題名) 있구나 波頭岩石却題名
늙은이 나이 팔십에 마음은 오히려 굳세고 老年八十心猶健
동해의 바닷소리 만고에 끊이지 않네 不廢東溟萬古聲

『峴山誌』

256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운초(雲樵) 백영수(白榮洙)

멀리 보이는 큰 파도 하늘 구름 속에 잠겨 極目長波蘸碧雲
하늘모습 바다 색깔 그 모습이 그 모습 天容海色杳難分
천년석굴에 돌아온 혼 방울져 떨어지고 千年石窟還魂落
오진 석가여래만이 밤낮으로 듣고 있네 惟有金仙日夜聞
『江原道誌』

백영수(1811~1892년)의 본관은 수원이고 자는 경소, 호는 雲樵이다. 都承旨 白仁英의 후예로 憲宗 때 武科출신으로 康翎縣監 등 외직을 오래 거치고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雲樵漫錄이 있다.

257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소하(小荷) 조성하(趙成夏)

낙산사에 비 뿌리는데 落山寺裏雨蕭蕭
불경소리만 쓸쓸히 울리는 구나 貝葉傳經轉寂廖
가을 풀 뜰에 가득 스님 보이지 않는데 秋草滿庭僧不見
누구 꽂아 놓았는지 향불만 타네 誰將一炷佛香燒
『江原道誌』

자비심 발한 곳 쌍죽(雙竹)이 솟고 慈心發處湧雙竹
법력으로 구슬 두 개 거두었네 法方收時藏二珠
분명 정령(精靈)이 있다면 知是精靈應自在
절 쇠잔해지데는 보시(報施)는 없을까 寺殘堪惜捨施無

『江原道誌』

조성하(헌종 11년, 1845년~고종 18년, 1881년)의 본관은 풍양(豊壤)이고 자는 순소(舜韶), 호는 소하(小荷)이다. 병조판서 병준(秉駿)의 아들로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의 친정 조카이다. 철종 12년(1861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1865년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이후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민비세력과 결탁, 대원군 실각 후 1874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876년 지경연사(知經筵事)로 특탁(特擢)되고 이어 공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세자시강원좌부빈객(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 되었다. 1879년 이조판서, 이어 판의금부사에 임명되고 1881년 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다. 저서로 『金剛山記』가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산사는 비가 오면 적막하다. 비오는 낙산사 법당에 불경소리 울리는데 쓸쓸하고 뜰에는 가을 풀이 가득하여 더욱 외로워 보이는데 스님은 보이지 않는고 법당에 향불만 피어오르는 모습이 허무하여 표현하였다.

두 번째 수는 낙산의 오랜 역사와 유래인 관음사의 친견, 쌍죽의 모습, 수정염주는 모두 불교의 성지인 깨달음의 공간이다. 하지만 조선조 말기 불교가 힘을 잃어 쇠잔해져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표현하였다.

258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김희대(金熙大)

바람에 파도 소리 소나무 스치는데　　風濤聲在古松澗
산은 절을 감싸고 바다는 산을 둘렀구나　　山擁琳宮海繞山
곧 바로 이화정에 올라가 앉으니　　直上梨花亭上坐
스님은 이곳에서 일출 볼 수 있다하네　　僧言日出此邊看

『江原道誌』

259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은(東隱) 안병두(安柄斗)

산 깊고 나무는 늙고 석문은 높은데 山深樹老石門高
안개 노을 모두 밟고 나니 취흥이 좋구나 踏盡煙霞醉興豪
탑 있는 외로운 암자에 부처 환영 보이고 塔靜孤菴看影佛
우레 울리는 굴에 층층이 파도 부딪친다 雷鳴孤窟激層濤
구름 머문 산굴에 석양 비치는데 저녁 종소리 울리고 雲峀斜陽鍾晩落
소나무 가지 끝에 밝은 달 학과 함께 솟는다 松簾明月鶴同皐羽
국화꽃 피는 가을에 다시 찾겠다 말하니 更尋黃菊前期問
웃으며 답하는 선녀 탁주 올리는구나 笑答香娥進濁醪

『江原道誌』

안병두(1881~1927년)의 자는 극중(極中)이고 호(號)는 동은(東隱)이다. 산수를 좋아 했다.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의 문하에서 즐겨 수학하였으며 윤병기(尹炳夔)가 행장을 지었다.

260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국은(菊隱) 윤병기(尹炳夔)

반은 푸른 바다 반은 산 半占滄海半占山
속세도 편안하니 모두 다 한가롭다 穩得塵寰萬境閒
바위 가에 흰 갈매기 학과 더불어 노닐고 岩近白鷗同鶴侶
불전 앞 푸른 대나무 소나무 잎 스친다 殿寒靑竹拂松顔
나그네는 부처님 찾아와 천천히 거닐고 客來佛日遲遲界
스님은 바람 맞으며 늘어진 소나무 사이에 서있구나 僧在仙風落落間
예부터 이 곳 올라온 호걸들 經古登臨豪傑輩

몇이나 취하여 돌아갈 줄 몰랐던가　　幾多沈醉不知還

『江原道誌』

윤병기(생몰년 미상)의 호(號)는 국은(菊隱)이다. 소석(小石) 병표(炳彪)의 아우로 천성이 글 쓰고 글 읽는 것을 좋아하여 한번 책을 보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학문을 익혔으며 향산(嚮山) 이만도(李晩燾)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261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사류(四柳)　장영수(張永銖)

우뚝 솟은 넝쿨 엉킨 소나무에 돌문 하나　　立立松蘿石一門
불쑥 솟아 편안히 앉아있는 달마존자　　突然安坐達摩尊
낙산사의 신이 아끼고 보호하는 천년 땅　　洛神慳護千年地
끝없는 바다 무량하여 아득히 넘치는 구나　　恒海無量萬里痕
탑 근처의 새는 허물어진 기와 구멍 엿보는데　　塔近鳥窺頹片穴
골짜기 아래층은 석양 받으며 물동이 기울이네　　澗低僧倒夕陽盆
봉래산은 바람 부는 어느 산에 있는가　　蓬萊山在風何處
다섯 잔 향기로운 차에 양 겨드랑이 번쩍이네　　五椀香茶兩腋掀

『江原道誌』

장영수의 호(號)는 사류(四柳)이다.

262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

오봉산의 서기가 낙산에 모여　　五峰佳氣赴茲山
큰 바다 둘러서 사찰을 지키네　　大海三千護寺還
고루에는 종소리요 승방에는 염불소리　　鍾動高樓僧唱偈
구름 위의 붉은 해는 낙산사를 비추는구나　　昇霏紅日莅東寰

『襄州誌』

강필효(영조 40년, 1764년~헌종 14년, 1848년)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초명은 세환(世煥), 자는 중순(仲順), 호는 해은(海隱) 또는 법은(法隱)이다. 윤증(尹拯)의 제자인 강찬(姜鑽)과 윤광소(尹光紹)를 스승으로 섬겼다. 순조 3년(1803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순릉참봉(順陵參奉), 순조 14년(1814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헌종 8년(1842년)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에 임명되었다가 곧 충청도도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통정대부에 승진,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문집 『해은유고』가 있다.

주자학으로 조예가 있는 강필효가 낙산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자세히 표현하였다. 낙산의 오봉산이 있다. 오봉산은 높지 않지만 동해와 설악의 정기가 서린 곳으로 그 기운이 오봉산에 모여 낙산사를 보호하며 지키는 수호신이다. 고루에 종소리는 은은히 들려오는데 승방의 스님의 염불소리는 고요하다. 이런 아침 예불 중에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는데 장관이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263 태평루(太平樓)

김예몽(金禮蒙)

조촐함이야 감히 범공(范公) 앞에 바랄 건가　　澄淸敢望范公前
유람함도 젊은 때라야 가능하네　　游賞猶能及壯年

그림자는 현산관도(峴山官道)에 달을 따르고, 影逐峴山宮道月
꿈에는 화악어로(華岳御爐)의 연기를 찾네 夢尋華岳御爐煙
은택이 깊어 보답하고파도 갚을 땅 없음이 슬프고 思深欲報嗟無地
책임이 중하니 감당하기 어려워 하늘에 부끄럽네 任重難堪愧有天
좋은 지경에 와서 흥취가 넘쳐나니 佳景逢來饒逸興
미친 흥취가 광천(狂泉) 물을 마신 듯하네 興狂還似飮狂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김예몽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判書)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문명(文名)이 있었다. 아들 김덕원(金德源)과 김성원(金性源)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264 선유담(仙遊潭), 낙산사(洛山寺)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낙산사는 양양군(襄陽郡)에서 20리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관음굴(觀音窟)이 그 곁에 있다. 바다 위로 두 바위에 걸터앉혀서 허공을 질러 절을 일으켰는데, 의상대사(義相大師)가 창건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중수하였다. 어수정(御水井)과 선유담이 있다.

간이(簡易)의 낙산사(洛山寺) 시는 다음과 같다. 그중 한 수는

265.

누관과 해일의 그 기특한 경치 예전에 듣고 樓觀海日昔聞奇
중추의 좋은 시절에 구경 날짜를 잡았다 月得仲秋一歲期
이곳에서 이때에 궂은비를 만났으니 此地此時逢苦雨
하늘이 나를 영동에 머물러 시를 짓게 하누나 天公停我嶺東詩

하였고, 또 한 수는

266.

계속 내리던 비 갓 개인 때를 타서 剛因積雨得新晴
동대로 걸어 나가 달 뜨기를 기다리네 步出東臺遲月生
십육일 밤에야 달이 꽉 찬 것을 보겠으니 二八眞看規正滿
간밤엔 그릇 몇 사람의 심정을 괴롭혔을까 前宵枉惱幾人情
하였으며, 또 한 수는
아득한 하늘가 달이 질 무렵에 玉宇迢迢落月東
만경창파 갑자기 붉은빛 번쩍이네 滄波萬頃忽飜紅
꿈틀거리는 온갖 괴물들 불을 머금고 蜿蜿百怪皆銜火
밝은 달을 황도 가운데 전송하누나 送出金輪黃道中
하였다.

시남(市南)의 '낙산사에서 상인(上人)에게 주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67.

바닷가에 위치한 그윽한 관음굴 海上觀音窟
천년토록 내려온 외로운 낙산사 千年洛寺孤
한퇴지(韓退之)가 벗한 태전(太顚)은 전생의 그대요 顚公前世爾
한퇴지 그는 바로 후생의 나라네 韓子後生吾
불경 소린 밤새도록 놀라게 하고 禪梵通宵驚
바다의 파도는 새벽에 몰려오네 溟濤入曉驅
서로 일출을 보기로 약속했으니 相期看日出
하늘이 맑은지 여부 물어보노라 天色問晴無

명재(明齋)의 낙산사 시는 다음과 같다.

268.

세도(世道)의 소장 성쇠를 아랑곳하지 않는데 不管道消長
사람의 희비를 어떻게 알겠는가 何知人樂憂
천하를 경영할 큰 뜻을 且將弧矢志

애오라지 해산의 유람에 쓰노라　聊付海山遊
첫여름이라 청화한 시절　首夏淸和節
배꽃 만발한 낙산사더라　梨花洛寺樓
바다는 만리나 아스라한데　滄溟正萬里
해 돋으니 채색 구름 걷히네　日出彩雲收

택당(澤堂)의 낙산사 시는 다음과 같다. 그중 한 수는

269.

누가 용공 불러내어 눈을 뿌리게 하였노　誰喚龍公撒玉塵
머리 돌려 보니 선궁(仙宮)의 광경 새롭구나　琳宮光景轉頭新
바다는 은백색 거품을 흠뻑 뒤집어쓰고　滄溟倒接銀濤沫
사찰은 하얀 치자나무 꽃으로 단장하였네　祇樹粧成白蕚春
세모에 올라와 보니 역시 그대로 승지　歲暮登臨仍勝地
타향에서 만나 뵌 분은 바로 집안 어른　天涯會合是宗人
돌아가는 길에 도롱이 젖는 일 걱정치 않고　不愁歸路簑衣濕
술동이 앞에 한가한 몸으로 서로 대하누나　且鬪樽前漫浪身
이날 집안 어른을 만났는데, 큰 눈이 내렸다.

하였고, 또 한 수는

270.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도 숨어 살고 싶은 뜻을 가졌던지　至人亦有滄洲趣
신령스런 그 자취를 동해안에 남겼구나　靈迹曾留海岸東
한 손길 자비를 베풀려 동방에 왔으니　一手慈悲奔鰈域
웅장한 사찰 천추토록 하늘 높이 솟았네　千秋臺殿壓鴻濛
범종이 울리자 스님들 발우 공양 서두르고　鯨魚自吼僧催鉢
보배 기운 떠오르니 벽에서 무지개 뿜었네　寶氣常騰壁吐虹
백화 왕자가 지은 찬을 본받으려고 하여도　欲效白華王子讚
솜씨 겨룰 만한 기어 없는 게 부끄럽네　愧無奇語與爭工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일명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 하는데, 곧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이안(李安)이 이에 대해서 찬을 지었는데, 글 솜씨가 무척 기이하였다.

하였으며, 또 한 수는

271.

안견의 수묵화와 임억령(林億齡)의 시편은 安堅水墨石川詩
천재토록 가람의 두 보화로 꼽혔네 千載伽藍兩絕奇
병화로 인해 승려들마저 모두 떠나 劫火併將僧寶去
명구가 마치 상전벽해처럼 변했네 名區便覺壑舟移
향운과 법우 다시 볼 수 없는 속에 香雲法雨虛無裏
깨진 기와 무너진 담 절터 희미하네 解瓦頹垣指點疑
다행히도 성종(成宗) 임금의 글 한 편 남아 賴得宣陵宸翰在
신령스런 빛 여전히 절을 감싸 주네 神光依舊擁山祇
하였다.

곤륜(昆侖)의 '북진(北津)을 건너 낙산사로 향하면서'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72.

배 한 척을 물 한복판에 띄워 나가니 孤舟泛出水中央
석양 속에 일렁이는 물결 아득하여라 落日煙濤更淼茫
구름 속 종소리 낙산사에서 들려오고 雲裏疎鍾聞洛寺
성 가 우뚝한 나무 양양에서 보이네 城邊獨樹見襄陽
밝은 달 만물을 비치듯 마음 명쾌한데 心將水月通羣照
손으로 은하수 거머잡고 팔방 굽어본다 手攬星河俯八荒
취한 뒤에 물귀신을 질타하였더니 醉後馮夷隨叱咤
파도 맑고 바람 자서 흥 더욱 높아라 波明風定興逾長

또 '낙산사에 이르러'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73.

낙산사 아래에다 배를 매어 놓고 洛山寺下繫孤蓬
이리저리 산책하며 바람을 쐬노라 散步微吟老樹風
달 뜨려고 하니 사찰은 고요하고 松月欲生僧梵靜
물새 갓 잠드니 물가가 텅 빈 듯 水禽初定渚煙空

시야는 반짝이는 은하수 밖에서 끝나고　眼窮星漢沖融外
몸은 맑은 하늘 가운데 우뚝 서 있노라　身御雲霄沆瀣中
이로부터 몸에 날개가 생겨서　便欲從玆生羽翰
만리 길 영주 봉래에 표연히 이르고 싶네　飄然萬里到瀛蓬

또 '낙산사에서 달밤에'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74.

오봉 대전은 연하 밖에 우뚝 솟았는데　五峯臺殿出煙氣
시야가 부상에서 끝나도록 구름 보이지 않네　目斷扶桑不見雲
하늘과 바다 서로 포용하니 원기가 합하고　天海相涵元氣合
달과 별 높은 데서 비치니 천지가 나뉘네　月星高照兩儀分
독룡은 염불 소리 들으며 못 속에 엎드렸고　毒龍聽梵淵中伏
황새가 바람 속에 우는 소리는 나무 끝에서 들리네　巢鸛呼風樹杪聞
뛰어난 지경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니　絕境頓敎心地淨
인간 세상 벗어나고 싶은 생각 간절하구나　向來深欲遁人羣

또 '일출(日出)을 보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75.

바다 공기 서늘하고 하늘빛 새로운데　海氣蒼凉天氣新
물결 갑자기 붉은 용의 비늘 이루네　波瀾忽作赤龍鱗
높고 낮은 하늘과 땅은 온갖 형상 드러내고　兩儀高下開羣象
만국의 광명 천지는 밝은 태양을 우러러본다　萬國光明仰一輪
조금도 사심 없이 우주를 임하여야　直以無私臨宇宙
가는 티끌까지도 두루 비칠 수 있느니　方能遍照及纖塵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기우는 건 가상하나　獨憐葵藿傾陽意
뜬구름이 맑은 하늘 가릴까 그것이 염려　長恐浮雲翳紫旻

또 '낙산 앞바다에 뱃놀이를 하면서'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76.

한 필의 하얀 베처럼 생긴 은하수	銀河一疋練
푸른 하늘 위에 높이 걸려 있네	挂之靑天上
맑은 빛 푸른 바다에 닿아서	澄輝接滄海
억만 길을 거꾸로 드리워졌네	倒垂億千丈
바다의 넓음을 보지 않고서야	不覩溟渤寬
어떻게 천지의 광대함을 알겠나	焉知天地廣
은하수에 이르도록 두둥실 배를 띄우고	浮舟犯牛斗
망망대해를 깔보며 노를 젓노라	鼓櫂凌泱漭
신선의 궁궐에 가까이 다가가면	冉冉仙闕逼
천상의 음악 소리 요란하게 들리리	嘈嘈天樂響
석양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디맑고	夕氣霽空廓
동서남북은 광활하게 툭 트였네	四維倏褰敞
별들은 구슬을 꿴 듯 연해 있고	星辰若連珠
북두칠성은 손바닥 편 듯 벌여 있네	玉衡如布掌
바다 속의 푸르디푸른 하늘빛	蒼蒼太虛色
아래로 온갖 형상을 포용하였네	上下涵羣象
회오리바람 파도를 일으키니	層颸鼓駭浪
바닷물 어지럽게 움직이네	水怪紛儻怳
하늘의 높음을 알지 못하고서	不知天宇高
문득 바람 타고 오르고 싶구나	便欲乘風往
몸은 가벼워 맑은 공기를 어거하고	身輕御沆瀣
기운은 쾌활하여 진세를 벗어난다	氣逸超塵壤
우습구나 진세 속에 있는 사람	却笑區內人
공연히 신선 될 생각 갖는 것	徒結方壺想
그 뉘라서 대지를 다 밟아 보겠는가	誰將蹈大方
장자처럼 구경이나 하길 원하네	願同莊生賞

○ 관음굴(觀音窟) 시는 다음과 같다.

277.

바다가 밤낮으로 파도를 쳐서	滄溟日夜翻

바위에 그만 붕괴된 곳도 생겼구나　石齒有崩漉
말하지 말아다오 두 구멍 사이에　不謂空嵌間
허공을 가로질러 집을 지었다고　憑虛架楹屋
격렬한 파도 산 밑둥을 때려 대니　層濤蹙山根
여향이 골짜기를 진동하네　餘響振崖谷
흡사하다 산 위서 나는 우렛소리　有如山上雷
번개를 동반하고 우르르 하는 듯　隱隱驅電轂
처마에까지 하얀 물방울 뿜으니　當檐歊素沫
부처의 휘장은 빨아 놓은 것 같네　佛幌如渥沐
물어보겠노라 그 어느 시대에　借問何代刱
누구를 위해서 이 집을 지었던고　爲誰勤板築
대사가 옛날에 영험을 나타내고　大士昔現靈
진짜 몸은 인도로 변환해 갔다네　眞軀幻西竺
새 감실엔 황금빛이 찬란한데　新龕煥金碧
불상의 기상 장엄하고 엄숙하네　寶像氣莊肅
노승은 향 피우고 꿇어앉아서　焚香老僧跪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복을 비네　拜叩祈淨福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遂令愚蒙者
분주히 금옥을 바치게 하네　奔走捐金玉
이교는 정도를 파괴하고　異敎壞正道
자비는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慈悲惑氓俗
길을 틔우고 구멍을 뚫어서　疏鑿及澗竇
극치의 토목 공사를 베풀었구나　人工窮土木
사람들은 모두 허탄한 말을 즐기나　人皆樂誕說
나만은 그 허황된 것을 비웃노라　我獨嗤荒瀆
승려들은 이 이치 까마득히 모르니　僧徒昧斯理
원컨대 이 말로써 권면하누나　願以此相勗

○ 낙가사(洛伽寺) 시는 다음과 같다.

278.

자라 등에 얹힌 여러 산의 주변에　鰲背諸山若箇邊

전조의 누관들 몇 번이나 변천되었나　　前朝樓觀幾桑田
바위엔 관음상 나타나 있고　　通神石現觀音像
복을 비는 글은 세조 연간에 전했네　　薦福書傳世祖年
하늘가 나는 새는 아스라이 가고　　天際飛禽疑莽渺
뜰에 늘어선 잣나무들 선정에 든 듯　　庭中列柏摠安禪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두 변환하는데　　細推萬物都成幻
어찌 구구하게 신선 배울 필요 있겠나　　何用區區學衆仙

시남(市南)의 선유담(仙遊潭) 시는 다음과 같다.

279.

선유담 위에는 눈발 갓 걷히고　　仙遊潭上雪初收
십 리의 물가엔 옥수와 경림 빽빽하네　　樹瓊林十里洲
귀양 온 신하 원행의 괴로움 망각하고　　忘却逐臣行邁苦
이 몸 바로 선유를 하는가 의심하노라　　自疑身世是仙遊

택당의 선유담 시는 다음과 같다.

280.

푸른 바다 서쪽 해안엔 다시 호수와 산　　滄溟西岸更湖山
경도의 누대가 한눈에 싹 들어오네　　瓊島樓臺一望間
속인들의 발걸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未許俗蹤飛渡便
듣자 하니 신선들만 한가하게 왕래한다오　　却聞仙客往來閑
소나무와 돌은 모두 윤기를 머금었고　　松寒石瘦俱含潤
나는 구름과 새는 물에 비쳐 얼룩덜룩　　鳥渡雲移盡作斑
최고의 운치로는 난주 타고 철적 불어　　最好蘭舟橫鐵篴
밤중에 깊이 잠든 용 깨우는 일이리라　　夜深驚破睡龍慳

간이(簡易)의 선유담 시는 다음과 같다. 그중 한 수는

281.

바다 빛 못 빛이 언덕 하나로 나누어졌는데　　海色潭光隔一陂

비바람 몰아쳐도 변함없는 푸른 유리 세계이네　　無風雨改碧琉璃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선유하는 날　　安能直使仙遊日
크고 작은 못을 모두 내왕하는 일　　來往纔同大小池

하였고, 또 한 수는

282.

선유담 위에서 호올로 노닐 때　　仙遊潭上獨遊時
새 날고 구름 떠가는 속에 술 한 잔 마시네　　鳥度雲移把酒巵
한두 마리 백구 나를 알아본 듯이　　一兩白鷗如識我
부침 왕래를 일부러 더디게 하누나　　沈浮來去故依遲

명재(明齋)의 '선유담에서 간성 군수(杆城郡守)와 작별하면서 주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283.

소나무 밑에 마주 앉으니 정신 상쾌한데　　長松對坐覺神濃
인간사 어찌 이곳서 만날 줄 예기했으랴　　人事寧期此地逢
도원에 대한 말을 들으니 거듭 감개하나　　聽說桃源重感慨
이 걸음 종용하지 못한 것 도리어 부끄럽네　　此行還愧未從容

간성 군수 어른이 나를 위해 양양 오색의 명승지를 설명하고 그곳에 와서 살도록 권하였으며, 또 지나는 길에 찾아 달라고 하였는데 바빠서 들르지 못하였다.

『林下筆記』 卷之三十七, 蓬萊秘書

이유원(순조 14년, 1814년~고종 25, 1888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경춘(景春), 호는 귤산(橘山)·묵농(默農)이다. 부친은 이조판서 계조(啓朝)이다. 헌종 7년(1841년) 정시문과에 급제, 검열·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종초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좌의정이 되었으나, 고종 2년(1865년)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서(隸書)에 뛰어났다. 저서로 『嘉梧藁略』·『橘山文稿』·『林下筆記』 등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284 비선대제영(飛仙臺題詠)

송달헌

신선이 날은 지 천년 된 오랜 된 대가 있어　千載飛仙有古臺
지금은 시선이 신선과 내려왔네　詩仙今自降仙來
계곡의 급류는 눈빛 같이 내리고　春石急泉飜雪下
숲 속으로 뚫린 길 구름을 만났네　穿林微 接雲開
해 저무는 산에서 시구를 찾고　暮山題葉成詩句
국화향기 술잔에 번져오는 구나　殘菊留香入酒盃
수레를 세운 채 돌아감을 잊으니　頓忘歸去停車坐
갈가마귀 울음소리 메아리 지네　一陣啼鴉返照回

『雪嶽雅集』

양양의 유림들이 비선대에 모여 지은 글을 모은 시집에서 인용하였다. 신선이 날아갔다고 하여 비선대라고 하였다. 1916년의 작품으로 오래된 대가 있어 그곳에 모여 시연을 베풀며 시로 화답하였다. 대 앞의 계곡은 높고 좁아 물결이 무척 빠르다. 계곡의 급류로 물경의 포말은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고, 그 모습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높은 비선대 숲 속 길에 구름이 내려와 있고, 해 저무는 산에서 시로 화답하니 국화주를 마시며 집에 돌아갈 것을 잊고 자연과 함께 하며 보내는데 갈까마귀 울음소리는 시회의 흥취를 돕는 것을 보고 표현하였다.

285 비선대제영(飛仙臺題詠)

남강　최구택

와선대 위에 있는 비선대에서　臥仙臺上飛仙臺
신선의 자취 찾아 나그네가 또 왔네　晩踏仙蹤客又來

단풍 물든 산봉우리 마다 불상이 서있는 듯　　紅樹層邊岩佛立
백운과 유수가 골짜기와 하늘이 이어졌네　　白雲流水洞天開
시와 같은 경지에도 가구가 없어　　詩眞到境無佳句
술로 시름 잊고자 술잔 드네　　酒可消愁有此盃
속세의 영화를 잊을 수 없음인지　　塵世浮榮終不忘
막대를 돌이켜 돌아갈 길 더듬네　　一節還覓路飜回
『강원의 시문』

오늘도 나그네는 와선대 위의 비선대에서 신선의 자취 찾고 싶어 찾아왔는데 그곳은 단풍으로 물든 계곡과 산봉우리는 불상이 서 있는 듯 기장하다. 백운과 유수가 골짜기와 하늘로 이어져 있다. 경색의 지경이지만 좋은 시구가 떠오르지 않아 시름을 입고자 술을 마신다. 속세의 영화를 잊을 수 없어 신선의 자취만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286 비선대제영(飛仙臺題詠)

노병익

비선대 천석은 그대로인데　　層潭泉石尙留臺
신선은 어찌하여 가고 다시 오+지 않는가　　何事飛仙去不來
숲 속의 단풍 밑에는 나그네 앉아　　林下霜客停客座
동천의 큰 나무 아래서 사람을 기다리네　　洞天雲樹待人開
산천에 천년고찰 신흥사가 있어　　新興山水千年寺
선비 모여 가을에 술잔 기울이네　　適會文章九月盃
신선의 자취를 따르지 못한 채　　庭遇仙蹤追未及
물가에서 달이 지도록 글을 읊다 돌아가리라　　臨流盡月浪吟回
『강원의 시문』

비선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전설에 나오는 신선을 찾아가지만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 나그네는 숲 속에 앉아 기다리다 이곳에 천년 고찰 신흥사가 있어 선비들 모여 시연에서 술을 마신다. 신선의 자취를 따르지는 못하고 물가에서 달이 다하도록 시를 읊다 돌아가는 신회를 표현하였다.

287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

큰 들녘 동쪽 끝에 바다 해를 보고 (大野東頭看海月)

큰 들녘 동쪽 끝에 바다 해를 보고, 大海東頭看海日
긴 숲 일면에 강 하늘이 보이네 長林一面見江天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 江原道 襄陽都護府

강희맹(세종 6년, 1424년~성종 14년, 1483년)의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무위자(無爲子)이고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지돈녕부사 석덕(碩德)의 아들로, 세종 29년(1447년) 18세에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했고, 단종 1년(1453년) 예조정랑이 되었다. 세조 1년(1455년)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었고, 예조참의·이조참의를 거쳐 1463년 진헌부사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1473년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 판중추부사·이조참판·판돈녕부사·우찬성을 거쳐 1482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예종실록』을 편찬했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사서삼경의 언해, 성종 때는 『동문선』·『동국여지승람』·『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서례』 편찬에 참여했다. 당시 골계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村談解頤』가 있다. 그밖에 서거정이 편찬한 유고집 『사숙재집』 17권이 있다.

288 학무정(鶴舞亭)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둥근 돌멩이에 절로 정자 서 있는데 團團石塊自我亭
학이 옆으로 날아와 한 물가에 앉네 有鶴橫來水一汀
벽은 추풍에 서 있으니 성긴 그림자 붉고 壁立秋風疎影赤
밭은 야월 맞으니 옛 흔적 푸르네 田影夜月舊痕靑
나는 신선 소식은 결국 기억하기 어렵고 飛仙消息終難記
옥 같은 학의 맑은 소리 어렴풋이 들리는 듯 하네 戛玉淸音怳似聽
내가 티끌 옷깃 헤치고 소나무 아래 앉으니 披我塵衿松下坐
이 마음 갑자기 깨우쳐 술이 깨네 此心頓覺醉餘醒

『梅谷遺稿』

오윤환(1872~1946년)선생은 『양주지』에 의하면 호는 매곡(梅谷) 자는 성빈(聖彬)이며 상도문리 오씨 문중의 불세출 한학자이시다. 세칭 오학자로 통하며 한시의 대호, 경학의 대가로서 추종할 분이 없다. 성격이 준엄하며 무언의 敎로서 훈도하여 많은 수제자를 냈다. 終日終夜 不解冠하고 단정히 꿇어 앉아서 敎導하셔서 인격자를 교육하시고 3 · 1독립 만세에 참가하여 笞刑을 받은 애국자로 기록하고 있다. 또 한 양양향교지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깊이 궁리하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에서 제자교육에만 힘썼으며 효성도 지극하였다. 3 · 1독립만세운동에 제자들과 참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곤혹을 치렀으며 削髮令과 창씨개명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 후 학무정을 건립하여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론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289 신흥사에서 놀다(遊神興寺)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천 년의 범우 난간에 붉게 칠했으니　千年梵宇畵欄紅
가벼운 신발로 쌍쌍이 동으로부터 오네　輕屐雙雙儘自東
관리와 백성 같이 즐김 오늘날 알겠고　官民同樂知今日
유교와 불교 통하여 행하니 또한 고풍이라네　儒佛通行亦古風
바위에 꽃 도리어 웃으니 봄 믿음이 없고　巖花還笑春無信
언덕에 풀 한갓 기대고 있으니 비의 공이 있다네　岸草徒憑雨有功
태현경의 참된 뜻 알려고 하니　欲識玄經眞個意
능소를 보니 이치가 온전히 비어있네　折看能所理全空
『梅谷遺稿』

달 서쪽 봉우리에 떠 그림자 작은데　月在西峯影隱微
술 잔 대하지만 봄 옷 전당잡힐 필요 없다네　對樽不必典春衣
용은 옛 바리때에 숨으니 구름이 젖었고　龍藏古鉢曇雲濕
학은 어느 산으로 갔기에 석장이 날으는가　鶴去何山錫杖飛
천성을 쫓아 시를 말하니 세속의 태도 아니고　率性言詩非俗態
마음 고요히 하여 사물 관찰하니 모두 참된 기미있네　靜心觀物摠眞機
태수가 소요함은 오늘 저녁 인데　逍遙五馬維今夕
사랑스런 명승지로 보기 드문 곳이라네　爲愛名區見所稀
『梅谷遺稿』

290 계조암(繼祖菴)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한가한 스님한테 듣고 이 땅에 머물렀으니　聞道閑僧此地捿
다니다 찾은 한 지름길, 그 지름길 가지런하지 않구나　行尋一逕逕難齊
고을 깊으니 남은 꽃받침 봄 지났는데도 있고　洞深餘萼經春在
산 고요하니 기이한 새 하루 종일 울어대네　山靜奇禽終日啼

늙은 회나무 맑은 그늘지니 사람들 마주앉아 술 들고　老檜淸陰人對酌
높은 대는 두어 길이라 돌사다리 이루었네　高臺數仞石成梯
궁벽한 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 말하지 말라　莫言僻處無佳景
이로부터 관동이 관서만 못하지 않다네　自是關東不下西
『梅谷遺稿』

291 비선대(飛仙臺)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신선이 눕고 신선이 나는 대 있으니　仙臥仙飛只有臺
고을 하늘 고요하고 일 만 구름 떠 있구나　洞天寥廓萬雲開
절벽에 우는 샘 걸렸으니 흰 눈 뿜어내고　壁掛鳴泉噴白雪
지름길엔 묵은 비 인연되니 푸른 이끼 미끄럽네　蹊緣宿雨滑蒼苔
바둑 두었으니 쇠잔한 바둑판 남아있고　落來棊橘餘殘局
바다와 뽕나무 다 꺾었으니 몇 겁회나 되었는가　閱盡滄桑幾劫灰
풍류 끝나지 않았으니 어느 때 또 할까　風流未了何時又
강성 5월 매화 핀 때 기다려 모이려네　留待江城五月梅
『梅谷遺稿』

292 상복동 화회(上福洞花會)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시 짓고 노는 데 곳곳마다 있으나 나는 지금 처음인데　詩遊在在我今初
이 즐거움의 인연은 학업이 남음이 있다네　此樂徒緣業有餘
천리의 큰 길이라 마음은 천리마에 나가고　千里垣程心赴驥
십년의 공부 바다에 빠지니 꼬리가 고기처럼 도네　十年學海尾回魚
아름다운 자리 단란하니 새로 돋은 풀 빽빽하고　嘉席團欒新草密
맑은 그늘 천천히 춤추니 옛 솔 성기네　淸陰宛轉古松疎
가령 밝은 경치를 묘사하려 한다면　如令模得昭然景
늙은 돌 납작한 머리에다 특히 크게 써야 한다네　老石扁頭特大書
『梅谷遺稿』

293 의상대에서 놀다. 6월28일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의상대가 오봉의 머리에 우뚝 섰는데　一臺屹立五峰頭
신선의 발자취 밟으며 이르니 십주에 가깝네　躡到仙踪近十洲
시상은 수중에서 밝은 달 떠 오름이고　詩想水中明月出
세정은 하늘 밖 흰 구름이 떠 있음이네　世情天外白雲浮
서방 금은 불을 두려워 하니 때는 역년을 맞이했고　庚金畏火時迎曆
낮에 차 끓이는 연기 나니 손님이 누각에서 내려오니　午茗和煙客下樓
청한한 우리들의 흥취 알려고 한다면　欲識淸閑吾輩趣
모래톱에서 기(機)를 잊은 갈매기한테 물어보라　問諸沙上忘機鷗
『梅谷遺稿』

294 밤에 낙산사에서 읊조리며 6월28일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바다 안개에 산 남기 일어 밤 아직 맑지 않은데 海霧山嵐夜未淸
뽕나무 밑에서 자며 나의 인생 깨우쳤네 宿來桑下覺吾生
니우(泥牛)는 달 물고 어느 곳에 머물렀는가 泥牛含月留何處
불조는 숲에서 우니 정이 있는 듯 하구나 佛鳥啼林似有情
만흥한 시편은 두자미 같고 漫興詩篇同子美
스스로 거문고와 술 즐기니 도연명이라네 自娛琴酒是淵明
천옹은 나의 배회하는 뜻 혐의하는데 天翁嫌我徜徉意
때문에 처마 끝으로 보내니 새벽에 빗소리 들리네 故送詹端曉雨聲

『梅谷遺稿』

295 낙산 김춘훤의 회근(回巹) 운에 차운하며(敬次金樂汕春萱回巹韻)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백년 동안의 아름다운 날 또 이제 돌아오니 百年佳日又今回
수놓은 장막에다 구름병풍 치니 얼굴빛 좋구나 繡帳雲屛好面開
미나리 나물 새로 나니 향기 수저에 가득하고 堇菜生新香滿節
복숭아꽃 옛날 그대로지만 그림자 잔에 비취네 桃花依舊影侵盃
신상의 덧없는 영화는 혹시 바랄수도 있지만 身上浮榮猶或也
인간의 이런 경사는 아마도 어렵다네 人間此慶盖難哉
난초 뜰에선 응당 한 없는 수명 누리다 축하하는데 蘭庭應祝無疆壽
빛난 붉은 마음이 옥대에 비취네 炳若丹心照玉臺

『梅谷遺稿』

296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신흥도중 4월12일 여러 손님과 함께 동행하며 (神興途中 四月十二日)

짐짓 등나무 넝쿨 뚫고 고을로 들어가니 故穿藤蘿入洞天
구불구불한 길이라 소매 서로 맞닿네 逶迤行處袂相連
바람부는 절벽엔 가벼이 안개나고 引風絕壁輕生霧
눈 뿜어내는 벼랑엔 멀리 개천이 걸려있네 噴雪層崖遠掛川
영계가 사람을 허여하니 눈 앞이 확 트이고 靈界許人'開眼矚
세속의 행장에 나는 부끄러우니 티끌먼지 가져옴이네 俗裝愧我浥塵烟
종루엔 천고토록 단청이 있으니 鍾樓千古丹靑在
현판액자에 이름 쓴 이 누가 제일 먼저인가 懸額題名孰最先

『梅谷遺稿』

297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신흥사에 도착하여(到神興寺)

극락의 강은 깊고 보전은 열렸는데 極樂江深寶殿開
남풍부는 4월에 객과 같이 온다네 南風四月客同來
맑은 경쇠 한 소리는 조굴에 들리고 淸磬一聲通祖窟
흰 구름은 천년 동안 선대를 호위한다네 白雲千載護仙臺
마음이 맑은 경계 따르니 능히 도를 이루고 心從淨界能成道
시는 이름난 구역에 이르니 각각 재주 다 발휘하네 詩到名區各盡才
낮에 차 한잔 먹고 행장을 꾸리니 午茶纔罷因裝屐
꽃다운 나무 짙은 그늘엔 길은 더욱 돌아났네 芳樹濃陰路轉回

『梅谷遺稿』

298 계조암에 올라서(上繼祖庵)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굴에다 운사께서 작은 암자 지었으니 有竇雲師結小庵
돌 문 한 면에 바로 열린 곳이 남쪽이라네 石門一面正開南
홀처럼 기형으로 섰으니 산은 몇 십개나 되는가 笏立奇形山幾十
상전은 지난 오랜시간동안 옮겼으나 바다는 桑移往劫海應三
세 번 응했네
스님이 염주 돌림은 가끔 염불하는 것이고 道釋環珠時念佛
나루의 아낙네 장막 치고서 아들 낳기 비네 津娥施幛願生
참된 인연은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볼만 한데 眞緣到此多眞
종이에 새 시 적으니 푸른 쪽 물감으로 갈겨쓰네 翰出新詩剪碧藍

『梅谷遺稿』

299 신흥사에서 밤에 읊조리며 (下神寺夜吟)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옛 절엔 천년동안 신성함 일어나니 古寺千年神以興
봄 끝에 지팡이에 나막신 신고 억지로 올라보았네 春餘笻屐强臨登
산은 속객 혐의하니 바람소리 괴롭히고 山嫌俗客風聲惱
하늘은 노는 사람 보내니 달 빛 맑구나 天送遊人月色澄
연 잎 향기 속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이는 부처이고 蓮葉香中閑坐佛
솔 꽃 깊은 곳엔 혼자 돌아오는 스님이라네 松花深處獨歸僧
가슴에 쌓인 부생의 번뇌 다 씻어 버리니 胸襟滌盡浮生累
누가알까 이 공간에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誰識斯間理所能

『梅谷遺稿』

300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비선대에 올라 4월13일
(上飛仙臺 四月十三日)

신선이 날고 신선이 눕기를 옛날 언제부터 했는가 仙飛仙臥昔何年
날면 비선이고 누우면 와선 이라네 飛是飛仙臥臥仙
외로운 학은 두 날개로 적벽강 지나가고 孤鶴雙翎過赤壁
신령스런 지초 아홉 잎 단정에 빼어났네 靈芝九葉秀丹田
붉은 이끼에 글자 무치니 사람들 느낌이 많고 赬苔字沒人多感
은 폭포 소리차니 손님은 잠 못 이루네 銀瀑聲寒客未眠
새로 시 한수 지으려 길가다 앉았는데 欲寫新詩行處坐
대 위에 흰 구름 떠가니 흥취 유연하구나 白雲臺上興悠然
『梅谷遺稿』

301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선대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仙臺歸路)

선대의 거리 십리이나 숭조 동안의 거리도 못 되는데 仙臺十里不崇朝
많이 팔아 주었더니 돌아올때도 부름 당하네 饒賞歸時返見招
술 좋아하여 잠시 산 아래 주점에서 기울이고 好酒俄傾山下店
기이한 암석을 다시 절 앞 다리에서 가리키네 奇巖更指寺前橋
숲 꾀꼬리 손님 보내는 소리 도리어 껄끄럽고 林鶯送客聲還澁
보리밭의 제비는 사람만나 이야기함이 교만하구나 麥鷰逢人語欲驕
그윽히 생각하니 정자와 이별은 다른날 일인데 暗想離亭他日事
한번 채찍드니 버들주며 멀리멀리 가는구나 一鞭贈柳去遙遙
『梅谷遺稿』

302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을축년 4월 2일 석교리에 있는 초은재(樵隱齋) 화회(花會)에서 읊으며 (石橋里樵隱齋 花會吟 乙丑四月二日)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남으로 와 문명을 향하니 南來笻屐向文明
사물에 응해 서로 보니 모두 마음으로 들어오네 應物相看摠入情
시냇가 풀은 새벽 비 맞아 점점 생기나고 澗草漸生晨雨態
바위에 꽃이 어찌 밤 비 소리를 두려워 하겠는가 巖花豈怕夜風聲
한 봄에 술 들며 읊조리니 때 오히려 늦음감 있고 一春觴詠時猶晩
천년동안 거문고 뜯으며 노래하니 덕이 가볍지 않다네 千載絃歌德不輕
티끌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려 하는데 欲把塵心淸洗出
서쪽 들엔 석천이 울고 있구나 郊西惟有石泉鳴

『梅谷遺稿』

303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4월 4일 상복동에 있는 종철재(鍾喆齋) 화회(花會)에서 읊조리며 (上福洞鍾喆齋 花會吟 四月四日)

봄 빛이 염염함은 동쪽의 바다와 산 인데 春光冉冉海山東
나를 건차로 데리고 가니 그대와 같이 하였네 携我巾車與子同
부드러운 버들 일천 갖에 꾀꼬리 혀 푸르고 軟柳千絲鶯舌碧
나는 꽃 일만 꽃잎에 나비 뺨 붉구나 飛花萬片蝶腮紅
난정시첩을 오늘날 알겠고 蘭亭詩帖知今日
기수의 의관은 또한 고풍이라네 沂水衣冠亦古風
술잔을 어찌 취하고 취했다고 사양하겠는가 杯酒何辭醺耳醉
유연한 탐락이 그 가운데 있다네 悠然湛樂在其中

『梅谷遺稿』

304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4월 6일 상복동에 있는 임환재(麟煥齋) 화회(花會)에서 읊조리며
(上福洞麟煥齋 花會吟 四月六日)

남쪽 바람이 날 일으키니 옷깃이 헤쳐졌는데 南風起我披衿來
돌 등지고 소나무 의지한 채 한 자리 펼쳐졌네 背石依松一座開
서림에서 서화를 쓰거나 그리니 누가 즐거움 적다 하겠나 揮灑書林誰逸少
향음에 모시고 따르니 이는 담대멸명 이라네 陪從鄕飮是澹臺
부드러운 뽕나무 동산 푸르니 꾀꼬리 울어대고 柔桑園綠倉庚語
꽃다운 풀에 진흙이긴 제비 돌아오네 芳草泥和鷰子回
끝 없는 광경 보기 싫지 않으니 無盡景光看不厭
학문의 바다에서 표주박 잔으로 진질함 어찌 那容學海酌蠡杯
용납 하겠는가
『梅谷遺稿』

305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4월18일 공수전리(公須田里) 이백우재(李白又齋)에서 화회(花會)를 열며
(公須田里李白又齋 花會 同月十八日)

마음이 늘 깨어 있으니 이 분이 주인 늙은이 인데 止水常惺是主翁
찾아뵈려 길 거쳐오니 길이 서로 통해있네 拜尋歷路路相通
산 얼굴은 그려놓은 듯 하니 구름은 일 없고 山容畵出雲無事
보리 이삭에 알 드니 비 온 공이라네 麥穗胎成雨有功
한 시축 읊조리니 누가 흰 종이 끌어 당기나 一軸詩吟誰曳白
잔에 가득한 술 조수로 빚으니 다시 붉어지기 마시네 滿樽潮釀更呑紅
번뇌의 티끌이 가슴 속에 쌓였을까 혐의하니 似嫌塵累胸間積
짐짓 길가 솔 그늘에서 늦은 바람 쐬이네 故傍松陰灑晩風
『梅谷遺稿』

306

4월 26일 벽옥암(碧玉潭)에서 놀며
(遊碧玉潭 同月二十六日)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이 벽옥담 몇 천년 되었는가 一潭碧玉幾千年
흥취 이용해 따라오니 내 어깨 으쓱하네 乘興隨來聳我肩
향사엔 늙은이 많음 일찍이 들었고 香社曾聞多舊老
무이는 어디에 있는가 예전의 어진이 생각한다네 武夷何在憶前賢
바람나니 폭포의 거품이 다투어 눈 뿌리고 風生沛沫爭噴雪
날 조용하니 물결 마음에 푸른 것이 연기 같구나 日靜波心綠似烟
다행히 맛없는 술 있어 겨우 부끄럼 면했는데 幸有薄醪僅免恥
주머니 속엔 두서너개 동전만 있구나 肯須囊裏數靑錢

『梅谷遺稿』

307

7월 1일 가을 학무대에 올라
(新秋登鶴舞臺 七月一日)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누대는 물에 가깝고 가을되어 시원한데 近水樓臺爽欲秋
더욱이 계절의 기운은 화성이 흐르네 矧玆氣序火星流
문장 지어 읊조리니 매미 나무에서 울고 文章吟賦蟬鳴樹
처사가 호수에서 노니 학 배에 알려주네 處士遊湖鶴報舟
바위에 곶 붉은 잎 떨어뜨리는 것이 웃음 머금은 듯하고 巖花紅拂猶含笑
강가 풀 푸르니 어찌 수심 일으키랴 江草靑生豈喚愁
머뭇거리며 지난 일 생각해 보니 緬憶徜徉前日事
풍광이 완연히 옥담 가에 있구나 風光完在玉潭頭

『梅谷遺稿』

308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8월 28일 백담사에서 놀며
(遊百潭寺 八月二十八日)

산 봉우리 높이 나솟고 못 깊은데　高明峰出百淵深
하루종일 가고 또 가 별경을 찾았네　盡日行行別境尋
여만사 앞엔 흐르는 물 맑고　如滿社前流水淨
혜후루 위엔 푸른 놀 떠 있구나　惠休樓上碧霞陰
티끌은 큰 겁 지났으니 쇠잔한 꿈 기대고　塵經浩劫憑殘夢
말은 청진에 이르니 본심 깨닫네　語到淸眞覺本心
떨기 잣나무 찬 꽃 감상 제공해 주는데　叢栢寒花堪供賞
이 마음 어찌 깊게 읊조림 아끼겠는가　此懷那惜費長唫

『梅谷遺稿』

309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8월 19일 오세암을 방문하여
(訪五歲庵 同月卄九日)

흰 구름 깊은 곳에 신선 암자 있으니　白雲深處有仙庵
산악의 형세 험하나 멀리 남쪽이 트였네　岳勢層崚遠坼南
권역안에 진형이 걸렸으니 그 오세암이고　掛眞形其歲五
경쇠에 유적이 달렸으니 이는 삼연이라네　磬懸遺蹟是淵三
가을 빛 어여쁘니 서리 나무에 침노했고　堪憐秋色霜侵樹
하늘 빛 얻으니 물은 못에 가득하네　許得天光水滿澤
고상한 선승의 정성스런 뜻 많음 감사 하는데　爲謝高禪多款意
나에게 구술 열매주니 맛이 담박하고 달구나　饋吾珠實味淸甘

『梅谷遺稿』

310

8월 그믐날 봉정암에 올라서
(上鳳頂庵 同月晦日)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하늘이 명승지 보호하려고 우리나라에 주었으니 天護名區擅我東
나무 잡고 돌 밟으며 같이 왔다네 攀枝躋石偶來同
산 봉우리는 세 철의 비에도 끊이지 않았고 峰頭不斷三時雨
처마에는 만리의 바람이 길게 불어오네 簷角長噓萬里風
옛날의 자선은 바다에 떠 멀리갔고 昔日慈船浮海遠
어느 사람이 지팡이 짚고 구름 뚫고 오는가 何人飛錫穿雲立
한가한 스님 앉아서 청산의 역사 설명하는데 閑僧坐說靑山史
탑 세운지 천년이라 불공 힘입었다네 建塔千年賴佛功

『梅谷遺稿』

311

9월 1일 봉정암에 머물다
(留鳳庵 九月一日)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산 정기 영특하고 눈 빛 맑은데 岳精英特雪光晴
비로소 신령스런 구역 깨달으니 첫째가는 이름이네 始覺靈區第一名
상서로운 봉황 천년동안 붉은 이마 세우고 瑞鳳千年丹頂立
상서로운 기린 백리에 푸른 발굽으로 가네 祥麟百里碧蹄行
여기에서 가장 기쁜건 신선 인연 중함이요 此間最喜仙緣重
속세 밖이라 무관함은 들의 횡설수설이라네 世外無關野說橫
칠푼 정도도 모양 그리기 어려운데 惟有七分難狀畵
숲에 가득한 가을빛은 비단무늬 이구나 滿林秋色錦紋明

『梅谷遺稿』

312 마등의 적설(馬嶝積雪)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쌓인 눈 빛 하늘과 가지런하여 감히 오를 수 없으니　雪色齊天不敢登
가로지른 바위 골짜기 막았으니 몇 천 층이나 되는가　架巖堙谷幾千層
옥가루 뿜어대니 돌개바람 지나가고　噴飛玉屑回風過
은 병풍 둘렀으니 묵은 안개 엉켰네　繞作銀屛宿霧凝
짧은 노 저어 누가 일어서는 손님 태우는가　短棹有誰乘興客
높은 누각에 그대 의지해 봉우리의 스님 대하네　高樓倚彼對峰僧
만일 손으로 만져 진경을 모사하려 한다면　如令摩詰模眞景
그림 그리는 정신은 능한 바에 맡긴다네　繪素精神任所能

『梅谷遺稿』

313 권금성의 단풍(權金城丹楓)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산악이 단풍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岳是非楓樹是楓
사면으로 둘러 에워싸니 석성이 붉게 물들었네　周圍四面石城紅
수레 멈추는 이 가끔 있으니 숲속 뚫는 손님이요　停車時有穿林客
시구지어 누가 부르는가 단풍잎 따는 아이라네　題句誰呼採葉童
본 빛깔 옮겨옴은 연나라 물 위이고　本色移來燕水上
맑은 화장 나눠 얻음은 한나라 계단 동쪽이라네　淡粧分得漢階東
우뚝솟아 변치않음은 서리를 능멸히 여길 태도인데　亭亭不變凌霜態
복숭아와 오얏의 봄 빛이 어찌 같이할 수 있으랴　桃李春光豈與同

『梅谷遺稿』

314 토왕성의 폭포(土旺城瀑)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멀리 폭포 바라보니 푸른 성에 걸렸는데 遙看瀑流掛碧城
고을 하늘은 고요하고 붉은 연기나네 洞天寥落紫烟生
망치질 않는데 옥 부서지니 일천 가루 생기고 非椎玉碎千分屑
비오지 않는데 우뢰우니 백리에 소리나네 不雨雷鳴百里聲
바위 곁에 산비둘기 깃드리니 마음에 번뇌 생기고 巖邊棲鶻心應惱
못 속에 용 잠겨 있으니 꿈도 놀래네 潭裏潛龍夢亦驚
밤낮으로 길게 달려 바다에 이르니 晝夜長奔能至海
유연한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 정이 든다네 悠然濺沫匪無情

『梅谷遺稿』

315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가주(家洲) 이상질(李尙質)

흰 구름 가에 신선의 옷을 엮고 羽衣初綰白雲邊
동쪽 땅에 홀로 오니 뜻은 묘연하구나 匹馬東來意渺然
해진 뒤 밝은 모랫 벌의 호수는 넓고 日落沙明湖水闊
어디서 신선을 물어야 할지 알 구 없구려 不知何處問神仙

『강원의 詩文』

이상질(선조 30년, 1597년~인조 13년, 1635년)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자문(子文)이고 호는 가주(家洲)이다. 권필의 문인으로 광해군 8년(161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광해군의 실정으로 세상에 뜻을 버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629년 전시문과에 장원급제 하여 예조좌랑이 되었다. 병조좌랑, 옥당

에 들어갔다. 암행어사로 北關에 갔다가 돌아와 호당에 賜暇하였고, 1634년 종성에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회양(淮陽)에서 죽었다. 문집으로는 『家洲集』이 있다.

영랑호는 신라 영랑의 무리가 수련장으로 즐기던 곳으로 동해안 최고의 호수이다. 영랑이 노닐었던 이곳을 찾아오니 흰구름이 신선의 옷을 엮는 거처럼 아름답다. 홀로 이곳을 찾으니 뜻이 묘연하다. 이상질이 세상에 뜻을 버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은거하다 이곳을 찾아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해질 무렵 영랑호는 설악산의 저녁놀이 절경이다. 바다와 호수가 맞닿아 널고 막막하여 신선이 있는 곳을 묻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심회를 표현하였다.

316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양와(漾窩) 이세귀(李世龜)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면 行盡長松沙岸東
깨끗하고 맑은 곳에 바람도 없네 澄淸瀟泗竟無風
호수는 맑아서 한 폭의 그림 같고 明湖一曲眞如畵
설악의 천봉이 거울 속에 잠겼네 雪嶽千峰倒鏡中

금강산의 만이천봉을 두루 돌아서 歷遍金剛萬二岫
명사 천리 해당화 길 밝고서 왔네 海棠千里踏鳴沙
영랑 호반에 서니 시계가 열려 永郎湖畔初開眼
술동이 장단 치며 호호가를 부른다 手拍瓊壺浩浩歌

『강원의 詩文』

이세귀(인조 24년, 1646년~숙종 26년, 1700년)의 자는 수옹(壽翁)이고, 호는 양와(漾窩)이다. 이항복의 증손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숙종 11년(1685년) 음보로 경양도 찰방을 지냈고, 1695년 추천으로 예산 현감, 충주 목사 역임 후에 사직하였다. 아들 光佐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홍주의 예학서원에 제향 되었다.

첫 수는 영랑호와 연결된 동쪽 해안 솔밭길을 거닐며 깨끗한 맑은데 바람이 없어 고요

하고 한적하다. 이곳에서 보니 설악의 대청봉이 호수에 잠겨 있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금강산을 두루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동해안의 명사천리의 아름다운 해당화 길을 밟고 와보니 영랑호반에서 보는 세상이 시원하고 장대하여 벗과 한잔 술을 즐기며 느낀 심회를 표현하였다.

317 달마 기암(達摩奇巖)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기묘하고 우뚝 솟은 바위 있으니 奇奇矗矗有斯巖
한 맥의 산 뿌리 이어지길 다하지 않다네 一脈山根續不咸
형체는 장군의 머리에 투구와 철갑옷 입고 있고 形是將軍頭鐵冑
모양은 노불의 입에 쇠를 물고 있는 것 같다네 樣同老佛口金緘
만일 화공이 모사함에 채색 먹으로 그리게 한다면 若使畵模揮彩墨
누가 밭갈고 우물 팜에 예리하고 긴 모습으로 할 수 있겠는가 誰能耕鑿利長鑱
명사가 이곳을 지나다 일찍이 말을 남기는데 名師過此曾遺語
처음으로 신령스런 구역을 봄에 세속과 다르네 初見靈區異俗凡

『梅谷遺稿』

318 벽옥담의 물(碧玉潭遊)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벽옥담이 옥 갈고 물은 평평히 흐르는데　碧潭磨玉水平流
쌍 폭포인 구룡이 머리 위에 있다네　雙瀑九龍在上頭
물결 형세에 놀라지 않은 채 낚시 드리우고　波勢不驚任降釣
돌 뿌리는 장애가 안 되니 배를 용납할만 하네　石根無礙可容舟
산 늙은이는 풀 깔고 시 읊조리며 앉았고　山翁藉草吟風坐
들 객은 꽃 술 들며 한가한 날 노네　野客斟花暇日遊
즐거움 마음에 얻어 마음 절로 붙어지니　樂得於心心自寓
하찮은 몸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微軀此外更何求
『梅谷遺稿』

319 대포의 기적(大浦汽笛)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기운은 만 리를 배로 갈 수 있는데　汽氣能行萬里船
호랑이 짖고 용이 우는 소리 서로 이어지네　虎嗥龍吼響相連
천균 무개의 닻 쇠는 깊이 바닥에 드리우고　千勻碇鐵深垂地
하나의 드리운 연기는 멀리 하늘에 뻗쳤네　一朶煤煙遠亘天
역력한 산하는 마음에 기억하고　歷歷山河心上記
초초한 인사는 곡조 가운데 전한다네　招招人士曲中傳
들으니 혹 기회를 이용함이 늦을까 두려운데　聞來或恐乘時晚
지팡이 짚고 창황이 앞으로 다투어 나가네　笻屐蒼黃競赴前
『梅谷遺稿』

320 신흥사에서 놀며(遊神興寺)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문득 봄 다간 뒤 산에 들어갔단 말 들으니　忽聞春盡入山來
꽃다운 풀 우거진 곳에 한 지름길 열려있다 하네　芳草深深一逕開
십리의 저문 종소리 조굴에 드리고　十里暮鐘聲祖窟
천추의 밝은 달 선대에 비치네　千秋明月影仙臺
고기 보는 나는 귀찮은 세상일 잊고 앉아있으려 하고　觀魚我欲忘機坐
나비를 쫓는 사람은 응당 손뼉치며 돌아오네　隨蝶人應拍手回
참된 인연 얻어 뽕나무 아래 집에서 자는데　剩得眞緣桑下宿
남은 정이 더욱 친절하여 다시 술 마시네　餘情娓娓復含盃

『梅谷遺稿』

321 비선대에서 놀며(遊飛仙臺) 5월 4일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스스로 명산 사랑하고 또 봄 사랑하는데　自愛名山復愛春
봄 빛은 나에게 두 눈동자를 허락했다네　春光許我兩眸新
붓 꽃은 향기 풍겨 시객을 맞이하고　筆花香動迎詩客
병 새는 소리 전해 취한 사람 권하네　壺鳥聲傳勸醉人
두 계단의 은색 폭포는 다투어 눈 뿜어내고　雙堦銀瀑爭噴雪
한번 엿보니 금강산은 티끌 받아들이지 않았네　一窺金剛不受塵
축하해 주는 스님 정성스런 뜻 많으니　爲賀居僧多款意
돌아오는 길에 지팡이 짚고 푸른 시냇가에 우뚝섰네　歸笻竚立碧溪濱

『梅谷遺稿』

322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벽옥담에서 노닐면서(遊碧玉潭)
5월 26일

못 속은 영롱하여 옥 색 처럼 푸른데 潭裏玲瓏玉色靑
형승은 오히려 학무정 보다 낫다네 形勝猶勝鶴其亭
일생동안 구영수의 즐거움 얻기 원하고 一生願得歐翁樂
온 세상에서 누가 굴원의 깨어남 흠모하는가 擧世誰欽屈子醒
끊어진 벼랑에 꽃 웃으니 자태 머금은 듯 하고 斷崖花笑猶含態
기이한 산에 구름 숨어 있으니 신령이 있는 듯 하고 奇岳雲藏若有靈
바위 아래엔 차 끓이는 연기에 맑은 기운 다하려하는데 巖下茶烟淸欲歇
시 읊조려 또 사람들 듣게 하는구나 詩歌更許使人聽

『梅谷遺稿』

323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학무정의 봄 흥취(鶴亭春興)
3월 21일

거울 같은 맑은 봄 빛 마음으로 들어오니 鏡裏春光入意城
고요히 사물의 이치 봄에 절로 나고 나는구나 靜觀物理自生生
복숭아 꽃 흐르는 물 따뜻하니 고기 뛰어놀고 桃花水暖游魚躍
꽃다운 풀에 연기 자욱하니 송아지 우는구나 芳草烟深乳犢鳴
고아한 거문고 뜯을 때 사랑스런 곡조 많고 琴古彈時多愛調
애써 마련한 술자리에서 술 사양치 말아라 酒艱酌處莫辭觥
돌아가는 길에서 어찌 붉은 촛불 잡고 가겠는가 歸程何必持紅燭
밝은 달 뜬 것이 더 다정하다네 明月將來儘有情

『梅谷遺稿』

324

신흥사에서 단풍 구경하면서(神寺觀楓)
경축년 9월 일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가을 경치 사랑하며 이 산에 들었는데 爲愛秋光入此山
서남쪽 낭떨어지기엔 돌 깎아 놓은 듯하네 西南峭壁石如刪
한 표주박에 샘물 퍼 마시니 마음 도리어 깨끗해지고 一瓢泉飮心還潔
십리나 되는 시냇가로 오르니 다리 한가롭지 않다네 十里磎登脚不閒
붉은 단풍에 푸른 등 넝쿨 뻗으니 정말 별세계 이고 紫葉蒼藤眞別界
화려한 누각에 꾸민 문패는 좋은 얼굴 보여줌 이네 華樓粉牓好開顔
사문에다 차 세워놓고 여유롭게 있는데 沙門剩作停車會
술 든 후에 맑은 이야기로 세상일 잊는다네 酒後淸談忘世間

『梅谷遺稿』

325

신흥사에서 단풍 구경하면서
(神寺觀楓)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지팡이에 나막신 신은 체 산에 가니 좋은 가을인데 遊山笻屐正宜秋
새벽까지 비 내리니 짐짓 머물게 하려는가 雨意侵晨似故留
술 따라놓은 채 울타리 가의 꽃 잎 따고 斟酒花應籬畔採
시 쓴 잎 물가에다 띄워 보내지 말아라 題詩葉莫水干流
스님의 그림잔 구름 흘러가니 사단에 가득찬 듯하고 衲影雲歸如滿社
종소리는 바람에 타고 혜휴루까지 들린다네 鍾聲風拖惠休樓
다행히 스님의 깊은 후의 많이 입었는데 幸蒙主釋多深意
하례하는 이 자리에서 크게 거두지 못하였네 爲賀斯筵景不收

『梅谷遺稿』

326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영랑호에서 놀며(遊永郎湖) 3월 일

영랑이 있고 호수도 있으니	有是永郎有是湖
훌륭한 경치 지도에 실림 마땅하구나!	宜將勝槩載輿圖
푸른파도의 마음 고요하니 능형(菱形)의 거울 열려고	綠波心靜開菱鏡
흰 달 빛나니 술 병에 비취네	皓月光生暎玉壺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고	能令遊子詩相和
언제나 좋은 시절에 찾아와 술 마시며 즐기네	每到良辰酒以娛
바위 아래 차 끓이는 연기에 맑음이 다하려 하는데	巖下茶煙淸欲歇
유연히 앉아서 뱃노래 소리 듣는다네	悠然坐聽櫂歌呼

『梅谷遺稿』

327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학무정에서 봄에 모이어(鶴亭春會) 경진년 3월 26일

늦게야 맑아지니 작은 정자에 오르는데	晩帶晴光上小亭
유연히 지팡이 짚고 짐짓 오래 머물렀네	悠然笻屐故延停
복숭아 꽃 물에 떴으니 고깃배 붉게 보이고	桃花浮水魚腸紫
꽃다운 풀 뚝에 나니 말 발 푸르구나!	芳草生堤馬足靑
무심코 구름이 나오니 누가 관리하는가	無心雲出誰能管
뜻 있어 거문고 가져와 타면 나는 듣는다네	有意琴來我欲聽
청한함에 취하니 다만 스스로 만족해지는데	堪取淸閑祇自足
큰 취하는 기약 있으니 술 깨는 기약 어찌 없으랴	何期長醉醉期醒

『梅谷遺稿』

328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신흥사(神興寺)에서 놀며(遊神興寺)
4월 17일

절 이름은 신흥사로, 흥이 나서 노는데 寺以神興興以遊
오늘날 옛날을 생각해 봄에 몇 명의 명류가 다녀 갔는가 以今視昔幾名流
신선 대(臺)의 달 예스러운데 학은 날으고 仙臺月古飛笙鶴
인자한 바다에 구름 아득한데 배는 떠있구나 慈海雲茫泛石舟
누가 이런 즐거움이 인간에게 있는 걸 알까 誰知此樂人間在
이 마음 인간 세상 밖에 떠 있게 하지 말라 莫使斯心世外浮
남은 술에 차 향기는 굶주림 달랠 수 있으니 殘醑香茶飢可療
뽕나무 아래서 하루 밤 묵는 게 해롭지 않구나 不妨桑下一宵留

『梅谷遺稿』

329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신흥사(神興寺)에서 놀며(遊神興寺)
4월 18일

설악산 속의 옛 절 깊은데 雪岳山中古寺深
노는 사람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서로 찾아오네 遊人笻屐賴相尋
술 한정 없으니 옥 병 기울려 마시고 酒無量飮壺傾玉
시 읊는 소리 있으니 땅에 금을 던졌네 詩有聲來地擲金
두 골짜기에 여울물 흐르니 바람이 소리 보내고 兩谷灘流風送響
한 계단에 꽃 고요하니 달은 그늘에 머물렀네 一堦花靜月留陰
그대에게 청하노니 힘껏 기어오름을 아끼지 말라 請君莫惜躋攀力
맑은 흥취는 유연하니 짐짓 금하지 못하겠네 淸興悠然故不禁

『梅谷遺稿』

330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정자에 올라 읊조리며(登亭吟)
4월 19일

나막신 신고 신흥사 돌아가는 걸음 등등한데 神興歸屐步登登
대(臺) 두 어 층에다 고각도 두 어 층 이네 臺數層高閣數層
들 밖 맑은 구름 떠 있고 푸른 건 나무인데 野外淡雲靑者樹
돌 사이에서 흐르는 물 얼음보다 차네 石間生手冷於氷
천추에 비파를 누가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千秋點瑟誰眞慕
한 곡조 거문고 타는 솜씨 그대 또한 능하다네 一曲牙琴子亦能
밤마다 서쪽 봉우리엔 외로운 달 떠 있는데 夜夜西峰孤月在
나머지 회포엔 초당의 스님 생각나네 餘懷可憶草堂僧
『梅谷遺稿』

331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의상대(義相臺)에서 놀면서(遊義相臺)
6월 28일

의상대가 오봉의 머리에 우뚝 섰는데 一臺屹立吾峰頭
신선 발자취 밟으며 이르니 십주에 가깝네 躡到仙踪近十洲
시상은 수중에서 밝은 달 떠 오름이고 詩思水中明月出
세정은 하늘 밖 흰 구름 이 떠 있음이네 世情天外白雲浮
서방 금은 불을 두려워 하니 때는 역년을 맞이했고 庚金畏火時迎曆
낮에 차 끓이는 연기 나니 손님이 누각에서 내려오네 午茗和煙客下樓
청한한 우리들의 흥취 알려고 한다면 欲識淸閑吾輩趣
모래톱에서 기(機)를 잊은 갈매기한테 물어보라 問諸沙上忘機鷗
『梅谷遺稿』

332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밤에 낙산사에서 읊조리며(夜吟洛山寺) 같은 날

바다 안개에 산 남기 일어 밤 아직 맑지 않은데　海霧山嵐夜未淸
뽕나무 밑에서 자며 나의 인생 깨우쳤네　宿來桑下覺吾生
니우는 달 물고 어느 곳에 머물렀는가　泥牛含月留何處
불조는 숲에서 우니 정이 있는 듯 하구나　佛鳥啼林似有情
만흥한 시편은 두자미와 같고　謾興詩篇同子美
스스로 거문고와 술 즐기니 도연명 이라네　自娛琴酒是淵明
천옹은 나의 배회하는 뜻 혐의 하는데　天翁嫌我徜徉意
때문에 처마 끝으로 보내니 새벽에 비 소리 들리네　故送詹端曉雨聲

『梅谷遺稿』

333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영랑호에서 노는 운에

차운하여(遊永郎湖韻) 같은 해 8월 일

좋은 경치 구경함에 어찌 꼭 높은 누각에 오르겠는가　探勝何必上高樓
바닷가에서 놀며 구경해도 흥취 다 걷우지 못한다네　近海游觀興不收
산 빛은 붉은 색으로 물든 데다 연기 저물녁에 피어오르고　山光凝紫烟其暮
여덟 경치 응당 더함은 동국여지도의 아름다움 이고　八景應添輿誌美
네 명의 신선 이미 나타나니 도가의 그 사람이라네　四仙已著道家類
취한 뒤라 선방에선 시 짓기 마쳤는데　醉後禪房詩寫訖
다시 한가로이 나막신 신고 방주로 향하네　更拕閒屐向芳洲

『梅谷遺稿』

334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영랑호 보광암의
유도회 운에 차운하여(次永郎湖普光庵儒道會韻)
을유년 4월　일

환연한 유교의 도 긴 봄 돌아오니　　煥然斯道復長春
잠겼던 광채 드러나 날로 더욱 새롭네　　闡發潛光日益新
장한 뜻으로 누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백성 취할까　　壯志誰環天下轍
궁한 음은 과일 속의 씨는 없애지 못한다네　　窮陰不剝果中仁
깊은 골짜기서 부름은 꾀꼬리 벗 찾음이고　　幽谷喚來鶯是友
평평한 모래톱에 우뚝 선 갈매기 사람 같구나　　平沙竚立鷺如人
단란한 이 모임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團欒此會誠非偶
들 늙은이 이웃 찾는 것 보다 낫다네　　猶勝追尋野老隣

『梅谷遺稿』

335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금강산에 노닌 기록에 이르기를
秋江游金剛山錄曰

설악령 위 돌 사이에　　雪岳嶺上石間
팔분으로 쓴 절구 한 수가 있다　　有八分書一絕曰
단군 태어난 무진년보다 앞서났고　　先生檀帝戊辰歲
기왕(箕王)이 마한이라 하는 것을 보았네　　眼及箕王號馬韓
우연히 영랑(永郎)과 수부(水府)에 노닐다가　　偶與永郎遊水府
또 봄 술에 끌려 인간에 머물렀구나　　又牽春酒滯人間

하였다. 먹 자국이 아직 새로운 걸 보니 반드시 쓴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리라. 세상에 선인(仙人)이 없으니, 이 어찌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의 거짓 시(詩)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자(程子)는 국운이 영명(永名)하기를 하늘에 빌고, 평범한 사람이 성인에 이르는 것을 수련에 따라 장수하는데 비유하였으니 깊은 산, 큰 못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그 시를 읽으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을 벗어난 느낌을 가지게 한다. 공(秋江)의 친구 홍유손(洪裕孫) 여경(餘慶)은, 추강이 영동에 놀러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이 시를 써 놓고 그를 기다렸으니 홍여경도 세속을 벗어난 선비로 일찍이 청한자(淸寒子, 金時習)를 따라 놀았고 시문을 짓되 옛사람이 투에 따르지 않았다.

墨跡尙新 書之必不久也 世無仙者 豈非好事者僞題歟 然子程子以國祚之祈天永命 常人之至於聖人 比修鍊之引年 深山大澤之中 亦有這般等人 未可知也 讀其詩 令人有出塵之想 盖公之友洪裕孫餘慶 聞公將遊嶺東 預寫此詩以待之 餘慶亦物外士 嘗從淸寒子遊 爲詩文不事古人科臼者

『丙辰丁巳錄』

336 강선정 기둥에 쓴 시

양창해(楊滄海)가 강릉부사가 되었을 때, 내 선군이 고성군수가 된 지 이미 네 해나 되었다. 선군께서 시관(試官)으로 강릉에 갔었는데, 창해선생이 우리 선군을 위하여 시를 양양 강선정(絳仙亭) 기둥에 쓰기를

楊滄海爲江陵府使時 吾先君爲高城郡守已四載 先君以試官之江陵 滄海先生爲吾先君 題詩於襄陽降仙亭柱曰

강선정 위에서 선옹(仙翁)을 바라보니	降仙亭上望仙翁
어느 곳 방울과 저(笙)가 푸른 하늘 의(倚)하여 오는가	何處鸞笙倚碧空
가락봉 머리에 비낀 해가 떨어지는데	伽樂峯頭斜日落
흰 갈매기 가랑비에 해당화도 불었네	白鷗疎雨海棠紅

하였다. 내 선군께서도 또한 사시(私詩)가 있었는데

吾先君亦有私詩曰

바다에 임해 한 번 신선 늙은이 찾으니	臨瀛一訪偓佺翁
	云云

옥으로 만든 기둥은 어느 해에 채필(彩筆)을 휘둘러　　玉柱何年揮彩筆
저 바다 큰 조개가 놀라 청홍을 펼쳐놓았네 하였다.　　驚他海蜃散靑紅
『五山說林草藁』

337 설악산 돌 사이에 팔분(八分) 서체의 시

홍유손(洪裕孫)의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여경(餘慶)이고, 호는 조충(篠叢) 또는 광진자(狂眞子)이다. 대대로 청민한 가정이요, 활달하여 구애됨이 없었다. 일찍이 점필재(佔畢齋)를 뵙고 학업을 닦았다. 사람됨이 문장은 장자(莊子)와 같고 시는 황산곡(黃山谷)과 같고 재질은 재갈공명(諸葛孔明)과 같으며 행실은 동방삭(東方朔) 같았다.

설악산 위의 돌 사이에 팔분(八分) 서체로 쓴 절구(絕句)가 있는데 이르기를 南陽人字餘慶號篠叢又稱狂眞子世家淸貧放達不檢嘗佔畢齋愛業爲人文如漆園詩涉山谷材挾孔明行如曼倩雪岳嶺上石間有八分書一絕曰

생기기는 단군이 태어난 무진년보다 먼저이고　　先生檀帝戊辰歲
기왕(箕王)이 마한이라 하는 것을 보았네　　眼及箕王號馬韓
일찍이 영랑과 물나라에서 놀다가　　曾與永郎遊水府
또 봄 술에 이끌려 인간세상에 머물렀구나　　又牽春酒滯人間

하였으니 이 시를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티끌 세상을 떠나는 생각이 들게 한다. 홍여경(洪餘慶)과 남추강(南秋江)이 영동으로 놀러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이 글을 지어 놓고 기다렸다고 하니, 홍여경은 역시 속세 밖의 선지였던 것이다 讀之令人有出塵之想洪餘慶聞南秋江遊嶺東預爲此詩以待之餘慶亦物外士也 丙丁錄
『海東雜錄』

山行記는 양양에 관한 부분을 발취하였다.

338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鑴)

임자년 윤7월 24일(정유) 맑음. 아침에 배와 대추 등 과일을 사당에다 차려놓고 풍악(楓岳)에 다녀오겠다는 뜻을 고하였다. 그리고 출발하여 통제(統制) 외삼촌 댁에 도착하였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라곤 『주역』 두 권과 일기책 한 권뿐이다. 나머지 일행들의 필요한 여행 도구를 모두 외삼촌이 챙기셨다. 부평 사는 외삼촌도 오셔서 나더러 멀리 가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타일렀다. 통제 외삼촌과 함께 출발하여 동소문 밖에 나가 누원(樓院)에서 말에 꼴을 먹이면서 지나가는 중 덕명(德明)을 만났다.

그 스님은 일찍이 풍악산 구경을 하여 우리에게 대충 풍악의 뛰어난 경치를 말해주었다. 늦게야 양주읍(楊州邑)에 도착하여 외삼촌은 양주 목사를 찾아가고 나는 민가에 있었는데, 양주 목사 이원정(李元禎)이 찾아와서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유군 여거(柳君汝居)-이름은 광선(光善)가 따라왔다. 유군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외삼촌을 통해 와 좌중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 그 민가에 벼룩이 많아 잠자리를 고을 서당(序堂)으로 옮겼는데 고을 주수의 아들인 정자(正字) 담명(聃命)이 찾아왔고 주좌(州佐)인 우(禹)와 한(韓) 두 사람도 왔다. 날씨가 매우 더웠다.

25일(무술) 맑음. 양주 목사 부자(父子)가 또 왔다. 아침에 출발하여 무성(蕪城) 고개를 넘어 감악산(紺嶽山)을 바라보고 가면서 유군(柳君)과 함께 홍복(弘福)·고령(高靈)·도봉(道峯)·불암(佛巖) 등지를 가리키기도 했다.

입암(笠巖) 율정(栗亭) 아래서 말에 꼴을 먹인 후 일행과는 일단 갈라섰다. 나는 송형 석우 계신(宋兄錫祐季愼)이 살던 곳을 묻고 송군 욱(宋君澳)의 초당에 들렀더니 매화나무, 대나무는 옛날 그대로이고 벽에는 내가 몇 해 전에 써 준 기문(記文)과 허장 미수(許丈眉叟)가 쓰신 기(記)가 걸려 있어 읽어보니 지난날의 회포가 일어 눈물이 글썽했다.

송군 제(宋君濟) 부자를 다 조문하고 일행을 뒤쫓아 간파령(干波嶺) 아래서 만났다. 차근연(差斤淵)을 건너서는 유군과 서로 다른 길로 갈라서 가다가 저물어 신릉(新陵) 정극가(鄭克家) 산장에 당도하여 함께 잤는데, 자해(紫蟹) 홍주(紅酒)를 마시며 서로 흔쾌하게 보냈다.

26일(기해) 맑음. 정극가와 출발은 함께 했으나 길이 달랐다. 나는 진수동(眞樹洞)으로 이 참봉 언무 경윤(李參奉彦茂景允)을 찾아가서 그의 세 아들 태양(泰陽)·태징(泰徵)·태륭(泰隆)과 윤세필(尹生世弼)을 만나 보았다.

윤생은 이 참봉의 이모 아들로 우리 남원(南原) 윤씨라고 하였다. 이생 태양이 나를 따라왔다. 군영동(群英洞)에 이르러 허미수(許眉叟) 어른을 뵈었는데 일행들은 먼저 와 있

었고, 미수 어른을 배알하는 자리에서 허생 함(許生)、송생 직(宋生溭)、정생 태악(鄭生泰岳)을 만났다. 미수 어른은 서실로 나가고 그들과 함께 은행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초가집에 온갖 화초가 그윽한 정취를 풍겼다.

미수 어른이 두류산(頭流山)、오대산(五臺山)、태백산(太白山) 등의 기록과 정허암전(鄭虛菴傳)、답자대부상서(答子代父喪書)를 꺼내 보여 주기에 나는 일찍이 지은 선계설(禪繼說)로 답하였다.

또 짐 꾸러미에서 술과 과일을 내놓아 몇 순배 대작한 후 섬돌 위에 있는 일월석(日月石)을 구경하였다. 옛날에 석경(石鏡)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와 달 그림자가 석면에 훤히 비쳤으며 미수 어른이 손수 그 세 글자를 조각했다고 한다. 얘기 도중 길을 떠나는 정표로 글을 지어달라고 청했더니 쾌히 허락하고 또 전서(篆書)로 광풍제월(光風霽月) 낙천안토(樂天安土) 수명안분(受命安分) 이렇게 열두 자를 써 주어 유군과 나눴는데 유군은 수명(受命) 이하 네 글자를 차지했다. 늦어서야 하직하고 출발했는데 외삼촌이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먹고 사는 길이 이것뿐인데다 관가(官家)로부터의 요구에 책임을 지고 응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앞에 닥쳐올 것을 알고서도 별 수 없이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였다.

이 날 어부가 새로 따온 전복과 대구(大口)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전복은 회치고 대구는 삶고, 또 막걸리까지 사다가 즐기었다. 달 놀이를 마치고 정사(亭舍)로 돌아와 자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두 군으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다.

아침 해가 먼지 한 점 없더니	旭日氛埃滅
가을바람에 큰 파도 이네	秋風大海波
태산에도 오르는 기분으로	還將登岱興
다시 달 가의 뗏목에 오르네	更上月邊槎

양양(襄陽) 주수가 관인(官人)을 시켜 우리 일행을 탐문하였다.

13일(을묘) 새벽에 일어나 일출 광경을 보았더니 구름이 가리고 있었으나 구름과 해가 서로 부딪치는 바람에 황금빛이 내리 쏘이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있는 것 같아 보기에 매우 좋았다. 길 중간에 언덕이 하나 보였는데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의 크기는 모두 화살 감이었으며 바다 속의 섬들도 모두 푸르른 대숲으로 되어 있었다.

노포(蘆浦)에 와서는 호수가 터져 건널 수가 없어서 뱃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배를 끌어다가 건너게 하였다. 내가 보기에 동해에 있는 배들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것이 마치 말구유 모양이고 몸통도 매우 적은데 그래야 배가 파도를 잘 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날은 큰 배 한 척을 보았는데 모양이 서해(西海)에서 부

리는 배 같았고 모래 위에 정지해 있었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들 말이 동해에는 그렇게 생긴 배가 없고 지난 큰 흉년 때 영남(嶺南) 백성들이 살 길이 없자, 그 배로 고기 잡고 해초라도 캐기 위해 파도를 무릅쓰고 동해로 들어왔던 것인데, 그들은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생활을 꾸려가자는 속셈이었다. 파도에도 역시 별 걱정이 없었다고 하였다. 내 그들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을 때 동해의 작은 배들은 그것이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 쓰기에 편리하게 만든 것이지만 저 큰 파도는 큰 배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동해에는 파도가 거세지 않다 하여 관(官)의 힘으로 큰 배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해에는 큰 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지금 지난 흉년 때 들어왔다는 저 배를 놓고 보더라도 동해、서해를 배로 통행할 수 있음을 알지 않겠는가.

그날은 또 염막(鹽幕)을 지나다가 소금 굽는 방법을 들어가서 보았는데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우선 서해와 다르고 소금 맛도 너무 써서 음식을 만들면 달고 맛있는 서해 소금보다 훨씬 못하였다. 서해안의 소금 만드는 방법을 동해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또 따뜻한 날씨에 동남풍이 불어 바닷물이 잔잔한데 가끔 고래가 나와 노는 모습이 보였다. 큰 새처럼 생긴 몸집이 새까맣고 물을 뿜어대면 눈발 같았으며 소리는 소울음소리 같았다.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바닷고기로는 고래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또 황수차(黃水差)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래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 황수차는 꼭 떼를 지어 다니다가 만약 고래를 만나게 되면 수컷 하나가 지휘자로 뒤에 딱 버티고 서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번갈아서 나가게 하여 꼭 죽여 놓고야 만다는 것이다.

만물이 다 종류별로 서로 제어를 하고 또 싸우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니 그 역시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그로부터 20여 리를 더 가 건봉(乾鳳) 하류를 건너 낙산(洛山)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산등성이로 올라 얼마를 더 가서 절 문간에 들어서니 스님들이 견여를 메고 나와 맞이했다. 견여를 물리치고 걸어서 이화정(梨花亭)에 올라 앉아 있었다. 정자는 절 문간 밖에 있었는데, 그 절의 문정(門庭)이나 헌각(軒閣)이 웅장하여 바로 하나의 큰 아문(衙門)이었다. 절은 설악산을 등진 채 동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세가 편평하며 넓고 건물도 탁 틔어 넓었다. 당(堂)에 올라 보니, 금벽(金碧) 장식이나 용마루 등의 높이는 비록 장안사、유점사 등만 못해도 대문과 담의 꾸밈새나 전망이 좋기는 그 두 절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

양양 태수 이대옥(李大玉)이 온다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옛날 산당(山堂)에서 있었던 일처럼 스님들로 하여금 북을 울리게 하여 그가 시간에 대어 오지 못한 것을 장난삼아 책하고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아 있는데 대

옥이 술과 안주를 차려가지고 와 함께 마시며 즐겼다. 얘기 도중 극가가 말하기를, "고성 태수(高城太守)는 이 좋은 풍경 속에 앉아 있으면서, 천리 멀리 구경 나온 서울의 사우(士友)들을 만났는데도 서로 위로하는 술 한 잔도 없으니 그 어디 풍류 있는 태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일은 배울 일이 아닙니다." 하자,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고성 태수는 천성이 원래 깔끔해서 애당초 그 생각을 않은 것뿐이지 정의가 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네."하였다.

내가 뒤이어 말하기를, "자신이 깔끔하기 때문에 남을 대우하는 것도 냉랭하게 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주식(酒食)에 빠져 그칠 줄 모르는 자에 비한다면 훨씬 더 고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야 술 속의 취미도 알아서 사람을 운치 있게 대우하는 것이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야 마치 기와조각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언제나 편안하고 차분할 때가 없는 것인데 남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그런 분과 어떻게 호산(湖山)의 승경을 논할 만하겠습니까."하였다.

그때 좌중에 술을 마시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서로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한잔씩 들고는 밤이 깊어 파하고 함께 선당(禪堂)에서 잤다.

내가 시 한 수를 읊어 대옥에게 주니 대옥도 화답하였다.

설악산 구름이 삼천 길이나 드리워져	雲垂雪嶽三千丈
구만 리 먼 동해에서 달이 솟네	月湧東溟九萬尋
오늘 이화정 위의 가진 이 모임이	今日梨花亭上會
아양곡 한가락은 벗의 마음이구나	峩洋一曲故人心

이상은 내 시인데, 그날따라 하늘이 비가 내릴 듯 설악산 절반을 구름이 가리고 있었고 달이 중천에 오르자 비로소 빛이 있었다. 또 좌중에는 현금(玄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기에 시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대옥의 화답시다.

홀로 높은 대에 올라 신선세계를 바라보니	獨上高臺望仙子
봉래섬 아득하여 어디서 찾는단말인	蓬島微茫何處尋
거문고에 실어보는 아양곡 한 가락에	惟有峩洋琴一曲
두 사람 마주 앉은 백년의 마음	兩人相對百年心

했고, 또 읊기를,

동쪽 바다 저 멀리 이화정에	梨花亭迥海東傍

술을 들고 오르자 흥이 절로 나네　　杯酒登臨引興長
누가 그리 말했던가 낙양의 탐승객이　　誰道洛陽探勝客
한때는 수운향을 너무 좋아했노라고　　一時靑眼水雲鄕

하고서 나에게 화답을 구했으나 나는 술에 취해 자느라고 화답하지 못하였고 유군만이 화답하였다. 그날 밤 내 잠자리에는 기생들이 곁에 있었다. 내가 좌중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꽃과 버들은 봄빛과는 잘 어울리는 것이어서 풍류로는 그만이지만 그러나 초나라 군대가 한왕(漢王)을 겹겹으로 에워싸는 날이면 빠져 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지?"

했더니, 대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기고 지고는 내 하기에 달린 것인데 가까이하면 어떤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 나라 군대가 사면에서 모두 초가를 부르다가 그들이 요란스럽게 장막 아래까지 다가오면 그때는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가려 해도 안 될 것이니 내 아주 자리를 걷어가지고 피하고 싶네."

했더니, 모두들 웃으면서, 싸움을 해 보지도 않고 미리 도망치는 것은 속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것은 제군들이 안 보았을 뿐이지 병법(兵法)에 있는 말일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예 패배하지 않을 위치를 택하는 법이야."

하고, 드디어 그 자리를 떴더니 유군 하는 말이,

"그대야말로 성문을 굳게 닫고 철저히 지키는 자로다."

하였다. 외삼촌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자리를 바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노장이어서 모든 일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패배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서 서로 농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 이어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옛날 개서막(開西幕)에 부임해 있을 때 명나라 사신 뇌유령(雷有寧)이 바다를 통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일이 오래 지나도 오지 않아 원접사(遠接使) 이하 여러 명승들이 모두 모여 20여 일간이나 머무르고 있었지. 그때 원접사는 김신국(金藎國)이었고, 구봉서(具鳳瑞)·정태화(鄭太和)가 종사관(從事官)이었는데 감사(監司) 장신(張紳), 병사(兵使) 유림(柳琳)이 좌음(佐飮)을 위해 남북의 기생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각기 20여 명의 예쁜 여인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너도나도 못하는 짓이 없이 별짓을 다했는데,

그 중에는 처음에는 돌아본 체도 아니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가도 결국에는 별 수 없이 한통속이 된 사람도 있다. 그때 조경(趙絅)이 문례관(問禮官)으로 함께 있었는데 그가 평소 청고(淸苦)하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공들이 그의 지조를 시험해 보려고 그 중에서 예쁜 여인을 골라 조공을 꼭 품안에다 넣도록 당부를 했는데, 조공은 처음부터 난색 하나 보이지 않고 그와 함께 기거하며 날마다 앞에다 두고 부리는 등 모든 행동을 함께 하면서도 끝까지 지킬 것을 지켰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늙은이의 지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했다. 그 말끝에 일행 모두가 말하기를,
"그 늙은이를 혹 경멸하고 헐뜯는 자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단계가 높은 분이지요."하였다.

14일(병진) 새벽에 빈일료(賓日寮)에 나가 일출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비가 올 징후가 있어 붉은 노을이 남북을 통해 하늘에 질펀하였고 만경창파 같은 구름 물결이 끝도 없이 하늘을 띄워 보내고 해를 목욕시킬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하늘 밖에 나가 놀게 만들었다. 조금 후 하늘은 금방 변하여 새벽빛이 다시 짙고 하늘 끝도 희미했다. 태양은 비록 뜬구름에 가려 있었지만 구름이 변화하는 태도라든지 별스럽게 자꾸 바뀌는 모양은 보기에 이채로웠다. 그날은 기일(忌日)이었기에 혼자 빈일료에 앉아서 재계하였다. 늙은 스님 비경(秘瓊)이라는 자를 불러 함께 얘기하다가 최간이(崔簡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었다.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또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였다.

동해의 동쪽에는 낙산사　　洛寺寺臨東海東
부상에서 해가 뜨면 온 하늘이 붉은 빛　　扶桑出日滿天紅
절간의 이른 새벽 향 피우고 앉았으니　　上方淸曉燒香坐
상서로운 보랏빛 구름 기운 속에 있는 듯하여라　　身在祥雲紫氣中

위의 시는 간이의 운에 차운한 것이고,

설악산 동해의 낙가정에서　　雪嶽東溟洛伽亭
붉은 해가 푸른 하늘로 오르는 걸 보았네　　直窺紅日上靑冥
바다와 산이 다한 곳에 이름난 고장 있어　　海山窮處名區在
육경에 뛰어난 호걸스런 사람 같네　　却似人豪出六經

위의 시는 동명의 운에 차운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차운하였다.

우주 개벽 어느 때에 열렸는가　宇宙幾時闢
이 절은 신라 시대에 지었다네　禪宮羅代開
새는 구름 저 멀리로 사라지고　鳥向雲邊滅
돛단배 저 하늘 밖에서 오네　颿從天外來
바람 일자 파도는 태양을 흔들고　風生波盪日
늦가을 객은 대에 오르네　秋晩客登臺
바다 삼 천 리를 돌아보니　遵海三千里
이 정자가 참으로 장쾌하구나　玆亭實快哉

또 한 수는,

위치는 산하 좋은 곳 차지하여　地占山河勝
창은 바다 쪽으로 향해 있네　窓臨溟海開
하늘 밖에서 흰구름 일고　白雲天外起
붉은 해가 밤중만 온다오　紅日夜中來
바람은 금선굴 흔들고　風撼金仙窟
파도는 의상대를 절구질하네　波舂義相臺
동쪽 가 살고픈 뜻이야 있지만　居夷夙有意
나를 따를 자가 누구인가　從我其誰哉

하였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차운하였다. 정동명의 원운(元韻)은, '임지로 가는 유열경(柳悅卿)을 보내며'이다.

바닷가 정자에 나무마다 배꽃이 만발하고　萬樹梨花海上亭
낙산의 바다는 아득하구나　洛山邊海海冥冥
관청에 일이 없어 종일토록 한가하니　訟庭竟日閒無事
모름지기 낙산에서 대제경이나 읽으리라　須讀扶桑大帝經

하였고, 홍녹문의 원운은, '낙산사에서 노두(老杜)의 운으로'인데,

이곳이 용왕의 집자리인가　地卽龍王宅
어느 해에 절이 열었는가　何年梵宇開
하늘은 푸른 바다에 떠가고　天浮靑海去
산은 백두산에서 왔다네　山自白頭來

가을 풍경을 실컷 보고　縱目觀秋色
석대에 올라 쉬었네　扶笻倚石臺
여기에 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登臨撫今古
생각하니 이런 일 저런 일 끝이 없어라　俯仰恩悠哉

했으며, 손홍우 희(孫洪宇熙)는 차운하기를,

창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는데　滄波杳無際
천지는 언제쯤 개벽되었던가　天地幾時開
옛 절엔 가을빛이 다해가는데　古寺秋光盡
모래밭으로 물새들이 오는구나　明沙海鳥來
시 읊조리며 옛일 더듬어도 보고　吟詩憶舊迹
먼 곳 바라보며 누대에 앉았네　騁眺坐寒臺
황학이 한번 날아가니　黃鶴一飛去
흰 구름이 왜 그리도 먼가　白雲何遠哉

하였다. 그리고 그 날 비경이 최간이가 시 두 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하나는,

옛날 누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면 기이하다고 들었는데　樓觀海日昔聞奇
달은 한가위 해마다 기간이구나　月得中秋一歲期
이 날 이 때 장맛비를 만나니　此日此時逢久雨
하늘이 날 영동에서 시 쓰라고 잡아 두었네　天公停我嶺東詩

라고 읊었으니, 이 시는 낙산(洛山)을 읊은 것이고, 또 십칠조(十七朝)라는 시는 이렇다.

높고 높은 하늘 달이 진 후 동쪽에서　玉宇迢迢落月東
갑자기 만경창파가 붉게 붉게 끓더니　波萬頃忽翻紅紅
굼틀굼틀 온갖 괴물들은 모두 다 어디가고　蜿蜿百怪皆如畫
채색 구름 속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네　擎出金輪彩霧中

이상의 시들은 최공(崔公)이 간성 유수로 있을 때 판각해서 달아 두었던 것으로 언젠가 화재로 그 현판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 어느 선비 집에 남아 있던 이 시를 비경이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 베껴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정수몽(鄭守夢)이 유수로 있으면서

비경에게 준 사운시(四韻詩)도 읊기에 그럴 만하여 역시 베끼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좌중에다 말하기를,

"선배들은 별것 아닌 이 시 한 수까지도 그렇게 관심들을 가졌었는데 어찌해서 지금 후배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어."
하였다. 정수몽의 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적을 수가 없으니, 일행들에게 다시 물어 보아야겠다. 그 중의 시축에는 요즘 여러 사람들 시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었다.

15일(정사) 흐림. 가랑비가 싸늘하게 뿌리다가 그쳤다. 기신(忌辰)이라 좌재(坐齋)하면서 《주역》을 읽었고 부리(府吏)를 시켜 일록(日錄)을 베끼게 하였다. 또 어제 유군을 통해 눌승(訥僧)에게서 얻은 향언지로가(鄕言指路歌)는 퇴계(退溪)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볼 때 학문에 조예가 없이는 지을 수 없는 내용으로 역시 후일 아이들의 영가(詠歌) 자료로 삼기 위해 베껴 두게 하였다.
영덕 현령(盈德縣令) 심철(沈轍)이 지나다가 절에 들러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는 고 판서(判書) 집(諿)의 손자이고, 사간(司諫) 동구(東龜)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날 또 두 군을 통해 김 장군 응하(金將軍應河)의 애사(哀詞) 두 편을 들었는데, 둘 다 읊을 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어서 추후 기록하기로 하겠다. 말이 난 김에 명(明) 나라 희종(熹宗)이 김응하를 포증(褒贈)한 일에 관해 말을 해야겠기에 내가 두 군들에게, 당시 명 나라에서 포증할 때 천자로부터 조서(詔書)가 있었는데 그 조서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명문이 아니냐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건 그렇지 않다. 나도 그 조서를 읽어 보았지만 누가 초안한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천자가 자칭 과인(寡人)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김군(金君)을 수양(睢陽)의 장순(張巡), 승상(丞相) 문천상(文天祥)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장순(張巡)·허원(許遠)이 죽지 않았더라면 당(唐)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고, 문천상이 죽지 않았더라면 송(宋)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며, 장군이 죽지 않았던들 과인의 나라에 신하 없는 폭이 되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뜻이 전도되고 사체(事體)를 모르는 정도가 심하였다. 또 문장의 표현 방법까지 서툴고 껄끄러워 마치 고문(古文)을 흉내 내 보고자 하였으나 문장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천자 나라에서 외국 신하를 포증하려면 조서를 만들 때도 반드시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해야 할 것인데, 지어 놓은 글이 그 모양인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만

하지 않은가." 하였다.

내 언젠가 또 숭정(崇禎) 연간에 황 감군(黃監軍)이 나왔을 때 그가 읊었다는 시를 보았는데, 내용이 말도 못하게 거칠고 추하고 졸렬한데도 그 자신은 그것마저도 모르는지라 장계곡(張谿谷)이 그의 작품을 써 놓고 비웃었다는 것이다. 듣기에 그 황은 진사(進士) 출신으로 조정에 오른 이후 우리나라를 왕래할 정도였으니 역시 한때 쟁쟁한 인물이었을 것인데도 그 모양이니 인재가 쇠할 대로 쇠해 세상이 오래 못 가리라는 징조인 것이다. 문장(文章)이라는 것이 비록 별것은 아니로대 한 시대의 성쇠가 거기에도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다. 아, 후세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 할런지 어떻게 알겠는가.

16일(무오) 새벽에 일어나 창을 밀치고 일출 광경을 보았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다도 활짝 개어 동쪽이 밝기도 전에 서광(瑞光)이 만 길이나 치솟고 있었고 뭇별들은 이미 드문드문해져 함께 빛을 겨룰 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가에 갑자기 구름 같은 것이 띄엄띄엄 생기면서 가릴 듯이 하더니 막상 붉은 기운이 점점 무르익자 그것들은 녹은 듯이 없어지고 다만 금물결이 만 리나 뻗어 하늘과 물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과 같은 것만 보였다. 그것은 화륜(火輪)을 달구느라고 홍로(洪爐)가 너무 뜨거워 바다 전체가 끓고 있는 것과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태양 궤도가 잠겼다 떴다 하면서 뛰어도 뛰어도 오르기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잠시 후 태양이 불끈 솟자 위아래에서는 서로 받들고 좌우에는 상서로운 구름 자색 서기가 무수히 깔려 있어 마치 그것들을 타고 올라온 것 같기도 했다. 이에 해는 둥실둥실 떠오르고 그 빛은 아래로 내리쪼여 바다는 바다대로 깊고 넓게만 보이고 하늘은 하늘대로 높고 크게만 보였으며, 상하 사방이 똑같이 밝아지고 삼라만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실로 천지간의 일대 장관이었다. 날마다 기다렸지만 그때마다 뜬구름이 가리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장쾌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밝음 속에도 어딘가 일말의 그 무엇이 살짝 가린 빛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 겸손해야 하고 밝음을 숨겨야 하는 천지조화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뜻이 아닐런지 나로서는 감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어 생각하면 모든 물건의 이치가 각기 종류별로 움직이고 형상에 의해 동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비유하면 마치 군자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소인이 나타나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상은 항상 드물고 어지러운 세상이 언제나 많은 것과도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군자가 참으로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치평을 향해 치닫게 되면 저 소인이라는 것들은 풀이 죽어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과거를 청산하고 이쪽으로 심복해 오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쪽에 병통이 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말을 따르고 받들면서 우리 쪽의 쓰임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군자 자신이 자기를 소명하고 순수하고 밝은 덕을 길러 음(陰)을 저 땅 밑에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높고 밝은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양웅(揚雄)의 『太玄經』에 이르기를,
"태양은 날고 음은 매달려 있으면 만물이 화락하리라."
하였다. 그를 해설한 자의 말에 의하면, 태양은 군자를 말하고, 매달려 있다는 것은 녹아 없어짐을 뜻하며, 음은 소인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군자의 기가 성하면 뭇 음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바로 오늘에 필요한 점괘인 것이다.

이 날도 기신이어서 재계하면서 앉아 있었다. 밤에 비는 개고 달은 기망(旣望)이어서 바다에 뜨는 달을 또 구경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17일이 진짜 보름이어서 그런지 해가 서산에 채 지기도 전에 달이 이미 동천에 솟아 있었고, 막 눈을 들고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달이 벌써 구름 끝에 나와 있었다. 저녁이 되어 스님 몇 사람과 함께 걸어서 이화정(梨花亭)에 나갔더니 중천에 솟은 달이 바야흐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그 빛은 바다 밑까지 비치고 있었으며 만경창파는 은물결로 변하여 위아래가 모두 마치 벽유리(碧琉璃)와도 같았다. 이윽고 바람이 해면을 스치자 파도가 넘실대고 달은 그 속을 출몰하니, 마치 삼켰다 뱉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 같았고, 또 잠시 후 하늘을 보았더니 높고 높은 푸른 하늘에는 외로운 달만이 천천히 옮겨 가고 있었다. 고인이 이른바, '사방에 구름 걷히고 은하마저 없는 하늘(纖雲四卷天無河) 일 년 중에 오늘 밤 달이 제일 밝네그려(一年明月今宵多)'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한 말인 듯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광채는 비록 일출을 볼 때만큼 장엄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 맑고 밝고 깨끗한 자태로 태양을 대신해서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천하의 훌륭한 구경거리였다. 천지 음양의 이치가 서로 양보라도 하듯이 하나가 차면 하나는 비는 것으로, 옛 분들이 말했던, '백옥반(白玉盤)、요대경(瑤臺鏡)' 같은 말로는 지금 이 광경을 비교 표현하기에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이다. 중 비경 등이, 오늘 밤 달빛은 일 년 중 보기 드문 달빛이라고 한 말에 대해 나도 동감을 하였다. 이미 일출 광경을 보았고 지금 또 중추(中秋)의 밝은 달까지 보았으니 이만하면 이번 걸음은 헛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삼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서 두 군들을 불러내어 같이 구경하다가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대고 밤기운이 너무 시원해서 요사(寮舍)로 들어가 『주역』 계사(繫辭)를 종편까지 읽었다. 향을 가져와 피우게 했더니 중이 침향(沈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기에,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대들은 이름만 취택하고 실물은 취택하지 않는군. 중국에서 말하는 침향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 이름인데 남국(南國)에서 나는 나무야. 지금 그대들이 물속의 썩은 나무를 가

져다가 부처 앞에다 피우면서 그것을 아주 향기로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였다. 다시 흑단(黑檀)을 가져와 피우게 하였다. 흑단은 시속 말로는 노가자(盧柯子)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향기가 매우 맑았다. 또 중향성(衆香城)에서 얻어 왔다는 도로파(都盧芭)도 피워 보았는데 그것은 향기가 천궁 비슷하면서 역시 정신을 상쾌하게 해 주었다.
내 이어 생각해 보니, 광풍제월(光風霽月)은 주무숙(周茂叔)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고, 서일상운(瑞日祥雲)은 정백순(程伯淳)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며, 태산교악(泰山喬岳)과 해활천고(海闊天高)는 또 주회옹(朱晦翁)의 기상을 그린 것인데, 내 사실 이번 걸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직접 보고 정신적으로 느껴 보았고, 일만 겹의 봉래산과 동해의 구름 물결 그리고 해돋이 때의 눈부신 광채와 휘영청 밝은 가을 달도 내 모두 살펴보고 희롱해 보았다. 게다가 또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비, 바람, 구름, 먼지 등으로 훼방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가령 안문(鴈門)의 가을비, 죽포(竹浦)의 거센 파도, 낙산(洛山)의 찬이슬 같은 것은 풍백(風伯)·우사(雨師)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작품들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번의 이 기회를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터득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산요수 그리고 호연지기라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천 년 전의 고인들을 만나 본 것과도 같을 것이다.
해돋이 구경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를 지어 그 일을 적어 둔다.

해 뜰 때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니　　看看海色候扶桑
떠가는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常恐浮雲穢太淸
눈부신 해가 갑자기 나타나서　　忽覩燄輝懸陰處
천 길이나 뻗는 광선 천지사방 다 비추네　　千丈毫光六合明

그리고 낙산중추월(洛山中秋月)을 두고는 노소재(盧蘇齋)의 '청간정(淸澗亭)' 운자로 읊었는데,

바다에 뜬 달은 가을 들어 더 밝고　　海月當秋白
거센 파도는 밤바람에 일어라　　鵬濤入夜風
절 방에 외로이 누워 있으니　　禪窓孤臥處
뭇 생각이 다 사라지는구나　　萬慮落眞空

하고, 또 읊기를,

맑은 것은 한가위의 달빛이요　　霽色中秋月
파도소리 큰 바다 바람이어라　　波聲大海風
그 소리 그 빛깔 말고도　　須知聲色外
텅 빈 하늘이 또 있다네　　更有寂寥空

하였다.

아침에는 심군철(沈君轍)이 왔다가 갔고, 저녁에는 간성 군수 윤세장(尹世章)이 동해신(東海神) 제사의 예차관(預差官)으로 와서 이 절을 지나다가 여러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또 나를 와서 보았는데, 윤(尹)은 바로 윤 상공 해원(尹相公海原)의 증손이요 윤 판서 이지(履之)의 손자라고 했다. 대옥 역시 동해신 제사 일로 저녁에 떠나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감사(監司)와 도사(都事)가 부(府)에 온다는 말을 듣고 하직을 고하고 떠난 것이다.

낮에 그 곳의 중 몇 사람과 함께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관음굴(觀音窟)을 바라보았더니 작은 집 하나가 파도에 의해 무너져 있었다. 대(臺) 위에 앉아 잠시 물결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정(鄭)군과 유(柳)군이 내게로 와 함께 잤다. 그날 사눌(思訥)이라는 중이 영남 태백산에서 와 그 절을 위해 예불(禮佛)을 하고 있었다. 그 중은 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밤 5경이면 일어나서 불전에 향을 올리는데, 낮에도 자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면서 언제나 시간 맞추어 염불을 했다. 내가 데리고 얘기해 보니 그는 선정(禪定)의 설을 듣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자였다. 내가 묻기를,

"노선(老禪)께서 마음 공부를 하신 지가 오래인 모양인데 지금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까지 갔습니까?"

하자,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지럽고 화사한 성색(聲色)을 듣고 보아도 그것을 안 보았을 때와 똑같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색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제어하기가 쉽지만 마음에는 유주상(流注想)이라는 것이 있어 바로 온갖 잡념이 때없이 왕래하는데, 노선께서는 마음 공부를 하여 그러한 것들도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하니 그는,

"공부 초기에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없어졌지요."

하였다.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였고, 마음에 잡념 하나 일어나지 않고 혼자 훤한 것을 느낄 때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게 바로 이른바 비치지 않고 있는 거울 같고 파도가 일지 않고 있는 물 같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마음이란 불과 같다고 하는데 불은 다른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풀에 붙거나 혹은 나무에 붙거나 또 혹은 다른 물건에 붙어야지 만약 그 물건들이 없다면 그 불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비록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 발동은 없을지라도 잠깐 사이에 얼핏 스치는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인데 그 역시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노선이 말씀하신 이른바, 거울이 비치지 않고 물이 파도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을 무엇으로 증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라서 이 노승(老僧)으로서도 잘 알아차릴 수가 없네요."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오. 전인들 화두(話頭)에 얽매이지도 말고 문자(文字)를 가지고 참조 고증할 것도 없고 다만 내 마음에 얻어진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와서 내게 말하시오."
했더니, 그 중이 그러겠다고 하고 떠나갔는데, 밤이 되어 간찰 하나를 부쳐왔다. 거기에 이르기를,
"마음의 허령(虛靈)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염려도 없고 형체도 소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외다."
하고, 또 시가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은 언제나 그 빛이요　　明明白月千秋色
점점이 푸른 산은 만고의 모습이어라　　點點靑山萬古容
그나 내나 유별나게 다른 것이 뭐 있으리　　伊我別無奇特事
불전에 분향하며 종을 치는 거라네　　焚香佛前打鳴鍾

했으며, 또 말하기를,

"마음에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물론 있기는 있으나 다만 그것은 순간이고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다."
했기에, 내가 이르기를,

"그대 본 것이 매우 정밀하고 말도 다 좋은 말이오. 나도 시로 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지금 기좌(忌坐)중이어서 내일로 미루어야겠소."
했는데, 그 중은 그길로 물러갔다.

17일(기미) 맑음. 나도 재계가 끝났고 대옥도 제소(祭所)에서 돌아왔다. 나더러 동해신묘비문(東海神廟碑文)을 지으라고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는데, 그날 모두 한 번 실컷 즐기고 싶었으나 마침 관사(官事)가 바빠 부득이 서둘러 돌아가야 했기에 간성군수 윤군이 행리 속에서 꺼내 온 술과 안주로 몇 순배 돌리고 각기 파했다. 스님 사눌이 나를 보러 왔기에 내가 시로 답하였다.

휘황한 해와 달은 오랜 세월 빛나고　　輝煌日月千秋色
높고 넓은 산과 강은 만국이 모양이네　　嵬蕩山河萬國容
만약에 모든 것이 고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若道寂然爲究意
불전에서 종을 어찌하여 친단말이오　　佛前那用打鳴鍾

스님 사눌은 하직을 고하고 떠났고, 정극가는 강릉(江陵)을 다녀오기 위해 뒤에 머물렀다. 우리 일행이 서로 헤어지려 할 때 중들이 나와 전송하였는데, 모두 작별하기 아쉬워하는 빛을 보였다. 동구 밖을 나와 설악산을 바라보며 15리 남짓 가서 신흥사(神興寺)에 들렀더니 중들이 견여를 가지고 동구 밖까지 환영을 나왔다. 그 절은 설악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전각(殿閣)이나 헌루(軒樓)가 역시 규모가 큰 사찰 중의 하나였고,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깎아지른 봉우리와 가파른 산세는 마치 풍악(楓岳)과 기걸함을 겨루기라도 하는 듯했다.

여기에 있는 육행(六行)과 쌍언(雙彦)이라는 스님은 다 얘기 상대가 될 만하여 서울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외삼촌을 모시고 유군과 함께 견여로 5, 6리쯤 가 앞 시내의 수석(水石)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날 대옥이 심부름꾼 한 사람에게 술과 안주를 보내왔기에 편지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극가에게 부탁하여 금강산에서 얻었던 소마장(疏麻杖) 하나를 허미수(許眉叟)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했는데 그 지팡이는 바로 금강산중이(許眉는 산마(山麻)라는 것으로 색은 청록색이고 재질은 옹골지며 매끈하고 가벼워 지팡이 감으로 좋았다. 그런데 그것을 산마라고 하지만 초사(楚辭)에 이른바, '소마(疏麻)를 꺾음이여, 백옥같은 꽃이로다'라고 한 그것이 아닌가 싶어 드디어 소마로 명명한 것이다. 그리고 극가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부쳤다.

땡땡한 녹색 옥장을　　鍧鍧綠玉杖
저 금강대에서 다듬었지　　斲彼金剛臺
그대 통해 노인께 드렸지만　　憑君奉老子
돌아올 때 풍뢰 조심하게나　　歸路愼風雷

유군도 대옥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극가가 시와 함께 이름을 그 밑에다 적었으나 그 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날 밤 최간이(崔簡易)의 낙산시 운자로 절구 한 수를 읊어 유군에게 주었다.

동쪽 태산 남쪽 형산 나라가 명산이라	東岱南衡海內奇
공자도 주자도 마음 같았으리	仲尼元晦共心期
그 뉘라서 알았으랴 천 년 후에 이 땅에서	誰知千載東溟外
그 풍경 구경하고 짧은 시를 읊을 줄을	無限雲波屬短詩

이렇게 쓰고서 내 말이 "이 시는 표현을 더 다듬어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아 손질을 좀 해 달라는 것이네." 하였다.

18일(경신)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뒤 고개를 넘어 외삼촌을 따라가다가 유군과 뒤떨어져 계조굴(繼祖窟)에 들어갔다. 바위에 나무를 걸쳐 처마를 만들어서 지은 절인데 지키는 중은 없었다. 앞에는 깎아지른 바위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이름이 용바위[龍巖]이고 아래는 활모양으로 된 바위 하나가 반석을 이고 있었다. 그 크기가 집채만 했는데 중 하나가 흔들어도 흔들흔들하여 이른바 흔들바위[動石]라는 것이다. 천후산 중간에 위치하여 남으로는 설악산과 마주하고 동으로는 큰 바다에 임해 있어 역시 한번 구경할 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날은 바다가 침침해서 멀리 볼 수는 없었다. 그 절 벽상에 기(記)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기를 보니,

"이 굴은 의상(義相)이 수도하던 곳이다. 동으로 부상(扶桑)을 바라보면 망망한 큰 바다에 해와 달이 떴다 잠겼다 하고, 남으로 설악을 바라보면 일천 겹 옥 같은 봉우리가 눈 안에 죽 들어온다. 안개 낀 동정호(洞庭湖)의 물결이 제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일천 겹 옥 같은 봉우리가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고, 여산(廬山)이 비록 도인(道人)들이 앞다투어 찾는 곳이라지만 역시 만경창파는 없는데, 여기는 그 모두를 다 겸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승경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리가 비좁고 암자 모양도 왜소하여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중들 말에 의하면 몇 해 전에는 수계(守戒)하는 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포악한 자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다. 이는 장주(莊周)가 이른바, '안으로는 수련을 쌓아도 겉은 표범이 먹는다'는 것으로서 이학(異學)의 무리들은 인간과 유리되고 세상과 동떨어진 일 하기를 좋아하면서 그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러한 일을 당해 마땅한 것이다.

그 굴 뒤로는 지상에서 몇 천 길 높이로 석부용(石芙蓉)이 치솟아 있는데 서쪽에서 달

려온 것으로서 기기교교한 형상의 봉우리가 40여 개나 되었다. 어떤 것은 검극(劍戟) 같고, 어떤 것은 규벽(圭壁) 같고, 어떤 것은 종정(鍾鼎) 같고, 어떤 것은 기고(旗鼓) 같고, 어떤 것은 불꽃이 튀는 모양이고, 어떤 것은 용솟음치는 파도와도 같아 모양이 제각기 형형색색이고, 중간의 한 봉우리는 구멍이 나 있어 마치 풍악의 혈망봉(穴網峯)처럼 생겼는데, 중의 말에 의하면 그 산을 소금강(小金剛)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비바람이 있으려면 미리 울기 때문에 천후(天吼)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계조(繼祖)라고 한 것도 아마 이 산의 조산(祖山)이 풍악을 닮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견여를 타고 산에서 내려와 미시령(彌時嶺) 아래 계시는 외삼촌 뒤를 좇아왔다. 재에 와서 재 아래 있는 여러 고을들을 내려다보며 내가 유군에게 이르기를,

"영동(嶺東) 한 구역을 옛날에는 창해군(滄海郡)이라고 불렀다. 장자방(張子房)이 이르기를, '동으로 가 창해국 임금을 뵙고 거기에서 역사(力士)를 만나 진시황에게 철퇴를 던지게 됐다.'고 했다 하니, 아마도 그가 여기까지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했었다. 또 견여를 타고 재를 넘어오는데 재가 높고 험해 걸음마다 마치 사다리와 같은 가파른 바위가 거의 30리나 뻗쳐 있었다. 난천(煖泉) 가에 와서 말을 쉬게 했는데, 이른바 난천이란 겨울에도 얼지 않아 길 가는 사람들이 눈에 막히고 해가 저물면 반드시 거기에서 자고 갔다는 것이다. 연도에는 꽤 아름다운 수석들이 있었으나 이미 풍악과 낙가(洛伽)의 승경을 구경한 우리들 눈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큰 바다나 높은 산을 구경한 자에게는 어지간한 산과 물이 산과 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인(聖人)의 문에서 노는 자에겐 도술(道術)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재 위에 군데군데 옛 성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고장성(古長城)인 것으로 금강산、설악산 정상에도 그러한 곳들이 더러 있었다. 우리나라 삼국(三國) 시절에 피란 나온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여 있으면서 서로 버티던 곳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3백여 년 태평을 유지하는 동안 성 단속을 하지 않았다가 중간의 왜놈 난리에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도망만 치다가 결국 문드러지고 말았다. 지금도 병진(兵塵)이 일어나지 않은 지 한 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 태평 뒤에는 비운이 반드시 오는 법이어서 염려가 안 될 수 없다.
도중에 천후산 흔들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賦)를 지었다.

천후산 앞에 큰 바위 하나 어디에서 떨어져 계조암(繼祖菴) 가에 있을까. 한 명이 흔들어도 흔들리지만 옮기려면 천 명 가지고도 안 될 바위. 어찌보면 우(禹)가 구독(九瀆)을 뚫고, 구주(九州)를 개척하고, 구택(九澤)을 쌓고, 사경(四逕)의 물길을 낸 다음, 구주의 쇠붙이를 모아 만들어놓은 솥 같기도 하고, 또 진시황(秦始皇)이 이주(二周)를 삼키고 육

왕(六王)을 죽이고 사해(四海)를 통일하고 오랑캐까지 제어한 다음, 천하 병기를 모두 녹여 주조한 종(鍾)과 같기도 하다. 그러나 솥이라고 해도 상제(上帝)께 술 한 잔 올릴 수도 없고, 종이라고 해도 꽝꽝 울지도 못한다. 기껏 중들만 이곳을 이용하여 절로 꾸며 두고, 구경꾼들만 그를 두고 별소리 다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월출산(月出山) 꼭대기에 바위 아홉 개가 있었는데 중화 도사(中華道士)가 서에서 와서 그 중 여덟 개를 쳐 없애버렸다고 들었지만, 나도 두보(杜甫)가 말했듯이 맹사(猛士)의 힘을 빌려 그를 들어다가 저 하늘 밖에다 던져버림으로써 사특한 말 편벽한 행동이 판치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한편 천주(天柱)가 부러지고 지유(地維)가 찢어지고 귀신들이 울부짖고 미워하면서 갱혈(坑穴)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할까 봐서 머뭇거리며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탄식만 한다. 장자방을 데리고 창해군(滄海君)을 찾아가서 역사(力士)를 만나 300근 철퇴를 옷소매에 넣고 있다가 그를 저격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아, 신력(神力)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날은 남교역(嵐校驛)에서 잤는데 마을 앞에서 한계산(寒溪山)을 바라보니 그다지 멀지 않고 또 그 골이 깊고 수석도 기괴하다고 들었으나 가는 길목이 아니고 또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다. 주인의 성명은 함응규(咸應奎)라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꿀차를 대접하였다. 또 문자를 꽤 알고 있었으며 점도 칠 줄 알았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집 안부가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 옥녀상봉(玉女相逢)의 점괘가 나왔다고 하였다.

19일(신유)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안개를 무릅쓰고 일찍 출발하여 인제(麟蹄) 원통역(圓通驛)에 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주인 성명은 박윤생(朴潤生)인데 꿀차를 대접했고, 역리(驛吏)들은 술과 과일을 대접했다. 춘천(春川)의 청원(淸源)을 보려고 홍천(洪川) 가는 큰길을 좌로 하고 굽은 시내를 건너 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과거보기 위해 떼지어 걸어가고 있는 선비들을 길에서 만나 말에서 내려 서로 읍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두 차례나 했다. 시내 하나를 열여섯 차례나 건너 산골의 민가를 찾아 잤는데 아주 궁벽한 곳이었다. 주인의 말이, 자기 나이는 70이고 아들이 셋, 딸이 넷인데 금년 봄에 굶고 병들어 모두 죽었으며 집안 간에 죽은 자들이 30명도 더 되는데 아직 땅에다 묻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 땅을 버리고 떠돌이로 나서고 싶어도 자기 자신은 그 고을의 토착민이고 아들이 또 어궁졸(御宮卒)이어서 쉽사리 옮겨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사정이 불쌍했고 산골짜기의 백성들 생활상이 그렇게도 맵고 고통스러워 장초지탄(萇楚之歎)이 없지 않았다. 슬픈 일이었다. 땅은 인제 땅이었고 마을 이름은 가음여리(加陰餘里)였다.

20일(임술) 맑음. 일찍 출발하여 광치(廣峙)를 넘는데, 재가 매우 가파르고 길이 전부 돌뿐이어서 사람이나 말이나 힘들고 괴롭기가 미시령에 버금갔다. 원화촌(遠花村) 윤동지(尹同知) 옛집에서 조반을 먹었는데 윤생 천민(尹生天民)이라는 자가 술과 과일을 가져와서 대접했다. 재를 넘고 골짜기를 벗어나니 들판이 매우 넓고 민가 수십 호가 여기 저기 살고 있었으며 지붕은 모두 기와로 덮었는데 그 모두가 선비들 집이라고 했다.

윤생의 말에 의하면 윤동지라는 자는 이름은 수(洙)이고 관향은 파평(坡平)인데 그의 증조부가 처음으로 그 곳에 들어와 농사에 주력하여 재산을 이루었고 그 고장에 삼(蔘)이 생산되는데 한 근 한 냥이 아니라 캐면 섬으로 캐기 때문에 가세가 매우 요족하고 곡식도 1만 석을 쌓아 두었다가 병자년 난리에 싸우러 가는 북로군(北路軍)이 모두 그 곳을 지나게 되어 그 군대들 먹을 것을 전부 그가 대었고,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그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내렸다고 하였다. 난리로 인하여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 자기 사재를 털어 국가의 다급함을 돕는다는 것은 복식(卜式)과 같은 사람인데, 국가에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영직(影職)이나 공함(空啣)뿐이니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충성을 권장하고 공로에 보답할 것인가. 더구나 그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자력으로 치부하여 그 고을에서 우뚝하게 솟았고 또 자기의 힘이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였으니 그만하면 재질로나 힘으로나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람 쓰는 것은 꼭 쓰일 사람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쓰였다고 해서 꼭 쓸 사람도 아니어서 그 역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날 수인천(水仁遷)을 지났는데 매우 땅으로 위험한 길이 거의 10여 리나 되었다. 수인역 마을에서 잤는데 그 곳은 양구(楊口) 그날은 70여 리를 온 셈이다. 내가 역리 한 사람과 얘기해 보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 고장은 지대가 궁벽하고 산이 깊어 산삼이 날법하다."
했더니, 그 역리 말이,

"이 고장에 물론 산삼이 나지요. 그러나 근년 들어 유랑민들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는 바람에 산택(山澤)이 모두 몰골이 말이 아니고 또 남아난 재목도 없어 옛날과는 딴판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산중을 다녀 보니까 금강산도 내산 외산 할 것 없이 모두 황무지 개간한답시고 아무리 높은 데도 다 올라가고 아무리 깊은 곳도 다 들어가 초목도 자라지 못하여 새 짐승도 붙어 살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서는 고기 못 먹고 가죽 옷 입

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도 잘 지을 수 없고, 생활의 변화를 도모할 수도 없고, 의약(醫藥)도 제대로 쓸 수 없으며, 죽어서는 널마저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어, 그로 인한 재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부역(賦役)과 형벌을 피해 다니며 국가로 하여금 저들을 기속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 무슨 경급(警急)이라도 있으면 서로 모여 도둑으로 변해버리고 마니, 참으로 국가의 간민(姦民)인 것이다. 고을 수령들이 그 피해를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들이 원적(元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 이외의 수입을 노려 그들을 사민(私民)으로 삼아 그들 요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폐단이 자꾸 번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숲을 모두 태우거나 베어 내어 토석(土石)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장마라도 한번 지는 날이면 모두 무너져 흘러내려 산은 산대로 깎이고 시내와 평원은 막히고 메워져서 옛날에는 숲이 울창하던 산과 물이 깊던 못들이 전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와 짐승은 다 도망가고 물고기도 자라도 자리를 옮겨 근세 이후로 토지는 더욱 척박해지고 백성들은 더욱 가난에 찌들리며 산이 무너지고 시내가 말라 비구름도 일지 않고 수재 한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사람들이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다 원인이 있어 그리 된 것이다. 그대도 그것을 알고 있겠지."

하였다. 유군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금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할 것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만약 호구(戶口) 정책을 엄하게 하여 떠돌이의 길만 막는다면 옛날처럼 위 아래로 풋나무 새 짐승까지도 다 제 삶을 즐기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를 다 설명하자면 말이 기네."

했더니, 역리가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상객(上客)의 말씀이 옳습니다. 꼭 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 경작하는 자들은 참으로 국가로 보아 간교한 백성들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산골 백성들이 더 입고 있습니다." 하였다.

21일(계해) 아침날씨가 음산하더니 이어 가랑비가 내렸다. 조반 후 출발하여 부창현(富昌峴)을 넘어 부창역 마을에서 말에게 꼴을 주었다. 가랑비 때문에 늦게 출발하여 기락이천(祈樂伊遷)을 지났는데, 기락이는 방언으로 기어서 나온다는 말로서, 그 천의 길이 너무 좁고 또 바위 구멍이 있어서 누구나 그 곳을 가는 자는 반드시 기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전(泉田)의 길가 큰 시내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날은 하루 내내 산골 험한 길만을 걸었는데, 여기에 이르자 산들이 확 트이고 그 가운데 큰 평야가 펼쳐 있었으며 강물이 굽이치고 돌아가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북쪽을 바라보니 높다란 산이 하나 있고 그 아래 민가 수십 호가 있었으며 뒤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느릅나무가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데 유군의 말로는 강릉 부사(江陵

府使) 이후(李煦)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시냇가에 작은 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생 후평(李生后平)이 집에 있는가 물었더니, 지금 양양(襄陽)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20여 리를 가면서 북으로는 청평산(淸平山)을 바라보고 남으로는 소양정(昭陽亭)을 가리키며 오다가 배로 앞강을 건너 소양정에서 잠시 쉬었다. 그 곳 벽 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남긴 시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월봉(月峯)、청음(淸陰)、백헌(白軒) 그리고 유창(俞瑒)의 것을 보고 드디어 춘천(春川) 읍내로 들어와 유군 종의 집에다 여장을 풀고 주수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주수는 병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비장(裨將) 신완(申椀)을 보내 왔다. 그리고 조금 뒤에 주수의 형 이생 석(李生錫)이 왔고, 또 최남(崔男)의 아들 상인(喪人)인 이억(爾嶷)도 왔으며, 이생을 통해 서울에 있는 집안 소식도 대강 들었다. 유군이 이르기를,

"듣기에 청평산에 이자현(李資玄)의 식암 영지(息菴影池)가 있다는데 식암은 자현이 홀로 앉았던 곳으로 동사(東史)에 이른바, '둥글둥글하기가 곡란(鵠卵)과 같다.'고 한 것이 그것이고, 영지는 식암 아래 있는 겨우 반묘(半畝)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못으로, 해 뜨는 아침, 달 돋는 밤이면 식암의 풍경과 사람의 동정까지도 모두 그 못 속에 비친다고 한다. 그리고 자현이 죽었을 때 불가의 법대로 화장을 하여 불에 탄 그 뼈를 아직까지 그 곳 중이 간직하고 있는데 빛이 푸르른 청옥(靑玉)과 같다. 그리고 용마루에는 또 김열경(金悅卿) 친필이 있다. 그래서 신상촌(申象村)의 송인시(送人詩)에, '이자현 유골은 풍류가 대단하고[李資玄骨風流遠], 김열경 글씨는 유일의 자취로세[金悅卿書逸躅存]'라고 하였으니, 그 모두가 다 값진 고적들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이자현으로 말하면 능히 세리(勢利)의 길에 초연하여 몸을 운수(雲水)에 의탁하고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퇴계(退溪)는 그를 위해 억울함을 밝혀 주고 그 사실을 영탄(咏嘆)했으며, 열경(悅卿)은 국가 위난을 평정한 세상에서 임금을 섬기지 않았던 뜻을 높이 샀는데, 사실은 동방(東方)의 백이(伯夷)인 것으로, 그의 청고한 풍도와 모범을 남긴 행위는 백세의 스승이 되기에 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길에 그 유적지를 찾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다만 내가 탄 말이 걸음이 더디고 바탕이 둔해서 외삼촌을 따라가야 겠기에 마음대로 못하겠네."

하고, 서로 말이 나쁘다고만 탓했다. 내가 웃으면서, 재상상진(尙震)의 소에 관한 얘기를 들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유군이 못 들었다기에 내가 얘기하기를,

"상진공이 언젠가 들을 지나는데 어느 늙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면서 쟁기 하나에다 소 두 마리를 메워가지고 아주 힘들게 밭갈이를 하고 있더라네. 상진공이 한참 구경하다가 이어 말하기를, '농사일을 참 잘하시는구려, 그런데 그 소 두 마리 중에도 우열(優劣)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상진공이 농부 앞

으로 다가갔더니 그 늙은이가 이쪽으로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공이 물은 대로 두 소 중에 한 마리는 힘이 세고 옹골찬데 한 마리는 힘도 약하고 미련한데다 늙기까지 했지요.' 하더라는 거야. 상진공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튐는 힘대답을 않고 지금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 힘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그 늙은이 말이, '소는 큰 짐승이어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또 부끄러워할 줄도 알지요. 내가 그 힘의 덕 않고 지그놈니,봠려먹으면서지그 놈,봠족한 점을 꼬집어지그 놈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오.' 하더라는 거야. 상진공은지그 말끝에 크게 반성을 하 지그때부터는 한평지그남의 과실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장점만 말하 지단점은 말하지 않았으므로 마침 그장후(長厚)한 군자가 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그 말들 힘으로 천리 길을 두루 돌면서 온갖 험난한 곳을 다 지나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말이 병들었거나 둔함을 그렇게 헐뜯을 일이 아닌데, 더구나 그들이 듣는 데서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람도 꾸짖고 욕설을 하면 풀이 죽고 치켜세우면 흥을 내는 법인데, 저 말들이 오늘은 뽐내면서 달릴 기운이 더욱 없겠네. 그것은 우리가 대우를 잘못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했더니,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참으로 소나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나 보다." 하여 서로 한바탕 웃었다.

22일(갑자) 맑음. 아침에 이생 석이 왔고, 최이억도 왔다. 조반을 먹고 출발하여 유군과 함께 봉의루(鳳儀樓)에 올라가 보았다. 그 고을 뒷산이 날아가는 봉의 형국이기 때문에 산 이름이 봉산이고 누대 역시 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을이 모양은 매우 그럴싸했으나 거민이 100호도 안 되는데다 성지(城池)도 목석(木石)도 없어 국가를 지킬 요충지는 못 되었다. 만약 삼악산(三岳山)에다 관(關)을 설치하여 그 삼면을 막고 지킨다면 이 나라의 한 보장(保障)이 될 법했다. 우리들이 봉의루에 올라 있음을 주수가 듣고 술과 배를 가지고 와 행장에 챙겨주었다. 외삼촌을 뒤좇아 신연(新淵) 나룻가에 와서 만나고 신완(申椀)과도 서로 만났으며 만호(萬戶) 반예적(潘禮積)이라는 자도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석파령(席破嶺)을 넘었는데 산 이름은 삼악(三岳)이었다. 재가 매우 높아 길은 평평했어도 길가로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말에서 내려 걸었다. 재 너머 서쪽은 전부 산 아니면 깊은 골짜기뿐이고, 그 재에서 군(郡)까지의 거리는 20여 리였다. 거기에서 또 20리를 더 가 안보역(安保驛)에 다다르니 청풍부부인(淸風府夫人) 묘가 있었고, 그 아래 있는 재사(齋舍)가 매우 조용하여 거기에서 잤다. 저녁에는 나와 강가를 거닐었다.

이 날은 춘천(春川)을 떠났다. 이는 대개 청평산에 들어가 진락옹(眞樂翁)과 매월당(梅月堂)의 유적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시 한 수를 읊어 유군에게 화답을 청했다.

춘주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고을인데　春州素號水雲鄕
더구나 청평학사 별장까지 있음이랴.　況有淸平學士莊
청연에 물이 고여 둥실둥실 배 떠있고　水積靑淵舟泛泛
구름 덮인 화악에는 바위 빛이 푸르다네　雲籠華岳石蒼蒼
희이자 뼈 푸르다니 신선 상징 분명하지　希夷骨碧仙蹤杳
매월당이 남긴 글씨 그 체취가 풍긴다네　梅月書留道韻長
서운하게 식암 영지 바라만 본단 말인가　惆悵菴池空入望
그들이 남긴 향기 누가 가서 맡으라고　澗蘅誰復嗅遺香

춘천(春川)과 잿마루와의 거리는 멀지 않은데, 물이 급류에다 여울이 얕다. 주(州)의 북쪽에 청연(靑淵)이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심이 배를 띄울 만한데 여기는 바로 소양강(昭陽江) 상류이다. 그 강이 양구(楊口)의 강과 합류하여 신연도(新淵渡)를 이루고 평야 가운데로 굽이굽이 흘러 파강(巴江)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경운(慶雲)의 북치(北峙) 서쪽에는 백운산(白雲山)이 있는데 일명 화악산(華岳山)이라고도 한다. 가파른 바위 산이 구름 높이 솟아 있어 영서(嶺西)에서는 화악만큼 높은 산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경운은 청평의 원래 이름이다. 유군의 화답시는 이러하다.

진락공 그 명성이 이 고을에 자자한데　眞樂公名表此鄕
더구나 청평하면 그 있던 곳 아니던가　淸平況是故時莊
예스러운 못과 누대 지원처럼 경개 좋고　祇園勝槪池臺古
보지의 가을 풍경 나무들이 푸르러라　寶池秋容樹木蒼
치솟은 바위산과 겨룰 만한 높은 절의　淸節漫爭山骨聳
고상한 풍류는 장강유수 그것이라네　高風直與水流長
선구를 지척에 두고 계획이 틀려서　仙區咫尺違心賞
선생께 판향 하나 피워 올리지 못한다오　未薦先生一瓣香

23일(을축) 새벽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 일찍 출발하여 가평(加平) 길을 거쳐 초연대(超然臺)를 지나면서도 안개 때문에 올라가 구경하지 못하였다. 가평읍 아래 와서 조반을 먹고, 아현(芽峴) 남쪽에 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청평(淸平) 언덕을 지나 굴운역(屈雲驛) 마을에서 잤는데 그 마을 북쪽에 있는 언덕의 형세가 매우 좋아 보여 올라가서 종을 시켜 치표(置標)를 해 두게 하였다. 그 주산(主山)의 이름을 물었더니 청취전(靑翠田)이라고 했는데, 그 산이 백운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운등산(云登山)이 되고 거기에서 또 동으로 달려가다가 회강(淮江)을 만나 거기에서 멎었는데 곱게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누군

가의 장례를 받아들이고 싶은 듯이 보였다.

24일(병인) 흐렸다. 일찍 출발하여 천괘산(天掛山)을 향하여 가다가 마치현(摩蚩峴)을 넘어 그 고개 서쪽에서 조반을 먹고 여러 사람 무덤들을 가리키고 물어가면서 길을 가는데 시내 곁 단풍잎들이 마치 붉은 비단 같았다. 대개 평천(平川)의 가을 빛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무르익고 있었다. 풍양(豐壤)에 당도하여 왕숙천(王宿川)을 건너고 퇴가원(退駕院)을 지나 오릉(五陵) 밖에서 쉬노라니 백악(白岳)과 남산(南山)이 보이기 시작했다. 들은 넓고 시내는 편평하여 새삼스러운 감회가 있기에 율시 한 수를 읊었다.

만 겹이나 푸르른 봉래산을 꿈에 보고	夢入蓬萊翠萬重
구름 따라 동쪽 땅을 한 바퀴 다 돌았네	一笻東盡白雲求
아침이면 넓은 바다 부상의 해를 보고	朝看滄海扶桑日
밤에는 비로봉 가을 나무에 의지했다네	夜將毗盧碧樹秋
자장처럼 호탕하게 놀자는 뜻 아니었고	不因子長疏宕擧
나그네 모진 시름 달래려고도 아니었네	非關楚客慍惀愁
돌아와서 동산에 다시 올라 바라보니	歸來更上東山望
끝도 없는 연파가 한강 섬에 자욱하네	無限煙波江漢洲

늦게야 성안에 들어와 동소문(東小門) 안에서 외삼촌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와 사당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고하였다.

풍악(楓岳)의 경치가 삼한(三韓)에서 으뜸이요 천하에 소문이 나 있어 내 늘 사영운(謝靈運)처럼 나막신을 장만하여 사마자장(司馬子長)같이 한번 마음껏 구경을 해보려고 벼르기는 했으나, 세상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병마에도 시달리다 보니 속절없는 풍진 세월에 흰머리가 이미 머리에 가득해갔다. 임자년 7월 내가 동성(東城)에 부쳐 있으면서 마침 유동(楡洞) 사시는 통제사 외삼촌과의 자리에서 옛 친구 정극가를 뜻밖에 만나 담소하던 차에 산수(山水) 구경 얘기가 나왔다. 외삼촌 말씀이,

"내가 진작부터 관동(關東) 구경의 뜻이 있었으나 몸이 무부(武夫)라서 미처 못했었는데 지금 마침 집에 있게 되었으니 구경갈 때는 바로 이때다. 극가도 같이 갈 생각이 있는가?" 하자, 극가가 대답하기를,

"그렇잖아도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안 가다니요."

하였다. 외삼촌은 또 나더러도,

"너도 이번 걸음에 불가불 동행을 해야겠다."

하시기에, 나 역시,

"가구말구요. 그것이 저의 평소 원이었는데요."
하고, 드디어 중도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그 해 윤월(閏月) 정유일에 침석정(枕石亭)에서 내가 외삼촌과 만나 동소문을 출발했는데 유군 여거(柳君汝居)라는 자가 그 소식을 듣고 뒤좇아 왔다. 연산(漣山)에 가 미수(眉叟)에게 문안하고 석록(石鹿)에서 극가를 데리고 그로부터 9일 만에 풍악의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이틀 밤을 정양사에서 자고 천을대(天乙臺)를 구경하고 마하연(摩訶衍)으로 옮겼다가 안문(鴈門)으로 나와 남천(南川)을 끼고 동으로 갔었다. 유점사에서 사흘을 묵으면서 산영루(山暎樓)를 산책하고 만경대(萬景臺)를 바라보았으며 맑은 가을의 운물(雲物) 등 온갖 경치를 두루 감상하였다.
내 늙고 병들어 비록 비로봉 절정에 올라 깊은 구룡연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높고 으슥하고 험한 곳까지 샅샅이 다 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풍악산 겹겹이 쌓인 구름 속의 산빛이나 늦가을 풍경에 관하여는 그런대로 볼만큼 보았다. 그리고 나서 고성(高城)을 경유 해산정(海山亭)에 오르고, 삼일포(三日浦)를 거쳐 청간정(淸澗亭)에서 거닐었으며, 선유담(仙遊潭)·영랑호(永郎湖)에서 쉬기도 하였다. 또 양양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묵으면서 동해를 바라보며 부상에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기도 하고 중추에 바다에 뜬 달도 완상했다. 그리고 다시 신흥사(神興寺)에 들러 설악산을 바라보고 천후산을 답사했으며, 또 춘천에 들러 회강(淮江)을 건너고 몽ㅁ(夢ㅁ)에 올라 우수(牛首 춘천의 옛이름) 평야를 굽어보고 경운산(慶雲山)·화악산(華岳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돌아왔다. 비록 사방을 두루 돌아보고 싶은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평생의 소원을 다소는 풀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길에 들른 고을이 15개 주에 달하고, 길은 1천여 리 길이었으며, 왕복에 한 달이 걸렸다. 돌아다니는 동안 작은 일기책에다 날씨와 그날그날 가고 구경한 곳을 적어 옛 분들 유행록(遊行錄)에 대신하였고, 또 동정부(東征賦) 한 편을 써서 거기에 나의 영귀(詠歸)의 뜻을 대강 펴 보았다.
임자년 9월 일 침석정(枕石亭)에서 쓰다.

壬子閏七月丁酉. 晴. 朝薦梨棗于廟. 告楓岳之行. 遂發行. 至統制舅氏家. 余之所携者. 唯韋篇二日箚一. 一行行李皆舅氏治之. 富平舅氏亦至. 戒余以涉遠淹留. 與統制舅氏偕發. 出東小門. 秣馬于樓院. 逢過僧德明者. 此僧蓋曾遊楓嶽者. 略說楓嶽之勝概. 晩至楊州邑內. 舅氏往見楊牧. 余寓民家. 楊牧李公元禎來見設小酌. 柳君汝居名光善隨至. 柳君曾未之相識因舅氏來. 與之相揖于座中. 以寓舍多虫蚤. 移宿于鄕序堂. 主倅之子正字聃命來見. 州佐禹韓二人亦來看. 是日甚熱.

八月初一日癸卯. 晴. 朝發秣馬昌道驛. 館壁上有二詩. 一是閔貳相齊仁嘉靖己亥題. 其彌孫閔鼎重大受懸刻之. 一則庚戌過客題. 不著姓名. 俱可詠也. 閔詩曰. 寵恩榮養孰如之. 回首終南尙戀思. 北塞寒雲歸去遠. 東門落日出來遲. 花殘野菊秋將老. 山遶郵亭路自岐. 杖鉞渡江聊擊楫. 一生安肯負心期. 其過客詩. 艱難險阻備嘗之. 客館無人慰所思. 落日孤雲東去遠. 秋

風五馬北歸遲. 寧同杜子瞻家室. 不學楊公泣路歧. 身被國恩何以報. 承流盡責是心期. 路中絲吟得一絕. 與二君求和. 世事如絲不可理. 秋風欲上望高峯. 倘從魯叟浮滄海. 更擬飂輪喚赤松. 兩君皆和之未夕. 止泊于夏遲城民家. 主人名李天鳳. 是日沿途摘草花. 與一行諸人. 卞識其性味. 或問諸僕夫. 其中艾蒿之類最多. 其可名者有七種. 以鄉名言之曰. 白陽蒿也水蒿也眞蒿也獅足艾也多復艾也燕艾也蜂艾也. 或曰白陽蒿叢生. 卽古之所謂蓍也. 而與華人所著本草不同. 未知其果然也. 李芝峯類說. 以秋至發紫花者當之. 此則恐是山菊之類. 諸人仍曰天下無無用之物. 余曰固然. 苟因其材而用之. 天下固無棄材也. 人之不善者. 亦有可用之處乎. 諸人皆曰天下最無用者. 莫如不善之人. 豈有可用之處. 余曰天下之無用者. 無如中間半界. 非冷非熱 .悠泛無爲 [一作悠悠泛泛無無爲二字]. 無善可取無惡可指之人. 若甚不善之人. 亦有用處. 皆曰異哉. 言也. 何謂也. 余曰桀紂至不善. 湯武征之. 天命佑之. 百姓歸之 而奄有天下. 子孫萬世項籍王莽爲惡之尤. 漢二祖戮之. 以警動天下. 風勵百世. 漢氏四百年之社稷. 實賴之. 此非有用而何. 以至行師用兵. 莫不有此術. 有戮一人而三軍震. 敵國服者. 故古昔英雄伯主之於經綸事業也. 唯恐不得此人. 以爲取天下之資. 此吾所謂有用也. 皆曰可謂詭論. 然亦有理. 令人心快然. 相與一噱. 又路逢一行人. 自言能採蔘. 余曰此可與同行. 與之採得三枝九葉之靈卉. 亦是好伴. 舅氏曰觀其人庸夫也. 固無可用. 余復曰此庸夫也. 故云可用. 若使其人秀而慧. 固不爲我用矣. 昔許魯齋有言. 馬用上等馬. 牛用中等牛. 人用下等人. 馬駿可乘. 牛馴可服. 人庸易使. 苟其人之知而黠. 固不爲我用. 而我顧爲不用矣. 可馬君實有一僕. 供事一久. 雖公位至忝政. 猶稱君實秀才. 一日蘇子瞻來. 冀僕應門亦如是. 子瞻教之曰. 相公今已大忝. 可稱大忝相公. 其後僕如子瞻所教. 公駭曰. 誰教爾作此語. 僕曰向蘇學士教我. 公歎曰好箇僕. 披子瞻壞了. 此冀人用下等人 [一無人字]. 之驗也. 亦相與戲笑之. 然余思此二言者. 皆不能無弊. 視惡人爲可用. 則無惻隱思濟之心矣. 以庸人爲可使. 則已立私勝而無賴於濶知矣. 此伯者之術. 非仁人君子之心也. 此又不可以不知. 可與知者道. 難向姦雄說. 言後更有此意.

二日甲辰晴. 朝發渡也音不川. 又歷觀音遷. 渡菩提津. 過通溝院 秣馬于路傍民家. 饋以蜂蜜山果. 主人名全起天. 約與相訪于京中. 遂登斷髮嶺. 山名葛嵩峙. 嶺路危險. 或步或乘. 至嶺上有檜亭. 石砌坐憩. 望見楓岳面目. 歷歷皆在眼前. 得一絕. 東出都門八日行. 金城踏盡是淮陽. 摩尼嶺上披霞坐. 萬二千峯次第迎. 說與柳君和之. 是日宿新院. 有戶主名金世翊. 約來訪于京中.

三日乙巳晴. 渡新院水踰鐵伊峴. 入萬瀑洞口之野. 令僕夫取墨石于溪邊. 曲折其川而亂渡之. 憩于路傍松林之下. 至一洞口. 松檜成行. 間以海松. 山始奇水石始淸. 悠然有洞天之趣. 渡一川名牛川渡. 下馬而步. 濯足于川. 少憩松壇寺. 僧五六人來迎. 遂偕入寺. 門有一閣傑然. 結搆于雲. 前對長景峯. 矗立千仞. 旁列數峯. 皆巉巖奇壯. 已非人間所見. 寺名長安. 問之居僧. 云是元順帝后奇后氏願刹. 棟樑之宏. 金碧之眩晃. 甲於山中云. 是日散步逍遙于寺門之前.

水石甚佳. 有一樹枯死. 僧言佳樹. 蓋檜身栢皮. 枝葉剝落. 釋子數人相隨. 令少僧摘取寺前海松子. 和蜂蜜而餐之. 亦山中勝味也. 又居僧以石芝供朝夕. 玆山之産也.

四日丙午晴. 發長安指正陽. 居僧備籃輿待之. 石嵌清流. 楓葉乍紅. 步步可坐. 遂或步或輿. 棧路石磴. 人不可竝行. 至鳴淵少憩. 水深數丈. 其清澈底有細鱗鯉鮞遊泳其中. 僧言此萬瀑洞洞口也. 淵中猶有細鱗. 自此以上魚不得上云. 至一處有二石矗立. 宛然成門. 鐫三佛像於崖面. 云是懶翁所作. 向前有古寺云白華菴. 無居僧. 有浮圖五種石碑四跌. 浮圖則清虛休政霽月敬軒就進義瑩鞭羊彦機虛白明照楓潭義諶. 敬軒義瑩彦機皆西山清虛之徒. 明照東山松月應祥之徒. 義諶鞭羊之徒云. 碑月沙議政白洲天章李端相幼能白軒議政之所作. 書則義昌君珖申翊聖東陽尉吳判書竣朗善君俁. 穹碑顯刻. 照映山門. 遂少留. 讀盡而去. 又至表訓寺. 亦大伽藍也. 佛宇南開. 佛軀東向. 僧言此地形象行舟佛坐須若坐舵然不然則有災昔世嘗以佛坐向南. 被萬曆乙巳大水圮毀. 而更如舊云. 其言詭矣. 而亦堪輿家說也. 少憩向正陽寺. 山路極高峻. 步步而息. 自長安至表訓. 途中舍輿而徒者屢. 次晦菴南岳韻. 爲憫人疲舍輿行. 此心生處是靈明. 昔賢已自原頭說. 天下平時此心平. 攀援而上. 若歷級而登. 至一高罔云天一臺. 亦曰天乙臺. 居半山之上. 橫臨四遠. 曠然駭矚. 正陽居僧五六人來待. 老禪普願者. 亦來迎. 絡巾裟衣. 形貌淨慤. 神氣清茂. 可喜山中靜者. 與之共坐松根. 周覽四顧. 指點詢盧問. 凌灝永朗毘爐衆香香爐穴網望高白馬長景十王等峯. 一一在目. 古人所謂千朶競秀. 萬壑爭流者. 爲可以當之. 毘盧最高. 而衆香尤奇. 穴網嵲崒. 而望高嶒峻. 若與之爭雄. 白馬長景迢遞若列屏布幕. 永朗香爐凌灝如相拱揖. 十王以下諸峯. 若觀音彌勒文殊等峰. 皆以佛號駕之. 又若曇仙黃面列立齊坐. 而翻經談道也. 萬壑鳴泉. 雜以松聲. 亦若風雨至. 而雷霆在下焉. 僧言此山古記云一萬二千. 曇無竭所住. 曇無竭者佛名也. 余意曇無竭者梵語. 未知何謂. 而僧言鄙誕. 意者古人之意. 謂玆山之萬峯千巒. 皆山靈岳祇之所宅也歟. 是時凉風乍起而露氣凄清. 紫藟丹楓. 秋氣屯於山中矣蒼松翠栢. 間以紅綠. 尤可愛也. 余謂諸禪曰. 秋色未爛熳. 吾輩遊賞. 無乃太早乎. 願禪曰不然. 凡觀物者. 必於未盛. 欲觀爛熳. 則極盛而向衰矣不若此時之向盛而觀之爲有餘趣也. 余曰老師之言. 可謂得觀物之道矣. 古人有言曰. 花不欲看披離. 酒不欲至酩酊. 亦老師之言也. 仍說與兩君言曰. 凡天地萬物之理. 皆不欲極其盛. 世之處貴富繁華聲色者. 尤不可不知此理. 某嘗有一詩請兩君記取. 克家書之小記. 柳君曰此殆君得意作也. 詩. 一有日字. 騎馬悠悠行不行. 石橋南畔小童清. 問君何處尋春好. 花未開時草欲生. 偶得冲菴金先生元冲毘盧贈僧詩. 誦與兩君. 落日毗盧頂. 東溟渺遠天. 碧嵓敲火宿. 連袂下蒼烟. 余曰此殆詩家古今絕唱. 不徒我東所未有. 惜我東無識取者不能膾炙人口耳. 兩君曰諒哉. 相與哦咏者久之. 令人飄飄然有凌絕頂望東海之思. 次晦翁南岳韻. 九秋霜露滿天風. 天乙臺前一盪胸. 詠歸何處尋行迹. 直到蓬萊最上峯. 諸人和之. 至東樓觀諸人懸壁紩有諸公作. 企齋湖陰龍洲清陰李天章金道源申伯濶所作. 皆可詠也. 而企齋湖陰最高. 後人無一六四能及者. 此亦見世道人材之升降也. 是日宿正陽寺. 與願公夜話. 夜深而寢. 夜起觀星辨方望高正東而凌

灝處北. 寺南臨午位. 而東受朝陽. 寺之得名其以是乎. 龍洲詩有. 肯壑彰三字與諸人看辨不得. 或云草畫訛. 或云文字僻. 相與一笑塵.

五日丁未. 晴. 令居僧出懶翁眼珠葛布. 珈黎鐵鉢. 瑪腦塵尾等. 而觀之眼玉一顆色青如小豆佛家所謂舍利也. 盛之琉理. 重以金合. 繡錦襲之. 居僧相寶守之. 余聞懶翁嘗以徒盛惑衆被誅于國朝其知不足稱也. 今僧徒乃言其成佛. 而尊敬之何歟. 問之. 僧徒亦不知其事之首末也. 且珠産於人. 無中生有. 殆非理之所有. 余每疑之. 而古今禪僧之相傳積信崇嚮. 牢不可破. 余不能究詰也. 觀八角殿石佛. 壁有古畫. 云是吳道子. 吳道子未聞來東國. 亦誕說也是日克家題名于寺閣之樑. 是日在登東樓. 樓名歇惺. 飯後携一僧獨登天乙臺騁望與之指點罔巒洞壑. 其中松蘿峽. 新羅王子之所灝居處也. 凌顥峰放光臺. 高麗王太祖拜佛之處也. 嗟呼. 王子之事卓矣. 足與漢之北地王爭烈麗祖之宏謨厚德. 亦可并肩於宋祖. 而乃惑於異教. 使誕說詭迹遺於後代. 何也. 以一幅略寫灝罔巒之形. 要他日借龍眠手爲記勝之圖. 願僧言自今春. 有大鳥自何而來. 翱翔山間. 形如野鶴. 頸長尾黑. 脚赤身高. 人言欲見則必回轉其身以視之. 其聲鶴云. 蓋仙鶴也今雖不在眼中. 而必在此山中云. 余謂聞鶴聲唳而長. 淸徹九霄. 故詩曰. 鶴鳴于九皐. 聲聞于天. 古志亦稱欒鳳同爲群. 且必擇地而翔. 候時而鳴. 故謂之仙禽. 今此鳥無欒鳳之友. 無師曠之琴相岳之鼓而來. 且其鳴無韻不高不長. 而適以自標. 此殆似鶴非鶴. 而欲自班於仙禽者. 非其實而假其名. 物皆然. 禽何獨不然. 昔嘗見致思軒李公龜金剛錄云. 有鳥巢嵓隙. 蓋野鳥也. 山僧認而爲鶴. 呼之以鶴. 則其鳥必出巢而舞. 以視於人. 而不自知其非鶴. 今此鳥自呼爲鶴. 而人亦視之爲鶴. 又復耀羽毛. 以示於人. 何其自名而又不自晦也. 豈山禽野鳥猶不免塵間俗人之念歟. 此與致思翁所記. 其事正相類. 而絕好笑也. 且鶴亦靈禽不見者千秋似之而非眞者. 適至於今日此又何也. 余聞之嘿然而內嘅於心. 柳君出晦翁廬山韻要余和之. 口占破寂. 又次歇惺樓韻. 并書贈余. 余謂謂謂謂又次歇家有知行爾家有定恶翁所慧生定乎. 定生慧乎. 曰定生慧乎. 余曰. 不先知定恶之理. 則何據以守定. 無守心之定力. 則又何以發此心之眞覺 余謂謂謂然則定固生慧而慧又生定矣. 余曰歇家亦. 有此法其說多歧. 爾言之良善. 但歇家萬理俱備. 其知之者. 將以行之也. 釋家則但守空明爾 余謂謂謂然 余因問吾道傳統之序. 余略答之. 亦問其家衣鉢之傳 余謂謂亦答之. 其說蓋以達摩爲宗. 余曰達摩面壁修道. 而卒爲人所藥殺. 有道者固若是乎. 曰達摩蓋厭世人之澆薄. 而故示寂者. 其身則去入西天. 余笑曰. 浮屠氏固多幻說 余因曰佛家有二派. 曰謂謂教. 矣.所修者何法. 曰略聞經教. 而以念佛爲事. 非有心學之工云. 與之處再氏固多每聞中夜彌陀之人. 金剛之山. 雄峻秀拔所慧生於東方. 而其來則根於長白. 雄峙於劍山. 橫亘於鐵闕. 起伏於楸池. 蟠結而爲此山. 突起爲凌顥 蟠結猶雜土石石巒重重而去. 騰躍爲永郎岾. 又忽然聳拔爲其身. 則湧全石爲 蟠結直于雲霄. 豊隆巘巘. 無與之爲敵者. 其降勢似鶴峭峋. 則衆香城也. 翠壁蒼嵓. 環列爲城達摩爲色皓躚. 望之如粉堞然 余石間生檜栢海松蔓香等樹. 蔚然成彩. 迤延爲日出月出等 蟠結衡列其下. 則爲白雲臺金剛臺六皆然小皆然. 其川則爲萬瀑洞會百川洞. 南出爲淮漢之上流. 又西

去爲如粉穴網. 其高次於其身. 又次之爲白馬玄登等峯. 若將西面而俯者. 又南出傍海. 而馳去莽蒼爲天吼雪嶽寒溪. 其西南去者. 五臺也. 直南而走者爲嶺左右. 湖西南之根幹也. 毗盧以西謂之內山. 山骨矗立. 迎西風而受夕日. 松檜不甚長大. 毘盧以東. 則山間石土脈頗厚朝日照之而近襲海氣. 萬木茁壯. 翳日于雲. 謂之外山. 其東支去者不百里. 至東海而盡. 其西支俠淮水西未至少海. 遇楊江而止半千里而近. 其北支層巒疊巘. 盤束爲洞壑者. 爲九龍淵. 其萬瀑洞則嵂崖奇秀. 水石淸勝. 杖屨可涉爲遊人賞客之所來往. 九龍淵則窈冥深險. 幽昧不測. 爲龍策螭鳥獸之宅. 白日風霆之所起. 恠物之所見. 人跡所難到也. 余老矣且病. 恨不理短策携童冠登毗盧之絕頂. 出雲霧臨風雨. 覽山川之紆曲. 撫四極以揚靈. 又不能凌崥嵲絕崢嶸. 俯九龍之深湫. 窺神恠之窟穴. 極幽險奇詭之觀. 以拔此磈礧鬱塞之懷. 甚矣吾衰也. 曾聞李栗谷叔獻先生少時. 因事去家. 入此山. 問之僧徒. 不聞知. 僧固野矣. 而去之百年. 宜遺響之邈邈也與願禪夜話. 願禪曰鄭知祥何人. 余曰高麗文士. 其詩淸警. 有唐人風. 惑於妖僧妙淸. 以誤國事其人亦不足貴也曰金富軾何人. 曰有文章作三國史嘗爲將. 討妙淸之亂. 願禪曰余聞富軾與知祥爭名. 每不勝. 因而陷之殺知祥. 卒爲知祥崇死. 豈好人也. 因言富軾崇死事. 如竇嬰田蚡事. 其說甚恠. 余未前聞也錄之以竢詢問. 願禪云金富軾. 嘗以試官入院. 題詩院門曰. 燭盡天將曉. 詩成句. 一作桂字已香. 滿庭人擾擾. 誰是壯元郎. 知祥就試見之. 卽援筆. 添以三更八角落月不知八字於五字之上. 富軾於是知其才之不及. 遂謀陷之云云

『白湖全書』 卷之三十四, 雜著

윤휴(광해군 9년, 1617년~숙종 6년, 1680년)의 본관 남원이고,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하헌(夏軒)이고, 초명은 정(鎭)이었으나 후에 휴로 고쳤다. 부친은 광해군 때 대사헌을 지낸 효전(孝全)이며, 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인 이민구(李敏求)와 이원익(李元翼)에게서 배웠다. 현종 13년(1672년) 7월 56세에 금강산으로 유람을 가며 낙산사에 들려 빈일료(賓日寮)에 나가 일출광경을 보고, 최간이(崔簡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어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또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여 시를 썼다.

현종 1년(1660년) 효종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송시열 등 서인이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하여 시행하자, 삼년상을 지내자는 참최설(斬衰說)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계와 맞섰으며, 이로 인해 서인계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탄 받았다.

숙종 1년(1675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을 당하여 다시 일어난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여 집권하자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으로 조정에 나아갔다. 허목(許穆)과 함께 청남을 이끌며 활동했다. 이해 승정원동부승지·이조참의·대사헌·성균관좨주 등을 두

루 거쳐 이조판서를 엮임 하였다. 이후 대사헌·좌참찬·우참찬·형조판서·우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1680년 영의정 허적(許積)의 아들 허견(許堅)이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관여했다고 하여 갑산(甲山)으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5월에 처형당했다.

339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함벽당(涵碧堂) 유경시(柳敬時)

우리나라에는 이름난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유독 금강산이 으뜸이다. 중국 사람들도 심지어 '고려(高麗)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외국 사람도 금강산의 이름을 듣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도 금강산을 한번 보지 못한다면 어찌 평생에 한이 되지 않겠는가.

금강산은 영동(嶺東)의 고성(高城)과 회양(淮陽) 사이에 있다. 내가 영남(嶺南)의 안동(安東) 땅에 살고 있으니, 서로 간의 거리가 거의 700 리나 된다. 그러나 한번 벼슬길에 올라 그 사이에 세속에 푹 빠져 있던 것을 생각하여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침 정미년(1727년) 가을을 맞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였는데, 양양과 이 산은 불과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업무 중 한가한 시간에 정신을 차려 절기(節氣)를 살펴보니 이미 늦어 단풍잎이 지고 눈도 너무 일찍 쌓여 가고 싶어도 또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초봄을 기약하였다가 올 봄에 이른 것이다.

고령(高靈) 신척(申滌)이 본도 좌막(佐幕) 으로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 나와 함께 유람하면서 경치를 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우선 설악(雪嶽)으로부터 시작하여 3월 9일 신흥사(神興寺)에서 모였는데, 신흥사는 양양부의 경내에 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고 도착하여 보니 부장(副將) 일행은 이미 화암사(華巖寺)로부터 천후산(天吼山) 꼭대기에 올라와 옛 이야기를 몇 마디 늘어놓고 있었다. 산의 모든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 있 천후 호응할 겨를이 없었다. 산의 사면은 모두 바위로 둘려져 있 천후마치 하나의 병풍처럼 깎여져 있고 석굴(石窟)이 있 천후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세있었다전해지기를 조

화상(祖和尙)이 거처하던 곳이라 하여 계조굴(繼祖窟)이 되었다고 한다. 굴 가운데에는 몇 개의 시렁이 엮어져 있고 좌우에는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문승(門僧) 수도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다고 한다. 절구 한수를 지어 읊었다.

벽옥을 둘러 병풍을 만들었는데	碧玉環爲障
누가 능히 깎아 만들 수 있겠는가	誰能削得成
선사의 자취 이미 멀어졌는데	仙師迹已遠
석굴이 다만 이름을 남아있구나	石窟但留名

굴 가운데에 돌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평평하게 깔려 있고, 그 넓이가 수백 여 척이나 되어 수백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다. 비가 올 듯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어 곧장 산을 내려와 내원암(內院庵)에서 잠시 쉬었다가 본사(本寺)에 도착하였다. 땅의 형세가 비록 내려와도 경내는 좀 널찍하지만 앞뒤 산봉우리의 험준하고 매우 수려함이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날, 낙산(洛山)으로 향하려다 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결국 머물러 묵으면서 아사(亞使) 와 함께 나란히 누워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새벽, 견여(肩輿)로 서쪽 골짜기로 들어오는데 맑은 물과 흰 돌 사이로 잡초와 바위 꽃이 모두 볼만하였다. 와선대(臥仙臺)에 도착하니 개울 위에 평평하고 널따란 바위가 있는데 마치 자리를 깔아놓은 듯하였다. 그런데 물이 콸콸 내려가며 맑은 못에 이르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미 속세를 떠난 생각을 갖게 한다. 조금 위로 백 여 걸음쯤 올라가면 비선대(飛仙臺)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계곡 위에 역시 돌이 있는데 아주 깨끗한 감색 활석(滑石)으로 와선(臥仙)보다 더 위험하였다. 관청 하인에게 태평소(太平簫)를 불게하기도 하고 소관(小管)을 불게 하여 번갈아 서로 소리를 내고, 한잔 술을 올리게 하며 대화를 하였다. 돌 위에서 오랫동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먼저 한 절구 읊었다.

한가로이 누워있는 부사인데	閒臥黃堂是
누워있는 신선은 날아오를 것 같도다	臥仙如飛乘
역참(驛站)은 비선대요	馹是飛仙臺
명예가 신표와 짝하여 함께 노닐거니	名偶符同遊
나그네는 비선이로다	客子是飛仙

내가 와선이라 하니 아사가 대응하여 말하기를, “와선이 먼저 머무르고 또한 비선이 선

경(仙境)에서 함께 노닐고 있으니 역시 한 신선입니다. 와선이 비선과 같지 않고 더 잘 나르는 것이 진짜 신선이니 누워 있는 것이 어찌 신선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즉각 놀리며 답하기를, "위에 비선이 있고 아래에 와선이 있는데 누가 장차 날을 것인가? 누워 게으름 피우다가 신선이 되기를 경쟁하는데 빠른 자는 잘 날지만 한가한 자는 누워 있다. 세간에 한가로이 누워 있는 자가 곧 진짜 신선이라네."라고 하였다 아사가 또 놀리며 답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자진(子晉)이 날아 신선이 되었으나 극락세계에서는 누워서 신선이 되어 날거나 누워서 저절로 응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진위(眞僞)의 구별을 앞으로 꼭 여러 신선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조금도 떠들 일이 아니네. 신선의 신분도 아닌데 어찌 이 땅의 주인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곧 절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낙산에 이르렀다. 아사는 경치를 구경하다가 혼자 머물고, 나는 이미 익히 본데다 또한 산에 돌아가 묵을 도구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오후에 관아로 돌아왔다.

東國素稱多名山. 而獨以金剛爲第一. 中華人. 至有願生高麗一見金剛之語. 夫以外國之人而聞名. 傾想猶如此. 則況生於國內而不得一見. 豈非平生之所可恨者乎. 金剛在嶺東高淮之間. 余居嶺南之安東地之相距也. 蓋七百餘里. 思一致身. 於其間而汨沒塵冗. 願莫之. 遂偶於丁未秋. 分竹於襄陽. 襄之距此山. 不過三宿而可至. 朱墨餘閒. 倍覺馳神. 而屬節序已晩. 楓葉衰盡. 積雪太早. 欲往而又不可得要. 以開春爲期. 及今年春.

高靈申君滌. 爲本道佐幕. 馳書告我約與同遊而探勝. 先自雪嶽始. 三月初九邀會于神興寺. 神興在府境. 余卽蓐食赴之. 亞使行自華嶽寺已在天吼山上頭. 敍舊才數語. 山之諸景. 湊目前. 應接不暇矣. 山四面皆石環立如削宛然一屛障. 有石窟. 其深不測. 世傳. 祖和尙. 住錫之處. 仍名爲繼祖窟. 窟中結數架. 左右繚以奇巖斲石. 爲門僧修道者居之云. 爲吟一絕曰. 碧玉環爲障. 誰能削得成. 仙師迹已遠. 石窟但留名. 窟中有石. 天然平鋪. 廣袤數百餘尺. 上可坐百餘人會. 有雨意. 不可久留. 卽下山. 少憩于內院庵. 到本寺. 地勢雖下. 而境稍寬. 前後峯巒峭拔奇秀. 皆在目前.

是日欲向洛山. 而雨勢不止. 遂留宿. 與亞使聯枕穩話. 翼曉. 肩輿入西洞. 淸泉白石間. 以雜卉巖花. 皆可賞. 至臥仙臺. 有石盤於溪上. 如布席. 然水瀡瀡下爲澄潭. 坐移時. 令人已有出塵之想稍上百許武. 有所謂飛仙臺者. 溪上亦有石. 潔淨紺滑. 殆勝於臥仙. 使官僮或吹太平簫或吹小管. 與相響. 命進一觴對話. 石上久之不能去. 先吟一絕曰. 閒臥黃堂是臥仙如飛乘. 馹是飛仙臺. 名偶符同遊. 客子是飛仙. 我臥仙. 亞使應曰. 臥仙先着. 又飛仙仙境同遊. 亦一仙臥仙不若飛仙. 勝飛是眞仙. 臥豈仙. 余卽戲答曰. 上有飛仙下臥仙. 誰將飛. 臥漫爭仙. 疾者善飛. 閒者臥. 世間閒臥卽眞仙. 亞使又戲答曰. 曾聞. 子晉飛爲仙. 不說靑蓮. 臥作仙飛.

臥自應. 眞僞別. 須將此語問諸仙. 余笑曰. 不須呶呶. 非仙分. 安得爲此地主人.

『遊金剛山錄』

유경시(현종 7년, 1666년~영조 13년, 1737년)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흠약(欽若), 호(號) 함벽당(涵碧堂)이다.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생이고, 숙종 20년(1694년)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의 복위를 계기로 실시된 별시에서 유학(幼學)으로 병과 12인에 급제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를 지냈다.

영조 3년(1727년)에 양양부사(襄陽府使)가 되니 대관령에는 도적의 소굴이 있었다. 그 적도에 부종(附從)하든 산맹(山氓)을 통해 탐지하여 그들을 체포하여 처형(處刑)하니 부내(府內)가 안도 하였다. 이로 인해 양양은 산과 바다의 물산이 풍족하여 공물(貢物)을 진상할 때 봉하고 나머지는 백성(百姓)에게 돌려주었다. 한번은 갈은 고향사람이 국유림을 살피는 황장경차관(黃腸敬差官)으로 양양에 왔는데 진봉 (進封) 하고 남은 나무로 관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公은 이를 거절하자, 그 아들에게 주었으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역시 거절(拒絕)하였다.

문한관(文翰官)과 외직을 거쳐 영조 8년(1732년) 사헌부장령에 올라 김정, 김시발의 옥사를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목민관(牧民官)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청백이(淸白吏)에 들었다. 저서 『涵碧堂集』이 있다.

340 湖東西洛記

금원 김씨(錦園金氏)

나는 관동(關東)의 봉래산(蓬萊山) 사람이다. 스스로 금원(錦園)이라 호를 하였는데, 어려서 잔병이 많아 부모가 불쌍하게 여겨 여자가 해야 할 가사나 바느질은 가르치지 않고 글공부를 시켰다. 글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사(經史)에 대략 통하게 되고 고금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흥이 나면 때때로 시문(詩文)을 짓기에 이르렀다.

가만히 내 인생(人生)을 생각해 보았다.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실로 다행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되 야만인이 사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에 태어난 것은 더욱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행이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산수(山水)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다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절하게 보고 듣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총명한 재주를 주어 문명(文明)한 나라에서 이를 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閨房)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을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상에는 첨윤(詹尹) 의 거북이 없으니 굴자(屈子) 가 점친 것을 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 말에 이르기를,

"책략은 짧으나 지략이 넉넉하거든 그 뜻대로 결행하라."라고 하였으니 내 뜻은 이에 결정되었다.

아직 혼기에 미치지 아니 한 나이에 강산(江山)의 승경(勝景)을 두루 보고 증점(曾點)을 본받아 세속의 일 다 잊고 맑은 물에 멱 감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글을 읊조리다 돌아오면 성인도 온당하다 할 것이다.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이름 있는 명승지를 찾아 맑게 유람할 것을 정하였다. 어버이에게 이 계획을 사뢴 지 오래 되어 겨우 허락을 얻었다. 어렵게 받은 허락이라 마음이 후련하기가 마치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을 나와 끝없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분이고, 좋은 말이 굴레와 안장을 벗은 채 천리를 달리는 기분이다.

간성(杆城)으로 길을 바꿔 청간정에 올랐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계곡의 시내라는 뜻의 '간(澗)'으로 이름을 정한 그 뜻을 알 수 없다. 정자 앞 바다 물속에 돌이 있는데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거북바위라 부른다. 그 거북바위 가운데에 자마석(自磨石)이라는 돌이 있는데 돌 위와 아래에 마치 이제 막 작게 쪼아 낸 것 같은 돌이 있어 큰 것은 살구 잎만 하고 작은 것은 동전만 하다. 자마석이란 위아래의 두 돌이 엇갈려 이들을 갈아낸 것이라고 일러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두 돌의 사이가 거의 한자 이상이나 되니 어찌 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만약 먹으로 여겨 글자를 쓴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갈아 없어질 것이라고 하니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렵다.

정자 위에 앉아 월출을 보고자 했다. 닭이 울 때가 되자 홀연히 바다 구름이 영롱해지면서 반원의 달이 숨을 듯 드러날 듯 살포시 그 얼굴을 드러냈다. 찬란한 빛이 구름 끝에서 토해져 나오는데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바다 위를 두루 비추는 듯하다가 갑자기 푸른 유리 만경이 아름다운 정자 맑은 대청 앞에 펼쳐진 듯했다. 마지막까지 모두 드러나자 맑은 바람 서늘한데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차 끓이는 아이에게 차를 들이도록 하고 먹을 갈아 시 한수를 썼다.

하늘 푸르게 터져 저녁 구름가로　　片天靑綻暮雲邊
천지개벽 그 순간 온갖 물상 한가지로 새롭고　　萬象新同開闢年
할 일 없는 아이종은 차 끓이니　　解事奚童將煎茗
소나무 가지 사이 비친 초생달 받으며 맑은 샘물 긷네　　漏松缺月汲淸泉

창에 붉은 햇살이 비추고 추녀에서 새들이 어지럽게 우니 비로소 봄잠에서 깨어났다. 푸른 바다 굽어보니 운무 걷혀 그 끝 측량할 길 없어 더욱 천지의 거대함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부평초 같은 인생이 창해의 일속임을 한탄했다.

양양(襄陽) 낙산사를 찾았다. 푸른 산이 사방으로 둘렸는데 소나무 잎만 무성했다. 관음사는 바다 위에 있는데 한쪽은 언덕 귀퉁이에 의지해 있고 한쪽은 기둥을 바다 쪽에 세워 허공에 얹어 절을 지었다.
법당은 굉장한데 불상은 흰 비단으로 감싸 놨다. 마루 가운데 나무 판때기에서 바닷물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내려다보니 석굴 속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갠 하늘의 우레 소리가 산악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협창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물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산과 내의 경물이 모두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흰 갈매기들이 하늘을 선회하며 내려앉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이한 경관이었다. 바닷가의 여자들은 모두 나이 먹은 사람들로 하나같이 맨발인데 산부추를 뜯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상선들이 자주 푸른 물결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포구 주변의 시골집들은 대부분 고래의 뼈로 절구를 만들었으니 그 고래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 물개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모두 검은 색으로 모양이 같았다. 물개는 사람을 보면 짖고 가까이 가면 곧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의경대(儀景臺)에 올라 일출을 보려고 했다. 닭이 몇 차례 울자 멀리 바다와 마주 친 하늘을 보았다. 운애만이 아득하여 잠시 걷히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이 고요한 채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 하늘을 가린 구름이 마귀노릇 하는 것 같아 한스러울 뿐이었다.
한(漢)나라 이심(李尋)은,
"날이 밝아지려 하면 맑은　이 뭉게뭉게 음화(陰火)를 펴낸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를 보려면 해는 대부분 구름 기운〔雲氣〕에 의해 가려지게 되니, 어찌 그의 어두운 기가 아직 흩어지지 아니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구름이란 물의 기운이다. 바닷물의 기운이 태양에 의해 부풀려져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떠돌며 날다가 어슴푸레 밝아지려 할 때 진탕하는 것이다.
조금 있자 홀연히 붉은 거울 하나가 바다 속으로부터 불쑥 솟아올랐다. 구름 끝이 아래로 늘어져 있는 곳에서 점차 올라옴에 빛이 회오리쳐 끓으며 백옥 같은 쟁반에서 진주

를 높이 들어 올리는 듯한데 잔잔한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저편에서 붉은 비단 일산처럼 가볍게 흔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린 구름 기운을 뚫고 빠르게 둥근 바퀴가 그대로 솟아오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미친 듯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출 듯했다. 상서로운 햇무리가 아래로 해면을 비춰 한바탕 붉은 구름을 부풀리다가 또 다시 평지로 쏟아지니 위아래가 온통 붉은 색으로 젖어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한 덩이 불꽃으로 만드니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한편의 절구를 얻었다.

해는 연자처럼 바다위의 하늘 구름 깨뜨리고　　紅輪碾破海天雲
얕게 떠올라 자꾸자꾸 치솟네　　且得竿餘轉運頻
물 긷고 땔나무 지고 가는 시골 골목길　　汲水擔薪村巷曲
뽀얀 안개 속 붉은 노을 비쳐 가벼운 티끌 적시네　　溟濛瑞霭浥輕塵

강릉으로 길을 바꿔 경포대에 올랐다. 단청 누각이 반공(半空)에 우뚝 솟았는데 호수의 잔잔함은 거울 같고, 이제 막 씻어 놓은 듯한 물밑의 맑은 모래는 셀 수 있을 것 같다. 푸른 산을 비단에 놓은 수 같고, 해안의 모래는 주옥같은데 늙은 소나무들 우뚝하고 푸른 버들가지 하늘하늘 늘어뜨리고 있는데, 꾀꼬리는 울고 해당화 붉은 색 토해 놓아 그 광활한 모양과 아름다운 경치는 말로 그려낼 수 없었다. 고을은 사람이 많이 살고 번화한 곳인데, 충효의 정려문이 굽이마다 벌려서 있어 요임금 순임금의 덕치로 백성들이 모여들어 즐비하게 집을 짓고 사는 아름다운 봉지를 이곳에서 오히려 볼 수 있다.

몸 돌려 울진(蔚珍)으로 향해 망양대(望洋臺)에 올랐다. 대는 바다 위에 있는데 눈앞이 탁 트여 종일토록 눈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아도 하늘 끝 뵈지 않고 거친 파도가 물방울만 토해 놓으니 날리는 것이 흰 눈과 같아 은하수가 흩어져 떨어지는 것처럼 온 천지에 부슬부슬 뿌린다. 바다 속 섬은 파도에 뒤흔들리는데 밝은 태양 아래 우레 소리만 천지를 진동한다. 옛날 바람 속 파도의 험함을 양후(陽候)의 파도라 일컬음은 이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상선들이 미친 듯 몰아치는 파도와 노한 물결 속에서 출몰하는데 이를 볼 때마다 위태로운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 자신도 모르게 놀라 부르짖게 되었다.

평해(平海)를 향해 가서 월송정에 올랐다. 바람 고요하고 물결도 멈췄다. 날씨 청명하여 멀리 섬을 바라보니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푸른 색깔만 하늘에 맞닿아 있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오직 바다의 무한한 기운만을 깨닫게 해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일으키게 한다. 덧없는 세상 사람의 생, 가련할 뿐인 것을!

삼척(三陟)으로 가서 죽서루에 올랐다. 오십천(五十川) 흐르는 물이 멀리 태백산을 감싸 돌아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천지조화의 현묘함이 하나하나마다 몹시 기이하여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돌아가는 것마저 잊었다. 진기한 새들이 쌍쌍이 나는데 대부분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아름다운 곳의 금수라 어찌 범상한 금수와 다르지 않겠는가?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기 어려우나 바로 이곳 수 백리 안에서 천하의 두 기이함을 함께 본다. 산은 1만 2천 봉에, 바다는 삼일포, 총석정, 해금강에 우연히 천지의 정채롭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쏠려서 빛나 인자(仁者)와 지자(知者)의 즐거움을 함께 하니 관동에 들어오지 않고는 천지의 온전한 공을 볼 방법이 없을 것이다.

팔경(八景)에 대해 중요한 곳을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으나 그래도 미련이 있어 인제(麟蹄)에 이르러 설악산을 찾았다.

돌들 불쑥불쑥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 희기가 눈 같아 '설악'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돌산들이 천겹으로 아득히 솟아 험하다. 돌을 가르는 물은 만으로 굽어졌는데 조용하고 깊숙한 곳을 흐르는 그 물은 차고도 맑다. 계곡 물을 건너 자꾸 산길 돌고 도니 일천 봉우리는 빼어남을 다투고, 우거진 교목들은 하늘을 가렸다. 늙은 소나무에서는 학이 울고, 사슴은 풀숲으로 내닫는다. 신선이 산다는 요지(瑤池)요, 낭원(琅苑)이요, 봉래(蓬萊)요, 방장(方丈)이다.
계곡물을 끼고 좌우에는 붉은 철쭉이 빽빽하게 피어 흐르는 물에 짙게 비쳐 있어 긴 무지개가 드리운 듯하니 옥천(玉泉)에 드리운 무지개도 이곳보다는 낫지 못할 것이다. 옥천은 연경의 옥천산(玉泉山) 아래에 있는데 샘이 구슬을 뿜어내는 듯하여 분설(噴雪)이라고도 한다. 물이 괴어 못이 되었는데 넓이는 3장(丈) 남짓하다. 연경 팔경의 하나로 옛날에는 옥천수홍(玉泉垂虹)이라 했는데 지금은 옥천박돌(玉泉趵突)이라 한다. 위에 비석이 있는데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이라 쓰여 있다 하였다.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으나 그 드리워진 무지개의 모양도 이 기막힌 절경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산이 가파르게 깎여 하늘에 닿아 있어 조심조심 나아가 그 꼭대기에 오르니 대승폭포라고 이르는 것이 반공에 걸려 아득히 늘어졌는데 진주처럼 곱고 부서진 옥처럼 아름다운 물방울이 좌우에 뿜어져 한낮의 우레 소리와 함께 이슬비처럼 자욱이 내리고 있었다. 그 쏟아져 날리는 기세는 바람의 신이 연출하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장관이니 중국 여산(廬山)의 안암(鴈岩)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폭포는 삼천 척(三千尺)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백(李白)이,'날아 흘러 떨어지길 삼천 척〔飛流直下三千尺〕 마치 은하수가 구천하늘에서 떨어지는 듯〔疑是銀河落九天〕'이라고 읊은 구절은 바로 이 폭포의 신기함을 전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흰 비단이나 백설(白雪)도 오히려 평범한 말일 것이며, 옥룡(玉龍)이 은빛 무지개를 허리에 둘렀다고 하면 혹시 그것에 가까울는지 모르겠다.
우비와 모자를 쓴 김에 가까이 가서 폭포를 보려고 하니 날려 쏟아져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이 한없이 모자 위에 날아왔다. 소리는 우레가 치는 것 같고 물방울은 모자를 뚫을

듯해 비록 물방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놀라고 두려워 진정할 수 없었다.

아침 안개가 허공에 가득하여 숲과 골짜기를 분간하기 어렵다. 산봉우리들이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 가려졌다 하니 마치 푸른 옥을 깎아서 그림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다. 조금 있자 검은 구름이 비로소 걷혀 달은 밝고 바람은 시원한데 산봉우리와 바위의 온갖 기이한 모양들이 전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한편의 시를 얻었다.

천봉 우뚝 서 하늘 찌르는데　　千峯突兀稚天餘
가벼운 안개 퍼지니 그림 같지가 않네　　輕霧初敍畵不如 .
이 곳 설악산 기막히게 좋은 곳이니　　好是雪岳奇絕處
대승폭포 곁에 초막 하나 지었으면　　大乘瀑泊勝庭廬

백담사(白潭寺)로 들어가 잠깐 쉬었다가 수렴동(水簾洞)을 찾았다. 수석(水石)이 역시 기이하고 장대하다. 설악에는 옛날에 김 삼연(金三淵) 의 영시암(永矢菴)과 김 청한(金淸寒)의 오세암(五世菴)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 없지만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산과 바다의 기이한 장관을 이미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화려하고 번화한 곳을 보고자 마침내 서울로 향했다.

余關東蓬萊山人也自號錦園児小善病父母愛憐之不事女工敎以文字日有聞悟未幾年畧通經史思効古今文章有時乘興題花詠月窃念吾之生也不爲禽獸而爲人幸也不生於薙髮之域而生於吾東文明之邦幸也不爲男而爲女不幸也不生於富貴而生於寒微不幸也然而天旣賦我以仁知之性耳目之形獨不可樂山水而廣視聽乎天旣賦我以聰明之才獨不可有爲於文明之邦耶旣爲女子將深宮固門謹守經法可乎旣處寒微隨遇安分湮沒無聞可乎世無詹尹之龜難效屈子之卜而其言曰策有所短智有所長使之自行其意則吾志決矣迨此未笄之年周覽江山之勝欲效曽點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則聖人亦當與之矣心旣定計屡悬于親堂欠而後黽勉許之於是胸次浩然如鷲鳥出籠有直上九霄之氣良驥脫勒有便馳千里之志

轉向杆城上淸澗亭濱海而名澗者莫曉其義也亭前海水中有石如伏龜號龜巖巖中有石名自磨石石上下有若新加細琢者火如否葉小如小錢謂兩石交磨所致而兩石上下相間幾爲尺餘豈能相變耶然若以墨書字則過數日輒磨盖云其理誠不可曉矣坐亭上欲看月出到鷄鳴時忽見海雲玲瓏孚輪氷玉若隱若現漸露眞面光色晃朗吐出雲端怳疑白蓮花一朶遍照海面忽若碧琉璃萬頃玉宇澄廊端俱畢露淸風泠泠意想仙仙夜深不能眠命茶童進茶磨墨題詩曰

片天靑綻暮雲邊
萬象新同開闢年

鮮事奚童將煎若

漏松缺月汲清泉

窓日射紅簷鳥乱啼始覺春眠俯臨滄海雲捲霧收莫測其涯益覺天地間爲物之鉅而自歎浮生之渺一粟也

訪襄陽洛山寺青山四圍松葉菀密觀音寺臨於海上一邊倚於岸角一邊立柱海中架虛築寺法堂宏壯佛像護以白紗從軒中木板下見海水吞吐石窟中晴雷撼岳開夾窓望見水光接天山川景物盡在畫中白鷗紛紛飛下亦一奇觀也海邊女子皆黃髮赤脚以採蒹爲業商船往往出沒於滄波中浦邊材家多以鯨骨爲臼其大可知也海狗多出蹲坐巢上皆黑色形同凡狗見人則吠逼之則入于水中矣上儀景臺欲觀日出鷄數唱遥望海天雲靄漠漠移時俟候然恨陰翳之爲魔矣漠李尋云日將早清風發群陰伙觀日於海者多爲雲氣所翳豈曉夜羣隱之氣猶有所未散而然耶雲者水之氣也海水之氣爲太陽所激上升爲雲遊楊震盪於捋暾未暾之際耶稍久忽見紅鏡一顆自海中倏騰雲端冉冉漸升光色盪漾有如白玉盤上高擎眞珠缸碧波灣外微颭紅錦傘也已而快擺駁氛全湧圓輪不覺失驚狂喜踴躍欲舞瑞暈下射海面漲成一陣紅雲又復倒垂於平地上下通红便成簇火乾坤誠一奇觀也得口經詩曰

紅輪碾破海天雲

上得竿餘轉運頻

汲水擔薪材蒼曲

涳濛瑞靄浥輕塵

訪襄陽洛山寺青山四圍松葉菀密觀音寺臨於海上一邊倚於岸角一邊立柱海中架虛築寺法堂宏壯佛像護以白紗從軒中木板下見海水吞吐石窟中晴雷撼岳開夾窓望見水光接天山川景物盡在畫中白鷗紛紛飛下亦一奇觀也海邊女子皆黃髮赤脚以採蒹爲業商船往往出沒於滄波中浦邊材家多以鯨骨爲臼其大可知也海狗多出蹲坐巢上皆黑色形同凡狗見人則吠逼之則入于水中矣上儀景臺欲觀日出鷄數唱遥望海天雲靄漠漠移時俟候然恨陰翳之爲魔矣漠李尋云日將早清風發群陰伙觀日於海者多爲雲氣所翳豈曉夜羣隱之氣猶有所未散而然耶雲者水之氣也海水之氣爲太陽所激上升爲雲遊楊震盪於捋暾未暾之際耶稍久忽見紅鏡一顆自海中倏騰雲端冉冉漸升光色盪漾有如白玉盤上高擎眞珠缸碧波灣外微颭紅錦傘也已而快擺駁氛全湧圓輪不覺失驚狂喜踴躍欲舞瑞暈下射海面漲成一陣紅雲又復倒垂於平地上下通红便成簇火乾坤誠一奇觀也得口經詩曰

紅輪碾破海天雲

上得竿餘轉運頻

汲水擔薪材蒼曲

涳濛瑞靄浥輕塵

向平海上越松亭風靜浪息日氣清明極望島歟若有若無海色接天不見端倪而只覺沆瀣之氣而令

人興感浮世人生只堪可憐也哉徃三陟上所西樓五十川流水遠環太白山注于東海天地造化之玅在在甚奇也探看忘返奇鳥雙飛多不知名而勝區禽獸盖亦墨於凡常也夫觀山觀涵難其兩美而乃於此數百里內兼觀天下之雙奇以山而於萬二千峯以海而於三日浦叢石亭海金剛不意天地精英之氣偏萃於此以全仁知之樂而不入關東經以見天地之令功矣

八景旣盡領畧猶有餘戀到麟蹄訪雪岳山石勢連天峯戀聳列石白如雪故名雪嶽也石山千疊嵯峨峯嶂名川萬曲幽深凄冷屢渡溪澗行廻山路千峯爭秀喬薩蔽天鶴唳古松鹿走懸藤可謂瑤池琅苑蓬萊方丈也緣溪左右紅躑躅業業爛開花叢相間濃映流水如垂長虹玉泉垂虹未必過此矣玉泉在燕京玉泉山下泉噴如珠或名噴雪泉瀦爲池廣過三丈爲燕京八景之一古稱玉泉垂虹今改玉泉跗突上有砒曰天下第一泉吾難未見若其垂虹之狀則恐未有似此奇絕者山勢阽絕接天寸寸而進上其絕頂有曰大乘瀑掛于半空下垂幾百千丈眞珠碎玉左右噴落白日雷霆而露濛濛其氣勢風神之千奇萬壯未知與廬山雁宕孰爲伯仲而此瀑不啻爲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之句正爲此瀑傳神也試欲擬議則素練白雪猶屬尋常例語玉龍腰銀蝶蝀庶或近之着雨具帽機始近視之飛湍濺沫亂着帽上聲如雹打若將穿破雖知爲水沫而猶不覺魄驚神悖不能定情之朝露滿空不辨林壑峯巒出沒雲間若削靑玉而列畫屛俄見黑雲始收月明風淸峯垂巖石之手奇萬詭盡輸吾眼底矣得一詩曰

千峯突兀揷天餘

輕霧初收畵不如

好是雪山奇絕處

大乘瀑沛勝匡廬

入白潭寺少憩訪水簾洞水石亦奇壯也雪嶽舊有金三淵永矢庵及金淸寒五世歲菴今其遺墟雖不可見而雪獄之名盖以二公益若與金剛并時矣山海之奇壯旣爲歷覽更欲觀綺麗繁萃之場遂向京城

『湖東西洛記』

금원김씨(순조 17, 1817년~?)는 원주인으로 호는 금원(錦園)이고, 삼호정시단(三湖亭詩壇)의 동인이다. 원주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병을 자주 앓아 몸이 허약하므로 그의 부모가 글을 배우도록 했는데, 글을 뛰어나게 잘해서 경사(經史)에 능통했고, 고금의 문장을 섭렵하여 시문에 능했다. 순조 30년(1830년) 3월 14세 때 남자로 변장하고 단신 금강산을 유람하여 견문을 넓혀 시문을 짓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돌아와서 시랑이며 규당(奎堂) 학사인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다.

헌종 9년(1843년) 27세로 문명을 떨쳐서 세상에서 '규수 사마자장(司馬子長)'이라고 칭호하였다. 1845년에는 김덕희와 함께 서도와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1847년에 돌아와 서울 용산에 있는 김덕희의 별장인 삼호정에 살면서 같은 처지의 벗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규합하여 시문을 지으면서 시단을 형성하였다.

1850년에는 『湖東西洛記』를 탈고하고 철종 2년(1851년)에 『죽서시집』 발문을 썼다. 일찍부터 충청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 일대, 즉 호동서락(湖東西洛) 등의 명승지를 주유 관

람하고, 또 내·외금강산과 단양일대를 두루 편력하면서 시문을 써서 시 「湖洛鴻爪」 등이 수록된 시집 『호동서락기』를 남겼다.

341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이동표(李東標)

내가 금강산(金剛山)을 올라 1만 2천봉 상상대(上上臺)를 두루 보고 동쪽으로 큰 바다에 임한 뒤에야 천하의 다른 산들이 작다는 것을 알았다. 금강산은 개골산(皆骨山)이나 풍악산(楓嶽山)이라고 불린다. 세상에서는 봉래산(蓬萊山)이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니, 바로 이 산이 그것이다. 혹자는,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 산은 동해 가에 있는데 수백 리에 걸쳐 서려 자리를 잡았으니, 동해의 물가에 그 산자락들이 널리 퍼져 있어 꿈틀거리듯 이리저리 뒤섞여 있다.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합쳐졌다가 빙 돌아나가기도 하여 줄 지어 봉우리가 된 것이 일만 이천이라 하니 모두 흰 돌이 뼈대로 선 것이다. 돌 사이에 초목은 자라지 않고 이따금 단풍나무가 자라나 그 흰 돌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바라보면 흰 구름인가 의심하게 된다. 산 속에는 신령스럽고 기이한 자취들이 많은데, 중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다.

진입로는 험하여 막혔는데, 동해 쪽의 길은 더욱 심하다. 옛날에 안문점(雁門岾) 쪽에 길을 내면서 절벽으로 끊어진 곳은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잔교를 만들었다. 그러나 때때로 끊어져서 길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길은 가는 사람이 돌 비탈을 따라 혹 노끈을 잡고 무릎으로 기어서 갔다. 그러다 굴러서 깊은 연못에 빠졌다. 그러므로 유람하는 선비 중에 여기에 이르는 행운을 얻은 사람이 드물었다.

제일봉인 비로봉(毘盧峰)은, 봉우리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다. 유람하는 사람이 그 꼭대기에 이를라치면 문득 폭풍이 불고 비가 내려 낮에도 어두워지므로 사람이 두려워하여 감히 오르지 못한다. 올라가면 곧 한양부터 서해까지를 볼 수 있고, 북쪽으로는 철관령(鐵關嶺)으로부터 숙신씨(肅愼氏)의 땅까지 볼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태백(太白)으로부터 신라와 백제의 지역까지 볼 수 있다. 동해에서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곤어와 붕새

가 노닐면서 장난치고, 이른바 1만 2천 봉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열 지어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사방에 둘러서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로봉이 북쪽으로 나간 것은 영랑점(永郎岾)이 되고, 또 서쪽으로 꺾어서 방광대(放光臺)가 되었으며, 그 아래는 정양사(正陽寺)이다. 절은 산허리 부근에 있는데, 매우 높고 넓다. 그 앞에는 헐성루(歇惺樓)가 있고, 또 그 남쪽에 천일대(天逸臺)가 있다. 대는 그리 높지 않으나 그 형세가 빼어나다. 남북의 빈 곳에 웅거하여 한 가운데서 돌출하였으므로 내금강(內金剛)의 승경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다. 산을 유람하는 자들이 이곳에 이르면 곧 유람하는 것을 그친다.

내가 지금 임금 재위 16년 경오해에 은혜를 입어 양양(襄陽) 수령이 되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떠나 죽령(竹嶺)을 넘어 오대산(五臺山)을 구경하고 대관령(大關嶺)에 올랐으며 경포대(鏡浦臺)도 유람하였다. 관청에 일이 없는 날이면 그곳의 산과 바다 사이에서 방랑하였다.

8월 기사일에 병이 조금 낫자,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사(進士) 유일상(柳日祥)이 영남으로부터 왔다. 그 사람은 시를 잘 짓고, 나와 친하므로 드디어 동행하였다. 현산(峴山)에서 출발하여 강선역(降仙驛)을 들렀다가 청간정(淸澗亭)에 들어가고 만경대(萬景臺)에도 올랐다. 저녁에는 간성(杆城)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태수(太守) 정성원(鄭聲遠)이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날은 대강역(大康驛)에서 유숙하였고 또 그 다음날에는 고성(高城)에 이르렀다.

양양으로부터 여기까지 바닷길이 모두 2백 여리 인데, 청초호(靑草湖), 영랑호(永郎湖), 광호(廣湖), 소호(蘇湖), 선유담(仙遊潭), 화진호(花津湖), 감호(鑑湖) 등을 지나왔다. 이따금 모래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울었고 모래밭 가에는 푸른 소나무가 많았다. 바다 가운데 섬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였고, 혹 석봉이 기궤하기도 했다. 남강(南江)에 아름답게 꾸민 배를 띄워 해산정(海山亭)에 올랐다. 정자의 동쪽은 바다에 닿아있다. 바다 입구에는 칠성암(七星庵)이 파도 사이에 열 지어 서 있는데 모두 옥색이다. 서쪽으로 금강의 구정봉(九井峰)이 보이는데, 구름 사이에 삐죽 보인다. 세상에서 악양루(岳陽樓)를 천하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백 리 동정호(洞庭湖) 가운데 임금같이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자는 옆으로 큰 바다와 금강산을 끼고 있다. 물이 크고 또 기이하니 마땅히 더불어 견줄 것이 없다. 감호, 삼일포(三日浦), 총석(叢石) 등의 여러 명승이 또 그것을 따라 옆에 바둑알처럼 줄 지어 서 있다.

앞에 열거한 것들이 천하의 절경에 처하였는데도 천하의 이름난 문장가들이 와서 보고 드러내기를 악양루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니, 탄식할 만하다.

삼일포에 이르렀으나 배를 바다 기슭에 대었을 뿐 내리지는 않았다. 드디어 돌아서 몽천암(夢泉庵)에 들어갔다. 암자는 삼일포의 호수 위에 있다. 삼일포는, 네 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삼일을 유람한 까닭에 호수를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세상에 전한다. 호수 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그 섬의 바위 위에는 네 신선의 붉은 글씨가 있다. 또 그 동쪽에는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선조인 송재공(松齋公)이 일찍이 강원도(江原道) 안절사(安節使)가 되었을 때 그 위에 시를 지어 적었는데, 지금 그 판이 아직도 있다.

저녁에 비를 만나 발연사(鉢淵寺)에 들어갔다. 절은 구정봉의 동쪽에 있다. 절의 승려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행위인 알몸으로 연못에 들어가 돌 사이를 따라가다 폭포에 이르러 몸을 던져 빠르게 내려가게 하여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는데, 내가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치게 하였다.

다음날 비가 그치자 산을 따라 남쪽으로 오십 리를 갔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북으로 가서 백천교(百川橋)에 이르렀다. 절의 승려가 견여 두 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개 여기서부터는 길이 험하여 다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다. 말을 놓고 견여를 타서 단풍나무 숲을 지나갔다. 물이 철철 소리를 내며 절벽 가운데로 흘러내려갔다. 승려에게 앞길을 물으니 흰 구름 사이를 가리키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에서 벗어난 생각이 들게 하였다. 험한 곳을 만나면 곧 걸어갔다. 저녁에 구점(狗岾)에 올랐는데, 그 위에 노춘정(盧偆井)이 있었다. (그에 대한 고사가) 말이 허탄하여 증거를 댈 만하지 않다. 돌 위에 조금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삼일포를 바라보니 산의 반허리에 석양이 비추고 있었다. 그 바깥에는 만 리의 바다에 파도가 치며 바람에 돛배가 달리고 있었다. 장항(獐項)을 넘어 삼협교(三峽橋)와 단풍교(丹楓橋)를 지나 명월교(明月橋)에 도달하였다. 달빛이 산에 가득하여 산 그림자가 은은하였다. 산영루(山影樓)에 들어갔다. 누대는 유점사(楡岾寺)의 앞에 있었는데, 돌 다리를 깔고 앉은 형세였다. 물은 누대의 바닥을 따라 누대를 지나간다. 앞에는 오래된 잣나무가 대단히 많았다. 밤에 절에서 잤다.

새벽에 이르러 종소리와 풍경소리를 들었다

늦은 아침에 남여를 타고 허곡암(虛谷巖)을 지났다. 6, 7리를 가자 돌길이 험하고 나무가 더욱 울창하여 하늘의 해가 보이지 않았다. 모두 맑고 고요하여 속세의 기운이 없었다. 물은 그 사이를 흘러 옥을 치는 소리를 낸다. 때때로 단풍이 보이는데 붉기가 피와 같아 좋아할 만하다. 승려가 말하기를,

"산중에 나쁜 짐승이 없어서 사람이 밤에 다녀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사냥하는 자가 감히 산에 들어와 짐승을 몰아 죽이지도 못하는데요, 죽이면 갑자기 병이 생겨 죽는답니다."라고 하였다.

정오에 안문점에 올라 비로봉을 바라보았다. 안문의 서쪽은 산이 더욱 기이하고 색은 희니, 이른바 내금강이란 것이다. 그 동쪽은 외금강이 되니 이로부터 길이 더욱 험하고 바위와 골짜기는 깊어진다. 골짜기가 좁아진데다 어지러운 돌이 이리저리 굴러다녀 사람은 돌의 뾰족한 위로 걸어간다. 안문점에서 부터 장안사(長安寺)까지 30리 길이 모두 그렇다.

일관(日觀), 월관봉(月觀峰)의 아래를 지나고 묘길상(妙吉祥)의 옛터를 지나서 마하연암(摩河衍庵)에 들었다. 마하연은 중향성(衆香城)의 아래에 있는데, 승려기 없어 비어 있다.

사자봉(獅子峰)을 지나고 화용담(火龍潭), 선담(船潭), 귀담(龜潭), 진주담(眞珠潭), 벽하담(碧霞潭), 백룡담(白龍潭), 흑룡담(黑龍潭)을 구경하였다. 담 위는 석응봉(石鷹峰)이고 절벽의 아래는 보덕굴(普德窟)이다. 철주를 세워 허공에 얽어매어 누대를 지었는데, 지금은 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다. 대향로봉(大香爐峰), 소향로봉(小香爐峰)을 지나 아래로 선유암(仙遊巖)에 이르렀다. 물이 더욱 품어내며 내달렸으니, 이른바 만폭동(萬瀑洞)이다. 일명 청학동(靑鶴洞)인데 그 위는 청학대(靑鶴臺)이다. 옛날에 청학이 그 위에 와서 살았다. 절로 안문의 길을 통하여 청학은 백마봉(白馬峰)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돌 위에는 옛날과 지금 사람의 새긴 이름이 많았는데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의 여덟 자의 큰 글씨가 물 가운데 바위에 새겨져 있다. 글자체가 날아오르는 것 같다.

골짜기를 지나 석문을 거쳐 표훈사(表訓寺)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가 길을 재촉하여 정양사에 오르니, 석양 무렵에 이미 방광대를 지났다. 한 노승이 앞에 와서,

"비가 새로 내렸다가 (지금 그쳐) 산중에 구름이 없으니 여러 봉우리의 면면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급히 올라가시어 뒷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기에 그 말을 따랐다.

드디어 곧바로 천일대에 도달하였다. 올라가니 여러 봉우리들이 눈앞에 벌여있다. 먼 것은 하늘가에 아득하고, 가까운 것은 대 아래에 단정히 읍하고 있다. 큰 것은 장엄하며 날카롭게 깎여있고, 작은 것은 어여쁘고 교묘하였다. 뾰쪽한 것은 세워 놓은 붓과 같거나 창을 나열한 듯 하였고, 둥근 것은 술동이 같거나 창고 같았다. 입을 벌린 듯 이지러진 것은 성가퀴 같고, 갑자기 솟은 것은 엎어놓은 종 같다. 가로로 놓인 것은 기를 눕히거나 장막을 겹쳐 놓은 것 같고, 세로로 서 있는 것은 홀을 단정히 하거나 준순을 묶은 것 같다. 숨어 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여인이 담장을 엿보며 얼굴을 반쯤 드러낸 것 같고, 나타난 것은 단정한 선비가 모자를 바르게 하고 승상에 기대 있는 듯 하다.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신선의 동자와 같고, 우뚝 서 있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다. 내려와서 앞에 있는 것은 누대와 전각에서 내려온 것 같고, 솟아오르며 뛴 듯한 것은 도약하는 호랑이나 비상하는 용인듯 하다.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 같고 오는 것은 돌아오는 것 같다. 굽힌 듯 우러른 듯, 절을 하는 듯 춤을 추는 듯, 향하는 듯 등지는 듯, 일어나는 듯 엎드려 있는 듯, 모이는 듯 흩어지는 듯, 나아가는 듯 물러나는 듯, 거꾸러져서 떨어지는 듯 뛰어가 내달리는 듯 하였다. 그러나 비로봉은 우두머리처럼 우뚝 서서 (이 모든 산들의) 마루[宗]가 되니 엄중하여 공경할 만하다. 통틀어 말한다면, 흰 구름이 만 겹으로 덮여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기이한 모양이라 낱낱이 형용할 수가 없다. 유군이 돌아보고 웃으

며 나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금강산이 되겠는가? 지금 참으로 잘 보았으니 어찌 천고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나는 묵묵히 응답하지 않았다.

절로 돌아왔으나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헐성루에 올랐다. 누의 가운데에서 보는 것은 천일대에서 보는 것과 대략 비슷하였다. 나는 매우 기뻐 오랫동안 떠날 수 없었다. 얼마 후 문득 우레소리가 서북쪽에서 나고 검은 구름이 중향성을 넘어 내려오니 바위 골짜기가 어두워지고 번개의 섬광이 번득였다. 큰 바람과 비가 골짜기를 휩쓸며 진동하였으며 모든 폭포가 우레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내었다. 내가,
"장엄하도다! 오늘 저녁에 가을 달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승려가,
"이것은 소나기입니다. 장차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잠시 뒤에 비가 그쳤다.
이경의 밤에 달빛이 대낮과 같고 구름은 전혀 없었다. 유군이 일어나 옷을 걷고 나를 부르니 (나는) 급하게 누대에서 나와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바위와 여러 골짜기에 (달빛이) 밝고 깨끗하여 중향성의 남쪽으로부터 망고대(望高臺)에 이르기까지 흰 구름이 산을 덮은 것만 같았다. 급히 술을 찾아 몇 순배를 돌렸다. 이날 밤에 절 에서 잤는데, 정신과 육체가 모두 맑아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깐 비가 내리다가 잠깐 개기도 하고, 구름과 안개를 토했다 삼켰다 하다가 이윽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고 고운 노을이 아른거리니 기상이 천만 가지로 변하였다. 절의 승려가 나옹선사(懶翁禪師)의 의발을 내와서 보여주었다. 절에는 육면무량각(六面無量閣)이 있는데, 벽 위의 불상은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것이다.

저녁에 산을 내려와 삼장암, 표훈사, 백화암(白華庵)을 거쳐 명연(鳴淵)을 지나 장안사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유점사로 돌아왔다. 나아가 외수점(外水岾)으로 가는 길을 따라 금장암(金莊庵)의 옛터를 거쳐 외수첨에 올랐다. 서쪽으로 단발령(斷髮嶺)이 보였다.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산에 들어온 자들은 이 고개에 오르면 비로소 금강산을 볼 수 있다. 치재(恥齋) 홍인우(洪仁佑)의 '유산기(遊山記)'에 '삼군이 상복을 입고 칼과 창이 서로 향하게 하였다'라 한 것은 대개 실제의 기록이다. 우리 세조께서 유람할 때에도 제단이 있었다고 한다. 고개 위에 잠깐 앉아 점심을 먹었다. 먹고 나서 서둘러 고개를 내려왔다. 산중의 승경이 이곳에 이르러 다했다. 그러나 오히려 구름 낀 골짜기는 아늑하고 붉은 색의 단풍과 푸른 나무들이 서로 비추니 기뻐할 만하다. 왼쪽으로 돌아 유점사에 들어가서 잤다.

다음날 동쪽으로 은선대(隱仙臺)에 올라 열 두 폭포를 바라보고 송림굴(松林窟)을 보려 했으나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구점(狗岾)을 따라 산을 나왔다. 백천교에 이르러서 말을 타고 대강역(大康驛)으로 나왔다.

바다를 끼고 사흘을 가서야 동해의 신묘(神廟)에 이르러, 조정의 명으로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날이 밝자 해안에 나와 일출을 보았다. 바다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한 가운데 태양이 솟아오르니 또한 장관이다. 돌아와 고을에 이르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본 바를 대략 말하였다.

아아, 천하의 산 중 우뚝 높고 큰 것을 일일이 셀 수 없다. 즉 오악은 논할 것도 없고 천태산, 안탕산(雁蕩山), 청성산(靑城山) 같은 것은 모두 신선이 사는 곳으로 천하에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기록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이른바 1만 2천 봉이란 것에다가 또한 큰 바다가 그 밖을 에워싸며, 귀신이 깎은 옥인 섞인 듯 아름다우니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천하에 짝 짓을 것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봉래 양사언이 칭찬했다는 것과 중국 사람들도 동국에 태어나서 한번 보기를 소원한다고들 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더러운 세속에서 벗어나 세상 밖의 광대한 저곳을 몸소 찾아다니며 홀로 하루 동안에 천하의 대단한 명승을 다 보았는가? 바람과 우레와 구름과 달이 경각에도 자주 변하여 앞에서 서로 대신한 것은 아마도 귀신이 도움이 있는 것 같으니 어찌 그리 통쾌한가? 비록 그렇지만 옛날의 이른바 산수의 즐거움이란 것은 어찌 우뚝 높은 산과 깊이 흐르는 물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반드시 마음에 즐기는 바가 있어야 하니,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어찌 서로 권면하지 않겠는가? 이번 여행에 대해 각각 시를 지어 본 것을 기록하여 무릇 약간의 수를 얻었다. 유람할 시간이 없는 이들이 잠시 이것에 마음을 붙여서 다른 날은 기다리게 하련다.

이 해 8월 현산관(峴山館)의 태평루(太平樓)에서 쓴다.

余登金剛山. 縱觀萬二千峯上上臺. 東臨大海. 然後知天下之山小也. 金剛山. 一名皆骨. 一名楓嶽. 世以爲蓬萊山. 非在海中. 卽此山. 是也. 或曰非也. 世莫得以辨也. 山在東海上. 盤居數十百里. 以其趾散落於東海之濱. 蜿蟺磅礴. 去而復旋. 合沓迴轉. 列而爲峯者. 號一萬二千. 皆白石骨立. 石間不生草木. 往往楓樹生之. 然不能掩其白. 故望之疑爲白雲焉. 山中多靈眞異跡. 浮屠氏傳誦之. 然不可信.

其始路. 險不通. 東海一面. 特甚. 中古開雁門岾一路. 崖缺處. 人斬木爲橋棧. 猶時絕不通. 行者夤緣石磴. 或攀絙索膝行. 跌則轉而入于滸淵. 以故遊觀之士. 罕得幸而至焉.

最上毗盧峯. 峯上常有雲氣. 遊人至其顚. 輒暴風雨晝晦. 人懼不敢上. 上則可望國都. 以及西海. 北望鐵關嶺. 以及肅愼氏之墟. 南臨太白. 以及新羅百濟之郊. 其東海日月之所沈浮. 鯤鵬之所遊戲. 而所謂萬二千峯者. 四面環立而嚮之. 如兒孫列侍. 然毗盧峯北出而爲永郎岾. 又西折爲放光臺. 其下正陽寺. 寺在山半. 極高敞. 其前有歇惺樓. 又其南爲天逸臺. 臺不甚高.

然勢絕據南北之虛. 突出當中. 故能盡得內山之勝在眼前. 遊山者至此. 則觀止矣.

余以 上之十六年庚午歲. 蒙 恩出守襄陽. 奉大夫人以行. 過竹嶺. 窺五臺. 登大關嶺. 遊鏡浦臺. 旣至官. 無事日. 放浪山海間.

八月己巳. 病新愈. 決策爲金剛之遊. 柳進士日祥. 自嶺南至. 其人能詩. 與余善. 遂同行發峴山. 過降仙驛. 入清澗亭. 登萬景臺. 暮抵杆城宿焉. 太守鄭聲遠. 爲設小酌. 明日宿大康驛. 又明日至高城

自襄至此海. 行凡二百餘里. 歷青草湖. 永郎湖. 廣湖. 蘇湖. 仙遊潭. 花津湖. 鑑湖. 往往鳴沙軋軋. 沙上碧松萬株. 海中島嶼. 松篁鬱然. 或石峯詭恠. 泛彩船南江. 登海山亭. 亭東臨海. 海門有七星巖. 列立波間. 皆玉色. 西望金剛九井峯. 插入雲中. 世謂岳陽樓. 爲天下壯觀者. 以其有七百里之洞庭. 而中峙一君山也. 今是亭也. 傍大海. 挾金剛山. 水之大且奇. 宜無與相角. 而鑑湖. 三日浦. 叢石諸名勝. 又從而棊列其傍. 惜其處天下之絕域. 不爲天下文章鉅公. 登覽而表章之. 如岳陽焉. 則可慨也.

到三日浦. 船閣岸不下. 遂轉入夢泉庵. 庵在三日浦湖上. 三日浦者. 世傳四仙於此遊三日. 故以名湖. 湖中小島. 石上有四仙丹書. 又其東. 有四仙亭. 先祖松齋公. 嘗按節. 題詩其上. 今其板尚在云.

暮遇雨. 入鉢淵寺. 寺在九井峯之東. 寺僧以故事騾入淵. 從石間. 隨瀑布. 轉身疾下. 以爲觀. 余惡其以人戲也. 止之.

翌日雨歇. 循山而南行五十里. 折而北. 至百川橋. 山僧以二肩輿待之. 蓋自是路險. 不復騎矣. 舍馬乘肩輿. 行楓林中. 水聲激激. 瀉出崖壑中. 問僧前路. 指白雲間. 令人已有出塵之想矣. 遇險卽步行. 暮登狗帖. 其上有廬倉井. 語誕不足微. 少坐石上. 回望三日浦. 夕陽半山. 其外海波萬里. 風帆交其中. 踰獐項. 過三峽橋丹楓橋. 至明月橋. 色滿山. 山影隱隱. 入山映樓. 樓在榆帖寺前. 跨石梁爲樓. 水從樓底. 過樓. 前古栢千章. 夜宿寺中. 達曙聞鐘聲聲.

遲明. 乘藍輿. 歷虛谷庵. 行六七里. 石路嶔崎. 樹林益葱蔚. 不見天日. 皆蕭森疎爽. 無世俗氣. 水流其間. 有戛玉響. 時見丹楓. 赤如血可愛. 僧言山中無惡獸. 人夜行不憚. 獵者不敢入山逐殺獸. 殺輒暴疾以死. 午登雁門岾. 望見毗盧峯. 雁門以西. 山益奇色白. 所謂內山者也. 以東爲外山. 自是路益險. 巖壑溪邃. 峽束亂石錯置縱橫. 人從石牙上行. 雁門至長安三十里. 皆然. 過日觀月觀峯下. 經妙吉祥古址. 入摩訶衍庵. 摩訶衍. 在衆香城下. 空無僧. 過獅子峯. 歷火龍潭船潭龜潭眞珠潭碧霞潭白龍黑龍潭. 潭上石鷹峯. 崖下普德窟. 立鐵柱架空以樓之. 今廢不居. 由大小香爐峯下至仙游巖. 水益噴薄奔放. 所謂萬瀑洞也. 一名青鶴洞. 其上青鶴臺. 舊有青鶴樓. 其上自通雁門路. 青鶴移入白馬峯云. 石上多古今人刻名. 楊蓬萊八大字. 刻在水中石. 字體飛動

峽盡過石門. 入表訓寺. 小憩. 促上正陽寺. 夕陽已過放光臺矣. 一老僧前曰. 天新雨. 山中無雲. 面面峯巒可數. 天逸臺. 願急登. 不可以待佗日. 從之. 遂直抵天逸臺. 至則衆峯森羅眼前.

遠者縹緲天表. 近者拱揖臺下. 大者莊嚴刻削. 小者妍好巧妙. 尖者如卓筆如列戟. 圓者如樽罍如庫廩. 呀然缺者如城堞. 突然峙者如覆鍾. 橫者如偃旂疊障. 竪者如端笏束筍. 隱者如靜女窺牖露半面. 顯者如端士整帽倚繩床. 離立者如仙童. 偃蹇者如老宿. 降而前者如舜樓下殿. 騰而踔者如躍虎跳龍. 往者如返. 來者如復. 如俯如仰. 如拜如舞. 如向如背. 如起如伏. 如聚如散. 如進如退. 如倒而墜. 如走而馳也. 而毗盧峯. 魁然特立爲宗. 嚴重可敬. 摠而言之. 如白雲萬疊. 浮出海中. 奇形恠狀. 不可殫述. 柳君顧笑謂余曰. 不如是. 何以爲金剛山者耶. 今眞見之矣. 豈不爲千古一快. 余

回到寺不入. 直上歇惺樓. 樓中所見. 與天逸略同. 余樂之甚. 久不能去. 俄而忽雷聲起西北. 黑雲踰衆香城以下. 巖壑晦冥. 電光閃鑠. 大風雨陵谷震動. 萬藻轟輵如雷. 餘曰. 壯哉. 今夜是中秋月色可得見耶. 寺僧曰. 驟雨也. 且止矣. 小頃. 雨止.

夜二鼓. 月色如晝. 雲盡. 柳君起. 攬衣呼余. 急出樓上觀焉. 千巖萬壑. 昳朗灑落. 衆香城以南. 至望高臺. 依俙然若白雲漫山. 亟呼酒酌數巡. 是夜宿寺中. 魂骨俱淸. 不能寐朝. 乍雨乍晴. 雲霧吐吞. 已而日光穿漏. 彩霞隱映. 氣像萬千. 寺僧出示懶翁衣鉢. 寺有六面無梁. 閣壁上佛像. 有吳道子畫.

暮下山. 歷三莊庵. 表訓寺. 白華庵. 過鳴淵. 宿長安寺. 翌日. 還向榆岾. 迤從外水岾路. 歷金莊庵古址. 登外水岾. 西望斷髮嶺. 從西行入山者. 登此嶺. 始見山. 洪耻齋遊山記. 三軍縞素. 劒戟相向者. 蓋實錄也. 我 世祖駕行時. 壇壝在云. 小坐嶺上. 午飯. 食已促下嶺. 山中勝觀. 至是已窮矣. 然猶雲壑窈窕. 丹絲相映. 可喜. 左轉入榆岾寺宿. 翌日欲東登隱仙臺. 以望十二瀑. 觀松林窟. 不果. 遂從狗岾出山. 至百川橋. 乘馬出大康驛.

傍海行三日而至東海神廟. 以 朝命祀東海神. 平明. 出海岸. 不可一二數卽無論五嶽如天台雁蕩靑亦一壯觀. 還至縣. 謁慈闈. 略敘所見.

噫. 天下之山. 巍然高而大者. 不可一二數. 卽無論五嶽. 如天台雁蕩靑城. 皆以仙窟聞天下. 然自古今. 傳記所載不聞. 所謂萬二千峯者. 而又有大瀛海以環其外. 神剜鬼刻. 玉雪紛錯. 若是者. 蓋天下莫能伍也. 而說者以爲有蓬萊之稱. 中國人至願生東國一見之焉. 余是何人. 拔出塵埃之中. 浮遊汗漫之表. 窮搜獨往一日. 而盡天下之大觀. 風雷雲月. 頃刻萬變. 以相代于前者. 若有以陰相之. 何其快哉. 雖然古之所謂山水之樂者. 豈謂其隆然而高. 坎然而流者哉. 其必有所樂乎中者. 吾輩於此. 盍相與勉之. 是行也. 各賦詩以記所見. 凡得若干首. 其遊歷. 有未暇窮者. 姑留之以待異日. 是歲八月日. 書于峴山館之太平樓

「遊金剛山錄」-『懶隱集』

이동표(인조 22년, 1644년~숙종 26년, 1700년)의 본관은 진보(眞寶)이고 자는 군칙(君則)·자강(子剛), 호는 나은(懶隱)이다. 숙종 1년(1675년) 진사가 되고, 1684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검열(檢閱)에 등용되고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의 천거로 전적(典籍)에 승진했다. 부수찬(副修撰)이 되어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인현왕후(仁

顯王后)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화를 입은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 등을 신구하다가 숙종 16년(1690년) 5월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좌천당하였다. 그러나 경학(經學)에 밝은 선비라 하여 곧 헌납(獻納)으로 기용되었다. 그 후 이조 좌랑(吏曹佐郎)으로 있을 때 권신의 무능한 자제를 청환직(淸宦職)에 임용하려는 판서와 충돌, 사직하고 낙향했다가 다시 승지(承旨)를 지냈다. 사간원헌납·이조좌랑·홍문관교리 등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하고 귀향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소퇴계(小退溪)라 일컬었다. 낙향한 뒤에도 계속하여 사헌부집의·호조참의·삼척도호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사직의 상소와 함께 그때마다 직언으로 시정의 개선책을 건의하였다. 영조 17년(1741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현종 11년(1845년) 예천의 원산서원(元山書院)에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나은문집』이 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342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

신익성(申翊聖)

고성(高城)의 모든 경내는 산, 바다, 호수, 정자는 물론이고 아주 평범한 바위라고 할지라도 모두 뜻과 모양이 있다. 새 같은 것, 짐승 모양을 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날아갈 듯 하기도하고 달아날 듯 하기도하였다. 남강(南江)은 바다로 흘러들었고 칠성 바위들이 바닷가에 쭉 벌려져 있어 옥으로 된 죽순과 옥비녀인 듯하였다. 해산정(海山亭)이 내리누를 듯이 있으니 신선들이 살던 곳이라고 할 만 하다. 삼일호(三日湖) 근처에는 몽천사(夢泉寺)의 옛 터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절이기는 하지만 맑은 정취는 오나라의 북고와 우위를 겨를 만하다. 태수가 거사(居士)에게 작은 모옥을 짓게 하고 그것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삼일호 서쪽 절벽 위에는 붉은 글씨가 있는데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움푹 패여 사람의 자취가 닿기 어려웠다. 새겨진 글자의 서법(書法)이 아주 고풍스러웠으니 홍춘정(洪春亭)이 안렴사가 되었을 때에 문장을 지어 검은 돌에 새겨서 바위를 깎아내고 새겨 넣었다고 한다. 그 위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있는데 글자들이 이미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니 대개는 향을 묻은 사람들의 성명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부용호(芙蓉湖)는 방백 정하숙(鄭下叔)이 사는 곳이다. 호수가 외금강 아래에 있어서 경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골짜기도 깊숙하고 조용하면서도 씨 뿌리고 모내기 할 만 한 땅이 있어 은자들의 은거지가 될 만하였고 가마를 빌릴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감호(鑑湖)는 사방 3, 4리이고 물이 맑아서 터럭까지도 환히 비추고 앞으로는 구선봉을 마주 대하여 금강산의 향로봉과 백탑동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다. 그 아래는 규모가 비슷비슷하여 왼쪽에는 양사언이 살던 옛 집이 있다. 촌락이 숲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오른쪽에는 키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바닷가를 가릴 정도였다. 그 소나무 너머에 사봉이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어 옥같이 보인다. 호숫가에 있는 정자는 토호였던 정유(鄭油)가 세운 것이라고 한다. 바닷가에 호수가 많지만 당연히 이 감호가 제일이다.

간성(扞城)으로 가는 길에서 바다 갈매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물가 모래밭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기이하였다. 이리저리 훑어보는 사이에 굽이진 해안으로 나오니 어가(漁家)들은 해안에 의지하여 있고 아녀자와 아이들이 섞여 앉아 있는 가운데에 언덕같이 쌓아놓은 물건이 있는데 바로 잔물고기들이었다. 갈매기 떼가 와서 채가도 꺼리지 않았다.

동해의 거룻배는 통나무를 파내어 만드는데 너 댓 명이 탈 수 있으니, 농어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는다. 해가 뜨면 돛을 펼치고 나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오후 서너 시쯤 하늘 밖 저쪽에 한 점이 나타났다가 잠깐 사이 물가에 닿으니 정말 가볍고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다. 선대(仙臺)와 능파정(凌波亭)은 모두 해상에 있는 볼거리인데 표연한 모습이 세상을 버리고서 홀로 서 있는 듯한 의취가 있다.

영랑(永郎)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서에 쓰여 있다. 금강산에도 영랑점이 있고 고성에도 영랑호가 있으며 간성에도 영랑호가 있는데 영랑이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고 또 언제 사람인지 모른다. 영동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영랑호의 부류라고 한다. 고성의 호수는 그윽하고 간성의 호수는 더욱 맑고 시원스런 풍경을 갖고 있다. 소나무 옳다.암혁가 있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으며 반나절만이라도 돌아다니면 영랑을 만날 것만 같다.

고성의 수석이 기이한 곳들은 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현종암(懸鐘巖)은 마치 엎어놓은 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벌집 같이 텅 비어 십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화옹의 교묘한 솜씨를 알 수 있다.

선유담(僊游潭)은 원래부터 신령스런 곳이다. 내가 피곤하여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잤는데 꿈에서 옛 옷과 관을 쓴 사람과 즐겁게 선(仙)과 불교의 일들에 대해 말하였다. 잠에서 깨었어도 여전히 그 이야기가 기억나니, 기이하다.

열산호(烈山湖)는 바닷가에 있는데, 관동에서 제일 크다.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타고 나갈 배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명사(鳴沙) 수백 리를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작은 누각 같은 데서 걸터앉아 있기도 하는 등 마음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다. 처음 고성을 빠져나왔을 때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앉아서 쉬니 행차가 더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경치가 뛰어나 모두 다 감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매향포(埋香浦), 우두대(牛頭臺), 화진포(花津浦) 등 몇몇 곳은 경치가 더욱 기이하였다.

9월 13일

청간정(淸澗亭)에 이르렀다. 환한 달빛과 바다 파도가 서로 넘쳐흐르고 하늘에는 구름조차 없어 대낮같이 밝았다. 이에 내가 만경대에 올라 돌을 베고서 누웠더니 밤이 깊어지자 서늘한 이슬이 옷을 적시었고 맑은 기운이 뼈에까지 스며들었다. 노복에게 만경대 아래에서 피리를 불도록 하였는데 어룡이 모두 솟아 올라올 것만 같았다. 이 밤, 이 달을 천하가 공유하는 것이지만 나처럼 득의해서 바라보는 이도 없을 것이다.

청간정은 아주 바다 가까이에 있어 사나운 파도가 뜰까지 칠 때면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였다.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당나라 사람이 시에서 '조수(潮水) 소리는 처음 온 나그네를 근심스럽게 하는구나.'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청간정 기둥에 비스듬히 쓰여진 글자 20개가 있는데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쓴것으로 그 후 사람들이 새겨 넣었는데 그 세월을 헤아려보니 소재의 나이 23세 때 쓴 것이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밟았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관동 수백 리에 걸쳐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해당화가 그 위에 줄지어 피면 마치 담요를 펼쳐놓은 듯, 비단 장막을 둘러쳐 놓은 듯하다. 가을이 깊어지면 금앵도 같은 열매를 맺는다.

바닷가의 길이 모두 명사이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바윗길도 있는데 반드시 파도 가운데서 돌출하여 대를 이루니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다. 평지에는 반드시 푸른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푸른 일산 같이 수백 리에 뻗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소나무 아래로 다닌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운이 있다.

천후산(天吼山)은 양양(襄陽)에 있다. 골짜기와 산봉우리가 금강산과 나란히 일컬어질 만하다. 하늘을 향해 곧바로 솟아 있으면서 크지는 않지만 이름난 가람이 많은 정토(淨土)라서 암자를 짓고 사는 고승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일출을 세 군데에서 보았었는데 그 중 해산정에 머문 것이 가장 길었으나 비가 자주 와서 세 차례만 보았을 뿐이다. 청간정, 낙산사(洛山寺)에서는 모두 맑게 개였었는데 낙산사에서 본 것은 더욱 대단하였다. 세상에서 낙산의 일출을 일컫는 것도 연유가 있다.

양양의 수령이 낙산사 이화정(梨花亭)에서 내게 술을 대접하였다. 술에 반쯤 취하자 의상대(義相臺)로 자리를 옮겼다. 몇 개의 점이 저쪽 하늘가에서 오는 것이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고깃배가 도착한 것이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하얀 돛이 물가에 닿아

바다의 진미를 제공하여 실컷 술을 마셨다. 자리에 있던 어린 기생이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불렀는데 매우 맑고 아름다워 듣노라니 정신이 새로웠다.

상운역(祥雲驛)의 유객당(留客堂)이 자못 깨끗하였다. 뜰 가의 오죽은 울창하여 사랑할 만했다. 한 쪽은 바다로 이어졌는데 키 큰 소나무들이 수십 리에 뻗어 있으면서 흰 모래 위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관동의 명소이다. 역관이 배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그 크기가 여러 되나 되는 바가지만 하였다.

강릉의 경계로 들어가니 지세가 매우 넓고 마을은 풍요로웠다. 관란정(觀瀾亭) 아래 푸른 소나무가 시냇가를 따라서 십리에 펼쳐져 있었다. 때는 깊은 가을로 해상의 가을빛은 매우 더디게 비추었다. 아주 울긋불긋한 붉은 잎들이 볼 만하였다. 정자에는 지어놓은 시들이 벽에 가득하였는데 모두 벼슬아치들의 시였다. 세월을 따져보니 5, 60년이나 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도 있었다. 아! 세상의 유명한 벼슬아치들이 헛된 성명을 훔쳐 한때에 드날리지 않음이 없으나 죽고 나서 후에 이름이 일컬어 지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슬프도다.

우두대가에는 단정하게 단장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보니 강릉에 적을 두고 있는 기생 옥랑(玉娘)이었다. 젊었을 때 평강(平康)에서 같이 있다가 보지 못한 지 십여 년이 되었다. 옛날에는 머리 땋은 어린 기생이었는데 나이가 든 모습이었다. 그녀도 내 수염과 머리를 보고서 놀랐다.

강문교(江門橋)를 건너 호숫가 숲 사이에 은근히 보이는 누각을 바라보니, 붉게 칠해져 우뚝 솟아 올라온 것이었다. 말을 타고 가서 사립문을 두드려 보니 정자는 비었고 주인은 없었다. 뜰가에 있는 푸른 오동나무와 쭉 뻗은 대나무는 사람의 뜻을 아는 듯 하였고 안팎의 호수와 바다가 기이함을 서로 뽐내는 듯하였다. 때마침 해가 기울어 석양이 호수에 물들었고 바다의 파도는 하늘 끝까지 맞닿아 고요한 듯하였다. 해상에서 제일가는 곳이었다.

水岾. 內外山界也. 外山僧徒持籃輿來. 替內山僧告辭. 仍乞詩. 無慮數十輩. 賦詩淸事. 應副作一役事. 有爲而爲之. 便作苦. 自水岾醉過隱身菴. 菴中唯有一僧. 名曰普珠. 携之登隱身臺. 出半天臨大海. 而九井峯十二瀑布. 蜿蜒如鬪龍爭珠. 昨夜雨過. 落勢尤壯. 此內外山第一壯觀也. 域中諸宗師. 爲休靜立碑于金剛山. 治石高一丈有半. 月沙相國譔文. 乞余書之. 白蓮菴法堅長老年八十. 病臥蒲團. 與之言. 淸峻豪爽. 極有快處. 恨不得從容耽討耳. 萬景臺. 卽外山之最高峯. 東臨滄海. 海天一色. 指點三山十洲. 飄然有乘雲之意. 荀中郎登北固望海. 謂秦漢之君. 必褰裳濡足. 若令荀公臨此地. 當作如何觀也. 榆岾. 巨刹也. 結構宏麗. 山影樓跨大溪. 尤爲勝絕. 化龍潭亦奇絕. 烏啄井爲古蹟. 寺中藏 光廟御押敎書, 元時制勅. 山影樓跨大溪傑構. 朱欄畫栱. 映帶上下. 秋色政佳. 錦石纈彩. 令篋奴度曲發行. 壺以澆之. 外山之水. 大於山影樓. 縈回數十里. 諸峒溪澗合流於百川橋. 境落昭曠. 石勢奇詭. 踏山者到此洗心. 舊

有橋亭宏麗. 今已毁矣. 盧倉爲榆寺所尊者. 見於地志. 怪誕不可信. 而狗岾上有盧倉井. 行人必哺之. 麗朝宰相閔漬所著山水記. 尤妄誕不可信也. 狗岾之路. 羊腸百盤. 到盧倉夫人之祠. 始得坦壤. 行數十里. 淸川白石. 頗覺夷曠. 民居甚稀. 蕭條之境. 益復淸幽. 外山自柏顚諸菴臨海者. 面勢極爽豁. 鉢淵之水戲. 動石之古蹟. 稱勝絕. 而新溪一面峯巒水石. 處處殊異. 楊蓬萊結屋其下. 舊址猶存. 新溪寺燬去. 或云傍近驛奴苦其遊客馳馹涉險. 火之. 數年來. 草木荒翳. 山門谿逕. 湮塞不可通. 泛舟於三日浦. 摩娑丹書之壁. 觴于四仝亭. 酒酣. 太守李敬仁克甫歌之侑之. 不覺歡暢. 余亦以一絕書扇頭以酬之. 就浴于湯泉. 泉卽金剛山之外面. 光廟朝沐浴行宮舊址尙在. 浴已投養珍驛村舍甚陋. 大雨一晝夜. 溪水大漲. 人跡不通. 傍有僧雙仡, 神歇. 能談禪說因果. 據胡床聽之忘倦. 高城一境. 無論山海湖亭. 雖尋常巖石. 皆有意態. 如禽如獸. 或飛或走. 南江入海. 七星石諸巖羅列海門. 如玉筍瓊簪. 海山亭壓之. 眞是仝區. 三日湖邊有夢泉寺舊址. 若結構小蘭若. 其淸絕可與吳中北固爭甲乙. 太守令居士結茅茨. 將經營云. 丹書在三日湖之西絕壁上. 欹仄陷凹. 人跡難到. 所書字法甚古. 洪春亭爲按廉時. 作文刻烏石. 剔巖以納之. 其上有埋香碑. 字已剝落. 猶有可讀處. 蓋記埋香人姓名. 芙蓉湖鄭方伯下叔所卜. 湖水在金剛之外山下. 不但景致奇勝. 洞天幽邃. 頗有種黍蒔秔之地. 足爲隱者棲遯之所. 恨不得稅駕焉. 鑑湖方數里. 淸澈可鏡毫髮. 前對九仝峯. 宛是金剛之香爐百塔諸勝. 其下傑構參差. 左有楊蓬萊舊業. 村落隱映林間如畫圖. 右有長松. 捍蔽海門. 松外沙峯特立干霄. 望之如玉. 據湖而亭之者. 土豪鄭沺云. 海上固多湖. 當以此爲第一. 扞城路上見海鷗千群下汀. 意甚異之. 顧眄間. 出曲渚. 漁家依岸. 婦幼雜坐. 有物如丘阜. 卽細魚也. 鷗群攫之無忌. 東海艓子. 刳木爲之. 可容四五人. 以釣巨口魚爲業. 日出便張帆而出. 瞬息不見. 晡時一點從天外來. 俄卽泊岸. 可知其輕快飛. 仝臺凌波亭. 皆海上勝賞. 飄飄有遺世獨立之意. 永郎之名. 紀之丹書. 金剛山有永郎岾. 高城有永郎湖. 扞城又有永郎湖. 所謂永郎者. 不知何許人. 亦不知年代. 嶺東人傳之爲眞仝者流. 高城湖幽絕. 扞城湖尤淸遠爽塏. 松林巖石. 殆非人境. 遺遙半日. 庶幾與永郎遇. 高城之水石奇處. 不可殫記. 而懸鐘狀如覆鐘. 而其中虛缺如蜂窩. 可容十餘人. 足見造化之巧. 偃游潭自是靈境. 余倦倚松根. 夢與古衣冠人劇談仝釋事. 覺來猶能記其語. 異哉. 烈山湖際海. 而在關東最鉅. 望之渺瀰. 恨無舟楫以泛之. 鳴沙數百里. 或以軟輿. 或跨小衛. 隨意行止. 初出高城. 途中遇會心處. 便坐憩. 行爲遲遲. 前路所經. 愈往愈勝. 不暇應接. 埋香浦, 牛頭臺, 花津數處爲尤奇.

九月十三日. 到淸澗亭. 月華與海濤相盪. 天無纖翳如白晝. 余迺登萬景臺. 枕石而臥. 夜久涼露沾衣. 淸氣襲骨. 奚奴從臺下吹篴. 魚龍皆聳. 此夜此月. 天下共之. 亦無如我得意看. 淸澗亭最近海驚濤喧打庭際. 聲甚壯. 夢寐不成. 唐人詩云潮聲偏懼初來客. 實際也. 淸澗亭柱間有斜行廿字. 卽盧穌齋爲游客時書也. 後人刻之. 考其歲月. 穌翁廿三歲時書也. 所謂鳴沙者. 踏之琅琅有聲. 關東數百里. 蓋無不然. 海棠花羅生其上. 如鋪氈如錦障. 秋深結子如金櫻子. 海上路皆鳴沙. 間有巖逕. 必突出波心爲臺. 無一等閑. 平地必有蒼松. 落落如翠蓋狀. 亘數

里. 行人多從松下行. 盛夏亦有爽氣. 天吼山在襄陽. 其洞壑峯巒. 可與金剛竝稱. 特立盤礴不大耳. 名藍淨土. 多高僧棲結者云. 余觀日出凡三處. 留海山亭最久. 而多雨只得三次. 淸澗亭, 洛山寺皆淸霽. 而洛山寺所看尤偉. 世稱洛山觀日出者. 亦有由歟. 襄陽使君爲余觴于洛山寺之梨花亭. 酒半移席于義相臺. 見數點從天際來. 邑人言漁舟且至. 俄以白帆泊岸供海珍. 遂劇飮. 席次小妓詠松江相國關東曲. 頗淸婉. 聽之神王. 祥雲驛留客堂頗淨灑. 庭畔烏竹. 蔥菁可愛. 一面際海. 長松數十里蔭映白沙. 關東名區也. 驛官供梨五枚. 其大如數升瓠. 入江陵界地勢頗寬闊. 村居豐腴. 觀瀾亭下. 蒼松沿溪十里. 時値深秋. 而海上秋色頗遲. 紅葉正纈可翫. 亭臺間題詩滿壁. 皆宦客作. 考其歲月. 或有五六十年者. 而已不識誰何. 噫. 世間名宦者. 無非竊虛聲. 馳騖一時. 身歿而名不稱如此. 悲哉. 牛頭臺邊靚粧人候之. 就視卽江陵籍妓玉娘也. 蓋少日平康舊伴. 不見而十餘年. 昔日丫鬟小奴. 已具衰相. 渠亦驚我鬚髮. 渡江門橋望見臨湖樓閣. 隱映林間. 丹艧聳空者. 遂馳往款扉. 亭空無主. 庭畔碧梧脩竹. 政可人意. 表裏湖海. 爭相獻奇. 時斜景浸湖. 海濤接天杳杳. 海上第一區也.

『遊金剛小記』

신익성(1588~1644년)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군석(君奭), 호는 낙전당(樂全堂)·동회거사(東淮居士)이다.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하여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졌고, 임진왜란 때에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으며 선조 39년(1606년)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다가 방축(放逐)되었다. 인조 1년(1623년) 인조반정 후 재 등용되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명으로 3궁(宮)을 호위(扈衛)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피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끝까지 성을 지켜 청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주화파(主和派) 대신들이 세자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하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호종의 공으로 재상과 같은 예우를 받고, 1638년에는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제수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화의가 성립된 뒤 삼전도비사자관(三田渡碑寫字官)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거부, 사퇴하였다.

1642년 명나라와 밀무역하다가 청나라에 잡혀갔던 선천부사 이계(李烓)가 조선이 명나라를 지지하고 청나라를 배척한다고 고하여, 이 일로써 최명길(崔鳴吉)·김상헌(金尙憲)·이경여(李敬輿) 등과 함께 심양(瀋陽)에 붙잡혀가 억류당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주선으로 풀려나와 귀국하여 시·서로써 세월을 보냈다. 문장·시·서에 뛰어났으며, 특히 김상용(金尙容)과 더불어 전서의 대가였다.

저서로는 『낙전당집』·『樂全堂歸田錄』·『靑白堂日記』 등이 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343 유금강일록(遊金剛日錄-와유록)

이명후(李明厚)

우리 동방에 명산이 셋 있는데, 영남의 지리산(智異山)과 관서의 묘향산(妙香山)과 동해의 금강산(金剛山)이 그것이다. 세 산 가운데 금강이 가장 아름답다. 중국 사람들도 '조선국에 태어나 한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 이로써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 동방에서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치임을 알 수 있다. 나도 한번 유람하여 평생의 소원을 풀어 보려 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형부 좌시랑(刑部左侍郎)으로 있다가 외직을 힘써 구해 숭정(崇禎) 무진년(1628년, 인조6년)에 강릉부사(江陵府使)가 되어 정월에 부임했다. 공사(公私)의 일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4월에야 대강 정돈이 되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이가 육순에 가까워, 지금 풍악산을 유람하지 않으면 뒷날에 후회할까 두려워, 드디어 유람하기로 결정하고 두 아들 현기(顯基)와 원기(元基)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4월 12일 계묘일. 말을 타고 연곡(連谷)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동산(洞山)에 이르렀는데 권칭(權稱) 정기평(鄭基平)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13일 갑진일. 일찍 동산을 출발해 정오에 상운(祥雲)의 유객당(留客堂)에서 점심을 먹었다. 날이 저물 무렵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렀다. 나의 벗인 양양 부사(襄陽府使) 지세(持世) 조위한(趙偉韓)이 이화정(梨花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악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려 잔치를 거두고 빈일료(賓日寮)에 들어가 즐겁게 놀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파했다.

절은 신라 때 신승(神僧)인 의상(義相)이 창건했다고 한다. 후전(後殿)에 관음상을 모셨는데, 만든 모양이 매우 정묘하다. 선당(禪堂)의 벽 위에는 안견(安堅)이 그린 산수도가 있다.

절은 관동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사람들은 중국 금산(金山)의 감로사(甘露寺)와 비교하는데 어느 절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다. 절 동쪽에는 의상대가 있고 대 북쪽에는 관음굴(觀音窟)이 있다. 세속에 전하기로는 익조(翼祖) 가 아들 얻기를 빌던 곳이라고 한다.

14일 을사일. 아침 일찍 낙산사를 출발해 청초호(靑草湖)를 거쳐 영랑호(永郎湖)를 지났다. 영랑호에서 잠시 쉬었는데 매우 맑고 경치가 아름답다. 청간정(淸澗亭)에서 점심을 먹고 만경대(萬景臺)에 올랐다. 이 또한 팔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직접 보니 들은 것과는 같지 않다.

청간정에서 20여 리를 가니 뚝 끊어진 산이 바다를 옆에 두고 우뚝 서 있다. 아전에게 물

어 보니 능파대(凌波臺)라고 한다. 수레를 돌려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마주 하고 있다. 바닷가 경치는 대략 비슷하나, 서쪽의 경치는 좌우에 호수가 있어 파도가 포구에 드나든다. 논을 새로 갈아서 허연 물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작은 다리가 시내 위에 걸쳐 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어촌 마을에서 저녁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겹겹으로 이어진 산과 고개는 구름 가에 아름답게 서 있고, 저녁놀은 비추었다 사라졌다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내가 '앞쪽 경치가 뒤쪽 경치만 못하다'고 하자, 따르는 이들도 모두 그렇다고 한다.

10여 리를 더 가니 선유담(仙遊潭)이 나왔다. 못은 별로 크지 않은데 앞산이 에워싸고 있어서 큰 산이 물 가운데 거꾸로 들어간다. 못 좌우에는 큰 소나무 수백 그루가 숲을 이루었고, 앞뒤는 맑고 시원하다. 비록 영랑호만 못하지만 그윽하고 깊숙한 맛은 마음에 들었다. 논하는 이들도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저녁에 간성(杆城)에 이르렀다. 고을 수령은 나의 벗 중정(仲靜) 김상복(金尙宓)인데, 차원(差員)으로 서울에 가고 없었다. 그와 더불어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니 한번 만나는 것도 명수(命數)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겠다. 이에 마음이 아쉬웠는데, 아랫사람들마저 매우 박하게 대하니 더욱 언찮았다. 달빛을 맞으며 누대에 올라 유량(庾亮)이 쓴 남쪽 누대란 구절을 읊었다. 천박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는데도 그가 달을 즐기는 마음이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15일 병오일. 새벽에 가서 대궐에서 행하는 예를 보았다. 일찍 간성을 출발해 20여 리를 가서 화진포(花津浦)에 이르렀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니 바닥이 은은하게 보였다. (물속에) 집[屋宇]이 있다는 말은 불경스러워 믿을 수 없다. 대개 모래톱의 물이 번갈아 나오고 맑고 넓으며 깊숙한 곳을 경포(鏡浦)에 비교하는데, 경포가 아래에 있으나 경포라는 이름은 도리어 그 위에 있으니 왜 그런가?

대의 좌우에는 좋은 논과 밭이 많이 있다. 왼쪽에는 군사(軍士) 이경순(李敬淳)의 집이 있다. 경순은 문장과 시를 잘했는데 늙어서 죽은 뒤 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집은 이사를 갔으나 묘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오른쪽에는 군사 이연(李連)의 집이 있다. 모두 돈을 주고 사서 살면서, 그 곁에 있는 마전(馬田)을 소작으로 부친다고 한다. 벼슬을 버리고 살고 싶어도 누가 팔겠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찼다.

오시(午時) 가 가까워서야 별산(別山)에 이르렀다. 말을 쉬게 하고 여물을 먹였다. 무송도(茂松島)를 지나서 명파역(明波驛)에서 잠시 쉬었다. 송도(松島)를 지나 대강역(大江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무송과 송도의 승경은 대략 만경대와 다름이 없다.

어제 저녁에 박시창(朴時昌)이, 간성 사람들이 대접을 박하게 했다고 화를 내면서 팔까지 휘두르며,

"언제쯤 고성(高城)에 도착할까? 고성은 틀림없이 대강(大江)에서 성대하게 차려 놓고

기다릴거야."라고 했는데, 어찌 이처럼 조용한가.

대강에 이르렀으나 역참에서 기다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승려가 미리 재계하고 기다리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라고 하자 모두 배를 잡고 크게 웃는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밥을 지었다. 밥을 먹고 나니 짙은 안개가 하늘에 비끼고 가는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강을 출발해 감호(鑑湖)로 가는 길에 전 도사(都事) 정전(鄭佃)의 정자에 올랐다. 네모진 호수에 바위 봉우리가 아름다워 마음에 들었다. 주인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벼슬을 구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아, 이런 강호의 경치를 두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려고 벼슬 얻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바닷길을 따라 10여 리를 가니 바위봉우리가 나왔다. 바로 현종암(懸鍾巖)이다. 바위에 구멍이 움푹 파여 집과 비슷해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겠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오백 나한이 바다에서 나와 석실에 살다가 좌해(左海)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므로 위에는 현종암이 있고 바닷가에는 부주암(覆舟巖)이 있고, 서쪽에는 계주암(繫舟巖)과 곡포암(穀包巖)이 있다. 모두 신성(神聖)한 옛날의 자취다.'라고 한다. 그 말이 불경스러워 모두 기록할 수 없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남강(南江)에 이르렀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뱃사람이 배를 대고 강북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불이 명멸(明滅)하는 동안 강을 건넜다.
태수(太守)인 명로(明老) 허계(許啓)는 오래된 벗이다. 언덕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오래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오자 정성스럽게 위로해 준다. 언덕에 올라 마주 보니 매우 기뻤다. 서서 술 한 잔을 마시고는 나를 이끌어 해산정(海山亭)에 올랐다. 이윽고 몇 잔을 마시고는 술자리를 파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따라온 이들은 모두 이슬을 맞으면서 잔다. 매우 불쌍하여 정자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6일 정미일.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두루 구경했다. 해산의 경치를 평가하려 하는데, 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아침 늦게야 비로소 개었다. 동쪽으로 해문(海門)을 바라보니, 바위가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다. 마치 거센 파도에 버티고 서 있는 지주(砥柱) 같다.

남쪽에는 바위산 세 봉우리가 눈앞에 줄지어 서 있다. 서남쪽에는 금옥(金玉)이 서 있는데, 푸른색이 눈에 가득하다. 동서쪽에는 양귀암(兩龜巖)이 있다. 큰 강이 마치 하얗게 바랜 듯 너른 들 가운데를 에워싸며 흘러간다. 평하는 이들이 죽서루(竹西樓)보다 낫다고 하는데 팔경에는 끼이지 못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명로와 더불어 고산대(高山臺)에 올랐다. 달을 기다려 강에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이경(二更)이 되어서도 달빛을 보지 못하고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吾東方. 有三名山. 嶺南之智異. 關西之妙香. 東海之金剛. 三山之中. 金剛爲最勝. 故中國人. 有願生朝鮮國. 一見金剛山之句. 是則山之勝致. 非但爲吾東之最. 在中國亦不多得. 可知也. 願一遊歷. 以償平生之願. 而未果焉. 崇禎戊辰. 以刑部左侍郎. 力求補外. 爲江陵府使. 正月視事. 公私之務棼. 如至四月. 稍自釐. 因念吾身. 年迫六旬. 不以此時. 徃遊楓岳則恐有後時之悔. 遂決意探勝. 率二子顯基元基.

十二日癸卯. 騎馬至連谷. 午餉. 夕抵洞山. 權稱鄭基平. 持酒來見

甲辰. 早發洞山. 午餉祥雲留客堂. 日晡. 直抵洛寺. 襄陽府使趙偉韓持世. 即故舊也預待于梨花亭. 陳酒樂. 因雨捲. 入賓日寮歡宴. 日昏乃罷. 寺新羅神僧義相所刱. 後殿. 設觀音塑像. 制作極精妙. 禪堂壁上. 有安堅山水圖. 寺之勝致, 則關東八景之一也. 人擬中朝金山甘露寺等. 而未知優劣如何. 寺東. 有義相臺. 臺北. 有觀音窟. 諺傳. 翼祖祈嗣之處云.

乙巳. 早發洛山. 歷青草湖. 過永郎湖. 少憩. 殊爲清絕. 午餉清澗亭. 登萬景臺. 亦八景之一也. 而眄見頗不如所聞. 自清澗. 行二十餘里. 有一斷山. 傍海徒立. 問於郵吏. 則乃凌波臺也. 回車登眺. 則東向面大洋. 海邊之景. 大畧相似. 而西望. 則左右湖水. 漲入浦口. 水田新耕. 白水平鋪. 小橋架川上. 漁村撲地. 夕烟初起, 重山疊嶺. 矗立雲際. 斜光掩映明滅. 眞快景也. 吾謂前面之景. 不若後面. 諸從者. 皆以爲然. 又行十里. 得仙遊潭. 潭之廣不甚濶遠. 而前山環擁. 長麓走入波心. 湖水左右. 映帶長松數百株林立. 後前清曠. 雖不如永郎. 幽邃可愛. 善論者. 亦未易甲乙. 向夕扞城郡. 主倅卽舊知金尙宓仲靜. 以差員上京. 不得與之稔討. 信知一會之有數也. 悵然之餘. 其下人待之甚薄. 尤可恨也乘月登樓. 詠庾亮南樓之句. 興不淺而其無賞心. 何.

丙午. 曉行望 闕禮. 早發扞城. 行二十餘里, 到花津浦, 乘舟入湖中. 隱隱見水底. 屋宇其言不經不可信. 大槩洲渚. 互出清曠幽邃比於鏡浦. 鏡浦殆在下風而鏡浦之名. 返在其上. 何耶. 且其臺之左右. 多良田美畓. 左則軍士李敬淳之家. 淳也. 能文善詩. 老死. 其子不能守. 拔宅移居. 其基尙存. 右則軍士李連之家皆可貨而居. 其傍又多馬田. 亦可賃耕. 思欲鮮官留居. 誰能與買山錢耶. 不覺咄咄. 近午抵別山. 歇馬啖飯. 行過茂松島. 暫憩明波驛. 歷松島. 午餉大江驛. 茂松. 松島之勝. 大畧與萬景臺無異. 昨昏. 朴時昌. 憤扞城人之不待. 乃奮臂. 曰何時當到高城之境也. 高城. 必盛辦出待於大江. 豈若是寥寥然哉. 及到大江. 則無一人到站上. 余戲之. 曰預期僧齋不腹. 非此類也耶. 相與捧腹大噱. 久之. 設食. 食後. 大霧橫天. 細雨濛濛. 因自大江發行. 趁鑑湖之路. 登前都事鄭洹之亭. 方湖石峯. 清絕可愛, 問其主人之何在. 則方入朝求仕. 噫. 有此江湖之勝. 而當此世亂之日. 尙有求仕之心耶. 循海路. 行十餘里. 有石峯. 卽所謂懸鍾巖也. 石竇穹窿. 如屋宇. 可以避雨雪. 世傳. 五百羅漢. 自海中出. 寄寓石室. 泊舟于左海. 故上有懸鍾巖. 海邊有覆舟巖. 西有繫舟巖. 穀包巖. 皆神聖古迹. 其言不經. 皆不足記. 遂下山. 行到南江. 日已曛黑. 舟人艤船而待江北岸上. 火光明滅. 因渡江. 太守許啓明老. 卽吾世友也. 長立于岸上. 引領而望. 勞慰甚勤. 登岸而對. 相喜可知也. 立飮一盃. 相携

入海山亭. 因飮數盃. 食罷就寢. 而諸從者. 霑濕露處. 誠可矜悶. 而亭之勝槩. 未暇賞也.
丁未. 早起周覽. 欲評海山之勝. 而海霧蒙昏. 日晩始霽. 東望海門. 有石巍然立海中. 如砥柱頹波. 南有石山三峯. 排列於面前. 西南金玉立. 蒼翠滿目. 東西有兩龜巖. 大江. 如白練橫拖大野之中. 評者. 以爲勝於竹西. 而以不入於八景. 爲恠云. 黃昏. 與明老. 登高山臺. 欲待月放舟江中. 玄雲掩翳. 迨至二更. 未見月光. 各飮數盃. 悵然而還.
(遊金剛日錄-와유록)

이명후(李明厚-연대 미상)의 본관(本貫)은 경주(慶州), 호(號)는 성암(誠菴)이다.

344 관동록(關東錄-耻齋集)

홍인우(洪仁祐)

5월 1일, 병오일
아침이 되자, 함께 여행하였던 성정(性淨)은 유점사를 향해 떠났고 우리는 남쪽으로 갔다. 3리를 가니 남강(南江)이 나왔다. 이 강의 원류는 셋이라 한다.

하나는 비로봉의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구룡추(九龍湫)를 만들고 일출봉, 월출봉, 구정봉 세 봉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대명암(大明菴)을 지나 온정(溫井)을 거쳐 20여 리를 흘러 발연천(鉢淵川)과 합쳐지니, 이른 바 세존백천(世尊百川)이 이것이다. 또 하나의 원류는 환희점(歡喜岾)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소인곶을 거쳐 발연사를 지나 15, 6리를 흘러서 용추천과 합류한다. 다른 하나는 고정봉 서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운서굴(雲栖窟)과 외개심암(外開心菴)을 지나 십이폭이 된다. 10여 리를 흘러서는 유점사천과 합류되니 이른 바 성문 [성문(城門)은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성문(聲聞)이라고 써야 하며, 이는 부처의 명호" 라고 하였다.] 백천(城門百川)이 이것이다. 백천은 대개 동남쪽으로 흘러 주연(舟淵)을 이루고, 또 남쪽으로 흘러서는 흑연(黑淵)이 되며, 감돌아 북으로 흘러서는 전탄(箭灘)이 된다 한다. 이들 세 원류는 모두 이곳에 이르러 남강이 되며, 동쪽으로 흘러 고성포(高城浦)로 들어간다.

마침내 누선(樓船)에 올라 강을 건넜다. 이날 구름이 짙게 끼고 안개로 앞이 어둑하여 풍악산(금강산)의 동쪽 지맥을 장쾌하게 볼 수가 없었다. 귀신이 시기를 해서인가 싶었다.

60여 리 떨어진 명파역(明波驛)까지 가서 쉬었다. 밥을 먹고는 다시 10여 리를 가서 열산현(烈山縣)을 지났다. 열산현의 북쪽 2리 무렵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둘레는 수십 리나 되는 듯 넓었다. 언덕과 골짜기 〔陸谷〕 가 호수를 감싸고 있었는데 물이 가득하여 넘실거렸다.

민간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큰 홍수로 인해 옛날 한 현이 물속에 잠겼는데, 하늘이 맑아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에는 그 현에 있던 집들과 담장이 그대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거탄천(巨呑川)을 건너서 간성군(杆城郡)의 한 민가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날 여정은 바닷길 100리였다.

5월 2일, 정미일

아침이 되자, 군수 김사문(金斯文)이 우리를 초청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관아로 가서 그를 잠깐 만났다.

그리고는 출발하여 11리를 가니 선유담(仙遊潭)에 이르렀다. 산과 나무들이 어지러이 두루 둘러싸면서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안에는 호수가 있었다. 호수의 남쪽으로 호수물에 반쯤 잠긴 작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구불구불 휘어진 큰 소나무 아래로 작은 그늘이 있어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보니 순채(蓴菜)가 호수에 가득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출발하여 7, 8리쯤 갔다. 눈과 같은 하얀 모래가 밝히고 있었는데, 사람과 말이 밟을 때마다 쟁쟁 소리가 났다. 바로 명사(鳴沙)였다. 영동 지방의 바닷길은 모두 그러한데, 고성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래소리는 더욱 맑았다. 또 해당화가 있어 어떤 것은 어지러이 피어있고 이미 열매를 맺은 것도 있었는데, 자못 기이하여 아름답다.

능파도(凌波島) 부근에 이르렀다가 이 섬에 올랐는데, 섬의 서쪽은 모랫길과 연결되어 있었다. 빼어난 봉우리가 바다 어귀까지 솟아 있는데, 기암괴석들이 종횡으로 섞여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각기 한 봉우리씩을 차지하고 앉아서 바다의 경치를 즐겼다. 바다와 맞닿은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다. 또 끝없어 보이는 푸른 바다는 탁 트인 채 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었다. 잠시 후 갑자기 동풍이 불자 성난 파도가 해안을 들이쳤다. 마치 천군만마가 마구 달려오는 듯하였다.

또 호수 하나를 지나 소나무 숲길 20리를 가서 청간역(淸澗驛)에 이르렀다. 역에 있는 정자는 바다와 겨우 열 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다. 약간 동쪽으로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았는데 그 높이는 수십 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구불구불한 소나무 십여 그루가 있고, 아래로는 흩어진 돌들이 바닷가에 어지러이 꽂혀있었다. 바닷물의 맑기는 청동 거울 같았다. 간혹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면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사방으로 흩날렸다. 동쪽

으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떨어지는 햇살이 너무 밝고 고왔다. 하지만 서쪽으로 설악산을 바라보니 비 기운을 머금은 구름이 먹을 뿌려놓은 듯 검었다.
해부(海夫) 네댓 명이 천 길 파도 속을 들락날락 하면서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다. 이는 바로 김사문(金斯文)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날 여행길은 바닷길 45리였다.

낙산사(洛山寺)를 둘러보다
5월 3일, 무신일
새벽, 안개가 잔뜩 끼어 어둑해 기대했던 일출을 볼 수 없었다. 아마도 하늘이 장쾌한 감상거리를 주려하지 않는가 싶었다.
일출 보기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돌아서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5리를 가니 넓은 호수가 나왔다. 그리고 또 10리를 가니 영랑호(永郎湖)가 있었는데, 그 둘레는 20여 리나 됨직하다. 굽이져 도는 호수의 물가에는 온통 기암괴석이다. 호수 동쪽의 뚝 잘린 작은 봉우리는 호수 속에 잠겨 있었다. 바닷길 곳곳에는 방풍(防風)이 어지러이 나 있어, 하인을 시켜서 수백 뿌리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영랑호에서 5리를 가서 쌍성호(雙城湖)를 지났다. 쌍성호 서쪽 10여 리 되는 곳에 석봉(石峰) 하나가 보였는데, 마치 울타리처럼 꼿꼿하게 비껴 있는 모양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산(籬山)으로, 속언으로는 읍산(泣山)이라 한다 하였다. 호수 동쪽으로 또 바위산이 높이 솟아 있었는데 육지와는 실 같은 길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이 바로 비선대(秘仙臺)였다.
23, 4리를 가니 낙산동(洛山洞)이 나왔다.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동쪽 숲길로 들어갔더니 낙산사(洛山寺)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 낙산사의 동쪽은 큰 바다와 접해 있어 경관과 흥취가 완상할 만했다. 시 구절 하나를 지어 동행에게 보여 주었다. 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지의감로천부수(地疑甘露天浮水) 땅은 감로 땅 인 듯한데 하늘은 물 위에 떠있다
경승고소해작린(境勝姑蘇海作隣) 고소산 보다 나은 경치, 바다와 이웃했기 때문
이날 바닷길 60여 리를 갔다. 낙산사 동쪽 별채에서 묵으면서,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홀연 고래 떼가 물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5월 4일, 기유일
새벽이 되었지만, 구름으로 일출을 볼 수 없어 하늘에 안타까움만 토로하였다. 아침이 되어서는 동쪽으로 작은 고개를 넘었다. 끝없이 퍼져있는 대나무를 헤치면서 1리쯤 가니 절 2칸이 굴 위에 얽힌 듯 있다. 파도가 그 아래로 들락거리며 바위에 부딪치면서 우렁차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낙산사 주지 휴정(休靜)은 불학(佛學)에 상당히 통달해 있었지만 약간 교만하여 그와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이날 정오에 7, 8리쯤을 가서 대포(大浦)를 지났다. 대포는 만호(萬戶)의 군영이 있는 곳이었다. 다시 5리쯤 가니 큰 시내가 있기에 시냇가에서 쉬면서 밥을 먹었다. 저녁 무렵 양양(陽陽)에 도착했다.

5월 5일, 경술일
비가 왔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는 김기복(金基福)의 만류로 머물면서, 고을 원님인 남사문(南斯文)의 술대접을 받았다.

5월 6일, 신해일
비가 왔다. 앞강이 너무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

5월 7일, 임자일
날이 개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해 다시 쓰러져 잤다

5월 8일, 계축일
김기복은 풍악산을 향해 떠났다. 우리 세 사람도 남사문과 이별을 고했다. 찰방(察訪) 박자정(朴子正)과 함께 배를 타고 남천(南川)을 건넜다. 25리를 가서 상운역(祥雲驛)에 묵게 되었는데, 박자정은 바로 이곳의 주인이었다. 또 술에 몹시 취했다.

5월 9일, 갑인일
15, 6리를 가서 관란정(觀瀾亭)에서 쉬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관란정 주변으로는 만 그루의 큰 소나무들이 정자의 동남쪽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정자의 서쪽 2리에 동산관(銅山館)이 있었다
다시 출발하여 연곡현(連谷縣)의 경계에 이르렀다. 바다가 물을 끼고 도는 굽이마다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도였다. 모래는 희고 바다는 푸르니 맑은 흥취가 저절로 일어 갑자기 말에서 내려 모래 위에 몸을 던져 미친 사람처럼 뒹굴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연곡에서 다시 15, 6리를 가니 소나무 사이로 큰 호수가 은은히 비친다. 허국선과 남시보가, "이것이 경포(鏡浦)가 아닌지요?"라고 물었는데, 거짓으로 아니라고 말하였다. 수백 보를 걸어 소나무 숲을 막 벗어나자마자 밝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면은 막 닦아 놓은 거울 같았다. 산봉우리가 호수 굽이의 물가로 둘러쳐 있었는데, 그 둘레는 20여 리나 되었다. 허국선과 남시보가 그제야
"정말 경포로군요."라고 말하기에 내가 손뼉을 치면서 한바탕 웃었다.

함께 말에서 내려 강문교(江門橋)를 산보했다. 조금 있자니 하늘에 남아있던 조각달이 소나무 사이를 헤집고 바다에 은은히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둠을 타고 강릉으로 가서 숙소를 잡았다.
이날 바닷길 90여 리를 갔고, 물길 10여 리를 갔다.

5월 10일, 을묘일
부사 김사문(金斯文)이 우리를 위문하고는 떠나는 것을 만류하였다.

5월 11일, 병진일
부사 김사문과 작별을 고하였다. 나는 먼저 나가서 척번대(滌煩臺)를 구경했다. 척번대는 강릉객관(江陸客館)의 북쪽에 있었다. 잠시 후 허국선과 남시보가 경포를 향해 떠났고, 나도 뒤따라가서 함께 즐겼다. 두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다녀본 못이 한둘이 아니지만 숲 우거진 봉우리가 아름답게 주위를 두르고 석양의 무지개다리로 사람이 지나가 그 그림자가 거꾸로 비치는 것은 이 호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일세. 하물며 곧바로 동쪽으로 바라보면 호수가 바다와 서로 이어져 그 사이로 흰모래가 비단 펼쳐 놓은 듯함에 있어서야." 라고 하였다.
저녁 무렵 서북쪽으로 20여 리를 가서는 구산역(丘山驛)에 이르렀다.
五月初一日丙午. 朝. 性淨向榆岾寺. 南行三里. 有南江. 江之源三. 其一發毗盧東. 爲九龍湫. 抱日出月出九井三峯. 經大明菴. 過溫井. 流二十餘里. 興鉢淵川合. 所謂世尊百川. 其一發歡喜岾東. 歷小人串. 過鉢淵寺. 流十五六里. 與龍湫川合. 其一發九井峯西. 過雲栖窟外開心菴. 爲十二瀑. 流十餘里. 與榆岾寺川合. 所謂城門 [城門. 栗穀云. 當作聲聞. 佛號也] 百川. 盖東南流爲舟淵. 又南流爲黑淵. 轉而北流爲箭灘. 至此爲南江. 東流入又高城浦. 遂登樓전船而渡. 是日. 雲蒸霧暗. 楓岳東支. 不能快覩. 物爲崇也. 行六十餘里. 憩明波驛攤飯. 行十餘里. 過烈山縣. 縣北二里. 有大湖. 周可數十里. 包跨陵谷. 瀰漫浩汗. 諺傳大水懷襄時. 舊縣沈在水底. 天晴波靜. 則墻屋依然可見. 不知詳也. 涉巨呑川. 宿杆城郡民家. 是日. 海行百一里.
丁未之朝. 金郡守斯文邀之. 吾三人暫拜. 行十一里. 抵仙遊潭. 有亂麓. 周遭成谷. 谷中有湖. 湖之南. 小峯斗起. 半入湖心. 長松虬屈成陰. 憩其下. 尊榮滿潭. 眞佳境也. 又行七八里. 沙色如雪. 人馬行則錚然有聲. 是鳴沙也. 嶺東海路皆然. 而自高城至此尤多. 又有海棠. 或亂開. 或已結子. 亦奇玩. 又行上凌波島. 島西連沙路. 絕巒斗入海口. 奇岩怪石. 縱橫錯峙. 吾三人各占一峯坐玩. 是時. 海天明媚. 滄洲萬里. 軒豁呈露. 俄而. 東風忽作. 怒濤衝岸. 如千兵萬馬馳突. 又過一湖. 行松逕二十里. 抵淸澗驛. 驛亭距海纔十步. 小東有峯嶪起. 其高數十仞. 上有虬松十餘株. 其下亂石嵯峨. 聳揷海澨. 俯見海水. 淸如銅鏡. 或風濤觸石. 飛雪四散. 東望海天. 路日明妍. 西望雪岳. 雲雨潑墨. 海天四五. 沒入千尋之浪. 採石決明. 是金斯文爲

吾儕供. 是日. 海行四十五里.

戊申之曉. 霧暗. 不得觀日出. 天其使余不遂壯賞也. 北旋而行. 又南五里. 過廣湖. 又十里. 過永卽湖. 湖周可二十餘里. 汀回渚曲. 岩奇石怪. 湖東小峯. 截入湖心. 海路處處. 防風亂生. 令僕夫採數百根. 又五里. 過雙城湖. 湖西十餘里. 有石峯. 直橫如藩. 卽蘿山. 俗云泣山. 湖東. 又有石峯峭援. 有徑如線連陸. 卽秘仙臺. 又二十三四里. 入洛山洞. 西行. 又東入林路. 抵洛山寺. 寺東. 臨大洋. 景趣可翫. 得句示同行云. 地疑甘露天浮水. 境勝姑妹海作隣. 是日. 海行六十餘里. 宿東別室. 開窓遠眺. 忽見群鯨噴水. 亦壯玩.

己酉曉. 又海暗不得見日出. 天乎天乎. 是朝. 東踰小峴. 披綿竹一里許. 佛宇二間. 構在窟上. 海濤常出入其下. 聲振洶湧. 深不可測. 住持休靜. 頗通其學. 稍驕黠. 余不與之語. 是午. 行七八里. 過大浦. 浦. 萬戶營也. 又五里許. 有大川. 憩川邊攤飯. 夕抵襄陽.

庚戌. 雨. 向晩爲金基福所挽. 被主倅南斯文酒. 醉倒.

辛亥. 雨. 前江甚漲. 不得渡.

壬子. 不晴. 又被酒再倒.

癸丑. 基福向楓岳. 吾三人辭南斯文. 與朴察訪子正. 同舟渡南川. 行二十五里. 棲祥雲驛. 子正. 主人也. 被酒劇甚.

甲寅. 行一十五六里. 憩觀瀾亭. 亭臨海. 長松萬株. 擁抱東南. 亭西二里. 有銅山舘. 又行至連谷縣境. 海曲處處. 奇岩怪石. 不知其畿. 沙白海碧. 淸與難收. 余忽下馬投沙上. 轉身而臥. 若狂者焉. 人或謂之狂. 自連谷. 又十五六里. 見松間有大湖隱映. 國善時甫曰. 此非鏡浦乎. 余謾之曰. 非也. 行數百步. 纔過松林. 明沙無際. 鏡面新磨. 峰回渚曲. 其周可二十餘里. 國善時甫曰. 眞鏡浦也. 余拍手一笑. 共下馬. 散步江門橋. 有頃. 殘月已映松海間. 秉昏投江陵. 是日. 海行九十餘里. 陸行十餘里.

乙卯. 金府使斯文慰留. 丙辰. 醉主守. 余先出賞滌煩臺. 臺在客舘之北. 俄而. 國善時甫已向鏡浦. 余追至. 共穩賞. 呼國善時甫曰. 所歷陂澤不一. 而林巒粧護. 夕陽虹橋. 人影倒行. 最此湖之獨擅. 況直東而望. 湖海相連. 其間有白沙若布絲. 細視之. 乃沙岸直橫. 向夕. 西北行二十餘里. 抵丘山驛.

「關東錄」-『恥齋集』

홍인우(중종 10년, 1515년~명종 9년, 1554년)의 본관(本貫) 남양(南陽)이고 자(字)는 응길(應吉), 호(號) 치재(恥齋)이다. 부친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덕연(德演)이다.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중종 32년(1537년) 부친의 권유로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대과(大科)를 단념하였다. 학문에 전심했으며 당시의 거유(巨儒) 노사신(盧思愼)도 그에게 학문을 물었다. 만년에 부친이 병들자 의서(醫書)를 연구, 마침내 약의 처방을 손수 하기에 이르렀다. 아들 진(進)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저서로 『恥齋遺稿』·『關東日記』가 있다.

34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남효온(南孝溫)

백두산이 여진(女眞)의 경계에서 기원되어 남으로 조선국 해변 수천 리에 뻗혔다. 그 산의 큰 것은 영안도(永安道)에 있어서는 오도산(五道山)이요, 강원도(江原道)에 있어서는 금강산(金剛山)이며, 경상도(慶尙道)에 있어서는 지리산(智異山)인데, 수석이 가장 빼어나고 또 특이한 것은 금강산이 제일이다. 산 이름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골(皆骨), 하나는 풍악(楓岳), 하나는 열반(涅槃)인데 방언(方言)이요, 하나는 지달(枳怛), 하나는 금강(金剛)인데 화엄경(華嚴經)에서 나왔고, 하나는 중향성(衆香城)으로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에서 나왔는데 신라 법흥왕(法興王) 이후의 칭호이다.

내가 삼가 살펴보니, 부처는 본시 서융(西戎)의 태자이다. 그 나라가 중국 함양(咸陽)과 9천여 리가 동떨어져서, 유사(流沙)·흑수(黑水)의 먼 땅과 용퇴(龍堆)·총령(葱嶺)의 험산으로 한계하여 중국과 더불어 통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중국을 넘어서 동국(東國)에 이 산이 있는 줄을 알았겠는가.

특히 이 산이 있는 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로써 상고하면 주 소왕(周昭王)의 세대는 우리나라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중엽에 해당되고, 부처는 실로 서방(西方)인 사위국(舍衛國)에서 낳았다. 그 불설(佛說)의 천함(千函)·만축(萬軸) 속에 무한의 세계를 말했으나, 일찍이 한마디 말로 '조선국'이라 칭한 것이 없은즉, 그가 이 나라 이 산을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정녕 부처가 설법할 때 그 일을 과장하여, 바다 가운데 금강·지단·중향 여러 산이 있는데, 억만의 담무갈(曇無竭)이 그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 하여, 어리석은 속인(俗人)을 놀라게 하기를 장주(莊周)의 곤붕(鯤鵬) 천지(天地)의 설과 고사(姑射)·구자(具茨)의 논과 같이 하여, 까마득한 가운데 말을 붙여 두고 고대(高大)한 지경으로 세속을 놀라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무식한 대중을 뒤흔들어 꾀어내자는 것에 불과하다.

어찌 참으로 금강·지단이 이처럼 괴이한 것이 있겠느냐. 부처가 말을 붙여 둔 것이 이와 같은데, 신라 스님으로 부처를 배우던 자도 역시 망령되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높이 평가하여 풍악(楓岳)으로써 금강산을 만들고, 담무갈의 상(像)을 추작(追作)하여 망령된 말 실지화한 것임에랴. 동해를 지적한 것인 줄을 알 것이요. 동서남북이 바다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유독 동해(東海)만이 해중이 되려고 하여 풍악을 금강으로 단정하려는 것인가.

더더구나,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비록 해외(海外)라고 하지만, 서북은 뭍으로 요동(遼東)을 연(連)하고, 그 사이에 다만 압록강 하나가 가로막혔을 뿐이며, 압록강이 결코 바다가

아닌데 우리나라를 지적하여 해중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말이다.

그러나 금강의 칭호가 세대를 지난 지 오래라, 졸지에 변경하기 어려워서 나 역시 '금강산'이라 지칭한다. 대개 산의 모양이 하늘의 남북에 우뚝 솟아 큰 땅덩어리로 누르고 있는데 큰 봉우리가 36봉이요, 작은 봉우리가 1만 3천봉이다. 한 가지가 남으로 이백여 리를 뻗었는데, 산 모양이 높고 뾰족하여 대략 금강의 본상과 같은 것은 설악산(雪岳山)이요, 그 남쪽에는 곁따른 영(嶺)과 악(岳)이 있다.

동쪽의 한 가지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뤘으니 천보산(天寶山)인데, 하늘이 장차 눈이나 비가 오려면 산이 저절로 운다. 그러므로 이름을 읍산(泣山)이라 한다. 읍산이 또 양양(襄陽) 고을 후면을 돌아서 바닷가로 닫는데, 오봉(五峯)이 특별히 섰으니 낙산(洛山)이다. 금강의 한 가지는 또 북으로 백여 리를 뻗어 한 고개가 있으니 이름은 추지(湫池)요, 추지의 산이 또 통천(通川) 고을 후면에서 잔산(殘山)과 서로 만나서 실낱같이 끊어지지 않고 북으로 굴러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총석정(叢石亭)이다. 산의 동쪽은 통천(通川)、고성(高城)、간성군(杆城郡)이요, 서쪽은 금성현(金城縣) 회양부(淮陽府)이다. 산에 벌여 있는 것이 부(府)가 하나, 군(郡)이 셋, 현(縣)이 하나이다.

을사년 4월 보름날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유숙하였다.

정묘일에 90리를 가서 입암(笠巖)에서 유숙하였다. 무신일에 소요산(逍遙山)을 지나서 큰 여울을 건너 60리를 갔다. 연천(連川) 거인(居仁)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기사일에 보개산(寶蓋山)을 지나고 또 철원(鐵原) 고동주(古東州) 들을 지나고 남으로 머리 돌려 백여 리를 갔다. 금화(金化)에서 유숙하였다. 경오일에 금화현(金化縣)을 지나서 60리를 갔다. 금성(金城) 향교(鄕校)에서 유숙하였다.

신미일에 창도역(昌道驛)을 지나서 보리진(菩提津)을 건너 78리를 갔다. 신안역(新安驛)에서 유숙하였다. 입신일에 비에 막혀 신안(新安) 후동(後洞) 백성 심달중(沈達中)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계유일에 우독현(牛犢峴)을 건너서 화천현(花川縣)을 지나고 보리진(菩提津) 상류(上流)를 건너 추지동(湫池洞)으로 가는데, 시내를 따라 올라가니 일기가 매우 차고 산의 나무는 바람을 받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연한 잎이 겨우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아가위는 만발하여 진달래는 아직 싱싱하니, 일기가 서울보다 2, 3배나 차운 것을 깨달겠다. 추지(湫池)는 보리진에서 나오고, 보리진은 금강산 외두설(外兜率)에 이르러 금성진(金城津)과 더불어 합하고 또 산기슭을 다 지나서 만포천(萬瀑川)과 더불어 합하고, 또 춘천(春川)에 이르러 병항진(甁項津)과 더불어 합해서 소양강(昭陽江)이 된다.

예를 들면 나무꾼이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두 번 다시 찾으니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산 아래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선경(仙境)이 되었다고 한다. 재마루에 추지원(湫池院)이 있고 추지원을 지나니 동쪽 가에 하늘빛이 매우 새파랗다. 운산(雲山)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아니고 바로 바닷물이다." 하므로, 나는 눈을 씻고 다시 살펴본 연후에

야 하늘과 물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 물이 언덕과 동떨어져서 차츰 멀어질수록 높아져 아슬하게 하늘과 더불어 서로 맞닿았으니, 평소에 본 물[水]은 모두 아이들 재롱에 불과하다. 재마루에 동으로 내려가니 일기가 점점 따뜻하여 철쭉이 바야흐로 피고, 나뭇잎이 그늘을 이루어 비로소 여름 맛이 난다. 왕왕나무를 깎아 질러 길을 보수하였으니, 이른바 잔도(棧道)라는 것이다. 때때로 말 위에서 산 살구를 따서 먹었다.

재마루에서 20리를 가니 중대원(中臺院)이 있다. 또 5리를 더 가서 냇가에서 요기하고 비로소 평지를 밟기 시작했다. 또 15리를 더 가서 통천군(通川郡)에 당도하였다. 이날에 산을 걸은 것이 모두 90리요, 평지를 걸은 것이 15리였다. 군수(郡守) 자달(子達)을 찾아보니 자달(子達)이 나를 동헌(東軒)의 별실에 있게 한다. 자달의 춘부장이 나를 매우 다정스레 대우하였다. 갑술일에 자달과 작별하고 15리를 가서 총석정(叢石亭)에 도착하였다.

나는 그 아래 이르러 보니 과연 돌산이 바다 굽은 턱으로 들어가 뱀 형상과 같이 칭칭 감았다. 산이 바다에 들어가 그치는 대목에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정자에 다다르기 전 3, 40보 거리에서 북으로 한 가닥 길을 넘으니, 네 돌이 바다 속에서 솟아나 자른 듯이 석주(石柱)를 묶어놓은 것 같다. 총석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 이 때문이다. 바다 서쪽 변안(邊岸)은 모두 총석의 형태로 되어 1마장쯤 뻗었다. 총석의 곁에 하나의 평석(平石)이 또한 물 가운데 있고, 작은 돌이 잡되게 쌓여 뭍으로 연했다. 나는 운산(雲山)과 더불어 맨발로 기슭을 내려가 평석 위에 앉고, 종놈을 시켜서 석결명(石決明)、소라(小螺)、홍합、미역 등의 종류를 따오게 하였다. 운산과 더불어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서로 희롱하며 고개를 쳐들어 멀리 바라보니, 하늘 끝과 땅 끝이 툭 틔어 유리 명경이 서로 비치는 듯하고, 위언(韋偃)과 곽희(郭熙)가 재주를 다하여 그림을 그려 놀던 것 같았다.

그래서 뒤숭숭하여 꿈속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한참만에야 밝혀졌다. 나는 사랑스러워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니, 운산이, "해가 벌써 많이 갔다." 한다. 나는 비로소 걸어 나와 사선정에 오르니, 정사에 손순효공(孫舜孫公)의 현판시(懸板詩)가 있고, 또 중인[僧人] 석자(釋子)의 이름과 호가 많이 씌어 있다. 나는 그 안에 앉아서 한 바다를 굽어보니 네 총석(叢石)이 더욱더 기이하며, 보이는 것은 아래 평석(平石)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안계(眼界)는 더욱 광활하다. 정자 남쪽에 기울어진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없어져서 어느 때에 세운 것인지 알 수 없고, 정자 동쪽으로 약 4,50리쯤에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어 완연히 서로 마주 대한 것 같으며, 정자 밑 바위 아래 두어 척 배가 오락가락하여 고기를 낚고, 남으로 어점(漁店)이 있어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말린다.

물 가운데 온갖 잡새가 좌우로 날아들어 우짖는데, 어떤 것은 몸이 하얗고, 어떤 것은 몸이 검으며, 어떤 것은 부리가 길고, 어떤 것은 부리가 짧으며, 어떤 것은 부리가 붉고, 어떤 것은 부리가 파랗고, 어떤 것은 꼬리가 길고, 어떤 것은 꼬리가 짧으며, 어떤 것은 날개가 검고, 어떤 것은 날개가 푸르러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나는 사언시(四言詩) 네 수를 정자 기둥에 쓰고 조금 앉았노라니,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내려와 바닷가 백사장을 따라 나가는데, 모래가 허해서 말발굽이 빠지고, 오직 물가의 추진 땅만이 굳어서 굽이 빠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는 간혹 언덕에 대질러 말안장에까지 뛰어오르므로, 말이 놀래서 언덕으로 나온다. 종놈을 시켜 말고삐를 끌고 가는데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왕왕 모래통이 언덕으이루었다. 바다가 뒤집힐 적에 물결에 밀린 것이다. 또 바닷물는데밭사장 가에서 혹은 모여서 배설되지 않는 것과, 혹은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조그마한 흰 돌이 뒤섞여서 해안덕으이룬 것도 있고, 또 뭇 돌이 쫑긋하게 바닷가에 서서 송곳 같은 것, 채찍 같은 것, 사람 같은 것, 짐승 같은 것, 머리는 크되 부리는 뾰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사석(沙石)가에 해당화가 서로 잇달아 혹은 꽃이 피고, 혹은 망울이 맺고, 혹은 붉고, 혹은 희고, 혹은 단엽(單葉)으로 되고, 혹은 여러 잎으로 되었다.

나는 도중에서 요기하고 60리를 가서 동자원(童子院)을 지나 등도역(登道驛)에서 유숙하는데, 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걷히고 나무가 뽑혔다. 을해일에 등도역을 출발하여 만안역(萬安驛)을 지나는데, 경유하는 곳마다 방죽이 많고, 바닷가의 보이는 것은 전날과 같았다. 옹천(瓮遷)에 당도하니, 쌓인 돌이 언덕을 이뤄 대략 총석(叢石)의 백분지 일이나 된다. 옹천을 다 지나니 조그만 돌벼랑이 있어 푸른 독을 깎아지르듯 하고 냇물이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위 밑을 빙 둘러 거위알처럼 툭 틔었다. 종놈을 시켜 미역을 따서 국을 끓이게 하고, 석결명(石決明)을 따서 소금에 구워 점심을 먹었다. 장정(長井)의 해변(海邊)을 지나서 고성(高城)의 온정(溫井)에 당도하니, 온정은 바로 금강산의 북동(北洞)이다.

이날 60리를 걸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두견새 소리를 들었다. 병자일에 바람이 불어 돈정에서 머물렀다. 정축일에 금강산에 들어가 5,6리를 걸어서 한 고개를 넘어 남으로 신계사(新戒寺)에 들어갔다. 고개의 동쪽에는 관음봉(觀音峯)이 있고, 북쪽에는 미륵봉(彌勒峯)이 있다. 서쪽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미륵봉에 비하면 더욱 빼어났으나 그 이름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그 서쪽에 한 봉우리가 멀리 구름 밖에 있으니, 비로봉(毗盧峯)의 북쪽 가닥이다. 신계사는 곧 신라 구왕(九王)이 창설한 것인데, 중 지료(智了)가 고쳐 지으려고 재목을 모으고 있다. 절 앞에 지공백천동(指空百川洞)이 있고, 그 남쪽에 큰 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보문봉(普門峯)이다. 그 봉우리 앞에는 세존백천동(世尊百川洞)이 있다.

동쪽에는 향로봉(香爐峯)이 있고 향로봉 동쪽으로 큰 봉우리 일곱이 서로 연하여 큰 산 하나를 이루었는데, 관음봉、미륵봉에 비하면 몇 십배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는 비로봉의 한 가닥이요, 하나는 원적봉(元寂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 위가 평평한 것은 안문봉(雁門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는 계조봉(繼祖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는 상

불사의(上不思議)요, 또 하나는 중불사의(中不思議)요, 또 하나는 하불사의(下不思議)다. 불사의라는 것은 암자 이름인데, 신라 중 율사(律師)가 지은 것이다.

일곱 봉의 아래에는 대명(大明)、대평(大平)、길상(吉祥)、두솔(兜率) 등의 암자가 있어 세존천(世尊川)의 곁에 있다. 나는 지공천(指空川)을 걸어 보문암(普門庵)을 넘어 산으로 5、6리 가니 솜대[綿竹]가 길을 이루었다. 암자 아래 도착하니 사주(社主) 조은(祖恩)은 바로 운산(雲山)의 친구라 나를 대접하는 니 사자못 정의가 있었다. 암자에 올라앉으니 동북은 바다가 바라뵈고 동남은 고성포(高城浦)가 보인다. 암자 앞에 나옹(懶翁) 근선사(勤禪師)의 자조탑(自照塔)이 있다.

자리가 정해지자 조은이 생생한 배[梨]와 잣을 대접하고 다음에 밥상을 드리는데, 목이(木耳 버섯)와 석이(石耳)도 있고 산나물이 없는 것이 없었다. 때마침 두견새가 낮에 우니 밑은 깊은 산중임을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조은과 작별하고 산으로 5、6리를 가서 발연(鉢淵)을 지나고, 거기서 또 반 마장을 더 가서 발연암(鉢淵庵)에 이르렀다. 중이 전하기를, "중 율사(律師)가 이 산에 들어오니 발연의 용왕(龍王)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절을 짓고 이름을 발연암이라 하였다." 한다. 암자 뒤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보문암에서 바라보던 일곱 봉우리의 맨 끝 봉이다. 암자 위로 조금 가면 폭포가 있어 수십 길을 드리우고, 좌우에는 모두 흰 돌이 있어 다듬은 옥과 같이 미끄러우니 앉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다. 나는 행장을 풀어 놓고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입을 축인 다음 꿀물을 마시었다. 발연의 고사(故事)에 "유희(遊戱)를 좋아하는 중들이 폭포위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그 위에 앉아 물 뒤에 놓아 물결을 타고 순류로 내려간다. 그러면 교(巧)한 자는 순하게 내려가고, 졸(拙)한 자는 거꾸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머리와 눈이 물에 빠져서 한참 허우적거리다 도로 나오니, 곁의 사람들이 모두 깔깔 웃었다.

그러나 그 돌이 미끄럽고 윤택해서 비록 거꾸로 날아와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희롱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운산으로 하여금 먼저 시험하게 하고 뒤를 이어 따라갔는데, 운산은 여덟 번을 해서 여덟 번을 다 맞히고, 나는 여덟 번 해서 여섯 번 밖에 못 맞혔다. 그리고 바위 위로 나오니 손뼉을 치고 모두 웃는다. 이에 책을 베고 돌 위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주(社主) 축명(竺明)이 와서 나를 끌고 사(社)로 들어가 사의 뒤뜰에 있는 비석을 보게 하였다. 비석은 바로 율사(律師)의 뼈를 저장한 비로서, 고려 중 형잠(瑩岑)의 소작이요, 때는 승안(承安) 5년 기미 5월이었다. 비 곁에 마른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율사의 비가 섬으로부터 5백여 년에 세 번 마르고 세 번 번성했는데, 지금 다시 말랐다고 한다. 구경을 다하고 도로 암자로 내려와 밝을 적에 저녁밥을 먹고 또 폭포에 갔다가 밤이 깊고 찬기가 들어서야 비로소 들어왔다.

무인일에 발연을 떠나 폭포 하류를 건너 소인령(小人嶺)을 올라가는데, 재가 험악하고 준급하여 걸음걸음이 쳐다보고 올라가기만 하니, 소인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 나는 열 걸음에 아홉 번을 쉬어서 바야흐로 첫 번 고개를 올라가니 유점산(楡岾山)이 왼편에 있고 불사의봉(不思議峯)이 바른편에 있으며, 동해(東海)가 뒤에 있고 환희점(歡喜帖)이 앞에 있다. 소인령(小人嶺)이 무릇 여덟 고개인데, 점점 나아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일곱 번째 고개에 당도하면 세 불사의봉과 더불어 나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산은 다 눈 아래 있다.

통천(通川)·고성(高城)·간성(杆城) 등 세 고을이 산 밑에 벌여 있고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면 하늘과 더불어 가이 없다. 여덟 번째 고개를 오르니 불사의봉이 이제는 아래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 산그늘을 따라가는데, 길은 너무도 험준하며 측백(側柏)은 길에 비껴 있고 동청(冬靑 사철나무)은 섞여서 나고, 쌓인 눈은 골짝에 가득하고, 송라(松蘿 소나무 겨우살이)는 나무를 칭칭 감았다. 나는 호표(虎豹)에 걸터앉고 규룡(虯龍)에 오를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가게 되어, 몹시 피곤하기에 눈을 가져다 꿀을 타서 마시니 갈증이 문득 풀린다.

이윽고 다시 나서서 돌고 돌며 엉금엉금 기어서 환희점을 오르니, 소인령의 제 팔봉보가 또 한두 등(等)이 더 높다. 점(岾)의 동쪽은 토봉(土峯)이 하나요, 점의 서쪽은 석봉(石峯)이 셋이다. 환희점을 넘어 남으로 내려오니 철쭉이 덤불을 이루는데 날씨가 차서 망울만 맺고 꽃은 피지 않았다.

작은 시내 하나 있는 데를 당도하여, 손과 얼굴을 씻고 또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 두솔암(兜率菴)에 당도하였는데 이름을 백전(柏田)이라고 한다. 발연에서 여기까지가 삼십여 리나 암자에 들어가 한참 동안 앉았다가 도로 나와 출발하여 1리쯤 가서 적멸암(寂滅庵)에 들어가니, 중 하나가 가사(袈裟)를 입고 입정(入定)하였다. 암자 뒤에 토산(土山) 하나가 있는데 적멸봉(寂滅峯)이요, 암자 앞 골짝 동쪽에 석산(石山)이 있는데 성불봉(成佛峯)이다. 암자를 지나서 또 돌아서 서북으로 향하여 곧장 한 골짝으로 내려가니 두 개천이 어울려 흐르고 수석이 밝고 상쾌하다. 바로 12폭포의 원류이다.

내를 건너서 올라가니 개심암(開心庵)이 있고, 그 암자에 들어가니 중이 납의(衲衣)를 입고 있을 따름이다. 또 개심전대(開心前臺)에 올라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니, 앞에는 적멸봉 하나가 있고 뒤에는 개심후봉(開心後峯)이 둘이 있고, 왼편으론 백석봉(白石峯) 하나가 있는데, 이 봉은 봉우리가 스물다섯이다. 그 아래는 운서굴(雲栖窟)이 있고 바른 편에는 동구(洞口)이다. 다시 암자로 돌아와 요기하고 서울에서 온 거사(居士) 송생(宋生)이란 자를 보니 그 말이 몹시 허황했다. 운산이 말하기를, "지금 해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 암자에서는 유숙할 필요가 없고 다시 떠나서 더 가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나는 그 말을 따라 개심후점(開心後岾)을 넘으니, 이 재는 환희재에 비해 한두 등급이 더 높다.

이로부터는 돌과 나무가 모두 하얗다. 왼편으로 가니 높은 봉 둘이 마주 섰고, 바른편으로 가니 석봉(石峯) 하나가 송곳과 같이 뾰족한데 아래에는 계조굴(繼祖窟)이 있다. 남쪽 가에 두 봉이 있어 솔과 잣나무가 울창하다. 두 봉이 합친 곳에 오르니 개심후절에 비해 또 한두 등급이 더 높다. 그 등성이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니, 측백나무가 길을 메우고 두견화가 만개하여 진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동(洞)은 바로 대장동(大藏洞)인데 수석이 맑고 상쾌하여, 지나온 곳은 이에 비교가 안 되고 동(洞)은 또 그윽하고 깊다. 이 물 근원을 따라가면 3、4일 후에 바야흐로 비로봉(毗盧峯)에 당도한다고 한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면 내의 북쪽에는 석봉이 다섯이요 남쪽에는 석봉이 둘인데, 그 중 하나는 흰 돌이 포개져 서책(書冊)을 쌓아 놓은 것 같다. 호승(胡僧) 지공(指空)이 이곳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안에 대장경이 있으므로 동(洞)이 이로 인하여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행장을 풀고 오래도록 앉아 구경하며 석상에서 노숙할 계획을 하니, 운산이 말하기를, "안개가 사람에게 스며드니 곤란하다. 오늘은 날이 비록 저물었지만, 오히려 원적암까지는 갈 수 있다." 하므로, 그 말에 의해 대장봉(大藏峯)을 따라 서쪽으로 가니, 돌로 된 봉 다섯이 바른편에 있고 흙으로 된 봉 아홉이 왼편에 있고, 골짝 물은 남쪽으로 쏟는다.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바른편 산중 허리를 끼고 한 큰 재에 오르니, 이름은 안문점(雁門岾)인데 안문봉(雁門峯)의 남쪽 가닥이다. 재는 대장후점(大藏後岾)에 비해 또 한두 등급이 더 높다. 고개를 내려가 서쪽으로 접어들어 시내를 따라가니 왼편에는 산이 있는데, 모두 소나무, 잣나무가 늘어서서, 그 봉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겠고, 바른 편에는 큰 봉 다섯이 있는데, 모두 내산(內山)의 남쪽 가닥이다. 냇물 남쪽 토산(土山)의 서쪽에 솟은 봉 셋이 있어 그 머리가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관음봉(觀音峯)이다. 그 봉 아래 돌이 있어 부처 형상과 같은 고로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 아래 원적천(元寂川)은 안문천(雁門川)과 더불어 서로 합쳐, 맑고 넓은 것이 대략 대장동 물과 더불어 비슷하다. 잠깐 동안 앉아 구경하고 물줄기를 거슬러 북으로 올라가니, 밟히는 것이 모두 시냇가 하얀 돌이요, 좌우로 산 수십여 봉우리가 흰 병풍을 두른 것 같았다.

이윽고 원적암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큰 봉이 있어, 지난 여러 봉에 비하면 몇 백배나 더 높은지 알 수 없으니 이른바 원적봉이요, 원적봉 남쪽에 봉이 있어 원적봉에 비하면 몹시 낮게 보이나, 여러 봉우리에 비하면 또한 차이가 있으니 이른바 원적향로봉(元寂香爐峯)이요, 암자 동남쪽을 바라보면 토봉(土峯) 하나가 높이는 원적봉과 같고 그 위는 오목하니, 이른바 안문봉이다. 중이 이르기를, "사자가 그 위에서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백전(柏田)에서 여기까지가 또 30리이다. 암자에 중 계능(戒能)이 있어 문자를 조금 이해한다. 기묘(己卯)일에 원적암을 출발하여 오던 길을 따라 내려가 안문수(雁門水)와 합류하는 시내 위에 손을 씻고 입을 축이고 물줄기를 따라 문수암(文殊庵)을 지나 묘길상암

(妙吉祥庵)에 당도하니, 암자가 시냇가에 있어 수석이 매우 명쾌해 보였다. 여기서부터 철쭉이 피기 시작했다. 냇물 남쪽에 봉우리 넷이 있고, 냇물 북쪽에 깎아지른 듯한 석벽 하나가 있다.

나는 시냇가 반석 위에 앉아 양추를 하고 암자에 들어가 제명(題名)하였다. 암자에는 노승 도봉(道逢)이란 자가 있었는데 용문사(龍門寺)의 사승(邪僧) 처안(處安)과 회암사(檜岩寺) 사승 책변(策卞)이 모두 대우하여 스승으로 섬기니, 이 때문에 명망이 여러 절에 떨쳐 재물을 모은 것이 가장 많았다. 나를 보고 인사하는데 매우 거만하므로 나는 말도 하지 않고 나와 버렸다. 시내를 따라 서쪽으로 가니 절터가 있고, 절터 안에 돌부처가 석벽 사이에 새겨져 있다. 절터 아래 큰 돌이 있어 위가 편편한데, 냇가 곁에 있으므로 나는 그 위에 앉아 잠깐 쉬었다. 북쪽에는 봉 여덟이 있고 남쪽에는 관음봉 이하 다섯 봉이 있고, 북쪽에는 여덟 봉이 있고 그 뒤에 큰 봉 둘이 있어 그 머리가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원적봉으로 서쪽으로 향해 있고, 그 중 하나는 월출봉(月出峯)인데 남쪽으로 향해 있고, 그 아래는 불지암(佛知庵)과 거빈굴(去賓窟)이 있다.

나는 이 두 암자를 지나서 마하연(摩訶衍) 전대(前臺)에 이르니, 담무갈(曇無竭)의 석상(石像)이 있다. 대(臺)는 바로 이 산의 한 중심지인데 담무갈은 이 산의 주불(主佛)이다. 그러므로 승속간(僧俗間)에서 여기를 지나는 이는 손을 모아 절하고 가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런데 운산은 지팡이로 그 이마를 두들겼다. 늙은 중 나융(懶融)이 마중 나와서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마하연의 사적을 보여 주었다. 이때에 우는 비둘기가 뜰 안에 가까이 다니니, 산 사람의 기심(機心)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뜰에 있는 풀은 그 형상이 부추와 같은데 그 꽃이 조금 붉다. 나옹은 말하기를, "옛날 지공(指空)이 이 산에 들어와 말하기를, '이 산은 흙이나 돌이 모두 부처형상으로 되었는데 유독 여기에만 없다.' 하여, 부처를 세워 예배하였으니 바로 산정(山頂)의 석관음(石觀音)이다. 그 부처가 선 곳에 이 풀이 나서 지금 백여 년이 지났어도 시들지 아니하니, 산 사람이 지공초(指空草)라고 부른다. 지공은 남천축국(南天竺國) 술사(術士)로서 고려 말에 들어와 그 도술로서 불법을 널리 선포하였다."고 한다.

나는 만경대(萬景臺)로 가는 것을 나옹에게 청하니, 나옹은 자못 싫어하며 비로봉의 정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나옹과 작별하고 만회암(萬灰庵)에 당도하여 종놈을 시켜 밥을 지어 싸가지고 만경대에 오르기로 하니 만회암 중도 역시 싫어하며 말리면서 하는 말이, "길이 없으니 가서는 안 됩니다." 한다. 그리고 운산 역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강행하여 한 산마루를 넘어 한 골짜기를 내려가고 또 한 마루를 올라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그리는데, 낙엽이 쌓여 무릎이 빠지고 썩은 나무가 겹쌓여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고 새 한 마리도 울지 아니하며, 다만 두어 길 폭포가 숲 밖에서 울릴 따름이다. 운산이 바윗돌을 타고 올라가니 폭포 위에 또 폭포가 있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운산은 몸이 오싹하여 간신히 내려오며 하는 말이, "산길을 이미 잃어버렸으니 수목 밑만 억측하고 무인지경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만회암으로 와서 요기를 하고 도로 마하연을 지나고 또 묘봉(妙逢) 사자(獅子) 두 암자를 지나서 사자 목에 이르니, 그 돌에 쇠줄이 밑으로 드리워져 사람이 더위잡고 올라가는 잡이로 삼았다. 민채(閔漬)의 유점기(楡岾記)에 이르기를, "호승 종단(宗旦)이 이 산에 들어와서 차지하고자 하니, 사자가 길목에 와서 막고 있으므로 종단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운산은 산마루의 한 돌을 가리키며 저것이 사자의 형상이라 하는데, 나는 자세히 보니 자못 사자와 같지 아니하고 바로 투박한 하나의 둥근 돌이다.

냇물이 여기 와서는 더욱더 기이하고 맑아서 10여 리가 한결같이 하얀 돌이 끊어지지 않고, 곳곳마다 폭포가 있어 그 아래는 깊은 못이요, 못 아래도 역시 폭포가 있다. 그러므로 동명(洞名)을 만폭동(萬瀑洞)이라 하니, 폭포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서쪽 가를 따라 내려갔다. 사자항에서 서쪽 가로 내려가면 봉 넷이 있는데, 하나는 윤필봉(潤筆峯)이요, 하나는 비로봉(毗盧峯)의 향로봉(香爐峯)이요, 하나는 향로봉의 다음 봉이요, 하나는 금강대(金剛臺)이다. 동쪽에 봉 셋이 있는데 모두 이름이 없다.

이 세 봉을 다 지나면 보덕굴(普德窟)이 있고, 굴 앞의 냇가에 하얀 큰 반석이 있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으며, 아래위로 폭포가 있고 폭포 아래는 모두 못이 있다. 반석에 앉아서 암자를 쳐다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중국 사신 정동(鄭同)이 와서 이 산을 구경할 때에, 한 두목이 있어 하느님께 맹서하기를, "이는 참으로 불경(佛境)이니 원컨대 여기서 죽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의 세계를 보련다." 하고 드디어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지금 저 위 못이 바로 그 못이다. 나는 바위 면에 이름을 쓰고 굴에 오르는데, 돌을 쌓아서 운제(雲梯)를 만들어 높이가 수백여 길이 된다. 그 계단을 다 지나면 암자가 벽 사이에 걸려 있는데, 구리 기둥 두 개가 약 두어 길 되는 것으로 고이고, 기둥 위에다 집 하나로 짓고 쇠줄 하나를 만들어, 한 끝은 기둥에 매고 한 끝은 돌에 매어 또 쇠줄 하나를 만들어, 그 집을 묶어서 두 끝을 돌에 매고 관음(觀音)의 소상을 그 위에 안치하였다. 또한 사(社)를 지어 중이 거처할 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곁에다 집 하나를 만들어 포주(庖廚)로 삼았다. 승사(僧舍)의 서쪽 관음굴(觀音窟)의 위에다 대(臺) 하나를 두어 이름을 보덕대(普德臺)라 하였는데, 보덕(普德)이란 것은 관음 화신(化身)의 이름이다.

나는 먼저 승사(僧社)에 들어가니, 바로 친구 동봉(東峯) 청한자(淸寒子)의 벽기(壁記)가 있고, 허주(虛舟)의 그림이 있다. 이윽고 사(社)에서 굴로 내려오니 쇠줄이 둘이 있으므로 나는 더위잡고 내려오는데, 판자 소리가 삐걱삐걱하여 공포심이 들었다.

이른바 관음 앞에는 원장(願狀)이 자못 많았다. 나는 나와서 대상(臺上)을 둘러보고 도로 승사(僧舍)로 들어가 밥을 먹고 내려와, 다시 냇물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흰 돌이 하

도 윤택하여 맨발로 거닐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윽고 앞으로 나가 수건암(手巾岩)에 당도하니, 동봉(東峯)이 기(記)에 이르기를, "관음이 변해서 아름다운 계집이 되어 수건을 이 바위에서 씻다가 중 회정(懷靜)에게 쫓겨서 바위 밑에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바윗돌이 비스듬하여 혹은 깊은 못이 되고 혹은 폭포도 되었으며, 바위 가에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되어 볼수록 심신이 상쾌하므로, 나는 앉았다 누웠다 하며 물을 희롱하여, 그 기이(奇異)함을 구경하고 떠날 줄 몰랐는데, 운산이 떠나자고 재촉하여 표훈사(表訓寺)로 내려왔다. 서쪽으로는 금강대(金剛臺)로부터 이하에 열 한 봉을 거쳐왔고 동쪽으로는 보덕굴(普德窟)로부터 이하에 일곱 봉을 거쳐서 왔다.

이날에 산을 타고 간 것이 전부 30리였다. 주지승 지희(智熙)는 운산의 친구인데, 나를 대우하기를 매우 후히 하여 등불을 켜고 차와 밥을 준비하여 준다. 절에, 지원(至元) 4년 무신 2월에 세운 비가 있는데, 바로 원(元) 나라 황제가 세운 것으로 봉명신(奉命臣) 양재(梁載)가 글을 짓고, 고려 우정승(右政丞) 권한공(權漢功)이 글씨를 썼다. 황제가 표훈사 중을 재(齋)하여 만인의 결연(結緣)을 만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비석의 뒷면에 태황(太皇) 태후(太后)가 은포(銀布) 얼마, 영종황제(英宗皇帝)가 얼마, 황후(皇后)가 얼마, 관자불화(觀者不花) 태자(太子) 및 두 낭자(娘子)가 얼마, 완택독심왕(完澤禿瀋王) 등이 얼마, 대소 신료(臣僚)가 얼마라는 것을 기재하였으니, 이는 곧 시주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날 밤에 나를 위해 조그마한 침방을 치워주니 친함을 표시한 것이다.

경진일에 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산중의 별미를 있는 대로 장만하여 나를 대접하고 노복들에게도 역시 후하게 하였다. 작별하게 되자 부채 하나 가죽신 하나를 나에게 선사하고 또 운상에게도 똑같이 선사하였다. 나는 냇가를 따라 오리쯤 내려가서 동남으로 한 산에 들어가 나무 밑으로 가는데 고개를 들어 보아도 하늘이 뵈지 않으며 역로(歷路)의 봉만(峯巒)도 헤아릴 수 없었다. 또 5、6리쯤 가니 묵은 성이 있다. 아마도 왜적의 난리를 피할 때에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터를 지나서 한 높은 산에 오르니 절정의 동편에 두 암자가 있는데 대송라(大松蘿)、소송라(小松蘿)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발이 다 부르터 걷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대송라에 당도하여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었다. 잠이 깨자 그 절의 중 성호(性湖)에게 청하여 산길의 앞잡이가 되게 하고 망고대(望高臺)에 올라 암자 뒤 동쪽 가의 산상을 따라 측백나무 가지를 더위잡고 나뭇가지를 헤치고 한 산마루에 올라서 또 곧장 산 중허리로 내려가 거기서 돌아서 북으로 올라가니, 깎은 듯한 하얀 돌을 깎아 세운 것이 몇 천인지 알 수 없는데 드리운 것도 같고 떨어질 것도 같으며 왕왕히 쇠줄이 아래로 드리워 손으로 끊고 올라가 승상(僧床)、응암(鷹岩)의 두 봉 사이로 벗어났다. 승상(僧床)이란 이름은 봉의 아래 돌이 있어 승상과 같기 때문이요, 응암이란 이름은 봉의 위에 돌이 있어 매의 형상과 같기 때문이다. 응암(鷹岩)의 북쪽에서 절벽으로 오르는데, 혹은 나뭇가지 혹은 돌의 모서리를 더위잡았다. 모두 계산

하니 암상(岩上)으로 걸은 것이 약 10여 리쯤 된다. 대상(臺上)에 오르니 4통5달(四通五達)하여 승상(僧床)、응암(鷹岩) 두 봉이 도리어 산 밑에 있고 전일 만폭동에서 거쳐서 온 여러 봉은 구질(丘垤)과 같아 분변할 수 없다.

다만 보니 진견성봉(眞見性峯)이 북쪽에 당해있고 그 봉 뒤에는 비로봉(毗盧峯)이 형세가 하늘을 고인 듯하여 여러 봉에 비하면 몇 백 배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전에 평지에서 쳐다본 것은 바로 그 지엽이요, 상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봉우리 서쪽에 만경대(萬景臺)、백운대(白雲臺)、중향성(衆香城)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마하연(摩訶衍) 후봉(後峯)이 서 비로봉과 연결하여 한 산악을 이룬 것 같다.

동북에 안문봉(雁門峯)이 있어 비로봉에 다음가고 안문봉 뒤에 대장(大藏)、상개심(上開心) 여러 봉이 있는데, 다만 뾰족한 머리가 붓끝처럼 보일 뿐이며 여러 뾰족한 봉우리 남쪽에 두 봉이 있어 여러 뾰족한 봉우리에 비하면 2、3 등급이 나직하게 보이는데, 이름은 십왕봉(十王峯)이다. 봉 뒤에 십왕백천동(十王百川洞)이 있고 냇가에 영원암(寧原庵)이 있다. 운산이 일찍이 이곳에 올랐다고 한다. 또 십왕수(十王水)가 내려와 만폭동과 더불어 합류하여 장안사(長安寺) 앞 내가 되고 십왕봉 뒤 백천동 동쪽에 토봉(土峯) 하나가 있어 위는 평평한데 십왕봉보다 약간 높으니, 그것은 천등봉(天燈峯)이요, 그 남쪽에 솟은 봉이 천등봉보다 한두 등급 높으니, 그것은 미륵봉이요, 천등봉、비륵봉의 사이에 두 봉이 그 머리를 내보인 것은 관음봉(觀音峯)、지장봉(地藏峯)이요 미륵봉 남쪽에 토봉(土峯)이 있어 미륵봉보다 1、2등급이 낮게 보이는 것이 달마봉(達磨峯)이요, 달마봉의 서쪽에 또한 토산 하나가 있어 몹시 나직한데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산의 남쪽은 곧 금장(金藏) 은장면(銀藏面)이다. 장안사(長安寺) 서북쪽에 신림사(新林寺)가 있고 신림사 서북쪽에 정양사(正陽寺)가 있고 정양사 서북쪽에 개심대(開心臺)가 있고 개심대 서쪽에 개심암(開心庵)이 있다.

그 산이 위까지 통해서 수목이 새파랗게 한쪽을 내리덮었다. 그러나 그 봉이 퍽이나 낮아서 여러 봉과 비교가 아니된다. 개심대 북쪽에 토산(土山)이 있어 몹시 높아 미륵봉과 더불어 동서로 마주 섰는데, 이름은 서수정봉(西水精峯)이라 그 봉의 남쪽에는 웅호암(熊虎庵)이 있고 봉의 뒤에는 수정암(水精庵)이 있는데, 곧 비로봉 북면의 물이 쏟는 골짝이다. 개심대의 뒤 수정암의 남쪽에 한 토산이 있어 개심대 뒷산보다 약간 높은데 이름은 발령(髮嶺)이다. 중이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를 지나다가 이 재에 올라 비로봉을 바라보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머리카락을 끊어 가지에 걸고 사문(沙門)으로 들어가려는 뜻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재를 발령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나는 대석(臺石) 위에 앉아 봉의 이름을 다 묻고서 사방을 두루보니 신기가 화평하고 상쾌하여 몸이 높은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겠다. 한 시간이 지났기로 내려가려 하는데, 안변(安邊) 중 네 사람이 뒤미처 올라오기에 네 명의 중과 함께 내려왔다. 네 명의 중은 상

운점(上雲帖)으로 돌아가고 나는 승상석(僧床石)에 오르니, 심신이 오싹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기로 도로 내려와 송라암(松蘿庵)에 당도하여 벽상을 보니, 친구 대유(大猶)의 이름 및 자와 절구시(絕句詩) 한 수가 있다. 이날에 산길을 걸은 것이 모두 25、6리였다. 윤사월 신사일에 송라암을 출발하여 옛 성터를 거쳐 남으로 한 골짝을 내려가 왼편으로 두 봉을 지나고 바른편으로 네 봉을 지나서 안양암(安養庵)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나한전(羅漢殿)이 있어 개명(開明)하여 앉을 수 있기로 나는 그 위에 앉아 일기를 썼다. 암자 앞에 깊은 못이 있으니, 이름은 울연(鬱淵)인데 김동(金同)이 빠져 죽은 곳이다. 김동은 고려 시대 부자 사람인데 평생에 부처를 좋아하여 울연의 위에다 암자를 짓고 모든 바위의 면에다 불상(佛像)을 조각하여 부처를 공양하고 중을 재(齋)하니 쌀바리가 개성과 연속하였다. 지공(指空)이 이 산에 들어와 김동을 보고 외도(外道)라고 지적하니 김동이 불복하였다.

지공이 맹서를 지어 말하기를, "네가 옳고 내가 그르면 오늘 안으로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옳고 네가 그르면 오늘 안으로 네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니 김동이 그러자고 하였다. 지공은 마하연(摩訶衍)에 들어가서 자는데 과연 밤에 뇌성벽력이 일어나 김동사가 물과 돌에 부딪쳐 김동은 절의 부처와 절의 종 그리고 절의 중과 한꺼번에 울연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한다. 울연 위 한 마장쯤에 김동사 옛터가 있다. 안양암을 지나서 동으로 산 중턱을 돌아드니 붉은 척촉과 푸른 솜대[綿竹]가 길가에 가득하다. 미타암(彌陀庵)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칠봉(七峯)이 열립해 있고 암자 앞에 물이 있다.

이 물은 바로 울연의 하류(下流)이다. 주승(主僧) 해봉(解逢)에게 청하여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식사 후에 왼편으로 명수(明水)、지장(地藏)、관음(觀音) 세 암자를 지나고 바른편으로 양심(養心)、영쇠(靈碎) 두 암자를 지나니 십왕백천수(十王百川水)가 여기 와서 만폭동과 더불어 합류한다. 이곳을 벗어나니 냇가 돌들이 청흑색으로 변하였다. 미타암으로부터 십여 리를 향하여 장안사(長安寺)에 당도하니, 이 절은 바로 신라 법흥왕(法興王)이 초창하였고 원(元) 나라 순제(順帝)가 기황후(奇皇后)가 더불어 중창(重創)하였다. 바깥문에는 천왕(天王) 둘이 있고 맨 안에 법당이 있고, 좌상에 큰 부처 셋과 중 부처 둘이 있다. 부처 앞에 금으로 쓴 액자(額字)에는, "황제 만만세(皇帝萬萬世)"라 하였다.

법당의 4면에 작은 부처 만 5천이 있는데, 모두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요, 그 동쪽 모퉁이에 무진등(無盡燈)이 있는데, 그 등의 내부 4면은 모두 동경(銅鏡)으로 되고, 가운데다 촛불 하나를 두고 곁으로 여러 중의 형상을 세워, 이내 초에 불을 붙이면 여러 중이 모두 촛불을 잡고 있는 듯한데, 역시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요, 다섯 왕불(王佛) 위에 또 다섯 중불(中佛)이 있는데, 복성정(福城正)의 소작이다. 당(堂)의 서실(西室)에 달마(達磨)의 초상이 있고 동북 모퉁이에 나한전이 있고 당에는 금불(金佛) 다섯이 있고, 좌우로 나한의 소상 16개가 있다. 나한의 곁에 각각 시봉승(侍奉僧) 둘씩이 딸려 기술이 극히 정밀

하고 교묘하였다. 나한전의 남쪽에 한 집이 있고, 그 집안에 대장경함(大藏經函)이 있다. 나무로 새겨 3층 집을 만들고 그 가운데 철구(鐵臼)가 있고, 철주(鐵柱)를 그 위에 두어 위로 집 대들보와 연속하게 하고, 함(函)을 그 가운데 두어 집 한 모퉁이를 잡고 흔들면 3층이 저절로 돌아가게 되니 구경할 만하다. 역시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다. 구경을 다 하고 나니 주지(住持) 조징(祖澄)이 차와 밥을 준비하였다.

식사 후에 가랑비를 무릅쓰고 그 전에 오던 천변(川邊)을 따라 올라가서, 울연 보현암(普賢庵)을 지나서 신림사(新林寺)에 당도하여 잠깐 쉬었다. 장한사에서 지나온 여러 봉과 아울러, 아침나절 지나온 일곱 봉과 십왕동(十王洞) 어귀에서 바라보이는 여러 봉을 합쳐 헤아려보면, 냇물 동쪽에 봉 29개가 있고 냇물 서쪽에 봉 18개가 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데는 전록(前錄)에 실려 있다. 신림사(新林寺)로부터 천친암(庵)에 오르고, 천친암으로부터 정양사(正陽寺)에 올라가면 절재[拜岾]가 바른편에 있다. 중이 말하기를, "고려 태조가 산에 들어왔을 적에, 5만의 담무갈(曇無竭)이 이곳 재에서 현신(現身)하므로, 태조는 무수히 절을 올렸다. 그래서 이름을 절재라 하였다."고 하였다. 정양사로부터 또 비를 무릅쓰고 쌓인 수목 속으로 약 10리쯤 올라가서 보현령(普賢嶺)에 올라, 거기서 서쪽으로 3、4리쯤 올라가서 개심암(開心庵)에 당도하니, 옷이 다 젖고 또 큰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날에 산길로 모두 40리를 걸었다.

임오일에 비가 개어 개심대에 올라 여러 봉을 바라보니, 망고대(望高臺)와 더불어 대략 같고 조금 다를 뿐이다. 비로봉 중향성(衆香城)은 동쪽에 있고 선암(禪庵) 뒷봉은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니, 곧 비로봉이 서쪽 가지이다. 마가연 뒷봉은 바로 선암봉(禪庵峯) 앞에 있고 영랑현(永郎峴)은 선암봉 뒤에 있고 서수정봉(西水精峯)은 영랑현 서쪽에 있고, 월출봉(月出峯)은 비로봉 동남에 있고, 일출봉(日出峯)은 월출봉(月出峯) 남쪽에 있고, 원적봉(元寂峯)은 일출봉 남쪽에 있는데, 망고대(望高臺)는 보이지 않는다. 원적향로봉(元寂香爐峯)은 원적봉 남쪽에 있고, 안문봉(雁門峯)은 또 그 남쪽에 있고, 안문봉 북쪽에 한두 봉이 있어 멀리 보이는데, 보문(普門)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것이다. 진견성봉(眞見性峯)은 또 안문봉의 남쪽에 있다. 망고대는 또 그 남쪽에 있고 십왕봉은 망고대 위에 두각만 나타내고, 천등(天燈)、관음(觀音)、지장(地藏)、미륵(彌勒)、달마(達摩) 여러 봉은 그 동남에 퍼져있는데 이는 그 대략이다. 대 남쪽에 안심대(安心臺)가 있고 대 곁에 개심태자(開心太子)의 석상(石像)이 있는데, 중이 말하기를, "이는 신라국 태자와 개심태자가 안심태자와 양심태자 돈대부인(頓臺夫人)과 함께 여기 와서 수도하였는데, 모두 법흥왕의 아들이다."라고 한다. 지금 네 암자가 있어 그대로 옛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지 않은지 자상하지 않다.

식사 후에 개심암으로부터 서쪽으로 묘덕암(妙德庵)을 내려가, 견극선암(見克禪庵)에 들어가니 뒤에 느린목[緩項]이라 이름된 것이 있는데, 지공(指空)이 산에 들어오던 길이라

고 한다. 천덕암(天德庵)을 지나니 암자 앞 수원부(水原府)에 사는 양반집 과부가 도산재(都山齋)를 베풀어, 중 수백 명이 산 중턱에 열지어 앉아 떠드는 소리가 온 골짝을 요란하게 하는데, 과부는 뭇 중들 가운데 낯을 드러내놓고 결연(結緣)하고 있었다.

또 원통암(元通庵)을 지나니 암자의 좌우에 두개의 내가 있어, 암자 앞에 와서 합류하는데, 역시 승경이다. 여기를 지나서 원통암 뒷재 영랑현(永郎峴)을 오르니 지나온 봉이 일곱이었고, 또 윤필암(潤筆庵) 고개를 넘어 윤필암을 지나고, 또 사자령(獅子嶺)을 넘어 동으로 가니 바로 지난 날 보던 사자암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역시 전록(前錄)에 기재되었거니와, 산천이 다름없고 하얀 돌도 여전한데, 다만 냇가 양쪽에 철쭉꽃이 지난 밤 비에 활짝 피어 끊임없이 서로 연속하여 가다가는 무더기로 있으니 구경할 만하다.

나는 그전 길을 따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안문점(雁門岾)을 채 못가서, 동남으로 한 골짝에 들어가 요기하고 수점(水岾)을 넘어 동으로 내려 왼편으로 시내 줄기를 보고, 바른편으로 남산을 끼고 나무 그늘 속으로 거닐어 성불암(成佛庵)에 당도하여 불암 위에 앉아 동해를 바라보니, 비가 지난 뒤라 더욱더 환하여 전날에 비할 바 아니었다. 객승(客僧) 죽희(竹熙)란 자가 나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죽희、성통(性通)과 더불어 불정암(佛頂庵)을 가보니 암자가 지난해에 화재를 만났다. 불정대(佛頂臺)에 올라가니 대 가운데 구멍이 있어, 산 밑 깊은 못에 통하여 바람이 그 속에서 나온다. 중이 말하기를, "옛적에 용녀(龍女)가 이 구멍에서 나와, 차(茶)를 불정조사(佛頂祖師)에게 받들었다." 하는데, 그 말이 매우 순진하고 대 아래에 청학(靑鶴)이 해마다 그 가운데서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나는 대 위에 앉아 바라보니 동에는 바다가다고 한다에는 안문봉이 있고, 북에는 상개심(上開心)、적멸(寂滅)、백전(柏田) 등의 절이 있고, 그 아래는 흰 바위가 한 벼랑을 이루고 폭포가 아래로 드리워 11층을 내려가는데, 반은 숲 속에 들었고 내가 바라본 것은 6층일 따름이다. 저물녘에 돌아와 성불암(成佛庵)에서 유숙(留宿)하였다. 이날에 산길을 걸은 것이 60리였다.

계미일에 성불암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여명(黎明)으로부터 하늘 동쪽에 붉은 빛이 비치더니, 잠깐 사이에 해가 솟아올라 온 바다가 다 붉게 보이고, 해가 간대[竿] 세 길이쯤 올라오니 바다 빛이 맑고 하얗다. 나는 단편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 작은 고개를 넘어 10리쯤 가서 유점사(楡岾寺)에 당도하니, 구연동(九淵洞) 물 근원이 미륵봉(彌勒峯)에서 나와 절 앞에 당해서는 수점천(水岾川)과 함께 합류한다. 절에 수각(水閣)이 있어 내 남북쪽을 깔고 앉았는데, 물고기가 앞에서 뛰다가 큰물이 지면 연어(連魚)、송어(松魚)가 모두 수각 앞까지 올라온다고 한다. 절의 바깥문은 해탈문(解脫門)인데 천왕(天王) 둘이 있고, 다음은 반야문(般若門)인데 천왕 넷이 있고 다음은 범종루(泛鍾樓)가 있는데, 누 곁에 한 방에 노춘(盧偆)의 상(像)이 있고, 맨 안에 능인보전(能仁寶殿)이 있고 전 안에는 나무를 새겨서 산 모양을 만들어, 53구의 부처

가 그 사이에 열립해 있고 전 뒤에는 한 우물이 있어 이름을 오탁수(烏啄水)라 한다. 맨 처음 까마귀가 쪼는 것을 보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절에 명(明)이란 사주(社主)가 있어 묵헌(默軒)、민채(閔漬)의 유점기(楡岾記)를 내보는데, 그 대략에 53구의 부처에 대해서는 본시 서역(西域) 사위국(舍衛國)에서 세존(世尊)을 보지 못한 삼만가(三萬家)가 문수보살의 말을 받아서, 석가의 상을 지어 부어[鑄] 쇠북 속에 담아 바다에 띄워 저 갈 데로 가게 하였다. 부처가 월지국(月氏國)에 이르자 그 나라 왕이 집을 지어 부처를 안치하였는데 그 집이 화재를 만났다.

부처가 왕에게 현몽하여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니, 왕이 부처를 쇠북 속에 넣어서 또 바다에 띄웠다. 부처가 신라국 고성강(高城江)에 이르니, 태수(太守) 노춘(盧偆)이 부처에게 살고자 하는 곳을 물으매, 부처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지라 노춘은 뒤를 따라 찾아가는데, 중[尼]이 돌 위에 앉아 그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이대(尼臺)라 하고, 개가 재 위에 있어 그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구점(狗岾)이라 하고, 노루가 산협(山峽) 입구에서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장항(獐項)이라 하고, 부처의 머무른 곳에 당도하여 쇠북 소리를 듣고 반긴 데는, 그 땅 이름을 환희점(歡喜岾)이라 하였다. 노춘이 남해왕(南解王)에게 아뢰어 큰 절을 지어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이름은, "유점사(楡岾寺)"라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민채의 설이 여섯 가지 큰 망언(妄言)이 있는데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쇠가 물에 뜨는 이치가 없는데, 그, "사위국(舍衛國)에서 지어 부은 쇠북과, 부처가 바다에 떠나 월지국(月氏國)을 거쳐 신라에 왔다."는 것이, 제1의 크나 큰 망언이요, 쇠란 스스로 걸어가는 이치가 없는데, 그, "고성강에 밀린 금부처가 저절로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가고, 또 물탕에서 끓어오르는 물방울을 피하여 구연동(九淵洞) 바윗돌 위로 날아서 들어갔다."는 것이 제2의 크나 큰 망언이요, 불교는 본시 서융(西戎)의 교로써 후한(後漢) 명제(明帝) 시대부터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고, 또 수백 년 후 남북조(南北朝) 시대로 신라의 중엽에 당하여 동방으로 유입되어 소신(小臣) 이차돈(異次頓)이 그 법을 이룬 사실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는데, 그, "전한(前漢) 평제(平帝)의 세상인 신라 제2대 남해왕의 조정에 일이 있어 비로소 유점사를 창설하였다."는 것은 제3의 큰 망언이요, 가령 민채의 설과 같이 부처가 비록 한 나라 명제 시대에 비로소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부처가 있기는 남해왕 때부터 비롯되어, 실로 중국보다 앞섰다면 어찌하여 사적에 실리지 않았겠는가.

우리 사람이 무식하여 부처를 받들기를 제 아버지처럼 받든다. 그래서 왕건(王建) 태조의 고명(高名)으로도 속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숭상하기를, "우리가 나라를 지니게 된 것은 실로 부처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때를 당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언어와 문장을 크게 과장하여 역사에 실었을 터인데, 사가는 오히려 기재하지

않았거늘, 민채는 바로 무식한 야인의 말을 믿고 기록하였으니 제4의 큰 망언이요,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백성의 중도 있게 되고 신중[尼]도 있게 되어, 반드시 불법(佛法)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전에 없었던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그, "노춘이 부처를 찾아갈 적에 신중이 길을 인도하였다."고 했으니, 불교가 있기도 전에 어찌 신중이 있겠는가. 이것이 제5의 큰 망언이요, 더구나 중국 인물들의 널리 듣고 많이 본 그것으로도, 오히려 서역(西域)의 범서(梵書)를 통하지 못하여 호승(胡僧)과 더불어 번역을 하고서야 그 글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사위국 월지국에서 기록한 쇠북에서 글자를 노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때에 문적(文籍)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서역의 사적을 말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여 제6의 큰 망언이니, 민채의 황당무계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여섯 가지 큰 망언이 있고 한 마디도 명교에 보탬 될 것이 없으니, 이 기록은 빼버리는 것이 옳겠다. 더구나 삼국의 초기에 사람이 일정한 성이 없고, 이름 자도 사람의 이름과 같지 않은즉 노춘이란 이름부터가 후세에서 지어 넣은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어찌 신라 말엽에 학식 있는 술승(術僧) 원효(元曉)、의상(義相) 율사(律師)의 무리들이 비로소 이 산의 사적을 과장하고자 하여 추후에 써놓은 것이라 아니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도 그릇된 점이 많단 말인가. 두루 다 구경하고 누각으로 나와 앉으니, 명(明)이 우리를 위하여 냇가에까지 보내주었다. 개복대(改服臺)를 지나니 이 대는 바로 지난 병술년에 유점사에서 불공할 적에 거가(車駕)가 옷을 바꿔 입던 곳이다. 또 단풍교(丹楓橋)를 지나자 다리 머리에서 잠깐 쉬었고, 또 장항(獐項)을 지나다가 말을 가지고 나를 맞기 위하여 온정(溫井)으로 오는 자를 만났다. 그래서 말을 타고 구점(狗岾)을 넘는데, 길이 험악하여 혹은 말을 타기도 했고 혹은 걷기도 했다. 이대석(尼臺石)을 지나서 마루로부터 평지에 당도하여, 건천(乾川) 가에서 요기를 하고 준방(蹲房)을 지나서 고성군(高城郡)에 도착하였다. 유점사에서 여기까지는 60리였다. 태수(太守) 조공(趙公)은 나의 조부와 더불어 좋아하는 처지라, 나를 보고 후히 대우하였다. 때마침 양양군수(襄陽郡守) 유자한(柳自漢)이 먼저 와서 좌상의 반찬을 준비하였다.

갑신일에 태수 조공이 유양양을 위해 삼일포(三日浦)의 놀이를 하게 되어 나도 따라갔다. 삼일포는 신라 시대에 화랑(花郎) 안상(安祥)、영랑(永郎)의 무리가 와서 3일 동안을 놀고 파했다. 그래서 이름이 되었다. 포구의 암벽(巖壁) 사이에 단서(丹書) 여섯 글자가 있는데, 화랑의 무리가 쓴 것이라고 한다. 수면(水面)에서 4、5리를 가면 돌섬 하나가 있고, 낙락장송이 두어 그루가 있으므로 이름을 송도(松島)라 하고, 동남의 모퉁이에서 바라보면 돌이 거북 모양과 같으므로 귀암(龜岩)이라 하고, 귀암의 뒤에 하얀 바위가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으므로, 이름을 설암(雪巖)이라 한다. 물 북쪽에 몽천사(夢泉寺)의 옛터가 있는데 참으로 절경이다.

나는 훈도(訓導) 전대륜(全大倫) 및 유양양을 따라, 배를 타고 송도에 정박하였다가 또 배를 노질하여 단서(丹書)가 있는 암벽(巖壁) 아래 당도하니, 과연 여섯 글자가 있어, "영랑도 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 하였는데, 그 글자가 돌에 심한 공격을 받았다. 전대륜은 말하기를, "옛날에 손님을 싫어하는 태수가 있었는데, 손이 이 고을에 오게 되면 반드시 단서를 보고자 하는 고로, 태수가 그 비용을 대어 주기 싫어서 쳐부숴버리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그 글자가 획이 인멸되지 않아서 해독할 수 있다. 나는 그 글의 뜻을 물으니 대륜은 말하기를, "영랑(永郎)이란, 신라 사선(四仙)의 하나요, 남석(南石)은 이 돌을 지적한 것이요, 행(行)이란 돌 위로 간다위로 간다. 세상의 문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이 돌이 고성에서 보면 북쪽에 있고, 금강에서 보면 동북간에 있고, 동해 바다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데, 그 '남석'이라 칭한 것은 더욱 해득할 수가 없고, 또 여섯 글자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문리(文理)가 대단히 소략(疎略攙理)하여 아이들의 솜씨와 같으니, 옛 사람의 문법이 응당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손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면 곧 수랑의 무리 가운데 남석행(南石行)이란 성명을 가진 자가 제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배를 멈추고 돌 위에 오르니, 그 정상(頂上)에 미륵불(彌勒佛)을 위한 매향비(埋香碑)가 있는데, 고려 시대에 세운 것이다. 배를 타고 송도로 돌아와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반찬이 매우 풍성하였다. 혹은 어부를 시켜 고기를 그물질하여 회를 쳐서 먹기도 하고, 혹은 연구시(聯句詩)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기도 했다. 오후에 큰 바람이 부니 태수는 무서워서 배를 타고 돌아가고 나는 온정(溫井)으로 돌아왔다.

을유(乙酉)일에 온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병술(丙戌)일에 목욕하고, 정해(丁亥)일에 목욕하며 무자(戊子)일에 목욕하고 나와 쉬었다. 기축、경인 양일간에 다 쉬었다. 가서(家書)를 받았는데 자당께서 안녕하시다고 했다.

신묘(辛卯)일에 회정(回程)하여 온정을 떠나가면서 고사리를 캤다. 고성군을 지나고 또 만호도(萬戶渡)를 지나서 배를 타고 고성포(高城浦)를 건너 강변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영동(嶺東)의 민속이 매년 3、4、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을 맞이하여 수륙(水陸)의 별미를 성비하여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자는 말바리로 실어오고, 가난한 자는 이고 지고 와서 신전에 차려 놓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고 연 삼일을 재미나게 놀고 취해 배부른 연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내려와 사람과 사고팔고 하며, 만약 제사를 아니 지내면 한 자치 베도 사람과 매매를 못한다. 고성의 민속제는 바로 이날인지라, 가는 길 곳곳마다 남녀들이 몸단장을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왕왕 저자와 같이 많이 모인 데도 있었다. 설암(雪巖)을 지나니 설암의 이남에는 기묘한 돌이 몹시 많았다. 안창역(安昌驛)을 지나서 안석도(安石島)에 오르니 잘잘한 돌이 밑으로 연하고, 전죽(箭

竹)이 덤불을 이루며, 전죽 아래는 해당화가 있고 해당화 아래는 하얀 돌이 있어, 혹은 평평하고 혹은 솟고 혹은 쌓이고 혹은 부숴졌다.

나는 섬 아래서 한바퀴 돌고 앉았다 누웠다 하며, 실컷 구경하다가 도로 나와 구장천(仇莊遷)을 지나니 역시 기묘한 곳인데, 옹천(瓮遷)만은 조금 못하다. 사천(蛇川)을 건너 명파역(明波驛)을 지나 냇가에서 요기하고, 술산(戌山)을 넘어 다시 바닷가를 따라 무송정(茂松亭)에 당도하니 정자는 바로 바다 굽은 턱에 있는데, 역시 육로(陸路)와 연결하여 장송(長松)이 그 맨 꼭대기에 나고, 하얀 돌은 그 기슭을 이뤘다. 그리고 안석(安石)에 비해 몇 배가 높은지 알 수 없다. 열산(烈山)을 지나서 간성(杆城) 땅에 들어가 포남(浦南)에 있는 어떤 민가(民家)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에 바다를 따라 행한 것이 모두 1백 20리였다.

임진(壬辰)일에 비를 무릅쓰고 포남에서 출발하여 반암(盤巖)을 지나 19리를 가니 비가 몹시 퍼부어서 간성(杆城) 객사(客舍)에서 유숙하는데 태수 원보곤(元輔昆)이 술밥을 보내와서 운산은 취해 넘어졌다.

계사(癸巳)일에 비가 갰다. 출발하여 문암(門巖)을 지나 바다를 따라 45리를 가서 청간역(淸澗驛)에 당도하니, 누가 물가에 가까이 있고, 누의 뒤에는 절벽이 깎아지르고, 누 앞에는 많은 돌이 쫑긋쫑긋 솟았다. 나는 누의 뒤 절벽 위에 오르니, 바라보이는 것이 더욱 넓어 서쪽으로 설악(雪岳)을 보니 비가 내리 쏟아지는 것 같은데, 하늘 남쪽에는 해가 중천에 둥실 떴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어둑하고, 뒤에는 꽃이 환하여 절묘한 경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절벽 위에서 요기하고 또 바닷가로 행하여 사령(沙嶺)의 해안을 지나니 이때에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 바다 물결이 기슭에 대지르는데, 천병(千兵) 만마(萬馬)가 몰아서 노는 것 같았다. 물이 부딪는 곳에 붉은 무지개가 건각에 나타났다 도로 사라지곤 하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죽도(竹島)를 바라보니 백죽(白竹)이 연기와 같고, 개울 밑 돌 위에 해달(海獺)이 줄지어 떼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물소리와 더불어 어울려 해안에 진동하였다.

또 부석(腐石)에 당도하니 청간(淸澗)에서 여기까지는 20리이다. 또 바른편으로 천보산(天寶山)을 지나 송정(松亭)에 당도하여 여기서부터 낙산(洛山)을 바라보며 20리를 가서 낙산동(洛山洞)에 들어갔다. 또 10리를 가서 낙산사(洛山寺)에 당도하니, 지나는 길에 피택(陂澤)이 많아서 그 크기를 10리 혹은 20여리 되는 것이 여섯이나 된다.

그리고 두 곳의 큰 개와 두 곳의 큰 내를 건너고 죽도(竹島)를 셋이나 지났는데, 기암(奇巖) 괴석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낙산사는 신라 중 의상(義相)이 지은 것인데, 그 절의 중이 그 사적을 전하기를, "의상이 직접 관음(觀音) 대사를 해변 굴속에서 만나니 관음이 친히 보주(寶珠)를 주고 용왕(龍王)이 또 여의주(如意珠)를 바치기에 의상은 두 구슬을 받았다. 이에 절을 짓고 전단토(旃檀土)를 가져다 손수 관음상을 만들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굴이 바로 관음의 머무른 곳이요, 뜰 가운데 있는 석탑이 바

로 두 구슬을 수장한 탑이요, 관음 소상은 바로 의상이 손수 만든 것이다." 한다. 무자(戊子) 연간에 요승(妖僧) 학열(學悅)이란 자가 있어 나라에 아뢰어 절터에다 큰 법당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곁에 있는 민간의 전답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 학열이 죽은 지 1년인데, 그 도제 지생(智生)이 일찍이 학열에게 곱게 보였던 관계로 학열이 죽자 노비(奴婢) 전답, 재물을 다 얻어서 그 이익을 관리하고 있다. 절 앞에 정자 하나가 바닷가에 가까이 있고, 감나무 숲이 여러 겹을 두르고, 대와 나무가 온 산에 가득하다. 나는 정자에 올라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정자를 내려와 언덕 밑을 지나서 큰 대숲에 갔다가 도로 주사(廚舍)를 지나서 곡구(谷口)로 내려가 왼편으로 암석(巖石)을 거쳐 조그마한 댓가지를 헤치고 반 마장쯤 가서 이른바 관음굴이란 곳에 당도하니, 조그마한 동불(銅佛)이 굴속의 조그마한 실내에 있어 바람과 햇볕을 가리지 못하고 방 아래서는 파도 물결이 돌을 대질러 산 형상이 흔들리는 듯하고, 지붕 판자가 노상 울린다. 나는 내려와 동구에 당도하자 운산이 중 계천(繼千)을 데리고 와서 나를 맞아 절로 들어가니 지생이 나와 영접하여 하룻밤을 지냈다.

갑오(甲午)일 이른 아침에 나는 정자에 올라 앉아 해뜨는 것을 구경하였다. 지생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나를 인도하여 관음전을 구경시키는데 이른바 관음상은 제작한 기술이 극히 정밀하고 교묘하여,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전 앞에 정취전(正趣殿)이 있고, 전 안에는 금불 셋이 있다. 나는 출발하여 남쪽 길로 가다가 서쪽으로 접어들어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 냇가에 당도하여 말을 쉬게 하고, 또 10리를 가서 설악(雪岳)으로 들어가 소어령(所於嶺)을 올라 고개를 내려오니 냇물은 왼편에 있고, 봉만(峯巒)은 바른편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서 냇물을 건너 왼편으로 가니 물은 맑고 산은 빼어나고 하얀 돌이 담 쌓여 대략 금강산의 대장동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오색역(五色驛)을 당도하니, 하얀 달이 벌써 산 위에 둥실 높이 떴다. 이날 밭으로 30리를 걷고 산으로 40리를 걸었다.

을미(乙未)일에, 오색역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지나니, 설악산이 무려 수십여 봉우리인데, 정상은 모두 희고, 시냇가 돌과 나무도 또한 희게 보인다. 세상에서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다. 운산이 말하기를, "매년 8월에 다른 산은 서리가 미처 오지 않았는데도, 이 산만은 먼저 눈이 내리므로 설악이라 한다." 하였다. 재마루 돌 위에 팔분체(八分體)로 쓴 절구시 한 수가 있는데, "무진년에 난 단군(檀君)보다 먼저 나서 기준(箕準)의 마한(馬韓)을 목도하였네. 영랑(永郎)과 함께 수부(水府)에 노닐고, 또 술을 마시며 인간에 머물렀네." 하였다. 먹발[墨跡]이 아직도 싹싹하니, 반드시 쓴 적이 오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신선이라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일 좋아하는 자가 우연히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정자(정이(程頤))는, "하늘에 빌어 나라 운명(運命)을 길게 하는 것과 보통 사람

이 성인에 이르는 것으로써 신체를 수련하여 연령을 끌어가는 것에 비한다." 하였으니, 깊은 산중에 역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 시를 읽어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속세를 벗어난 느낌이 들게 한다. 나는 재마루에서 동해 바다와 하직하고, 재를 내려와 서남으로 나무 밑으로 걸어가니 길이 험악하고 골짝기가 깊숙하였다. 정향(丁香) 꽃을 꺾어 말안장에 꽂고, 그 향내를 맡으며 면암(眠巖)을 지나 30리를 가서 말을 쉬고 신원(新院)을 지나 또 15리를 가니 냇물이 설악의 서쪽으로부터 와서 소솔천(所率川)과 합류하여 원통역(元通驛) 아래 이르러서는 큰 강이 되었다. 원통으로 전진하니 산천이 광활하여 매우 아름다웠다. 원통으로부터 평지를 밟고 또 25리를 가서 원통천(元通川)을 건너서 기린현(麒獜縣) 물이 여기와 합류하였다. 강을 따라 5리를 가서 인제현(麟蹄縣)에 유숙했다. 이 날에 산으로 60리를 걷고, 뭍으로 30리를 걸었다.

병신(丙申)일에 배를 타고 병항진(甁項津)을 건너 서、남으로 향하여 선천(船遷)을 지나고, 또 서남으로 향하여 만의역(萬義驛)을 지나며, 또 산간으로 향하여 홍천(洪川) 땅에 들어가 천감역(泉甘驛)에 유숙했다. 모두 80리를 걸었다.

정유(丁酉)일에 또 서、남으로 향하여 마령(馬嶺)을 넘고 또 서남으로 향하여 큰 강을 따라 내려가 구질천(仇叱遷) 영봉역(迎逢驛)을 지나 60리를 가서 홍천현에 당도하여 현감(縣監) 백기(伯起)를 만나보고 동숙(同宿)하였다.

무술(戊戌)일에 배를 타고 앞강을 건너 괘전령(掛錢嶺)을 넘어 백동역(百同驛) 뒷산을 거쳐 지평현(砥平縣)을 지내고, 또 천곡원(天谷院)을 지나서 서남에 돌길로 들어갔다. 이 날에 도합 90리를 걸어서 권교리(權校理) 경우(景祐)의 집에서 잤다.

기해(己亥)일에 가랑비를 무릅쓰고 서쪽으로 향하여 천곡천(天谷川) 하류로 건너 오빈력(吾賓驛) 양근군(楊根郡)을 지나고, 또 월계천(月溪遷) 우원(偶院)、요원(腰院)、말원(末院)을 지나서 용진(龍津)을 건너 봉안역(奉安驛)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에 도합 80여 리를 걸었다.

경자(庚子)일에 두미천(豆尾遷) 평구역(平丘驛)을 지나 중녕포(中寧浦)를 건너 70리를 향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총계하니 산으로 향한 것이 4백 85리요. 바다로 향한 것이 2백 74리요, 뭍으로 향한 것이 9백 37리였다. 을사 윤 4월 20일 신축에 기록하다.

白頭山起自女眞之界. 南延於朝鮮國海邊數千里. 其山之大者. 在永安道曰五道山. 在江原道曰金剛山. 在慶尙道曰智異山. 而泉石之最秀且奇者. 金剛爲冠. 山名有六. 一曰皆骨. 一曰楓岳. 一曰涅槃者. 方言也. 一曰枳怛. 一曰金剛者. 出華嚴經. 一曰衆香城者. 出摩訶般若經. 新羅法興王以後所稱也. 愚謹按佛者. 本西戎太子. 其國距咸陽九千餘里. 限之以流沙黑水之遠. 龍堆葱嶺之險. 與中國不通. 安知越中國而東國乃有此山哉. 非特不知有此山. 亦不知有朝鮮國者. 以史考之. 當周昭王之世. 我邦箕子朝鮮之中葉. 佛實生於西方舍衛國. 其佛說千

函萬軸中. 說無限世界. 而曾無一語稱朝鮮國者. 則其不知此國此山明矣. 豈非佛說法時. 誇大其事. 以謂海中有金剛, 枳怛, 衆香諸山. 而有億萬曇無竭. 率其眷屬. 以駭愚俗. 如莊周鯤鵬天池之說. 姑射具茨之論. 寓言於冥漠之中. 驚俗於高大之境而然者乎. 此不過震動黔黎. 劫誘無識者. 而豈眞有金剛, 枳怛如是其怪者乎. 佛之寓語如是. 而羅僧學佛者. 亦自高大其國. 以楓岳指爲金剛. 而追作曇無竭之像. 以實妄語乎. 且佛所云海中者. 安知指東海乎. 東西南北. 莫非海也. 豈獨東海爲海中. 而以楓岳定爲金剛者乎. 且我邦於中國. 雖云海外. 而西北陸連遼東. 其間只隔鴨綠一江. 鴨綠江固非海矣. 其指我邦爲海中者謬甚矣. 然金剛之稱. 歷世旣久. 難可猝變. 余亦指爲金剛山也. 蓋其爲山. 跨天南北而崒嵂. 壓后土之洪濛. 大峯三十有六. 小峯一萬有三千. 一枝南延於二百餘里. 山形竦峭. 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 其南有所率嶺. 岳東一枝又成一小岳. 曰天寶山. 天將雨雲. 山自鳴. 故或曰鳴山. 鳴山又蔓迴於襄陽府. 後走於海濱. 五峯特起. 曰洛山. 金剛一枝又北延於一百餘里. 有一嶺. 名曰楸池. 楸池之山. 又於通川官後. 周遭殘山. 如線之不絕. 北轉而入海中曰叢石亭. 山之東曰通川, 高城, 杆城郡. 西曰金城縣, 淮陽府. 列置山下者凡一府三郡一縣. 太歲乙巳之四月望日. 余發長安. 宿普濟院.

丁卯. 行九十里. 宿笠巖.

戊辰. 過逍遙山. 涉大灘行六十里. 宿漣川居仁家.

己巳. 過寶蓋山. 又過鐵原古東州野南頭行一百餘里. 宿金化甲士鄭時成家.

庚午. 過金化縣. 行六十里. 宿金城鄕校.

辛未. 過昌道驛. 涉普提津. 行七十八里. 宿新安驛.

壬申. 滯雨. 宿新安後洞百姓沈達中家.

癸酉. 度牛犢峴. 過花川縣. 涉普提津上流. 赴楸池洞. 循溪而上. 天氣甚寒. 山木嫌風而亞脆葉纔出. 棠梨開滿. 杜鵑未衰. 覺天氣寒於漢陽二三倍矣. 楸池者. 普提津所從出者. 津到金剛山外兜率. 與金城津合. 又歷盡山麓. 而與萬瀑川合. 又至春川. 與甁項津下流合. 爲昭陽江. 古有樵夫偶到其處. 再尋之則不得矣. 山下人相傳爲仙境云. 嶺上有楸池院. 過院則東邊天色甚碧. 雲山曰. 此非天. 乃海水也. 余刮目更察. 然後辨其爲天與水也. 其水距岸漸遠而漸高. 遙與天相接. 平生觀水. 盡爲兒戲矣. 自嶺而東下也. 天氣漸溫. 躑躅方開. 木葉成陰. 始覺夏氣. 往往斫木補道. 所謂棧道者也. 時時於馬上. 摘山杏以啗之. 自嶺行二十里. 有中臺院. 又行五里. 於川邊攤飯. 始履平地. 又行十五里. 抵通川郡. 是日. 山行摠九十里. 地行十五里. 見郡守子子達. 子達館余于衙別室. 子達尊公遇余甚款.

甲戌. 辭子達. 行十五里. 抵叢石亭. 余至其下. 果有石山入海曲. 逶迤如蛇形. 山之入海極頭. 有四仙亭. 未及亭三四十步. 北越一路則有四石起自海中. 截然如束柱石然. 所以得名叢石者此也. 海西邊岸. 盡爲叢石. 形亘里餘. 叢石之傍. 有一平石. 亦在水中. 而小石雜積連陸. 余與雲山. 赤足下岸. 坐平石上. 令奴人採石決明, 小螺, 紅蛤, 海藿等物. 與雲山掬水相戲.

擧眼眺瞻. 則乾端坤倪. 軒豁無涯. 如瑠璃明鏡相照. 韋偃郭熙効技然. 怳然疑是夢中. 久乃可明. 余眷顧不肯出. 雲山曰. 日已晏矣. 余始出岸上四仙亭. 亭有孫公舜孝懸板詩. 又多有僧人釋子名號. 余坐其中. 俯視滄溟. 四叢石尤奇. 所見略與下平石同. 而眼界則尤闊矣. 亭南有碑. 傾側字沒. 不知何時所立. 亭東約四五十里許. 有一島在海中. 宛然若相對然. 亭巖下. 有二舟往來釣魚. 巖南有魚店. 漁人曬網其間. 水中雜鳥飛鳴左右. 或體白體黑. 或觜長觜短. 或觜紅觜靑. 或尾長尾短. 或翰黑翰靑. 不可以數. 余題四言四章於亭柱. 居無何. 風浪起. 余下來. 循海邊白沙而行. 沙虛馬蹄易沒. 惟水邊浪痕. 堅不沒蹄. 然海濤時或衝岸. 至於馬鞿. 馬皆驚怖出岸. 令奴人控馬行. 風景尤奇. 往往沙觜成山. 海惡時流波所聚也. 又有海水於沙邊或瀦而不泄者. 或瀦而入海者. 又有白小石雜成海岸者. 又有衆石巉巖立海濱. 如錐者. 如鞭者. 如人者. 如獸者. 如禽者. 末大而根銳者. 根大而末銳者. 沙石之邊. 海棠相屬不絕. 或花或蕊. 或紅或白. 或開而單葉者. 或開而千葉者. 余於中道攤飯. 行六十里. 過童子院. 宿登道驛. 夜大風. 發屋拔木.

乙亥. 發登道. 過萬安驛. 所經陂澤甚多. 海濱所見如前日. 至瓮遷. 積石成岸. 略如叢石之百一. 歷盡遷上. 有石小陂. 如磨蒼玉. 有川自西而入海. 周於巖下. 洞如明鏡. 令奴人採藿烹羹. 採石決明鹽鮓以配午飯. 過長井海邊. 抵高城溫井. 井乃金剛山北洞也. 是日. 行六十里. 至此始聞杜鵑聲.

丙子. 以風留溫井.

丁丑. 入金剛山. 行五六里. 越一峴而南入新戒寺之墟. 峴東曰觀音峯. 北曰彌勒峯. 彌勒峯之西. 有一峯. 比彌勒峯而加秀. 不知其名. 又其西. 有一峯. 遠在雲表. 毗盧峯之北枝也. 新戒寺. 卽新羅九王所創也. 有僧智了改創鳩材矣. 寺前有指空百川洞. 其南有大峯. 曰普門峯也. 峯前有世尊百川洞. 東有香鑪峯. 峯東有七大峯相屬成一大山. 比於觀音, 彌勒峯. 不知其幾百倍. 其一. 毗盧峯之一枝. 其二. 元寂峯之一枝. 其三上平者. 雁門峯之一枝. 其四. 繼祖峯之一枝. 其五. 上不思議. 其六. 中不思議. 其七. 下不思議. 不思議者. 庵名也. 新羅僧律師所創也. 七峯之下. 有大明, 大平, 吉祥, 兜率等庵在世尊川傍. 余涉指空川. 越普門庵. 山行五六里. 綿竹成徑. 及到庵下則社主祖恩. 乃雲山故人. 遇我頗有恩意. 坐庵上. 東北望海. 東南見高城浦. 庵前有懶翁勤禪師自照塔. 坐定. 祖恩饋生, 柏子訖. 進飯. 烹香蕈, 石蕈爲饌. 山蔬極備. 時杜鵑午啼. 可卜山深矣. 飯後辭祖恩. 山行約五六里. 涉世尊百川水. 又行一二里. 左視兜率庵而東. 又行五六里. 涉一大川. 循川東偏而上行五六里. 過鉢淵. 又行半里. 至鉢淵庵. 僧傳云. 新羅時有僧律師入此山. 鉢淵龍王獻可居之地. 於是創社曰鉢淵庵云. 庵後有一峯. 在普門望見七峯之末峯也. 庵上少許. 有瀑布橫垂數十丈. 左石皆白石. 滑如磨玉. 可坐可臥. 余解裝掬水漱口. 飮蜜水. 鉢淵故事. 釋子遊戲者乃於瀑布上. 折薪而坐其上. 放於水上. 順流而下. 巧者順下. 拙者倒下. 倒下則頭目沒水. 久乃還出. 傍人莫不酸笑. 然其石滑澤. 雖倒. 下體不損傷. 故人不厭爲戲. 余令雲山先試之. 繼而從之. 雲山八發而八中. 余八發而六

中. 及出巖上. 拍手大笑. 乃枕書臥石成小睡. 社主竺明來. 引余入社. 使見社後碑石. 乃律師藏骨之碑. 高麗僧瑩岑所撰. 時承安五年己未五月也. 碑側有枯松二株. 自律師碑立五百餘年. 三枯三榮. 而今復枯矣. 覽畢還下庵. 明饋飯. 飯後又到瀑布. 夜深天寒. 始入來.

戊寅. 發鉢淵. 涉瀑沛下流. 涉小人嶺. 嶺路險惡而峻. 步步仰上. 得名小人. 信不虛也. 余十步九歇. 方涉初嶺. 榆岾山在左. 不思議峯在右. 東海在後. 歡喜岾在前. 小人嶺凡八. 漸前而漸高. 至於第七嶺. 則與上不思議峯齊. 諸山盡在目下. 通川, 高城, 杆城三郡. 列置山底. 眺瞻溟海. 與天爲際. 陟第八峯. 則不思議峯. 風斯在下矣. 自此而西轉從山陰. 行路甚絕峻. 側柏橫路. 冬青雜生. 積雪滿谷. 松蘿著樹. 余踞虎豹登虯龍. 攀枝以行. 勞甚. 取雪和蜜而飮. 渴肺頓醫. 子美所謂嵌空太始雪也. 已而復渴. 逶迤匍匐. 得登歡喜岾. 高於小人第八峯又加一二等. 岾東土峯一. 岾西石峯三. 越歡喜而南下也. 躑躅成林. 天寒. 蕊而不花矣. 至一小溪. 洗手頹面. 又越一小峴. 抵兜率庵. 庵一名柏田. 自鉢淵至此三十餘里. 入庵坐. 良久還出. 上道行一里許. 入寂滅庵. 有一僧袈裟入定矣. 庵後土山曰寂滅峯. 庵前巷東石山曰成佛峯. 過庵右轉而西北行. 直下一洞. 有二川交流. 水石明爽. 乃十二瀑沛源流也. 涉川而上. 有開心庵. 入庵則有一僧衣衲而已. 又登開心前臺. 望見諸峯. 前有寂滅一峯. 後有開心後二峯. 左有白石一峯. 二十有五頭. 其下有雲棲窟. 右則洞口也. 還入庵攤飯. 見京來居士宋生者. 其語甚詭. 雲山曰. 今者天日尙早. 不可止宿此庵. 祇可復行. 余從其計. 越開心後岾. 岾高於歡喜岾又加一二等. 自此木石皆白. 左歷二峭峯竝立. 右歷一石峯如錐鋒. 下有繼祖窟. 南邊有二峯. 松柏鬱蔥. 陟二峯之交. 高於開心後岾又加一二等. 從岾而南下也. 側柏塞路. 杜鵑間開. 馨香擁鼻. 洞乃大藏洞也. 川石明快. 所歷無此比. 洞又幽夐深邃. 窮川源則三四日方到毗盧峯云. 姑以眼所及記之. 則川之北石峯五. 南石峯二. 其一則白石疊成. 如積書冊然. 胡僧指空指此曰. 此石內有大藏經. 洞因此得名. 解裝坐玩良久. 欲爲暴宿巖石之計. 雲山曰. 此雖無惡獸. 霧氣襲人. 可畏. 今日雖暮. 猶可至元寂庵. 余從之. 循大藏峯而西. 五石峯在右. 九土峯在左. 而洞水南注. 沿流而下. 挾右山腰. 陟一大岾. 名曰雁門岾. 雁門峯之南枝也. 岾高於大藏後岾又加一二等. 下峴而南. 循澗而行. 左有山. 皆松柏. 不辨其峯. 右有五大峯. 皆內山之南枝也. 川南土山之西. 有三峭峯見其頭. 其一觀音峯. 峯下有石如佛形. 故得名然也. 其下元寂川. 與雁門川相合. 淸曠略與大藏水等. 坐玩須臾. 泝流而北上. 所踏皆溪邊白石. 左右山數十餘頭. 圍如雪屛. 已而至元寂庵. 庵後有大峯. 加於衆峯不知幾百倍. 所謂元寂峯. 峯南有峯. 比元寂峯甚卑. 而比諸峯亦有徑庭. 所謂元寂香爐峯也. 庵東南. 望見一土峯. 高齊元寂峯而其上凹. 所謂雁門峯也. 僧云. 獅子育兒其上. 自柏田至此又三十里. 庵有僧戒能. 稍解文字.

己卯. 發元寂. 從古道下至雁門水交流之上. 洗手漱口. 循流而下. 過文殊庵. 至妙吉祥庵. 庵在溪邊. 水石甚明. 自此躑躅始開矣. 川南有四峯. 川北有石壁削立者一. 余坐川石上養齒. 入庵題名. 庵有老僧道逢者. 龍門邪僧處安, 檜巖邪僧策卞. 皆禮而師之. 以此名重諸山. 得貨最多. 見我禮甚倨. 余不言而出. 循溪而西. 有寺基. 基上有石佛刻在石壁間. 寺基下有大石上

平. 臨在川上. 余坐其上小歇. 寺基以北有峯八. 以南觀音峯以下有峯五. 北八峯之後. 有二大峯露其頭. 其一元寂峯西面. 其一月出峯南面. 其下有佛知庵, 罽賓窟. 余過二庵. 至摩訶衍前臺. 有曇無竭石像. 臺乃此山之正中. 而曇無竭乃山之主佛. 僧俗過此者莫不攢手拜過. 雲山以杖叩其額. 入寺中. 寺有老釋懶融. 出與余語. 示摩訶衍事跡. 時有鳴鳩馴擾庭下. 可卜山人無機矣. 庭中有草. 其形如韭. 其花少紫. 融曰. 昔指空入此山曰. 此山土石皆佛. 獨此空地. 立此而禮山頂之石觀音. 其所立地. 生此草至今百餘年不衰. 山人呼爲指空草. 指空者. 南天竺國術士. 麗季來入我邦. 以其術廣布佛法云. 余請萬景臺路於融. 融頗惡之. 毗盧頂上不可踏. 余辭融至萬灰庵. 令奴人炊飯裹之. 上萬景臺. 萬灰僧亦惡而止之曰. 無路不可去. 雲山亦不欲. 余強行. 越一山頂下一洞. 又上一頂. 攀枝以下. 積葉沒膝. 朽木交橫. 東西皆迷. 一鳥不鳴. 但瀑沸數丈. 飛鳴於林表而已. 雲山緣石以登. 則瀑沸之上. 又有瀑沸如前. 雲山身竦. 艱難得下曰. 山路已失. 不可臆度. 樹木之下. 以求無人之境. 不如還去. 余從其言. 還出故道而來. 至萬灰攤飯. 還過摩訶衍. 又過妙峯, 獅子二庵. 至獅子項. 其石有鐵鎖垂下. 以爲人攀上之資. 閔漬榆岾記云. 胡宗旦入此山欲壓孎旦入此獅子當項拒孎旦入宗旦不得入. 雲山指山頂一石曰. 此獅子形也. 余詳視孎旦入頗不類獅子攀上之頑然一圓石也. 川水至此則尤加奇麗. 山路已一白石不斷. 處處瀑沸. 其下深潭. 潭下亦有瀑沸. 故洞名曰萬瀑洞. 所以記瀑之非一也. 余循西邊而下. 自獅子項下西邊有峯四. 其一潤筆峯. 其二毗盧峯之香爐峯. 其三無名. 其四金剛臺. 東邊有峯橫. 皆無名. 歷盡三峯而有普德窟. 窟前川邊有白大石. 平可坐數百人. 上下皆瀑沸. 瀑下皆深潭. 坐石上仰見庵子攀上甚奇. 中使鄭同之來觀此山也還去. 頭目誓天曰. 此眞佛境. 願死於此. 作朝鮮人. 長見佛世界攀上之投水而死. 今之上潭是也還去今題名巖側. 登窟則積石爲雲梯. 高可數百餘丈. 沒上梯則有庵掛於壁間. 以二銅柱約數丈者撐之. 柱上構一室. 作一鐵鎖. 一端着柱. 一端着石. 又爲一鐵鎖圍其室. 而着兩端于石. 置觀音塑像. 其上又作一社. 爲僧所住. 又其傍. 爲一室爲庖廚. 僧舍之西觀音窟之上. 築一臺. 曰普德臺. 其曰普德者. 觀音化身名也. 余先入僧社則乃故人東峯淸寒子壁記. 虛舟申持正丹靑畫手申. 俄而自社下. 窟有鐵鎖二. 余攀下樓板. 聲咿軋可懼. 所謂觀音前願狀頗多. 余出. 歷觀臺上. 還入僧舍飯訖. 下來. 復循川流而下. 白石滑澤. 赤足而行. 亦不生繭. 已而前至手巾巖. 東峯記云. 觀音化爲美女. 洗手巾于此巖. 爲僧懷靜所逐. 入巖下云. 巖石橫斜. 或成深淵. 或成瀑沸. 巖邊可坐萬人. 見之心神舒暢. 余坐臥弄水. 玩其奇好. 不得去. 雲山促行. 下表訓寺. 西自金剛臺以下所歷十一峯. 東自普德窟以下所歷七峯. 是日山行摠三十里. 住持智熙者. 雲山故人. 待余甚厚. 燃燈饋茶. 茶退饋飯. 寺有至元四年戊寅二月碑. 乃大元皇帝所立. 奉命臣梁載撰. 高麗右政丞權漢功書. 蓋記其皇帝飯表訓僧. 作萬人結緣也. 碑陰. 載太皇太后出銀布若干. 英宗皇帝若干. 皇后若干. 觀者不花太子及二娘子若干. 完澤, 禿瀋王等大小臣僚若干. 此卽記舍施也. 是夜. 館余於小寢. 親之也.

庚辰. 智熙饋朝飯. 極辦山家之味. 饋余奴從亦厚. 臨別. 以扇一鞋一贈余. 又贈雲山如之. 余

從川邊行五里許. 東南入一洞. 樹底行. 仰不見天. 所歷峯巒不可計. 又行五六里許. 有故城. 疑倭賊避亂時所築. 歷城基上一高山頂. 東偏有二庵. 曰大松蘿, 小松蘿. 自此余足生繭. 行甚艱澁. 至大松蘿. 臥歇成睡. 睡覺. 請寺僧性浩爲山行鄉導. 從庵後攀側柏枝排木枝. 登一山頂. 又直下山腰之半. 復轉而北上. 仰見白石削立. 不知幾千丈. 若垂若墜. 往往鐵鎖垂下. 手引而登. 出僧床, 鷹巖兩峯之間. 僧床之名. 以峯下有石如僧床也. 鷹巖之名. 以峯上有石如鷹形也. 鷹巖北上絕壁. 或攀木枝. 或攀石角. 總計巖石行約十餘里許. 陟望高臺. 四通五達. 僧床, 鷹巖二峯. 却在山底. 前日萬瀑洞所歷諸峯. 如丘垤不可辨. 但見眞見性峯當北面. 其峯後毗盧峯. 勢若撐天. 比諸峯不知幾百倍. 乃知平地之仰見者乃其枝裔也. 非上峯也. 峯西南. 有萬景臺, 白雲臺, 衆香城. 其次有摩訶衍後峯. 相屬於毗盧峯. 如成一岳. 東北有雁門峯. 次於毗盧峯. 雁門後有大藏, 上開心諸峯. 只見峭頭如筆鋒然. 諸峭峯之南有二峯. 差卑於諸峭峯二三等. 名曰十王峯. 峯後有十王百川洞. 川傍有寧原庵. 雲山嘗遊於此云. 又十王水下與萬瀑洞合流. 爲長安寺前川. 十王峯後百川洞東. 有一土峯. 上平而差高於十王峯. 曰天燈峯. 其南有峭峯. 高於天燈一二等. 曰彌勒峯. 天燈, 彌勒之間. 有二峯露其頭. 曰觀音峯, 地藏峯. 彌勒峯南有土峯. 卑於彌勒峯一二等. 曰達磨峯. 達磨峯西. 亦有一土山. 卑甚不知其名. 其峯之南. 卽金藏銀藏面也. 長安寺西北. 有新林寺. 新林寺西北. 有正陽寺. 正陽寺西北. 有開心臺. 臺西有開心庵. 其山通趾頂皆土. 樹木蔥蔥. 蔓回於一面. 然其峯甚卑. 非諸峯比也. 開心臺北. 有土山甚高. 與彌勒峯東西相對. 名曰西水精峯. 峯南有熊虎庵. 峯後有水精庵. 卽毗盧峯北面水所注之洞也. 開心臺之後. 西水精之南. 有一土山. 差高於開心後山. 名曰髮嶺. 僧云. 高麗太祖將兵過此. 上此嶺望見毗盧峯. 無數向禮. 斷髮掛枝. 以示欲入沙門之意. 故名其嶺曰髮嶺云. 余坐臺石上問峯名畢. 回瞻四顧則神氣怡然. 浩浩乎覺其身之高矣. 移時欲下來. 安邊僧四人繼上. 與四僧偕下. 四僧歸上雲岾. 余上僧床石. 心神悄然可懼. 還下來至松蘿. 見壁上有故人大猷名字及絕句一首. 是日山行. 總可二十五六里.

後四月辛巳. 發松蘿經故城基. 南下一洞. 左歷二峯. 右歷四峯至安養庵. 庵後有羅漢殿. 開明可坐. 余坐其上書日課. 庵前有深淵. 名曰鬱淵. 金同所陷也. 金同者. 麗時富人. 平生佞佛. 作庵鬱淵上. 諸巖面皆刻佛像. 供佛齋僧. 米馱連屬開京. 指空入此山. 以同爲外道. 同不服. 指空作誓曰. 汝是我非則今日我蒙天禍. 我是汝非則今日汝受天禍. 同曰然. 空入宿摩訶衍. 夜. 雷雨果作. 金同寺爲水石所亂擊. 同與寺佛, 寺鍾, 寺僧等同時陷入鬱淵云. 鬱淵上里許. 有金同寺基. 過安養. 東轉山腰也. 躑躅綿竹. 靑紅滿徑. 赴彌勒庵. 庵後有七峯列立. 庵前有水. 乃鬱淵下流也. 請於主僧解逢. 飮茶一椀. 食後. 左歷明水, 地藏, 觀音三庵. 右歷養心, 靈碎二庵. 十王百川水. 於此與萬瀑洞合流. 過此則川石非復白色. 自彌陁行十餘里. 抵長安寺. 寺乃新羅法興王所創. 元朝順帝與奇皇后重創. 門外有天王二軀. 法堂有大佛三軀. 中佛二軀. 佛前有金額曰. 皇帝萬萬世. 堂之四面. 有小佛一萬五千軀. 皆元帝所作. 其東側. 有無盡燈. 燈內四面皆銅鏡. 中置一燭. 傍立衆僧形. 及燃燭則衆僧皆如執燭然. 亦元帝所作. 五王

佛之上. 又有五中佛. 福城正所作也. 堂之西堂. 有達摩眞. 東北隅. 有羅漢殿. 堂坐. 有金佛五軀. 左右. 有土羅漢十六軀. 羅漢之傍. 各有侍奉僧二軀. 技極精巧. 羅漢殿之南. 有一室. 室內有大藏經函. 刻木成三層. 屋中有鐵臼. 置鐵柱其上. 上屬屋樑. 置函其中. 執屋一隅而搖之. 則三層自回可玩. 亦元帝所作. 觀畢. 住持祖澄饋茶飯. 飯後冒小雨. 循故川邊而上. 過鬱淵普賢庵. 至新林寺少歇. 自長安所歷諸峯. 竝其朝日所經七峯. 十王洞口望見諸峯計之. 則川東有峯二十有九. 川西有峯十有八. 自北以上則載在前錄. 自新林上天親. 自天親上正陽則拜岾在右. 僧云. 高麗太祖入此山時. 五萬曇無竭見身此岾. 太祖無數禮拜. 因名爲拜岾. 余自正陽. 又冒雨西上樹林底約十里許. 登普賢嶺. 又西上三四里許. 至開心庵則衣濕盡. 而大雨作矣. 此日山行. 總可四十里.

壬午雨霽. 登開心臺望見諸峯. 則與望高臺大同而小異. 毗盧峯, 衆香城在東禪庵後. 峯跨於西北. 卽毗盧峯之西枝也. 摩訶衍後峯. 正在禪庵峯前. 永郎峴在禪庵峯後. 西水精峯在永郎峴西. 月出峯在毗盧東南. 日出峯在月出峯南. 元寂峯在日出峯南. 在望高臺不得見者也. 元寂香爐峯. 在元寂峯南. 雁門峯又在其南. 雁門之北. 有一二峯遙見. 自普門而西望者也. 眞見性峯又在雁門之南. 望高臺又在其南. 十王峯露頭於望高臺之上. 天燈, 觀音, 地藏, 彌勒, 達磨諸峯. 列其東南. 此其略也. 臺南有安心臺. 臺側有開心太子石像. 僧曰. 此新羅國太子也. 太子與安心太子, 養心太子, 頓臺夫人. 到此修道. 皆法興王子也. 今有四庵. 仍其舊號. 未詳是否. 食後從開心西下妙德庵. 入見克禪庵後有名緩項者. 指空入山時路也. 過天德庵. 庵有水原府士族寡婦設都山齋. 僧纍五百人列坐山腰. 喧聲動於洞中. 寡婦於衆僧中. 露面作結緣. 又過元通庵. 庵之左右有二川. 於庵前合流. 亦佳境. 過此上元通後嶺. 永郎峴前所歷諸峯七. 又越潤筆庵嶺. 過潤筆庵. 又越獅子嶺而東. 則卽曩日所見獅子庵也. 自此所見峯巒. 亦載前錄. 山川無異. 白石如前. 但川兩傍躑躅花去夜雨盡開. 纚纚相屬. 或成一田. 可玩也. 余從故道泝流而上. 未及雁門岾. 東南入一洞攤飯. 越水岾而東下. 左視川流. 右挾南山行樹陰中. 左歷峯七. 右歷峯四. 而北涉川水. 陟一高山. 下至成佛庵. 坐庵上望見東海. 雨後益明. 非前日比. 有客僧竹熙者爲余炊飯. 飯後與竹熙, 性通等歸見佛頂庵. 庵於去年. 災於火矣. 登佛頂臺. 臺中有穴. 連山下深潭. 有風出其中. 僧云. 昔有龍女出此穴. 奉茶於佛頂祖師. 其語甚虐. 臺下有靑鶴. 年年育兒其中云. 余坐臺上. 望見東南海水. 西有雁門. 北有開心, 寂滅, 柏田等寺. 其下白巖成一壁. 有瀑泒垂下十二層. 半入林表. 余所望見者. 六層而已. 黃昏. 還投成佛庵. 是日山行六十里.

癸未. 在成佛望見海中. 自黎明天東赤色. 須臾. 日輪飛上. 海色盡赤. 日上三竿. 海色澄白. 余作短篇以記之. 飯後越一小峴行十里. 赴楡岾寺. 九淵洞水源出彌勒峯. 至寺前與水岾川合流. 寺有水閣. 跨川南北. 遊鱗飛躍於前. 有大水則連魚, 松魚, 魴魚皆至水閣下. 寺之外門曰解脫門. 有天王二軀. 次曰般若門. 有天王四軀. 次曰泛鍾樓. 樓傍一室. 有盧倉像. 最內有

能仁寶殿. 殿內刻木作山形. 有五十三佛列立其間. 殿後有一井. 名曰烏啄. 水始以烏啄得之也. 寺有明社主者. 出示默軒閔漬榆岾記. 其意略曰. 五十三佛. 本西域舍衛國不見世尊三萬家. 承文殊師尼說. 鑄成釋迦像. 盛以金鍾浮海. 任其所之. 佛至月氏. 其王作室置佛. 其室災. 佛夢於王. 欲去他邦. 王盛佛鍾中. 又浮諸海. 佛至新羅國高城江. 太守盧倎請佛所次居. 佛入金剛山. 倎隨後尋之. 有尼坐石上導其路者. 地名曰尼臺. 有狗於岾上導其路者. 地名曰狗岾. 有獐於峽口導其路者. 地名曰獐項. 至於佛之所住處. 聞鍾聲歡喜者. 地名曰歡喜岾. 倎聞於南解王. 作大伽藍以安佛像者. 名曰榆岾寺. 謹按閔漬之記. 有七大妄說. 而無一可取者. 金無浮水之理. 其曰. 舍衛國所鑄鍾佛浮於海中. 歷月氏而到新羅. 一大妄也. 金無自行之理. 其曰. 泊高城江. 金佛自入金剛山榆岾. 又避湯沸飛入九淵洞巖石上. 二大妄也. 佛本西戎之教. 自後漢明帝時始來中朝. 而又數百餘年南北朝時. 當新羅之中葉. 流入于東土. 小臣異次頓贊成其法. 載在國史. 其曰. 當前漢平帝之世. 新羅第二南解王之朝有此事. 始創榆岾寺. 三大妄也. 假如閔漬之說. 佛雖於漢明帝時始來中國. 而我國之有佛. 肇於南解而實先於中朝. 則何以於史籍不載乎. 東人無知. 奉佛如君父. 夫以王太祖之高明. 未免於俗習. 尙曰. 我之有國. 實賴佛力. 當是時. 假有此事. 則必誇其事大其言. 而載之史矣. 史猶不載. 而漬乃信其野人之語而記之. 四大妄也. 假有此事. 東人之有僧有尼. 必自此始之. 而前此無有此法章章矣. 其曰. 盧倎之尋佛也. 有尼導其路. 未有佛法之前. 安有僧尼. 五大妄也. 佛飛入洞. 萬萬無理. 而僧之取佛. 佛怒霽而不復飛去. 是何前靈而後愚也. 兒童之怒. 尙不可威止. 讚佛之靈而反不如兒童可乎. 六大妄也. 且以中朝人物之多聞博見. 尙未通於西域之梵書. 有與胡僧譯之. 而後其文明於世. 舍衛, 月氏國所錄金鍾之字. 盧倎又安能解之哉. 況其時文籍鮮少. 人不解字. 而其言西域事跡明白. 則七大妄也. 甚矣漬之無稽也. 有七大妄. 而無一語可補於名教者. 則知此記闕之可也. 而況三國之初. 人無定姓. 而名字不類於人. 則盧倎名字. 疑亦後世所作. 豈非新羅季世. 有文術僧元曉, 義相律師之徒. 始欲誇大此山事跡. 而追述者歟. 不然. 何其謬誤之若是乎. 覽記畢. 明坐余茶禮. 出坐水閣. 又饋餠食訖. 明爲送于川邊. 過改服臺. 臺卽丙戌年榆岾佛事時車駕改服之所也. 又過丹楓橋. 於橋頭少歇. 又過獐項. 逢馬從迎我者自溫井來. 乘馬越狗岾. 岾路險惡. 或馬或步. 過尼臺石. 自岾至平野. 於乾川邊攤飯. 過蹲房. 投高城郡. 自榆岾至此六十里. 太守趙公. 與余先祖友善. 見余厚遇. 時適有襄陽守柳自漢先在坐. 盤饌甚備.

甲申. 太守爲柳襄陽爲三日浦之遊. 余從之. 三日浦者. 新羅時有花郎安祥, 永郎之徒. 遊三日乃罷. 故名焉. 浦口巖壁間. 有丹書六字. 仙徒所書也. 水方四五里. 中有一石島. 有長松數株. 故名曰松島. 東南隅. 望見石如龜. 故名龜巖. 龜巖之後. 有白巖岝崖於海濱. 名曰雪巖. 水北有夢泉寺故基. 眞絕境也. 余從訓導金大倫及柳襄陽乘舟泊松島. 又棹舟至丹書巖下. 果有六字. 曰永郎徒南石行. 其字爲石所亂擊. 大倫曰. 前有厭客太守. 客來郡者必欲觀丹書. 故太守惡其供費. 欲擊碎云. 然其字畫不泯. 可解讀. 余因問其文義. 大倫曰. 永郎者. 新羅四仙

之一. 而南石者. 指此石也. 行者. 行于石也. 世之文人. 皆解如是. 余惟此石. 自高城視之則在北. 自金剛山視之則在東北. 自東海視之則在西. 其稱南石. 尤不可解. 且六字成文. 文理大疏. 類兒童手. 古人文法. 應不如是. 若非出於兒輩之好事. 則是永郎之徒有姓名南石行者題名乎. 泊舟登石上. 其頂有爲彌勒佛埋香碑. 高麗時所立. 舟還松島. 終日宴飮. 盤饌甚盛. 或令漁人網魚斫膾. 或聯句唱和. 午後大風作. 太守惶懼還舟. 余還溫井

乙酉. 入湯井浴. 丙戌浴. 丁亥浴. 戊子. 浴而出歇. 己丑, 庚寅歇. 得家書. 慈堂安穩.

辛卯. 回程. 發溫井. 行且採薇. 過高城郡. 又過萬戶渡. 乘舟渡高城浦. 於江邊炊飯. 嶺東民俗. 每於三四五月中擇日迎巫. 極辦水陸之味以祭山神. 富者馱載. 貧者負戴. 陳於鬼席. 吹笙鼓瑟. 嬉嬉連三日醉飽. 然後下家. 始與人買賣. 不祭則尺布不得與人. 高城俗所祭乃是日也. 行路處處. 男女盛粧. 絡繹不絕. 往往稠如城市. 過雪巖. 巖以南. 奇石甚多. 過安昌驛. 登安石島. 細石連陸. 箭竹成林. 竹下有海棠花. 花下有白巖. 或平或立. 或積或碎. 余歷回島下. 坐臥遊玩. 還出過仇莊遷. 示奇境. 差後於瓮遷. 涉蛇川. 過明波驛. 於川邊攤飯. 越戍山. 還從海邊. 至茂松亭. 亭正在海曲. 而亦連陸路. 長松生其頂. 白石成其麓. 高於安石. 又不知幾倍矣. 過烈山入杆城境. 宿浦南民舍. 是日. 沿海行總一百二十里. 壬辰. 冒雨發浦南. 過盤巖. 行十九里. 雨甚. 止宿杆城客舍. 太守元輔昆饋酒飯. 雲山醉倒.

癸巳. 雨霽. 發過門巖. 沿海行四十五里. 抵淸澗驛. 有樓臨水. 樓後絕壁削立. 樓前衆石巉巖. 余登樓後壁上. 所望尤廣. 西見雪岳. 雨脚如注. 天南. 午日正中. 海昏於前. 花明於後. 奇玩不可數計. 於壁上澆飯. 又行海濱. 過沙嶺海曲. 是時東南風急. 海濤衝岸如千兵萬馬. 水所激處. 紫虹立成. 隨立隨滅. 眞壯觀也. 望見竹島. 白竹如煙. 竹下石上. 海獺成行而群鳴. 鳴聲與水聲合. 雷動海曲. 又至腐石. 自淸澗至此二十里. 又右歷天寶山到松亭. 自此望見洛山. 行二十里. 入洛山洞. 又行十里. 抵洛山寺. 所歷陂澤. 其大十餘里或二十餘里者六. 涉大浦二. 大川二. 過竹島三. 名巖奇石. 不知其幾也. 洛山者. 新羅僧義相所創. 寺僧傳其事跡云. 相見觀音親身於海邊窟中. 觀音親授寶珠. 龍王又獻如意珠. 相受二珠. 於是創寺. 取旃檀土. 手作觀音像. 今之海邊小窟. 乃其觀音所住也. 庭中石塔. 乃藏二珠塔也. 觀音塑像. 乃其相手作者也. 戊子年間. 有妖僧學悅建白. 於寺基作大伽藍. 自居其中. 盡取傍民田以爲己業. 今悅死一年矣. 其徒智生嘗媚於悅. 悅死而盡得奴婢田貨管其利. 寺前有一亭臨海. 柿林周匝. 竹木徧山. 余坐亭上望海. 下亭歷陂下. 至大竹林. 還過廚舍下口谷. 左歷巖石披小竹. 披將半里. 至所謂觀音窟者. 有小銅佛在窟下小室. 不蔽風日. 室下海濤激石. 山形如掀. 屋板長鳴. 余下至洞口. 雲山與僧繼千來迎我. 至寺. 智生出迎館待.

甲午平明. 余坐亭上望出日. 智生饋朝飯. 引余見觀音殿. 所謂觀音像. 技極精巧. 若有精神焉. 殿前有正趣殿. 殿中有金佛三軀. 余出道南路西轉而行. 行將二十里. 至襄陽府前川上歇馬. 又行十里入雪岳. 陟所於嶺下峴. 則川水在左. 峯巒在右. 過盡山麓. 涉川流而左. 山明水秀. 白石交加. 略如金剛山大藏洞. 沿流而上. 至五色驛. 山月已白矣. 是日. 陸行三十里. 山

行四十里. 乙未. 發五色驛. 度所率嶺. 雪岳亂嶂. 無慮數十餘. 峯皆頭白. 溪邊石木亦白. 俗號小金剛山. 非虛語矣. 雲山曰. 每八月. 諸山未霜. 而此山先雪. 故云雪岳. 嶺上石間. 有八分書一絕云.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留與永郎遊水府. 又牽春酒滯人間. 墨跡尙新. 書之必不久也. 世無仙者. 豈非好事者偶題歟. 然子程子以國祚之祈天永命. 常人之至於聖人. 以此修煉之引年. 深山大澤之中. 亦有這般等人. 未可知也. 讀其詩. 令人有出塵之想. 余於嶺上辭東海. 下嶺西南行樹底. 道塗險絕. 洞壑幽深. 折取丁香花. 揷馬鞍以聞香. 過眠巖. 行將三十里歇馬. 過新院. 又行十五里. 有川自雪岳西面而來者. 與所率川合流. 至元通驛下爲大江. 前至元通. 山川曠莽甚佳. 自元通履平地. 又行二十五里. 涉元通川. 麒麟縣水於此合流. 循江行五里. 宿麟蹄縣. 是日. 山行六十里. 陸行三十里.

丙申. 乘舟渡甁項津. 西南行過船遷. 又西南行過萬義驛. 又行山間入洪川境. 宿泉甘驛. 總行八十里. 丁酉. 又西南行越馬嶺. 又西南行. 循大江而下. 過仇叱遷, 迎逢驛. 行六十里赴洪川縣. 見縣監伯起同宿.

戊戌. 乘舟渡前江. 越掛牋嶺. 歷百同驛山後過砥平縣. 又過天谷院. 西南入石徑. 是日行. 總九十里. 宿權校理景祐家.

己亥. 冒小雨西行. 涉天谷川下流. 過娛賓驛, 楊根郡. 又過月溪遷, 隅院, 腰院, 末院. 渡龍津. 宿奉安驛. 是日行. 總八十餘里.

庚子. 過豆尾遷, 平丘驛. 涉中寧浦. 行七十里入京. 總計山行四百八十五里. 海行二百七十四里. 陸行九百三十七里.

乙巳後四月二十一日辛丑. 記.

『續東文選』 卷之二十一, 錄

346 동정기(東征記-鳳巖集)

채지홍(蔡之洪)

25일 임오일에 연곡역(連谷驛)을 지나 주곡촌(注谷村)에서 점심을 먹었다. 동산역(洞山驛)을 지나 후평포(後坪浦) 마을에서 잤다. 나루 사람들이 바다 반찬을 장만해 가져왔다. 해삼, 조개, 연어, 방어, 대구, 팔초 등 서남 지방에는 없는 것들이다. 광어와 판어(板魚)

를 다 가자미[鰈]라고 부른다. 이것은 중국에는 없다. 삶고 구우니 눈이 배불러 입이 먼저 물린다.

모래밭에는 물새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개 알을 낳을 시기인 꽃이 한창 피는 방춘(芳春)에는 모두 외딴 섬에 들어가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곳은 파도에 울리는 모래밭과 해당화와 소나무 제방과 호수와 방죽이다. 오른쪽으로는 푸른 바다를 끼고 왼쪽으로는 큰 고개를 끼고 있다. 바다는 아득하고 첩첩 산봉우리는 우뚝우뚝 솟아 있다. 고깃배와 상선은 멀리서 가까이서 오가고, 연한 붉은 꽃과 아름다운 신록은 좌우에서 한창이니, 참으로 그림 가운데 경치다.

동쪽으로 바다 끝을 바라보니 하늘과 맞닿아서 끝도 없다. 나는 매우 기이하게 여겨 가마를 메는 이들에게,

"배가 가서 저곳에 이르면 하늘 모양과 바다 색깔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가마를 메는 이들은 바닷가 사람들인데,

"뱃사람의 말에 '저 가운데 가도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어 한결같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말이 비록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들으니 깨달을 만한 것이 있다. 바로 태산의 정상에 다시 하늘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동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층층이 절벽처럼 솟구쳐서 뿜어내는 물결이 백사장을 지나 길 위에까지 침범하여 크게 진동한다. 사람과 말이 때로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비록 바람이 없는 때라도 파도 소리는 항상 그치지 않고 거세게 부딪친다. 따라서 생각해 보니, 지봉(芝峰)이 바닷가 사람의 말을 전하여,

"북쪽 바다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와 동해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람이 없어도 절로 파도가 일어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 물에 조수가 없는 것은 또한 멀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그럴 듯하다.

아아, 사해를 둘러 돌아보니 중국이 오랑캐에게 함락된 지 100년이 지났고, 오직 이 한 모퉁이만 더러운 때를 멀리 하고 있으니, 아마도 태공이 와서 문왕을 기다린 것과 같은 것인가. 다만 두보의 건곤을 씻는다는 구절을 외우며, 노중련(魯仲連)을 뒤따르지 못한 것만을 한스럽게 여긴다.

26일 계미일에 양양부(襄陽府)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곳에는 현산(峴山), 한수(漢水), 대제(大堤)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다. 동북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소나무가 있는 고개를 넘으니 성문이 길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낙산사(洛山寺)다. 고려의 역사에 '충렬왕(忠烈王)이 대장공주(大長公主)와 더불어 이 절에 행차하였다.'고 했고, 스님들이 또한 '세조대왕이 오대산에서 와 이곳에 머물렀다.'고 했다. 절의 제도는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워 상원사와 자웅을 겨룬다고 하는데, 비교적 더욱 크고 웅장하다.

승려들이 사는 요사(寮舍)는 10여 채로 반은 산 위에 있고 반은 산 아래에 있다. 서로의 거리가 30무(武)로 지름길은 매우 험하다. 아래 있는 절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지붕을 지어 덮었고 다듬은 돌로 제방을 만들었다. 샘물은 퐁퐁 솟구쳐 마르지 않지만 약간 짠맛이 난다. 위아래 절에 승려가 많아 아침저녁으로 함께 물을 길어다 써도, 심지어 큰 가뭄에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넘쳐서 논이 되고 또 넘쳐서 웅덩이가 된다고 한다. 윗절에 있는 승려는 물 길어 나르는 일에 고생이 심해서 해마다 아랫절에 있는 승려들과 번갈아 바꾸어 산다고 한다.

아랫절 동쪽을 지나 수십 걸음 가면 의상대(義相臺)가 나온다. 산 앞에 한 언덕은 머리를 바다에 드리우고 있는데, 굽어보니 천 길 절벽으로, 평평한 만 리의 푸른 바다를 마주 하고 있다. 옛날 부상(扶桑), 약제(若薺), 울도(蔚島), 여평(如萍) 등은 이를 말한 것이 아닐까? 의상은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의 뛰어난 승려로서 원효의 아우요, 홍유후(弘儒侯)의 숙부다. 대 위에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는 돌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의상이 제계하고 앉아서 관음의 말을 듣던 곳이라고 한다.

대를 지나 구불구불 북쪽으로 10여 걸음 가서 보니 전(殿) 밑 부분이 양쪽 절벽에 비껴 걸터앉은 모습이 있다. 거친 파도가 치솟아 밤낮으로 각 밑에서 성난 소리를 내는 곳이 관음굴(觀音窟)이다. 또한 의상이 파란 새로 변해 이 굴에 들어온 관음을 보고 난 뒤에 관음상을 만들어 존모하는 마음을 붙였다고 한다. 거짓됨이 비록 심하긴 하나 매우 아름다워 구경할 만하다.

전의 남쪽 처마 끝에다 이름을 줄지어 쓰고 각각 율시 한 수씩 지었다. 우리들은 모두 늙었으니 어떤 사람이 다시 높은 벼슬에 오를런지 알지 못하겠구나.

절에 오르니 동쪽 모퉁이에 일출을 바라보는 빈일료(賓日寮)가 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다렸다. 마침 바다가 어두워 장관을 잃었다. 어찌 조물주는 이리도 시기함이 많은가. 의상이 손수 심었다고 하는 오죽밭을 구경했다. 지금 1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더해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고 한다.

담장 밖에는 이화정(梨花亭)이 있다. 승려가 이르기를,

"옛날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가 아주 많이 열렸답니다. 세조가 동쪽으로 순행할 때 승려가 따서 동궁에게 바쳤는데, 이로써 관례가 되었지요. 계미년에 산불이 나 배나무가 재가 되었지요. 새로 심어서 가지가 겨우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은데도 공납은 매년 같았답니다. 지금도 폐하지 않고 공납합니다. 승려들은 공납이 힘들어서 그 나무를 가꾸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아, 한때의 공납이 백 년이 지난 뒤에도 폐단을 끼치니, 이름 없이 바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마땅히 경계하던 일이다.

중각(中閣)의 범종은 무게가 1,000근은 나간다. 세조가 명해 주조했고, 김수온(金守溫)이 기문을 짓고 정난종(鄭蘭宗)이 글씨를 썼다. 옛날의 자취를 찾아보려 하니 주지가 한 책자를 내왔다. 기이한 말이 거의 대부분이고 괴이함에 가까워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임금이 하사하신 논밭과 백성이 백으로 헤아릴 그 이상으로, 한때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들이 간해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좇아 시주를 한 사람이 많았다. 충분히 후세에 비난을 들을 만하다.

壬午. 歷連谷驛. 午炊於注谷村. 歷洞山驛. 宿後坪浦村. 浦人輒以海錯見餉. 參, 蛤, 鰱, 魴, 大口, 八梢. 西南之所無者. 廣魚, 板魚. 同謂之蝶. 中國之所未有者也. 烹之炙之. 目飽而口已厭矣. 沙禽水鳥鮮有存者. 盖以方春卵育之時. 盡入絕島. 未及還來云. 所過無非鳴沙海棠. 松堤湖堰. 右挾滄海. 左挾大嶺. 積水渺茫. 疊嶂嵯峨. 漁艇商帆. 出沒於遠邇. 輕紅嫩綠. 爛熳於左右. 眞畫中景也. 東望海際. 粘天無涯. 余甚異之. 謂執輿者曰. 舟行到彼則天形海色. 復如何. 執輿者是海上人. 答曰. 舟人言行到彼中則天高海濶. 一如此云. 其言雖微. 聽之有足以開悟處. 正與泰山頂上. 更有天者. 一般語也. 東南風來則層濤壁立. 噴薄沙岸. 侵及路上. 掀動震激. 人馬有時辟易. 雖無風時. 波濤之聲. 常洶湧不已. 仍念芝峯嘗傳海人之言. 曰北海自北而流. 下至東海. 晝夜不止. 故無風自波. 其聲遠聞. 水無潮汐者. 亦以長流故也. 其言似是矣. 噫. 環顧四海. 陸沉百年. 而惟此一隅. 遠隔腥塵. 豈或有太公之徒來待文王者歟. 只誦老杜洗乾坤之句. 而恨未從魯連之蹈也.
癸未. 午炊于襄陽府. 其地有峴山漢水大堤之號. 而不甚奇也. 東北十餘里. 踰一松峴. 下有城門. 豁然於路傍. 是爲洛山寺. 麗史有言忠烈王與大長公主幸此寺. 僧徒亦稱 世祖大王自五臺來駐云. 制度之奢麗. 甲乙於上院. 而較益宏大. 僧寮十數. 半在山上. 半在山下. 相去殆三十武. 而徑甚峻仄. 有一湧泉在下寺之傍. 覆以一屋. 堰以鍊石. 水微有醎味而滔滔不渴. 上下寺多僧. 朝夕共汲之. 而大旱未嘗減乏. 溢而爲水田. 又溢而爲汚池. 居於上寺者. 苦於汲役. 與下寺歲遞以居云. 由下寺東行數十步. 爲義相臺. 山前一崗. 垂頭枕海. 俯臨千尋絕壁. 平看萬里滄溟. 古所謂扶桑若薺蔚島如萍者. 非此之謂歟. 義相者. 新羅神文王時異僧. 元曉之弟. 弘儒侯之叔父也. 臺上古松下有累石. 僧稱義相坐齋請觀音處. 由臺迤而北十餘步. 有一殿脚橫跨兩崖. 而驚濤激瀉. 日夜號怒於閣底者曰觀音窟. 亦爾義相見觀音. 化靑鳥入此窟. 設觀以寓慕云. 誕妄雖甚. 妙絕可觀. 列書姓名於殿南簷端. 各吟一律. 而吾輩俱衰矣. 未知何人復見紗籠否也. 上寺東偏. 有曰下有城. 見日出處也. 曉起以待之. 適値海暗. 失一勝觀. 何其造物之多猜也. 堦前烏竹數叢. 傳言義相所手種也. 至今千餘載. 不增不損. 墻外又有所謂梨 僧者. 僧言古有梨樹. 結實繁美. 世祖東幸時. 寺僧摘進於 東宮. 仍以爲式. 癸未山火. 梨樹成灰. 新栽. 叢枝僅可拱把. 而每歲貢獻. 至今不廢. 僧徒病於貿納. 將不可保云. 噫. 一時獻曝. 百牟貽弊. 無名之供. 昔人所宜戒也. 中閣法鍾重可千斤. 亦稱 世祖之所命鑄. 而金守溫記. 鄭

蘭宗書也. 索見古蹟. 則首僧進一册子. 異說頗多而近恠羞稱. 御賜田結民口. 不啻百數. 一時名公碩輔非惟不能諫止. 又從而舍施者多. 足以傳譏於後世也.

「東征記」-『鳳巖集』

채지홍(숙종 9년, 1683년~영조 17년, 1741년)의 본관은 인천(仁川)이고 자는 군범(君範), 호는 봉암(鳳巖)·삼환재(三患齋)·봉계(鳳溪)·사장와(舍藏窩)이다. 부친은 첨지중추부사 영용(領用)이다. 16세에 권상하(權尙夏)에게 배웠으며 뛰어난 학행으로 암행어사 황구하(黃龜河)와 도(道)의 관찰사 등이 추천, 숙종 44년(1718년)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경종 1년(1721년)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1740년 형조좌랑에 임명되고, 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를 거쳐 공홍도도사(公洪道都事)에 취임하였다가 사퇴하고 귀향, 그 이듬해 죽었다. 저서로

『봉암집』·『性理管窺』·『洗心要訣』·『讀書塡補』·『天文集』 등이 있다.

347 동행기(東行記-雪橋集)

안석경(安錫儆)

5월 1일(기해).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환허대사(喚虛大師) 신규(信奎)가 이별을 고했는데, 그 말이 자못 정성스러웠다. 유평부(幼平賦) 한 수를 지어주기에 나도 차운하여 화답하였다. 20리를 걸어 간성군의 청사를 지나갔다. 또 남쪽으로 10리를 걸어 선유담(仙遊潭)에 들어간 뒤 가학정(駕鶴亭)에 올랐다.

선유담은 물결이 잔잔하고 넓게 퍼져 운치가 있었으며, 물고기와 새들이 많았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에도 추한 기상은 없었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사이를 두고 있고, 일대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배들이 돛 가득 바람을 안고 가니 구름처럼 높은 파도가 일어난다. 작은 언덕이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갑자기 못의 가운데로 들어간다. 정자는 그 머리 부분에 있다. 그윽하고 조용하며 깨끗하여 매우 마음에 들었다.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6, 7리를 가니 소리포(小梨浦)가 나왔다. 맑고 조용하며 경치가 밝은데, 동해와 얕은 모래톱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구경하고 즐길 만하였다. 20리를 가서

청간정에 올랐다. 정자는 왼쪽으로 푸른 바위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 푸른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만경루(萬景樓)와 이어져 있다. 만경루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판에는 택당 이식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만경루는 서남쪽으로 언덕을 이고 있는데, 그곳에는 운근정(雲根亭)의 옛터가 남아 있다. 남쪽으로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깨끗한 구름과 바위들이 보이며, 동쪽은 높아 큰 바다를 굽어볼 수 있다. 맑은 계곡을 따라 물이 모여드니 그 경치가 참으로 장엄하다. 아쉽구나! 운근정의 허물어짐이여.

율촌(律村)에서 잤다. 삼연 김창흡이 운근정을 매우 사랑하여 시를 지었는데, 뒷날에 포부가 큰 선비가 나타나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5월 2일(경자). 일찍 일어나 만경루에 올랐다. 일출을 기다렸는데, 이내에 가리어 보지 못하였다. 아쉬웠다. 남쪽으로 20리를 걸어 화암사(華巖寺)로 들어갔다. 화암사는 큰 산을 이고 있으니, 바로 금강산 남쪽에 해당된다. ㅁㅁㅁ는 자못 돌 빛을 띠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곡물을 흐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화암(禾巖)을 대하고 있는데, 수백 길 높이로 우뚝 솟아 있다. 위에는 물레방아가 12개가 있다고 한다.
남쪽으로 5리쯤 올라가서 석인대(石人臺)에 이르렀다. 석인대 위의 돌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세 개로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다. 활처럼 휘어지고 기다란데, 위에는 절구 같이 뚫려 있어서 5, 6 곳에 물이 고인다. 석인대는 남쪽으로 천후산과 설악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돌 모서리가 뾰쪽하게 솟아 있다. 동쪽으로는 세 개의 호수와 동해의 물을 굽어보고 있다.
원호(圓湖)는 북쪽에 있고, 영랑호는 가운데에 있으며, 청초호는 남쪽에 있다. 통고(通高)로부터 곤강(袞江)까지 4, 5백 리에 이르는 바다를 볼 수 있다. 듣자니, 명나라의 군대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구할 적에 영랑호에 주둔하였다가 3일 만에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에 웃으면서, '천하의 절경이다. 아아. 어찌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은 삼연 김창흡이 계현(契玄)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

영랑호는 탁 트이고 아늑한데 사방 언덕은 모두 흰 모래로 되어 있으며 기이한 돌이 많다.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허공에서 아득하게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설악산과 천후산, 화암봉과 석인봉이 둘러싸고 있는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장군이 연연하여 떠나지 못한 것인가?
남쪽으로 15리를 가서 양양(襄陽) 땅에 있는 천후산 계조굴(繼祖窟)로 들어갔다. 5리를 내려와 내원(內院)에 갔다. 또 5리를 가서 신흥사(新興寺)에 들어갔다. 모두 옛날에 구경

했던 곳이다. 미타전(彌陀殿)에서 잤다.(이하 일부 생략)

5월 3일(신축). 새벽에 이화정 위로 나아가 일출을 보았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이 불지 않았다. 붉은 덩어리가 번드치고 들끓으며 출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큰 불 수레가 아득한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침 늦게 절문을 나서 몇 리를 걸어 송림으로 들어갔다. 동해묘(東海廟)를 보았는데 묘의 왼쪽은 바다였다. 앞의 시냇물은 자못 조용하고 넓었다.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지라 백성들이 날마다 모여들어 성사를 이루었으니 놀랄 만하였다.

서쪽으로 10리를 걸어 태평루(太平樓)에 올랐다. 태평루 편액 안의 글자는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글씨로 문미 밖에 걸려 있고, 큰 글씨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로 문미 안에 걸려 있었다.
서쪽으로 몇 리를 걸어 임천(林泉)의 이씨 농막으로 들어갔다. 상사(上舍) 심보(心甫) 이운일(李運一)과 함께 풍류와 사한(詞翰)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내용이 모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데, 나의 풍악축(楓嶽軸)을 높이 쳐 주었다. 그러나 나의 보잘 것 없는 문장을 어찌 감히 학문이 높은 사람 앞에 당돌하게 내 놓겠는가? 이에 몇 편의 시를 외웠다. 이운일이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풍악산을 삼일 동안 유람하면서 이백칠십 수의 시를 얻었는데, 어찌 그대는 이십 일 동안 산중에 있으면서 삼십 수를 채우지 못했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천 리 길을 여행하다 보니 피곤하여 붓을 잘 놀릴 수가 없었으며, 산 또한 매우 아름답고 장엄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말을 찾으려다 보니 붓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었다. 이것이 시가 많지 않은 이유이다. 어찌 그대의 훌륭한 솜씨를 나의 졸렬한 솜씨에 비교하여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5월 4일(임인). 임천에 머물면서 이운일이 소유한 만석정(萬石亭)을 찾았다. 이운일이 찾아와 기문(記文)를 부탁하였는데, 피곤하여 사양하였다. 달계 서원(達溪書院)을 구경하였다. 이유(李維)는 덕을 두터이 쌓아 문행(文行)으로 현달하였는데, 근후한 행동과 문장을 지닌 여러 후진들이 서숙(書塾)으로 찾아와 공부하고 있었다. 선비들이 파도처럼 모여드니 공경할 만하였다. 저녁에 이운일의 집으로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5일(계묘). 이운일과 동행하여 서쪽으로 30리를 갔다. 말 위에서 시를 지었는데 모두 다섯 수였다. 서림(西林)에 도착하여 헤어졌다. 이운일의 근후한 풍류와 정밀한 학문을 그리워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였다. 말을 타고 40리를 가서 갈애(葛厓)에서 잤다.

5월 6일(갑진). 구룡령(九龍嶺)을 넘어 모두 20리를 갔다. 명지거리(明紙巨里)에서 쉬었다. 10리를 가서 인암(印巖)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바로 강릉 지역이다. 수석이 아름다웠다. 20리를 가서 갈마담(渴馬潭)에 있는 김해운(金海運)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5월 7일(을사). 길을 나서 20리를 갔다. 두일창(斗日倉)을 지나 10리를 가서 덕치(德峙)를 넘었다. 다시 10리를 가서 이치(梨峙)를 넘었다. 홍천의 대올곡(大兀谷)을 내려오니 천석이 아름다웠다. 35리를 가서 검산(劍山)의 합윤(蛤潤)에 있는 서씨의 농막에서 유숙하였다. 검산의 동쪽 골짜기에 삼신산 폭포(三神山瀑布)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합윤의 하류에는 대암 폭포(岱巖瀑布)가 있는데, 여름이면 대암에는 고기가 많다. 또 그 아래에 옥련동(玉連洞)이 있는데, 수석이 기이하고 장엄하였다. 문수연(文殊淵)과 이어져 있다고 한다. 이곳으로부터 기도(棋檮)로 들어갔는데, 또한 하루의 노정이 걸린다고 한다.

5월 8일(병오). 험한 길을 지나 모두 30리 길을 왔다. 횡성의 당현(唐峴)에서 쉬었다. 또 10여리를 가서 유곡(柳谷)에 있는 이씨의 농막에서 잤다.

5월 9일(정미). 아침 일찍 유곡의 입구를 나왔다. 비를 피하여 초현(草峴)으로 들어갔다. 잠시 피하니 곧 날이 개었다. 율동(栗洞)을 나와 동현(銅峴)을 지나 개곡창(介谷倉)을 거쳐 중금(中金)에 있는 진씨(陳氏)의 농막에서 쉬었다. 수백(水白)을 지나 횡성 읍내에 있는 이처사 집으로 갔다. 계암(階巖)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유평과 군자당(君子堂)에서 함께 잤다. 환린(喚獜) 또한 같이 밤을 보냈다. 함께 산수를 유람하고 먼 길을 고생한 뒤에 이별하여 각각 동서로 떠나야 했으니, 그 아쉬운 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월 10일(무신). 이유평이 먼저 떠나고, 환린도 이별하고 떠났다. 여관에 앉아 있었는데, 무료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월 11일(기유). 새벽에 길을 나섰다. 원주의 계암을 지났다. 먼저 출발한 이유평이 10리를 지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암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보통리(普通里)에 도착하였다.

5월 12일(경술). 일찍 길을 나서 흥원(興元)에 도착하였다.

5월 13일(신해). 안산(安山)에 들어갔다.
금강산의 둘레는 1,200리며, 그 석봉의 둘레는 360~370리이다. 큰 산줄기 동쪽을 외금강

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는 160여 리이다. 서쪽을 내금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는 100여 리이다. 토산(土山)과 석산(石山)을 합쳐 큰 봉우리만 헤아려도 일만 이천 개가 되며, 석산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봉우리를 합쳐 세어보면 또한 일만 이천 개가 된다. 12라는 숫자는 지방(地方)의 큰 수이다. 그런 까닭에 불가의 책에 '금강'이란 말을 실어 놓고, 또한 절로 부합하게 한 것인가!

금강산에는 바위가 서 있는 것이 열에 아홉이나 된다. 그러므로 땅이 이루어진 초기에 성대한 양의 기운이 엉겨 모여서, 뜨거운 것이 곧바로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금강산의 동쪽 산기슭은 바다로 들어가 있는데, 모두 아름답고 기이하며 아득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근저를 헤아려 보면, 또한 아름다운 것은 비교할 것이 없고 심후한 것은 끝이 없다. 그 겉으로 드러나 볼 수 있어서 천하에서 경동(驚動)하는 것들은, 주머니 밖으로 드러난 송곳 끝에 불과하다. 복희씨는 괘를 그려 예를 분별하였고, 요 임금은 정사를 잘하였으며, 공자는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 온축된 바를 가지고 논한다면, 또한 천만에 한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구구한 재덕을 가지고 일에 적용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성급하고 망령됨이 심하도다.

己亥.早發喚虛大師信奎拜別辭頗款曲玆平賦一詩先贈余亦次之行二十里過扞城郡治又南十里入仙遊潭登驚亭潭澹蕩窈窕而紆回有致饒菱篷魚鳥回面峰巒無麽頑之氣東與海水只隔一帶松林風帆雲濤漂搖蕩洋於碧華之上小皐蜿蜒斗入於潭中亭在其頭幽閒備灑甚可愛遵海而南六七里見小梨浦澄澣昭映與東海隔淺沙洲可賞二十餘里登清澗亭亭左夾蒼巖而東臨碧海右聯萬景樓樓較高所覽益遠板刻澤堂詩樓所負西南皐有雲根亭墟西南見雪嶽天吼山雲石清東峻俯大海水陪篴於清磵之面其賞甚壯惜平基廢也宿律村淵翁甚愛雲根有詩後有曠士必復立之

庚子.　晨起升萬景樓候日出海霞掩蔽可恨西南行二十里入華巖寺所負大山卽金剛之南爲也者官頗有石色前臨磵水東對禾巖磈磊特立數百何上有水臼十二云南陟五里許上石人臺臺上石如人並立者三處全體石也窿然而長上穿如臼篾而水積之者五六卽臺南挹天孔雪岳石角峭拔東俯三湖大海水圓湖在北永郎在中靑草在南海自通高至衮江四五百里可見聞天兵東救朝鮮時天將屯水卽湖三日歸歸時大笑而曰天下絕境嗚呼奈有何此語三淵聞之契玄云永郎旣醞藉曠潤而四岸皆白沙皐多奇石東接碧海渺漾空明西擁雪嶽天吼禾巖石人壞瑋之賞此所以天將之戀戀不能捨者乎南行十五里八襄陽天吼山繼祖窟下五里入內院又五里入新與寺皆舊賞也宿彌陀殿

庚子西溯溪七八里見臥仙臺溪水散流碧石石甚潤橫展數層三里見飛仙臺白石瑩滑長而潤高低三四層溪水側屈曲而行瀉明騰素散碧滀黛爲潭爲湍態百出而北夾金剛窟五六奇峯石體插水西瞻上雪岳之支峯南擁權金城諸秀峯西南保壑中有十餘諸詭峯人立獸起而鳥擧闖然欲馳出此其

巖巒水石之勝殆與萬瀑之眞珠碧霞相將而顧眞珠碧霞所環峯嶂面面壞巧而秀異一無稍冗者此則東西兩面頗冗長其勝劣卽玆而判矣乃三淵翁欲提此而壓眞珠碧霞可異也微獨此也土王城瀑布雖高而不及九井之十二瀑鳳頂水簾洞之雙瀑布固美矣肉外圓通及萬瀑洞皆不及而較之於九龍瀑則恐少遜而淵翁皆盛襄以爲無比雪嶽固奇壯而視楓岳高小五之一大小三之一秀色小四之一則亦伯仲之等耳顧淵翁以爲難兄難弟何哉意者淵翁主乎雪岳不免於私之故枉汝南之評邪始擬自此寺踰永矣庵溯上閉門巖宿鳳頂迤西而探進瀑之源沿雙瀑之流而看水簾洞旁入白雲洞洞水石玲瓏十五界與雙瀑甲乙云不下百潭寺經踰寒溪看大乘瀑踰五色嶺尋麒麟長谷以悉寒溪外山之賞仍道猉獜水口抵合江亭日氣斗熱山行數旬疫蒲又甚乃爲更擧之圖而而洛山寺出洞數里南見土王城瀑布巨壁曲立數百仞飛下直下爲湫於壁腰而屈折下瀉於石峯間文可千餘仞而爲左右峰巒所掩蔽可惜然自雲根永郎等地而看之菖崖素湍璀璨於夕照史可憐顧水源不豐若得大雨以狀其勢當與九龍上下至如水簾大乘刪不論緣溪而下十六七里東傍海行十里入洛山寺自高城至襄陽委曲而行三百里西入則山東出則海旣飽溪山湖海之賞而到洛山精神又頓生其奇異居可知也少憩梨花亭與李除叔從兄弟相見上義相臺入凝香閣升觀音窟所賞只一海而海色賞心隨境而別盖義相之爽豁凝香之窈窕觀音之幽說能皆移之也乎還寺宿寂嘿堂夜與玒平際叔出梨花亭呼韵初月隱映林翠之上海面沖融而自能虛白良可憂

辛丑. 晨出梨花亭上觀日出微有雲氣海靜無風不見飜紅沸赤出沒屢浴之狀而但覩大火輪踊出濛澒之上晚出寺門數界南入松林見東海廟廟左海而前漢水頗幽曠顧守護不嚴祈毗日集便成叢祠可駭西行十里登太平樓樓扃中字安平大君筆也懸楣外大字華陽先生筆也懸楣內西敷里入林泉李氏庄李上舍心甫運一會話風流詞翰皆過絕於人而索余楓岳軸余顧寂寥數章何敢唐突於大至之前耶乃誦傳若干篇運一曰昔吾遊楓岳三日之間得二百七十首何子之二十日山中顧不滿三十首也余曰千里氣頗疲倦不能縱筆山又甚奇且壯必欲爲相稱之語故不能肆筆此詩之所以無多也抑子之健筆以余之拙而何可比論耶

壬寅. 留林泉訪運一萬石亭運一求記辭以神疲見建溪書塾李氏維以厚德精基以文行顯達而諸俊進皆謹厚有文采方聚講於書塾音衿濟濟可敬夕就心甫從容語

癸卯. 西行運一同行三十里馬上呼韻皆賦五詩至西林相別戀其篤厚風流煥爛文章徘徊憫悵不忍遽上馬行四十里宿葛産

甲辰. 踰九龍嶺凡行二十里憩明紙巨里十里至印嚴卽江陵地也頗有水石之勝二十里宿渴馬潭金海達家

乙巳. 發行二十里過斗日倉十里踰德峙十里踰梨峙下洪川大兀谷時有泉石行三十五里宿劍山之蛤洞徐氏庄聞劍山之東谷有三神山瀑布蛤洞洞下流有岱嚴瀑布魚於夏又其下有玉連洞水石奇壯連文來淵云自此入棋棒亦檮一日之程云

丙午. 踰遠入峙凡三十里憩橫城之唐峴又十餘里宿柳谷李氏庄

丁未. 早出柳谷水口逢雨入草峴少避旣霽出栗洞過銅峴歷介谷倉憩中金陳氏庄歷水曰抵橫城

邑治李處士先向階嚴玆平同宿於君子堂喚獜亦同夜而山水同賞遠道同苦之餘將分袂而西東其悵然可知

戊申. 玆平先去喚麟辭退坐旅店無聊可知

己酉. 晨發歷原州階嚴聞玆平新發不過失十里云朝飯階巖夕抵寶通里

庚戌. 早發到興原

辛亥. 入安山

大抵金剛之山周回可千二百里而侔石峰嶂周回可二百六七十里大脊以東謂之外山其長可一百六十餘里以西謂之內山其長百餘里合土山石山而數其大峭可修一萬二千峯執石山而合大小峭而數之亦可得一萬二千盖十二者地方之大數也故釋氏畫懸揣金剛之言亦能自合也歟

金剛山其石之立者十蓋八九豈非地成之初其盛陽之氣團聚而炎炎直上而然歟金剛之山其東麓入海者皆奇怪而磅礴不知其蟠據據所竟料其根柢之入地者亦皆瑰瑋無比深厚無窮則其標之可見而驚動於天下者恐不過囊錐之末耳伏義之畫卦制禮大堯之政事孔子之著述其見於人者就所蘊而言之亦當爲千萬之一二矣今人抱區區之才德而欲其悉展於事盡見於世者嗚呼其躁妄之甚乎

「東行記」-『雪橋集』

안석경(숙종 44년, 1718년~영조 50년, 1774년)의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숙화(淑華), 호는 완양(完陽)·삽교(霅橋)이다. 부친 중관(重觀)의 임소(任所)를 따라 홍천·제천·원주 등지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부친은 안중관은 김창흡(金昌翕)의 문인으로 이병연(李秉淵)·민우수(閔遇洙) 등 당시 노론계 인사이다. 홍세태(洪世泰) 같은 중인 출신 시인과도 교유한 노론계 학자였다. 1752년은 과거에 응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그 해 아버지가 죽자 그는 곧 강원도 두메산골인 횡성 삽교(霅橋)에 은거한다.

삽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후반기는 도회적인 생활을 떠나 벼슬을 단념한 채 산중에 은거하였다. 저서로 『삽교집』·『삽교만록』이 있다.

348 동유기(東遊記)

가정(稼亭) 이곡(李穀)

지정(至正) 9년 기축년(1349, 충정왕 1) 가을에 장차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려고 14일에 송도(松都)를 출발하였다.

21일에 천마령(天磨嶺)을 넘어 산 아래 장양현(長陽縣)에서 묵었다. 이곳은 산과 30여 리 떨어진 지점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조반을 서둘러 먹고 산에 오르려 하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사방이 어두웠다. 고을 사람이 말하기를 "풍악(楓岳)에 구경 왔다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였다. 동행한 사람들 모두가 걱정하는 기색을 띠면서 말없이 기도를 드렸다. 산에서 5리쯤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음산한 구름이 차츰 엷어지면서 햇빛이 그 사이로 새어 나왔다. 절재(拜岾)에 오르니 하늘이 활짝 개고 날씨가 청명해졌다.

그래서 안 보이던 눈꺼풀을 떼어 내고 바라보듯 산이 선명하게 보여서 이른바 일만 이천 봉을 하나하나 셀 수가 있었다. 누구든지 이 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재에 올라서면 산이 보이고 산이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에 절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재에 예전에는 집이 없었고 돈대(墩臺) 모양으로 돌을 쌓아서 쉴 곳을 마련했었다. 그러다가 지정 정해년(1347, 충목왕 3)에 지금 자정원사(資正院使)인 강공 금강(姜公金剛)이 천자의 명을 받들고 와서 큰 종을 주조한 다음에 이 재 위에다 종각(鐘閣)을 세워서 종을 매달아 놓고는 그 옆에 승려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종 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우뚝 솟은 종각의 단청 빛이 눈 덮인 산에 반사되는 그 경치 또한 산문(山門)의 일대 장관이라고 할 만하였다.

아직 정오가 못 된 시각에 표훈사(表訓寺)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사미(沙彌) 한 사람의 인도로 산에 올랐다. 사미가 말하기를 "동쪽에 보덕관음굴(普德觀音窟)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찰을 순례할 때에는 으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골짜기가 깊고 길이 험합니다. 서북쪽에 정양암(正陽庵)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 태조가 창건한 암자로 법기보살(法起菩薩)의 존상(尊相)을 봉안한 곳입니다. 비록 경사가 급하고 높기는 하지만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 암자에 오르면 풍악의 여러 봉우리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관음보살(觀音菩薩)이야 어디에 간들 있지 않겠느냐.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대개 이 산의 형승을 보려고 해서이다. 그러니 그 암자에 먼저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비탈길을 타고 어렵사리 올라갔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으므로 마음에 매우 흡족하였다. 보덕관음굴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해가 벌써 지려 하였고 또 산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결국 신림(新林)과 삼불(三佛) 등 여러 암자를 거쳐 시내를 따라 내려와서 어스름 저녁에 장안사(長安寺)에 도착해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 산을 나왔다.

철원(鐵原)에서는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300 리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실제로 500여 리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그쪽 방향도 강과 산이 중첩한 가운데 길이 유심(幽深)하고 험

절(險絕)하기 때문에 금강산을 출입하기 어려운 것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듣건대, 이 산은 이름이 불경에 나와 있어서 천하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건축(乾竺)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이따금 와서 보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눈으로 직접 보면 귀로 들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동방의 사람들 중에 서촉(西蜀)의 아미산(峨眉山)이나 남월(南越)의 보타산(補陁山)을 유람한 자가 있었지만, 모두 소문보다 못하더라고 하였다. 내가 아미산이나 보타산은 가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본 이 금강산은 실로 소문을 능가하였으니, 제아무리 화가가 잘 그려 보려 하고 시인이 잘 표현해 보려 하더라도 이 금강산을 비슷하게라도 형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23일에 장안사에서 천마(天磨)의 서쪽 재를 넘어 또 통구(通溝)까지 와서 묵었다. 무릇 산에 들어가는 자는 천마의 두 재를 거치게 마련인데, 재에 오를 때에는 산이 바라보이는 까닭에 재를 넘어서 산에 들어가는 자들이 처음에는 험준하다는 걱정을 하지 않다가, 산에서 일단 재를 넘고 난 뒤에야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쪽 재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30여 리의 길이 무척 험하기 때문에 단발령(斷髮嶺)이라고 부른다.

24일에 회양부(淮陽府)에 와서 하루를 머물렀다. 26일에 철령관(鐵嶺關)을 넘어 복령현(福靈縣)에서 유숙했다. 철령은 본국의 동쪽 요해지로서, 이른바 "한 사나이가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 공격해도 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철령 동쪽에 있는 강릉(江陵) 등 여러 고을을 관동(關東)이라고 칭한다.

지원(至元) 경인년(1290년, 충렬왕 16년)에 반란을 일으킨 원(元)나라 대왕(大王) 내안(乃顔)의 무리인 합단(哈丹) 등의 적도(賊徒)가 패배하여 동쪽으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원나라 개원로(開元路) 등의 제군(諸郡)으로부터 본국의 관동 지방으로 난입하였으므로, 국가에서 만호(萬戶) 나유(羅裕) 등을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철령관을 방호하게 하였다. 적도가 화주(和州) 영흥(永興)와 등주(登州) 안변(安邊) 이서(以西)의 여러 고을의 인민들을 겁탈하고 노략질하였다. 그리고는 등주에 이르러 등주 사람으로 하여금 염탐하게 하였는데, 나공(羅公)이 적도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철령관을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적도가 마치 무인지경을 치달리듯 하였다. 이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인민들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산성에 올라가고 해도로 들어가서 적도의 예봉을 피하다가, 끝내는 중국 조정에 구원병을 요청한 뒤에야 겨우 섬멸할 수가 있었다. 지금 내가 본 바로는, 철령관의 험난함이야말로 한 사나이에게 지키게 하면 천 명, 만 명이 쳐다보고 공격하더라도 쉽사리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나공은 참으로 담력이 적었다고 하겠다.

27일에 등주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지금은 그곳을 화주라고 칭한다. 30일에 일찍 화주를 출발하여 학포(鶴浦) 어귀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국도(國島)를 관광하였는데, 그 섬은 해안에서 10리쯤 떨어져 있다. 서남쪽 모퉁이로부터 들어갔더니 물

가에 누인 비단처럼 흰모래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평지 5, 6묘(畝) 정도가 마치 반벽(半壁) 모양의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그 가운데에 집터가 보였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승려가 거주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 위에는 한쪽이 트인 고리처럼 산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산세가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데 덩굴 풀만 덮여 있고 또 수목도 없었으니, 얼핏 보기에 흙을 쌓아 놓은 하나의 제방 같은 인상이 들었다.

배를 타고 약간 서쪽으로 가니 단애(斷崖)와 물가의 언덕이 특이하게 변해 갔다. 단애의 바위들은 모두 직방형(直方形)으로 즐비하게 벽처럼 서 있었으며, 언덕의 바위들은 모두 평원형(平圓形)으로 배열되어 한쪽 면에 한 사람이 앉을 만하였으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다. 수백 보쯤 더 나아가니 수백 척은 될 만한 높이의 단애들이 나타났는데, 그 바위는 모두 백색에 직방형으로 장단(長短)이 한결같았다. 그리고 하나의 단애마다 그 꼭대기에 각자 하나의 작은 바위를 이고 있어서 화표주(華表柱)의 머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얼굴을 위로 들고서 쳐다보노라니 아슬아슬해서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났다.

자그마한 동굴 하나가 있기에 배를 저어 들어갔으나 점점 좁아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깊은지 측량할 수가 없었다. 그 좌우에 묶어서 세운 것 같은 바윗돌들은 외면(外面)의 것과 같았으나 그보다는 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있는 바위가 지면까지 내려오는 형태도 모두 외면의 것들처럼 평정(平正)한 것이 한 판의 바둑을 복기(復碁)하여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아서 마치 일률적으로 잘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외면만 그러할 뿐이 아니라 하나의 섬 전체가 그야말로 한 묶음의 네모진 바윗돌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 동굴 속이 하도 험하고 깊어서 사람의 혼이 떨리게 하였으므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를 돌려 북쪽으로 가니 이번에는 한 면이 둘러친 병풍과 같은 곳이 있기에, 배를 놔두고 내려가서 배회하며 더위잡고 기어오르기도 하였다. 대개 그 바위는 동굴과 다름이 없었지만 단애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아래는 조금 평이하였으며 둥근 바위가 배열된 곳에는 1,000명도 앉을 만하였으므로, 유람을 온 사람들은 으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풍랑이 일까 걱정도 되었고 게다가 그곳은 익힌 음식을 먹는 속세의 사람이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되었다.

그 석벽을 따라 동남쪽으로 다시 수백 보를 가니, 석벽의 바윗돌이 조금 특이하여 네모진 철망의 형태를 하고는 바닷물을 그 속에 담아서 조그맣고 둥근 자갈을 갈아 내고 있었는데, 길이는 5, 6십 척쯤 되었다. 서 있는 석벽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한 면은 모두 그와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일컬어 철망석(鐵網石)이라고 하였다. 이상이 국도(國島)의 대략적인 경치이다. 그러나 그 기절(奇絕)하고 괴이한 형상으로 말하면 필설로는 방불하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조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극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포구로 돌아온 뒤에 술잔을 들며 서로 치하하였으니, 하나는 승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풍랑이 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구에서 배를 저어 이른바 학포(鶴浦)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원수대(元帥臺)에 올랐는데, 100경(頃)의 맑은 호수에 한 점 고둥처럼 떠 있는 외로운 섬이 또한 하나의 기관(奇觀)이었다. 날이 이미 저물어서 더 머물 수 없기에 현관(縣館)에 들어와서 묵었다.

9월 초하룻날에 흡곡현(歙谷縣)의 동쪽 재를 넘어 천도(穿島)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 형상을 물어보았더니 "그 섬에 굴이 있는데 남북으로 뚫려서 풍도(風濤)만 서로 드나들 뿐이다. 그렇지만 그 천도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면 총석정(叢石亭)에 갈 수 있는데, 그 거리는 8, 9리쯤 된다. 그리고 총석정에서 바다를 또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면 금란굴(金蘭窟)에 갈 수 있는데, 그 거리 역시 10여 리쯤 된다. 배 안에서 보이는 승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날 바람 기운이 약간 있어서 배를 탈 수가 없기에 천도는 들어가지 못하고 해변을 따라 총석정에 갔더니 통주(通州)의 수재(守宰)인 심군(沈君)이 총석정 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바 사선봉(四仙峯)이라는 것을 보니, 바위를 묶어서 세운 듯 한 것과 그 몸통이 직방형인 것은 대개 국도의 경우와 같았으나, 다만 색깔이 검고 단애의 바위 또한 들쭉날쭉해서 가지런하지 않은 차이가 있을 따름이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건대, 네 개의 봉우리가 저마다 따로 우뚝 솟아서 깎아지른 듯 한 단애의 위용을 자랑하는 가운데, 동쪽으로는 만 리의 푸른 바다를 굽어보고 서쪽으로는 천 겹의 준령을 마주하고 있었으니, 실로 관동의 장관이었다.

예전에는 비석이 단애 위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받침돌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 동쪽 봉우리에 오래된 비갈(碑碣)이 있는데, 비면(碑面)이 떨어져 나가고 닳아 없어져서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으니, 어느 시대에 세워진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新羅) 시대에 영랑(永郎)·술랑(述郎)·도(徒)·남(南) 등 네 명의 선동(仙童)이 그 무리 3,000인과 함께 해상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비갈은 그들 무리가 세운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또한 상고해 볼 길이 없다. 사선봉에 임하니 자그마한 정자가 있기에 그 위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날이 저문 뒤에 통주(通州)에 와서 유숙하였다. 통주는 옛날의 금란현(金蘭縣)이다. 그래서 성 북쪽 모퉁이에 있는 석굴을 사람들이 금란굴(金蘭窟)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은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이튿날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들어가 멀리서 바라보니 희미하게 보살의 형상이 굴속에 서 있는 것도 같았으나, 그 굴이 워낙 깊고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배를 조종하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원조(元朝)의 사화(使華 사신)와 본국의 경사(卿士)는 물론이요, 부절(符節)을

나눠 받고 한 방면을 다스리는 자로부터 아래로 유람하며 구경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여기에 와서는 이 굴을 반드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번 나에게 배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였으므로 나로서는 정말 질리게 와 본 셈입니다. 내가 일찍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를 조종하여 혼자 굴속에 들어가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보살처럼 보이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손으로 만져 보아도 한쪽 면에 이끼가 낀 바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굴을 나와서 뒤돌아보니 또 관음보살의 형상을 방불케 하는 것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의 정성이 미흡해서 굴속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보인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자못 수긍되는 점이 있었다.

금란굴 동쪽에 석지(石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관음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또 암석이 밀집해 있는데, 아주 작은 크기의 것들이 무려 수 묘(畝)에 걸쳐 깔려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모두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이 암석들을 사람들이 통족암(痛足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개 관음보살이 발로 밟다가 통증을 느끼자 바위가 보살을 위해서 옆으로 몸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란굴을 출발하여 임도현(林道縣)에 와서 묵었다.

초사흗날에 고성군(高城郡)에 도착하였다. 통주에서 고성에 이르는 150여 리의 길은 실로 풍악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산세가 깎아지른 듯 험준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이 이곳을 외산(外山) 외금강(外金剛)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대개 내산(內山) 내금강(內金剛)과 기괴한 경치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남쪽에 유점사(楡岾寺)가 있는데, 그 절에는 대종(大鍾)과 53불(佛)의 동상이 안치되어 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 시대에 53불이 이 종을 타고 서쪽 천축(天竺)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고성의 해안에 정박하였다가 얼마 뒤에 다시 유점사까지 와서 멈추었다고 한다. 고성 남쪽에 있는 게방촌(憩房村)은 바로 금강산의 기슭에 해당하는데, 이 게방촌에서 60리쯤 곧장 위로 올라가면 유점사에 이른다. 내가 처음에는 함께 유람 온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유점사까지 가서 그 종과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다가 길이 또 험해서 말이 모두 등창이 나고 발굽을 다친 탓으로 뒤처진 자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산에 오를 수가 없었다.

초나흗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 삼일포(三日浦)에 갔다. 삼일포는 성에서 북쪽으로 5리쯤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배를 타고 서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갔는데, 그 섬은 무지개 모양의 거대한 하나의 암석이었다. 그 꼭대기에 석감(石龕)이 있고 그 안에 석불이 있었으니,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미륵당(彌勒堂)이었다.

그 단애(斷崖)의 동북쪽 벽면에 여섯 글자로 된 붉은 글씨가 보이기에 그곳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더니, 한 줄에 세 글자씩 두 줄로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술랑 남석' 네 글자는 매우 분명하였지만, 그 다음의 두 글자는 희미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옛날에 그 고을 사람이 유람 온 자들을 접대하기가 괴로워서 이 글씨를 깎아 내려고 하였지만, 5촌 가량이나 깊이 새겨져 있었던 까닭에 자획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두 글자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뒤에 배를 돌려 사선정(四仙亭)에 올라갔는데, 이곳 역시 호수 가운데의 하나의 섬이었다. 이리저리 배회하며 돌아보았더니, 이른바 36봉(峯)의 그림자가 호심(湖心)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100경(頃)쯤 되는 넓이에 맑고 깊은 물이 가득 넘쳐흐르는 이 호수의 경치 또한 실로 관동의 승경으로서 국도(國島)에 버금간다고 할 만하였다. 이때 군수가 없어서 그 고을 아전이 자그마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혼자 마실 수는 없기에 배를 준비하게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호수는 사선(四仙)이 노닐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36봉에는 봉우리마다 비석이 있었는데, 호종단(胡宗旦)이 모두 가져다가 물속에 가라앉혔다고 한다. 지금도 그 비석의 받침돌은 아직 남아 있다. 호종단이란 자는 이승(李昇)의 당(唐)나라 출신으로 본국에 와서 벼슬하였는데, 오도(五道)에 나가 순시할 적 본국에 와곳마다 비갈을 가져다가 비문을 긁어 버였 가 하면 깨뜨리기도 하고 물속에 가라앉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경(鍾磬)까지도 유명한 것들은 모두 쇠를 녹슬하용접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틀어막았다고 한다. 리고 한송정(寒松亭)과 총석정(叢石亭)과 삼일포(三日浦)의 비석, 그리고 계림부(鷄林府) 봉덕았다奉德한다의 종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그리고 선정은 박군 숙진(朴君淑眞)이 이 지역을 존무(存撫)할 때 세운 것인데, 좌주(座主)인 익재(益齋) 선생이 기문을 써 주셨다. 삼일포에서 성 남쪽의 강물을 건넌 뒤에 안창현정(安昌縣亭)을 지나 명파역(明波驛)에서 유숙하였다.

초닷샛날에 고성(高城)에서 묵어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초이렛날에 주인이 선유담(仙遊潭) 위에서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청간역(淸澗驛)을 지나 만경대(萬景臺)에 올라가서 약간 술을 마시고 인각촌(仁覺村)의 민가에 묵었다.

초여드렛날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띄웠다. 날이 기울어서 끝까지 돌아보지 못하고, 낙산사(洛山寺)에 가서 백의대사(白衣大士 관세음보살)를 참알(參謁)하였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이곳에 머문다고 하는데, 산 아래 석벽에 있는 동굴이 바로 관음보살이 들어가서 머무는 곳이란다. 저녁 늦게 양주(襄州)에 도착해서 묵었다.

그 다음날은 중구일(重九日)인데, 또 비가 와서 누대 위에서 국화 술을 들었다. 10일에 동산현(洞山縣)에서 유숙하였는데, 그곳에 관란정(觀瀾亭)이 있었다. 11일에 연곡현(連谷縣)에서 묵었다.

12일에 강릉 존무사(江陵存撫使)인 성산(星山) 이군(李君)이 경포(鏡浦)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배를 나란히 하고 강 복판에서 가무를 즐기다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포대(鏡浦臺)에 올랐다. 경포대에 예전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근래에 풍류를 좋아하는 자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또 옛날 신선의 유적이라는 석조(石竈 돌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차를 달일 때 썼던 도구일 것이다. 경포의 경치는 삼일포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만, 분명하게 멀리까지 보이는 점에서는 삼일포보다 나았다.

비 때문에 하루를 머물다가 강성(江城)으로 나가 문수당(文殊堂)을 관람하였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의 두 석상이 여기 땅속에서 위로 솟아나왔다고 한다. 그 동쪽에 사선(四仙)의 비석이 있었으나 호종단에 의해 물속에 가라앉았고 오직 귀부(龜趺)만 남아 있었다. 한송정(寒松亭)에서 전별주를 마셨다. 이 정자 역시 사선이 노닐었던 곳인데, 유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싫어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소나무도 들불에 연소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직 석조(石竈)와 석지(石池)와 두 개의 석정(石井)이 그 옆에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사선이 차를 달일 때 썼던 것들이라고 전해진다. 정자에서 남쪽으로 가니 안인역(安仁驛)이 있었다. 해가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서 재를 넘을 수가 없기에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숙박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역을 지나서 동쪽 산봉우리를 오르는데 길이 매우 험하였다. 등명사(燈明寺)에 도착해서 누대 위에서 일출을 구경하고, 마침내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여 강촌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재를 넘어 우계현(羽溪縣)에서 묵었다. 12일에 삼척현(三陟縣)에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서루(西樓)에 올라 이른바 오십천(五十川)의 팔영(八詠)이라는 것을 마음껏 살펴보고 나와서 교가역(交柯驛)에 이르렀다. 이 역은 현의 치소(治所)에서 30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그곳에서 15리를 가면 바다를 굽어보는 단애 위에 원수대(元帥臺)가 있는데, 또한 절경이었다. 그 위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는 마침내 역사에 묵었다. 18일에 옥원역(沃原驛)에서 묵었다. 19일에 울진(蔚珍)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렀다.

21일에 아침 일찍 울진을 출발하였다. 현에서 남쪽으로 10리쯤 가니 성류사(聖留寺)가 나왔는데, 그 절은 석벽의 단애 아래 장천(長川) 가에 위치하였다. 단애의 석벽이 1,000척의 높이로 서 있고 그 석벽에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는데, 그 동굴을 성류굴(聖留窟)이라고 불렀다. 그 동굴은 깊이도 측량할 수 없었지만 으슥하고 어두워서 촛불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의 승려로 하여금 횃불을 들고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는, 또 출입에 익숙한 고을 사람으로 하여금 앞뒤에서 돕게 하였다.

동굴의 입구가 워낙 좁아서 무릎으로 4, 5보(步)쯤 기어서 들어가니 조금 넓어지기에 일어나서 걸어갔다. 다시 몇 보를 걷자 이번에는 3장(丈)쯤 되는 단애가 나타났으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더니 점점 평탄해지는 가운데 공간이 높다랗고 널찍해졌다. 여기서

수십 보를 걸어가자 몇 묘(畝)쯤 되는 평지가 나타났으며, 좌우에 있는 돌의 모양이 매우 특이하였다.

다시 10여 보를 걸어가자 동굴이 또 나왔다. 그런데 들어왔던 동굴의 입구보다 훨씬 비좁아서 아예 배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기어갔는데, 그 아래가 진흙탕이었으므로 돗자리를 깔아서 젖는 것을 방지하였다. 7, 8보쯤 앞으로 나아가자 조금 앞이 트이고 널찍해진 가운데, 좌우에 있는 돌의 형태가 더욱 괴이해서 어떤 것은 당번(幢幡)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도(浮圖) 같기도 하였다. 또 10여 보를 가니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 더욱 기괴해지고 모양이 더욱 다양해졌는데, 당번과 부도처럼 생긴 것들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길고 넓고 높고 컸다.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4, 5보를 가니 불상과 같은 것도 있고 고승과 같은 것도 있었다. 또 못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매우 맑고 넓이도 수 묘쯤 되었다. 그 못 속에 두 개의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레바퀴와 비슷하고 하나는 물병과 비슷하였으며, 그 위와 옆에 드리운 번개(幡蓋)도 모두 오색이 찬란하였다. 처음에는 석종유(石鐘乳)가 응결된 것이라서 그다지 딱딱하게 굳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지팡이로 두들겨 보았더니 각각 소리가 나면서 길고 짧은 크기에 따라 청탁(淸濁)의 음향을 발하는 것이 마치 편경(編磬)을 치는 것과도 같았다.

이 못을 따라 들어가면 더욱 기괴한 경치가 펼쳐진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속세의 인간이 함부로 장난삼아 구경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에 서둘러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동굴이 많이 뚫려 있었는데, 사람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동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동굴 안을 끝까지 탐험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평해군(平海郡)의 해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거리는 대개 여기에서 20여 리쯤 된다."라고 하였다.

앞서 동굴 입구에서 옷에 훈김이 배고 더럽혀질까 걱정이 되어 동복(僮僕)의 의건(衣巾)을 빌려 입고 들어왔는데, 일단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의복을 갈아입고는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나니, 마치 화서(華胥)를 여행하는 꿈을 꾸다가 퍼뜩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물(造物)의 묘한 솜씨는 헤아릴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국도(國島)와 이 동굴을 통해서 더욱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치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면, 그 변화의 기틀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오묘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천세토록 만세토록 귀신이 공력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는가.

이날 평해군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군에 이르기 전 5리 지점에 소나무 만 그루가 서 있

고 그 가운데에 월송정(越松亭)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있었는데, 이는 사선(四仙)이 유람하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평해군은 강릉도(江陵道)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다. 강릉도는 북쪽의 철령(鐵嶺)에서부터 남쪽의 평해까지 대개 1,200여 리의 지역을 관할하는데, 평해 이남은 경상도의 경내에 속한다. 이곳은 내가 일찍이 갔다가 온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稼亭先生文集卷之五, 記)

東遊記

至正九年己丑之秋。將遊金剛山。十四日。發松都。二十一日。踰天磨嶺宿山下長陽縣。去山三十餘里。蓐食登山。雲霧晦冥。縣人言遊楓岳者。以雲霧故不見而還。比比有之。同遊皆有憂色。默有禱焉。距山五里許。陰雲稍薄。日光穿漏。及登拜岾。天朗氣淸。山明如刮。所謂一萬二千峯。歷歷可數也。凡入此山。必由此岾。登岾則見山。見山則不覺稽顙。故曰拜岾。岾舊無屋。累石爲臺。以備憩息。至正丁亥。今資正院使姜公金剛奉天子之命。來鑄大鍾。閣而懸之于岾之上旁廬桑門。以主撞擊。屹然金碧。光射雪山。亦山門一壯觀也。未午。到表訓寺小憩。有一沙彌導以登山。沙彌言東有普德觀音窟。人之隨喜必先於此。然深且阻。西北有正陽菴。是我太祖所刱。而安法起菩薩尊相之所。雖陡高而稍近可上。且登是菴則楓岳諸峯。一覽而盡。余謂觀音菩薩何所不住。余所以來者。盖欲觀此山之形勝耳。盍先往乎。於是攀緣而登。果如所言。甚愜來意。欲往普德則日已向晚。且不可留山中。遂由新林, 三佛諸菴。沿溪而下。暮抵長安寺宿。翌早出山。自鐵原至山三百里。則距京實五百餘里也。然重江複嶺。幽深險絕。出入是山。其亦艱哉。嘗聞此山名著佛經。而聞于天下。雖絕遠如乾竺之人。時有來觀者。大抵所見不如所聞。東人遊西蜀峨眉, 南越補陁者有之。皆言不如所聞。余雖不見峨眉, 補陁。所見此山。實踰所聞。雖畫師之巧。詩人之能。不可得其形容之髣髴也。二十三日。自長安寺度天磨西嶺。又至通溝宿。凡入山者由天磨二嶺。登嶺則望山。故踰嶺入山者。初不以絕險爲虞。自山而踰嶺。然後知其爲艱也。西嶺差低。登降三十餘里。陡甚謂之髮斷。二十四日。至淮陽府留一日。二十六日。踰鐵嶺關宿福靈縣。鐵嶺。國東之要害。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者也。故嶺以東江陵諸州。謂之關東。至元庚寅。叛王乃顔之黨哈丹等賊。奔北而東。自開元諸郡闌入關東。國家遣萬戶羅裕等。領其軍防護鐵關。賊劫掠和登以西諸州人民。至登州。使登人覘之。羅公聞賊來。棄關而走。故賊如蹈無人之境。一國洶洶。人被其害。登山城入海島以避其鋒。至乞師天朝。然後乃能殲之。今余所見鐵關之險。誠使一夫當之。雖千萬人仰而攻之。不可以歲月得入也。羅公眞小膽哉。二十七日。到登州留二日。今稱和州。三十日。早發和州。自鶴浦口登舟入海觀國島。島去岸十里許。入自西南隅。水際白沙如練。其上平地五六畝。形若半壁中有屋基。人言浮圖者所居也。其上山圍若玦。勢不甚高。蔓草覆之。又無樹木。視之一土坡也。舟而小西。崖岸稍異。其崖石則皆方直。櫛比而壁立。其岸石則皆平圓排列。一面可坐一人。然不整齊也。

行數百步。其崖高可數百尺。其石白色方直。長短若一。每一條其頂。各戴一小石。若華表柱頭者。仰面而視。可竦可愕。有一小窟。撐舟而入。漸窄不能容舟。視其窟。深不可測。其左右束立之石。如外面更整齊。其上石脚下垂者。皆平正如覆棋局。若一鉅而斷之者。以此觀之。則非惟外面如此。盡一島乃一束方石條也。其窟嶄岩。使人魂悸不可久留。回舟而北。又有一面如圍屏者。捨舟而下。徘徊攀緣。大槩石與窟無異。而崖不甚高。其下稍平易。其圓石排列者可坐千人。遊觀者必憩息於此。有人留飲。慮其風作。且非烟火食者所住。傍崖而東南又行數百步。崖石稍異。作方鐵網。盛水磨小圓石。長五六十尺。一條若一條。一面皆是。人謂鐵網石。此其國島之大槩者也。若夫奇絕恠異之狀。非筆舌所可髣髴也。誠不知造化者何以至于此極也。既還浦口。擧酒相賀。一以獲覩勝境。一以風浪不作也。自浦口棹舟而入所謂鶴浦者。登元帥臺。百頃澄湖。一螺孤嶼。亦一奇觀也。既晚不可留。至縣館宿。九月朔。踰歙谷縣東嶺。欲入穿島。問其狀。島有竇通南北。風濤相透而已。然自穿島絕海而南。可往叢石亭。其間八九里。又自叢石絕海而南。可往金蘭窟。其間亦十餘里。舟中勝景不可言也。是日。微有風不可舟。故不入穿島。沿海邊至叢石亭。通州守沈君相侯於亭上。所謂四仙峯者。其石束立。其條方直。大槩如國島。但其色黑。其崖石亦參差不正耳。自其上臨視之。四峯離立峭拔。斷崖嶔崟。臨東溟萬里。對西嶺千重。寔關東壯觀也。舊有碑在崖上。今不見遺跌在耳。又於東峯有古碣。剝落磨滅。無一字可識。不知何代所立也。 人言新羅時有永郎述郎徒南四仙童者。 與其徒三千人遊於海上。 此碑碣豈其徒所立者耶。亦不可得考也。臨四仙峰有小亭。置酒其上。日已晚。至通州宿。通古金蘭縣。故城北隅有石窟。人言金蘭窟。觀音菩薩所住之處。明日。乘舟並岸而入。望見之微若菩薩形像立於窟中。以其窟深且狹。故不可入。操舟者曰。吾居於此久矣。自元朝使華本國之卿士仗節剖符於方面者。下至遊觀之人。無問貴賤。必欲來觀。每令吾舟而導之。吾實厭之。嘗操小刳木獨入窟中。窮而後止。別無所見。以手捫之。一面蘚石耳。既出而回視之。則又髣髴其形像焉。噫。吾之誠有未至歟。抑其思想所致。若所謂思成者歟。余聞之。頗有頷焉。窟東有石池。人言觀音浴處。又有岩石簇簇。方寸其大。多至數畝皆欹側。人謂痛足岩。盖觀音菩薩足踏而痛。岩爲之欹側也。自金蘭至林道縣宿。初三日。到高城郡。由通州至高城。一百五十餘里。實楓岳之背。其山嶄岩險絕。人謂外山。盖與內山爭奇恠。其東南有榆岾寺。寺有大鍾與五十三佛銅像。 人言新羅時五十三佛乘此鍾。 自西天竺泛海而來泊高城海岸。既又至榆岾而止焉。高城南有慈房村。宗山麓也。由慈房陡上六十里而至榆岾。余始與同遊之人約。必至榆岾。觀所謂鍾與佛像者。行既遠路且險。馬皆瘡背病蹄。或有落後者。故不復登山。初四日。早起至三日浦。浦在城北五里許。登舟至西南小嶼。窮窿一巨石也。其頂有石龕。龕中有石佛。俗所謂彌勒堂也。其崖東北面。有六字丹書。就視之則兩行行三字。其文曰。述郎徒南石行。其述郎南石四字則明甚。其下二字。稀微不可識。昔州人苦其供給遊賞者。斲而去之。深至五寸許。字畫不滅。今其二字不明者盖以是歟。既而回舟登四仙亭

。亦湖中一島也。徙倚環視則所謂三十六峰影倒湖心。湖可百頃。澄深瀰漫。宗關東勝境。亞於國島者也。時無郡守。其州吏開小酌。不可以獨飲。命舟而出。人言此湖爲四仙所遊。三十六峯峯有碑。胡宗旦皆取而沉之。今其跌猶存焉。胡宗旦者。李昇唐之人也。來仕本國。出巡五道。所至輒將碑碣。或刮去其字。或碎或沉。至於鍾磬。有名者皆鎔鉄以塞之。使之不聲。若於寒松，叢石亭，三日浦之碑。鷄林府奉德之鍾之類。可見也。四仙亭。朴君淑眞存撫時所置。座主益齋先生爲之記。自三日浦渡城南河。過安昌縣亭宿明波驛。初五日。宿高城留一日。初七日。主人小酌仙遊潭上。過淸澗驛。登萬景臺小酌。宿仁覺村舍。初八日。泛舟永郎湖。日晩不得窮源。到洛山寺謁白衣大士。人言觀音菩薩所住。山下石崖有竇。是觀音所入處也。晩至襄州宿。明日重九。又有雨擧菊觴於樓上。十日。宿洞山縣。有觀瀾亭。十一日。宿連谷縣。十二日。江陵存撫使星山李君侯于鏡浦。方舟歌舞中流。日未西。上鏡浦臺。臺舊無屋。近好事者爲亭其上。有古仙石竈。盖煎茶具也。與三日浦相甲乙。而明遠則過之。以雨留一日。出江城觀文殊堂。人言文殊，普賢二石像從地湧出者也。東有四仙碑。爲胡宗旦所沉。唯龜趺在耳。飮餞于寒松亭。亭亦四仙所遊之地。郡人厭其遊賞者多。撤去屋。松亦爲野火所燒。惟石竈石池二石井在其旁。亦四仙茶具也。由亭而南。有安仁驛。日已西。不可踰嶺。遂留宿。明日。早發過驛。東峯甚險。至燈明寺觀日出臺。遂並海而東。憩于江村。踰嶺宿羽溪縣。十二日。宿三陟縣。明日。登西樓。縱觀所謂五十川八詠者。出至交柯驛。驛去縣治三十里。於十五里臨海斷崖上有元帥臺。亦絕景也。小酌其上。遂宿驛舍。十八日。宿沃原驛。十九日。到蔚珍留一日。二十一日。早發蔚珍。縣南十里有聖留寺。寺在石崖下長川上。崖石壁立千尺。壁有小竇。謂之聖留窟。窟深不可測。又幽暗。非燭不可入。使寺僧執炬導之。又使州人之慣出入者先後之。竇口狹。膝行四五步。稍闊起行。又數步則有斷崖可三丈。梯而下之。漸平易高闊。行數十步。有平地可數畝。左右石狀殊異。又行十許步有竇。比竇口益隘。蒲伏而行。其下泥水。鋪席以防霑濕。行七八步稍開闊。左右石益殊異。或若幢幡。或若浮圖。又行十數步。其石益奇恠。其狀益多不可識。其若幢幡浮圖者益長廣高大。又行四五步。有若佛像者。有高僧者。又有池水淸甚。闊可數畝。中有二石。一似車轂。一似淨餠。其上及旁所垂幡盖。皆五色燦爛。始意石乳所凝。未甚堅硬。以杖叩之各有聲。隨其長短而有淸濁若編磬者。人言若沿池而入則益奇恠。余以爲此非世俗所可褻玩者。趣以出。其兩旁多穴。人有誤入則不可出。問其人窟深幾何。對以無人窮其原者。或云可達平海郡海濱。盖距此二十餘里也。初慮其熏且汙。借僮僕衣巾以入。既出。易服洗盥。若夢遊華胥。蘧然而覺者。嘗試思之。造物之妙。多不可測。余於國島及是窟益見之。其自然而成耶。抑故爲之耶。以爲自然則何其機變之巧如是之極耶。以爲故爲之則雖鬼工神力窮千萬世。而亦何以至此極耶。是日到平海郡。未至郡五里。有松萬株。其中有亭曰越松。四仙之遊偶過於此。故名焉。平海郡者。江陵道之南界也。北自鐵嶺。南盡平海。盖一千二百餘里也。平海以南則慶尙道之界。予嘗所往還者。玆不

錄云。
(稼亭先生文集卷之五, 記)

349 금강일기(金剛日記- 石谷散稿)

이규준(李圭晙)

당나라 사람의 말 가운데, "고려국(高麗國)에 태어나 금강산(金剛山)을 한 번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으니, 금강산은 천하의 산이다. 나 석산인(石山人)은 사촌동생 수(修)가 관동(關東)에 유람 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가서 그를 찾아보고 겸해서 금강산도 보고자 하였다.

출발하자 정선조(鄭先祚)가 따라 나섰다. 걸어서 곡강(曲江) 40리에 도착하니, 사백(舍伯) 및 여러분들과 전별시를 지었다. 북쪽으로 영해(寧海)를 지나 평해(平海)에 들어갔다. 이곳은 바로 강원도의 남쪽 경계이다. 군(郡)에서 동쪽으로 7리 떨어진 바닷가에 월송정(月松亭)이 있는데, 관동 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써 일본과 지척이요, 한없이 넓은 금빛 물결과 명사십리(明沙十里), 사계절이 비취빛 병풍을 이룬 곳이 월송정의 뛰어난 경치라고 하겠다. 울진(蔚珍) 경계를 지나니 석등현(石磴縣)이 있다. 해안이 있는데 지대가 평평하여 백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이 망양정(望洋亭)의 옛터이다. 오직 남아 있는 것은 노송 수백 그루로써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만 리나 끝없이 펼쳐져 회포를 풀 수 있어 망양(望洋)이라는 시를 지었다. 삼척(三陟)을 지나 소공령(召公嶺)에 오르니 고개와 언덕이 길게 이어져 30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고개의 이름은 관찰사가 순찰한다는 의미에서 따온 것이다. 죽관도(竹串島)를 지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동해비(東海碑)를 보고 삼척읍(三陟邑)에 들어갔다. 삼척군 서쪽에는 죽서루(竹西樓)가 있는데 오십천(五十川)이 합쳐져 흐르고 절벽이 수백 척인데 돌 위에 누각을 세워놓았다. 올라가서 다리를 쉬고 공경스럽게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판상운(板上韻)에 차운하였다.

17일.

북쪽으로 강릉(江陵) 병산촌(柄山村) 반정리(半亭里)에 가서 사촌동생을 만나 손을 잡고

곡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집과의 거리는 570리이다. 사흘을 묵고 서북쪽으로 강릉부(江陵府)를 지나 7리를 가 오죽헌(梧竹軒 ; 烏竹軒)에 들어가 율곡 선생이 탄생한 곳을 보았다. 계곡과 산이 구불구불하고 유풍(遺風)은 맑고 깨끗하였다. 동쪽으로 3리를 내려가 경포대(鏡浦臺)에 올라가니 들판의 물이 호수를 이루고 주변이 10리에 달하며 바다의 모래가 둑을 만들었다. 호수는 깊지도 얕지도 않은데 거울처럼 조용하고 맑았다. 호수 구비에는 대(臺)가 있고 대 위에 활터를 만들었는데 비단처럼 아름다워 눈을 놀라게 하였다. 이어서 현판 위에 있는 운(韻)에 차운하고 서북쪽으로 양양(襄陽)을 지나 북쪽으로 20리를 가 낙산사(洛山寺)를 찾았다.

낙산사는 해안 산봉우리 위에 있는데 수많은 소나무들이 사방을 막고 있어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으며, 절 아래의 해안에는 바위 구멍이 뚫려 균열이 생기고 깊이를 알 수 없다. 양쪽 해안에 작은 암자 하나를 세워 놓았는데 매번 풍랑이 드나들 때마다 난간과 누각 아래에서 금석(金石)이 쟁쟁 울리는 소리를 내고 튀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훌륭한 경관이다.

서북쪽으로 간성(杆城)을 지나 청간정(淸澗亭)을 찾았는데 정자는 남아 있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은 계곡의 맑은 물결 뿐이었다. 애암포(崖巖浦)를 지나는데 바위돌 가운데에는 위 아래가 맷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서로 몇 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돌멩이를 그 사이에 두고 밤을 지나면 반드시 갈리기 때문에 자마석(自磨石)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명사포(名沙浦)에는 10리나 되는 흰 모래가 펼쳐져 있는데 밟으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 또한 모두 기이한 일이다. 서북쪽으로 고성(高城)의 경계에 이르니 10리에 걸쳐 해안이 펼쳐져 있는데 돌의 형세가 험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 해금강(海金剛)이라고 불리운다. 돌 모양이 배를 엎어놓은 것 같았는데 세속에서는 53개의 부처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하여 비로소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한다.

唐人有言曰.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則金剛. 天下山也. 石山人. 以其從弟脩. 客遊關東不返. 將往搜之. 因觀金剛山

壬寅之四月初七日丁酉. 啓裝. 鄭先祚從之. 行至曲江四十里. 與含伯及諸賢. 賦錢別. (詩見上) 北過寧海入平海. 乃江原道南境也. 郡東七里海上. 有月松亭. 稱爲關東八景之一也, 扶桑咫尺. 萬頃金波. 明沙十里. 四時翠屛. 月松亭之勝景也. 過蔚珍境. 有石嶝縣. 在海岸. 其上土平, 可坐百人云, 是望洋亭舊址也. 惟有古松數株. 登臨騁眺. 萬里無邊. 足以暢懷. 賦望洋. 過三陟. 登召公嶺. 嶺岡長延. 登降三十里. 嶺名. 取道伯巡察之義也. 過竹串島. 見眉叟許先生東海碑. 入三陟邑. 君西有竹西樓. 五十川. 合而成匯. 絕壁百尺. 架石起樓. 登臨歇脚. 敬次栗谷先生板上韻.

十七日. 北至江陵柄山村半亭里. 得從弟. 握哭相叙. 距家五百七十里. 留三日. 西北過江陵府. 行七里入梧竹軒. 觀栗谷先生胎地. 溪山宛轉. 而遺風漢然. 東下三里. 登鏡浦臺. 野水成

湖. 彎回十里. 海沙成堤. 湖水不深不淺. 淨明如鏡. 湖曲有臺. 臺上起榭. 綺麗駿矚. 因次板上韻. 西北過襄陽. 北二十里. 尋洛山寺. 寺在海岸峰上. 萬松四塞. 人境似絕. 寺下海岸. 岩穴坼裂. 深不可測. 兩岸架一小庵. 每風浪出入時. 聞金石噌吰踊躍放欄閣之底. 是爲奇觀也. 西北過杆城. 尋淸澗亭. 亭不存. 但見澗水淸流而已. 過崖岩浦. 有岩石. 上下如磨扇. 相離數寸. 人以石子. 置放其間. 經夜. 必銷磨. 名云自磨石. 又有鳴沙浦. 十里白沙. 踏則步步生聲. 亦皆異事也. 西北至高城境. 十里海岸. 石勢崎崛. 入于海中. 稱爲海金剛. 有石如覆舟. 諺傳五十三佛. 石舟渡海. 抵此. 始入金剛山.

「金剛日記」- 『石谷散稿』

이규준(철종 6년, 1855~1923년)의 자는 숙현(叔玄), 호는 석곡(石谷)이다. 원래 유학자로서 경사자집(經史子集)에 능통하였다. 명말 청초에 중국에 와 있던 야소회사(耶蘇會士)들이 편술한 한역서(漢譯書) 등을 읽고 서양의 역법(曆法)을 논한 《포상기문 浦上奇文》(1책), 수학(數學)을 논한 《구장요결 九章要訣》(1책)을 발표하였으며, 그밖에도 《신교술세문 新敎術世文》(1책), 《석곡산고 石谷散稿》(2책)들을 세상에 전하였다. 의학연구에 전념하여 《황제소문절요 黃帝素問節要》(2책), 《본초 本草》(상·하 2책)와 《동의보감》을 다시 연마한다는 뜻에서 《의감중마 醫鑑重磨》(3책)를 발표하였다.

350 망양정기(望洋亭記)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내가 소싯적부터 글짓기를 좋아하여, "글은 배워서 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옛사람의 책들을 구하여 읽었는데, 마음에 기억하고 입으로 독송하기를 오래 한 다음 시험 삼아 써 보았더니 글은 비록 이루어졌으나 비루하여 보잘 것이 없었다. 이윽고 생각해 보니, 글이란 기(氣)가 주가 되므로 기가 충실하지 못하고서 글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옛날에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사해(四海)의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여, 기에서 얻어 말로 나타내었던 까닭에 그 글이 소탕(疎宕)하고 기건(奇健)하여 변화가 무궁한 것이다. 나는 치우친 땅에 태어났는데 그나마 나라 안의 기이한 경관들도 다 보지 못하였으니, 글이 이처럼 조잡함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하겠다.

그 후 영동(嶺東)으로 귀양 오는 길에 낙산(洛山)을 지나면서 일출(日出)을 보고, 임영(臨瀛) 강릉(江陵)의 고을을 지나면서 경포대와 한송정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보고, 소공대(召公臺)를 지나면서 아스라이 먼 울릉도의 자태를 바라봄에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망양정에 올라,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깊어 그 크기가 밖이 없고 그 넓이가 가이 없고 그 깊이가 끝이 없음을 본 뒤에야, 비로소 평생의 장관을 유감없이 다하여 호호탕탕한 흉중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듯 느껴졌다. 온갖 시내가 도도히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기(氣)는 반드시 본원(本源)을 길러야 하며 문장은 혼후(混厚)하고 심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삼광(三光 해,달,별)이 하늘을 돌아 쉼 없이 출몰하는 것을 보고는 기는 간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장은 순실(純實), 맹건(猛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교룡과 고래가 물기둥을 뿜고 사납게 날뛰는 것을 보고는 기는 모쪼록 웅용(雄勇)해야 하고 문장은 동탕(動盪), 발월(發越)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신기루와 오서(鰲嶼 신선이 산다는 섬)가 숨었다 나타났다 멀리서 명멸하는 것을 보고는 기는 모쪼록 침착해야 하고 문장은 기고(奇古), 유묘(幽眇)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노한 풍랑이 울부짖으며 지축을 뒤흔들고 은산(銀山)과 옥봉(玉峯), 소거(素車 흰 수레)와 백마(白馬)의 모습을 한 파도가 눈과 얼음 같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좌충우돌로 마구 치달리는 광경을 보고는 기(氣)는 모쪼록 능려(凌厲)해야 하고 문장은 참절(嶄截), 준발(峻拔)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람이 잠들고 물결이 잔잔하여 수면이 잘 닦은 거울 같고 위에는 오직 하늘, 아래에는 오직 물뿐이어서 달빛이 언뜻언뜻 비치는 가운데 물과 하늘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는 기는 모쪼록 응정(凝定)해야 하고 문장은 부박(溥博), 연홍(淵泓)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천지의 사이에 만물의 변화로서 놀랄 만하고 기쁠 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만하고 슬퍼하게 할 만한 것들을 이 정자 위에서 남김없이 거두어 잡아 나의 기운을 돕는다면, 문장으로 발휘되는 것이 뭇 체식(體式)과 온갖 자태를 모두 갖출 터이니, 예전에 기송(記誦)하고 표절하기만 일삼던 것과 비교하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아, 내가 미미한 일신으로 정자에 올라 천지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니 나의 존재가 겨나 하루살이보다도 더 보잘 것이 없건만, 높푸른 하늘과 드넓은 땅, 아득한 바다와 수많은 만물이 갖가지 괴이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슴 속으로 달려 들어와 나의 작용이 되지 않음이 없은즉, 그 또한 장엄하다 하겠다. 이에 한 호리병의 텁텁한 막걸리를 자작(自酌)해 마시다 취해 창안(蒼顔) 백발로 정자 위에 쓰러져 누우면 천지가 일개 이부자리이고 창해가 일개 도랑이고 고금이 일개 순간이라, 시비니 득실이니 영욕이니 희비니 하는 따위는 남김없이 융해되고 세척되어 저 홍몽(鴻濛)한 혼돈의 세계에서 조물주와 서로 만나게 되니, 그 또한 통쾌하다 하겠다. 그 장엄함이 이와 같고 그 통쾌함이 이와 같고 보면,

기가 어찌 충실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결핍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뒤에 붓을 잡고 종이를 펴서 시험 삼아 내 흉중에 간직한 것을 쓴다면, 그 글을 보고 필시 무릎을 치며 탄복하는 이가 있을 터이니, 오늘 이 정자에서 얻은 바가 훌륭하지 않겠는가. 정자는 군(郡) 북쪽 30리 거리의 바닷가 깎아지른 벼랑 위에 있는데, 고인이 된 군수 채후(蔡侯)가 세운 것이다.

모년 모일에 기(記)를 쓰노라.

望洋亭記

余自少時。喜爲文辭。以爲文可學而能也。求古人之書而讀之。記於心而誦於口。久之。試書之。文雖成而陋不足觀。旣而思之。文者。以氣爲主。氣之不充而能爲文者未之有也。昔太史公周覽四海名山大川。得於氣而發於言。故其文疏宕奇健。變化無窮。余則生乎偏方。而亦不能盡國中之奇觀。無怪乎文之鹵莽如是也。及謫嶺東。過洛山而觀日出。過臨瀛而望鏡浦寒松之勝。過召公臺而望蔚陵之縹緲。中心已自喜幸。而及登望洋亭。見天容海色之蒼然淵然。而其大無外。其闊無涯。其深無極。然後始有以盡平生之壯觀。而浩浩乎匈中。若與曩時異矣。百川滔滔。日夜不止。則知氣之必養其本原。而爲文不可不混厚深遠。三光繞天。出沒無停。則知氣之不使有間斷。而爲文不可不純實猛健。蛟龍鯨鯢。噴薄紛挐。則知氣之務要雄勇。而爲文不可不動盪發越。蜃樓鰲嶼。隱現明滅。則知氣之務要沈着。而爲文不可不奇古幽眇。風濤怒號。振撼坤軸。銀山玉峯。素車白馬。橫馳逆走於雪花氷雹之中。則知氣之務要凌厲。而爲文不可不巉截峻拔。風恬波靜。鏡面如拭。上有一天。下有一水。而水天相涵於空明有無之中。則知氣之務要凝定。而爲文不可不溥博淵泓。凡天地之間。萬物之變。可驚可愕。可喜可娛。使人憂。使人悲者。無不收攬於是亭之上而助吾之氣。則其發於文者。衆體百態。無不兼備。而其視前日之記誦剽竊者。果何如也。噫。以眇然之身。登亭而俯仰。則不啻如糠粃蜉蝣之微。而天之蒼蒼。地之茫茫。海之浩浩。物之林林。百怪千變。無不驅入於方寸之中。而爲己之用。則其亦壯矣。一壺村釀。自酌自飮。蒼顔白髮。兀然頹於其中。則天地一衾枕也。滄海一溝瀆也。古今一須臾也。是非也得喪也榮辱也欣戚也。無不消融蕩滌。而與造物者相揖於混沌鴻濛之域。其亦快矣。其壯也如是。其快也如是。則氣焉有未充。又焉有餒之者乎。然後把筆伸紙。試書吾胸中之所有。則其必有擊節而嘆賞者矣。余之有得於是亭者。不其韙歟。亭在郡北三十里濱海斷岸之上。故太守蔡侯所建云。

月日。記。

『鵝溪遺稾』卷之三, 箕城錄, 雜著

襄陽의 漢詩

◆◆◆

2010年 12月 20日 印刷
2010年 12月 30日 發行
발행자 : 양양문화원 원장 **양 동 창**
번역자 : 강원도립대학 **양 언 석**
발행처 : 양양문화원
인쇄처 : 대양프리컴